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1211-14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23. 12.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23. 12.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영 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최 인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가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소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 호 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미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도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 진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연 구 보 조 : 이 지 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2023년 가족실태조사 개요

□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가족실태조사)[1]에 근거하여 실시됨

○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관련 가치관 및 인식과 가족 관계 등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한국 가족 변동을 진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2005년 제1차 조사 이후 2020년 제4차 조사까지 매 5년 주기로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 5. 19)으로 3년 단위로 조사 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제5차 조사는 2023년에 실시됨

□ 2023년 「가족실태조사」의 표본 규모는 전국 12,000가구이며, 조사 대상자는 표본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가구원임

○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CAPI를 활용함. 조사 기준 시점은 2023년 6월 1일이며, 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1일 ~ 7월 31일임

〈표 1〉 조사 개요

ㅇ표본 규모 - 목표 가구: 12,000가구 내외 ㅇ조사 대상: 가구 및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가구원 ㅇ기준 시점: 2023. 6. 1. 0시 ㅇ조사 기간: 2023. 6. 1. ~ 7. 31 ㅇ조사 방법 - 전문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 (가구원 조사 한정) 비대면 자기기입식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ㅇ조사 도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 (인출일자: 2023.8.25.)

□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 항목 체계는 다음 〈표 2〉와 같음. 조사표는 가구 대표용과 가구원용 2종이며, 가구 공통 사항 4개 영역, 개인 사항 7개 영역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함

〈표 2〉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 항목 체계

구분	영 역	주요 조사 항목
가구 대표	H. 가구/가족원 명부	가구원 수, 동거 가구원 수, 동거 가구원 정보, 분거 가족원 수 등
가구 대표, 가구원 공통	Ⅰ. 개인 관련 사항	성별, 교육 수준 등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의 정의, 가치관, 부양·돌봄 책임, 가족 의례 등
	Ⅲ. 가족형성과 변화	혼인 상태, 비혼 동거, 자녀 유무 등
	Ⅳ. 가족 관계	- 가족 관계 만족도 - 배우자 관계 (배우자 관계 의미, 의사소통, 의사결정, 자녀돌봄 분담, 가사수행 분담, 갈등 경험, 전반적 관계 만족도) - 청소년 자녀 관계 (양육 어려움, 의사결정, 관계 만족도 등) - 성인 자녀 관계 (상호 도움, 접촉 빈도, 관계 만족도 등)
	Ⅴ. 일	근로 여부, 고용 형태, 일·생활 균형 어려움 등
	Ⅵ. 가족 생활과 노후 생애 설계	가사 노동 참여, 가족 여가, 생애 설계, 노후 희망 주거, 노후 경제적 준비, 노후 돌봄자에 대한 기대
	Ⅶ. 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 지원 서비스 인지도, 가족 지원 서비스 수요, 일·생활균형 정책 수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인식 등
	Ⅷ. 가족 돌봄(가구원)	가족 돌봄 여부, 돌봄대상자
가구 대표	Ⅷ. 가족 돌봄	- 영유아 자녀 돌봄(돌봄기관, 돌봄자, 돌봄 필요시간대 등) - 초등학생 자녀 돌봄(돌봄기관, 돌봄자, 나홀로 시간, 돌봄 필요시간대 등) - 함께 사는 가족원 간병 돌봄(돌봄대상자, 주돌봄자,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Ⅸ. 1인 가구	1인 가구 형성 사유, 생활비 및 주거 마련 방법, 따로 사는 가족 부양과 돌봄, 간병돌봄 수혜 여부, 생활상 어려움, 혼자 살 의향, 지원 욕구, 생활 만족도 등
	Ⅹ. 가구 특성	가정 건강성, 주택 유형, 소득, 지출 등

2. 제5차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가.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응답 가구의 세대 및 가족 형태

○ 세대 구성은 2세대 가구 39.6%, 1인 가구 33.6%, 1세대 가구 25.1%임. 가구 구성은 1인 가구(33.6%) - 부부+자녀 가구(33.2%) - 부부 가구(24.3%) 순임

□ 가구원 특성

○ 동거 가구원의 가구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본인 44.5%, 배우자 26.0%, 자녀 25.4%이며, 기타 동거인 중 비혼 동거로 응답한 경우는 0.1%임

- 전체 조사 가구 중 비동거 가족원이 있는 경우는 23.3%이며, 비동거 사유는 직장(취업) 54.5%, 학업(학교, 취직 준비 등) 10.8% 등임

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의 범위와 가족의 정의

○ (‘우리 가족’의 범위) 자녀(91.3%),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 90.6%), 부모(86.6%), 형제자매(71.9%) 순으로 2020년 제 4차 조사 대비 자녀(5.9%p)와 배우자(7.1%p) 응답 비율은 증가하고 부모(-0.8%p) 응답 비율은 소폭 감소

○ (가족의 정의) ‘가족은 혈연관계’(87.4%),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3.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동거여부 관계없음)’(79.0%),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72.8%),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67.8%),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9.7%)의 순

□ 가족 가치관

○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인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47.4%),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34.6%),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31.9%),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29.7%),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28.1%),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22.1%),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입양하는 것’(20.0%)의 순으로 동의 비율 나타남

- 비혼 독신, 이혼이나 재혼, 무자녀, 비혼 동거 등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혼 출산이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입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보임

○ (가족 의례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동의 비율은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58.9%),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58.5%),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55.2%), '가부장적 가족 호칭의 개선'(45.2%),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35.1%)의 순으로 대체로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33.6%), '가사는 주로 여성' (26.4%),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21.6%).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18.8%) 등 동의 비율이 높지 않음

□ 가족 부양 인식

○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인식)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동의 비율 25.4%, '나이 든 부모 경제적 부양' 동의 비율 40.8%로 나타남. 부모의 자녀 책임 관련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자녀 취업까지 책임'(44.6%)이 가장 높고, 다음은 '자녀 결혼 준비 비용 책임'(26.1%)이며, '자녀 결혼 이후에도 책임'(16.3%)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음

○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동의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69.2%),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65.4%),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61.4%),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58.9%),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54.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45.3%)의 순

다. 가족 형성 및 변화

□ 혼인 상태

○ (혼인상태) 가구원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57.9%, 미혼 29.7%, 사별 7.9%, 별거·이혼 4.5%으로 나타남

○ (혼인신고 여부와 혼인신고 계획) 유배우자 중 혼인신고 하지 않음 비율은 1.2%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 계획 있음 57.7%, 없음 42.3%임.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62.0%)이 여성(52.8%)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

□ 비혼 동거 사유와 동거로 인한 어려움

○ (비혼 동거 사유)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유는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가 28.0%로 가장 많고, '경제적인 이유'(25.7%),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2.6%)' 순임

○ (동거로 인한 어려움)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이 더 높은데 경험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29.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24.8%) 등임

라. 배우자와의 관계

□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미, 의사소통

○ (배우자에 대한 관계 및 인식)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각각 79.0%, 83.1%로 2020년에 비해 다소 높았음. 또한, 2023년 신규항목으로 측정한 배우자의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율은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 79.0%,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 78.2%,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 79.7%,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 79.1%로 나타남. 한편, '배우자는 함께 하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16.9%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47.5%로 '20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는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나 '20년(46.9%)과 비교할 때 증가함

□ 배우자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가족 내) 역할·돌봄 분담

○ (부부의 의사결정과 가사수행) 자녀교육, 투자와 자산관리, 취업, 직장 이동, 내부모 돌봄, 배우자 돌봄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을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이러한 분담 형태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만 12세 미만 자녀돌봄 분담 및 만족도)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의 경우, '20년 조사와 비교할 때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함께 놀아주거나 책 읽어주기, 생활 습관 등 훈육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으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자녀 등하원/등하교,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등은 '20년, '23년 모두 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3.7%, '보통' 28.6%,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7.8%로 나타나 '20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증가함

□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로, 2020년의 '있다'(47.8%) 응답률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함

○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1순위)는 배우자의 생활습관 24.3%,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21.9%, 경제적 문제 18.8%, 자녀 교육 문제 14.0%, 가사와 육아분담 6.7% 순으로 나타남.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부 순위에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함

○ (이혼 및 헤어짐 고민 경험)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간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로 '20년 조사 대비 약 6.3%p 감소함

○ (부부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6.2%로 '20년 조사의 57.0% 보다 높아짐

마.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청소년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1순위로 학업성적(24.5%)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문제(18.5%), 경제적 부담(16.8%) 순임

-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학업성적이며,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은 친구 관계(2.8%)로 나타남

□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부모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은 2020년 28.1%에서 2023년

48.3%로 큰 폭(20.2%p)으로 상승함

○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항에 대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은 2020년(아버지에 대해 25.2%, 어머니에 대해 49.2%) 대비 2023년(아버지에 대해 38.7%, 어머니에 대해 64.7%) 상승함

□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사 존중

○ 부모 관점에서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 시 청소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 대비 12.5%p 상승했지만, '자녀의 진학 학교', '희망 진로(직업) 결정할 때' '그렇다'는 응답 비율 변화량이 각각 -3.4%p, -3.8%p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청소년 자녀의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응답 비율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동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대비 2023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증가함

- 특히 아버지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동의 비율이 2020년(49.4%) 대비 2023년(68.4%)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응답 비율이 아버지에 대해 73.4%, 어머니에 대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부모-청소년 자녀 함께 보내는 시간

○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평일보다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간 평일 및 주말 하루에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응답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부모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평일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 조사 결과, 30분 미만(34.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주말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이상(34.8%)이 가장 많이 응답함

-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와 평일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 조사 결과, 30분 미만(3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이상(38.9%)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 전반적 만족도

○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전체 70.5%로 나타남

○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아버지에 대해 74.6%, 어머니에 대해 89.8%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바.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부모 입장에서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

○ (부모와 성인 자녀의 상호 지원과 수혜 여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움 및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모두 '경제적 도움',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등 도구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서적 지원(61.4%)', '가사 등 집안일 도움(20.1%)', '경제적 도움(14.8%)', '가족원 돌봄(9.0%)' 순으로 집계됨
- 항목별로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정서적 지원(63.0%)', '경제적 도움(32.7%)', '가사 등 집안일 도움(16.5%)', '가족원 돌봄(6.4%)' 순

○ (연령별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상호 지원)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중은 50세 미만 및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70세 이상 응답자들에게서 높음

-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도움은 모든 연령에서 정서적 지원을 주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모 연령이 낮은 50세 미만은 가사 및 집안일 도움(38.7%)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 성인 자녀에게 받는 도움 또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70세 이상(52.9%)이, 가사 및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은 50세 미만(25.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 (성인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에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고,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65.4%),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55.6%),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54.4%),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46.5%)의 순

-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동의 비율이 낮고,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만나는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 36.8%로 가장 많고,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41.2%)이 가장 많아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더 높았음

-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만나는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36.8%)', '일 년에 몇 번(30.6%)', '일주일에 한두 번(8.8%)' 순임
-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41.2%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 달에 한두 번(23.0%)', '거의 매일(16.9%)' 순으로 나타남
- '20년 제4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만나는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많아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감소함. 반면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과 '한 달에 한두 번' 모두 많아져, 만남 빈도는 줄어들고 연락 빈도는 소폭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음

○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76.8%

-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하는 비율 높음
- '20년 제4차 조사 대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의 비율은 13.6%p 증가함('20년 63.2% → '23년 76.8%)

□ 만 25세 이상 성인 자녀 입장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 (나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만 25세 이상 성인의 따로 사는 부모님과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33.0%)이, '만나는 정도'는 '일 년에 몇 번'(36.8%)이 가장 많음

- '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많지만 '거의 매일' 응답이 줄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많아짐. 만남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한두 번'이 많아져 만남 빈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연락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27.8%)이, '만나는 정도'는 '일 년에 몇 번'(35.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연락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과 '일주일에 한두 번' 응답 비율이 높아져 연락 빈도는 소폭 빈번해졌으나 만남 빈도는 '일 년에 몇 번' 응답 비율이 크게 높아져 만남 빈도는 줄어든 것을 의미함

○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님'에 비해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게 나타남

-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65.5%),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64.1%),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62.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57.2%)에 대한 동의 비율은 60% 이상이며,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41.9%)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 비율이 높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28.3%),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25.7%) 등 모든 항목에서 나의 부모님보다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여성(30.0%)이 남성(26.8%)보다 높고 다른 항목은 남성과 여성의 동의 비율에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 (성인 자녀와 부모의 상호 지원)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응답 및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4가지 영역 모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모두 '배우자의 부모님'보다는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이 나의 부모님은 70.6%, 배우자의 부모님은 47.5%로 가장 높았음. '20년 제4차 조사 대비 부모님 스스로 해결 비중이 나의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모두 높아짐

○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에 비해서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아버지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57.4%, 어머니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78.1%임

사.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 설계

□ 일 : 고용 형태와 근무시간

○ (취업 여부) 만 12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취업 여부는 취업이 61.3%, 미취업이 37.7%를 차지했으며, '20년 조사 결과와 경향성이 유사

-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부터 50대까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인 비율이 높았음

○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0.3%), 임시근로자(11.8%) 순으로 나타남

- 남성, 20대부터 40대까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같은 안정적인 고용 형태의 비율이 높았음

○ (주 평균 근무시간) 40~52시간 미만이 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35~40시간 미만(22.9%), 52시간 이상(8.3%) 순이었음

- 남성, 20대부터 50대까지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인 집단의 경우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일과 생활의 균형

○ (일과 생활 균형) 일과 생활의 어려움을 총 7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각각의 동의 비율이 대부분 25% 미만으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점수를 보면,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2.68점),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2.57점)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족생활뿐 아니라 개인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가사 노동 참여

○ (가사 참여 여부) 만 12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가사 노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의 54.0%, 여성의 87.4%가 가사 노동에 참여해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았음

- 5개 항목 중 여성은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63.4%)를 제외하고 80%에서 90%까지의 참여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남성은 청소·정리 항목에서 70.7%의 참여율을 보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당 평균 횟수와 회당 평균 소요 시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더 오래 가사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음식 준비'의 경우 남성은 4.4회, 1회당 30.1분인데 반해, 여성은

9.4회, 1회당 41.5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를 기혼 유배우자로 한정하면 남녀의 가사 노동의 불균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 노동은 비맞벌이 여성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고 비맞벌이의 경우 부부의 가사 노동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로 '20년 조사와 유사함

□ 가족 여가

○ (가족 여가 활동) TV/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이 평일(59.9%)과 휴일(38.5%)에 가장 많이 하는 가족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남.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TV/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59.9%), 하지 않음(24.5%), 산책(6.0%)을 가족 여가활동으로 주로 하고, 휴일에는 TV/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38.5%), 외식(15.2%), 하지 않음(14.1%), 산책(7.9%)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여가 시간) 평일에는 30분 미만(30.9%), 휴일에는 3시간 이상(39.0%)을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일의 경우 '20년 1~2시간 미만, 30분~1시간 미만 순으로 높았던 결과와 비교할 때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0년과 코로나 19 이후 '23년의 차이로 보임

○ (가족 여가시간의 충분성)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은 35.6%로, 20대부터 50대까지, 이혼·별거 혹은 미혼, 사별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 부족이 7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부재(17.0%)와 비용 부담(7.2%) 순으로 나타나 가족이 함께 할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가족 여가 인식) 가족여가에 대한 인식을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족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60% 내외로 높게 나타남.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62.4%),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57.9%),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들과 더 친밀해졌다'(60.0%)로 나타남
-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31.5%),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37.1%),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20.0%)로 나타남

□ 노후 생애 설계

○ (생애 설계 준비도) 생애 설계에 대한 준비 정도를 결혼 계획과 준비, 자녀계획, 직업 계획과 준비, 여가 설계, 재무 설계, 은퇴/노후 설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해 분석한 결과 '20년도 비교할 때 전체 항목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진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은퇴/노후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이 중간 수준인 3점(보통이다)을 넘지 못해서 대체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음

-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학력일수록 준비 정도가 비교적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가족형성과 관련한 20대 청년층의 준비 정도가 유독 낮았고,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여가뿐만 아니라 재무, 은퇴/노후설계 준비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의 경제적 준비) 응답자의 59.2%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40.3%), 준비할 능력이 없다(38.0%)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40% 정도는 자원 부족으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노후 희망 거주 공간) 노후에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이 아닌 '집에서'(74.9%)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75.5%)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0대에서 60대까지, 유배우, 고학력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반면, 20대 중후반과 70세 이상, 미혼/이혼·별거/사별, 학력이 낮을수록 '나 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노후에 도움받을 존재) 가족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보미 18.4%,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민간돌보미/서비스 8.1% 순으로 나타남

- 남성, 40대 이상 집단, 유배우자 집단에서 가족이 돌봐줄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고연령층, 미혼/이혼·별거/사별, 중졸이하 집단에서 공공서비스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음

아. 가족원 돌봄

□ 가구원의 돌봄

○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여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비혈연 관계의 사람도 포함)을 장기적·지속적·정기적으로 돌보고 있음 2.6%

○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대상 및 동거 여부)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대상은 '나의 부모' 46.9%, '자녀' 16.1%, '배우자' 15.9%, '배우자의 부모' 14.3%의 순. 돌봄 대상과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함께 살고 있음' 60.4%, '따로 살고 있음' 24.7%

□ 취학 전 영유아 돌봄

○ (기관 이용 영유아 돌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취학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 경우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 이용 79.7%임

-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 80.5%, '아이의 외조부모' 7.2%, '아이의 친조부모' 3.4%의 순

○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봄)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가 88.5%임

-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경우 영유아 주돌봄자의 돌봄 시간은 평일 평균 14.3시간으로 나타남

○ (긴급돌봄 조력자)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 49.9%, '아이의 외조부모' 21.1%, '아이의 어머니' 9.7%, '아이의 친조부모' 9.6%의 순

- '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긴급돌봄 조력자로 '아이의 아버지'의 비율이 32.1%에서 49.9%로 약 17.8%p가 증가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돌봄이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임

○ (평일 영유아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평일 중 영유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로는 '4시~5시'가 61.0%, '5시~6시' 59.6%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음

-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저녁 7시에 다시 감소

□ 초등학생 돌봄

○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보내는 곳)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 75.2%, '집에서 지냄' 11.7%, '초등 돌봄교실' 5.7%의 순

- '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020년의 37.7%에서 2023년에는 75.2%로 37.5%p 증가

○ (초등학생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하루 평균 시간은 '없음' 47.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6.8%, '30분 이상~1시간' 1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9.0%의 순

○ (평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평일 중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5시~6시' 61.5%, '4시~5시' 54.4%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음

- 영유아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5시~6시'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4시~5시'보다 높게 나타났음.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저녁 7시에 다시 감소

□ 함께 사는 가족 돌봄

○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의 관계 및 주돌봄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 2.4%

-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은 '가구 대표 배우자' 34.5%, '가구 대표 부모' 33.4%, '가구 대표의 자녀' 16.1%, '배우자의 부모' 9.6% 순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 38.2%, '자녀' 24.1%, '부모' 22.0%의 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63.6%, 남성이 36.4%

○ (동거가족원 돌봄의 어려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32.1%, '신체적 고단함' 21.3%, '경제적 어려움' 20.7%의 순

- 가구 대표가 여성인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35.6%, '신체적 고단함' 22.8%, '경제적 어려움' 19.1%의 순
- 가구 대표가 남성인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27.5%, '경제적 어려움' 22.7%, '어려움 없음' 21.7%의 순

자. 정책에 대한 인식

□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7%로 '20년에 비해 약 14.4%p 증가하였고,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로 '20년에 비해 약 13.5%p 증가

-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로 '20년에 비해 약 23.9%p 증가. 다만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4%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년에 비해 증가한 폭도 6.5%p에 불과
- 전반적으로 70세 이상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고,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가족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로 '20년에 비해 약 13.8%p 증가하였고, '가족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6%로 '20년에 비해 약 17.4%p 증가

- 연령이 30세 이상~50세 미만인 경우,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가족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

□ 가족지원서비스 및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이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상담' 15.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3.7%, '생애주기별 부부교육' 13.6%,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13.6%의 순

- 한편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 따라 희망하는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이 다름. 예를 들어 가족소득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족관계상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음
- 혼인상태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미혼 26.9%, 이혼 또는 별거 41.1%, 사별 38.8%로 유배우의 4.4%에 비하면 매우 높았음

○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25.2%,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17.1%, '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5.7%의 순

-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이 17.3%에서 25.2%로 약 7.9%p 증가
- 모든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음

○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75.3%,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74.2%, '1인가구에 대한 지원' 63.3%,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52.0%의 순
- 연령이 많을수록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은 감소하였으며,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 따라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동의수준이 교육수준 '중졸 이하'에서는 41.5%인 반면 '초대졸 이상'에서는 57.7%로 큰 차이가 있었음

차. 1인 가구 생활 실태

□ 1인 가구 생활 기간과 사유

○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 112.5개월이며, 상대적으로 여성, 4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소득이 낮은 경우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었음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배우자 사망(31.9%), 학업이나 직장(취업)(22.4%), 혼자살고 싶어서(14.3%), 본인 이혼(13.7%)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학업이나 직장취업(33.1%),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으로, 40대 이하에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50대는 본인 이혼(30.0%), 6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높아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 배우자 52.9%, 부모 36.0%, 자녀 2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남성, 40대 이하, 미혼일 때 부모와 함께 살았던 비율이 높았고, 여성, 50대 이상, 유배우/이혼·별거/사별일 때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살다가 혼자 생활하거나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생활하는 양상을 보임

□ 경제생활

○ (생활비 마련 방법) 본인 76.7%, 공적지원 12.9%, 자녀가 지원 7.3% 순으로 높았음. 30세 미만은 부모의 지원(18.3%) 비율도 확인되었고 70세 이상은 본인(43.1%), 공적지원(34.7%), 자녀가 지원(22.1%)을 통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공적지원과 자녀지원으로도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고, 고령층과 가족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공적지원과 자녀지원으로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담되는 지출 항목) 식비 42.9%, 주거비 31.6%, 의료비 14.5% 순이었으며, 식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높았음. 성별, 연령별 모두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남성에 비해 15%p 더 높았고, 고령층,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 비용 마련 주체) 본인 85.1%, 부모 지원 10.1%로 주로 본인이 직접 마련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음. 부모가 지원한 비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9%p 더 높았고, 상대적으로 30대 이하의 부모 지원에 대한 비율이 40대 이상보다 월등히 높아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 지원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였음

□ 경제적 부양과 돌봄

○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및 장기간 돌봄지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돌봄을 하지 않는다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중장년층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및 돌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경제적 부양) 부양하지 않는다 93.5%, 부양 한다 6.5%로 나타났고, 부양 가족은 부모(58.7%), 자녀(34.0%), 배우자(16.4%) 순이었음. 남성(10.0%)이 여성(4.4%)보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더 부양하고, 40대~50대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35.6%)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장기간 돌봄지원) 하지 않는다 98.1%, 한다 1.9%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대상자는 부모(57.1%), 배우자(17.3%), 자녀(11.6%) 순이었음. 40대~50대에서 가족에 대한 장기간 돌봄(8.6%)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 장기간 돌봄의 수혜) 받고 있지 않다 96.9%, 받고 있다 3.1%로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남성보다 2.9%p 돌봄의 수혜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하에서는 돌봄의 수혜를 받지 않지만, 60대의 경우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2.2%, 70대 이상은 9.5%로 주로 자녀부터 돌봄 수혜를 받고 있었음

□ 생활상 어려움과 사적 지지망

○ (생활상 어려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42.6%)이 가장 컸고,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37.6%)이 두 번째로 컸음.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와 '고립 및 고독'의 문제는 3년 사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음.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은 남성, 장년층과 고령층, 이혼·별거인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사적 지지망) 24.6%가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답해 2020년(15.2%)보다 10%p 정도 증가했고,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혼·별거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음. 반면,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75.4% 중에서는 '친구'가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15.3%), '형제자매'(7.4%) 순으로 높았음

○ (생활 만족도)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9%였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일 때 생활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좀 더 높았음

□ 1인 가구 지속 의향과 지원 욕구

○ (1인 가구 지속 의향) 80.9%가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2020년(72.1%)보다 9%p 정도 증가했고,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별 및 이혼·별거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음

- (1인 가구 지속 시 예상되는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40.6%), '경제적 어려움' (16.2%) 순으로 높았고, 여성, 중노년층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음

○ (지원 정책 욕구) '주택 안정 지원'(37.9%), '돌봄 서비스 지원'(13.9%) 순으로 높았고, '심리정서적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도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음. 청년층, 미혼인 경우 '주택 안정 지원'이 뚜렷하게 높았다면, 남성, 장년층, 이혼·별거인 경우 '가사 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 중노년층, 사별인 경우 '돌봄 서비스 지원'과 '건강 증진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3. 정책적 함의

□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증가

○ 비혼 독신,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연령대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향후 가족 형성에서의 다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가족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관계에서 의사 소통 시간이 길어지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서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어 자녀 돌봄에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서 사회적 고립감 동의 비율이 증가함

○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롭다'는 2020년에 18.3%에서 2023년에 23.3%로 5.0%p 증가,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없음' 24.6%로 2020년 조사에서 '없음' 비율이 15.2%였던 것과 비교하여 9.4%p 증가.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커진 것을 의미함

○ 1인 가구 중 80.9%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증가

○ 20년 조사 대비 '알고 있음(조금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응답이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늘어나 그동안의 정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함

목 차

Ⅰ. 2023년 가족실태조사 개요 ····· 1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 3

1. 추진 배경 및 법적 근거 ····· 3

2. 추진 경과 ····· 4

제2절. 조사 방법 ····· 6

1. 조사 개요 ····· 6

2. 조사 준비 ····· 6

3. 조사 실시 ····· 10

4. 조사 후속 작업 ····· 15

제3절. 표본 설계 ····· 21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21

2. 층화 ····· 22

3.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세부 층별 표본배분 ····· 25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 29

5. 가중치 조정 및 모수추정 ····· 30

6. 상대 표준 오차 ····· 33

제4절. 응답률 분석 ····· 38

1. 응답률 산정 방법 ····· 38

2. 응답률 분석 ····· 41

Ⅱ.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 내용 ····· 47

제1절.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변화 개요 ····· 49

1. 2005년 제1차 조사 ····· 49

2. 2010년 제2차 조사 ····· 52

3. 2015년 제3차 조사 ····· 56

4. 2020년 제4차 조사 ····· 59

제2절.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설계 ····· 62
1. 조사표 구성 기본 방향 ····· 62
2. 조사 항목 체계와 세부 조사 항목 ····· 63

Ⅲ.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71

제1절. 가구 및 가구원 일반적 특성 ····· 73
1. 가구의 일반적 특성 ····· 73
2. 가구원 일반적 특성 ····· 77
제2절. 조사 응답자 특성 ····· 80
1. 가구 대표 응답자 ····· 80
2. 12세 이상 가구원 응답자 ····· 81

Ⅳ.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83

제1절.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한 인식 ····· 87
1. 우리 가족의 범위 ····· 87
2. 가족의 정의 ····· 92
3.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 100
제2절. 가족 가치관 ····· 104
1.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인식 ····· 104
2. 다양한 가족의례 및 문화에 대한 인식 ····· 116
3.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 123
제3절. 가족 부양 인식 ····· 130
1.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인식 ····· 130
2.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 134
3. 주관적 계층의식 ····· 142

Ⅴ. 가족 형성 및 변화 ····· 145

제1절. 혼인 상태 ····· 147
1. 혼인 상태 및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 ····· 147
2. 비혼 동거와 동거 사유, 동거로 인한 어려움 ····· 149

제2절. 자녀 수 및 계획 ····· 154
1. 자녀 유무 ····· 154
2. 자녀 계획 ····· 154
제3절. 전반적인 가족 관계 ····· 156

Ⅵ. 가족 관계(1) - 배우자와의 관계 ····· 163
제1절.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미, 의사소통 ····· 167
1. 배우자와의 관계 ····· 167
제2절. 배우자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역할·돌봄 분담 ····· 204
1.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 204
2.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 205
3.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 207
4. 부부의 가사수행 분담 및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 219
5.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및 만족도 ····· 228
제3절.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 239
1.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 239
2.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 고민 여부 ····· 244
3.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 245
4. 배우자와의 전반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 247

Ⅶ. 가족 관계(2) -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249
제1절. 부모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253
1. 응답 기준 청소년 자녀 특성 ····· 253
2.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 256
3.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258
4.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 265
5.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 269
제2절.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 271
1.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 271
2.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의사 존중 ····· 275
3.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 278

4.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 281

Ⅷ. 가족 관계(3) -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283

제1절. 부모의 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 ····· 287

1. 성인 자녀와의 상호지원 정도 ····· 287
2. 성인 자녀와의 관계 및 전반적 만족도 ····· 303
3.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 321
4.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329

제2절.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 334

1.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 334
2. 부모님과의 관계 및 전반적 만족도 ····· 345
3. 부모님과 상호도움 정도 ····· 363
4.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 380

Ⅸ.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 설계 ····· 387

제1절. 일과 일·생활 균형 ····· 391

1. 일: 고용 형태와 노동 시간 ····· 391
2.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 394

제2절.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 400

1. 가족원의 가사 노동 참여 ····· 400
2. 가족 여가 행동과 인식 ····· 407

제3절. 노후 생애 설계 ····· 419

1. 생애 설계와 노후의 경제 준비 ····· 419
2.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일상에서 도움 받을 존재 ····· 427

Ⅹ. 가족원 돌봄 ····· 431

제1절. 가구원의 돌봄 ····· 433

1.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여부 ····· 433
2.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대상 및 동거 여부 ····· 434

제2절. 취학 전 영유아 돌봄 ····· 435

1. 기관 이용 영유아 돌봄 ····· 435

2.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봄 ····· 437
3. 긴급돌봄 조력자 ····· 438
4. 평일 영유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 439
제3절. 초등학생 돌봄 ····· 440
1.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보내는 곳 ····· 440
2. 초등학생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 440
3. 평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 441
제4절. 함께 사는 가족 돌봄 ····· 443
1.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의 관계 및 주돌봄자 ····· 443
2. 동거가족원 돌봄의 어려움 ····· 445

XI. 정책에 대한 인식 ····· 447
제1절.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전달기관 인지도 ····· 449
1.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전달기관 인지도 ····· 449
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 452
제2절. 가족지원서비스 및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 455
1.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 ····· 455
2.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 460
3.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 462

XII. 1인 가구 ····· 465
제1절. 1인 가구 응답자 특성 ····· 467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467
2. 1인 가구 생활기간과 사유 ····· 469
제2절. 1인 가구의 경제생활 ····· 474
1. 생활비 ····· 474
2. 지출 항목 ····· 476
3. 거주지 비용 ····· 478
제3절. 경제적 부양과 돌봄 ····· 480
1. 경제적 부양 ····· 480
2. 가족 돌봄 ····· 482

제4절. 생활상 어려움과 사적 지지망 ····· 485
1. 생활상 어려움 ····· 485
2. 사적 지지망 ····· 488
제5절. 1인 가구 지속 의향 및 지원 요구 ····· 491
1. 생활 만족도 및 1인 가구 지속 의향 ····· 491
2. 지원 정책 욕구 ····· 494

Ⅻ. 요약 및 시사점 ····· 499
제1절.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요약 ····· 501
1.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501
2.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501
3. 가족 형성 및 변화 ····· 504
4. 배우자와의 관계 ····· 505
5.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509
6.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511
7.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 설계 ····· 514
8. 가족원 돌봄 ····· 516
9. 정책에 대한 인식 ····· 518
10. 1인 가구 ····· 519
제2절. 2015년 이후 시계열 변화 ····· 52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530

■ 참고문헌 ····· 533

■ 부 록 ····· 535
〈부록 1〉 조사표 ····· 537

표 목 차

〈표 Ⅰ-1〉 「가족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 4
〈표 Ⅰ-2〉 조사 개요 ····· 6
〈표 Ⅰ-3〉 「가족실태조사」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시간표 ····· 9
〈표 Ⅰ-4〉 「가족실태조사」 조사원 집체교육 참여·투입 현황 ····· 10
〈표 Ⅰ-5〉 가구원 명부 및 조사표 작성 대상 ····· 11
〈표 Ⅰ-6〉 「가족실태조사」 조사구 대체 현황 ····· 15
〈표 Ⅰ-7〉 검증 스크립트 ····· 16
〈표 Ⅰ-8〉 전체 검증 현황 ····· 17
〈표 Ⅰ-9〉 조사 진행 관련 점검 항목 및 결과 ····· 19
〈표 Ⅰ-10〉 시/도별 모집단 조사구, 가구, 인구 현황 ····· 21
〈표 Ⅰ-11〉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 23
〈표 Ⅰ-12〉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 23
〈표 Ⅰ-13〉 모집단 층화 변수와 층화 특성 ····· 24
〈표 Ⅰ-1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및 가구 수 현황 ····· 24
〈표 Ⅰ-15〉 잠재적 층화변수 ····· 25
〈표 Ⅰ-16〉 표본배분 결과 ····· 27
〈표 Ⅰ-17〉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 28
〈표 Ⅰ-18〉 가족의 범위에 대한 주요 변수별 상대표준오차 ····· 34
〈표 Ⅰ-19〉 동거하는 이유에 대한 주요 변수별 상대표준오차 ····· 36
〈표 Ⅰ-20〉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주요 변수별 상대표준오차 ····· 37
〈표 Ⅰ-21〉 방문 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 39
〈표 Ⅰ-22〉 본 표본 가구 최종 방문 결과 ····· 43
〈표 Ⅰ-23〉 2023년 본 표본 응답률 ····· 44
〈표 Ⅰ-24〉 본 표본 가구 여부별 응답률 ····· 44
〈표 Ⅱ-1〉 2005년 제1차 조사의 조사 항목 ····· 50
〈표 Ⅱ-2〉 2010년 제2차 조사의 조사 항목 – 가구 대표용 조사표 ····· 53
〈표 Ⅱ-3〉 2010년 제2차 조사의 조사 항목 – 가구원용 조사표 ····· 54

〈표 Ⅱ-4〉 2015년 제3차 조사의 조사 항목 ····· 57
〈표 Ⅱ-5〉 2020년 제4차 조사의 조사 항목 ····· 60
〈표 Ⅱ-6〉 2023년 조사표 주요 보완 내용 ····· 62
〈표 Ⅱ-7〉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 항목 체계 ····· 63
〈표 Ⅱ-8〉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대비 차수별 조사 항목 ····· 64
〈표 Ⅱ-9〉 2023년 가족실태조사 세부 조사 항목 ····· 67
〈표 Ⅲ-1〉 세대 및 가족 형태 - 제4차 조사와 비교 ····· 74
〈표 Ⅲ-2〉 가구원 수 ····· 75
〈표 Ⅲ-3〉 월평균 소득 ····· 75
〈표 Ⅲ-4〉 가족의 소득 구성(중복응답) ····· 76
〈표 Ⅲ-5〉 월평균 지출 ····· 76
〈표 Ⅲ-6〉 현재 가구 경제 상태 ····· 76
〈표 Ⅲ-7〉 동거 가구원의 특성 ····· 78
〈표 Ⅲ-8〉 비동거 가족원 여부 및 수 ····· 79
〈표 Ⅲ-9〉 비동거 가족원의 비동거 사유 ····· 79
〈표 Ⅲ-10〉 가구 대표의 특성 ····· 81
〈표 Ⅲ-11〉 12세 이상 응답 가구원의 특성 ····· 82
〈표 Ⅳ-1〉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련 2015년, 2020년, 2023년 조사 문항 비교 ·· 86
〈표 Ⅳ-2〉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88
〈표 Ⅳ-3〉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 90
〈표 Ⅳ-4〉 가족의 정의: ’20년 조사와 비교 ····· 92
〈표 Ⅳ-5〉 가족의 정의 ····· 93
〈표 Ⅳ-6〉 가족의 정의(성별) ····· 94
〈표 Ⅳ-7〉 가족의 정의(연령별) ····· 95
〈표 Ⅳ-8〉 가족의 정의(혼인상태별) ····· 97
〈표 Ⅳ-9〉 가족의 정의(교육수준별) ····· 98
〈표 Ⅳ-10〉 가족의 정의(가족소득별) ····· 99
〈표 Ⅳ-11〉 가구원 특성별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 102
〈표 Ⅳ-12〉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105
〈표 Ⅳ-13〉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20년 조사와 비교 ····· 106
〈표 Ⅳ-14〉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성별) ····· 107

〈표 Ⅳ-15〉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연령별) ····· 108
〈표 Ⅳ-16〉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 111
〈표 Ⅳ-17〉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 113
〈표 Ⅳ-18〉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 114
〈표 Ⅳ-19〉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 116
〈표 Ⅳ-20〉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20년 조사와 비교 ····· 117
〈표 Ⅳ-21〉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성별) ····· 118
〈표 Ⅳ-22〉 다양한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연령별) ····· 119
〈표 Ⅳ-23〉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 120
〈표 Ⅳ-24〉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 121
〈표 Ⅳ-25〉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 122
〈표 Ⅳ-26〉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 124
〈표 Ⅳ-27〉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20년 조사와 비교 ····· 124
〈표 Ⅳ-28〉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성별) ····· 125
〈표 Ⅳ-29〉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연령별) ····· 126
〈표 Ⅳ-30〉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혼인상태별) ····· 127
〈표 Ⅳ-31〉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교육수준별) ····· 128
〈표 Ⅳ-32〉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가족소득별) ····· 129
〈표 Ⅳ-33〉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 ····· 130
〈표 Ⅳ-34〉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131
〈표 Ⅳ-35〉 부모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성별) ····· 131
〈표 Ⅳ-36〉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연령별) ····· 132
〈표 Ⅳ-37〉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 134
〈표 Ⅳ-38〉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 135
〈표 Ⅳ-39〉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136
〈표 Ⅳ-40〉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성별) ····· 136
〈표 Ⅳ-41〉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연령별) ····· 137
〈표 Ⅳ-42〉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 139
〈표 Ⅳ-43〉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 140
〈표 Ⅳ-44〉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 141
〈표 Ⅳ-45〉 가구원 특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 143

〈표 Ⅳ-46〉 주관적 계층의식: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143
〈표 Ⅴ-1〉 응답자의 현재 혼인 상태 ····· 148
〈표 Ⅴ-2〉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기간 ····· 149
〈표 Ⅴ-3〉 혼인신고 여부 ····· 150
〈표 Ⅴ-4〉 혼인신고 계획 ····· 151
〈표 Ⅴ-5〉 동거 사유 ····· 152
〈표 Ⅴ-6〉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운 경험 “있음” 비율 ····· 153
〈표 Ⅴ-7〉 자녀 유무와 자녀 수 ····· 154
〈표 Ⅴ-8〉 자녀 계획 ····· 155
〈표 Ⅴ-9〉 향후 출산 계획 있을 시 희망 자녀 수 ····· 155
〈표 Ⅴ-10〉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 ····· 156
〈표 Ⅴ-11〉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성별) ····· 157
〈표 Ⅴ-12〉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연령별) ····· 157
〈표 Ⅴ-13〉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 159
〈표 Ⅴ-14〉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 160
〈표 Ⅴ-15〉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 160
〈표 Ⅵ-1〉 배우자와의 관계 관련 2020년과 2023년 조사문항 비교 ····· 165
〈표 Ⅳ-2〉 배우자와의 관계: ’20년 조사와 비교 ····· 167
〈표 Ⅵ-3〉 배우자와의 관계 ····· 168
〈표 Ⅵ-4〉 배우자와의 관계(성별) ····· 169
〈표 Ⅵ-5〉 배우자와의 관계(연령별) ····· 170
〈표 Ⅵ-6〉 배우자와의 관계(교육수준별) ····· 172
〈표 Ⅵ-7〉 배우자와의 관계(맞벌이여부별) ····· 173
〈표 Ⅵ-8〉 배우자와의 관계(가족소득별) ····· 174
〈표 Ⅵ-9〉 배우자와의 관계(혼인기간별) ····· 176
〈표 Ⅵ-10〉 배우자와의 관계(자녀수별) ····· 177
〈표 Ⅵ-11〉 배우자와의 관계(부부 간 비교) ····· 178
〈표 Ⅵ-12〉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 179
〈표 Ⅵ-13〉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연령별) ····· 181
〈표 Ⅵ-14〉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교육수준별) ····· 183
〈표 Ⅵ-15〉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가족소득별) ····· 184

〈표 Ⅵ-16〉 배우자에 대한 인식 ····· 187
〈표 Ⅵ-17〉 배우자에 대한 인식(성별) ····· 188
〈표 Ⅵ-18〉 배우자에 대한 인식(연령별) ····· 189
〈표 Ⅵ-19〉 배우자에 대한 인식(교육수준별) ····· 190
〈표 Ⅵ-20〉 배우자에 대한 인식(맞벌이여부별) ····· 191
〈표 Ⅵ-21〉 배우자에 대한 인식(가족소득별) ····· 191
〈표 Ⅵ-22〉 배우자에 대한 인식(혼인기간별) ····· 193
〈표 Ⅵ-23〉 배우자에 대한 인식(자녀수별) ····· 194
〈표 Ⅵ-24〉 배우자의 의미(부부 간 비교) ····· 195
〈표 Ⅵ-25〉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 ····· 196
〈표 Ⅵ-26〉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연령별) ····· 198
〈표 Ⅵ-27〉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교육수준별) ····· 200
〈표 Ⅵ-28〉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가족소득별) ····· 201
〈표 Ⅵ-29〉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204
〈표 Ⅵ-30〉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 206
〈표 Ⅵ-31〉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20년 조사와 비교 ····· 207
〈표 Ⅵ-32〉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 208
〈표 Ⅵ-33〉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성별) ····· 209
〈표 Ⅵ-34〉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연령별) ····· 210
〈표 Ⅵ-35〉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교육수준별) ····· 212
〈표 Ⅵ-36〉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맞벌이여부별) ····· 213
〈표 Ⅵ-37〉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가족소득별) ····· 214
〈표 Ⅵ-38〉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혼인기간별) ····· 216
〈표 Ⅵ-39〉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자녀수별) ····· 218
〈표 Ⅵ-40〉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가사수행자): ’20년 조사와 비교 ····· 220
〈표 Ⅵ-41〉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 ’20년 조사와 비교 ···· 220
〈표 Ⅵ-42〉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 ····· 221
〈표 Ⅵ-43〉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성별) ····· 222
〈표 Ⅵ-44〉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연령별) ····· 223
〈표 Ⅵ-45〉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교육수준별) ····· 224
〈표 Ⅵ-46〉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맞벌이여부별) ····· 225

〈표 Ⅵ-47〉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가족소득별) ····· 226
〈표 Ⅵ-48〉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혼인기간별) ····· 227
〈표 Ⅵ-49〉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20년 조사와 비교 ····· 228
〈표 Ⅵ-50〉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 229
〈표 Ⅵ-51〉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성별) ····· 230
〈표 Ⅵ-52〉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연령별) ····· 231
〈표 Ⅵ-53〉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교육수준별) ····· 232
〈표 Ⅵ-54〉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맞벌이여부별) ····· 234
〈표 Ⅵ-55〉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가족소득별) ····· 235
〈표 Ⅵ-56〉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자녀특성별) ····· 237
〈표 Ⅵ-57〉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 ····· 238
〈표 Ⅵ-58〉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유무 ····· 239
〈표 Ⅵ-59〉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1순위) : ’20년 조사와 비교 ··· 241
〈표 Ⅵ-60〉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1순위) ····· 242
〈표 Ⅵ-61〉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2순위) ····· 243
〈표 Ⅵ-62〉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 고민 여부 ····· 244
〈표 Ⅵ-63〉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 246
〈표 Ⅵ-64〉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247
〈표 Ⅶ-1〉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관련 2020년과 2023년 조사 문항 비교 ···· 252
〈표 Ⅶ-2〉 청소년 자녀 동거 여부 ····· 253
〈표 Ⅶ-3〉 청소년 자녀 성별 ····· 254
〈표 Ⅶ-4〉 청소년 자녀 연령 ····· 255
〈표 Ⅶ-5〉 청소년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1순위) ····· 257
〈표 Ⅶ-6〉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0년 조사와 비교 ····· 258
〈표 Ⅶ-7〉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 259
〈표 Ⅶ-8〉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성별) ····· 260
〈표 Ⅶ-9〉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연령별) ····· 261
〈표 Ⅶ-10〉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혼인상태별) ····· 263
〈표 Ⅶ-1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교육수준별) ····· 264
〈표 Ⅶ-12〉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평일) ····· 266
〈표 Ⅶ-13〉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주말) ····· 268

〈표 Ⅶ-14〉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0년 조사와 비교 ····· 269
〈표 Ⅶ-15〉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270
〈표 Ⅶ-16〉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 ’20년 조사와 비교 ····· 271
〈표 Ⅶ-17〉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 ····· 272
〈표 Ⅶ-18〉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성별) ····· 273
〈표 Ⅶ-19〉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연령별) ····· 274
〈표 Ⅶ-20〉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 ’20년 조사와 비교 ····· 275
〈표 Ⅶ-21〉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 ····· 276
〈표 Ⅶ-22〉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성별) ····· 277
〈표 Ⅶ-23〉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연령별) ····· 278
〈표 Ⅶ-24〉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평일) ····· 279
〈표 Ⅶ-25〉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주말) ····· 280
〈표 Ⅶ-26〉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281
〈표 Ⅶ-27〉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5년, ’20년과 ’23년 비교 ····· 281
〈표 Ⅶ-28〉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성별) ····· 282
〈표 Ⅶ-29〉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연령별) ····· 282
〈표 Ⅷ-1〉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관련: ’15년, ’20년과 ’23년 조사문항 비교 ··· 286
〈표 Ⅷ-2〉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 ····· 288
〈표 Ⅷ-3〉 성인 자녀와의 상호지원/수혜 여부: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289
〈표 Ⅷ-4〉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성별) ····· 290
〈표 Ⅷ-5〉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연령별) ····· 292
〈표 Ⅷ-6〉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혼인상태별) ····· 294
〈표 Ⅷ-7〉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교육수준별) ····· 295
〈표 Ⅷ-8〉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가족소득별) ····· 297
〈표 Ⅷ-9〉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자녀특성별) ····· 300
〈표 Ⅷ-10〉 성인 자녀와의 관계 ····· 304
〈표 Ⅷ-11〉 성인 자녀와의 관계(성별) ····· 305
〈표 Ⅷ-12〉 성인 자녀와의 관계(연령별) ····· 306
〈표 Ⅷ-13〉 성인 자녀와의 관계(혼인상태별) ····· 308
〈표 Ⅷ-14〉 성인 자녀와의 관계(교육수준별) ····· 310
〈표 Ⅷ-15〉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족소득별) ····· 311

〈표 Ⅷ-16〉 성인 자녀와의 관계(자녀특성별) ····· 314
〈표 Ⅷ-17〉 성인 자녀와의 관계 정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19
〈표 Ⅷ-18〉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 321
〈표 Ⅷ-19〉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성별) ····· 322
〈표 Ⅷ-20〉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연령별) ····· 323
〈표 Ⅷ-21〉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혼인상태별) ····· 324
〈표 Ⅷ-22〉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교육수준별) ····· 326
〈표 Ⅷ-23〉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족소득별) ····· 328
〈표 Ⅷ-24〉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331
〈표 Ⅷ-25〉 성인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32
〈표 Ⅷ-26〉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 335
〈표 Ⅷ-27〉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성별) ····· 336
〈표 Ⅷ-28〉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연령별) ····· 338
〈표 Ⅷ-29〉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교육수준별) ····· 340
〈표 Ⅷ-30〉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가족소득별) ····· 343
〈표 Ⅷ-31〉 부모님과의 관계 ····· 347
〈표 Ⅷ-32〉 부모님과의 관계(성별) ····· 349
〈표 Ⅷ-33〉 부모님과의 관계(연령별) ····· 353
〈표 Ⅷ-34〉 부모님과의 관계(혼인상태별) ····· 356
〈표 Ⅷ-35〉 부모님과의 관계(교육수준별) ····· 359
〈표 Ⅷ-36〉 부모님과의 관계(가족소득별) ····· 361
〈표 Ⅷ-37〉 부모와의 관계 정도: ’15년 및 ’20년 조사와 비교 ····· 363
〈표 Ⅷ-38〉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 ····· 364
〈표 Ⅷ-39〉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성별) ····· 366
〈표 Ⅷ-40〉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연령별) ····· 368
〈표 Ⅷ-41〉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교육수준별) ····· 371
〈표 Ⅷ-42〉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가족소득별) ····· 374
〈표 Ⅷ-43〉 부모님과의 상호지원/수혜 여부 및 제공자 :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76
〈표 Ⅷ-44〉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 376
〈표 Ⅷ-45〉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 377
〈표 Ⅷ-46〉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 380

〈표 Ⅷ-47〉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성별) ····· 381
〈표 Ⅷ-48〉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연령별) ····· 382
〈표 Ⅷ-49〉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교육수준별) ····· 384
〈표 Ⅷ-50〉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가족소득별) ····· 385
〈표 Ⅷ-51〉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86
〈표 Ⅸ-1〉 일, 가사와 여가, 노후 생애 설계 관련 2020년과 2023년 조사문항 비교 ·· 390
〈표 Ⅸ-2〉 응답자 특성별 취업 여부 ····· 391
〈표 Ⅸ-3〉 고용 형태(종사상 지위) ····· 393
〈표 Ⅸ-4〉 주당 평균 근무시간 ····· 394
〈표 Ⅸ-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 395
〈표 Ⅸ-6〉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96
〈표 Ⅸ-7〉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성별) ····· 397
〈표 Ⅸ-8〉 기혼 유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맞벌이 여부, 성별) ····· 398
〈표 Ⅸ-9〉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근로 시간) ····· 399
〈표 Ⅸ-10〉 가사노동 참여 여부: ’20년 조사와 비교 ····· 400
〈표 Ⅸ-11〉 가사 노동 참여 여부 ····· 401
〈표 Ⅸ-12〉 가사 노동 참여 여부(성별) ····· 402
〈표 Ⅸ-13〉 기혼 유배우자의 가사 노동 참여 여부(맞벌이 여부, 성별) ····· 403
〈표 Ⅸ-14〉 가사 노동 참여 횟수 및 소요시간: ’20년 조사와 비교 ····· 404
〈표 Ⅸ-15〉 가사 노동 참여 횟수 및 소요시간(성별) ····· 405
〈표 Ⅸ-16〉 기혼 유배우자의 가사 노동 참여 횟수(맞벌이 여부, 성별) ····· 406
〈표 Ⅸ-17〉 기혼 유배우자의 가사 노동 소요시간(맞벌이 여부, 성별) ····· 407
〈표 Ⅸ-18〉 가족 여가활동: ’20년 조사와 비교 ····· 408
〈표 Ⅸ-19〉 가족 여가활동 ····· 408
〈표 Ⅸ-20〉 가족 여가활동(가족소득별) ····· 409
〈표 Ⅸ-21〉 가족 여가시간: ’20년 조사와 비교 ····· 410
〈표 Ⅸ-22〉 가족 여가시간 ····· 410
〈표 Ⅸ-23〉 가족 여가시간(가족소득별) ····· 411
〈표 Ⅸ-24〉 가족 여가시간 충분 여부 ····· 412
〈표 Ⅸ-25〉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 414
〈표 Ⅸ-26〉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 ····· 415

〈표 Ⅸ-27〉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성별) ····· 416
〈표 Ⅸ-28〉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연령별) ····· 417
〈표 Ⅸ-29〉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혼인여부) ····· 418
〈표 Ⅸ-30〉 생애 설계 준비 정도: ’20년 조사와 비교 ····· 419
〈표 Ⅸ-31〉 생애 설계 준비 정도 ····· 420
〈표 Ⅸ-32〉 생애 설계 준비 정도(성별) ····· 421
〈표 Ⅸ-33〉 생애 설계 준비 정도(교육수준별) ····· 422
〈표 Ⅸ-34〉 생애 설계 준비 정도(연령별) ····· 423
〈표 Ⅸ-35〉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내용(복수응답) ····· 425
〈표 Ⅸ-36〉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및 내용(복수응답):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425
〈표 Ⅸ-37〉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 ····· 426
〈표 Ⅸ-38〉 노후에 지낼 곳 및 같이 지낼 사람 ····· 428
〈표 Ⅸ-39〉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 ····· 430
〈표 Ⅹ-1〉 가구원 돌봄 여부 ····· 433
〈표 Ⅹ-2〉 가구원 돌봄 대상 및 동거 여부 ····· 434
〈표 Ⅹ-3〉 영유아가 주중 낮시간에 기관 이용 여부 ····· 435
〈표 Ⅹ-4〉 영유아가 최다시간 보내는 기관 ····· 435
〈표 Ⅹ-5〉 기관 이용 외 시간 영유아 주돌봄자 ····· 436
〈표 Ⅹ-6〉 기관 미이용 영유아 주돌봄자 ····· 437
〈표 Ⅹ-7〉 긴급돌봄 조력자 ····· 438
〈표 Ⅹ-8〉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주로 시간 보내는 곳 ····· 440
〈표 Ⅹ-9〉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 441
〈표 Ⅹ-10〉 돌봄 필요 가족원 유무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가구대표와의 관계 ····· 443
〈표 Ⅹ-11〉 주로 돌보는 사람 ····· 444
〈표 Ⅹ-12〉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 ····· 444
〈표 Ⅹ-13〉 환자 및 장애 가족원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 445
〈표 Ⅺ-1〉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20년 조사와 비교 ····· 449
〈표 Ⅺ-2〉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 450
〈표 Ⅺ-3〉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연령별) ····· 450
〈표 Ⅺ-4〉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혼인상태별) ····· 451

〈표 Ⅺ-5〉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교육수준별) ····· 451
〈표 Ⅺ-6〉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가족소득별) ····· 452
〈표 Ⅺ-7〉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20년 조사와 비교 ····· 452
〈표 Ⅺ-8〉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 453
〈표 Ⅺ-9〉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연령별) ····· 453
〈표 Ⅺ-10〉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혼인상태별) ····· 453
〈표 Ⅺ-11〉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교육수준별) ····· 454
〈표 Ⅺ-1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가족소득별) ····· 454
〈표 Ⅺ-13〉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순위): '20년 조사와 비교 ····· 455
〈표 Ⅺ-14〉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순위) ····· 457
〈표 Ⅺ-15〉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2순위) ····· 459
〈표 Ⅺ-16〉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 461
〈표 Ⅺ-1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함' 비율 ····· 463
〈표 Ⅻ-1〉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 468
〈표 Ⅻ-2〉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 470
〈표 Ⅻ-3〉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복수응답) ····· 471
〈표 Ⅻ-4〉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 473
〈표 Ⅻ-5〉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 ····· 475
〈표 Ⅻ-6〉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 477
〈표 Ⅻ-7〉 현 거주지 비용마련 주체 ····· 478
〈표 Ⅻ-8〉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복수응답) ····· 481
〈표 Ⅻ-9〉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정기적 장기간 돌봄(복수응답) ····· 483
〈표 Ⅻ-10〉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 장기간 돌봄(복수응답) ····· 484
〈표 Ⅻ-11〉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의 정도 ····· 485
〈표 Ⅻ-12〉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성별) ····· 486
〈표 Ⅻ-13〉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연령별) ····· 487
〈표 Ⅻ-14〉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혼인상태별) ····· 487
〈표 Ⅻ-15〉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 ····· 490
〈표 Ⅻ-16〉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 491
〈표 Ⅻ-17〉 향후 혼자 살 계획 유무 ····· 492
〈표 Ⅻ-18〉 향후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 493

〈표 Ⅻ-19〉 향후 혼자 살지 않을 경우 계획 ····· 493
〈표 Ⅻ-20〉 1인 가구 지원 정책(1순위) ····· 495
〈표 Ⅻ-21〉 1인 가구 지원 정책(2순위) ····· 496
〈표 Ⅻ-22〉 1인 가구 지원 정책(1+2순위) ····· 497
〈표 ⅩⅢ-1〉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중복 응답)(2015년, 2020년, 2023년) ····· 523
〈표 ⅩⅢ-2〉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함' 비율-부모 관점(2015년, 2020년, 2023년) ····· 525
〈표 ⅩⅢ-3〉 부모와의 관계 '만족함' 비율 - 청소년 자녀 관점(2015년, 2020년, 2023년) ····· 526
〈표 ⅩⅢ-4〉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526
〈표 ⅩⅢ-5〉 6개월 간 가족여가 시간(2015년, 2020년, 2023년) ····· 527
〈표 ⅩⅢ-6〉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2020년, 2023년) ····· 528
〈표 ⅩⅢ-7〉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 528

그 림 목 차

[그림 Ⅰ-1]「가족실태조사」주요 추진 경과 ····· 5
[그림 Ⅰ-2] 조사구별 가구 명부 및 요도 ····· 12
[그림 Ⅰ-3] 조사 안내·홍보 리플렛 ····· 12
[그림 Ⅰ-4] 전체 가구 최종 방문 결과 ····· 42
[그림 Ⅰ-5] 방문 횟수별 응답 가구의 분포 현황 ····· 45
[그림 Ⅰ-6] 방문 횟수별 응답률 ····· 45
[그림 Ⅰ-7] 방문 시간대별 응답률 ····· 46
[그림 Ⅱ-1]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 문항 흐름도 ····· 66
[그림 Ⅳ-1]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 4차 조사와 비교 ····· 106
[그림 Ⅷ-1] 성인 자녀와의 관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20
[그림 Ⅷ-2]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29
[그림 Ⅷ-3]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333
[그림 Ⅷ-4]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44
[그림 Ⅷ-5]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45
[그림 Ⅷ-6]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 379
[그림 Ⅹ-1]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영유아(2023년) ····· 439
[그림 Ⅹ-2]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영유아(2020년) ····· 439
[그림 Ⅹ-3]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초등학생(2023년) ····· 441
[그림 Ⅹ-4]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초등학생(2020년) ····· 442
[그림 Ⅻ-1]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2020년, 2023년) ····· 473
[그림 Ⅻ-2]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2020년, 2023년) ····· 475
[그림 Ⅻ-3]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2020년, 2023년) ····· 477
[그림 Ⅻ-4] 현 거주지 비용마련 주체(2020년, 2023년) ····· 479
[그림 Ⅻ-5]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 486
[그림 Ⅻ-6]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없음’ 비율 ····· 488
[그림 ⅩⅢ-1] 세대 구성(2015년, 2020년, 2023년) ····· 522
[그림 ⅩⅢ-2]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 523

[그림 Ⅻ-3]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 524
[그림 Ⅻ-4]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 524
[그림 Ⅻ-5] 배우자와의 대화시간과 부부관계 만족도(2015년, 2020년, 2023년) ····· 525
[그림 Ⅻ-6]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 없음 비율 ····· 529

Ⅰ 2023년 가족실태조사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3
제2절. 조사 방법 6
제3절. 표본 설계 21
제4절. 응답률 분석 38

제1절.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및 법적 근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는 2010년 23.9%에서 2020년 31.7%(통계청, 2010;2020)로 증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는 2010년 37.0%에서 2020년 29.1%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10;2020). 가족 규모도 축소되어 가구원 수가 2인 이하인 가구는 2020년 59.7%(통계청, 2020)이며, 만혼이 보편화되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30세를 넘어섰다.

한국 가족 변동 양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족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1인 가구 급증,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다양화이다. 다음으로 비혼 독신, 비혼 동거를 비롯하여 결혼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개개인의 가족 생애 경로 선택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과 재혼 등에 대하여 수용적 태도 증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가족 변동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의 형태상 변화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대 및 가구 구성이나 혼인 등 인구학적 데이터와 더불어 가족 관련 가치관과 인식, 가족 관계, 가족 돌봄 등 일상적 가족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관련 가치관 및 인식과 더불어 가족 관계 등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조사로 한국 가족의 횡단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김영란 외, 2021:3-4; 김영란 외, 2022:3-4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가족실태조사는 혼인 등 가족 형성과 변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가사 참여 등 가족 내 역할 수행, 가족 여가, 가족 돌봄 등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가족 의식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점,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가족 관계 등 가족 생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가족실태조사)[1]에 근거하고 있다. 2005년 제1차 조사 이후 2020년 제4차 조사까지 매 5년 주기로 전국 규모의 표본 조사를 실시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 (인출일자: 2023.8.25.)

하였다. 2020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 5. 19)으로 3년 단위로 조사 주기가 변경됨에 따라 제5차 조사는 2023년에 추진되었다. 「가족실태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로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제3차 조사부터 본 조사의 효율적 실시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전 예비조사가 도입되었다.

〈표 Ⅰ-1〉 「가족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②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8. 1. 16.〉

2. 추진 경과

「가족실태조사」의 주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제1차 「가족실태조사」 실시
  - 전국 2,925가구 조사, 국가승인통계(제154001) 지정
○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실시
  - 전국 2,500가구 조사
○ (2011년) 통계청 수시 품질진단 실시
  - 조사표, 조사지침서 및 조사관리, 조사주기, 원자료 제공, 적정표본 규모 및 예산 확보, 표본관리지침서 이행, 가중치 산출 등 개선과제 제안
○ (2014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시험조사 및 연구 용역 실시
  - 2015년 제3차 조사용 조사표 개발
  - 2011년 수시 품질진단 지적에 따른 조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2015년 제3차 조사 통계청 통계 대행 실시를 위하여 통계청 직접 시험조사
○ (2015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실시
  - 전국 5,018가구 조사, 표본 규모 확대 및 통계청 통계 대행 실시
○ (2017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정기 품질진단 실시

- 1, 2, 3차 통합 자료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정리, 조사 영역 추가 및 조사 문항 수정, 5년 단위 장기 주기의 단점 보완 가능성 검토, 표본 규모 확대 혹은 특수 쟁점 가구 과다 대표 필요, 통계작성 일정 준수 등 개선과제 제안

○ (2019년) 제4차「가족실태조사」시험조사 및 연구 용역 실시
- 2020년 제4차 조사용 조사표 개발
- 제4차 조사 통계청 통계 대행을 위하여 통계청 직접 시험조사 실시
- 표본 설계 등 2020년 본조사 준비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 표본 규모 확대

○ (2020년) 제4차「가족실태조사」실시
- 전국 10,997가구 조사, 표본 규모 확대로 17개 시도별 분석 가능, 1인 가구 조사 영역 추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조사 주기 3년으로 변경

○ (2022년) 제5차「가족실태조사」예비조사 실시
- 2023년 제5차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2023년 본조사용 조사표 개발, CAPI 조사방식 전환 검토, 표본 설계(안) 등 제안

○ (2022년) 제4차「가족실태조사」정기 품질진단 실시
- 통계설명자료 보완, 응답 선택지의 통일성 제고를 위한 조사표 항목 보완, 조사 항목별 시계열 자료 작성 및 제공 등 개선 과제 제안

○ (2023년) 제5차「가족실태조사」실시
- 전국 12,000가구 조사, CAPI 시스템 도입

	1차(2005)	2차(2010)	3차(2015)	4차(2020)	5차(2023)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가구원	만 15세 이상 가구원	만 12세 이상 가구원	만 12세 이상 가구원	만 12세 이상 가구원
조사가구 수	2,925가구	2,500가구	5,018가구	10,997가구	12,062가구
응답자 수	5,973명	4,754명	10,912명	22,173명	24,564명
조사기간	10~12월	8~10월	3월	9월	6월
조사주기	5년	5년	5년	5년	3년
조사 및 분석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닐슨컴퍼니코리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통계대행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특징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1항에 따라 조사 실시 ▫ 가족단위의 분석 방법과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한 연구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 15401호) 지정	▫ 조사 시기를 고려한 설문 문항 수정 및 개발 ▫ 통계청 수시 통계 품질 진단 실시(2011)	▫ 표본 수 확대 ▫ 통계청 통계대행 실시 ▫ 대상 연령 조정(만 12세) ▫ 본 조사 효율적 실시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 도입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실시(2017년)	▫ 표본 수 확대 ▫ 1인가구 조사 영역 추가 ▫ 17개 시도별 분석 가능 ▫ 통계청 정기품질진단 실시(2022년)	▫ 표본 수 확대 ▫ 17개 시도별 분석 가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3년 주기로 변경 실시 ▫ CAPI 시스템 도입

[그림 Ⅰ-1]「가족실태조사」주요 추진 경과

제2절.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2023년 가족실태조사의 표본 규모는 전국 12,000가구이며, 조사 대상자는 표본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 도구는 CAPI를 활용하였다. 또한 면대면 조사 방식을 꺼리는 가구 내 응답자를 위해 비대면 조사방식(온라인 조사와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유치조사)을 병행하여 응답 편의성 및 응답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조사 기준 시점은 2023년 6월 1일이며, 조사 시간은 2023년 6월 1일 ~ 7월 31일이다

〈표 Ⅰ-2〉 조사 개요

○표본 규모 - 목표 가구: 12,000가구 내외 ○조사 대상: 가구 및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가구원 ○기준 시점: 2023. 6. 1. 0시 ○조사 기간: 2023. 6. 1. ~ 7. 31 ○조사 방법 - 전문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 (가구원 조사 한정) 비대면 자기기입식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 도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2. 조사 준비

1) CAPI 조사 시스템 도입

이번 5차 조사의 가장 큰 변화는 전년도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하여 마련한 CAPI[2] 조사 시스템을 현장 조사에 전면적으로 도입·활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 뿐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성 및 자료처리 효율성을 모두 제고하고자 한 점이다. CAPI 조사 시스템은 종이 조사표에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조사 방식을 대신하여 컴퓨터(태블릿PC, 스마트폰,

2)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노트북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전자 설문 프로그램에 따라 응답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 접촉, 설문 자료수집, 응답 데이터 전송 및 실사과정의 전반적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CAPI 조사 시스템은 다음의 3가지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첫 번째, 본 조사는 자료처리 과정이 대규모이지만, CAPI 시스템을 활용하면 응답값 범위, 문항 간 로직 등을 사전에 프로그램화 할 수 있어, 에디팅, 조사표 자료입력(펀칭) 과정이 생략되어 통계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조사표 문항마다 세부 지침사항을 각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 질문 및 응답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대규모 조사원이 투입되지만, 면접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가 기록으로 남게 되어 통제가 가능하므로 조사원의 불성실 등을 제거하고, 면접 과정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가족실태조사는 조사표의 문항이 비교적 많고, 가구 내 여러 응답자가 응답할 경우 문항 간 응답 내용을 비교·검토해야 하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아무리 숙련된 조사원이라 할지라도 문항 경로 이동, 논리적 일관성 유지 등을 능숙하게 통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조사 이후에도 자료의 오류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CAPI 조사 시스템이 설치된 태블릿 PC에 담당 가구의 응답내용을 바로 입력한 후, 프로그램의 논리에 따라 잘못 응답된 내용을 즉시 확인 및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도 및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조사원 교육

현장 조사를 위한 전국 조사원 교육은 2023년 5월 12일~ 5월 24일 기간 중 8일간 진행되었고, 조사원 총 203명이 참석하였다. 교육 방식과 내용은 사전에 준비된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조사원 지침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실사 주관회사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이 직접 담당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공무원이 참관하였다.

조사원 집체교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째, 〈조사 개요〉 영역이다. 가족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법적 근거, 조사 연혁, 주관기관 소개, 가족실태조사의 설계 및 결과 활용 등으로 조사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현장 조사 방법 및 실사 지침〉 영역이다. 교육 전 배부한 실사 보조자료 쓰임에 대한 설명과 조사원의 기본자세, 조사구 명부 및 요도 등에 대한 이해, 단계별 접근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현장 조사 요령에 대해 안내하면서 최초 방문 컨택 내용, 방문기록 작성 과정 및 재방문 절차, 특이사항 대처방법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원이 수령하는 조사구 명부 및 요도, 그리고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 교육도 병행하였다. 본 조사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 등 사고 예방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셋째, 가족실태조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가구원 명부 및 조사표 작성 대상에 대한 설명과 유의 사항 등 구체적인 〈조사 관련 주요 개념〉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조사가 방문 가구에서 가족관계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따로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가구 명부도 작성하기 때문에 명부 및 조사표 작성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을 진행하였다.

넷째, 조사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문항별 의미 및 용어정의, 보기문항에 대한 설명, 질문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조사원이 어려워하는 문항이나 개념 등은 추후 취합해 전체 공지하였다.

다섯째, CAPI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선발된 조사원 전원 CAPI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이었으나, 가족실태조사 전용 CAPI 조사 시스템은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먼저 친숙해 지는 것이 중요하였다. 종이 조사표를 같이 펼쳐두고 태블릿 화면에 구현된 항목을 처음부터 끝 문항까지 차례로 확인함으로써 문항별 프로그램 로직을 살펴본 후 실습 시간을 가졌다. 조사원 스스로가 응답자의 입장이 되어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해 본 다음, 옆 사람과 짝을 지어 돌아가며 롤플레잉(Role-Playing) 연습도 진행하였다. 추가 로직이 필요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가 완료된 이후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 환기시키는 시간을 가졌고, 자가 채점하여 점수가 목표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 조사 투입에서 제외시키거나 실사 관리자의 재교육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였다.

〈표 Ⅰ-3〉「가족실태조사」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시간표

시간(280분)	내 용
10분	• 조사에 대한 소개 - 조사 개요 및 조사 체계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 연혁 및 설계 - 조사결과의 활용
25분	• 현장조사 지침 교육 - 조사 준비물 - 조사원의 기본 자세 - 조사원 안전 수칙 및 코로나19 대응 수칙 - 현장조사 절차 및 진행 요령 - 가구 방문 시 예상 질문 및 답변 - 방문 면접조사 단계별 접근 방법
15분	• 조사 관련 주요 개념 교육 - 조사 관련 기본 개념 이해 - 본 조사의 적격 조사 대상자
60분	• 조사 항목 교육 1 - 조사표 구성 체계 - 조사표 기입 요령
90분	• 조사 항목 교육 2 - 문항별 설명 및 응답 방법
30분	• CAPI 시스템 사용 교육 - CAPI 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 조사구 확인 및 상황별 가구 방문 기록 입력 방법 - 항목별 응답 방법
10분	• CAPI를 이용한 조사 진행 실습
30분	• 교육 내용 테스트 - 시험지 문제 풀이 및 정답 해설
10분	• 기타 질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표 Ⅰ-4〉「가족실태조사」 조사원 집체교육 참여·투입 현황

지역	집체교육 일시	표본배분현황		참석 인원	화상 참석 인원	최종 투입 인원
		조사구 수	표본 수			
전체		923	12,000	187	16	203
강원	5월 12일(금) 10시~16시	44	572	9	1	10
부산/울산/경남	5월 15일(월) 10시~16시	162	2,106	27	0	27
대구/경북	5월 16일(화) 10시~16시	110	1,430	26	0	26
전/세종/충청	5월 17일(수) 10시~16시	158	2,054	21	9	30
광주/전라	5월 18일(목) 10시~16시	135	1,755	27	5	32
서울/인천/경기	5월 19일(금) 10시~16시	286	3,718	43	0	71
	5월 24일(수) 10시~16시			28		
제주	5월 22일(월) 10시~16시	28	365	6	1	7

3. 조사 실시

1) 조사 대상

가족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2023년 6월 1일 0시 기준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 가구 내 동거하고 있는 만 12세 이상(2011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모든 가족 관계 가구원이다. 조사 대상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 대표[3]'를 파악하여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해야 하며, 나머지 적격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한 응답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 12세 미만인 가족원과 가족 관계가 아닌 가구원은 가구 명부 작성 시에 포함하여 파악하지만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단, 가구원 중 비혼 동거인은 법적 의미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구 대표가 배우자로 여길 경우에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결혼하여 독립한 성인 자녀 역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가구 구성원 및 가족원의 동거·결혼 유무 등의 상태에 따라 가구원 명부 작성 대상 및 조사표 작성 대상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원

3) 가구 대표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상 가구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돌보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교육 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진행하였다.

〈표 Ⅰ-5〉 가구원 명부 및 조사표 작성 대상

<table>
<tr><th colspan="4">구분</th><th>명부 포함</th><th>조사표 작성</th></tr>
<tr><td rowspan="6">조사 대상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인 경우</td><td rowspan="4">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td><td rowspan="2">가 족</td><td>만 12세 이상</td><td rowspan="2">O</td><td>O</td></tr>
<tr><td>만 12세 미만</td><td>X</td></tr>
<tr><td rowspan="2">동거인</td><td>비혼 동거</td><td rowspan="2">O</td><td>O</td></tr>
<tr><td>단순 동거</td><td>X</td></tr>
<tr><td rowspan="3">따로 살고 있는 가족 중</td><td colspan="2">배우자</td><td>O</td><td rowspan="3">X</td></tr>
<tr><td colspan="2">미혼자녀</td><td>O</td></tr>
<tr><td colspan="2">기혼자녀</td><td>X</td></tr>
<tr><td rowspan="4">조사 대상 가구가 1인 가구인 경우</td><td rowspan="2">가구대표 미혼</td><td colspan="2">따로 사는 미혼자녀</td><td>O</td><td rowspan="4">X</td></tr>
<tr><td colspan="2">따로 사는 부모 및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td><td>O</td></tr>
<tr><td rowspan="2">가구대표 기혼</td><td colspan="2">따로 사는 배우자 및 미혼자녀</td><td>O</td></tr>
<tr><td colspan="2">따로 사는 부모 및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td><td>X</td></tr>
</table>

2) 조사 준비물

가) 통계청 가구 명부 및 조사구 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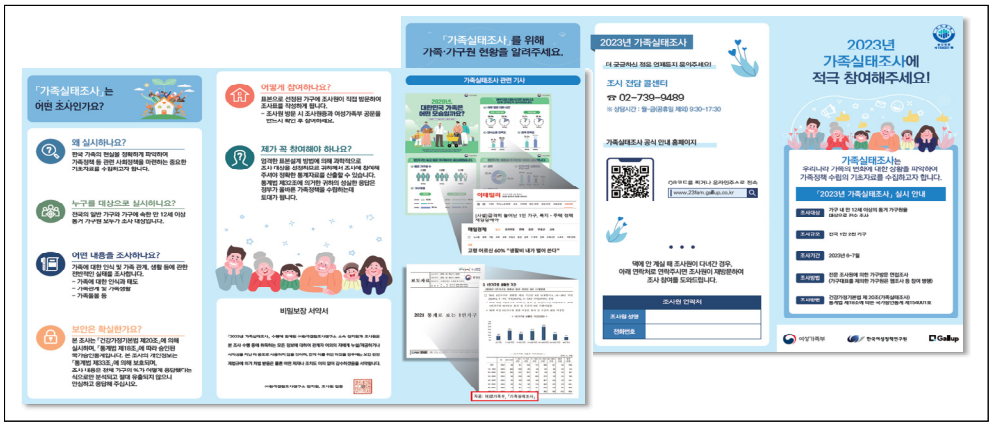
가족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154001호)로서 2020년 등록센서스에서 제작한 시도별 조사구 가구 명부 및 요도를 구입하여 진행하였다. 통계청 조사구는 행정 읍·면·동의 경계 내에 평균 60가구(±20)가 포함되도록 분할 또는 통합하여 설정한 조사 지역 단위이며, 요도는 주택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도상에 설정한 조사구 경계, 지형지물과 그 명칭, 거처번호 등을 일정한 규격에 표시한 약식지도를 의미한다. 가구 명부에는 세부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CAPI 시스템에 탑재하여 조사원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 시 할당된 조사구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가구별 방문기록 입력, 가구별 조사 상태, 가구원 명부 현황 표를 추가 입력 후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Ⅰ-2] 조사구별 가구 명부 및 요도

나) 조사 안내·홍보 리플렛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이전 차수 조사 결과 및 활용, 가구 방문 시 주로 질문하는 문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조사원 방문 시 부재중인 표본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홍보 리플렛을 우편함 등에 전달 수 있도록 하고, 접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조사원 재방문 일정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그림 Ⅰ-3] 조사 안내·홍보 리플렛

다) 조사 협조 공문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의 공동주거시설(아파트, 빌라, 고시원 등) 관리사무소 및 방문 대상 가구 대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인이 들어간 부처 공문을 인쇄하여 조사원에게 배포하였다.

라) 조사원증

실태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전원에게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로고와 부처 장관 직인이 삽입된 조사원증을 착용하도록 하여 응답자에게 조사원의 소속과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전용 홈페이지 및 실사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자와 실사 관리자, 응답자 등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실사 관리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탑재하였다. 응답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의 배경과 조사 내용,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며, 조사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의견 등이 있을 경우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 및 관리자는 실시간 실사 진행률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조사구와 조사원을 손쉽게 파악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조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3) 조사 진행 절차

조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부된 표본 조사구의 해당 번지수를 찾아서 현지를 답사하는데, 조사구 명부와 요도만으로 표본 조사구 내 가구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 관내도를 참조하여 담당하는 조사구의 경계선 범위를 확인한다. 조사구의 경계선을 따라가면서 주요 지형/지물 등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가족실태조사에 활용되는 조사구는 2020년 등록센서스 당시 작성된 조사구로 조사 시점과는 다를 수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에 보고하고 실사관리자의 지침을 전달받도록 했다.

① 재건축, 재개발(부분 재개발)로 인하여 조사구의 주택이 헐린 경우
② 여러 이유로 인해 일부 경계선이 없어졌을 경우
③ 공단, 고시촌 혹은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숙박지, 외국인집단 거주지의 경우
④ 기타 요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한 표본 조사구 내 주택형태나 번지수 변동이 있을 경우 본사에 보고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구를 재확정하도록 하였다.

① 요도상의 경계선은 변동이 없으나 주택형태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 경계선 안에 있는 총 가구 수(아파트 동/호수)를 다시 확인하여 해당 조사구의 표집 틀로 간주함

② 요도상의 경계선도 변동이 있고 주택형태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예 : 2020년 당시 단독주택지역이었으나 아파트로 재개발된 경우 등)
⇒ 기존 요도 범위와 가장 근접한 경계를 임의의 경계선으로 정함
⇒ 경계선 안에 있는 총 가구 수(아파트 동/호수)를 다시 확인하여 해당 조사구의 표집틀로 간주함
⇒ 표본조사구 전체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기타사유 등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경우에는 예비조사구로 대체

③ 요도상의 거처 변동 상황은 없으나 번지수가 변경됐을 경우
⇒ 변경된 번지수를 기준으로 조사구를 재확정함

조사구 확인이 끝나면 해당 조사구 내 본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4]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본 표본 가구 중에서 비적격 또는 응답 불응·불능 가구 등의 사유로 목표한 표본 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 조사구 내 예비표본 가구를 추가 접촉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본 가구 접촉 시에는 여성가족부 공문을 제시 후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며, 본 표본 가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대와 요일을 달리하여 최대 4회까지 부재 가구를 재방문하도록 하였다.

방문한 가구와 접촉에 성공하였을 경우, 해당 가구 내 가구원 중 가구 대표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가구 대표를 통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과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가족·가구원 명부를 작성하여 가구 내 적격 응답 대상자(가구대표를 포함한 만 12세 이상 함께 사는 모든 가족원) 현황을 판별 후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응답자 희망 시 종이 조사표 유치 및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가구대표는 반드시 현장에서 조사원의 면접조사로만 응답을 받도록 지침을 전달하였다.

4) 조사구 대체 현황

조사 완료된 923개 조사구 중 표본설계 당시 추출 조사구에 속했던 조사구는 908개(98.4%), 대체 조사구는 15개(1.6%)로 나타났다. 대체된 조사구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관리사무소 거절'로 조사 대상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접촉 불능 조사구가 3개, '재개발/

4) 여기서 조사 단위가 되는 '가구'란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가족실태조사는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한다.

재건축', '대상 거처 아님(상가 또는 집단 시설 지역)' 등으로 비적격인 조사구가 12개로 나타났다.

〈표 Ⅰ-6〉「가족실태조사」 조사구 대체 현황

조사구 번호	지역	층화 유형	대체 유형	대체사유(세부)
11060880111	서울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상가 밀집지역이라 거주자 없어 조사불가
2109075175A	부산	동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강력거절
2201064024A	대구	동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강력거절
22050761641	대구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상가 밀집지역이라 거주자 없어 조사불가
22060650731	대구	동부 일반	재개발/재건축	재개발로 조사 불가
2304064126A	인천	동부 아파트	대상 거처 아님	오피스텔(업무용 빌딩)이라 조사불가
24010510341	광주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상가 밀집지역이라 거주자 없어 조사불가
2901033028A	세종	동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강력거절
31021610911	경기	동부 일반	재개발/재건축	재개발로 조사 불가
31060520351	경기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상가 밀집지역이라 거주자 없어 조사불가
36410120031	전남	읍면부	대상 거처 아님	산업단지내 공장지역이라 조사불가
36410120921	전남	읍면부	대상 거처 아님	조선소 인근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라 조사불가
38070552261	경남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상가 밀집지역이라 거주자 없어 조사불가
39010540121	제주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오피스텔(업무용 빌딩)이라 조사불가
39010651201	제주	동부 일반	대상 거처 아님	오피스텔(업무용 빌딩)이라 조사불가

4. 조사 후속 작업

1) 사후 검증

조사 기간 중 품질관리를 위해 사후 검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은 데이터 12,213건에 대해 전수조사로 실시하였으며, 모바일 검증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면접조사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모바일/전화 검증은 회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최초 접촉하도록 하였고, 검증 성공률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원의 응답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재접촉하였다.

검증내용은 응답자 본인 확인 및 주소지, 성별, 출생년도, 동거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등에 대해 실제 응답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수령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사후 검증결과 문제가 발견된 조사표의 경우 해당 지역 실사 관리자에게 다시 전달하여 실사 관리자의 재확인 절차를 거쳤다. 재확인 절차에서도 '허위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설문을 폐기하고 다른 가구를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Ⅰ-7〉 검증 스크립트

인사말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갤럽의 OOO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응해주신 적 있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몇 가지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검증 후 감사 인사)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문항	질문내용	기록내용
설문 응답 여부	• 선생님께서는 2023년 가족실태조사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다른 가구원이 대신 응답 포함)
주소지 확인	• 선생님께서 조사 참여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주소지는 OO시 OO구 OO동이 맞으십니까?	1. 일치 2. 불일치
(다를 경우) 조사 당시 주소지 확인	• 그렇다면 조사 참여 당시 거주하고 계셨던 주소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재확인
조사(응답) 방법	• 선생님께서 가족실태조사 참여 당시 설문 응답 방식은 OOOO이 맞으십니까?	1. 일치 2. 불일치
응답자 성별	(목소리로 확인)	1. 일치 2. 불일치
출생년도 (연령) 확인	•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는 OOOO년이 맞으십니까?	1. 일치 2. 불일치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수 확인	• 가족실태조사 참여 당시 선생님 본인을 포함하여 실제로 함께 살고 있던 '가구원'은 모두 O명이 맞으십니까?	1. 일치 2. 불일치
배우자 유무 확인	• 선생님께서는 가족실태조사 참여 당시 배우자가 있는 사실혼 또는 비혼 동거 상태였습니까? • 미혼, 별거, 이혼, 사별은 배우자 없음에 해당합니다.	1. 일치 2. 불일치
자녀 유무 확인	•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실태조사 참여 시점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따로 사는 미혼·기혼 자녀도 포함하되, 임신 중인 자녀, 사망한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조사 참여 당시 임신 중이었고, 현재는 출산한 경우에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치 2. 불일치
답례품 수령 여부	• 설문에 모두 응답한 후 조사원으로부터 답례품(상품권 1만원권)을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2) 전체 검증 현황

사후 모바일(문자) 및 전화 검증은 2023년 6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현황을 보면, 총 12,213명 응답자에게 문자 메세지 전송 및 통화를 시도하여, 6,601개(54.0%)는 검증 완료 하였고, 그런 사람 아님과 같은 '결번'은 21개(0.2%), '나중에'는 77개(0.6%), '부재' 및 '비수신'은 5,108개(41.9%), '거절 및 응답 중단'은 262개(2.1%), 불일치 에러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한 '삭제'는 144개(1.2%)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Ⅰ-8〉 전체 검증 현황

지역	성공	결번	나중에	부재	비수신	거절	기타/삭제	전체
서울	884	0	14	3	493	16	48	1,458
부산	567	7	0	0	255	8	0	837
대구	385	0	8	1	290	9	0	693
인천	385	0	5	3	360	9	3	765
광주	319	0	6	1	211	12	7	556
대전	319	0	5	0	216	21	2	563
울산	253	7	2	0	200	5	1	468
세종	143	0	2	0	93	21	3	262
경기	902	0	18	2	637	23	46	1,628
강원	311	0	1	0	257	5	5	579
충북	270	0	2	0	270	32	1	575
충남	274	0	1	0	352	37	4	668
전북	275	0	4	3	301	25	9	617
전남	308	0	5	2	266	20	11	612
경북	331	0	0	2	417	3	1	754
경남	486	6	3	2	301	12	1	811
제주	189	1	1	0	170	4	2	367
총합계	6,601	21	77	19	5,089	262	144	12,213

3) 현장 모니터링 점검

현장 모니터링 점검은 조사 참여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배경과 목적, 조사표 내용, 응답 기준, 문항 간 로직, 주요 용어 등을 조사원이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실사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인지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현장 모니터링 점검 개요
- 점검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0시~12시
- 대상 조사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11120721621)

○ 컨택 및 방문 과정에 대한 점검
- 통계청 조사구의 가구 명부 주소는 대체로 정확함
- 단, 요도 상에는 바로 이웃 가구이지만 담벼락으로 막혀 있어 멀리 골목을 돌아서 가야하는 등 가구 간 방문 동선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있었음
-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명부상 건물호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동일 주소 가구의 명부만 제시됨)
  ⇒ 제일 아래층부터 조사원이 순차대로 가구 순번을 부여하고 진행하며, 가구 명부에 제시된 가구보다 해당 거처 내 가구가 더 많은 경우 제시된 가구 수까지만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함
- 고급 오피스텔 형식의 거처는 건물 출입구에서 방문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고, 1층에서 대상 가구의 호수에 호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 평일에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고연령층 위주로 컨택되고, 가구원 모두가 부재인 가구도 많았음
- 계절 특성 상 방문 시 상의를 탈의한 채로 계신 경우들이 많아 거처 내에서 진행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음. 가구 대표의 응답 편의를 확인한 후 거처 내 또는 거처 현관 앞 등에서 진행함

○ 조사 진행 관련 점검
- 총 12가구 방문·컨택 하였고, 2가구 조사 성공함
- 평균 조사 시간 : 약 23분 (조사표 전체 문항 응답 시간 평균 17분 내외)
- 각 조사 진행 단계별로 5점 만점 척도 또는 실시 여부로 평가함

〈표 Ⅰ-9〉 조사 진행 관련 점검 항목 및 결과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방문 결과를 현장에서 태블릿 PC에 잘 입력하였습니까?	5점	4개 지점의 5점 만점 평균 *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그렇지 않음 2점, 보통 3점, 그러함 4점, 매우 그러함 5점
조사원이 조사기관 및 조사명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까?	5점	
조사원이 조사 목적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까?	5점	
조사원은 지침서 등을 활용하여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 및 용어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5점	
조사원은 조사표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한 후, 로직에 따라 수월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까?	4.7점	
응답자는 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에 임했습니까?	4.3점	
대상 가구 방문 전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잘 패용하고, 조사에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였습니까?	그러함 100%	그러함/그렇지 않음 비율
조사 완료 및 조사표 회수 시, 조사원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그러함 100%	
조사 이후 전화 검증 등에 대비하여 연락처 기재 등 응답자 정보를 확인하였습니까?	그러함 100%	
부처 공문 및 조사 안내 리플렛을 적절하게 제공·활용하였습니까?	그러함 100%	
답례품을 제공하였습니까?	그러함 100%	

○ 조사 항목 관련 점검

- 혼자 살고 있는 고연령층 가구대표 응답자는 가구원 현황표의 '따로 사는 가족'을 확인하기가 어려움(자녀에 대한 추가 질문에도 소극적으로 응답함)
- 고연령층 응답자의 경우 '돌봄'이라는 표현이 영유아 등 아동 돌봄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간병' 등 노인 돌봄을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는 편이어서 조사원의 부가 설명이 필요하였음
- 주택 유형 문항(문93)의 경우, 응답 보기에 일반 단독주택과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구분이 없어 헷갈려하는 경우 있었음
- 최근 1년의 월평균 소득 관련 문항(문95-1)의 경우 프리랜서는 소득 금액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응답 기준을 재차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 기타 특이 사항 점검

- 태블릿PC 및 CAPI 응답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으며, 고연령층도 C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답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따로 사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는 응답이 빠르게

완료되는 편이었음

⇒ 조사표 대부분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며, 어려운 문구로 구성된 문항도 없어 점검자의 예상보다도 실제 현장에서의 응답은 신속하게 완료됨

- 1인 가구의 가구원 현황표에서 따로 사는 가족이 0명으로 응답된 경우, 지역별 전화 검증 시 한번 더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함

⇒ 가구 대표의 혼인 상태가 '미혼'인 경우, 따로 사는 가족에 부모 및 부모의 동거 가족원이 없는지 재확인

⇒ 가구 대표의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경우, 따로 사는 가족에 배우자 및 미혼 자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함(배우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인원 수로 응답이 안된 경우는 필수 보완 조사 대상임)

제3절. 표본 설계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2023년 가족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 기준시점 대한민국 모든 가구 및 가구 내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이다.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통계청의 '2020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조사구)'을 활용한다.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은 섬 조사구, 집단시설 조사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가구 내 만 12세 이상 일반 국민(해외 체류자, 군인 및 수형자 등 가구 미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으로 정의한다.

표본추출틀의 주요 현황은 다음 〈표 Ⅰ-10〉과 같다.

〈표 Ⅰ-10〉 시/도별 모집단 조사구, 가구, 인구 현황

구분	조사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전체	만12세 이상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국	172,917	138,290	72,516	383,723	9,679,230	7,511,735	3,645,230	20,836,195	51,414,281	46,978,658
서울	30,564	40,879	-	71,443	1,725,493	2,247,464	-	3,972,957	9,426,404	8,745,477
부산	15,240	11,131	-	26,371	807,508	594,808	-	1,402,316	3,313,539	3,054,243
대구	9,934	7,083	-	17,017	568,808	415,282	-	984,090	2,358,988	2,159,809
인천	11,132	9,286	-	20,418	638,907	499,108	-	1,138,015	2,974,481	2,711,028
광주	6,985	3,532	-	10,517	403,050	195,365	-	598,415	1,427,508	1,292,735
대전	5,951	4,937	-	10,888	349,416	280,745	-	630,161	1,445,519	1,317,331
울산	5,163	3,183	-	8,346	271,103	171,917	-	443,020	1,107,746	1,001,151
세종	1,911	634	-	2,545	104,582	34,212	-	138,794	385,609	328,418
경기	45,417	30,345	16,177	91,939	2,631,640	1,596,236	855,788	5,083,664	13,603,546	12,300,308
강원	4,333	2,861	5,566	12,760	237,342	156,472	264,932	658,746	1,533,719	1,413,100
충북	4,179	2,797	5,720	12,696	232,887	154,942	289,080	676,909	1,594,056	1,456,975
충남	4,575	2,809	9,413	16,797	259,287	150,729	478,169	888,185	2,124,650	1,932,824
전북	5,970	3,680	4,580	14,230	330,551	196,779	225,757	753,087	1,765,175	1,624,244

구분	조사구 수				가구 수				인구 수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전체	만12세 이상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남	3,856	2,107	8,588	14,551	206,558	112,027	418,422	737,007	1,813,872	1,668,364
경북	6,196	4,669	11,163	22,028	326,865	254,685	545,928	1,127,478	2,593,210	2,386,408
경남	10,016	6,026	9,821	25,863	521,854	326,827	494,242	1,342,923	3,269,228	2,978,215
제주	1,495	2,331	1,488	5,314	63,379	124,137	72,912	260,428	677,031	608,028

주: 1. 조사구 및 가구 현황은 2020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통계청)
2. 인구 현황은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자료임
3. 특별(시/자치시) · 광역시에서 읍면 지역은 도시 지역과 유사 생활권으로 판단하여 동부로 분류)

시/도별 모집단 분포를 살펴보면,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 세종시가 75.1%로 비율이 가장 높고, 전남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 12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기준 91.1%이며, 서울이 92.6%로 가장 높고, 세종이 84.8%로 가장 낮다. 이는 세종의 영유아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시/도별 가구 수 비중은 경기 24.4%, 서울이 19.1%이며, 제주와 세종은 각각 1.3%와 0.7%로 낮게 나타났다. 만 12세 이상 인구 비중은 경기 26.1%, 서울 18.7%로 가장 높고 제주와 세종이 각각 1.3%와 0.7%로 나타났다. 표본추출틀의 주요 현황에 따라 시/도별 표본배분 시 제주와 세종에는 과대할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수추정에서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사항목과 상관성이 크고, 명시적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층화변수(stratification variable)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시계열 유지를 위해 과거 조사 설계와 일관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개 특별시·광역시와 10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 동부에 대해서는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와 일반으로 세부 층화한다.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 내 만 12세 이상 가구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로 구성(평균 약 54가구, 2020년 기준)되어 있는데, 층화는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북서, 북동, 남서, 남동)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Ⅰ-11〉, 〈표 Ⅰ-12〉는 각각 서울과 경기의 권역별 구분 현황이다.

〈표 Ⅰ-11〉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Ⅰ-12〉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중북부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6개 광역시와 세종시는 동부/읍면부의 구분 없이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에 따라 세부 층화[5] 하였으며, 서울과 경기의 세부 층화로 서울, 경기 내의 세부 지역별로 고른 표본크기가 할당될 뿐 아니라 실태조사 내용에서 층 내의 동질성으로 정도(precision)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 명시적 층화 변수와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Ⅰ-13〉과 같다.

5) 6개 광역시와 세종 지역에서 읍면부에 속한 조사구는 해당 지역의 전체 조사구 중 약 6.3%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생활권으로 간주.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읍면부의 구분 없이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에 따라 세부 층화하였음

〈표 Ⅰ-13〉 모집단 층화 변수와 층화 특성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3차 층화	층수
특별·광역시·세종시	• 특별·광역시, 세종시 : 8개	• 서울 : 4개 권역*동부 • 6개 광역시, 세종시 : 동부	• 동부의 조사구 특성 (아파트/일반)	22
도 지역	• 경기도 : 1개	• 2개 권역*동부 • 2개 권역*읍면부	• 동부의 조사구 특성 (아파트/일반)	6
	• 그 외 도 지역 : 8개	• 동부 • 읍면부	• 동부의 조사구 특성 (아파트/일반)	24

명시적 층화 변수별 모집단 조사구 수 및 가구 수 현황은 다음 〈표 Ⅰ-14〉와 같다.

〈표 Ⅰ-1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및 가구 수 현황

구분	조사구 수				가구 수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국	172,917	138,290	72,516	383,723	9,679,230	7,511,735	3,645,230	20,836,195
서울	4,724	8,051	-	12,775	254,166	442,455	-	696,621
부산	9,405	12,177	-	21,582	551,271	675,958	-	1,227,229
대구	8,758	13,784	-	22,542	499,076	754,159	-	1,253,235
인천	7,677	6,867	-	14,544	420,980	374,892	-	795,872
광주	30,564	40,879	-	71,443	1,725,493	2,247,464	-	3,972,957
대전	15,240	11,131	-	26,371	807,508	594,808	-	1,402,316
울산	9,934	7,083	-	17,017	568,808	415,282	-	984,090
세종	11,132	9,286	-	20,418	638,907	499,108	-	1,138,015
경기	6,985	3,532	-	10,517	403,050	195,365	-	598,415
강원	5,951	4,937	-	10,888	349,416	280,745	-	630,161
충북	5,163	3,183	-	8,346	271,103	171,917	-	443,020
충남	1,911	634	-	2,545	104,582	34,212	-	138,794
전북	25,921	17,585	9,447	52,953	1,520,714	964,174	510,847	2,995,735
전남	19,496	12,760	6,730	38,986	1,110,926	632,062	344,941	2,087,929
경북	45,417	30,345	16,177	91,939	2,631,640	1,596,236	855,788	5,083,664
경남	4,333	2,861	5,566	12,760	237,342	156,472	264,932	658,746
제주	4,179	2,797	5,720	12,696	232,887	154,942	289,080	676,909

주: 조사구 및 가구 현황은 2020년 기준 등록기반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자료임

한편, 잠재적 층화 변수는 2015년과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분류지표로서 1인 가구 비율, 행정구역, 노인 인구 구성비와 3세대 가구 비율을 적용했으며, 과거 조사와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표 Ⅰ-15〉 잠재적 층화변수

<table>
<tr><th>순서</th><th>변수 분류</th><th>분류지표</th></tr>
<tr><td>1차</td><td>1인 가구 비율</td><td>설계층별 1인 가구 비율로 구간화
<table><tr><th>1구간</th><th>2구간</th><th>3구간</th></tr><tr><td>Q0(min)~Q1</td><td>Q1~Q3</td><td>Q3~Q4(max)</td></tr></table></td></tr>
<tr><td>2차</td><td>행정구역</td><td>행정구역 코드</td></tr>
<tr><td>3차</td><td>65세 이상
인구 비율</td><td>설계층별 65세 이상 비율로 구간화
<table><tr><th>1구간</th><th>2구간</th><th>3구간</th></tr><tr><td>Q0(min)~Q1</td><td>Q1~Q3</td><td>Q3~Q4(max)</td></tr></table></td></tr>
<tr><td>4차</td><td>3세대 가구 비율</td><td>설계층별 3세대 가구 비율로 구간화
<table><tr><th>1구간</th><th>2구간</th><th>3구간</th></tr><tr><td>Q0(min)~Q1</td><td>Q1~Q3</td><td>Q3~Q4(max)</td></tr></table></td></tr>
</table>

주: Q0 - 최솟값, Q1 - 제1사분위수, Q3 - 제3사분위수, Q4 - 최댓값

3.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세부 층별 표본배분

표본크기(sample size)의 결정요소로 통계생산 단위별 목표 허용오차 크기가 주어지면 아래 식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의 통계와 17개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n = \frac{\sum_{h=1}^{H} N_h^2 S_h^2 / w_h}{N^2 D^2 + \sum_{h=1}^{H} N_h S_h^2}$$

여기서 N_h와 S_h^2은 각각 h층의 크기와 표본 분산을 나타내고 w_h는 h층의 표본배분식(비례배분은 $w_h = N_h/N$ 임)이며, D^2은 목표 허용오차와 신뢰계수의 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표본크기는 조사 예산 및 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목표 허용오차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000가구로 결정하였으며, 이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p이다. 전체 표본크기를 12,000가구로 설정하고, 조사비용과 조사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사구당 13가구를 조사한다면 총 923개의 표본 조사구가 필요하다.

〈표 Ⅰ-14〉에서 경기와 서울의 조사구 수는 각각 전체의 24.0%, 18.6%를 차지하지만, 제주와 세종은 각각 1.4%와 0.7%이므로 시/도 간의 추출틀이나 조사대상자에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대 표본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곱근 비례배분법이나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배분법(sample allocation)을 탐색한다.

이전 차수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으며, 제주와 세종과 같이 조사 모집단과 추출틀의 분포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시/도 단위로 분석할 경우, 최소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개 조사구를 우선 할당한 후에 나머지 823개 조사구는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검토한다. 참고로 제곱근 비례배분과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제곱근 비례배분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17} \sqrt{N_h}}$$

○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n_h = n' + (n - n' \times 17) \times \frac{N_h}{\sum_{h=1}^{17} N_h}$$

위 식에서 N_h 와 n_h는 각각 h시/도의 모집단 가구 수와 표본 조사구 수를 나타내고, N은 전체 가구 수, n은 전체 표본크기, n'은 우선 할당 표본 조사구 수를 나타낸다.

다음 〈표 Ⅰ-16〉은 17개 시/도별로 앞서 언급한 2종류의 표본 배분법을 적용한 배분결과 및 기대 표본오차를 나타낸다.

〈표 Ⅰ-16〉 표본배분 결과

구분	조사 모집단		조사구 할당 결과		가구 할당 결과		기대 표본오차	
시도	조사구 수	가구 수	제곱근 비례배분	5개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5개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제곱근 비례배분	5개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전국	383,723	20,836,195	923	923	12,000	12,000	0.913	0.913
서울	71,443	3,972,957	107	165	1,391	2,145	2.681	2.159
부산	26,371	1,402,316	64	61	832	793	3.466	3.550
대구	17,017	984,090	53	45	689	585	3.808	4.133
인천	20,418	1,138,015	58	51	754	663	3.641	3.883
광주	10,517	598,415	42	29	546	377	4.278	5.149
대전	10,888	630,161	43	30	559	390	4.228	5.062
울산	8,346	443,020	36	23	468	299	4.620	5.781
세종	2,545	138,794	20	12	260	156	6.196	8.002
경기	91,939	5,083,664	121	209	1,573	2,717	2.521	1.918
강원	12,760	658,746	44	31	572	403	4.179	4.980
충북	12,696	676,909	44	32	572	416	4.179	4.901
충남	16,797	888,185	51	41	663	533	3.882	4.330
전북	14,230	753,087	47	35	611	455	4.044	4.687
전남	14,551	737,007	46	35	598	455	4.088	4.687
경북	22,028	1,127,478	57	50	741	650	3.672	3.921
경남	25,863	1,342,923	62	59	806	767	3.521	3.610
제주	5,314	260,428	28	15	365	196	5.231	7.140
평균							4.014	4.582
표준편차							0.853	1.514
범위							3.675	6.084

〈표 Ⅰ-16〉의 결과에서 기대 표본오차를 기준으로 17개 시/도별 평균, 표준편차가 안정적인 제곱근 비례배분 방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합 배분법으로 결정하였다. 시/도별 기대 표본오차는 최소 ±2.5%p에서 최대 ±6.2%p로 시/도별로 비교적 안정적 통계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조사 완료 후 주요 항목에 대한 시/도별 상대표준오차를 검토하여 시/도별 통계생산 및 공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층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Ⅰ-17〉과 같다.

〈표 Ⅰ-17〉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분포와 표본배분 결과

구분		조사구 수				가구 수			
		동부		읍면부	합계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전국		172,917	138,290	72,516	383,723	418	314	191	923
서울	북서부	4,724	8,051	-	12,775	7	12	-	19
	북동부	9,405	12,177	-	21,582	14	18	-	32
	남서부	8,758	13,784	-	22,542	13	21	-	34
	남동부	7,677	6,867	-	14,544	12	10	-	22
	소계	30,564	40,879	-	71,443	46	61	-	107
부산		15,240	11,131	-	26,371	37	27	-	64
대구		9,934	7,083	-	17,017	31	22	-	53
인천		11,132	9,286	-	20,418	32	26	-	58
광주		6,985	3,532	-	10,517	28	14	-	42
대전		5,951	4,937	-	10,888	24	19	-	43
울산		5,163	3,183	-	8,346	22	14	-	36
세종		1,911	634	-	2,545	15	5	-	20
경기	중북부	25,921	17,585	9,447	52,953	34	23	13	70
	남부	19,496	12,760	6,730	38,986	26	17	8	51
	소계	45,417	30,345	16,177	91,939	60	40	21	121
강원		4,333	2,861	5,566	12,760	15	10	19	44
충북		4,179	2,797	5,720	12,696	14	10	20	44
충남		4,575	2,809	9,413	16,797	14	9	28	51
전북		5,970	3,680	4,580	14,230	20	12	15	47
전남		3,856	2,107	8,588	14,551	12	7	27	46
경북		6,196	4,669	11,163	22,028	16	12	29	57
경남		10,016	6,026	9,821	25,863	24	14	24	62
제주		1,495	2,331	1,488	5,314	8	12	8	28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본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 내 개인이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표본추출은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표본추출 전 명시적 층화변수인 21개 권역,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과 잠재적 층화변수인 1인 가구 비율, 행정구역코드, 65세 이상 인구 비율, 3세대 가구 비율 구간별로 추출틀을 정렬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구의 특성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추출된 표본 조사구가 작성 시점 차이로 인하여 조사구 전체가 유고(예. 재건축, 재개발, 기타 사유 등)가 발생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재개발, 주택에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등)되었을 경우 표본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13가구를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조사 대상 가구는 통계청으로부터 수령한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DB화하여 계통추출을 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 대상 가구를 판별 후 조사한다.

표본 가구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로 하고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도록 하여 부재 가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마다 「가구방문기록표」 양식에 준해 가구 접촉 상황을 기록하였다. 4회 방문 시에도 조사 대상 가구 또는 가구원을 접촉하지 못했을 때도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인접한 대체 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대체하였다.

가구 내 가구원 선정은 만 12세 이상 모든 적격 가구원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5. 가중치 조정 및 모수추정

1) 가중치 조정

2023년 가족실태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 설계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출한다. 가중치 조정 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23년 추계가구·인구 자료(통계청)를 기준으로 한다.

○ 설계 가중치

설계 가중치는 표본 조사구에 대한 추출률(sampling fraction)의 역수와 표본 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1hij} = \frac{\sum_{h=1}^{N_h} M_{hi}}{n_h \cdot M_{hi}} \times \frac{M_{hi}^*}{m_{hi}}$$

여기서, n_h는 h층에 할당된 표본 조사구 수, N_h는 h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M_{hi}는 h층의 i조사구 내의 명부상 가구 수, M_{hi}^*는 h층의 i조사구 내의 실제 가구 수, m_{hi}는 h층내의 i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를 나타내며, m_{hi}는 원칙상 13가구이다. 일반적으로 모집단 가구 수와 모집단 적격 가구 수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M_{hi} \cong M_{hi}^*$ 가정함).

○ 무응답 조정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2hi} = \frac{m_{hi}}{r_{hi}}$$

여기서, m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의 표본가구 수(원칙적으로 13가구)를 나타내며, r_{hi}는 h층 내의 i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낸다.

○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 보정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1인, 2인, 3인, 4인 이상)를 반영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F_{ab} = \frac{G_{ab}}{\sum_{a}\sum_{b}(w_{1hi} \times w_{2hi})}$$

여기서, G_{ab}는 a 시/도, b 가구원수 형태(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모집단 가구수를 나타낸다.

○ 표본 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반영

표본 가구 내에서 만 12세 이상 적격 가구원을 전수 조사하지만 조사 불능 및 조사 불응의 사유로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w_{3hij} = \frac{e_{hij}}{e_{hij}^{(r)}}$$

여기서, e_{hij}는 h층 내의 i조사구, j가구 내의 적격 가구원 수, $e_{hij}^{(r)}$는 h층 내의 i조사구, j가구 내의 실제 응답 가구원 수를 나타낸다.

○ 사후층화 보정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2023년 추계가구 ·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층별 구성비를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 가구 기준 사후층화 : 시/도, 가구주의 성, 연령대별, 가구원수별 사후층화 검토
- 가구원 기준 : 시/도, 성별, 연령대별 사후층화

○ 최종가중치

최종가중치는 앞서 언급했던 가중치 요소들의 곱으로 산출한다.

- 최종가중치 (w_{hij})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 계수 × (가구원 수 분포) 보정 계수 × 표본 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 사후층화 보정 계수

2) 모평균(모비율) 추정

가족실태조사에서 주요 관심 변수에 대한 추정량(estimators)은 모비율이나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 방법과 동일하나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 변숫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본 실태조사의 표본설계는 여러 가지 표본추출법을 적용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 기법이므로 이에 적합한 추정식을 적용하여 조사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복합표본설계에서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hat{\bar{Y}} = \frac{\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w_{...}},\ w_{...} = \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여기서, w_{hij}는 h 층, i 조사구 내, j 가구(가구원)의 가중치이고, y_{hij}는 각 응답 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은 층의 수 n_h는 h층에서의 1차 표본 추출 단위(조사구)의 수, m_{hi}는 h층 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3) 모평균(모비율) 추정

앞서 제시한 모비율 또는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집락추출 등의 설계 효과(design effect)를 반영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은 층의 수, n_h는 h층에서의 1차 표본 추출 단위(조사구)의 수, m_{hi}는 h층 내 i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y_{hij} - \bar{y})\right)/w_{...}$, $\bar{e}_{h..} = \left(\sum_{i=1}^{n_h} e_{hi.}\right)/n_h$이다.

4)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추정

모평균(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다음과 같다.

○ 표준오차 추정량

$$\widehat{SE}(\hat{\bar{Y}}) = \sqrt{\hat{V}(\hat{\bar{Y}})}$$

○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widehat{RSE}(\hat{\bar{Y}}) = \frac{\widehat{SE}(\hat{\bar{Y}})}{\hat{\bar{Y}}} \times 100(\%)$$

6. 상대 표준 오차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에서 승인통계 표본크기의 적절성은 모집단 특성의 고려 여부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이하 RSE) 크기로 평가한다. RSE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RSE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6]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통계청은 RSE의 값이 30%미만이면 신뢰할 수 있는 추정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 30%이상 ~ 60%미만의 값은 주의와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60%이상 값은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7]. 또한 품질관리진단 작성에서는 10% 미만(RSE가 매우 작음), 10% 이상~30% 미만(RSE가 작음), 30% 이상~60% 미만(RSE가 중간 수준), 60% 이상(RSE가 큼)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8].

이에 본연구에서는 통계의 정확성과 품질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주요항목에 대해 오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차분석은 가족의 범위, 동거하는 이유,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등에 대해 성별 연령별 상대표준오차를 통해 통계의 품질을 점검하였다.

먼저 가족의 범위는 가족실태조사에서 핵심 조사 사항 중 하나로, 상대표준오차는 성별과 연령별에서 가족의 범주로 제시된 답항 모두에서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와 '기타'를 제외, 15% 미만으로 좋은 품질을 보여 주었다. 성별로는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와'기타' 제외, 가족 범위 모두에서 3% 이내, 연령별로는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와 '기타' 제외, 가족 범위 모두에서 13% 이내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

6) 통상 상대표준오차(RSE)의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국가마다 다르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가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을 준하여 설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미만은 매우 우수(excellent), 5~10% 미만은 우수(very good), 10~15% 미만은 좋음(good), 15~25% 미만은 허용가능(acceptable), 25~35% 미만은 주의 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35% 이상은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로 정리하고 있다.

7) 통계청,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p.127

8) 통계청,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p.41

〈표 Ⅰ-18〉 가족의 범위에 대한 주요 변수별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층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배우자	비율	90.6	91.2	90.1	68.7	76.9	90.6	95.6	96.6	96.3	96.3
	RSE	0.37	0.54	0.50	3.05	1.89	1.03	0.49	0.42	0.44	0.55
자녀	비율	91.3	91.0	91.6	72.3	78.1	88.3	95.6	97.4	97.6	98.0
	RSE	0.36	0.55	0.46	2.82	1.82	1.19	0.49	0.35	0.30	0.35
부모	비율	86.6	87.5	85.6	95.7	94.8	88.9	84.2	84.7	80.7	82.9
	RSE	0.42	0.58	0.61	1.06	0.69	0.86	1.14	1.05	1.29	1.41
배우자의 부모	비율	63.1	63.4	62.7	47.2	53.4	63.0	66.5	67.1	66.4	68.8
	RSE	0.84	1.21	1.17	4.61	2.92	2.25	1.89	1.78	1.83	2.05
형제자매	비율	71.9	73.0	70.8	79.2	79.6	74.7	68.3	70.0	67.4	69.0
	RSE	0.69	0.94	1.01	2.15	1.52	1.51	1.91	1.73	1.79	2.15
배우자의 형제자매	비율	44.3	45.4	43.3	29.2	37.3	44.5	45.5	47.7	47.4	50.5
	RSE	1.23	1.74	1.73	6.52	3.97	3.19	3.05	2.69	2.67	3.00
형제자매의 배우자	비율	36.9	37.7	36.1	21.9	30.9	35.7	37.0	41.3	40.1	43.2
	RSE	1.46	2.06	2.08	7.67	4.60	3.91	3.70	3.13	3.11	3.76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비율	31.0	31.9	30.2	18.2	24.4	29.8	30.7	35.0	34.5	37.7
	RSE	1.65	2.33	2.34	8.75	5.40	4.47	4.19	3.49	3.50	4.18
친조부모	비율	38.3	40.0	36.7	34.1	36.4	37.5	36.3	40.6	39.7	41.7
	RSE	1.45	2.00	2.09	5.97	4.12	3.63	3.78	3.22	3.25	4.03
외조부모	비율	34.4	35.4	33.4	31.8	31.9	33.8	32.7	36.4	35.8	37.2
	RSE	1.56	2.19	2.22	6.27	4.46	4.04	4.05	3.50	3.51	4.25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	비율	23.8	24.8	22.8	16.4	20.4	21.0	22.4	27.1	27.2	27.9
	RSE	2.02	2.79	2.92	9.23	6.22	5.50	5.26	4.30	4.27	5.33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	비율	22.2	22.9	21.5	16.1	18.7	19.7	20.9	25.3	25.5	25.8
	RSE	2.08	2.92	2.96	9.49	6.48	5.78	5.36	4.52	4.48	5.26
조카(친조카, 배우자의 조카)	비율	22.8	23.5	22.2	10.5	18.8	20.6	21.9	27.3	26.2	27.7
	RSE	2.04	2.85	2.92	12.76	6.55	5.59	5.25	4.19	4.31	5.13
사위	비율	49.1	48.9	49.3	24.2	37.9	41.2	43.3	54.4	61.8	69.0
	RSE	1.09	1.59	1.51	7.44	3.90	3.42	3.11	2.26	1.94	2.14

구분		전체	성별		연령층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며느리	비율	51.0	50.7	51.3	24.7	39.8	42.7	44.8	55.9	63.6	73.5
	RSE	1.05	1.54	1.44	7.31	3.75	3.35	3.04	2.19	1.87	1.89
친손자녀	비율	52.9	52.6	53.1	29.9	43.0	44.7	45.7	57.5	64.4	74.8
	RSE	1.03	1.51	1.41	6.64	3.53	3.23	3.08	2.16	1.84	1.85
외손자녀	비율	50.8	50.6	50.9	29.0	41.4	43.1	44.5	55.3	62.6	69.2
	RSE	1.08	1.57	1.49	6.84	3.67	3.34	3.15	2.25	1.91	2.17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비율	3.3	3.7	3.0	2.2	3.5	3.6	4.0	3.5	3.3	2.6
	RSE	5.18	7.46	7.06	27.84	16.56	12.15	12.60	10.58	11.14	14.11
기타	비율	0.0	0.0	0.0	-	-	0.1	-	-	-	-
	RSE	59.44	100.00	73.87	-	-	59.46	-	-	-	-

함께 살지만,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유는 가족실태조사에서만 보여주는 통계이다. 동거 이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일부 답항에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수준의 값을 보여 주었다. 답항으로 '취업에 불이익', '재산 상속 등', '가족이 반대', '기타' 이유는 모든 셀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3% 이상으로 이용 상 주의가 필요했다.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 '경제적인 이유', '상대에 대한 확신', '규범에 얽매이지 않음' 이유는 성별로 구분할 경우 20% 미만의 양호한 상대표준오차 값을 보였으나, 연령층으로 구분할 경우 대부분에서 이용 상 주의가 필요한 수준의 상대표준오차 값을 보였다.

〈표 Ⅰ-19〉 동거하는 이유에 대한 주요 변수별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층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	비율	13.5	14.5	12.3	-	20.3	21.0	2.2	2.8	-	1.7
	RSE	19.73	27.58	27.46	-	32.59	24.72	99.75	99.19	-	101.38
취업에 불이익	비율	0.9	-	1.9	-	-	1.6	2.6	-	-	-
	RSE	72.11	-	71.84	-	-	99.39	99.56	-	-	-
경제적인 이유	비율	25.7	26.4	25.0	-	20.1	34.1	24.1	17.4	35.3	17.3
	RSE	13.38	17.99	20.08	-	32.87	19.45	34.40	39.56	33.48	49.22
재산 상속 등	비율	1.6	2.3	0.8	-	-	-	-	5.2	2.1	12.3
	RSE	48.30	58.58	72.54	-	-	-	-	70.21	101.10	66.95
상대에 대한 확신	비율	28.0	28.9	27.0	-	41.1	28.1	17.4	30.0	11.5	6.9
	RSE	13.38	19.35	17.88	-	21.78	20.17	35.58	30.24	67.64	96.02
규범에 얽매이지 않음	비율	22.6	19.4	26.2	-	15.6	14.5	34.9	35.2	51.2	18.4
	RSE	14.20	21.31	18.72	-	37.65	34.33	26.46	27.86	24.72	55.21
가족이 반대	비율	6.1	6.9	5.3	-	2.9	-	16.1	9.3	-	28.8
	RSE	32.96	44.34	48.53	-	98.91	-	61.47	72.81	-	35.77
기타	비율	1.6	1.6	1.6	-	-	0.6	2.6	-	-	14.6
	RSE	55.76	59.85	99.04	-	-	100.09	99.72	-	-	67.81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정책 수립에 주요한 문항이다.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3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답항에서는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수준의 값을 보여 주었다. 답항으로 '자녀의 이혼으로'와 '부모의 이혼으로' 이유는 모든 셀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 이용 상 주의가 필요했다.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이유는 성별, 연령층으로 구분할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Ⅰ-20〉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주요 변수별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층						
		전체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혼자 살고 싶어서	비율	14.3	16.6	12.8	-	19.6	28.0	29.6	18.0	5.9	6.3
	RSE	6.62	9.17	9.03	-	16.56	11.86	13.31	14.84	20.25	16.92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	비율	5.1	6.2	4.4	-	3.9	1.1	13.0	8.2	4.0	4.2
	RSE	11.87	16.40	17.08	-	37.44	46.65	25.98	27.33	25.68	21.37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	비율	22.4	33.1	15.9	100.0	71.3	63.7	32.3	12.2	5.1	0.7
	RSE	6.65	6.51	9.69	-	5.19	5.48	12.22	20.40	20.78	38.45
배우자의 사망	비율	31.9	13.6	43.0	-	-	-	2.1	5.9	42.6	73.7
	RSE	4.55	10.18	4.20	-	-	-	59.33	24.19	6.49	2.79
본인의 이혼	비율	13.7	17.8	11.3	-	-	2.0	12.9	30.0	25.4	5.9
	RSE	7.28	9.33	10.88	-	-	38.39	21.27	10.89	9.88	19.81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	비율	1.5	1.6	1.4	-	0.5	0.2	1.2	3.7	2.6	0.5
	RSE	17.55	29.96	21.41	-	75.58	100.32	51.32	28.24	27.96	43.07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비율	4.0	2.0	5.3	-	-	1.0	1.0	7.9	6.2	4.1
	RSE	11.69	27.83	13.12	-	-	82.06	51.18	25.72	18.18	18.35
부모나 자녀의 사망	비율	3.5	5.2	2.4	-	0.4	0.9	5.6	8.5	4.8	1.4
	RSE	12.91	17.27	19.34	-	72.49	49.90	31.81	18.96	24.16	35.75
자녀의 이혼	비율	0.0	0.1	-	-	-	-	0.2	-	-	-
	RSE	99.96	100.03	-	-	-	-	100.23	-	-	-
부모의 이혼	비율	0.5	0.5	0.5	-	1.7	0.8	0.2	0.6	0.4	-
	RSE	38.84	52.36	54.57	-	69.00	83.00	100.23	99.93	81.99	-
부모의 직장	비율	0.8	1.8	0.3	-	2.3	2.4	1.5	0.8	0.1	-
	RSE	29.29	32.23	69.03	-	56.99	51.39	44.51	99.79	99.97	-
기타	비율	2.3	1.6	2.7	-	0.2	-	0.5	4.2	2.9	3.3
	RSE	17.52	27.91	21.57	-	100.17	-	71.01	33.72	31.79	20.11

제4절. 응답률 분석

1. 응답률 산정 방법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12,000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족(비혼 동거 가구원 포함)을 조사하는 가구 조사이다. 표본은 본 표본 가구와 예비표본 가구로 나누어 설계하였고, 조사과정 중 본 조사구 외 예비조사구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방문 결과는 성공 여부, 방문 횟수, 방문 시간, 본 표본 가구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문 결과의 유형은 APPOR(2009)에서 정의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유형화 하였다. 그리고 방문 결과는 가구 단위의 응답률을 산정하기 위해 크게 완료, 불응, 비접촉, 불능,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세부 내용은 '가구대표 응답 성공', '사생활 노출 기피 및 정보 보호', '가정 사정(불화, 이혼, 실업 등)', '조사기관·정부 불신', '이유 여하 막론 거절(강력 거절)', '단순 부재(집에 아무도 없음)', '가구 대표 부재', '장기 부재(자구 전원 장기 출타, 여행 등)', '거처 출입 불가', '응답 불능',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대상 거처 아님(상가로 변경, 빈집 등)'으로 구분했다.

본 조사는 선정된 표본 가구에 대해 최대 4회까지 방문하였으며, 방문 시간과 일시를 변경하면서 실시했다.

〈표 Ⅰ-21〉 방문 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구분	결과	내용
완료(I)	기구 대표 응답 성공	조사 완료한 경우
불응(R)	사생활 노출 기피 및 정보보호	사생활 노출 기피 및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거절
	가정 사정(불화, 이혼, 실업 등)	가구 사정으로 거절
	바쁘거나 귀찮음	바쁘거나 귀찮아서 거절
	조사기관·정부 불신	조사기관 또는 주관 정부 부처의 불신을 이유로 거절
	이유 여하 막론 거절 (강력 거절)	특별한 이유 없이 강력하게 거절
비접촉(NC)	단순 부재 (집에 아무도 없음)	조사원이 방문할 당시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가구 대표 부재	집에 사람은 있지만 가구대표가 부재인 경우
	장기 부재 (가구 전원 장기 출타, 여행 등)	가구 전원 여행 등으로 장기 부재인 경우
	거처 출입 불가	출입구의 보안으로 인해 대상 가구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불능(O)	응답 불능	장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격리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부적격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표본 가구에 본 조사 조사대상이 아예 없을 경우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 (철거 등)	해당 위치에 가구가 없는 경우, 재개발 진행 등인 경우
	대상 거처 아님 (상가로 변경, 빈집 등)	거처 종류가 가구가 아닌 상가 등으로 변경된 경우, 빈집 등인 경우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원 지침서」

본 조사의 응답률은 APPOR(2009)에서 제시한 응답률 유형을 참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답률은 부적격 표본을 제외한 적격표본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가족실태조사는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대상 거처 아님(상가로 변경, 빈집 등)'과 같이 조사 대상이 아닌 가구를 부적격 가구로 두고 응답률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률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답률(Response rate)

응답률은 조사에서 응답을 한 비율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APPOR(2009)는 응답률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조사가구 중 응답한 가구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text{응답률} = \frac{I}{I+R+NC+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불능 및 기타) 가구이다.

2) 접촉률(Contact rate)

접촉률은 적격표본 중에서 접촉 가능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해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text{접촉률} = \frac{I+R+O}{I+R+NC+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불능 및 기타가구이다.

3) 협조율(Cooperation rate)

협조율은 접촉한 표본 중 조사에 응답한 모든 표본들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수준과 가구원 수준의 협조율이 있다. 가구 수준의 협조율은 APPOR(2009)에서 제시된 4가지 유형의 협조율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text{가구 협조율} = \frac{I}{I+R+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O = 불능 및 기타가구이다.

4) 거부율(Refusal rate)

거부율은 이용 가능한 표본 중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기를 거부한 표본 또는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표본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가구)가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을 말한다. APPOR(2009)은 3가지 거부율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본 연구는 다음의 정의로 거부율을 정의했다.

$$\text{거부율} = \frac{R}{I+R+NC+O}$$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불능 및 기타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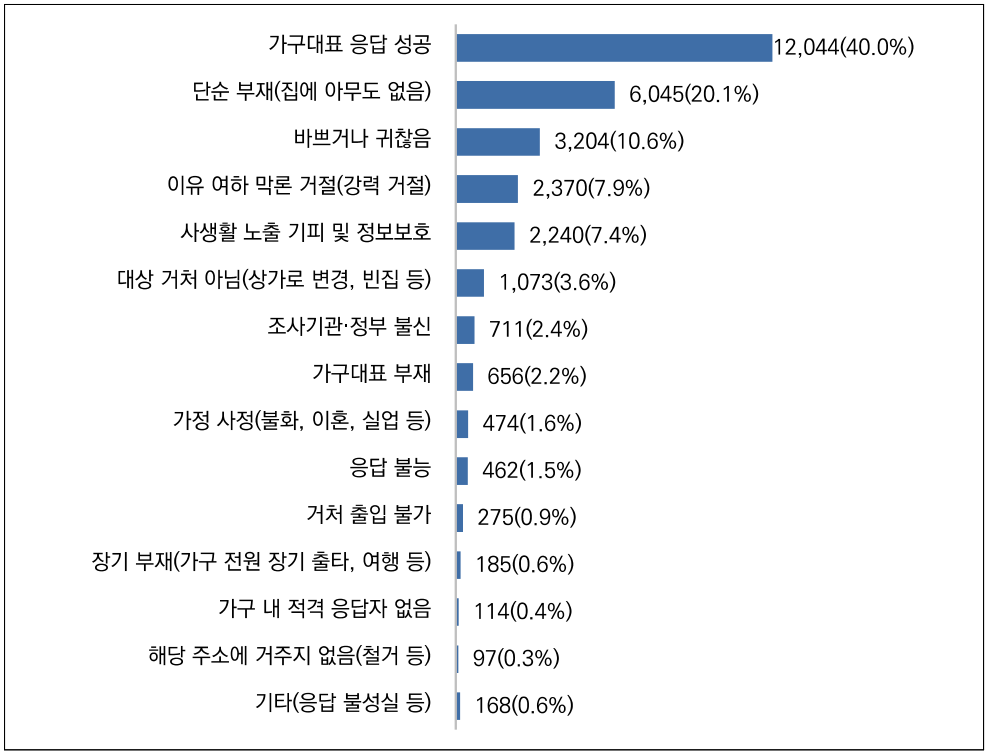
2. 응답률 분석

2023년 가족실태조사의 응답률은 조사의 전체 과정을 수록한 파라데이터(paradata, 조사과정자료) 분석하였다. 파라데이터는 본 표본 유무, 방문 결과, 방문 횟수, 방문 시간대, 가구원 구성 현황(가구원 수, 가구원 성별 및 출생 연도)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중 가구원 구성 정보는 조사가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어 응답률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본 표본 유무, 방문 결과, 방문일시이며, 이들의 특성에 따라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등을 산정했다.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총 30,118가구를 방문했다. 이 중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대상 거처 아님(상가로 변경, 빈집 등)'과 같은 부적격 가구가 1,284가구(4.3%)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28,834가구(95.7%)가 적격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방문 가구 중 40.0%인 12,044가구가 조사에 성공했고, 29.9%(8,999가구)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음(단순 부재, 장기 부재 등)'과 '가구대표 부재' 및 '거처 출입 불가'의 경우로 접촉을 하지 못한 경우도 23.8%(7,161가구)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 불능(장애,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과 응답이 불성실해 유효 표본에서 제외한 가구는 2.1%(630가구)이었다.

(단위: 빈도(가구), n=30,118)



[그림 Ⅰ-4] 전체 가구 최종 방문 결과

한편, 본 표본으로 선정된 12,000가구 중에서 성공한 가구는 5,417가구(45.1%)로 나타났다. 본 표본 가구에서 조사에 불응한 가구는 34.3%(4,123가구)였으며, 집에 아무도 없거나(단순 부재, 장기 부재) 가구대표 부재 및 거처 출입 불가로 비접촉 가구는 12.3%(1,481가구), 부적격 가구는 6.1%(722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불능(장애,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등)이거나 기타(응답이 불성실 등) 사유인 가구는 2.1%(257가구)로 많지 않았다.

〈표 Ⅰ-22〉 본 표본 가구 최종 방문 결과

구분	결과	빈도(가구)	비율(%)
완료	가구대표 응답 성공	5,417	45.1
불응	이유 여하 막론 거절(강력 거절)	1,163	9.7
	사생활 노출 기피 및 정보보호	1,081	9.0
	바쁘거나 귀찮음	1,392	11.6
	가정 사정(불화, 이혼, 실업 등)	207	1.7
	조사기관·정부 불신	280	2.3
	소계	4,123	34.3
비접촉	단순 부재(집에 아무도 없음)	1,152	9.6
	가구대표 부재	160	1.3
	장기 부재(가구 전원 장기 출타, 여행 등)	88	0.7
	거처 출입 불가	81	0.7
	소계	1,481	12.3
불능	응답 불능	179	1.5
부적격	대상 거처 아님(상가로 변경, 빈집 등)	596	5.0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54	0.5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72	0.6
	소계	722	6.1
기타	기타(응답 불성실 등)	78	0.7

1) 본 표본 유지율

조사의 본 표본 유지율은 표본의 대표성과 품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표본조사는 응답 불응과 불가, 조사구 대체 등으로 표본설계의 표본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표본 대체는 통계적 문제뿐 아니라 비표본적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게 최소화해야 한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의 본 표본 유지율은 45.0%로 나타났으며, 대체율은 55.0%로 나타났다.

〈표 Ⅰ-23〉 2023년 본 표본 응답률

(단위: 가구, %)

총 완료 가구	본 표본 가구	대체 가구
12,044	5,417	6,627
(100.0)	(45.0)	(55.0)

2) 본 표본 여부별 응답률

조사 과정 자료를 본 표본과 본 표본 외로 구분하여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등을 계산하면 〈표 Ⅰ-24〉와 같다. 본 표본의 응답률은 48.0%이며, 표본 외까지 합한 전체 표본 응답률은 41.8%로 나타났다.

본 표본의 접촉률은 86.9%이고, 협조율은 55.3%로 접촉한 표본 100명 중 55명 가량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율은 36.6%로 100명 중 37명가량은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24〉 본 표본 가구 여부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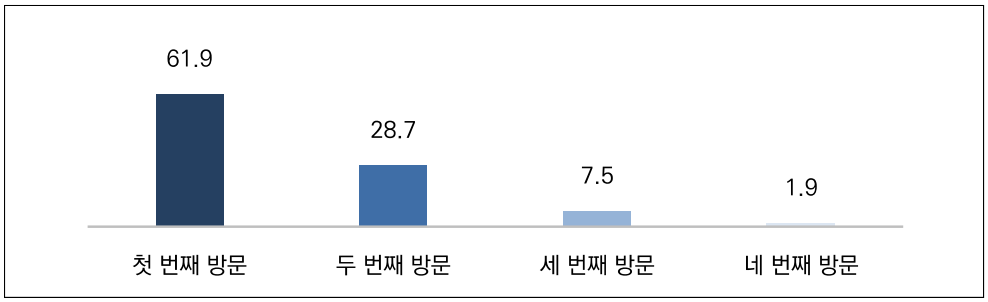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본 표본 가구	48.0	86.9	55.3	36.6
대체 가구	37.7	67.7	55.7	27.8
전체 표본 가구	41.8	75.2	55.5	31.2

3) 방문 횟수별 응답률

가족실태조사는 최대 4회까지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방문하였다. 방문횟수별 성공 정도를 보면, 성공 가구 중 61.9%가 첫 번째 방문에서 성공했고, 28.7%가 두 번째 방문에서, 그리고 7.5%가 세 번째 방문에서, 1.9%가 네 번째 방문에서 성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방문 횟수별 응답 성공률의 특징은 첫 번째 방문 성공률이 매우 높고 응답자의 90.6%가 두 번째 방문 안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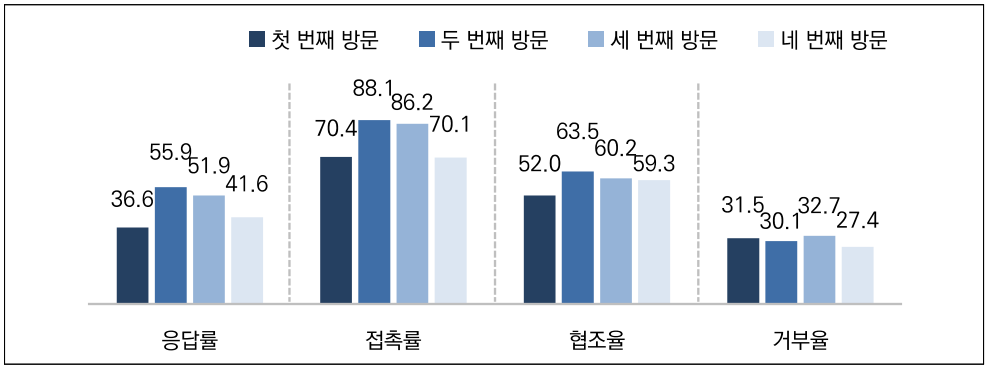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Ⅰ-5] 방문 횟수별 응답 가구의 분포 현황

한편, 방문 횟수별로 성공률을 살펴보면 응답률의 경우 첫 번째 방문에서 36.6%를 보이며, 두 번째 방문 55.9%, 세 번째 방문 51.9%, 네 번째 방문 41.6%로 두 번째 방문 시 응답률이 올라가지만 3회 이상 방문 시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률은 방문 시간 등이 방문 시마다 변경됨에 따라 두 번째 방문에서 88.1%로 가장 높았고, 세 번째 방문 86.2%, 첫 번째 방문 70.4%, 네 번째 방문 70.1% 순으로 높았다. 협조율의 경우는 두 번째 방문에서 63.5%로 가장 높았고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방문 순으로 높았다. 요약해 보면, 응답률과 접촉률, 협조율은 두 번째에 가장 높고 이후 약간씩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거부율은 방문 차수와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비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4회 방문에서 40%대로 크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접촉률과 협조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거부율 또한 소폭 낮아지고 있다. 이에 2026년 조사는 2023년 성공률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4회 방문을 기획하여, 본 표본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그림 Ⅰ-6] 방문 횟수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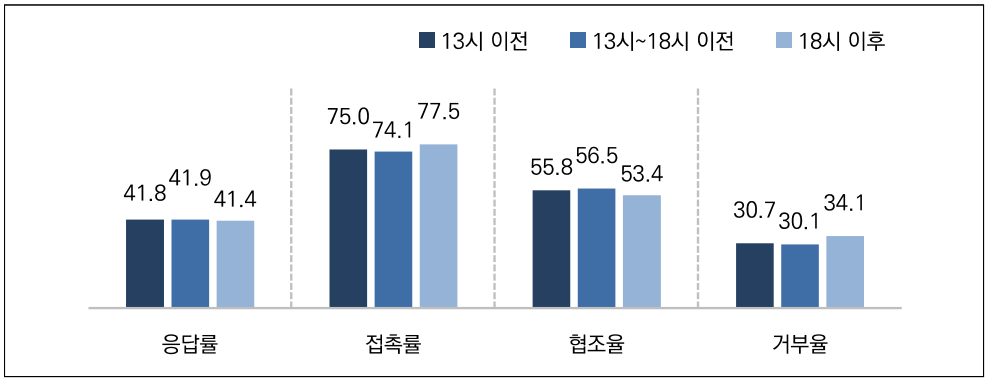
4) 방문 시간대별 응답률

총 30,118가구는 재방문 시 방문 시간을 달리하여 방문하게 된다. 방문 시간대 분석은 총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응답률을 산정하게 된다. 응답률은 41.4%~41.9% 분포로 시간대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접촉률은 18시 이후가 77.5%로 가장 높았고, 13시 이전 75.0%, 13시~18시 이전 시간대가 74.1%로 나타났다. 반면, 협조율은 18시 이후 시간대가 53.4%로 가장 낮았고, 13시~18시 이전 시간대가 56.5%로 비교적 높았다.

협조율의 상대적 개념인 거부율의 경우, 18시 이후 방문 시 34.1%로 가장 높았다. 즉, 18시 이후 방문 시 접촉률은 높으나 거부율도 높고, 이에 따라 협조율 및 응답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Ⅰ-7] 방문 시간대별 응답률

Ⅱ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 내용

제1절.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변화 개요 49
제2절.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설계 62

제1절.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변화 개요

1. 2005년 제1차 조사

2005년 제1차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일반 사항, 자녀 양육, 가족원 보살핌, 개인 일반 사항, 자녀 문제, 가족 의식 및 가치관, 가족 생활과 여가, 노후,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족 정책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세부 조사 항목은 다음 〈표 Ⅱ-1〉과 같다. 가구 일반 사항, 자녀 양육, 가족원 보살핌 등 3개 영역은 가구용 조사표로 가구 대표만 조사한다. 개인 일반사항, 자녀 문제, 가족 의식 및 가치관, 가족 생활과 여가, 노후, 부부 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족 정책 등 8개 영역은 개인용 조사표이며, 가구 대표와 가구원 모두 응답한다.

〈표 Ⅱ-1〉 2005년 제1차 조사의 조사 항목

조사표 유형	가구 일반사항	자녀양육	가족원 보살핌	일반 사항	자녀문제	가족 의식 및 가치관
가구대표	1. 동거 가족원 명수 1-1. 분거 가족원 명수 2. 가족 구성원 정보 2-1. 가구주 관계 2-2. 성별 2-3. 나이 2-4. 혼인상태 2-5. 동거 여부 2-6. 비동거 사유 2-7. 취업여부 2-8. 직업 2-9. 비취업사유 3. 거주형태 4. 주택형대 5. 주거면적 6. 거주지 선택 사유 7. 자동차 보유 여부 8. 가구 소득 구성 8-1. 월평균 가구소득 8-2. 월평균 생활비 8-3. 항목별 지출액	9.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 10. 자녀 정보 10-1. 나이 10-2. 초등학교 취학여부 10-3. 이용기관 10-4. 주평균 이용 시간 10-5. 월평균 총 이용 비용 11. 기관이용시간외 돌봄 11-1. 돌보는 사람 11-2. 주평균 돌봄 시간 11-3. 돌봄 비용	12. 돌봄대상자 65세 이상 여부 13. 65세 이상 돌봄 대상자 수 (13-1) 65세 이상 돌봄 관련 13-1-1 응답자와의 관계 13-1-2. 성별 13-1-3. 나이 13-1-4. 불편 사유 13-1-5. 주돌봄자 13-1-6. 돌봄비용 13-1-7. 비용 충당 방식 13-2. 돌봄 어려움 14. 65세 미만 돌봄대상자 수 (14-1) 65세 미만 돌봄 관련 14-1-1. 응답자와의 관계 14-1-2. 성별 14-1-3. 나이 14-1-4. 불편사유 14-1-5. 주돌봄자 14-1-6. 돌봄비용 14-2. 돌봄어려움	1. 혼인상태 1-1. 법률혼여부 1-2. 초혼여부 2. 형제자매 수 3. 최종학력 4. 취업여부 4-1. 종사상 지위 4-2. 직장 유형 4-3.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4-4. 정기휴무횟수 4-5. 월평균소득 4-6. 일가정병행 어려움 5. 일하지 않는 사유 5-1. 취업의향 6. 가사노동 여부 횟수 시간 7. 계층인식 8. 생활만족도 9. 건강수준	10. 이상 자녀수 10-1. 이상적인 아들딸 수 11. 저출산 정책 의견 12. 배우자출산휴가 필요 여부 12-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3. 아버지육아휴가제 도입 필요여부 13-1. 아버지 육아휴가 기간 14. 출산 경험 14-1. 추가 자녀 희망여부 14-2. 추가 자녀계획 없는 이유 14-3. 지원시 추가 자녀 희망 여부 15. 자녀 가치관	16. 가족의 의미 17. 가족의 범위 18.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19. 가족가치관 20. 부모 부양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21. 노부모 모시는 방법에 대한 의견 22. 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의견 23. 성역할 인식
가구원	(해당 없음)			가구대표용과 동일		

조사표 유형	가족생활과 여가	노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정책
가구대표	24. 가족 식사 빈도 25. 평일저녁시간 보내는 방법 26. 평일 가족시간 27. 주말 가족 여가활동 28. 여가활동 가족 참여 빈도 29. 여가시간 어려움 사유 30. 휴대폰인터넷으로 가족관계 변화여부	31. 노후 보내고 싶은 방법 32.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 32-1. 노후 경제적 준비 내용 33. 유산 상속 방법 34. 자녀 유산 상속 비율	34. 의사결정주체 35. 대화시간 35-1. 대화시간 충분정도 36. 부부관계만족도 37. 부부관계 38. 갈등경험 39. 이혼고민갈등경험 39-1. 이혼갈등여부 결혼지속 사유 40. 부부싸움 횟수 41. 부부간 폭력발생 여부 42. 어린자녀 돌봄 분담 43. 자녀돌봄분담만족도	(부모임장) 43. 자녀양육어려움 44. 자녀와동거희망시기 45. 자녀 경제적 책임 시기 46. 자녀와 의사소통 (청소년자녀입장) 47. 부모동거여부 48. 부모동반활동 빈도 48. 아버지와의 대화 만족도 49. 어머니와의 대화만족도 50. 고민여부 50-1. 고민내용 50-2. 고민상담자 51. 부모와 동거 시기	52. 직장가정병행 지원제도 53. 노인부양 지원정책서비스 54.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 54-1.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 55. 희망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56. 가족중심 생활환경 조성 필요지원 57. 가족 상담 경험 58. 상담기관 유형 58-1. 상담을 받아보지 않은 이유 59. 희망하는 가족상담형태 60. 이혼후 비양육부모 양육비 부담에 대한 의견 61. 이혼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법적 청구에 대한 의견 62. 부모 생존 여부 62-1. 부모생활비 마련 방법 63. 국제결혼가족 지원에 대한 의견 64. 한부모가족정책에 대한 의견
가구원	가구대표용과 동일				

2. 2010년 제2차 조사

2010년 제2차 조사는 가구 대표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가구 대표용 조사표는 가족 사항,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소비 생활,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가족의 식생활, 가족의 주생활, 가정생활 문화 등 6개 영역으로 가구 대표가 응답한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가구 대표와 가구원 모두 응답하는 조사표이며, 개인 일반 사항, 가족 인식 및 태도, 가족 형성 및 변화, 가족 관계, 일과 돌봄, 가정생활 양식,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세부 조사 항목은 다음 〈표 Ⅱ-2〉, 〈표 Ⅱ-3〉과 같다.

〈표 Ⅱ-2〉 2010년 제2차 조사의 조사 항목 - 가구 대표용 조사표[9)]

조사표 유형	Ⅰ. 가족 사항	Ⅱ.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소비생활	Ⅲ. 노인 및 기타 가족원 돌봄	Ⅳ. 가족의 식생활	Ⅴ. 가족의 주생활	Ⅵ. 가정생활문화
가구 대표	7. 동거 가족원 명수 8. 분거 가족원 명수 9. 가족 구성원 정보 명수 10. 이름 11. 가구주 관계 12. 성별 13. 만나이 14. 혼인상태 15. 동거여부 16. 비동거 사유 17. 취업여부 18. 직업 19. 학력 20. 가족 특성 21. 국제결혼 가구원번호	22. 자동차 보유 여부 23. 자동차 유형별 보유 24. 자동차 유형별 수 25. 가구소득 구성 26. 월평균 가구소득 27. 생계비 항목별 지출 여부 28. 생계비 항목별 지출액 29. 저축 여부 30. 저축액 31. 저축의 목적 32. 부채 여부 33. 부채액 34. 부채 사유 35.. 주택 보유 36. 주택수와 시가 총액 37. 금융자산 보유 여부 38. 금융자산 총액 39. 현재 경제상태 40. 월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41. 가구의 경제적 준비 수준 42. 실업시 소비지출유지 여부 43. 항목별 지출 부담 44. 가족쇼핑 45. 상품구입처	46. 돌봄 가구원 여부 47. 돌봄 가구원 노인 여부 48. 65세 이상 돌봄대상자 수 49.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50. 돌봄대상자 성별 51. 돌봄대상자 불편사유 52. 주돌봄자 53. 비용 충당 방식 54. 돌봄대상자 연령 55. 돌봄 비용 56. 돌봄어려움 57. 65세이하 돌봄대상자 수 58.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59. 돌봄대상자 성별 60. 돌봄대상자 불편 사유 61. 주돌봄자 62. 돌봄대상자 연령 63. 돌봄비용 64. 돌봄어려움 65. 돌봄지원정책욕구	66. 2인이상 가족여부 67. 가족 함께 식사 빈도 68. 직접조리식사횟수 69. 응답자본인조리여부 70. 직접조리어려움 71. 대용식 이용 빈도 72. 가족외식빈도 73. 가족외식결정주체 74. 가족외식 사유 75. 가족외식 우려점	76. 주택 유형 77. 거주지 선택 기준 78. 주거환경 만족 79. 이웃의 의미 80. 이웃 도움 요청 여부 81. 이웃 도움 요청 내용 82. 이웃활동 참여 83. 이웃교류활성화 의견	85. 가족행사활동 86. 결혼식 여부 87. 결혼식 장소 88. 결혼식 의례 절차 89. 결혼 10년이상 여부 91. 결혼비용 남편 지출금액 92. 결혼비용 부인 지출금액 93. 결혼당시 부채 여부 94. 결혼당시 부채 금액 95. 결혼당시 부채 주체 96. 기념일 함께 보내는 사람 97. 전통적 제사 여부 98. 제사 범위 99. 제사 지내지 않는 사유 100. 사후 묘지 계획 101. 명절 노동 주체 102. 명절을 보내는 가족 103. 명절 참석 범위- 본인 가족 104. 명절 참석 범위- 배우자 가족 105. 명절과 제사음식 마련 방법 106. 명절 때 가족 활동 내용

9) 문항 번호 1 ~ 6은 응답 가구 번호, 지역, 등답자 이름 등 조사 진행 관련 기본 정보로 제시하지 않음

〈표 Ⅱ-3〉 2010년 제2차 조사의 조사 항목 - 가구원용 조사표[10)]

조사표 유형	Ⅰ. 개인 일반사항	Ⅱ. 가족 인식 및 태도	Ⅲ. 가족 형성 및 변화	Ⅳ. 가족 관계	
가구원	7. 성별 8. 연령 9. 행복도 10. 가족생활 만족도 12. 계층의식 13. 성인시기에 대한 생각	14. 행복영향요소 15. 의지대상 16. 가정건강성 17. 가족의 범위 18. 자녀가치관 19. 가족가치관 20.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21.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Ⅲ-1 결혼] 22. 혼인상태 23. 배우자와의 혼인상태 24. 결혼기간 25. 배우자 만남경로 26. 배우자 선택조건 27. 결혼지원정책 28. 미혼자녀 여부 29. 자녀적정결혼연령 30. 자녀 국제 결혼 동의 여부 31, 별거이혼사유 32. 별거이혼책임주체 33. 부모중이혼별거재혼경험자 여부 34. 이혼자지원정책 35. 결혼예상 연령 36. 배우자 선택기준 37. 사귀는사람여부 38. 외국인과결혼의견 39. 미혼자 결혼지원정책의견 40. 미혼사유 [Ⅲ-2 출산] 41. 이상자녀수 42. 자녀여부 43. 자녀수 44. 추가자녀희망여부 45. 희망추가자녀수 46. 추가자녀계획없는이유 47. 지원 시 추가 자녀 계획 48. 지원시 희망 추가 자녀수 49. 입양 의향 50. 입양 희망사유 51. 입양 미희망 사유	[Ⅳ-1 부부 관계] 52. 배우자 여부 53. 의사결정주체 54. 의사소통방식 55. 대화시간 56. 의사소통만족도 57. 관계평등 인식 58. 현배우자와 결혼의향 59. 부부관계만족도 60. 갈등경험 61. 이혼고려 경험 62. 이혼고려에도 결혼지속사유 63. 부부 폭력 여부 64. 갈등대처방법 65. 부부관계향상 지원 [Ⅳ-2 부모-청소년자녀 관계] (부모응답) 66. 만 12세이상 24세 자녀 여부 67. 어린자녀 성별 68. 어린자녀 연령 69. 자녀 양육 어려움 70. 자녀 이성 문제 어려움 71. 자녀 경제적 책임 시기 72. 자녀와의 의사소통 73. 자녀대화충분정도 74. 자녀와의 관계 75. 자녀 관계만족도	(자녀응답) 76. 15세~24세 여부 77. 부모 생존 여부 78. 아버지대화충분정도 79. 어머니대화충분정도 80. 부모의 경제적 책임 시기 81. 부모관계 82. 부모관계 만족도 83. 고민여부 84. 고민내용 85. 고민상담자 [Ⅳ-3 부모-성인 자녀 관계]] (부모응답) 87. 성인자녀여부 88. 성인자녀 혼인상태 89. 따로 사는 성인자녀 접촉빈도 90. 대화주제 91. 성인자녀 관계 92. 지원 여부 93. 지원 대상 94. 도움받는지 여부 95. 도움을주는 사람 96. 성인자녀관계만족도 (성인자녀응답) 97. 부모생존여부 98. 부모접촉빈도 99. 부모관계 100. 지원여부 101. 지원대상 102. 도움받는지여부 103. 도움을주는사람 106. 부모 생활비 마련 주체 107. 부모관계만족도

10) 문항 번호 1 ~ 6은 응답 가구 번호, 지역, 등답자 이름 등 조사 진행 관련 기본 정보로 제시하지 않음

조사표 유형	V. 일과 돌봄		VI. 가정생활 양식	VII.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가구원	[V-1 일] 108. 일하는지 여부 109. 종사상 지위 110. 직장유형 111. 주당평균근무시간 112. 정기적휴무횟수 113. 일만족도 114. 소득 115. 일과가정 병행 어려움 116. 근무시간조정 가능여부 117. 가족친화제도 여부 118. 가족친화제도 이용 여부 119. 이용만족도 120. 가족친화제도 미이용 사유 121. 일가정 균형여부 122. 일가정 갈등 경험 123. 일하지 않는 사유 124. 취업의향 125. 선호근로시간 126. 시간제근로 희망 사유 127. 직장가정병행 필요 지원 [V-2 가족원의 가사참여] 128. 가사노동여부 129. 주평균 가사노동 횟수 130. 가사노동 1회 소요시간 131. 돌봄 가족원 유무 132. 돌봄시간 133. 가사분담/돌봄분담 만족도	134. 배우자가사분담만족도 135. 배우자돌봄분담만족도 136. 만12세이하 자녀돌봄분담 [V-3 아동돌봄] 137. 영유아 초등학생 주양육자 여부 138. 자녀관계 139. 영유아 초등생 자녀 수 140. 자녀의 어려움 141. 자녀 양육 만족도 142. 자녀 양육 어려움 143. 취학전 자녀 성별 144. 취학전 자녀 연령 145. 긴급시 양육조력자 146. 돌봄의 질만족도 147. 나홀로 시간 148. 이용 기관 149. 기관 유형 150. 주돌봄자(기관이용시간외) 151. 보육교육비용 152. 기관 미이용시 주돌봄자 153. 돌봄 비용 154. 돌봄 질만족도 156. 초등자녀 성별 157. 초등 자녀 연령 158. 방과후 시간 보내는 방법 159. 나홀로시간 160. 나홀로시간에 대한 생각 161. 초등자녀 교육 지원 필요 서비스	[V-1 생활설계] 162. 노후 희망 동거인 163.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 164. 노후경제적준비내용 165. 노후 중요한 것 166. 생활설계 필요성 167. 생활설계 준비도 [V-2 가족여가] 168. 2인이상가족여부 169. 가족여가시간 170. 여가활동-평일 171. 여가활동-휴일 172. 여가시간 어려움사유 173. 희망여가활동-배우자 174. 희망여가활동-부모자녀함께 175. 여가생활 만족도 176. 주5일 근무(수업)이후 여가 변화 178. 여가활동의 의미 179. 가족프로르램 참여 의향 180. 가족참여프로그램 희망 내용	181. 저출산 해결 정책 182. 배우자 출산휴가 인지 여부 183. 육아휴가제 인지 여부 184.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이용 방법 의견 185. 가족친화생활환경 조성 필요 지원 186. 부모 부양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187.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 여부 188.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18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여부 19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191.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

3. 2015년 제3차 조사

2015년 제3차 조사의 조사표는 가족원 명부 조사표, 가구 대표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3종으로 설계하였다. 가족원 명부 조사표는 가족원 현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이다. 조사표는 개인 관련 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 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 준비, 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 돌봄, 가구 특성 등 9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구 대표용 조사표는 9개 영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원용 조사표는 개인 관련 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 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 준비, 정책에 대한 인식 등 7개 영역이 있다.

영역별 세부 조사 항목은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2015년 제3차 조사의 조사 항목

조사표 유형	가족원 명부	Ⅰ. 개인 관련 사항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Ⅲ. 가족형성과 변화	Ⅳ. 가족 관계	
가구대표	1. 동거 가족원 명수 2. 분거 가족원 명수 3. 가족 구성원 정보 - 성별 - 가구대표관계 - 생년월일 - 교육정도 - 장애인복지카드여부 - 동거여부 - 비동거사유	1. 성별 2. 생년월일 3. 교육수준	4. 가족 범위 5. 의지 대상 6. 가족가치관 7. 결혼식 및 비용에 대한 인식 8. 성역할 의식 9.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10. 자녀 가치관 11. 계층의식	12. 적정 결혼연령 13. 배우자 선택기준 14. 적정 결혼 비용 15. 혼인상태 15-1. 결혼 기간 15-2. 이혼별거사유 16. 분거 자녀 16-1. 자녀수 17. 추가 자녀 희망 여부 17-1. 희망 추가 자녀 수 17-2. 추가 자녀 계획 없는 사유 17-3. 지원 시 추가 자녀 계획 여부 18. 적정 자녀수 19. 입양 의향 19-1. 입양희망사유 19-2. 입양비희망사유	[Ⅳ-1 부부 관계] 20. 의사결정주체 21.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21-1. 의사소통만족도 22. 갈등 경험 23. 이혼 고려 경험 23-1. 이혼 고려에도 부부관계 지속 사유 24. 부부갈등 대처행동 25. 12세 미만 자녀 여부 25-1. 자녀돌봄 분담 25-2. 자녀돌봄 분담만족도 26. 부부 관계 만족도 [Ⅳ-2.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7. 자녀 양육 어려움 28. 청소년 자녀 관계 29. 청소년 자녀 관계 만족도 [Ⅳ-3. 성인 자녀와의 관계] 30. 상호지원 32.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33. 성인 자녀 관계 35. 성인 자녀 관계 만족도	[Ⅳ-4. 청소년 자녀 대상 부모와의 관계] 34. 부모 생존 여부 35. 부모와의 관계 36. 부모 관계 만족도 [Ⅳ-5. 성인 자녀 대상 부모와의 관계] 37. 부모 생존 및 동거 여부 38. 따로 사는 부모와 접촉 빈도 39. 부모와의 관계 40. 부모와 상호 지원 41.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 42. 부모 관계 만족도
가구원	(해당 없음)	가구 대표용 공통질문과 동일				

조사표 유형	Ⅴ. 일	Ⅵ.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Ⅶ. 정책에 대한 인식	Ⅷ. 가족돌봄	Ⅸ. 가구 특성
가구대표	43. 근로여부 44. 고용형태 46. 근무시간 47. 일·가정 갈등 정도	[Ⅵ-1.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48. 가사 참여 49. 가족 여가활동 50. 가족 여가시간 51. 여가시간 충분도 51-1. 여가불충분사유 [Ⅵ-2. 생애 설계와 노후 준비] 52. 생애 설계 준비 53. 노후 희망거처 53-1. 노후 희망동거인 54. 경제적 준비 54-1. 경제적 준비내용	55. 가족서비스인지도 56. 일·가정 지원책 57. 남성 가사육아참여확대 정책 58. 작은결혼식정책 59. 지역사회 이웃 교류 활성화 정책	60. 동거 가구원 유무 60-1. 취약전 영유아 유무 [영유아 자녀 돌봄] 61. 이용 기관 유무 61-1. 기관 유형 61-1-1. 기관이용비용 61-2. 돌보는 사람(기관이용시간외) 61-2-1. 비용 61-3. 기관 미이용시 돌보는 사람 61-3-1. 돌봄 비용 61-3-2. 돌봄 시간 62. 긴급 양육 도움자 [초등학생 돌봄] 63. 초등학생 유무 64. 방과 후 기관및돌봄자 64-1. 기관이용비용 64-2. 나홀로시간 65.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함께 사는 가족 돌봄] 66. 돌봄 필요 가족원 여부 66-1. 돌봄대상자와 주돌봄자 66-2.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Ⅸ-1 가족형태] 67. 가족 특성 68. 가정 건강성 [Ⅸ-2 주택 특성] 69. 주택 유형 70. 점유 형태 [Ⅸ-3 경제상태] 71. 가족 소득 구성 71-1. 월평균소득 72. 월평균 지출 72-1. 부모 부양비 비중 73. 현재 경제 상태
가구원	가구 대표용 공통질문과 동일			(해당 없음)	

4. 2020년 제4차 조사

2020년 제4차 조사의 조사표는 2015년 제3차 조사와 유사하게 가족/가구원 명부 조사표, 가구 대표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3종이다. 가족/가구원 명부 조사표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현황 조사표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분거 가족 정보도 파악한 점이 2015년 제3차 조사와 다른 점이다.

조사표는 개인 관련 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 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 준비, 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 돌봄, 1인 가구, 가구 특성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인 가구 영역은 2020년에 신설하였다.

영역별 세부 조사 항목은 다음 〈표 Ⅱ-5〉와 같다.

〈표 Ⅱ-5〉 2020년 제4차 조사의 조사 항목

조사표 유형	가족/가구원 명부	Ⅰ. 개인 관련 사항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Ⅲ. 가족형성과 변화	Ⅳ. 가족 관계	
가구대표	1. 동거가족구성원 명수 2. 분거가족구성원 명수 3. 동거가구원 정보 - 성별 - 가구대표관계 - 생년월일 - 교육정도 - 장애이복지카드여부 4. 분거 가족 정보 - 성별 - 가구대표 관계 - 연령	1. 성별 2. 생년월일 3. 교육수준	4. 가족 범위 5. 가족의 정의 6. 의지 대상 7. 가족가치관 8. 가족의례 및 문화 9. 가족내 성역할 10. 부모 및 자녀 부양 11. 자녀가치관 12. 가족에 대한 인식 13. 계층의식	14. 혼인상태 14-1. 결혼 기간 14-2. 혼인신고여부 14-2-1.혼인신고계획 14-2-2. 동거 이유 14-2-3. 동거시 어려운 점 15. 현재 자녀 여부 15-1. 현재 자녀 수 16. 자녀계획	[Ⅳ-1 배우자 관계] 17. 동거 및 맞벌이여부 18. 배우자 관계 19. 대화 시간 20. 의사결정 21. 가사수행 22. 만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23. 갈등·의견충돌 24. 헤어짐 고려 25. 갈등해결 방식 26. 부부관계 만족도 [Ⅳ-2.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7. 자녀양육 어려움 28. 자녀 관계 29. 의사결정 30. 자녀 관계만족도 [Ⅳ-3. 성인 자녀와의 관계] 31. 생일 빠른 성인 자녀 특성 32. 상호도움 관련 33. 성인 자녀 관계 34.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35. 관계만족도	[Ⅳ-4. 청소년 자녀 대상 부모와의 관계] 36. 부모님 생존 여부 37. 부모와의 관계 38. 의사결정 39. 부모관계 만족도 [Ⅳ-5. 성인 자녀 대상 부모와의 관계] 40. 부모 생존 및 동거 여부 41. 따로 사는 부모와 접촉 빈도 42. 부모와 관계 43. 부모와 상호 도움 여부 등 44.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 45.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가구원	(해당 없음)		가구대표용 공통질문과 동일			

조사표 유형	Ⅴ. 일	Ⅵ.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Ⅶ. 정책에 대한 인식	Ⅷ. 가족돌봄	Ⅸ. 1인 가구	Ⅹ. 가구 특성
가구대표	46. 근로여부 47. 고용형태 48. 근무시간 49. 일·가정 갈등 경험정도	[Ⅵ-1.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50. 가사 참여 51. 가족 여가활동 52. 가족 여가시간 53. 여가시간 충분도 [Ⅵ-2. 생애 설계와 노후 준비] 54. 생애설계 55. 원하는 노후거처 및 노후 동반자 56 경제적 준비	57. 제도인식 정도 58. 필요 가족지원 서비스 59. 일·가정 조화지원책 60. 정부 지원 필요한 가족 형태 61. 다양한 가족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62. 동거 가구원 유무 [영유아 자녀 돌봄] 63. 이용 기관 63-1. 기관유형 63-2. 돌보는사람(기관 이용 시간외) 63-3. 미이용시 돌봄자 63-4. 돌봄시간 64. 긴급양육 도움자 65. 자녀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 [초등학생 돌봄] 66. 초등학생 유무 67.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 68. 혼자지내는 시간 69. 자녀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 [함께 사는 가족 돌봄] 70. 돌봄 필요 가구원 여부 70-1. 돌봄대상자와 주돌봄자 70-2.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71. 1인 가구 여부 72. 1인 가구 생활 기간 73. 1인 가구 형성 이전 동거인 74. 주된 이유 75. 생활비 주된 마련 방법 76. 부담 지출 항목 77. 주거 마련 방법 78. 따로 사는 가족 경제적 부양 여부 79. 따로 사는 가족 돌봄 80. 생활상 어려움 81. 고민상담자 82. 1인 가구 지속의향 및 사유 83. 1인 가구 지원정책 수요	84. 가정 건강성 85. 주택 유형 86. 점유 형태 87. 가족 소득 구성 87-1. 월평균 소득 88. 가족 지출 89. 현재 경제 상태
가구원	가구대표용 공통질문과 동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2절.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설계

1. 조사표 구성 기본 방향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표는 2022년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표는 가족 실태 관련 시계열 분석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2020년)에 따른 조사 주기 단축을 고려하여 주요 문항을 유지하되 세부 문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하였다.

조사표 영역별로 2020년 대비 개선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영역은 독신자 입양에 대한 인식 등 최근 입법 추진 동향을 반영하였다. 둘째, 가족 관계 영역은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문항을 추가하고, 배우자 관계에서도 자녀 양육 등 가족 내 역할 과업 이외에 평등한 관계나 배우자의 의미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가족생활과 노후 생애 설계는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 노후에 일상생활 및 돌봄 도움을 누구에게 기대하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고 노후 경제적 준비 관련 문항을 보완하였다. 넷째, 가족 돌봄 영역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 수행 여부를 파악하고자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1인 가구 영역에서는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이외에 만족도까지 균형 있게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돌봄 관계 파악을 위하여 분거 가족으로부터 간병 관련 돌봄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Ⅱ-6〉 2023년 조사표 주요 보완 내용

영역	2020년	2023년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의 범위, 삶의 방식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가족 내 남녀 역할, 부모 부양 및 양육에 대한 인식 등	- (추가) 독신자의 자녀 입양 동의 정도 ※ 민법 개정안(법무부 제출, 국회 계류) 등 입법 추진사항 반영
가족 관계	- 배우자 관계 - 부모 - 청소년 자녀 관계 - 부모 - 성인 자녀 관계	- (추가) 전반적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 (추가) 배우자 관계에 대한 인식 및 배우자의 의미 - (추가) 부모와 청소년 자녀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생활과 노후 생애 설계	가사 노동 참여, 가족 여가, 생애 설계, 노후 경제적 준비	- (추가)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 노후 돌봄자 기대, 노후 경제적 준비 하지 않는 사유 등
가족 돌봄	- 영유아 돌봄 - 초등학생 돌봄 - 함께 사는 가족원 돌봄	- (추가) 가구원의 간병 돌봄 수행 여부

2. 조사 항목 체계와 세부 조사 항목

가. 조사 항목 체계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 항목 체계는 다음 〈표 Ⅱ-7〉과 같다. 조사표는 가구 대표용과 가구원용 2종이며, 가구 공통 사항 4개 영역, 개인 사항 7개 영역 등 11개 영역이다. 가구 대표용 조사표는 가구/가족원 명부, 가족 돌봄, 가구 특성, 1인 가구(1인 가구 대표만 응답) 등 가구 공통 사항과 개인 관련 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 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 생애 설계, 정책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개인 관련 사항,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과 변화, 가족 관계, 일, 가족생활과 노후 생애 설계, 정책에 대한 인식 등 7개 영역이다.

〈표 Ⅱ-7〉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 항목 체계

구분	영 역	주요 조사 항목
가구 대표	H. 가구/가족원 명부	가구원 수, 동거 가구원 수, 동거 가구원 정보, 분거 가족원 수 등
가구 대표, 가구원 공통	Ⅰ. 개인 관련 사항	성별, 교육 수준 등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의 정의, 가치관, 부양·돌봄 책임, 가족 의례 등
	Ⅲ. 가족형성과 변화	혼인 상태, 비혼 동거, 자녀 유무 등
	Ⅳ. 가족 관계	- 가족 관계 만족도 - 배우자 관계 (배우자 관계 의미, 의사소통, 의사결정, 자녀돌봄 분담, 가사수행 분담, 갈등 경험, 전반적 관계 만족도) - 청소년 자녀 관계 (양육 어려움, 의사결정, 관계 만족도 등) - 성인 자녀 관계 (상호 도움, 접촉 빈도, 관계 만족도 등)
	Ⅴ. 일	근로 여부, 고용 형태, 일·생활 균형 어려움 등
	Ⅵ. 가족 생활과 노후 생애 설계	가사 노동 참여, 가족 여가, 생애 설계, 노후 희망 주거, 노후 경제적 준비, 노후 돌봄자에 대한 기대
	Ⅶ. 정책에 대한 인식	가족 지원 서비스 인지도, 가족 지원 서비스 수요, 일·생활균형 정책 수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인식 등
	Ⅷ. 가족 돌봄(가구원)	가족 돌봄 여부, 돌봄대상자
가구 대표	Ⅷ. 가족 돌봄	- 영유아 자녀 돌봄(돌봄기관, 돌봄자,돌봄 필요시간대 등) - 초등학생 자녀 돌봄(돌봄기관, 돌봄자, 나홀로 시간, 돌봄 필요 시간대 등) - 함께 사는 가족원 간병 돌봄(돌봄대상자, 주돌봄자,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Ⅸ. 1인 가구	1인 가구 형성 사유, 생활비 및 주거 마련 방법, 따로 사는 가족 부양과 돌봄, 간병돌봄 수혜 여부, 생활상 어려움, 혼자 살 의향, 지원 욕구, 생활 만족도 등
	Ⅹ. 가구 특성	가정 건강성, 주택 유형, 소득, 지출 등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 항목 체계를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가족실태조사」의 내용과 전 차수 조사와 비교하면 다음 〈표 Ⅱ-8〉과 같다.

〈표 Ⅱ-8〉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대비 차수별 조사 항목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가족실태조사」의 내용	제1차 「가족실태조사」(2005)	제2차 「가족실태조사」(2010)	제3차 「가족실태조사」(2015)	제4차 「가족실태조사」(2020)	제5차 「가족실태조사」(2023)
■ 가족 구성원의 일반적 특성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 가구 및 가족원의 일반적 사항 (가구특성, 가족원 특성)	■ 가구 및 가족원의 일반적 사항 (가구특성, 가족원 특성)	■ 가구대표 및 가족원의 일반적 사항 (가구특성, 가족원 특성)	■ 가구대표 및 가족·가구원의 일반적 사항 (가구대표 및 가족·가구원특성) * 비혈연동거가구원 포함	■ 가구대표 및 가족·가구원의 일반적 사항 (가구대표 및 가족·가구원특성) * 비혈연동거가구원 포함
■ 가족의 경제상태 (소득·지출·자산 등)	■ 가족의 경제상황 (소득현황)	■ 가구의 경제적 특성	■ 가족의 경제상황 (소득 및 지출현황)	■ 가구특성(가족소득, 지출, 경제상태,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가정의 건강성)	■ 가구특성(가족소득, 지출, 경제상태,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가정의 건강성)
■ 가족 가치관 (가정의 형성·유지 등)	■ 가족의식 및 가치관, 가족형성	■ 가족 인식 및 태도, 가족 형성 및 변화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행태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 가족형성(결혼·출산) ■ 돌봄(아동·노인 및 기타 가족원)	■ 가족 형성 및 변화 (결혼·출산) ■ 일과 돌봄(일, 가족원의 가사 참여, 아동돌봄, 노인 및 가족원 돌봄)	■ 가족 형성 및 변화 (결혼, 출산, 입양) ■ 일과 돌봄(일, 가족원의 가사 참여, 아동 돌봄, 노인 및 가족원 돌봄)	■ 가족 형성과 변화 (혼인상태, 자녀수) ■ 일(일, 고용형태, 근무시간, 일가정양립갈등) ■ 돌봄(아동 돌봄, 가족 돌봄)	■ 가족 형성과 변화 (혼인상태, 자녀수) ■ 일(일, 고용 형태, 근무시간, 일생활 균형) ■ 돌봄(아동 돌봄, 가족원 돌봄 등)
■ 가족 관계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 가족 관계 및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 가족 관계 (부부관계, 부모-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성인 자녀관계)	■ 가족 관계 (부부관계, 부모-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성인 자녀관계)	■ 가족 관계(배우자 관계,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 부모-성인 자녀 관계)	■ 가족 관계(배우자 관계, 부모-청소년 자녀 관계, 부모-성인 자녀 관계)
■ 생활양식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일부 포함	■ 가정생활양식 (생활설계, 소비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여가, 가정생활문화)	■ 가정생활양식 (생애설계, 가족 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과 노후준비	■ 가족생활 (가사 참여, 가족 여가) ■ 노후준비 (생애설계, 노후대비)	■ 가족생활 (가사 참여, 가족 여가) ■ 노후 생애 설계 (생애설계, 노후대비)
■ 가족문제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 가족 관계에 일부 포함	■ 가족갈등은 '가족 관계'에, 가족해체는 '가족형성 및 변화'에 포함	■ 가족갈등은 '가족 관계'에, 가족해체는 '가족형성 및 변화'에 포함	■ 가족 관계에 일부 포함	■ 가족 관계에 일부 포함
■ 서비스 욕구 (건강가정 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 정책 및 서비스 욕구	■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욕구	■ 정책에 대한 인식	■ 정책에 대한 인식
■ 1인 가구의 생활실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인 가구의 생활실태	■ 1인 가구의 생활실태

조사 항목 체계에 따른 조사 문항 흐름도는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H. 가족/가구원 명부
동거 가구원 수
※ 본인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___(명)
비동거 가족수
※ 가구 대표를 중심으로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및 부모와 동거 가족 포함
가족·가구원 상세 내역
가구원 번호
가구 대표와의 관계
개인 정보 (성별, 취업 여부, 생년 월일)
장애인 복지 카드 여부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조사 대상/ 조사 여부
불응 /불능 사유
I. 개인 관련 사항
• 성별
• 생년월일
• 교육수준
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가족의 범위
• 가족 정의
• 가장 의지되는 대상
• 가족 가치관
• 가족 의례 및 문화
• 가족내 성역할인식
• 부모 부양 태도
• 자녀 양육 태도
• 소속 계층
III. 가족 형성 및 변화
혼인 상태
(미혼)
(유배우)
• 혼인신고 여부
• 비혼동거
- 혼인신고 의향
- 비혼동거 사유
- 비혼동거 어려움
(별거)
자녀 관련 사항
(이혼)
• 자녀유무
• 자녀 수
• 추가 자녀 계획
(사별)
IV. 가족 관계
(가구원 전체)
•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유배우)
배우자 관계
• 배우자 관계에 대한 인식
• 배우자의 의미
• 대화시간과 만족도
• 의사결정 주체
• 가사수행 주체
• 자녀 돌봄 주체
• 갈등
• 전반적 만족도
(자녀 있음)
부모와 만 12-25세 미만 자녀 관계
부모와 만 25세 이상 자녀 관계
(부모 생존 시)
만 12-25세 미만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
만 25세 이상 성인 자녀와 부모 관계

[그림 Ⅱ-1] 2023년 가족실태조사 조사 문항 흐름도

나. 세부 조사 항목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영역별 세부 항목은 다음 〈표 Ⅱ-9〉와 같다. 총 11개 영역, 97개 문항이다. 97개 문항의 세부 하위 문항까지 고려하면 총 338개 문항이다.

〈표 Ⅱ-9〉 2023년 가족실태조사 세부 조사 항목

영역	조사 항목	
H. 가족가구원 명부	- 가구원 수 - 가구원 정보(가구대표와의 관계, 성별, 취업 여부, 장애인복지카드, 생년월일,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조사대상 여부, 조사 여부, 조사 미완료 사유)	
Ⅰ. 개인관련 사항	1. 성별 2. 생년월일 3. 교육수준	
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가족 범위 5. 가족의 정의 6. 의지 대상 7. 삶의 방식 및 가족 가치관 8. 가족 의례 및 문화 9.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역할 10.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11. 자녀와 자녀 양육 12. 주관적 계층의식	
Ⅲ. 가족 형성 및 변화	13. 혼인상태 - 결혼 기간 및 혼인 신고 여부 - 비혼 동거 대상(혼인신고 계획, 동거 사유, 동거시 어려운 점) 14. 현재 자녀 여부 15. 자녀 계획	
Ⅳ. 가족 관계	16.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Ⅳ-1 배우자 관계	17. 배우자 동거 및 맞벌이 여부 18. 평등한 배우자 관계에 대한 인식 19. 배우자의 의미에 대한 인식 20.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21. 의사소통 만족도 22. 의사결정 주체 23. 가사수행 주체 24.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및 분담 만족도 25.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및 사유 26. 이혼이나 헤어짐 고민 여부 27. 배우자와의 갈등 해결 방식 28. 전반적인 배우자 관계 만족도

영역	조사 항목	
	Ⅳ-2.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9. 응답 기준 청소년 자녀 특성(동거 여부, 성별, 연령) 30.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31. 청소년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 32.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견 존중 여부 33.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34. 청소년 자녀 관계 만족도
	Ⅳ-3. 성인 자녀와의 관계	35. 응답 기준 성인 자녀 특성(동거여부, 성별, 연령, 혼인상태) 36. 성인 자녀와의 상호지원 37. 성인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 38. 따로 사는 성인 자녀 접촉 빈도 39. 성인 자녀 관계 만족도
	Ⅳ-4. 청소년 자녀 대상 부모와의 관계	40. 부모 생존 여부 41. 부모 관계에 대한 인식 42. 의사결정시 부모의 본인 의견 존중 여부 43.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44. 부모 관계 만족도
	Ⅳ-5. 성인자녀 대상 부모와의 관계	45. 부모 생존 및 동거 여부 46. 따로 사는 부모 접촉 빈도 47. 부모 관계에 대한 인식 48. 부모와의 상호 지원 49.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 50. 부모 관계 만족도
Ⅴ. 일	51. 취업 여부 52. 고용 형태(종사상 지위) 53. 주당 평균 근로시간 54. 일·생활 균형 어려움	
Ⅵ. 가족 생활과 노후 생애설계	55. 집안일 참여 여부와 수행 시간 56. 2인 이상 가족과의 여가활동 57. 여가 시간 58. 여가 시간 충분 정도와 불충분 사유 59.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 60. 생애 설계 준비 정도 61. 노후 희망 거처와 노후 동반자 62. 노후 경제적 준비 여부와 사유 63. 노후 예상 돌봄자	
Ⅶ. 정책에 대한 인식	64.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65.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66.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 수요 67.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영역	조사 항목	
Ⅷ. 가족 돌봄	Ⅷ-1. 가구원 돌봄	68. 장기적 지속적 돌봄 수행 여부 - 돌봄대상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
	Ⅷ-2. 취학 전 영유아 돌봄	69. 영유아 가구원 유무 70. 주중 낮시간 돌봄 기관 이용 여부 - 돌봄기관 및 주로 돌보는 사람, 돌봄 시간 등 71. 긴급 돌봄 조력자 72. 영유아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Ⅷ-3. 초등학생 돌봄	73. 초등학생 가구원 유무 74. 방과후 돌봄 기관 75. 방과후 나홀로 시간 76.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
	Ⅷ-4. 함께 사는 가족 돌봄	77.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 중 장기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여부 -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주로 돌보는 사람 및 성별 -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Ⅸ. 1인 가구	78. 1인 가구 생활 기간 79. 1인 가구 이전 동거인 80. 1인 가구 사유 81. 생활비 마련 방법 82. 부담되는 지출 항목 83. 주거 마련 방법 84. 따로 사는 가족 경제적 부양 여부 및 해당 가족 85. 따로 사는 가족 장기적 돌봄 여부 및 해당 가족 86. 따로 사는 가족의 돌봄 지원 여부 및 해당 가족 87. 생활상 어려움 88. 사적 지지망 89.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90. 1인 가구 지속 의향 및 사유 91. 지원정책 욕구	
Ⅹ. 가구 특성	92. 주관적 가정 건강성 93. 주택 유형 94. 주거 점유 형태 95. 가족 소득 구성 및 월평균 소득액 96. 가족 지출 97.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Ⅲ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제1절. 가구 및 가구원 일반적 특성 73
제2절. 조사 응답자 특성 80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은 가구 및 가구원 특성과 조사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원 특성, 조사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구 특성은 가족/가구원 명부를 통해 파악한 가구의 세대 및 가족형태, 가구 대표가 응답한 가족의 소득,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구원 특성은 동거 가구원과 비동거 가구원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조사 응답자 특성은 가구 대표 응답자와 가구원 응답자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등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제1절. 가구 및 가구원 일반적 특성

1.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 세대 및 가족 형태

조사 가구 수는 12,062가구이며 응답 가구의 세대와 가족 구성 및 가구원 관련 사항은 조사표 H. 가구/가족원 명부를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세대 구성을 보면 2세대 가구 39.6%, 1인 가구 33.6%, 1세대 가구 25.1%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을 보면 1인 가구가 33.6%로 가장 많고 부부+자녀 가구가 33.2%, 부부가구 24.3%이다. 2020년 제4차 조사와 비교하면 1세대 가구는 2020년 22.8%에서 2023년 25.1%로 늘어났고 2세대 가구는 2020년 43.2%에서 3.6%p 감소하였으며, 1인 가구는 ’20년 30.4%에서 ’23년 33.6%로 늘어났다.

〈표 Ⅲ-1〉 세대 및 가족 형태 - 제4차 조사와 비교

(단위: %)

세대	가구 구성	2020년	2023년
1세대 가구	부부	22.1	24.3
	기타	0.7	0.8
	소계	22.8	25.1
2세대 가구	부부+자녀	31.7	33.2
	부모+자녀부부	0.1	0.2
	부+자녀부부	0.1	0.0
	모+자녀부부	0.4	0.5
	부+자녀	1.8	0.5
	모+자녀	7.9	4.7
	조부모+손자녀	0.2	0.0
	조부 또는 조모+손자녀	0.3	0.2
	기타	0.7	0.3
	소계	43.2	39.6
3세대 가구	부모+자녀부부+손자녀	0.3	0.2
	부+자녀부부+손자녀	0.1	0.1
	모+자녀부부+손자녀	1.4	0.7
	부모+부+손자녀	0.2	0.1
	부친+부+손자녀	0.0	0.0
	모친+부+손자녀	0.3	0.1
	부모+모+손자녀	0.2	0.1
	부친+모+손자녀	0.0	0.0
	모친+모+손자녀	0.3	0.1
	기타	0.4	0.1
	소계	3.2	1.5
4세대 이상 가구		0.0	0.0
1인 가구		30.4	33.6
비혈연 가구		0.5	0.1

다음 〈표 Ⅲ-2〉에서 조사 가구의 가구원 수를 보면 1명이 33.6%로 가장 많고, 2명(29.0%), 3명(19.4%) 순이다. 가구원 수가 2명 이하인 비율은 전체 가구의 62.6%이며 이는 2020년(61.1%) 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가구원 수 평균은 2.2명이다.

〈표 Ⅲ-2〉 가구원 수

(단위: %)

가구원 수	2020년	2023년
1명	31.0	33.6
2명	31.1	29.0
3명	17.9	19.4
4명	15.7	15.4
5명 이상	4.4	2.5
평균 가구원 수	2.3	2.2

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

조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5.4%로 가장 많고 300~400만원 미만(17.9%), 200-300만원(16.1%) 순이다(〈표 Ⅲ-3〉 참조). 〈표 Ⅲ-4〉에서 가족의 소득 구성을 보면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69.9%)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46.7%)이다. 한편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지원소득 비중도 높아 39.5%를 차지하였고, 기초연금(13.9%),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13.7%)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5〉에서 가구의 월평균 지출 규모를 보면 200-300만원 미만이 26.0%로 가장 많고 300-400만원 미만(22.4%), 100-200만원 미만(20.9%) 순이다. 가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통이다가 61.3%로 대부분이고 나쁜 편(매우 나쁜 편+나쁜 편)이 19.6%이었다. 가구의 경제 상태를 좋은 편(매우 좋은 편+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19.1%로 가장 적었다.

〈표 Ⅲ-3〉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구성비
100만원 미만	6.4
100~200만원 미만	10.5
200~300만원 미만	16.1
300~400만원 미만	17.9
400~500만원 미만	13.8
500만원 이상	35.4
계	100.0

〈표 Ⅲ-4〉 가족의 소득 구성(중복응답)

(단위: %)

구분	구성비
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69.9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46.7
자녀의 근로 및 사업 소득	10.6
부모의 근로 및 사업소득	2.4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지원소득	39.5
부동산 임대소득	2.8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4.3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3.8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13.7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공공부조)	5.9
퇴직금	1.8
전배우자의 지원소득(양육비 등)	0.2
기초연금	13.9
기타	0.1

〈표 Ⅲ-5〉 월평균 지출

(단위: %)

구분	구성비
100만원 미만	8.9
100~200만원 미만	20.9
200~300만원 미만	26.0
300~400만원 미만	22.4
400~500만원 미만	12.9
500만원 이상	8.9
계	100.0

〈표 Ⅲ-6〉 현재 가구 경제 상태

(단위: %)

구분	나쁜 편(매우 나쁜편+나쁜 편)	보통이다	좋은편(좋은 편+ 매우 좋은 편)	계
구성비	19.6	61.3	19.1	100.0

2. 가구원 일반적 특성

가. 동거 가구원 특성

동거 가구원은 가구/가족원 명부를 통해 파악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으로 12세 이하 가구원도 포함한다. 가구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 대표 본인 44.5%, 배우자 26.0%, 자녀 25.4%로 배우자와 자녀가 대부분이다. 그 외 가구 대표의 부모가 2.3%, 가구 대표의 형제자매가 0.7%이다. 기타 동거인은 0.1%인데, 기타 동거인 중에서 비혼 동거, 직장 동료 및 친구, 그 외 기타 동거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비혼 동거인 경우가 0.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6.8%, 여성 53.2%이며, 연령은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18.1%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세 이상~60세 미만으로 17.6%이다.

〈표 Ⅲ-7〉 동거 가구원의 특성

(단위: %)

구분			구성비
전체			100.0
성별	남성		46.8
	여성		53.2
연령	20세 미만		14.6
	20세 이상~30세 미만		10.3
	30세 이상~40세 미만		13.7
	40세 이상~50세 미만		14.0
	50세 이상~60세 미만		17.6
	60세 이상~70세 미만		18.1
	70세 이상		11.6
장애인 복지카드	있음		3.1
	없음		96.9
가구 대표와의 관계	본인		44.5
	배우자(사실혼 포함)		26.0
	자녀		25.4
	자녀의 배우자		0.2
	부모		2.3
	배우자의 부모		0.2
	손자녀		0.4
	손자녀의 배우자		0.0
	조부모		0.1
	배우자의 조부모		-
	형제자매		0.7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기타 친인척		0.1
	기타 동거인	비혼 동거	0.1
		직장 동료 및 친구	0.0
		기타 동거인	0.0

나. 비동거 가족원 특성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3.3%이다. 비동거 가족원의 비동거 사유는 '직장(취업)이 54.5%로 가장 많고 기타(26.2%)를 제외하면 '학업(학교, 취직 준비 등)이 10.8%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비동거 가족원 여부 및 수

(단위: %)

구분		구성비
없다		76.7
있다	1명	9.4
	2명	11.4
	3명	2.0
	4명	0.4
	5명 이상	0.0
	계	23.3
전체		100.0

〈표 Ⅲ-9〉 비동거 가족원의 비동거 사유

(단위: %)

구분		구성비
비동거 사유	학업(학교, 취직 준비 등)	10.8
	직장(취업)	54.5
	군입대	2.9
	가족 간 불화(별거 등)	1.5
	건강상 이유(요양 등)	3.0
	자녀 교육 지원	1.0
	기타	26.2
	계	100.0
전체		100.0

제2절. 조사 응답자 특성

1. 가구 대표 응답자

가족실태조사의 조사 응답자는 표본 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이다. 가구원 중 가구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구 대표로 응답을 하게 된다. 가구 대표 응답자는 가구/가족원 명부, 가족 돌봄,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응답을 하게 된다.

가구 대표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65.0%로 남성(35.0%)보다 많다. 연령은 60세 이상~70세 미만이 23.8%로 가장 많다. 다음은 50세 이상~60세 미만(22.6%), 40세 이상~50세 미만(17.0%), 70세 이상(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가 60.4%로 가장 많고 미혼(15.5%)과 사별(15.0%)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고 이혼 또는 별거 9.1%이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가 39.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교(4년제 이상)로 26.4%이다. 취업 여부는 취업 66.8%. 비취업 33.2%로 취업이 더 많았다.

〈표 Ⅲ-10〉 가구 대표의 특성

(단위: %)

구분		구성비
전체		100.0
성별	남성	35.0
	여성	65.0
연령	20세 미만	0.2
	20세 이상~30세 미만	5.3
	30세 이상~40세 미만	14.8
	40세 이상~50세 미만	17.0
	50세 이상~60세 미만	22.6
	60세 이상~70세 미만	23.8
	70세 이상	16.4
혼인상태	미혼	15.5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60.4
	이혼 또는 별거	9.1
	사별	15.0
교육수준	무학	3.3
	초등학교	7.9
	중학교	8.2
	고등학교	39.2
	대학교(4년제 미만)	14.0
	대학교(4년제 이상)	26.4
	대학원	1.0
취업여부	취업	66.8
	비취업	33.2

2. 12세 이상 가구원 응답자

아래 〈표 Ⅲ-11〉은 가구대표를 제외하고 12세 이상 가구원 응답자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12세 이상 가구원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60.8%, 여성 39.3%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이상~30세 미만 19.9%, 20세 미만

15.0%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다음은 50세 이상~60세 미만 14.8%, 40세 이상~50세 미만 14.6%, 30세 이상~40세 미만 14.2% 순 등이다. 혼인상태는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56.5%이고, 미혼이 41.2%로 나타났다. 12세 이상 가구원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가구 대표 응답자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33.9%), 대학교(4년제 이상)(29.8%) 순이다. 취업 여부를 보면 취업 57.2%, 비취업 42.8%로 가구 대표 응답자와 동일하게 취업자 비율이 높았다.

〈표 Ⅲ-11〉 12세 이상 응답 가구원의 특성

(단위: %)

구분		빈도	구성비
전체		23,894,202	100.0
성별	남성	14,515,584	60.8
	여성	9,378,618	39.3
연령	20세 미만	3,573,512	15.0
	20세 이상~30세 미만	4,756,373	19.9
	30세 이상~40세 미만	3,391,698	14.2
	40세 이상~50세 미만	3,490,174	14.6
	50세 이상~60세 미만	3,536,628	14.8
	60세 이상~70세 미만	3,028,876	12.7
	70세 이상	2,116,941	8.9
혼인상태	미혼	9,853,389	41.2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3,491,179	56.5
	이혼 또는 별거	142,111	0.6
	사별	407,522	1.7
교육수준	무학	526,909	2.2
	초등학교	2,240,989	9.4
	중학교	2,388,518	10.0
	고등학교	8,097,113	33.9
	대학교(4년제 미만)	3,368,414	14.1
	대학교(4년제 이상)	7,122,455	29.8
	대학원	149,803	0.6
취업여부	취업	13,665,779	57.2
	비취업	10,228,423	42.8

Ⅳ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제1절.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한 인식 87
제2절. 가족 가치관 104
제3절. 가족 부양 인식 130

이 장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주요 내용은 가족의 범위와 정의,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사람,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한 태도, 가족 내 성역할 인식, 부모 부양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 자녀 가치관 등이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가구 대표와 가구원 전원이 응답한다.

가족의 범위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할 때 포함되는 대상이며, 응답자 개인의 가족 상황에 무관하게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동 문항은 2015년, 2020년, 2023년 모두 동일하다. 다만 2023년 조사에서 가족 관계 용어를 성중립적으로 하고자 “친조부모는 아버지 쪽 할아버지, 할머니로, 외조부모는 어머니 쪽 할아버지, 할머니”로 수정하였다.

가족의 정의는 2020년 조사에 신규 도입한 문항으로 1) 가족은 혈연 관계이다, 2)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3)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4)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5)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6)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의 6가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태도는 2020년 8개 문항에 2023년 신규 개발한 1개 문항을 추가한 9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1)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6)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 7)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8)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9)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등이다. 이 중 1)에서 8)번은 2020년과 동일하고, 9)번 문항이 2023년에 신규 개발한 문항이다.

2020년 조사에서 신규 도입한 문항인 다양한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한 태도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세부 문항은 1)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2)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4)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루는 것에 동의한다, 5) 가부장적 가족 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개선에 동의한다 등 5개이다.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은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3)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의 4개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5점 척도)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은 총 5개 문항,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묻는 2개 문항과 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을 묻는 3개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은 1)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등 2문항과 3)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4)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5)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이다.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은 자녀 가치관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3)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4)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5)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6)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의 6개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5점척도)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주관적 계층의식은 2020년과 동일한 문항을 활용,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과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계층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Ⅳ-1〉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련 2015년, 2020년, 2023년 조사 문항 비교

영역	문항	비고
가족의 범위와 정의	4. 우리 가족의 범위	2015년, 2020년과 비교 가능
	5. 가족의 정의	2020년과 비교 가능
	6.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수정) 2015년, 2020년과 부분 비교 가능
가족 가치관	7.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문항 추가) 2020년과 비교 가능
	8. 다양한 가족 의례 및 문화	2020년과 비교 가능
	11. 자녀와 자녀 양육	2015년, 2020년과 비교 가능
가족 내 역할, 부양 인식	9.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2020년과 비교 가능
	10. 부모 부양과 부모의 책임	2015년, 2020년과 비교 가능
	12. 주관적 계층 의식	2015년, 2020년과 비교 가능

제1절. 가족의 범위 등에 대한 인식

1. 우리 가족의 범위

조사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범위(복수 응답)를 보면 자녀(91.3%),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 90.6%), 부모(86.6%), 형제자매(71.9%)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 외에 배우자의 부모(63.1%), 아들의 자녀(52.9%), 며느리(51.0%), 딸의 자녀(50.8%), 사위(49.1%), 배우자의 형제자매(44.3%), 아버지쪽 할아버지 할머니(38.3%), 형제자매의 배우자(36.9%), 어머니쪽 할아버지 할머니(34.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은 여전히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좁은 범위의 혈연 및 혼인 관계 중심의 가족 범위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가 본인 부모보다, 아들의 자녀보다 딸의 자녀가, 며느리보다 사위가, 어머니쪽 조부모가 아버지쪽 조부모보다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가족의 범위가 남성 중심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2020년 제4차 조사에서는 부모(87.4%) 자녀(85.4%),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 83.5%) 순이었는데, 2023년에는 부모가 자녀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부모가 세 번째로 낮아져 차이를 보인다. 2020년 조사 대비 배우자는 7.1%p, 자녀는 5.9%p 늘어났고, 부모는 0.8%p 줄어들었다.

〈표 Ⅳ-2〉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15년			2020년			2023년			2020년 대비 변화량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82.1	81.9	82.2	83.5	83.1	84.0	90.6	91.2	90.1	7.1	8.1	6.1
자녀	83.8	82.3	85.3	85.4	83.8	86.9	91.3	91.0	91.6	5.9	7.2	4.7
부모	86.3	88.3	84.2	87.4	88.8	86.0	86.6	87.5	85.6	-0.8	-1.3	-0.4
배우자의 부모	56.9	57.5	56.4	55.8	56.7	55.0	63.1	63.4	62.7	7.3	6.7	7.7
형제자매	76.0	77.5	74.5	76.1	77.7	74.5	71.9	73.0	70.8	-4.2	-4.7	-3.7
배우자의 형제자매	43.2	44.0	42.4	42.1	43.5	40.7	44.3	45.4	43.3	2.2	1.9	2.6
형제자매의 배우자	38.6	40.7	36.6	35.7	37.5	34.0	36.9	37.7	36.1	1.2	0.2	2.1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29.2	29.9	28.4	27.2	28.3	26.1	31.0	31.9	30.2	3.8	3.6	4.1
(아버지쪽) 할아버지, 할머니	42.8	44.9	40.7	41.6	43.7	39.5	38.3	40.0	36.7	-3.3	-3.7	-2.8
(어머니쪽) 할아버지, 할머니	33.2	33.3	33.2	32.2	32.7	31.7	34.4	35.4	33.4	2.2	2.7	1.7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고모부 등)	25.3	26.9	23.6	22.5	24.5	20.4	23.8	24.8	22.8	1.3	0.3	2.4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 등)	25.9	26.8	25.0	22.7	23.8	21.6	22.2	22.9	21.5	-0.5	-0.9	-0.1
조카(본인 조카, 배우자의 조카)	26.5	26.6	26.5	23.1	23.8	22.3	22.8	23.5	22.2	-0.3	-0.3	-0.1
사위	24.3	25.0	23.6	21.3	22.2	20.4	49.1	48.9	49.3	27.8	26.7	28.9
며느리	26.5	27.0	26.0	23.2	24.0	22.4	51.0	50.7	51.3	27.8	26.7	28.9
(아들의) 자녀	30.4	29.4	31.2	30.5	29.5	31.5	52.9	52.6	53.1	22.4	23.1	21.6
(딸의) 자녀	34.5	33.9	35.1	34.5	33.5	35.5	50.8	50.6	50.9	16.3	17.1	15.4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33.3	32.3	34.3	34.0	32.5	35.4	3.3	3.7	3.0	-30.7	-28.8	-32.4
기타	29.0	27.8	30.2	29.6	28.0	31.1	0.0	0.0	0.0	-29.6	-28.0	-31.1

남성은 배우자(91.2%)-자녀(91.0%)-부모(87.5%)-형제자매(73.0%)-배우자의 부모(63.4%) 순이며, 여성은 자녀(91.6%)-배우자(90.1%)-부모(85.6%)-형제자매(70.8%)-배우자의

부모(62.7%) 순이다. 남성은 배우자와 자녀 응답 비중에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여성은 자녀와 배우자 응답 비중이 남성과 비교하여 소폭 크고, 자녀 응답 비중이 1위로 차이를 보인다.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20세 미만 95.7%, 20세~30세 미만 94.8%), 형제자매(20세 미만 79.2%, 20세~30세 미만 79.6%)로 응답한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반면,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배우자(90.6%)-부모(88.9%)-자녀(88.3%)-형제자매(74.7%)의 순, 40세 이상에서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순으로 응답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 배우자를 중심으로 '가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은 부모(95.6%)-형제자매(80.3%)-자녀(76.5%)-배우자(74.4%) 순이다.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는 자녀(99.5%)-배우자(97.5%)-부모(82.1%)-배우자 부모(68.7%)-형제자매(67.7%)순으로 배우자 부모 응답 비중이 4번째로 형제자매보다 높다. 이혼/별거의 경우 자녀(96.5%)-부모(87.0%)-배우자(82.4%)-형제자매(70.2%), 사별은 자녀(98.6%)-배우자(91.4%)--부모(85.0%)-형제자매(71.5%)의 순이다. 혼인상태별로도 가족 범위 인식 변화가 확인되는데, 유배우의 경우 2020년에는 배우자(98.2%)-자녀(96.6%)-부모(83.0%)-형제자매(70.7%) 순이었는데 2023년에는 배우자 부모가 4번째로 부부를 중심에 두고 직계를 가족의 범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집단은 자녀-배우자-부모의 순으로 가족을 인식한 반면, 초대졸 이상은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3〉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단위: 천명, %)

구분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아버지쪽)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쪽)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	조카 (본인, 배우자)	사위	며느리	(아들의) 자녀	(딸의) 자녀	함께 살고 있는 비 혈연자	기타	계
전체		42,787	43,105	40,885	29,784	33,937	20,928	17,419	14,659	18,102	16,256	11,232	10,489	10,778	23,180	24,095	24,975	23,966	1,577	4	47,219
		90.6	91.3	86.6	63.1	71.9	44.3	36.9	31.0	38.3	34.4	23.8	22.2	22.8	49.1	51.0	52.9	50.8	3.3	0.0	100.0
성별	남성	91.2	91.0	87.5	63.4	73.0	45.4	37.7	31.9	40.0	35.4	24.8	22.9	23.5	48.9	50.7	52.6	50.6	3.7	0.0	100.0
	여성	90.1	91.6	85.6	62.7	70.8	43.3	36.1	30.2	36.7	33.4	22.8	21.5	22.2	49.3	51.3	53.1	50.9	3.0	0.0	100.0
연령	20세 미만	68.7	72.3	95.7	47.2	79.2	29.2	21.9	18.2	34.1	31.8	16.4	16.1	10.5	24.2	24.7	29.9	29.0	2.2	-	100.0
	20세 이상 - 30세 미만	76.9	78.1	94.8	53.4	79.6	37.3	30.9	24.4	36.4	31.9	20.4	18.7	18.8	37.9	39.8	43.0	41.4	3.5	-	100.0
	30세 이상 - 40세 미만	90.6	88.3	88.9	63.0	74.7	44.5	35.7	29.8	37.5	33.8	21.0	19.7	20.6	41.2	42.7	44.7	43.1	3.6	0.1	100.0
	40세 이상 - 50세 미만	95.6	95.6	84.2	66.5	68.3	45.5	37.0	30.7	36.3	32.7	22.4	20.9	21.9	43.3	44.8	45.7	44.5	4.0	-	100.0
	50세 이상 - 60세 미만	96.6	97.4	84.7	67.1	70.0	47.7	41.3	35.0	40.6	36.4	27.1	25.3	27.3	54.4	55.9	57.5	55.3	3.5	-	100.0
	60세 이상 - 70세 미만	96.3	97.6	80.7	66.4	67.4	47.4	40.1	34.5	39.7	35.8	27.2	25.5	26.2	61.8	63.6	64.4	62.6	3.3	-	100.0
	70세 이상	96.3	98.0	82.9	68.8	69.0	50.5	43.2	37.7	41.7	37.2	27.9	25.8	27.7	69.0	73.5	74.8	69.2	2.6	-	100.0
혼인 상태	미혼	74.4	76.5	95.6	52.0	80.3	35.2	28.6	22.5	36.0	32.1	19.1	17.9	16.7	34.9	36.4	40.2	38.7	3.3	0.0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9.5	97.5	82.1	68.7	67.7	48.9	40.6	35.2	39.3	35.7	25.8	24.2	25.5	53.9	55.8	56.6	54.5	3.4	0.0	100.0

구분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아버지쪽)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쪽)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	조카 (본인, 배우자)	사위	며느리	(아들의) 자녀	(딸의) 자녀	함께 살고 있는 비 혈연자	기타	계
교육 수준	이혼 또는 별거	82.4	96.5	87.0	55.0	70.2	35.2	32.3	22.9	37.0	31.4	23.5	20.0	23.3	49.7	52.3	55.6	53.5	3.4	-	100.0
	사별	91.4	98.6	85.0	68.1	71.5	50.1	43.9	37.2	40.5	35.4	27.2	25.1	25.6	67.3	70.6	71.7	67.5	3.2	-	100.0
	중졸 이하	86.3	89.4	87.0	61.2	72.5	42.2	34.9	29.8	39.8	35.7	24.2	22.5	21.1	53.8	56.4	58.9	55.5	2.9	0.0	100.0
	고등학교	92.0	93.3	85.8	63.2	70.8	44.1	37.6	31.8	37.8	34.0	24.0	22.3	23.9	52.0	53.8	55.5	53.5	2.8	-	100.0
	초대졸 이상	91.4	90.5	87.0	63.9	72.5	45.4	37.2	31.0	38.1	34.2	23.5	22.0	22.8	44.6	46.3	48.1	46.4	4.0	0.0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88.7	94.6	86.5	67.4	72.6	49.1	42.0	36.6	44.6	40.9	31.0	29.5	30.8	66.0	69.8	71.2	67.4	3.5	-	100.0
	100~200만원 미만	91.6	95.6	84.4	63.5	70.5	43.7	38.4	32.6	41.8	35.4	26.4	23.6	25.7	62.2	66.9	66.9	63.7	3.8	0.1	100.0
	200~300만원 미만	87.0	90.5	88.0	60.4	73.9	43.8	38.8	30.2	39.4	33.6	24.7	22.0	24.6	54.2	57.2	59.6	56.1	3.1	-	100.0
	300~400만원 미만	89.4	91.1	87.8	61.6	74.4	44.3	36.8	29.8	39.3	34.3	24.0	21.7	22.3	48.7	49.7	53.2	51.4	3.6	0.0	100.0
	400~500만원 미만	93.2	93.4	84.3	64.2	70.1	45.0	36.6	30.9	34.6	30.8	21.9	20.6	22.7	50.3	51.1	51.7	50.4	2.8	-	100.0
	500만원 이상	97.1	96.2	83.3	67.4	68.0	48.4	39.3	33.8	38.6	35.7	24.7	23.5	24.4	48.6	50.4	51.4	49.9	3.8	0.0	100.0

2. 가족의 정의

가족의 정의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신규로 도입한 문항이다, 가족의 정의에 관한 동의 정도(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가족은 혈연관계'(87.4%),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3.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동거 여부 관계없음)'(79.0%),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72.8%),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67.8%)의 순이며,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9.7%)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여 주어지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족 기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동거 여부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정의에 대한 동의 비율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한 동의 비율,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동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Ⅳ-4〉 가족의 정의: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대체로+ 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 매우 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89.0	87.4	-1.6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83.7	83.1	-0.6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68.8	72.8	4.0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64.7	67.8	3.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함께 살지 않아도 됨)	82.8	79.0	-3.8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38.7	39.7	1.0

〈표 Ⅳ-5〉 가족의 정의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빈도	1,613	4,316	41,290	47,219	4.19
	구성비	3.4	9.1	87.4	100.0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빈도	1,181	6,819	39,220	47,219	4.17
	구성비	2.5	14.4	83.1	100.0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빈도	3,907	8,960	34,353	47,219	3.85
	구성비	8.3	19.0	72.8	100.0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빈도	4,944	10,266	32,009	47,219	3.74
	구성비	10.5	21.7	67.8	100.0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함께 살지 않아도 됨)	빈도	1,464	8,430	37,326	47,219	4.00
	구성비	3.1	17.9	79.0	100.0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빈도	15,530	12,951	18,739	47,219	3.04
	구성비	32.9	27.4	39.7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성별로는 6개 항목 모두 남녀 간 동의 비율의 차이는 거의 크지 않는 편이다. '가족은 혈연 관계'(남 87.6%, 여 87.3%),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남 79.0%, 여 79.1%),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남 39.9%, 여 39.5%)등 3개 문항은 동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나머지 3개 항목 역시 약 0.7~0.8p 정도의 차이만 보여 가족의 정의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Ⅳ-6〉 가족의 정의(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남성	3.5	8.9	87.6	100.0	4.19
	여성	3.3	9.4	87.3	100.0	4.19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남성	2.6	13.9	83.5	100.0	4.18
	여성	2.4	15.0	82.7	100.0	4.17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남성	8.5	19.1	72.4	100.0	3.84
	여성	8.0	18.8	73.1	100.0	3.86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남성	10.6	21.9	67.4	100.0	3.74
	여성	10.3	21.6	68.1	100.0	3.75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됨)	남성	2.8	18.1	79.0	100.0	4.00
	여성	3.4	17.6	79.1	100.0	3.99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남성	32.7	27.4	39.9	100.0	3.05
	여성	33.0	27.5	39.5	100.0	3.04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별로 보면 '가족은 혈연관계'(20세~30세 미만 85.4%, 70세 이상 89.0%,)와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20세~30세 미만 79.9%, 70세 이상 85.0%)와 같이 20세-3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연령별 응답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는 20세 미만이 78.9%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60세~70세 미만(70.3%), 70세 이상(70.9%)이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는 20세 미만이 30.4%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다른 연령대는 대체로 38% ~ 41% 내외로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세 미만 집단은 가족에 대하여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경제적 공동체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인식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Ⅳ-7〉 가족의 정의(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20세 미만	3.8	8.2	88.0	100.0	4.20
	20세 이상~30세 미만	3.2	11.5	85.4	100.0	4.15
	30세 이상~40세 미만	3.6	10.6	85.8	100.0	4.16
	40세 이상~50세 미만	2.9	9.4	87.7	100.0	4.20
	50세 이상~60세 미만	3.6	8.8	87.7	100.0	4.19
	60세 이상~70세 미만	3.5	7.9	88.6	100.0	4.21
	70세 이상	3.6	7.4	89.0	100.0	4.23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20세 미만	2.0	14.6	83.4	100.0	4.16
	20세 이상~30세 미만	2.3	17.8	79.9	100.0	4.13
	30세 이상~40세 미만	2.2	14.6	83.2	100.0	4.18
	40세 이상~50세 미만	2.4	14.8	82.9	100.0	4.19
	50세 이상~60세 미만	3.2	13.9	82.9	100.0	4.14
	60세 이상~70세 미만	2.0	13.8	84.2	100.0	4.20
	70세 이상	3.1	11.9	85.0	100.0	4.19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20세 미만	4.3	16.8	78.9	100.0	4.00
	20세 이상~30세 미만	7.7	20.9	71.4	100.0	3.84
	30세 이상~40세 미만	7.5	19.5	73.0	100.0	3.86
	40세 이상~50세 미만	7.1	18.1	74.7	100.0	3.89
	50세 이상~60세 미만	8.7	18.8	72.5	100.0	3.84
	60세 이상~70세 미만	9.7	20.0	70.3	100.0	3.80
	70세 이상	11.2	17.8	70.9	100.0	3.81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20세 미만	7.1	20.2	72.8	100.0	3.87
	20세 이상~30세 미만	9.8	22.4	67.8	100.0	3.74
	30세 이상~40세 미만	10.1	23.8	66.2	100.0	3.75
	40세 이상~50세 미만	9.5	20.7	69.8	100.0	3.78
	50세 이상~60세 미만	10.9	22.0	67.1	100.0	3.72
	60세 이상~70세 미만	11.5	21.4	67.1	100.0	3.72
	70세 이상	13.0	21.2	65.8	100.0	3.6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됨)	20세 미만	2.3	17.9	79.8	100.0	4.02
	20세 이상~30세 미만	2.4	20.1	77.6	100.0	3.98
	30세 이상~40세 미만	3.4	17.2	79.3	100.0	4.00
	40세 이상~50세 미만	3.1	18.3	78.6	100.0	4.00
	50세 이상~60세 미만	3.1	18.4	78.4	100.0	3.98
	60세 이상~70세 미만	2.9	18.0	79.1	100.0	4.00
	70세 이상	4.3	14.6	81.2	100.0	4.02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20세 미만	37.4	32.1	30.4	100.0	2.87
	20세 이상~30세 미만	33.5	27.8	38.7	100.0	3.02
	30세 이상~40세 미만	30.0	27.6	42.4	100.0	3.13
	40세 이상~50세 미만	33.2	27.4	39.4	100.0	3.04
	50세 이상~60세 미만	32.5	25.7	41.8	100.0	3.08
	60세 이상~70세 미만	30.8	27.7	41.5	100.0	3.09
	70세 이상	35.5	26.1	38.4	100.0	2.9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 응답 경향은 대부분 이혼 또는 별거에서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가족은 혈연관계'에 대해서는 사별(89.3%)-유배우(사실혼/비혼동거 포함, 87.8%)-미혼(86.6%)-이혼/별거(84.8%)의 순이다.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는 유배우가 84.0%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혼 또는 별거가 80.0%의 동의 비율을 보인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61.1%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 역시 이혼 또는 별거 집단에서 59.9%로 나타나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동의 비율이 낮았다.

〈표 Ⅳ-8〉 가족의 정의(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미혼	3.5	9.9	86.6	100.0	4.16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4	8.8	87.8	100.0	4.21
	이혼 또는 별거	4.6	10.6	84.8	100.0	4.10
	사별	2.8	7.9	89.3	100.0	4.24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미혼	2.3	16.4	81.3	100.0	4.13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3	13.8	84.0	100.0	4.20
	이혼 또는 별거	5.7	14.3	80.0	100.0	4.01
	사별	3.1	12.0	84.9	100.0	4.20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미혼	7.4	19.6	73.0	100.0	3.86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7.8	18.7	73.5	100.0	3.87
	이혼 또는 별거	16.4	22.5	61.1	100.0	3.58
	사별	10.2	16.9	72.8	100.0	3.86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미혼	10.3	22.8	67.0	100.0	3.73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0.0	21.1	68.9	100.0	3.77
	이혼 또는 별거	15.3	24.8	59.9	100.0	3.54
	사별	12.2	20.9	66.9	100.0	3.7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됨)	미혼	2.8	19.4	77.8	100.0	3.97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0	17.2	79.8	100.0	4.02
	이혼 또는 별거	5.0	20.8	74.2	100.0	3.86
	사별	3.8	15.2	80.9	100.0	4.01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미혼	34.3	28.6	37.1	100.0	2.99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2.1	26.7	41.3	100.0	3.07
	이혼 또는 별거	34.2	31.0	34.8	100.0	2.99
	사별	33.0	26.4	40.6	100.0	3.05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가족의 정의를 혈연이나 법적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종졸 이하 집단이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혈연관계: 중졸이하 89.5%, 초대졸 이상 87.2%/ 법적관계: 중졸이하 85.9%, 초대졸 이상 82.8%). 반면 '가족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중졸이하(34.9%)인 경우 고졸 집단(39.1%)과 초대졸 이상 집단(42.3%) 대비 동의 비율이 낮아 항목별 차이를 보인다.

〈표 Ⅳ-9〉 가족의 정의(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중졸 이하	3.2	7.3	89.5	100.0	4.25
	고등학교	3.8	9.7	86.6	100.0	4.16
	초대졸 이상	3.2	9.6	87.2	100.0	4.19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중졸 이하	2.4	11.8	85.9	100.0	4.21
	고등학교	2.8	15.4	81.9	100.0	4.15
	초대졸 이상	2.3	14.9	82.8	100.0	4.17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중졸 이하	10.1	17.7	72.1	100.0	3.85
	고등학교	8.8	19.3	71.9	100.0	3.82
	초대졸 이상	7.0	19.3	73.7	100.0	3.88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중졸 이하	12.2	20.7	67.1	100.0	3.73
	고등학교	10.5	21.7	67.9	100.0	3.73
	초대졸 이상	9.7	22.3	68.0	100.0	3.76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됨)	중졸 이하	3.7	15.9	80.4	100.0	4.03
	고등학교	3.1	18.6	78.3	100.0	3.97
	초대졸 이상	2.8	18.2	79.0	100.0	4.01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중졸 이하	37.3	27.8	34.9	100.0	2.93
	고등학교	31.8	29.1	39.1	100.0	3.03
	초대졸 이상	31.7	25.9	42.3	100.0	3.1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수준별 응답 격차도 크다. 소득수준별 응답 격차는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100만원 미만: 59.0%, 500만원 이상: 69.1%, 10.1%p),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100만원 미만: 65.2%, 500만원 이상: 73.6%, 8.4%p)이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표 Ⅳ-10〉 가족의 정의(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100만원 미만	6.0	7.0	87.1	100.0	4.20
	100~200만원 미만	4.1	7.4	88.5	100.0	4.20
	200~300만원 미만	4.4	11.0	84.5	100.0	4.10
	300~400만원 미만	2.7	9.9	87.4	100.0	4.22
	400~500만원 미만	2.5	10.1	87.4	100.0	4.18
	500만원 이상	3.3	7.9	88.8	100.0	4.24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100만원 미만	5.3	8.4	86.3	100.0	4.17
	100~200만원 미만	3.5	11.4	85.1	100.0	4.18
	200~300만원 미만	4.6	17.7	77.7	100.0	4.04
	300~400만원 미만	2.0	13.7	84.4	100.0	4.20
	400~500만원 미만	1.8	16.6	81.6	100.0	4.17
	500만원 이상	2.1	13.8	84.1	100.0	4.22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100만원 미만	16.8	18.0	65.2	100.0	3.67
	100~200만원 미만	13.9	18.5	67.5	100.0	3.75
	200~300만원 미만	13.4	20.8	65.9	100.0	3.71
	300~400만원 미만	7.9	18.9	73.1	100.0	3.84
	400~500만원 미만	6.2	20.2	73.6	100.0	3.88
	500만원 이상	8.4	18.0	73.6	100.0	3.86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100만원 미만	18.9	22.0	59.0	100.0	3.55
	100~200만원 미만	15.7	19.8	64.5	100.0	3.63
	200~300만원 미만	13.3	23.1	63.7	100.0	3.6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300~400만원 미만	10.1	23.5	66.3	100.0	3.71
	400~500만원 미만	9.6	22.6	67.8	100.0	3.75
	500만원 이상	10.8	20.2	69.1	100.0	3.76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됨)	100만원 미만	6.4	13.6	80.0	100.0	3.96
	100~200만원 미만	4.9	17.8	77.4	100.0	3.97
	200~300만원 미만	3.3	18.5	78.2	100.0	3.96
	300~400만원 미만	2.3	17.8	79.8	100.0	4.00
	400~500만원 미만	3.8	17.9	78.2	100.0	3.97
	500만원 이상	3.0	17.5	79.5	100.0	4.03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100만원 미만	37.5	27.3	35.2	100.0	2.99
	100~200만원 미만	39.7	22.1	38.2	100.0	2.94
	200~300만원 미만	31.4	29.4	39.2	100.0	3.05
	300~400만원 미만	32.9	29.6	37.5	100.0	3.01
	400~500만원 미만	31.8	26.8	41.3	100.0	3.10
	500만원 이상	32.3	25.7	42.0	100.0	3.0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3.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는 '배우자(사실혼, 비혼동거 포함)'가 51.8%로 가장 많고, 어머니(22.3%), 아들(5.8%), 딸(5.3%), 아버지(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부모 중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자녀 중에서는 딸보다 아들 비중이 높지만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례는 전체 응답자의 2.6%이다. 2023년에 일부 응답 보기를 수정하였기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배우자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다[11].

11)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녀'는 아들과 딸로,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응답 보기 추가, '자기 자신'은 삭제

〈표 Ⅳ-12〉는 가구원 특성별 응답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가장 의지가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 55.9%, 여성 47.7%로 남성이 더 높았다. 어머니는 남성 21.6%, 여성 23.0%로 여성이 근소하게 더 높고, 아버지는 남성 7.8%, 여성 2.4%로 남성이 더 높다. 아들과 딸은 남성(아들 2.9%, 딸 1.4%)보다 여성(아들 8.7%, 딸 9.7%)이 높아 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뚜렷하게 높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경우 어머니(20세 미만: 78.2%, 20~30세 미만: 66.7%), 30세 이상은 배우자(30~40세 미만: 53.5%, 40~50세 미만: 73.7%, 50~60세 미만: 75.2%, 60세~70세 미만: 67.9%, 70세 이상 46.2%)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 70세 이상은 아들(26.3%)과 딸(17.6%)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자녀 중에서는 아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60세 ~70세 미만과 70세 이상 집단에서 각각 5.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혼 집단은 어머니(67.6%)-아버지(14.4%)-친구(6.2%)-형제자매(5.9%)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집단은 배우자가 88.8%로 가장 높고 그 외 항목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배우자를 가장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별 집단은 아들(44.5%)과 딸(37.1%)을 주로 꼽았다. 반면 이혼/별거 집단은 딸(20.6%)과 아들(19.1%) 비중이 높지만 의지할 사람 없음이 19.4%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고, 친구(10.8%) 비중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다.

중졸 이하의 경우 배우자(31.6%)-어머니(26.1%)-아들(17.1%)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졸 집단은 배우자 비중이 55.3%, 어머니 17.5%, 딸 6.8%이며, 초대졸 이상은 배우자 58.1%, 어머니 24.5%의 순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 응답 비중이 높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 1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16.2%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1〉 가구원 특성별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단위: 천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딸	아들	연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웃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기타	의지할 사람 없음	계
전체		2,399	10,539	24,456	2,482	2,751	255	1,377	1,365	51	60	57	139	63	1,225	47,219
		5.1	22.3	51.8	5.3	5.8	0.5	2.9	2.9	0.1	0.1	0.1	0.3	0.1	2.6	100.0
성별	남성	7.8	21.6	55.9	1.4	2.9	0.6	3.0	3.4	0.1	0.0	0.2	0.2	0.1	2.9	100.0
	여성	2.4	23.0	47.7	9.1	8.7	0.5	2.9	2.4	0.1	0.2	0.1	0.4	0.2	2.3	100.0
연령	20세 미만	15.3	78.2	1.0	0.1	-	-	1.4	3.4	-	-	0.0	-	0.2	0.4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14.6	66.7	7.4	0.1	-	1.4	3.2	5.4	0.1	-	0.1	-	0.2	0.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6	28.9	53.5	0.1	0.2	1.3	3.5	3.5	0.2	0.0	0.1	0.1	0.1	1.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9	11.8	73.7	1.0	0.9	0.6	3.7	2.6	0.2	0.1	0.1	0.2	0.1	2.0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3	4.6	75.2	5.5	3.8	0.2	3.8	2.2	0.0	0.1	0.0	0.3	0.1	2.8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0.3	0.6	67.9	11.0	9.4	0.0	2.7	2.2	0.2	0.2	0.1	0.4	-	5.0	100.0
	70세 이상	0.2	0.1	46.2	17.6	26.3	0.0	0.9	1.5	-	0.5	0.4	0.9	0.4	5.0	100.0
혼인 상태	미혼	14.4	67.6	1.2	0.1	0.1	1.6	5.9	6.2	0.2	0.1	0.1	0.1	0.2	2.3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1	2.6	88.8	2.4	2.5	0.0	0.9	0.6	0.1	0.1	0.0	0.1	0.0	0.7	100.0
	이혼 또는 별거	2.5	14.6	0.2	20.6	19.1	0.7	9.0	10.8	0.5	0.7	0.8	0.9	0.1	19.4	100.0
	사별	0.6	0.6	0.1	37.1	44.5	0.1	2.8	3.1	-	0.6	0.3	1.6	0.5	8.2	100.0

구분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딸	아들	연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웃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기타	의지할 사람 없음	계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0	26.1	31.6	11.2	17.1	0.0	1.5	2.0	0.1	0.4	0.2	0.5	0.3	3.9	100.0
	고등학교	4.4	17.5	55.3	6.8	5.1	0.4	3.1	3.4	0.1	0.1	0.1	0.3	0.1	3.3	100.0
	초대졸 이상	5.7	24.5	58.1	1.3	1.3	0.9	3.4	2.9	0.1	0.1	0.1	0.2	0.1	1.4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1.0	5.0	6.6	21.4	33.0	0.5	3.2	6.6	-	1.7	2.2	2.0	0.5	16.2	100.0
	100~200만원 미만	1.3	7.2	26.5	18.5	27.5	0.4	4.8	3.7	-	0.5	0.2	0.7	0.1	8.7	100.0
	200~300만원 미만	4.6	22.8	24.2	13.4	11.5	1.1	5.5	6.5	0.2	0.1	0.1	0.9	0.3	8.8	100.0
	300~400만원 미만	5.3	19.4	42.7	7.4	6.8	1.9	6.2	5.9	0.2	0.1	0.1	0.2	0.1	3.8	100.0
	400~500만원 미만	2.9	9.8	67.8	5.3	3.4	0.8	5.3	2.0	0.2	0.0	0.0	0.3	0.1	2.1	100.0
	500만원 이상	2.4	8.0	77.5	3.5	3.3	0.2	2.1	1.4	0.1	0.1	0.0	0.3	0.1	0.9	100.0

제2절. 가족 가치관

1.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인식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2020년 8개 문항에 2023년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를 추가하여 총 9문항이다.

조사 결과, 동의 수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가 47.4%로 가장 높고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한다'(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34.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동의 비율이 낮은 항목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로 20.0%가 동의하였다. 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도 22.1%로 동의 비율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비혼 독신, 이혼이나 재혼, 무자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보이지만 비혼 출산이나 독신자의 입양 등 자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수용성을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

〈표 Ⅳ-12〉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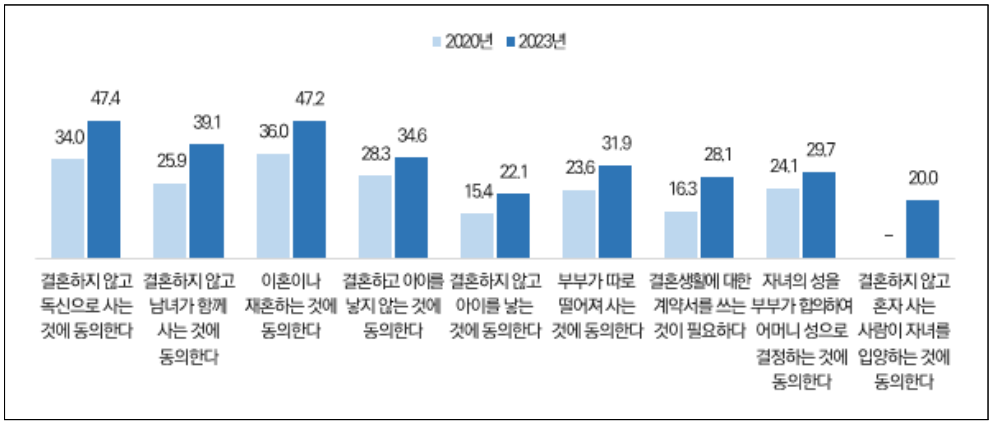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14,684	10,155	22,380	47,219	3.16
	구성비	31.1	21.5	47.4	100.0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15,317	13,434	18,469	47,219	3.03
	구성비	32.4	28.4	39.1	100.0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10,970	13,965	22,285	47,219	3.25
	구성비	23.2	29.6	47.2	100.0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18,203	12,678	16,339	47,219	2.90
	구성비	38.5	26.8	34.6	100.0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24,940	11,826	10,453	47,219	2.52
	구성비	52.8	25.0	22.1	100.0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빈도	18,230	13,936	15,053	47,219	2.86
	구성비	38.6	29.5	31.9	100.0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빈도	19,127	14,833	13,259	47,219	2.78
	구성비	40.5	31.4	28.1	100.0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16,627	16,573	14,019	47,219	2.87
	구성비	35.2	35.1	29.7	100.0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24,727	13,031	9,461	47,219	2.51
	구성비	52.4	27.6	20.0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 점수임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8개 문항 모두 동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변화량이 높은 항목은 비혼 독신(13.4%p 증가), 비혼 동거(13.2%p 증가), 결혼 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11.8%p 증가), 이혼 및 재혼(11.2%p 증가) 등이다.

(단위: %)



[그림 Ⅳ-1]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 4차 조사와 비교

〈표 Ⅳ-13〉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34.0	47.4	13.4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25.9	39.1	13.2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36.0	47.2	11.2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28.3	34.6	6.3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15.4	22.1	6.7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23.6	31.9	8.3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16.3	28.1	11.8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24.1	29.7	5.6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	20.0	-

문항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동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항목은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여성 33.3%, 남성 26.0%),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남성 26.0%, 여성 30.0%),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남성 45.9%, 여성 48.8%, 2.9%p),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남성 33.4%, 여성 35.8%) 등이다. 비혼 동거는 남성(40.3%)이 여성(37.9%) 보다 동의 비율이 높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남성 22.4%, 여성 21.9%)이나 주말 부부(남성 31.2%, 여성 32.6%) 등에 대해서는 성별 간 응답 격차가 매우 작다.

〈표 Ⅳ-14〉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31.8	22.3	45.9	100.0	3.13
	여성	30.4	20.7	48.8	100.0	3.19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30.7	29.0	40.3	100.0	3.07
	여성	34.1	27.9	37.9	100.0	3.00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23.6	29.9	46.5	100.0	3.23
	여성	22.9	29.2	47.9	100.0	3.26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38.9	27.7	33.4	100.0	2.88
	여성	38.2	26.0	35.8	100.0	2.92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51.9	25.7	22.4	100.0	2.54
	여성	53.7	24.4	21.9	100.0	2.51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남성	39.6	29.2	31.2	100.0	2.84
	여성	37.6	29.8	32.6	100.0	2.89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	42.1	31.8	26.2	100.0	2.73
	여성	38.9	31.1	30.0	100.0	2.82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38.8	35.1	26.0	100.0	2.78
	여성	31.6	35.1	33.3	100.0	2.96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에 동의한다	남성	52.4	28.3	19.3	100.0	2.51
	여성	52.3	26.9	20.8	100.0	2.5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동의 수준이 높고 연령에 따른 응답 격차도 큰 편이다. 어린 연령대에서는 20세 미만보다 20세~30세 미만 집단의 동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20~30세 미만 66.9%, 70세 이상 19.4%, 47.5%p),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20~30세 미만 56.6%, 70세 이상 13.2%, 43.4%p),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20~30세 미만 48.9%, 70세 이상 16.5%, 32.4%p),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20~30세 미만 59.6%, 70세 이상 29.4%, 30.2%p), '결혼 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20~30세 미만 42.0%, 70세 이상 14.3%, 27.7%p) 등의 항목에서 20~30세 미만과 70세 이상 응답 격차가 두드러진다.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은 20세 미만과 20~30세 미만은 각각 40.8%, 40.9% 동의한 데 반해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14.4%이다.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18.0%p)는 20세~3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응답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14.3%p),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13.0%p)도 다른 항목에 비해 20세~3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응답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전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표 Ⅳ-15〉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11.2	26.4	62.4	100.0	3.61
	20세 이상~30세 미만	12.3	20.8	66.9	100.0	3.66
	30세 이상~40세 미만	17.6	21.8	60.6	100.0	3.50
	40세 이상~50세 미만	22.4	23.7	53.9	100.0	3.36
	50세 이상~60세 미만	33.5	23.5	43.0	100.0	3.09
	60세 이상~70세 미만	46.6	20.9	32.5	100.0	2.78
	70세 이상	66.4	14.2	19.4	100.0	2.30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18.2	33.0	48.9	100.0	3.35
	20세 이상~30세 미만	14.5	27.8	57.7	100.0	3.51
	30세 이상~40세 미만	18.3	30.0	51.8	100.0	3.37
	40세 이상~50세 미만	26.0	29.9	44.1	100.0	3.19
	50세 이상~60세 미만	34.9	30.2	34.9	100.0	2.9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60세 이상~70세 미만	47.9	27.1	25.0	100.0	2.65
	70세 이상	61.4	22.1	16.5	100.0	2.3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20.1	33.1	46.8	100.0	3.29
	20세 이상~30세 미만	12.9	27.6	59.6	100.0	3.54
	30세 이상~40세 미만	15.0	30.2	54.8	100.0	3.44
	40세 이상~50세 미만	19.1	29.5	51.4	100.0	3.37
	50세 이상~60세 미만	22.5	28.4	49.2	100.0	3.28
	60세 이상~70세 미만	30.7	31.4	37.8	100.0	3.03
	70세 이상	42.2	28.5	29.4	100.0	2.78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21.2	32.5	46.3	100.0	3.27
	20세 이상~30세 미만	17.2	26.1	56.6	100.0	3.47
	30세 이상~40세 미만	23.8	29.8	46.4	100.0	3.24
	40세 이상~50세 미만	31.0	29.7	39.3	100.0	3.06
	50세 이상~60세 미만	43.5	28.5	28.0	100.0	2.77
	60세 이상~70세 미만	55.6	25.0	19.4	100.0	2.49
	70세 이상	69.6	17.2	13.2	100.0	2.16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42.9	28.2	28.9	100.0	2.77
	20세 이상~30세 미만	41.6	29.9	28.5	100.0	2.79
	30세 이상~40세 미만	45.5	28.2	26.3	100.0	2.70
	40세 이상~50세 미만	50.4	25.9	23.6	100.0	2.59
	50세 이상~60세 미만	54.5	25.2	20.3	100.0	2.48
	60세 이상~70세 미만	61.9	21.5	16.6	100.0	2.31
	70세 이상	68.2	17.7	14.2	100.0	2.14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31.9	34.9	33.2	100.0	2.95
	20세 이상~30세 미만	29.1	31.3	39.6	100.0	3.10
	30세 이상~40세 미만	33.5	30.9	35.7	100.0	2.97
	40세 이상~50세 미만	35.5	29.8	34.7	100.0	2.95
	50세 이상~60세 미만	38.9	29.1	32.0	100.0	2.88
	60세 이상~70세 미만	45.2	28.4	26.5	100.0	2.71
	70세 이상	53.8	24.6	21.6	100.0	2.5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20세 미만	23.9	35.6	40.5	100.0	3.15
	20세 이상~30세 미만	22.8	35.2	42.0	100.0	3.17
	30세 이상~40세 미만	31.4	33.8	34.8	100.0	2.97
	40세 이상~50세 미만	38.1	33.8	28.0	100.0	2.83
	50세 이상~60세 미만	43.8	31.5	24.7	100.0	2.70
	60세 이상~70세 미만	52.1	28.7	19.2	100.0	2.52
	70세 이상	63.3	22.4	14.3	100.0	2.29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18.2	41.1	40.8	100.0	3.21
	20세 이상~30세 미만	20.3	38.8	40.9	100.0	3.20
	30세 이상~40세 미만	24.9	37.8	37.3	100.0	3.11
	40세 이상~45세 미만	30.1	37.9	32.0	100.0	2.98
	50세 이상~60세 미만	38.7	34.7	26.7	100.0	2.81
	60세 이상~70세 미만	46.5	32.1	21.4	100.0	2.62
	70세 이상	60.3	25.3	14.4	100.0	2.33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40.5	36.2	23.2	100.0	2.75
	20세 이상~30세 미만	41.0	31.7	27.3	100.0	2.76
	30세 이상~40세 미만	45.9	30.5	23.6	100.0	2.66
	40세 이상~50세 미만	53.5	26.9	19.6	100.0	2.51
	50세 이상~60세 미만	55.1	25.3	19.6	100.0	2.48
	60세 이상~70세 미만	59.5	25.8	14.8	100.0	2.34
	70세 이상	64.5	21.2	14.3	100.0	2.2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는 대체로 미혼 집단은 비혼 독신(68.3%), 비혼 동거(55.3%), 무자녀(52.6%) 등 결혼과 출산 관련 다양한 삶의 선택에 대한 동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별 집단은 비혼 독신(비동의 60.1%), 비혼 동거(비동의 55.9%), 이혼 및 재혼(비동의 37.1%), 무자녀(비동의 66.0%), 비혼 출산(비동의 65.1%),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비동의 50.7%), 결혼 계약서 작성(비동의 58.2%), 자녀 성 어머니로(비동의 52.1%),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 입양(비동의 62.9%)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가족 가치관 관련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의보다 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미혼 집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리고, 사별 집단은 연령이 많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령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미혼의 동의 비율이 높은데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별거의 동의 비율이 64.5%로 다른 혼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Ⅳ-16〉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10.8	21.0	68.3	100.0	3.70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38.2	22.5	39.3	100.0	2.96
	이혼 또는 별거	22.9	19.6	57.5	100.0	3.41
	사별	60.1	17.4	22.5	100.0	2.43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15.4	29.3	55.3	100.0	3.46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38.4	28.3	33.3	100.0	2.88
	이혼 또는 별거	27.1	28.3	44.6	100.0	3.17
	사별	55.9	26.2	17.8	100.0	2.4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14.4	29.4	56.1	100.0	3.48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26.6	30.1	43.3	100.0	3.16
	이혼 또는 별거	14.0	21.5	64.5	100.0	3.57
	사별	37.1	31.0	32.0	100.0	2.88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19.3	28.1	52.6	100.0	3.38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44.7	27.2	28.1	100.0	2.74
	이혼 또는 별거	38.5	29.1	32.4	100.0	2.87
	사별	66.0	18.1	15.9	100.0	2.26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41.7	29.6	28.8	100.0	2.80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57.0	23.4	19.6	100.0	2.42
	이혼 또는 별거	51.0	24.9	24.1	100.0	2.57
	사별	65.1	20.3	14.6	100.0	2.21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 (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미혼	30.4	32.2	37.4	100.0	3.04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41.7	28.4	29.8	100.0	2.80
	이혼 또는 별거	31.9	30.5	37.6	100.0	3.04
	사별	50.7	26.6	22.6	100.0	2.5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	25.2	35.0	39.8	100.0	3.12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46.2	30.2	23.6	100.0	2.65
	이혼 또는 별거	37.8	32.9	29.3	100.0	2.86
	사별	58.2	26.1	15.8	100.0	2.39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20.6	39.6	39.8	100.0	3.18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40.8	33.7	25.4	100.0	2.75
	이혼 또는 별거	29.8	34.2	36.1	100.0	3.01
	사별	52.1	28.7	19.1	100.0	2.50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에 동의한다	미혼	41.2	32.2	26.6	100.0	2.76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56.9	25.6	17.5	100.0	2.42
	이혼 또는 별거	49.5	30.4	20.1	100.0	2.55
	사별	62.9	23.0	14.1	100.0	2.25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별로 보면 초대졸 이상인 경우 중졸 이하나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비교하여 동의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반면 중졸 이하 집단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비동의 45.8%, 동의 35.0%),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비동의 45.9%, 동의 28.2%), .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비동의 54.1%), 동의 23.6%),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비동의 59.3%, 동의 19.1%), '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비동의 50.3%, 동의 25.9%), '결혼생활에 계약서를 쓰는 것'(비동의 50.3%, 동의 23.8%),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비동의 45.4%, 동의 23.8%),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비동의 56.4%, 동의 16.6%)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비동의 비율이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무자녀(비동의 40.5%, 동의 32.7%), 비혼 출산(비동의 54.9%, 동의 20.7%),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비동의 39.9%, 동의 31.9%), 결혼 계약서(비동의 41.7%), 동의 26.5%), 자녀 성 어머니로 결정(비동의 36.6%, 동의 27.8%) 등 항목에 대하여 동의보다 비동의 비율이 높았다. 초대졸 이상이 동의보다 비동의 비율이 높은 항목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비동의 48.2%, 동의 24.7%),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비동의 49.1%, 동의 22.3%)이다.

〈표 Ⅳ-17〉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45.8	19.2	35.0	100.0	2.78
	고등학교	32.2	21.4	46.4	100.0	3.14
	초대졸 이상	23.5	22.7	53.9	100.0	3.35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45.9	25.9	28.2	100.0	2.69
	고등학교	33.7	28.4	37.8	100.0	3.00
	초대졸 이상	25.3	29.6	45.1	100.0	3.21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34.2	30.3	35.5	100.0	2.95
	고등학교	22.9	28.6	48.5	100.0	3.27
	초대졸 이상	18.5	30.0	51.4	100.0	3.36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54.1	22.3	23.6	100.0	2.52
	고등학교	40.5	26.8	32.7	100.0	2.86
	초대졸 이상	29.9	29.0	41.2	100.0	3.10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59.3	21.6	19.1	100.0	2.36
	고등학교	54.9	24.4	20.7	100.0	2.48
	초대졸 이상	48.2	27.1	24.7	100.0	2.64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45.5	28.6	25.9	100.0	2.66
	고등학교	39.9	28.2	31.9	100.0	2.86
	초대졸 이상	34.5	31.0	34.6	100.0	2.96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중졸 이하	50.3	25.9	23.8	100.0	2.57
	고등학교	41.7	31.8	26.5	100.0	2.75
	초대졸 이상	35.1	33.6	31.3	100.0	2.89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45.4	29.8	24.8	100.0	2.65
	고등학교	36.6	35.6	27.8	100.0	2.84
	초대졸 이상	29.5	37.1	33.4	100.0	3.00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56.4	27.0	16.6	100.0	2.39
	고등학교	54.1	26.7	19.2	100.0	2.47
	초대졸 이상	49.1	28.6	22.3	100.0	2.6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가족소득별로 보면 대체로 100만원 미만 집단이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비혼 독신에 대해서는 300~400만원 미만이 51.4%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비혼 동거 역시 300~400만원 미만(41.3%)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100만원 미만 16.2%, 200만원~300만원 미만 21.7%, 5.5%p),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100만원 미만 18.7%, 300~400만원 미만 21.5%, 2.8%p)에 대해서는 응답 차이가 크지 않다.

〈표 Ⅳ-18〉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57.9	14.4	27.7	100.0	2.49
	100~200만원 미만	51.2	16.3	32.6	100.0	2.68
	200~300만원 미만	35.2	16.9	48.0	100.0	3.12
	300~400만원 미만	28.9	19.7	51.4	100.0	3.26
	400~500만원 미만	30.8	21.5	47.7	100.0	3.19
	500만원 이상	30.4	23.5	46.2	100.0	3.17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56.6	20.8	22.7	100.0	2.49
	100~200만원 미만	49.8	22.9	27.3	100.0	2.64
	200~300만원 미만	35.4	25.1	39.5	100.0	2.97
	300~400만원 미만	29.5	29.2	41.3	100.0	3.09
	400~500만원 미만	31.4	30.5	38.1	100.0	3.03
	500만원 이상	32.7	29.2	38.1	100.0	3.04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35.6	25.4	39.0	100.0	2.97
	100~200만원 미만	34.0	29.3	36.7	100.0	2.98
	200~300만원 미만	24.5	28.9	46.6	100.0	3.24
	300~400만원 미만	19.8	29.3	50.9	100.0	3.32
	400~500만원 미만	20.2	29.4	50.4	100.0	3.32
	500만원 이상	22.2	28.9	49.0	100.0	3.29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69.7	13.4	16.9	100.0	2.20
	100~200만원 미만	60.7	19.3	20.0	100.0	2.38
	200~300만원 미만	40.6	25.6	33.8	100.0	2.85
	300~400만원 미만	39.2	24.6	36.2	100.0	2.94
	400~500만원 미만	36.1	28.6	35.4	100.0	2.95
	500만원 이상	37.8	28.7	33.5	100.0	2.9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68.2	15.5	16.2	100.0	2.13
	100~200만원 미만	60.8	20.6	18.6	100.0	2.34
	200~300만원 미만	53.2	25.1	21.7	100.0	2.51
	300~400만원 미만	56.0	23.1	20.9	100.0	2.48
	400~500만원 미만	52.3	26.4	21.3	100.0	2.51
	500만원 이상	53.7	25.0	21.3	100.0	2.51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53.3	23.4	23.3	100.0	2.50
	100~200만원 미만	45.8	29.0	25.2	100.0	2.67
	200~300만원 미만	37.2	28.6	34.2	100.0	2.91
	300~400만원 미만	36.9	28.4	34.7	100.0	2.92
	400~500만원 미만	36.1	30.7	33.2	100.0	2.92
	500만원 이상	38.2	28.2	33.5	100.0	2.90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100만원 미만	59.5	21.2	19.2	100.0	2.37
	100~200만원 미만	58.0	22.3	19.8	100.0	2.42
	200~300만원 미만	40.4	33.3	26.3	100.0	2.77
	300~400만원 미만	40.9	29.7	29.4	100.0	2.80
	400~500만원 미만	39.3	30.9	29.8	100.0	2.82
	500만원 이상	41.6	32.3	26.1	100.0	2.75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54.4	21.3	24.2	100.0	2.51
	100~200만원미만	50.2	28.2	21.6	100.0	2.55
	200~300만원 미만	34.6	36.2	29.2	100.0	2.87
	300~400만원 미만	33.3	36.7	30.0	100.0	2.91
	400~500만원 미만	32.7	34.6	32.7	100.0	2.94
	500만원 이상	32.7	37.7	29.6	100.0	2.9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자녀 입양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64.5	16.8	18.7	100.0	2.27
	100~200만원미만	62.1	21.6	16.3	100.0	2.29
	200~300만원 미만	48.8	29.8	21.3	100.0	2.58
	300~400만원 미만	51.9	26.6	21.5	100.0	2.55
	400~500만원 미만	53.8	26.4	19.7	100.0	2.50
	500만원 이상	53.1	25.9	21.0	100.0	2.5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2. 다양한 가족의례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 의례 및 문화에 대한 생각은 1)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2)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4)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루는 것에 동의한다, 5) 가부장적 가족 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개선에 동의한다의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58.9%),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58.5%),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55.2%) 등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가부장적 가족 호칭의 개선'에 대해서는 45.2%가 동의하였다.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35.1%)에 대해서는 5항목 중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동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항목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9.5%p)으로 나타난 전통적 방식의 제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의 비율 증가가 큰 항목은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5.2%p)이다.

〈표 Ⅳ-19〉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19,624	11,042	16,553	47,219	2.85
	구성비	41.6	23.4	35.1	100.0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9,253	11,887	26,080	47,219	3.47
	구성비	19.6	25.2	55.2	100.0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6,786	12,631	27,802	47,219	3.54
	구성비	14.4	26.8	58.9	100.0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빈도	6,722	12,867	27,630	47,219	3.54
	구성비	14.2	27.2	58.5	100.0	
가부장적 가족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빈도	8,828	17,033	21,359	47,219	3.33
	구성비	18.7	36.1	45.2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Ⅳ-20〉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0 대비 변화량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29.9	35.1	5.2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45.7	55.2	9.5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58.9	58.9	0.0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60.2	58.5	-1.7
가부장적 가족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46.7	45.2	-1.5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남성 51.3%, 여성 59.1%, 7.8%p)에 대한 남녀 간 응답 차이가 가장 크고 다음은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남성 31.8%, 여성 38.3%, 6.5%p), ‘가부장적 가족 호칭의 개선’(남성 42.7%, 여성 47.7%, 5.0%p),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남성 57.5%, 여성 60.2%, 2.7%p) 등의 순이다. 그러나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남성 58.2%, 여성 58.8%, 0.6%p)은 남성과 여성의 동의 비율 차이가 거의 없다.

〈표 Ⅳ-21〉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44.7	23.4	31.8	100.0	2.77
	여성	38.4	23.3	38.3	100.0	2.94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21.8	26.8	51.3	100.0	3.37
	여성	17.4	23.5	59.1	100.0	3.57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15.3	27.1	57.5	100.0	3.51
	여성	13.4	26.4	60.2	100.0	3.57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남성	14.7	27.1	58.2	100.0	3.53
	여성	13.8	27.4	58.8	100.0	3.56
가부장적 가족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남성	19.4	37.9	42.7	100.0	3.27
	여성	18.0	34.3	47.7	100.0	3.38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각 문항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세대 간 응답 격차도 큰 편이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20세~30세 미만 70.2%, 70세 이상 31.2%, 39.0%p)에 대해 30대와 70세 이상의 동의 비율 격차는 거의 40%에 이른다.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20세~30세 미만 49.1%, 70세 이상 16.6%, 32.5%p)와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20세~30세 미만 57.1%, 70세 이상 25.6%, 31.5%p)도 30대와 70세 이상의 동의율 차이가 30%를 상회한다. '결혼식을 결혼당사자 중심으로 치루는 것'(20세~30세 미만 67.7%, 70세 이상 42.7%, 25.0%p),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20세 미만과 20세~30세 미만 모두 67.2%, 70세 이상 43.7%, 23.5%p)에 대해서도 세대 간 응답 차이가 두드러진다.

〈표 Ⅳ-22〉 다양한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23.5	29.3	47.2	100.0	3.27
	20세 이상~30세 미만	23.1	27.8	49.1	100.0	3.28
	30세 이상~40세 미만	31.4	25.9	42.8	100.0	3.10
	40세 이상~50세 미만	38.4	24.3	37.3	100.0	2.95
	50세 이상~60세 미만	43.2	23.9	32.9	100.0	2.82
	60세 이상~70세 미만	54.8	19.8	25.4	100.0	2.54
	70세 이상	68.5	14.9	16.6	100.0	2.19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6.8	27.6	65.6	100.0	3.82
	20세 이상~30세 미만	7.9	21.8	70.2	100.0	3.85
	30세 이상~40세 미만	9.0	23.8	67.2	100.0	3.78
	40세 이상~50세 미만	12.9	26.1	61.0	100.0	3.64
	50세 이상~60세 미만	20.6	27.6	51.8	100.0	3.40
	60세 이상~70세 미만	29.8	26.2	44.0	100.0	3.16
	70세 이상	45.9	23.0	31.2	100.0	2.77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8.4	24.4	67.2	100.0	3.73
	20세 이상~30세 미만	8.8	24.1	67.2	100.0	3.73
	30세 이상~40세 미만	9.8	26.8	63.4	100.0	3.67
	40세 이상~50세 미만	11.7	24.9	63.4	100.0	3.64
	50세 이상~60세 미만	15.8	27.4	56.8	100.0	3.50
	60세 이상~70세 미만	18.3	28.1	53.6	100.0	3.41
	70세 이상	25.6	30.8	43.7	100.0	3.19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7.7	26.6	65.7	100.0	3.75
	20세 이상~30세 미만	8.4	23.9	67.7	100.0	3.74
	30세 이상~40세 미만	9.5	25.0	65.5	100.0	3.71
	40세 이상~50세 미만	12.2	25.3	62.5	100.0	3.62
	50세 이상~60세 미만	15.0	29.7	55.3	100.0	3.48
	60세 이상~70세 미만	18.1	28.7	53.3	100.0	3.41
	70세 이상	26.3	31.0	42.7	100.0	3.17
가부장적 가족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20세 미만	11.3	35.8	52.9	100.0	3.53
	20세 이상~30세 미만	10.5	32.4	57.1	100.0	3.59
	30세 이상~40세 미만	11.5	35.1	53.3	100.0	3.51
	40세 이상~50세 미만	14.9	34.7	50.4	100.0	3.45
	50세 이상~60세 미만	18.5	38.3	43.2	100.0	3.29
	60세 이상~70세 미만	25.4	37.6	37.0	100.0	3.13
	70세 이상	36.4	38.0	25.6	100.0	2.8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는 모든 문항에 대해 미혼 집단의 동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 다양한 가족 의례와 문화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보여준다.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과 '가부장적 가족호칭 개선'은 미혼 다음으로 유배우인 경우 동의 수준이 높다. 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 '결혼을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별거자의 동의 수준이 미혼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3〉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24.3	27.5	48.2	100.0	3.26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7.9	21.9	30.2	100.0	2.71
	이혼 또는 별거	35.9	25.7	38.4	100.0	2.97
	사별	63.1	17.9	19.0	100.0	2.30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8.5	23.8	67.7	100.0	3.8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2.4	26.1	51.6	100.0	3.38
	이혼 또는 별거	21.9	25.6	52.5	100.0	3.43
	사별	39.5	23.7	36.7	100.0	2.94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8.2	24.9	66.9	100.0	3.73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6.7	27.0	56.3	100.0	3.48
	이혼 또는 별거	12.9	26.2	60.9	100.0	3.57
	사별	21.4	32.0	46.6	100.0	3.27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미혼	8.0	24.6	67.4	100.0	3.75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6.6	27.6	55.8	100.0	3.47
	이혼 또는 별거	10.8	29.1	60.1	100.0	3.58
	사별	22.0	33.6	44.4	100.0	3.25
가부장적 가족호칭 (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미혼	11.4	33.9	54.7	100.0	3.54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0.5	36.7	42.8	100.0	3.27
	이혼 또는 별거	20.6	37.5	41.9	100.0	3.27
	사별	31.8	38.8	29.4	100.0	2.9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교육수준별 응답 차이도 뚜렷하다. 동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 중졸 이하는 42.4%가 동의한 반면 초대졸 이상은 62.1%가 동의하여 19.7%p의 차이를 보인다. '가부장적 가족호칭의 개선'(중졸 이하 35.1%, 초대졸 이상 50.8%, 15.7%p) 차이를 보인다.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중졸 이하 52.3%, 초대졸 이상 63.3%, 11.0%p),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중졸 이하 27.6%, 초대졸 이상 39.7%, 12.1%p),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중졸 이하 52.4%, 초대졸 이상 63.2%, 10.8%p)은 중졸이하와 초대졸 이상 집단 간 동의 비율 차이는 10% 내외로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차이가 작다.

〈표 Ⅳ-24〉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53.2	19.1	27.6	100.0	2.55
	고등학교	43.7	22.9	33.4	100.0	2.81
	초대졸 이상	34.5	25.7	39.7	100.0	3.02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32.6	25.0	42.4	100.0	3.11
	고등학교	21.1	25.0	53.9	100.0	3.43
	초대졸 이상	12.5	25.4	62.1	100.0	3.66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19.4	28.3	52.3	100.0	3.38
	고등학교	16.8	26.1	57.1	100.0	3.49
	초대졸 이상	10.1	26.6	63.3	100.0	3.65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18.3	29.3	52.4	100.0	3.40
	고등학교	16.5	27.3	56.1	100.0	3.48
	초대졸 이상	10.5	26.3	63.2	100.0	3.65
가부장적 가족호칭 (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중졸 이하	29.4	35.5	35.1	100.0	3.07
	고등학교	19.1	36.8	44.1	100.0	3.30
	초대졸 이상	13.5	35.7	50.8	100.0	3.4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경향이 발견되며, 소득수준별 응답 차이도 뚜렷하다. 응답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가부장적 가족호칭의 개선'(100만원 미만 27.4%, 300~400만원 미만 49.1%, 21.7%p)이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100만원 미만 38.7%, 500만원 이상 59.5%, 20.8%p)도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집단 간에 동의 비율 차이가 큰 편이다.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도 100만원 미만은 18.3%가 동의한 반면 300~400만원 집단은 38.1%가 동의하여 19.8%의 차이를 보인다.

〈표 Ⅳ-25〉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69.1	12.5	18.3	100.0	2.19
	100~200만원 미만	56.1	16.2	27.7	100.0	2.50
	200~300만원 미만	43.2	21.1	35.7	100.0	2.83
	300~400만원 미만	37.2	24.8	38.1	100.0	2.94
	400~500만원 미만	40.6	24.4	35.0	100.0	2.88
	500만원 이상	40.4	24.4	35.2	100.0	2.89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44.8	16.5	38.7	100.0	2.93
	100~200만원 미만	38.2	25.2	36.7	100.0	2.94
	200~300만원 미만	25.3	23.3	51.4	100.0	3.34
	300~400만원 미만	17.4	24.0	58.6	100.0	3.53
	400~500만원 미만	17.4	25.7	57.0	100.0	3.52
	500만원 이상	15.6	24.9	59.5	100.0	3.60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20.8	29.0	50.2	100.0	3.32
	100~200만원 미만	18.3	29.6	52.1	100.0	3.39
	200~300만원 미만	15.7	29.5	54.8	100.0	3.46
	300~400만원 미만	13.9	25.3	60.9	100.0	3.56
	400~500만원 미만	15.6	26.9	57.5	100.0	3.51
	500만원 이상	12.7	25.8	61.5	100.0	3.60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21.8	24.9	53.3	100.0	3.33
	100~200만원 미만	18.0	32.9	49.1	100.0	3.35
	200~300만원 미만	12.9	34.0	53.1	100.0	3.47
	300~400만원 미만	14.0	25.8	60.3	100.0	3.5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400~500만원 미만	16.1	26.1	57.8	100.0	3.51
	500만원 이상	13.9	25.4	60.7	100.0	3.59
가부장적 가족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100만원 미만	38.1	34.5	27.4	100.0	2.88
	100~200만원 미만	31.1	34.5	34.5	100.0	3.02
	200~300만원 미만	20.4	38.0	41.6	100.0	3.26
	300~400만원 미만	18.2	32.7	49.1	100.0	3.38
	400~500만원 미만	17.9	34.7	47.4	100.0	3.36
	500만원 이상	16.4	35.3	48.3	100.0	3.4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3.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4개 항목 모두 동의함보다 동의안함 비율이 높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하여 33.6%가,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한다'는 26.3%가,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해서 21.6%,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해 18.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약 19%에서 33%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20년 12.8%에서 2023년 26.4%로 13.6% 상승하였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은 2020년 22.5%에서 2023년 33.6%로 11.1%p 상승하였고,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20년 12.3% → '23년 21.6%)은 9.3%p 상승하였다.

〈표 Ⅳ-26〉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빈도	17,957	13,381	15,882	47,219	2.92
	구성비	38.0	28.3	33.6	100.0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빈도	23,837	14,489	8,893	47,219	2.58
	구성비	50.5	30.7	18.8	100.0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빈도	20,346	14,397	12,477	47,219	2.74
	구성비	43.1	30.5	26.4	100.0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빈도	20,361	16,666	10,193	47,219	2.69
	구성비	43.1	35.3	21.6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Ⅳ-27〉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2.4	33.6	11.2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9.8	18.8	9.0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12.7	26.4	13.7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12.3	21.6	9.3

성별에 따라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남성의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전형적인 성역할 태도를 더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문항에 비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남성(34.2%) 여성(33.1%)의 동의 비율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 경제적 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남녀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가사나 돌봄자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남녀 동의 비율 차이는 3% 내외로 크지는 않지만 남성이 더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8〉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남성	37.1	28.7	34.2	100.0	2.94
	여성	38.9	28.0	33.1	100.0	2.90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남성	47.7	32.3	20.1	100.0	2.64
	여성	53.3	29.1	17.6	100.0	2.52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남성	39.6	31.8	28.6	100.0	2.83
	여성	46.6	29.2	24.2	100.0	2.66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남성	40.1	36.7	23.2	100.0	2.75
	여성	46.1	33.9	20.0	100.0	2.6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이 높을수록 4개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고, 연령별 응답 격차가 매우 크다. 연령에 따른 응답 격차가 가장 큰 문항은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20세~30세 미만 14.7%, 70세 이상 45.0%)으로 동의 비율 차이가 30.4%p에 달한다. 다음은 '가사는 주로 여성'으로 20세 미만(17.5%)과 70세 이상(45.0%)의 동의 비율 차이는 27.5%p이다. 그 외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20세 미만 22.8%, 70세 이상 48.7%, 25.9%p)와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20세~30세 미만 12.9%, 70세 이상 34.8%, 21.9%p)에 대해서도 세대간 동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Ⅳ-29〉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0세 미만	51.1	26.1	22.8	100.0	2.61
	20세 이상~30세 미만	51.6	26.3	22.1	100.0	2.62
	30세 이상~40세 미만	43.0	30.8	26.2	100.0	2.77
	40세 이상~50세 미만	38.4	29.9	31.6	100.0	2.90
	50세 이상~60세 미만	33.3	29.8	36.8	100.0	3.01
	60세 이상~70세 미만	29.6	28.8	41.6	100.0	3.11
	70세 이상	26.8	24.4	48.7	100.0	3.23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20세 미만	60.7	27.2	12.1	100.0	2.33
	20세 이상~30세 미만	61.2	25.7	13.1	100.0	2.34
	30세 이상~40세 미만	54.0	31.2	14.8	100.0	2.47
	40세 이상~50세 미만	53.4	30.1	16.5	100.0	2.51
	50세 이상~60세 미만	47.6	33.1	19.4	100.0	2.63
	60세 이상~70세 미만	43.3	32.9	23.9	100.0	2.74
	70세 이상	38.4	32.1	29.4	100.0	2.88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20세 미만	55.0	27.5	17.5	100.0	2.42
	20세 이상~30세 미만	55.6	29.7	14.7	100.0	2.43
	30세 이상~40세 미만	49.7	32.4	17.9	100.0	2.56
	40세 이상~50세 미만	44.4	32.3	23.2	100.0	2.69
	50세 이상~60세 미만	39.8	32.6	27.6	100.0	2.81
	60세 이상~70세 미만	33.8	30.8	35.4	100.0	2.97
	70세 이상	29.7	25.3	45.0	100.0	3.15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20세 미만	53.2	33.7	13.1	100.0	2.41
	20세 이상~30세 미만	52.5	34.5	12.9	100.0	2.45
	30세 이상~40세 미만	48.5	35.3	16.2	100.0	2.55
	40세 이상~50세 미만	45.7	34.4	19.9	100.0	2.64
	50세 이상~60세 미만	41.1	35.2	23.6	100.0	2.76
	60세 이상~70세 미만	35.7	37.7	26.6	100.0	2.86
	70세 이상	29.8	35.4	34.8	100.0	3.0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는 4개 문항 모두에 대해 사별 집단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고,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이혼/별거, 미혼의 순이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해 사별 집단은 44.0.8%가 동의한 반면 미혼 집단은 22.4%가 동의하였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사별 집단 39.4%, 미혼 집단 16.0%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사별 집단(30.2%)과 미혼 집단(13.6%)의 동의율 차이가 16.6%로 적지 않다(〈표 Ⅳ-30〉참조).

〈표 Ⅳ-30〉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미혼	50.0	27.6	22.4	100.0	2.63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2.5	28.9	38.6	100.0	3.04
	이혼 또는 별거	43.6	30.0	26.3	100.0	2.78
	사별	29.8	26.2	44.0	100.0	3.13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미혼	59.0	27.9	13.1	100.0	2.37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7.1	32.2	20.8	100.0	2.65
	이혼 또는 별거	55.6	29.5	14.9	100.0	2.46
	사별	40.4	30.9	28.7	100.0	2.83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미혼	54.1	29.9	16.0	100.0	2.46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8.4	31.3	30.3	100.0	2.86
	이혼 또는 별거	46.4	31.3	22.3	100.0	2.65
	사별	34.3	26.4	39.4	100.0	3.02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미혼	52.1	34.3	13.6	100.0	2.46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9.7	35.5	24.8	100.0	2.78
	이혼 또는 별거	45.8	36.1	18.0	100.0	2.61
	사별	32.8	37.0	30.2	100.0	2.94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Ⅳ-31〉과 〈표 Ⅳ-32〉에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소득이 100만원 미만 일 경우 4개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 수준이 높은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 수준별 집단 간

동의율 차이가 큰 항목은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로 중졸 이하(34.2%)와 초대졸 이상(21.2%)의 차이는 13.0%p이다. 그 외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도 중졸 이하(39.1%)와 초대졸 이상(29.6%)는 동의 비율 차이가 9.5%이다. 소득수준별로는 대체로 100만원 미만 소득 집단에서 4개 항목에 대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사와 돌봄 관련 역할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1〉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중졸 이하	36.3	24.7	39.1	100.0	3.00
	고등학교	35.5	29.0	35.5	100.0	2.96
	초대졸 이상	40.9	29.5	29.6	100.0	2.84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중졸 이하	46.2	30.6	23.2	100.0	2.68
	고등학교	49.9	30.6	19.5	100.0	2.59
	초대졸 이상	52.9	30.8	16.3	100.0	2.51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중졸 이하	39.4	26.4	34.2	100.0	2.87
	고등학교	40.5	30.9	28.5	100.0	2.80
	초대졸 이상	46.8	32.0	21.2	100.0	2.6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중졸 이하	38.6	34.5	26.9	100.0	2.79
	고등학교	42.1	36.4	21.5	100.0	2.70
	초대졸 이상	46.0	34.8	19.2	100.0	2.6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Ⅳ-32〉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100만원 미만	39.3	20.6	40.1	100.0	2.99
	100~200만원 미만	31.8	25.0	43.2	100.0	3.12
	200~300만원 미만	40.7	29.0	30.3	100.0	2.86
	300~400만원 미만	40.3	30.6	29.2	100.0	2.85
	400~500만원 미만	36.0	28.8	35.3	100.0	2.96
	500만원 이상	37.1	29.3	33.5	100.0	2.93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100만원 미만	47.3	29.9	22.9	100.0	2.69
	100~200만원 미만	42.3	31.3	26.4	100.0	2.80
	200~300만원 미만	47.8	31.2	21.1	100.0	2.62
	300~400만원 미만	54.4	29.4	16.2	100.0	2.49
	400~500만원 미만	50.6	33.6	15.7	100.0	2.53
	500만원 이상	52.4	30.3	17.3	100.0	2.54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100만원 미만	43.6	21.8	34.6	100.0	2.85
	100~200만원 미만	35.3	27.0	37.7	100.0	2.98
	200~300만원 미만	40.7	32.4	26.9	100.0	2.78
	300~400만원 미만	46.5	30.1	23.4	100.0	2.66
	400~500만원 미만	43.0	31.9	25.0	100.0	2.74
	500만원 이상	44.4	29.9	25.8	100.0	2.71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100만원 미만	42.1	32.5	25.4	100.0	2.76
	100~200만원 미만	35.0	34.2	30.8	100.0	2.89
	200~300만원 미만	41.9	37.2	20.9	100.0	2.71
	300~400만원 미만	45.6	34.7	19.6	100.0	2.64
	400~500만원 미만	43.7	36.7	19.7	100.0	2.67
	500만원 이상	45.0	34.5	20.6	100.0	2.6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제3절. 가족 부양 인식

1.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인식

〈표 Ⅳ-33〉에서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은 크게 높지 않은 가운데,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44.6%로 가장 높고,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40.8%)가 두 번째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은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26.1%),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5.4%),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16.3%)의 순이다.

〈표 Ⅳ-33〉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빈도	19,700	15,547	11,972	47,219	2.81
	구성비	41.7	32.9	25.4	100.0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빈도	10,280	17,657	19,283	47,219	3.20
	구성비	21.8	37.4	40.8	100.0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빈도	10,096	16,066	21,058	47,219	3.24
	구성비	21.4	34.0	44.6	100.0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빈도	16,897	18,014	12,309	47,219	2.87
	구성비	35.8	38.1	26.1	100.0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빈도	22,625	16,902	7,692	47,219	2.59
	구성비	47.9	35.8	16.3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이를 20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나이든 부모 경제적 부양' 등 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녀 취업까지 책임'('20년 37.6% → '23년 44.6%), '자녀 결혼 준비 비용 책임'('20년 16.8% → '23년 26.1%), '자녀 결혼 이후에도 책임'('20년 9.8% → '23년 16.3%) 등 부모의 자녀 책임에 대한 3개 항목의 동의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4〉참조).

〈표 Ⅳ-34〉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15년 (대체로 +매우그렇다)	2020년 (대체로 +매우그렇다)	2023년 (대체로 +매우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42.5	25.8	25.4	-0.4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57.4	39.4	40.8	1.4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33.7	37.6	44.6	7.0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19.5	16.8	26.1	9.3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13.7	9.8	16.3	6.5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는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남성 28.5%, 여성 22.2%, 6.3%p)와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남성 42.8%, 여성 38.9%, 3.9%p) 항목 등 부모 부양 책임 항목에서 성별 동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 남성의 동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3개 항목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서 자녀 부양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표 Ⅳ-35〉 참조).

〈표 Ⅳ-35〉 부모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남성	38.5	33.0	28.5	100.0	2.88
	여성	44.9	32.9	22.2	100.0	2.74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남성	20.4	36.9	42.8	100.0	3.24
	여성	23.2	37.9	38.9	100.0	3.17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남성	21.6	33.4	45.0	100.0	3.24
	여성	21.1	34.7	44.2	100.0	3.24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남성	35.7	38.0	26.4	100.0	2.87
	여성	35.9	38.3	25.8	100.0	2.86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남성	47.9	35.9	16.2	100.0	2.60
	여성	48.0	35.7	16.4	100.0	2.5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Ⅳ-36〉에서 연령별로는 '나이 든 부모와 동거'(20세~30세 미만 20.0%, 30세~40세 미만 19.6%, 70세 이상 31.0%), '나이 든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20세~30세 미만 32.4%, 70세 이상 49.9%) 등 부모 부양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다.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내용도 부모 부양과 동일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특히 40세 이상의 동의 수준이 높다. 한편 주목할 점은 20세 미만 집단은 '자녀 취업 시까지 책임'에 대해 41.6%, '자녀 결혼 준비 비용 책임'에 대해 25.2%의 동의 비율을 보여 20세 ~30세 미만과 30세~40세 미만 연령대 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최근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성인기 이행 이전인 20세 미만 연령대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더 요구하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Ⅳ-36〉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0세 미만	43.2	32.9	23.9	100.0	2.78
	20세 이상~30세 미만	47.6	32.4	20.0	100.0	2.68
	30세 이상~40세 미만	45.3	35.1	19.6	100.0	2.70
	40세 이상~50세 미만	43.2	33.0	23.8	100.0	2.77
	50세 이상~60세 미만	37.8	33.5	28.7	100.0	2.88
	60세 이상~70세 미만	39.1	31.8	29.2	100.0	2.87
	70세 이상	37.5	31.6	31.0	100.0	2.93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20세 미만	26.4	39.0	34.6	100.0	3.09
	20세 이상~30세 미만	26.5	41.0	32.4	100.0	3.04
	30세 이상~40세 미만	23.3	39.8	36.9	100.0	3.13
	40세 이상~50세 미만	21.3	39.4	39.3	100.0	3.20
	50세 이상~60세 미만	19.9	36.0	44.1	100.0	3.27
	60세 이상~70세 미만	20.3	34.6	45.1	100.0	3.27
	70세 이상	17.4	32.7	49.9	100.0	3.37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20세 미만	21.4	37.0	41.6	100.0	3.19
	20세 이상~30세 미만	26.4	36.0	37.6	100.0	3.09
	30세 이상~40세 미만	25.4	36.8	37.8	100.0	3.1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40세 이상~50세 미만	20.4	32.6	47.0	100.0	3.29
	50세 이상~60세 미만	21.0	32.2	46.8	100.0	3.27
	60세 이상~70세 미만	19.2	33.3	47.5	100.0	3.30
	70세 이상	16.1	32.5	51.4	100.0	3.37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0세 미만	39.6	35.2	25.2	100.0	2.80
	20세 이상~30세 미만	41.6	37.9	20.5	100.0	2.73
	30세 이상~40세 미만	38.7	39.1	22.2	100.0	2.79
	40세 이상~50세 미만	37.4	36.2	26.4	100.0	2.85
	50세 이상~60세 미만	34.5	38.2	27.3	100.0	2.91
	60세 이상~70세 미만	31.3	40.8	27.9	100.0	2.94
	70세 이상	29.4	38.3	32.3	100.0	3.02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20세 미만	50.4	35.7	13.9	100.0	2.52
	20세 이상~30세 미만	53.0	33.2	13.8	100.0	2.49
	30세 이상~40세 미만	49.3	36.4	14.3	100.0	2.56
	40세 이상~50세 미만	50.2	34.1	15.7	100.0	2.57
	50세 이상~60세 미만	45.4	37.7	17.0	100.0	2.64
	60세 이상~70세 미만	45.6	36.2	18.2	100.0	2.65
	70세 이상	43.0	36.9	20.0	100.0	2.6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다.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 책임'(중졸 이하 48.1%, 초대졸 이상 25.4%, 22.7%p)에 대하여 동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자녀는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중졸이하 28.7%, 초대졸 이상 22.5%)는 6.2%p,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중졸 이하 48.1%, 초대졸 이상 42.3%)은 5.8%p의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중졸 이하 18.0%, 초대졸 이상 15.8%, 2.2%p)과 '나이 든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중졸 이하 44.6%, 초대졸 이상 37.8%,6.8%p)에 대한 응답 차이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적다(〈표 Ⅳ-37〉 참조).

〈표 Ⅳ-37〉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중졸 이하	40.7	30.6	28.7	100.0	2.86
	고등학교	39.9	33.1	27.0	100.0	2.84
	초대졸 이상	43.7	33.8	22.5	100.0	2.75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중졸 이하	21.2	34.2	44.6	100.0	3.27
	고등학교	20.8	36.7	42.5	100.0	3.23
	초대졸 이상	22.8	39.4	37.8	100.0	3.15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중졸 이하	18.2	33.7	48.1	100.0	3.31
	고등학교	21.3	33.2	45.5	100.0	3.25
	초대졸 이상	22.9	34.8	42.3	100.0	3.20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중졸 이하	34.5	37.3	28.2	100.0	2.91
	고등학교	35.3	39.0	25.7	100.0	2.87
	초대졸 이상	36.8	37.8	25.4	100.0	2.85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볼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중졸 이하	45.1	36.9	18.0	100.0	2.64
	고등학교	47.6	36.4	15.9	100.0	2.59
	초대졸 이상	49.4	34.8	15.8	100.0	2.57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2.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자녀와 자녀 양육 인식 조사 결과(〈표 Ⅳ-38〉 참조), 6개 항목 중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동의한 항목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로 전체 응답자의 69.2%가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65.4%),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61.4%),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58.9%),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54.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45.3%)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의 효능감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38〉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빈도	2,624	11,926	32,669	47,219	3.76
	구성비	5.6	25.3	69.2	100.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빈도	10,249	15,572	21,398	47,219	3.30
	구성비	21.7	33.0	45.3	100.0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빈도	5,339	14,056	27,824	47,219	3.61
	구성비	11.3	29.8	58.9	100.0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빈도	4,833	13,376	29,011	47,219	3.64
	구성비	10.2	28.3	61.4	100.0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빈도	6,098	15,545	25,576	47,219	3.51
	구성비	12.9	32.9	54.2	100.0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빈도	3,768	12,586	30,866	47,219	3.75
	구성비	8.0	26.7	65.4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6개 항목 모두 동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동의 비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은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12.0%p),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성'(+10.7%p) 등이다. 부정적 인식 역시 동의 비율이 증가하여 자녀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4.9%p)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표 Ⅳ-39〉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15년 (대체로 +매우 그렇다)	2020년 (대체로 +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 +매우 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68.9	65.2	69.2	4.0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42.5	34.6	45.3	10.7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53.7	46.9	58.9	12.0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55.4	57.6	61.4	3.8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48.7	49.3	54.2	4.9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63.7	63.2	65.4	2.2

성별에 따라서는 6개 문항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동의 수준을 나타낸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남 51.9%, 여 56.4%, 4.5%p),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남 43.3%, 여 47.4%, 4.1%p), ‘자녀 돌봄은 힘든 일’(남 59.7%, 여 63.2%, 3.5%p),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남 57.3%, 여 60.5%, 3.2%p), ‘자녀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남성 68.0%, 여성 70.4%, 2.4%p),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남 64.3%, 여 66.4%, 2.1%p)등의 순으로 성별 동의 비율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녀양육의 편익과 부담을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40〉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남성	5.9	26.1	68.0	100.0	3.73
	여성	5.2	24.4	70.4	100.0	3.79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남성	22.5	34.3	43.3	100.0	3.26
	여성	20.9	31.7	47.4	100.0	3.33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남성	11.4	31.3	57.3	100.0	3.58
	여성	11.2	28.3	60.5	100.0	3.65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남성	10.6	29.8	59.7	100.0	3.61
	여성	9.9	26.9	63.2	100.0	3.67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남성	14.0	34.1	51.9	100.0	3.46
	여성	11.8	31.7	56.4	100.0	3.55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남성	8.2	27.5	64.3	100.0	3.72
	여성	7.7	25.9	66.4	100.0	3.78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후를 위한 자녀의 필요성'(20세 미만 33.5%, 70세 이상 64.6%, 31.1%p),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20세~30세 미만 45.8%, 70세 이상 74.6%, 28.8%p),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20세~30세 미만 53.1%, 70세 이상 80.7%, 27.6%p) 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연령별 응답 격차도 큰 편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부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연령대별 동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나 돌봄 부담 등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대체로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41〉 참조).

〈표 Ⅳ-41〉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20세 미만	8.6	34.0	57.3	100.0	3.54
	20세 이상~30세 미만	8.9	38.0	53.1	100.0	3.49
	30세 이상~40세 미만	7.2	28.5	64.3	100.0	3.68
	40세 이상~50세 미만	4.8	22.4	72.9	100.0	3.81
	50세 이상~60세 미만	4.7	23.6	71.6	100.0	3.79
	60세 이상~70세 미만	3.7	19.3	77.0	100.0	3.88
	70세 이상	3.0	16.3	80.7	100.0	4.01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20세 미만	30.7	35.8	33.5	100.0	3.02
	20세 이상~30세 미만	28.6	36.8	34.6	100.0	3.05
	30세 이상~40세 미만	27.0	35.6	37.5	100.0	3.12
	40세 이상~50세 미만	24.4	35.6	40.0	100.0	3.20
	50세 이상~60세 미만	20.2	31.4	48.4	100.0	3.35
	60세 이상~70세 미만	15.0	31.4	53.6	100.0	3.49
	70세 이상	10.2	25.3	64.6	100.0	3.71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20세 미만	14.8	36.1	49.1	100.0	3.43
	20세 이상~30세 미만	16.8	37.5	45.8	100.0	3.35
	30세 이상~40세 미만	14.8	34.0	51.1	100.0	3.46
	40세 이상~50세 미만	12.5	29.2	58.3	100.0	3.60
	50세 이상~60세 미만	9.9	29.7	60.4	100.0	3.64
	60세 이상~70세 미만	6.7	25.2	68.1	100.0	3.80
	70세 이상	5.7	19.7	74.6	100.0	3.9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20세 미만	7.7	25.7	66.7	100.0	3.70
	20세 이상~30세 미만	7.7	28.2	64.1	100.0	3.70
	30세 이상~40세 미만	8.6	25.1	66.4	100.0	3.75
	40세 이상~50세 미만	9.9	27.3	62.8	100.0	3.67
	50세 이상~60세 미만	11.5	32.0	56.4	100.0	3.56
	60세 이상~70세 미만	11.5	30.2	58.3	100.0	3.58
	70세 이상	13.4	27.5	59.1	100.0	3.56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20세 미만	11.3	34.8	53.9	100.0	3.52
	20세 이상~30세 미만	11.4	31.5	57.1	100.0	3.57
	30세 이상~40세 미만	10.1	28.7	61.2	100.0	3.65
	40세 이상~50세 미만	11.9	30.2	57.9	100.0	3.56
	50세 이상~60세 미만	14.2	34.6	51.2	100.0	3.44
	60세 이상~70세 미만	14.9	37.2	48.0	100.0	3.41
	70세 이상	15.7	34.0	50.4	100.0	3.40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20세 미만	6.2	26.9	66.9	100.0	3.80
	20세 이상~30세 미만	7.1	25.4	67.5	100.0	3.81
	30세 이상~40세 미만	6.7	23.5	69.8	100.0	3.85
	40세 이상~50세 미만	7.7	25.6	66.7	100.0	3.79
	50세 이상~60세 미만	8.8	28.4	62.8	100.0	3.69
	60세 이상~70세 미만	8.8	28.2	63.0	100.0	3.69
	70세 이상	9.5	28.3	62.1	100.0	3.6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는 '자녀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성',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에 대해서는 사별-유배우-이혼/별거-미혼의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은 반면, '자녀 돌봄의 힘겨움'은 미혼-유배우-사별-이혼/별거, '자녀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은 미혼-이혼/별거-유배우-사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미혼-유배우-이혼/별거-사별 순으로 나타난다. 미혼의 경우, 자녀 양육의 즐거움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자녀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표 Ⅳ-42〉 참조).

〈표 Ⅳ-42〉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미혼	9.0	37.0	53.9	100.0	3.51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2	20.4	75.4	100.0	3.85
	이혼 또는 별거	5.8	26.7	67.6	100.0	3.71
	사별	2.1	15.7	82.2	100.0	4.06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미혼	30.3	36.2	33.5	100.0	3.02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9.1	32.3	48.6	100.0	3.38
	이혼 또는 별거	21.5	34.3	44.2	100.0	3.26
	사별	8.9	25.1	66.1	100.0	3.75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미혼	16.7	36.9	46.4	100.0	3.37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4	27.3	63.2	100.0	3.70
	이혼 또는 별거	11.0	31.9	57.1	100.0	3.59
	사별	4.8	19.4	75.8	100.0	3.97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미혼	8.4	27.9	63.7	100.0	3.68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0.8	28.2	61.0	100.0	3.63
	이혼 또는 별거	11.5	32.5	56.0	100.0	3.55
	사별	12.6	28.1	59.2	100.0	3.57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미혼	11.6	32.6	55.8	100.0	3.54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3.5	32.9	53.6	100.0	3.49
	이혼 또는 별거	10.9	35.1	54.1	100.0	3.53
	사별	15.0	33.2	51.8	100.0	3.43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미혼	7.0	25.9	67.0	100.0	3.8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8.4	26.4	65.2	100.0	3.74
	이혼 또는 별거	8.2	29.2	62.6	100.0	3.68
	사별	8.2	30.0	61.8	100.0	3.6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아래 〈표 Ⅳ-43〉은 교육수준별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성',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 돌봄의 힘듦'이나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3〉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중졸 이하	4.6	21.9	73.6	100.0	3.86
	고등학교	5.4	26.3	68.3	100.0	3.73
	초대졸 이상	6.1	26.0	67.9	100.0	3.73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중졸 이하	18.2	27.9	54.0	100.0	3.47
	고등학교	20.1	33.3	46.7	100.0	3.32
	초대졸 이상	24.7	35.0	40.3	100.0	3.19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중졸 이하	8.2	25.9	65.9	100.0	3.77
	고등학교	10.2	30.4	59.4	100.0	3.63
	초대졸 이상	13.6	31.0	55.3	100.0	3.53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중졸 이하	12.3	27.8	59.9	100.0	3.58
	고등학교	10.1	28.9	61.0	100.0	3.63
	초대졸 이상	9.4	28.1	62.5	100.0	3.67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중졸 이하	16.5	33.0	50.5	100.0	3.41
	고등학교	12.7	34.2	53.1	100.0	3.50
	초대졸 이상	11.5	31.8	56.7	100.0	3.56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중졸 이하	9.3	26.6	64.1	100.0	3.71
	고등학교	8.0	27.6	64.4	100.0	3.74
	초대졸 이상	7.4	25.9	66.7	100.0	3.77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소득수준별로는 '자녀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성',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자녀돌봄의 힘듦'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400만원 이상 집단(400~500만원 미만 62.1%, 500만원 이상 61.8%)의 동의 수준이 다소 높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은 역시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는 항목 역시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다(〈표 Ⅳ-44〉 참조).

〈표 Ⅳ-44〉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100만원 미만	4.7	17.0	78.3	100.0	4.01
	100~200만원 미만	3.9	16.9	79.2	100.0	3.95
	200~300만원 미만	5.6	29.3	65.1	100.0	3.70
	300~400만원 미만	6.5	25.0	68.5	100.0	3.75
	400~500만원 미만	5.6	25.0	69.4	100.0	3.75
	500만원 이상	5.0	21.7	73.2	100.0	3.8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100만원 미만	17.0	27.3	55.7	100.0	3.51
	100~200만원 미만	15.7	24.4	59.9	100.0	3.57
	200~300만원 미만	22.3	31.4	46.3	100.0	3.30
	300~400만원 미만	21.0	34.8	44.2	100.0	3.28
	400~500만원 미만	20.8	34.7	44.5	100.0	3.28
	500만원 이상	21.5	33.3	45.2	100.0	3.30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100만원 미만	7.8	18.3	73.9	100.0	3.90
	100~200만원 미만	7.1	22.5	70.4	100.0	3.85
	200~300만원 미만	12.6	33.0	54.4	100.0	3.54
	300~400만원 미만	13.1	28.9	58.0	100.0	3.59
	400~500만원 미만	10.8	30.9	58.2	100.0	3.59
	500만원 이상	10.4	28.3	61.3	100.0	3.66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100만원 미만	12.0	28.6	59.4	100.0	3.57
	100~200만원 미만	12.7	26.4	60.9	100.0	3.58
	200~300만원 미만	10.1	32.8	57.1	100.0	3.58
	300~400만원 미만	12.0	28.5	59.4	100.0	3.60
	400~500만원 미만	9.8	28.0	62.1	100.0	3.68
	500만원 이상	10.9	27.4	61.8	100.0	3.6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100만원 미만	17.9	35.0	47.1	100.0	3.35
	100~200만원 미만	14.4	32.8	52.8	100.0	3.46
	200~300만원 미만	12.0	34.8	53.3	100.0	3.48
	300~400만원 미만	13.5	30.8	55.7	100.0	3.51
	400~500만원 미만	11.8	32.6	55.7	100.0	3.54
	500만원 이상	12.2	31.7	56.1	100.0	3.54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100만원 미만	9.1	27.2	63.7	100.0	3.69
	100~200만원 미만	8.4	24.8	66.8	100.0	3.77
	200~300만원 미만	7.9	31.7	60.3	100.0	3.66
	300~400만원 미만	8.3	24.6	67.1	100.0	3.76
	400~500만원 미만	8.2	26.6	65.2	100.0	3.76
	500만원 이상	8.5	25.6	65.9	100.0	3.75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3. 주관적 계층의식

〈표 Ⅳ-45〉는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의 5가지 범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중하층'이 전체 44.7%로 가장 많고, '중층'(38.8%), '하층'(13.4%), '중상층'(3.0%), '상층'(0.2%)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층(중상층+상층)이 3.2%, 중층이 38.8%, 하층(중하층+하층)이 58.1%이다. 이를 보면 전체의 58.1%, 10명 중 약 6명이 자신들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소득이 적을수록 중하층이하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으로 응답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 중하층(+11.7%p)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소 높아져 주관적 계층의식이 소폭 하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Ⅳ-46〉 참조).

〈표 Ⅳ-45〉 가구원 특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천명, %)

구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계
전체		6,320	21,106	18,313	1,403	78	47,219
		13.4	44.7	38.8	3.0	0.2	100.0
성별	남성	12.5	44.4	39.7	3.3	0.2	100.0
	여성	14.3	45.0	37.9	2.7	0.2	100.0
연령	20세 미만	6.8	37.9	51.8	3.3	0.1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12.8	46.0	38.1	3.0	0.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2.0	46.1	39.3	2.6	0.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9.3	44.9	42.5	3.1	0.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0.7	44.0	41.3	3.8	0.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4.2	45.7	36.3	3.4	0.3	100.0
	70세 이상	27.3	45.2	26.1	1.3	0.1	100.0
혼인 상태	미혼	13.2	44.7	39.3	2.7	0.1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6	44.6	42.0	3.6	0.2	100.0
	이혼 또는 별거	32.0	44.5	22.5	0.9	0.1	100.0
	사별	31.4	45.4	22.4	0.7	0.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1.6	45.2	31.4	1.7	0.1	100.0
	고등학교	14.2	48.0	35.1	2.5	0.1	100.0
	초대졸 이상	9.0	41.7	45.1	3.9	0.2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55.4	36.0	8.4	0.1	-	100.0
	100~200만원 미만	33.9	46.7	18.9	0.6	-	100.0
	200~300만원 미만	24.8	50.2	24.2	0.7	0.1	100.0
	300~400만원 미만	16.2	52.3	29.8	1.6	0.1	100.0
	400~500만원 미만	11.1	48.5	37.6	2.7	0.1	100.0
	500만원 이상	6.0	40.3	48.0	5.3	0.4	100.0

〈표 Ⅳ-46〉 주관적 계층의식: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2015년	15.2	35.5	41.0	7.9	0.4
2020년	13.8	33.0	43.8	8.8	0.6
2023년	13.4	44.7	38.8	3.0	0.2
2020년 대비 변화량	-0.4	11.7	-5.0	-5.8	-0.4

V

가족 형성 및 변화

제1절. 혼인 상태 147
제2절. 자녀 수 및 계획 154
제3절. 전반적인 가족 관계 156

제 5장은 가족 형성 관련 혼인과 자녀 관련 문항과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가구원 응답자의 혼인 상태를 파악하고,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포함하여 유배우인 경우 법적 혼인 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비혼 동거의 규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비혼 동거 사유와 비혼 동거로 인한 불편함 경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유무, 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여부 및 출산 의향이 있을 경우 희망 자녀 수를 알아보았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문항은 2023년에 신규 개발한 문항으로 가구원 응답자 본인의 가족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4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2)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3)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4)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등이다.

제1절. 혼인 상태

1. 혼인 상태 및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

〈표 Ⅴ-1〉을 보면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57.9%)이며, 미혼 29.7%, 별거/이혼이 4.5%, 사별 7.9%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 있음의 비율이 높으며, 미혼은 여성(26.2%)보다 남성(33.2%)이 더 많았고, 사별은 여성(13.4%)이 남성(2.3%)보다 11.1%p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부터 배우자 있음의 비율 높아지며, 사별은 60세 이상부터 높아진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초대졸 이상 모두 유배우인 비중이 높으나, 중졸 이하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초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별의 비중이 높다. 이는 노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중졸 이하 학력자가 많기 때문에 연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V-1〉 응답자의 현재 혼인 상태

(단위: 천명, %)

구분		미혼	배우자 있음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별거, 이혼	사별	계
전체(2020년)		14,652	26,378	2,727	3,126	46,883
		31.3	56.3	5.8	6.7	100.0
전체(2023년)		14,034	27,346	2,125	3,714	47,219
		29.7	57.9	4.5	7.9	100.0
성별	남성	33.2	60.7	3.8	2.3	100.0
	여성	26.2	55.1	5.2	13.4	100.0
연령	20세 미만	100.0	0.0	0.0	-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92.1	7.8	0.0	0.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38.2	60.5	1.3	0.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3.8	80.8	4.9	0.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6.1	82.8	8.6	2.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7	76.0	8.9	13.4	100.0
	70세 이상	0.8	55.8	3.9	39.4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3.4	37.9	3.9	24.8	100.0
	고등학교	24.7	61.2	7.1	6.9	100.0
	초대졸 이상	32.1	64.3	2.6	1.0	100.0

주: 별거와 이혼은 2023년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결과표에는 합산하여 제시함

유배우자 중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기간은 30년~40년 미만(24.1%), 20~30년 미만(19.3%), 10년~ 20년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함께 살기 시작한 기간이 길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함께 살기 시작한 기간이 길어, 60대는 30년 이상이 94.4%, 70대는 40년 이상이 93.3%이고, 40세 미만 연령대는 10년 미만의 비중이 높다(〈표 V-2〉 참조).

〈표 V-2〉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기간

(단위: 천명, %)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계
전체(2020년)		2,431	2,775	5,385	5,595	5,097	3,366	1,728	26,378
		9.2	10.5	20.4	21.2	19.3	12.8	6.6	100.0
전체(2023년)		2,690	2,587	5,135	5,290	6,603	3,524	1,517	27,346
		9.8	9.5	18.8	19.3	24.1	12.9	5.5	100.0
성별	남성	10.1	9.8	18.2	19.3	24.2	13.2	5.3	100.0
	여성	9.5	9.1	19.5	19.4	24.1	12.5	5.8	100.0
연령	30세 미만	78.7	19.9	1.4	-	-	-	-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5.5	36.6	17.7	0.3	-	-	-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2	13.3	59.8	20.8	1.0	-	-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0.9	1.4	6.7	51.4	39.0	0.5	-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0.2	0.4	0.6	4.5	63.3	30.4	0.7	100.0
	70세 이상	0.2	0.0	0.9	0.8	4.8	50.6	42.7	100.0

2. 비혼 동거와 동거 사유, 동거로 인한 어려움

유배우자 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비율이 98.8%, 그렇지 않은 경우가 1.2%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18.4%로 가장 높고 30세 이상~40세 미만 2.6%이며 40대 이상은 매우 낮았다. 혼인신고 여부에 대하여 교육수준이나 성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혼인신고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2020년)		25,640	739	26,378
		97.2	2.8	100.0
전체(2023년)		27,021	325	27,346
		98.8	1.2	100.0
성별	남성	98.8	1.2	100.0
	여성	98.8	1.2	100.0
연령	30세 미만	81.6	18.4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97.4	2.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99.3	0.7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99.5	0.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99.6	0.4	100.0
	70세 이상	99.3	0.7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98.8	1.2	100.0
	고등학교	99.0	1.0	100.0
	초대졸 이상	98.7	1.3	100.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1.2% 중에서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경우 57.7%, 없는 경우 42.3%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혼인신고 계획 없음 비율이 여성이 47.2%, 남성이 38.0%로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연령대에서는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혼인신고 계획 있음 응답 비율이 낮아진다. 혼인신고 계획 있음 비율을 보면 30세~40세 미만 74.0%로 가장 높고, 40세~50세 미만(64.9%), 30세 미만(61.3%) 순이다.

〈표 V-4〉 혼인신고 계획

(단위: 천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2020년)		520	219	739
		70.3	29.7	100.0
전체(2023년)		187	137	325
		57.7	42.3	100.0
성별	남성	62.0	38.0	100.0
	여성	52.8	47.2	100.0
연령	30세 미만	61.3	38.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4.0	26.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4.9	35.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8.1	51.9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5.7	84.3	100.0
	70세 이상	11.4	88.6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7	77.3	100.0
	고등학교	46.5	53.5	100.0
	초대졸 이상	73.1	26.9	100.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는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28.0%)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이유'(25.7%),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2.6%)',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남성 28.9%, 여성 27.0%)'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은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가 41.1%로 가장 많고 30세~40세 미만은 '경제적 이유'(34.1%)가 가장 많았다. 40세 이상~70세 미만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가, 70세 이상은 가족이 반대해서(28.8%)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은 '경제적 이유'(36.7%), 중졸 이하는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7.7%), 초대졸 이상은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35.2%)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V-5〉참조).

〈표 V-5〉 동거 사유

(단위: 천명, %)

구분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경제적인 이유로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가족이 반대해서	기타	계
전체(2020년)		104	15	229	16	137	140	5	92	739
		14.0	2.1	31.0	2.2	18.6	18.9	0.7	12.5	100.0
전체(2023년)		44	3	83	5	91	73	20	5	325
		13.5	0.9	25.7	1.6	28.0	22.6	6.1	1.6	100.0
성별	남성	14.5	-	26.4	2.3	28.9	19.4	6.9	1.6	100.0
	여성	12.3	1.9	25.0	0.8	27.0	26.2	5.3	1.6	100.0
연령	30세 미만	20.3	-	20.1	-	41.1	15.6	2.9	-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1.0	1.6	34.1	-	28.1	14.5	-	0.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2	2.6	24.1	-	17.4	34.9	16.1	2.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2.8	-	17.4	5.2	30.0	35.2	9.3	-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	-	35.3	2.1	11.5	51.2	-	-	100.0
	70세 이상	1.7	-	17.3	12.3	6.9	18.4	28.8	14.6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0.9	-	18.3	7.9	21.1	27.7	16.0	8.1	100.0
	고등학교	12.7	1.1	36.7	1.7	19.0	19.1	9.7	-	100.0
	초대졸 이상	17.0	1.0	20.9	-	35.2	23.4	1.6	1.0	100.0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 '있음' 비율이 높은 항목은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로 29.0%로 나타났다. 다음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24.8%)이다. 성별로 보면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와 '법적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에서 여성의 경험 있음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여성 29.4%, 남성 28.7%이며,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여성이 29.6%, 남성 20.6%이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은 동거에 대한 부정적 시선 경험이 26.2%로 가장 높았고, 30세~40세 미만도 마찬가지이다. 40세~50세 미만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45.4%),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 경험(40.8%)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법적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험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았다.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40세~50세 미만의 경험 있음 비율이 높아 29.9%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는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험 비율이 55.7%로 고등학교 졸업이나 초대졸 이상에 비해 높았다(〈표 V-6〉 참조).

〈표 V-6〉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운 경험 "있음"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재산 상속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전체(2020년)		201	212	200	50	56
		27.2	28.6	36.0	14.2	14.8
전체(2023년)		94	80	38	5	7
		29.0	24.8	11.8	1.7	2.2
성별	남성	28.7	20.6	12.6	1.9	1.7
	여성	29.4	29.6	10.9	1.5	2.8
연령별	30세 미만	26.2	13.0	6.5	1.3	1.3
	30세 이상~40세 미만	20.8	13.6	11.5	1.2	1.2
	40세 이상~50세 미만	40.8	45.4	29.9	4.6	2.6
	50세 이상~60세 미만	42.4	25.9	6.8	2.8	4.4
	60세 이상~70세 미만	20.9	46.1	10.0	-	8.9
	70세 이상	42.7	62.3	9.9	-	-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35.6	55.7	10.5	-	1.8
	고등학교	42.1	22.8	12.7	2.1	1.2
	초대졸 이상	19.5	18.4	11.6	1.9	2.9

주: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2절. 자녀 수 및 계획

1. 자녀 유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64.0%이며, 자녀 수는 2명이 52.8%로 가장 많고 1명(27.7%), 3명 이상(19.5%) 순이다. 평균 자녀 수는 2.01명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자녀 수 평균 2.18명에서 2.01명으로 0.17명 감소하고, 자녀 수별 비중도 2020년 2명-3명-1명 순에서 2023년에는 2명-1명-3명 순으로 바뀌어 자녀 수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7〉 자녀 유무와 자녀 수

(단위: 천명, %, 명)

구분		없음	있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2020년	빈도	17,164	29,719	6,053	16,357	7,309	2.18
	구성비	36.6	63.4	20.4	55.0	24.6	
2023년	빈도	17,006	30,214	8,366	15,953	5,895	2.01
	구성비	36.0	64.0	27.7	52.8	19.5	

2. 자녀 계획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 경우는 8.4%, 없는 경우가 66.3%, 생각해본 적 없음 25.3%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계획 '없음'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으면 생각해본 적 없는 비율이 많았다. 30세 미만은 '생각해본 적 없음' 65.3%, 계획 '없음'이 19.0%이며, 30세 이상~40세 미만은 계획 '없음' 44.4%, '생각해본적 없음' 27.9%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을 경우 희망 자녀수는 1명이 54.3%, 2명 43.2%로 1명이 가장 많았다.

〈표 V-8〉 자녀 계획

(단위: 천명, %)

구분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계
전체(2020년)		2,744	33,113	11,026	46,883
		5.9	70.6	23.5	100.0
전체(2023년)		3,943	31,312	11,965	47,219
		8.4	66.3	25.3	100.0
연령	30세 미만	15.7	19.0	65.3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7.6	44.4	27.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2	81.8	12.9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0.5	88.4	11.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0.1	90.3	9.6	100.0
	70세 이상	-	88.1	11.9	100.0

〈표 V-9〉 향후 출산 계획 있을 시 희망 자녀 수

(단위: 천명, %,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평균(명)
2020년	빈도	1,467	1,099	149	30	1.5
	구성비	53.5	40.0	5.4	1.1	
2023년	빈도	2,139	1,702	96	6	1.49
	구성비	54.3	43.2	2.4	0.2	

제3절. 전반적인 가족 관계

2023년 신규 문항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은 4개 하위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81.9%)이며,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72.5%), '가족은 상당히 친하며'(71.0%), '각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75.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참조). 다만 4개 항목 중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이다.

〈표 V-10〉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빈도	1,121	7,412	38,687	47,219	3.95
	구성비	2.4	15.7	81.9	100.0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빈도	1,228	11,748	34,244	47,219	3.90
	구성비	2.6	24.9	72.5	100.0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빈도	1,761	11,949	33,509	47,219	3.86
	구성비	3.7	25.3	71.0	100.0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빈도	1,546	10,259	35,414	47,219	3.87
	구성비	3.3	21.7	75.0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성별에 따라서는 4개 항목 모두 여성의 동의 비율이 높은데 남성과 여성의 동의 비율에 차이는 거의 없다(〈표 V-11〉 참조).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어릴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V-12〉 참조).

〈표 V-11〉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남성	2.8	15.5	81.6	100.0	3.93
	여성	1.9	15.8	82.2	100.0	3.96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남성	2.8	25.7	71.6	100.0	3.89
	여성	2.4	24.1	73.5	100.0	3.92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남성	4.3	26.4	69.3	100.0	3.82
	여성	3.1	24.2	72.7	100.0	3.8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남성	3.8	22.1	74.1	100.0	3.85
	여성	2.8	21.3	75.9	100.0	3.8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V-12〉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20세 미만	0.5	12.7	86.7	100.0	4.04
	20세 이상~30세 미만	1.8	15.0	83.2	100.0	3.97
	30세 이상~40세 미만	1.1	15.0	83.9	100.0	3.99
	40세 이상~50세 미만	2.1	14.0	83.9	100.0	3.99
	50세 이상~60세 미만	3.0	16.4	80.6	100.0	3.92
	60세 이상~70세 미만	3.0	16.9	80.0	100.0	3.90
	70세 이상	4.1	18.6	77.3	100.0	3.87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20세 미만	1.9	21.7	76.4	100.0	3.97
	20세 이상~30세 미만	1.9	25.9	72.2	100.0	3.91
	30세 이상~40세 미만	1.6	22.2	76.2	100.0	3.98
	40세 이상~50세 미만	1.8	24.7	73.5	100.0	3.94
	50세 이상~60세 미만	3.0	25.8	71.2	100.0	3.88
	60세 이상~70세 미만	3.3	24.6	72.2	100.0	3.89
	70세 이상	4.6	28.0	67.5	100.0	3.7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20세 미만	1.6	22.1	76.3	100.0	3.95
	20세 이상~30세 미만	2.8	24.4	72.8	100.0	3.89
	30세 이상~40세 미만	1.9	20.8	77.3	100.0	3.98
	40세 이상~50세 미만	3.3	22.7	74.1	100.0	3.92
	50세 이상~60세 미만	4.5	25.8	69.7	100.0	3.81
	60세 이상~70세 미만	4.8	30.5	64.7	100.0	3.75
	70세 이상	6.3	29.5	64.1	100.0	3.7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20세 미만	2.7	21.6	75.7	100.0	3.89
	20세 이상~30세 미만	4.1	21.1	74.7	100.0	3.85
	30세 이상~40세 미만	2.3	20.3	77.4	100.0	3.94
	40세 이상~50세 미만	2.6	19.9	77.5	100.0	3.91
	50세 이상~60세 미만	3.1	22.2	74.7	100.0	3.86
	60세 이상~70세 미만	3.6	22.6	73.8	100.0	3.84
	70세 이상	4.5	24.6	70.9	100.0	3.7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와 미혼 집단의 동의 비율이 높아 가족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혼/별거나 사별인 경우는 동의 비율이 유배우와 미혼에 비해 낮은데, 이혼/별거인 경우에 가장 낮았다(〈표 V-13〉 참조).

〈표 V-13〉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미혼	2.6	18.3	79.1	100.0	3.9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0	12.6	86.4	100.0	4.02
	이혼 또는 별거	16.6	30.8	52.6	100.0	3.42
	사별	3.6	20.2	76.2	100.0	3.86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미혼	2.6	27.4	70.0	100.0	3.86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6	22.4	76.0	100.0	3.97
	이혼 또는 별거	13.7	35.8	50.5	100.0	3.46
	사별	3.9	27.2	68.9	100.0	3.81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미혼	4.2	27.3	68.6	100.0	3.81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0	23.0	74.9	100.0	3.94
	이혼 또는 별거	20.6	33.4	46.0	100.0	3.32
	사별	5.0	29.8	65.2	100.0	3.7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미혼	4.2	23.7	72.2	100.0	3.82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9	19.7	78.4	100.0	3.93
	이혼 또는 별거	14.0	30.8	55.1	100.0	3.49
	사별	3.8	24.0	72.2	100.0	3.8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별로 보면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아 가족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에 대해 초대졸 이상은 74.9%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67.5%로 가장 낮고 중졸이하는 68.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항목도 중졸 이하 71.3%, 초대졸 이상 77.6%로 6.3%p의 차이를 보인다(〈표 V-14〉 참조). 〈표 V-15〉는 가족소득별로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4개 항목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V-14〉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중졸 이하	3.8	15.9	80.3	100.0	3.91
	고등학교	2.6	17.2	80.3	100.0	3.91
	초대졸 이상	1.6	14.4	84.0	100.0	3.99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중졸 이하	4.1	25.5	70.4	100.0	3.84
	고등학교	2.9	26.3	70.7	100.0	3.87
	초대졸 이상	1.7	23.4	74.9	100.0	3.96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중졸 이하	5.3	26.1	68.6	100.0	3.79
	고등학교	4.1	28.4	67.5	100.0	3.80
	초대졸 이상	2.7	22.4	74.9	100.0	3.9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중졸 이하	4.1	24.6	71.3	100.0	3.81
	고등학교	4.0	22.2	73.8	100.0	3.83
	초대졸 이상	2.3	20.0	77.6	100.0	3.9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V-15〉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100만원 미만	14.9	22.2	62.9	100.0	3.54
	100~200만원 미만	6.0	23.1	71.0	100.0	3.78
	200~300만원 미만	6.4	23.1	70.5	100.0	3.75
	300~400만원 미만	4.3	21.2	74.5	100.0	3.83
	400~500만원 미만	2.3	16.9	80.8	100.0	3.93
	500만원 이상	0.7	11.9	87.4	100.0	4.05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100만원 미만	13.7	32.4	54.0	100.0	3.50
	100~200만원 미만	5.8	29.2	65.0	100.0	3.73
	200~300만원 미만	4.0	33.2	62.8	100.0	3.75
	300~400만원 미만	3.9	27.1	69.1	100.0	3.82
	400~500만원 미만	2.2	26.6	71.2	100.0	3.88
	500만원 이상	1.2	22.3	76.5	100.0	4.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100만원 미만	17.3	31.5	51.2	100.0	3.41
	100~200만원 미만	8.9	32.0	59.1	100.0	3.65
	200~300만원 미만	7.7	31.7	60.6	100.0	3.67
	300~400만원 미만	6.5	30.3	63.2	100.0	3.72
	400~500만원 미만	2.9	26.3	70.8	100.0	3.87
	500만원 이상	2.0	21.0	77.0	100.0	3.9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100만원 미만	10.0	33.1	56.9	100.0	3.53
	100~200만원 미만	6.1	25.6	68.3	100.0	3.74
	200~300만원 미만	6.1	28.2	65.7	100.0	3.70
	300~400만원 미만	5.1	23.1	71.8	100.0	3.81
	400~500만원 미만	3.4	22.9	73.7	100.0	3.86
	500만원 이상	1.3	18.2	80.4	100.0	3.98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VI

가족 관계(1) - 배우자와의 관계

제1절.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미, 의사소통 167

제2절. 배우자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역할·돌봄 분담 204

제3절.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239

본 장에서는 가족 관계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1)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미, 의사소통, 2) 배우자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가족 내) 역할·돌봄 분담, 3)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족 관계 중 배우자 관계는 조사 시점에서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는 경우에 응답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의사결정방식, 가사수행 분담 및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활동 분담 및 분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만 12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응답), 최근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 경험, 최근 1년간 헤어짐이나 이혼 고민 여부,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배우자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의 내용이 조사되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포함된 조사문항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의 문항을 간략히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Ⅵ-1〉과 같다.

〈표 Ⅵ-1〉 배우자와의 관계 관련 2020년과 2023년 조사문항 비교

영역	2023년 조사 문항	2020년과 비교
배우자 관계	18.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 비교 가능 문항 삭제 및 추가
	19. 배우자에 대한 인식	비교 불가(신규 문항)
	20.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비교 가능
	21.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교 가능 별도 문항으로 재배치
	22. 성평등한 의사결정 방식	부분 비교 가능(문항 추가) 추가 문항: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23. 가사수행과 가족생활	비교 가능 문항 삭제 및 문항 설명 추가
	24-1.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형태	비교 가능
	24-2. 돌봄 분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교 가능
	25.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 여부	비교 가능 응답자용 설명 추가
	25-1. 갈등 및 의견충돌의 주된 사유	비교 가능
	26. 이혼 고민 여부	비교 가능 문항 설명 추가
	27.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주된 해결 방식	비교 가능 응답자용 설명 추가
	28.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교 가능 응답자용 설명 추가

2020년과 2023년에 동일한 조사문항으로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응답률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2023년 1시간 이상: 47.5%, 2020년 1시간 이상: 41.5%)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5.2%)은 2020년('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46.9%)과 비교하여 높았다.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4.0%로 2020년의 10.3%보다 낮았다. 배우자와의 전반적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6.2%로 2020년의 57.0%보다 높았다.

2023년 「가족실태조사」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부부의 가사수행 중 가사노동은 여전히 '아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하다는 응답이 가사노동 31.2%, 자녀 양육과 교육 26.7%,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14.8%,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 14.0%로 나타나 2023년 조사에서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은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자녀 등하원/등하교,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등 영역에서 2020년, 2023년 모두 아내가 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3.7%, '보통' 28.6%,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7.8%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절.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미, 의사소통

1.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측정한 항목 중 2020년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2023년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79.0%, 83.1%로 2020년의 긍정 응답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Ⅳ-2〉 배우자와의 관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68.7	79.0	10.3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77.1	83.1	6.0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	44.7	-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	69.3	-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78.0	-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	68.6	-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믿는다' 83.1%,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79.0%,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78.0%,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한다' 69.3%,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68.6%,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44.7% 였다.

〈표 Ⅵ-3〉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빈도	1,546	10,259	35,414	47,219	3.90
	구성비	2.2	18.8	79.0	100.0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빈도	608	5,136	21,601	27,346	4.11
	구성비	1.3	15.5	83.1	100.0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빈도	368	4,248	22,730	27,346	3.29
	구성비	21.1	34.2	44.7	100.0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빈도	5,781	9,344	12,221	27,346	3.78
	구성비	2.8	27.9	69.3	100.0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빈도	776	7,628	18,942	27,346	3.96
	구성비	1.9	20.0	78.0	100.0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빈도	528	5,477	21,341	27,346	3.76
	구성비	3.1	28.4	68.6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 관계를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남성 80.4%, 여성 77.5%이었고, '배우자를 믿는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남성 84.8%, 여성 81.3%였다. 한편,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이 남성 19.9%, 여성 22.5%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Ⅵ-4〉 배우자와의 관계(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성	1.8	17.8	80.4	100.0	3.93
	여성	2.7	19.8	77.5	100.0	3.88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남성	1.1	14.1	84.8	100.0	4.14
	여성	1.6	17.1	81.3	100.0	4.07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남성	19.9	35.0	45.0	100.0	3.31
	여성	22.5	33.2	44.3	100.0	3.27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남성	2.5	27.4	70.2	100.0	3.80
	여성	3.2	28.5	68.3	100.0	3.77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남성	1.8	19.2	79.1	100.0	3.97
	여성	2.1	21.0	76.9	100.0	3.95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남성	2.7	28.1	69.2	100.0	3.77
	여성	3.5	28.7	67.8	100.0	3.74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30세 미만은 95.3%, 30대는 89.5%였던 반면 60대는 72.6%, 70대 이상은 72.1%로 나타났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30세 미만은 88.6%, 30대는 87.1%이었던 반면 60대는 80.1%, 50대는 80.9%로 40대 이하, 70대 이상 응답자에 비해 낮았다.

〈표 Ⅵ-5〉 배우자와의 관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30세 미만	0.5	4.2	95.3	100.0	4.29
	30세 이상~40세 미만	0.7	9.8	89.5	100.0	4.11
	40세 이상~50세 미만	1.5	15.7	82.8	100.0	3.94
	50세 이상~60세 미만	2.6	20.6	76.8	100.0	3.85
	60세 이상~70세 미만	3.1	24.3	72.6	100.0	3.80
	70세 이상	3.4	24.5	72.1	100.0	3.79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30세 미만	1.5	9.9	88.6	100.0	4.27
	30세 이상~40세 미만	0.6	12.3	87.1	100.0	4.23
	40세 이상~50세 미만	1.0	14.7	84.3	100.0	4.13
	50세 이상~60세 미만	1.4	17.7	80.9	100.0	4.05
	60세 이상~70세 미만	2.0	18.0	80.1	100.0	4.04
	70세 이상	1.7	13.4	84.8	100.0	4.11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30세 미만	7.7	19.8	72.5	100.0	3.78
	30세 이상~40세 미만	10.7	32.9	56.5	100.0	3.56
	40세 이상~50세 미만	17.5	35.8	46.6	100.0	3.36
	50세 이상~60세 미만	21.8	34.9	43.3	100.0	3.27
	60세 이상~70세 미만	25.8	34.3	39.8	100.0	3.17
	70세 이상	33.2	33.1	33.7	100.0	3.01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30세 미만	1.3	12.2	86.5	100.0	4.09
	30세 이상~40세 미만	1.4	20.6	78.0	100.0	3.93
	40세 이상~50세 미만	2.2	24.2	73.6	100.0	3.85
	50세 이상~60세 미만	2.9	30.8	66.3	100.0	3.74
	60세 이상~70세 미만	3.6	31.0	65.4	100.0	3.72
	70세 이상	4.5	34.8	60.6	100.0	3.64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30세 미만	0.8	12.3	87.0	100.0	4.18
	30세 이상~40세 미만	1.2	16.5	82.3	100.0	4.07
	40세 이상~50세 미만	1.2	17.6	81.2	100.0	4.02
	50세 이상~60세 미만	2.3	21.7	76.1	100.0	3.91
	60세 이상~70세 미만	2.6	22.4	75.0	100.0	3.90
	70세 이상	2.5	22.7	74.8	100.0	3.8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30세 미만	1.0	18.0	80.9	100.0	3.96
	30세 이상~40세 미만	2.0	21.9	76.1	100.0	3.87
	40세 이상~50세 미만	2.0	26.3	71.7	100.0	3.81
	50세 이상~60세 미만	3.3	30.5	66.2	100.0	3.72
	60세 이상~70세 미만	3.8	30.4	65.8	100.0	3.71
	70세 이상	4.8	33.6	61.6	100.0	3.65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교육수준별로 구분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대졸 이상 83.8%, 고등학교 75.7%, 중졸 이하 70.7%로 나타났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대졸 이상 74.7%, 고등학교 65.4%, 중졸 이하 60.1%로,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대졸 이상 73.3%, 고등학교 65.0%, 중졸 이하 61.4%로 나타났다.

〈표 Ⅵ-6〉 배우자와의 관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중졸 이하	4.0	25.3	70.7	100.0	3.76
	고등학교	2.7	21.7	75.7	100.0	3.84
	초대졸 이상	1.4	14.8	83.8	100.0	3.99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중졸 이하	2.1	14.0	83.9	100.0	4.10
	고등학교	1.5	17.3	81.2	100.0	4.05
	초대졸 이상	1.0	14.6	84.4	100.0	4.15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중졸 이하	35.1	32.1	32.8	100.0	2.98
	고등학교	24.4	33.7	41.9	100.0	3.22
	초대졸 이상	14.9	35.1	50.0	100.0	3.43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중졸 이하	4.8	35.1	60.1	100.0	3.63
	고등학교	3.1	31.5	65.4	100.0	3.72
	초대졸 이상	2.1	23.2	74.7	100.0	3.87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중졸 이하	3.2	21.7	75.2	100.0	3.89
	고등학교	2.2	22.3	75.6	100.0	3.90
	초대졸 이상	1.4	17.9	80.7	100.0	4.02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중졸 이하	5.3	33.3	61.4	100.0	3.65
	고등학교	3.5	31.5	65.0	100.0	3.70
	초대졸 이상	2.1	24.6	73.3	100.0	3.8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맞벌이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응답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맞벌이 47.0%, 비맞벌이 42.4%로 나타났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71.4%, 비맞벌이 67.2%로 나타났다.

〈표 Ⅵ-7〉 배우자와의 관계(맞벌이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맞벌이	1.8	17.6	80.5	100.0	3.92
	비맞벌이	2.6	19.9	77.5	100.0	3.88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맞벌이	1.2	15.7	83.0	100.0	4.10
	비맞벌이	1.5	15.3	83.2	100.0	4.11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맞벌이	19.2	33.8	47.0	100.0	3.34
	비맞벌이	23.0	34.5	42.4	100.0	3.24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맞벌이	2.2	26.3	71.4	100.0	3.82
	비맞벌이	3.4	29.4	67.2	100.0	3.75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맞벌이	1.8	19.1	79.1	100.0	3.97
	비맞벌이	2.1	20.9	77.0	100.0	3.95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맞벌이	2.5	27.1	70.4	100.0	3.78
	비맞벌이	3.6	29.6	66.7	100.0	3.7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가족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1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는 66.6%, 100~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68.8%였던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는 80.5%로 나타났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1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는 29.0%, 100~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32.3%였던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는 47.3%로 나타났다.

〈표 Ⅵ-8〉 배우자와의 관계(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100만원 미만	8.1	25.3	66.6	100.0	3.70
	100~200만원 미만	6.7	24.5	68.8	100.0	3.70
	200~300만원 미만	4.1	21.9	74.1	100.0	3.84
	300~400만원 미만	3.5	22.5	74.0	100.0	3.83
	400~500만원 미만	1.8	21.2	77.0	100.0	3.87
	500만원 이상	1.8	17.7	80.5	100.0	3.93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100만원 미만	4.5	18.5	77.0	100.0	3.91
	100~200만원 미만	2.3	17.4	80.3	100.0	4.06
	200~300만원 미만	2.2	15.6	82.3	100.0	4.10
	300~400만원 미만	1.8	16.8	81.3	100.0	4.06
	400~500만원 미만	1.2	17.5	81.4	100.0	4.07
	500만원 이상	1.2	15.5	83.3	100.0	4.12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100만원 미만	45.6	25.4	29.0	100.0	2.79
	100~200만원 미만	43.2	24.5	32.3	100.0	2.85
	200~300만원 미만	27.4	34.7	37.9	100.0	3.14
	300~400만원 미만	25.5	31.2	43.2	100.0	3.21
	400~500만원 미만	18.8	35.0	46.2	100.0	3.34
	500만원 이상	18.3	34.4	47.3	100.0	3.35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100만원 미만	6.2	42.1	51.7	100.0	3.50
	100~200만원 미만	7.0	32.1	60.9	100.0	3.62
	200~300만원 미만	5.0	32.2	62.8	100.0	3.69
	300~400만원 미만	3.3	29.0	67.7	100.0	3.76
	400~500만원 미만	2.6	31.0	66.4	100.0	3.75
	500만원 이상	2.5	25.2	72.3	100.0	3.83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00만원 미만	6.3	28.4	65.3	100.0	3.68
	100~200만원 미만	5.0	24.1	70.9	100.0	3.81
	200~300만원 미만	2.9	22.7	74.4	100.0	3.90
	300~400만원 미만	2.4	21.6	76.1	100.0	3.94
	400~500만원 미만	1.7	21.8	76.5	100.0	3.94
	500만원 이상	1.8	18.3	79.8	100.0	4.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100만원 미만	6.3	39.0	54.7	100.0	3.56
	100~200만원 미만	9.3	30.8	59.8	100.0	3.61
	200~300만원 미만	4.5	29.7	65.8	100.0	3.74
	300~400만원 미만	3.9	28.6	67.5	100.0	3.72
	400~500만원 미만	3.3	32.3	64.4	100.0	3.71
	500만원 이상	2.0	26.0	72.0	100.0	3.8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혼인기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혼인기간 5년 미만에서는 92.1%, 5년 이상~10년 미만 구간에서는 86.9%였던 반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구간에서는 74.4%로 나타났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혼인기간 5년 미만에서는 81.0%, 5년 이상~10년 미만 구간에서는 79.2%였던 반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구간에서는 65.1%로 나타났다.

〈표 Ⅵ-9〉 배우자와의 관계(혼인기간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5년 미만	0.4	7.4	92.1	100.0	4.16
	5년 이상~10년 미만	1.3	11.9	86.9	100.0	4.06
	10년 이상~15년 미만	1.1	14.2	84.7	100.0	3.99
	15년 이상~20년 미만	1.8	16.6	81.6	100.0	3.92
	20년 이상	2.9	22.7	74.4	100.0	3.82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5년 미만	0.9	13.3	85.8	100.0	4.19
	5년 이상~10년 미만	1.0	11.7	87.2	100.0	4.26
	10년 이상~15년 미만	0.7	14.4	84.9	100.0	4.15
	15년 이상~20년 미만	0.9	17.0	82.2	100.0	4.07
	20년 이상	1.6	16.5	81.9	100.0	4.07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5년 미만	6.4	31.3	62.4	100.0	3.67
	5년 이상~10년 미만	13.4	34.9	51.7	100.0	3.47
	10년 이상~15년 미만	17.6	33.8	48.6	100.0	3.39
	15년 이상~20년 미만	19.7	36.4	43.9	100.0	3.29
	20년 이상	25.4	34.3	40.3	100.0	3.18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5년 미만	1.3	17.7	81.0	100.0	3.97
	5년 이상~10년 미만	2.0	18.8	79.2	100.0	3.94
	10년 이상~15년 미만	1.7	24.6	73.6	100.0	3.86
	15년 이상~20년 미만	2.6	27.4	69.9	100.0	3.78
	20년 이상	3.4	31.5	65.1	100.0	3.72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5년 미만	1.1	17.0	81.9	100.0	4.05
	5년 이상~10년 미만	1.4	14.3	84.3	100.0	4.11
	10년 이상~15년 미만	1.5	16.6	81.8	100.0	4.03
	15년 이상~20년 미만	1.4	18.9	79.7	100.0	3.97
	20년 이상	2.3	22.1	75.6	100.0	3.91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5년 미만	1.3	19.7	79.0	100.0	3.92
	5년 이상~10년 미만	2.5	21.6	75.9	100.0	3.88
	10년 이상~15년 미만	2.3	27.3	70.4	100.0	3.79
	15년 이상~20년 미만	2.3	27.7	70.0	100.0	3.77
	20년 이상	3.7	31.0	65.3	100.0	3.7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대체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무자녀 89.6%, 1명 79.4%였던 반면 3명 이상 72.4%로 나타났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무자녀 78.8%, 1명 69.5%였던 반면 3명 이상 65.4%로 나타났다.

〈표 Ⅵ-10〉 배우자와의 관계(자녀수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 없음	1.0	9.4	89.6	100.0	4.14
	1명	2.1	18.4	79.4	100.0	3.91
	2명	2.2	19.0	78.8	100.0	3.88
	3명 이상	3.3	24.3	72.4	100.0	3.82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자녀 없음	1.1	14.3	84.6	100.0	4.16
	1명	1.4	17.3	81.2	100.0	4.07
	2명	1.3	15.7	83.1	100.0	4.10
	3명 이상	1.6	12.7	85.7	100.0	4.15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자녀 없음	8.0	28.3	63.8	100.0	3.67
	1명	17.0	36.6	46.4	100.0	3.36
	2명	22.5	34.3	43.2	100.0	3.25
	3명 이상	31.8	33.2	35.0	100.0	3.05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자녀 없음	1.6	19.6	78.8	100.0	3.95
	1명	2.9	27.7	69.5	100.0	3.79
	2명	2.8	28.7	68.6	100.0	3.77
	3명 이상	3.8	30.8	65.4	100.0	3.72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자녀 없음	1.6	19.2	79.2	100.0	4.01
	1명	1.7	20.7	77.6	100.0	3.95
	2명	1.9	19.7	78.4	100.0	3.96
	3명 이상	2.7	20.4	76.9	100.0	3.95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자녀 없음	1.7	21.6	76.7	100.0	3.90
	1명	2.8	28.2	69.0	100.0	3.75
	2명	3.0	29.1	67.9	100.0	3.75
	3명 이상	4.6	30.2	65.2	100.0	3.7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한편, 가구대표와 가구대표의 배우자가 동시에 응답한 경우를 추출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해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남편 응답자의 긍정 응답이 아내 응답자에 비해 소폭 높았다.

〈표 Ⅵ-11〉 배우자와의 관계(부부 간 비교)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편	1.5	17.4	81.1	100.0	3.94
	아내	2.5	19.0	78.5	100.0	3.89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남편	1.0	13.8	85.2	100.0	4.15
	아내	1.5	16.8	81.7	100.0	4.08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남편	19.6	35.1	45.3	100.0	3.32
	아내	22.0	32.8	45.2	100.0	3.28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남편	2.3	27.0	70.7	100.0	3.81
	아내	3.1	27.7	69.2	100.0	3.78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남편	1.7	18.9	79.4	100.0	3.97
	아내	1.9	20.6	77.5	100.0	3.96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남편	2.5	27.8	69.7	100.0	3.78
	아내	3.4	27.8	68.8	100.0	3.7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한편,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고 느낀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도가 높았다.

〈표 Ⅵ-12〉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점)

구분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연령별	남편	30세 미만	4.41	4.35	3.78	4.05	4.21	4.03
		30세 이상~40세 미만	4.12	4.26	3.61	3.94	4.06	3.88
		40세 이상~50세 미만	4.00	4.19	3.40	3.89	4.04	3.85
		50세 이상~60세 미만	3.90	4.10	3.28	3.76	3.91	3.73
		60세 이상~70세 미만	3.84	4.08	3.22	3.74	3.92	3.72
		70세 이상	3.82	4.17	3.07	3.69	3.97	3.70
		연령평균 F 검증	44.365(5)***	15.568(5)***	49.678(5)***	23.444(5)***	14.722(5)***	16.739(5)***
	아내	30세 미만	4.23	4.26	3.79	4.11	4.17	3.89
		30세 이상~40세 미만	4.12	4.22	3.52	3.93	4.09	3.88
		40세 이상~50세 미만	3.90	4.08	3.34	3.82	3.99	3.79
		50세 이상~60세 미만	3.83	4.03	3.28	3.74	3.92	3.72
		60세 이상~70세 미만	3.79	4.02	3.15	3.71	3.90	3.73
		70세 이상	3.75	4.08	2.93	3.60	3.84	3.61
		연령평균 F 검증	53.311(5)***	14.609(5)***	53.932(5)***	32.035(5)***	17.601(5)***	15.982(5)***
교육 수준별	남편	중졸이하	3.80	4.17	2.97	3.67	3.95	3.68
		고졸	3.87	4.09	3.24	3.74	3.92	3.70
		초대졸이상	4.01	4.19	3.44	3.88	4.01	3.84
		학력평균 F 검증	114826.049(2)***	34440.54(2)***	212866.342(2)***	104409.234(2)***	34037.184(2)***	83119.15(2)***
	아내	중졸이하	3.77	4.09	2.99	3.63	3.89	3.66
		고졸	3.83	4.03	3.23	3.72	3.90	3.71
		초대졸이상	3.99	4.13	3.43	3.88	4.04	3.84
		학력평균 F 검증	132244.173(2)***	23463.848(2)***	161129.861(2)***	125836.096(2)***	68071.907(2)***	78862.509(2)***
소득 수준별	남편	100만원 미만	3.74	4.03	2.81	3.52	3.85	3.71
		100~200만원 미만	3.85	4.19	3.07	3.82	3.91	3.77
		200~300만원 미만	4.04	4.26	3.27	3.89	4.15	3.93
		300~400만원 미만	3.94	4.24	3.31	3.84	4.17	3.81
		400~500만원 미만	4.07	4.45	3.17	4.03	4.35	3.81
		500만원 이상	3.87	4.27	3.35	3.83	4.08	3.85
		소득수준 F 검증	1.913(5)	1.705(5)	3.26(5)**	2.456(5)*	2.628(5)*	0.604(5)

구분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아내	100만원 미만	4.07	4.15	3.35	3.81	3.97	3.77
		100~200만원 미만	3.60	4.02	2.77	3.48	3.75	3.48
		200~300만원 미만	3.85	4.16	3.18	3.67	3.88	3.77
		300~400만원 미만	3.87	4.05	3.21	3.83	3.97	3.73
		400~500만원 미만	3.95	4.16	3.38	3.78	4.05	3.77
		500만원 이상	3.97	4.10	3.34	3.83	4.02	3.82
		소득수준 F 검증	5.979(5)***	1.066(5)	11.047(5)***	4.21(5)***	3.032(5)**	2.194(5)

주: 1)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2) * p<.05, ** p<.01, *** p<.001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항목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도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70대 이상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긍정 응답 비율이 40-60대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 활동이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30대 이하 응답자들 가운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져 70대 이상 남편, 아내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항목은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13〉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편	30세 미만	0.9	5.4	93.7	100.0	4.41
		30세 이상~40세 미만	0.9	8.9	90.2	100.0	4.12
		40세 이상~50세 미만	0.9	13.2	85.9	100.0	4.00
		50세 이상~60세 미만	1.4	18.1	80.5	100.0	3.90
		60세 이상~70세 미만	2.1	23.9	74.1	100.0	3.84
		70세 이상	2.4	22.6	75.0	100.0	3.82
	아내	30세 미만	0.4	4.2	95.4	100.0	4.23
		30세 이상~40세 미만	0.4	10.0	89.6	100.0	4.12
		40세 이상~50세 미만	2.1	17.2	80.8	100.0	3.90
		50세 이상~60세 미만	2.9	21.5	75.6	100.0	3.83
		60세 이상~70세 미만	3.5	23.9	72.7	100.0	3.79
		70세 이상	4.9	26.0	69.2	100.0	3.75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남편	30세 미만	3.3	9.1	87.6	100.0	4.35
		30세 이상~40세 미만	0.5	10.7	88.8	100.0	4.26
		40세 이상~50세 미만	0.8	12.2	86.9	100.0	4.19
		50세 이상~60세 미만	0.6	16.5	82.9	100.0	4.10
		60세 이상~70세 미만	1.4	16.3	82.3	100.0	4.08
		70세 이상	1.5	11.4	87.1	100.0	4.17
	아내	30세 미만	0.7	9.7	89.6	100.0	4.26
		30세 이상~40세 미만	0.6	13.5	85.9	100.0	4.22
		40세 이상~50세 미만	1.1	17.3	81.6	100.0	4.08
		50세 이상~60세 미만	1.8	17.9	80.2	100.0	4.03
		60세 이상~70세 미만	1.9	19.3	78.7	100.0	4.02
		70세 이상	1.9	15.4	82.7	100.0	4.08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남편	30세 미만	4.6	22.0	73.4	100.0	3.78
		30세 이상~40세 미만	9.8	31.5	58.6	100.0	3.61
		40세 이상~50세 미만	15.8	36.4	47.8	100.0	3.40
		50세 이상~60세 미만	20.5	36.5	43.1	100.0	3.28
		60세 이상~70세 미만	23.0	35.3	41.7	100.0	3.22
		70세 이상	30.3	35.3	34.4	100.0	3.07
	아내	30세 미만	8.3	20.5	71.2	100.0	3.79
		30세 이상~40세 미만	11.4	34.1	54.6	100.0	3.52
		40세 이상~50세 미만	18.8	34.5	46.7	100.0	3.34
		50세 이상~60세 미만	22.6	32.8	44.7	100.0	3.28
		60세 이상~70세 미만	27.5	32.7	39.8	100.0	3.15
		70세 이상	37.9	30.2	31.9	100.0	2.9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남편	30세 미만	2.9	14.4	82.8	100.0	4.05
		30세 이상~40세 미만	1.3	19.6	79.1	100.0	3.94
		40세 이상~50세 미만	1.7	22.2	76.1	100.0	3.89
		50세 이상~60세 미만	2.0	29.4	68.5	100.0	3.76
		60세 이상~70세 미만	3.0	31.0	66.0	100.0	3.74
		70세 이상	3.6	33.0	63.3	100.0	3.69
	아내	30세 미만	0.6	12.4	86.9	100.0	4.11
		30세 이상~40세 미만	1.2	20.7	78.0	100.0	3.93
		40세 이상~50세 미만	2.5	25.4	72.1	100.0	3.82
		50세 이상~60세 미만	3.1	31.1	65.8	100.0	3.74
		60세 이상~70세 미만	3.8	30.6	65.6	100.0	3.71
		70세 이상	6.5	34.3	59.2	100.0	3.60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남편	30세 미만	1.8	8.0	90.2	100.0	4.21
		30세 이상~40세 미만	1.3	16.4	82.3	100.0	4.06
		40세 이상~50세 미만	0.9	16.7	82.4	100.0	4.04
		50세 이상~60세 미만	2.2	20.9	76.9	100.0	3.91
		60세 이상~70세 미만	2.0	21.2	76.8	100.0	3.92
		70세 이상	1.9	18.7	79.4	100.0	3.97
	아내	30세 미만	0.3	13.1	86.6	100.0	4.17
		30세 이상~40세 미만	1.1	16.0	82.9	100.0	4.09
		40세 이상~50세 미만	1.5	18.9	79.6	100.0	3.99
		50세 이상~60세 미만	2.3	21.6	76.1	100.0	3.92
		60세 이상~70세 미만	2.3	23.2	74.5	100.0	3.90
		70세 이상	2.9	26.4	70.7	100.0	3.84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남편	30세 미만	-	17.5	82.5	100.0	4.03
		30세 이상~40세 미만	2.6	20.7	76.8	100.0	3.88
		40세 이상~50세 미만	1.6	23.9	74.5	100.0	3.85
		50세 이상~60세 미만	3.0	29.8	67.1	100.0	3.73
		60세 이상~70세 미만	2.7	31.7	65.6	100.0	3.72
		70세 이상	3.2	32.4	64.4	100.0	3.70
	아내	30세 미만	1.8	17.5	80.7	100.0	3.89
		30세 이상~40세 미만	1.6	21.6	76.8	100.0	3.88
		40세 이상~50세 미만	2.4	27.8	69.8	100.0	3.79
		50세 이상~60세 미만	3.5	29.6	66.9	100.0	3.72
		60세 이상~70세 미만	4.6	28.7	66.6	100.0	3.73
		70세 이상	6.2	34.0	59.8	100.0	3.6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 활동이 있다',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14〉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편	중졸이하	2.9	24.1	73.0	100.0	3.80
		고졸	1.6	20.5	77.9	100.0	3.87
		초대졸 이상	1.2	14.0	84.8	100.0	4.01
	아내	중졸이하	4.1	25.5	70.4	100.0	3.77
		고졸	2.9	21.4	75.7	100.0	3.83
		초대졸 이상	1.6	14.6	83.8	100.0	3.99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남편	중졸이하	1.3	11.4	87.3	100.0	4.17
		고졸	1.1	15.8	83.1	100.0	4.09
		초대졸 이상	0.8	13.1	86.1	100.0	4.19
	아내	중졸이하	2.4	14.5	83.1	100.0	4.09
		고졸	1.6	18.6	79.8	100.0	4.03
		초대졸 이상	1.1	15.9	83.0	100.0	4.13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남편	중졸이하	35.2	32.9	32.0	100.0	2.97
		고졸	22.6	35.9	41.5	100.0	3.24
		초대졸 이상	14.4	35.2	50.4	100.0	3.44
	아내	중졸이하	35.5	30.7	33.7	100.0	2.99
		고졸	24.6	32.2	43.2	100.0	3.23
		초대졸 이상	15.1	34.0	50.9	100.0	3.43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남편	중졸이하	3.7	34.6	61.7	100.0	3.67
		고졸	2.5	31.1	66.4	100.0	3.74
		초대졸 이상	1.8	22.9	75.3	100.0	3.88
	아내	중졸이하	5.5	33.9	60.6	100.0	3.63
		고졸	3.5	31.0	65.5	100.0	3.72
		초대졸 이상	1.9	22.5	75.6	100.0	3.8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남편	중졸이하	2.4	18.9	78.7	100.0	3.95
		고졸	1.8	21.1	77.0	100.0	3.92
		초대졸 이상	1.5	17.5	81.1	100.0	4.01
	아내	중졸이하	3.0	21.6	75.4	100.0	3.89
		고졸	2.1	23.2	74.7	100.0	3.90
		초대졸 이상	1.4	17.8	80.9	100.0	4.04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남편	중졸이하	4.2	33.1	62.7	100.0	3.68
		고졸	2.7	31.9	65.4	100.0	3.70
		초대졸 이상	2.1	24.1	73.8	100.0	3.84
	아내	중졸이하	5.6	32.0	62.4	100.0	3.66
		고졸	3.9	30.5	65.7	100.0	3.71
		초대졸 이상	2.2	23.9	74.0	100.0	3.84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가족소득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족소득 200만원 미만 아내 응답자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족소득 '100~200만원 미만' 아내 응답자 가운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15〉 부부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편	100만원 미만	3.0	28.0	69.0	100.0	3.74
		100~200만원 미만	3.1	17.2	79.7	100.0	3.85
		200~300만원 미만	-	11.7	88.3	100.0	4.04
		300~400만원 미만	-	17.3	82.7	100.0	3.94
		400~500만원 미만	-	10.8	89.2	100.0	4.07
		500만원 이상	4.3	15.8	79.9	100.0	3.8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아내	100만원 미만	0.9	15.7	83.3	100.0	4.07
		100~200만원 미만	9.8	27.8	62.4	100.0	3.60
		200~300만원 미만	4.0	21.3	74.7	100.0	3.85
		300~400만원 미만	4.1	20.3	75.7	100.0	3.87
		400~500만원 미만	1.6	15.7	82.7	100.0	3.95
		500만원 이상	1.5	15.5	83.1	100.0	3.97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남편	100만원 미만	-	11.8	88.2	100.0	4.03
		100~200만원 미만	-	11.6	88.4	100.0	4.19
		200~300만원 미만	0.7	11.4	87.9	100.0	4.26
		300~400만원 미만	2.2	10.3	87.4	100.0	4.24
		400~500만원 미만	-	3.5	96.5	100.0	4.45
		500만원 이상	-	6.6	93.4	100.0	4.27
	아내	100만원 미만	-	17.6	82.4	100.0	4.15
		100~200만원 미만	3.0	21.0	76.1	100.0	4.02
		200~300만원 미만	1.3	11.8	86.9	100.0	4.16
		300~400만원 미만	1.6	18.4	80.0	100.0	4.05
		400~500만원 미만	1.1	16.2	82.7	100.0	4.16
		500만원 이상	1.2	16.4	82.4	100.0	4.10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남편	100만원 미만	41.6	36.5	21.9	100.0	2.81
		100~200만원 미만	35.3	28.1	36.6	100.0	3.07
		200~300만원 미만	19.8	37.1	43.2	100.0	3.27
		300~400만원 미만	19.3	34.3	46.4	100.0	3.31
		400~500만원 미만	34.2	23.6	42.1	100.0	3.17
		500만원 이상	20.1	34.4	45.5	100.0	3.35
	아내	100만원 미만	30.4	11.6	58.0	100.0	3.35
		100~200만원 미만	48.2	19.3	32.4	100.0	2.77
		200~300만원 미만	24.3	37.9	37.8	100.0	3.18
		300~400만원 미만	27.3	29.6	43.1	100.0	3.21
		400~500만원 미만	17.0	34.6	48.5	100.0	3.38
		500만원 이상	19.8	32.8	47.4	100.0	3.3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남편	100만원 미만	3.2	45.6	51.2	100.0	3.52
		100~200만원 미만	0.7	24.0	75.2	100.0	3.82
		200~300만원 미만	1.3	26.1	72.6	100.0	3.89
		300~400만원 미만	-	29.7	70.3	100.0	3.84
		400~500만원 미만	-	14.7	85.3	100.0	4.03
		500만원 이상	4.9	19.7	75.4	100.0	3.83
	아내	100만원 미만	3.4	28.8	67.8	100.0	3.81
		100~200만원 미만	9.7	41.6	48.7	100.0	3.48
		200~300만원 미만	5.8	32.3	61.8	100.0	3.67
		300~400만원 미만	3.6	23.9	72.5	100.0	3.83
		400~500만원 미만	2.4	29.0	68.6	100.0	3.78
		500만원 이상	2.5	24.1	73.3	100.0	3.83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남편	100만원 미만	-	22.7	77.3	100.0	3.85
		100~200만원 미만	2.3	21.9	75.8	100.0	3.91
		200~300만원 미만	-	12.9	87.1	100.0	4.15
		300~400만원 미만	-	13.5	86.5	100.0	4.17
		400~500만원 미만	-	6.9	93.1	100.0	4.35
		500만원 이상	2.8	2.9	94.3	100.0	4.08
	아내	100만원 미만	-	20.2	79.8	100.0	3.97
		100~200만원 미만	3.3	29.7	67.0	100.0	3.75
		200~300만원 미만	1.4	25.7	72.9	100.0	3.88
		300~400만원 미만	2.9	18.1	79.1	100.0	3.97
		400~500만원 미만	0.4	19.4	80.2	100.0	4.05
		500만원 이상	1.9	18.7	79.4	100.0	4.02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남편	100만원 미만	-	38.4	61.6	100.0	3.71
		100~200만원 미만	2.5	27.3	70.2	100.0	3.77
		200~300만원 미만	1.8	26.6	71.6	100.0	3.93
		300~400만원 미만	1.2	27.8	71.0	100.0	3.81
		400~500만원 미만	-	30.8	69.2	100.0	3.81
		500만원 이상	2.0	24.4	73.6	100.0	3.8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아내	100만원 미만	3.0	28.7	68.3	100.0	3.77
		100~200만원 미만	14.4	30.3	55.2	100.0	3.48
		200~300만원 미만	4.7	25.2	70.1	100.0	3.77
		300~400만원 미만	4.9	27.3	67.8	100.0	3.73
		400~500만원 미만	2.4	30.1	67.5	100.0	3.77
		500만원 이상	1.9	25.5	72.5	100.0	3.8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79.0%,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78.2%,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79.7%,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79.1%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매우 낮았다.

〈표 Ⅵ-16〉 배우자에 대한 인식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빈도	505	5,233	21,608	27,346	3.90
	구성비	1.8	19.1	79.0	100.0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빈도	445	5,504	21,397	27,346	4.03
	구성비	1.6	20.1	78.2	100.0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빈도	642	4,908	21,796	27,346	4.04
	구성비	2.3	17.9	79.7	100.0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빈도	548	5,178	21,620	27,346	4.01
	구성비	2.0	18.9	79.1	100.0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빈도	18,405	4,308	4,633	27,346	2.17
	구성비	67.3	15.8	16.9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성별 응답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Ⅵ-17〉 배우자에 대한 인식(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남성	1.4	18.1	80.5	100.0	3.92
	여성	2.4	20.2	77.4	100.0	3.88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남성	1.6	20.1	78.3	100.0	4.03
	여성	1.7	20.1	78.2	100.0	4.02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남성	2.4	16.8	80.8	100.0	4.05
	여성	2.3	19.3	78.5	100.0	4.02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남성	1.9	18.5	79.6	100.0	4.02
	여성	2.1	19.5	78.4	100.0	4.00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남성	68.0	15.3	16.6	100.0	2.15
	여성	66.5	16.2	17.3	100.0	2.2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령대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30세 미만은 91.7%, 30대는 85.4%였던 반면 60대는 75.5%, 70대는 73.5%로 훨씬 낮았다. 또한,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18〉 배우자에 대한 인식(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30세 미만	0.4	7.9	91.7	100.0	4.11
	30세 이상~40세 미만	0.6	14.0	85.4	100.0	4.02
	40세 이상~50세 미만	1.2	17.2	81.6	100.0	3.95
	50세 이상~60세 미만	2.4	20.0	77.6	100.0	3.85
	60세 이상~70세 미만	2.3	22.2	75.5	100.0	3.85
	70세 이상	2.9	23.6	73.5	100.0	3.82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30세 미만	0.7	15.8	83.5	100.0	4.14
	30세 이상~40세 미만	0.9	18.6	80.5	100.0	4.09
	40세 이상~50세 미만	1.2	19.8	79.0	100.0	4.05
	50세 이상~60세 미만	1.8	22.3	76.0	100.0	3.98
	60세 이상~70세 미만	2.3	21.3	76.4	100.0	3.99
	70세 이상	2.0	16.9	81.0	100.0	4.05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30세 미만	3.0	9.8	87.2	100.0	4.23
	30세 이상~40세 미만	1.7	16.2	82.1	100.0	4.11
	40세 이상~50세 미만	2.0	16.8	81.2	100.0	4.08
	50세 이상~60세 미만	2.3	20.2	77.5	100.0	3.99
	60세 이상~70세 미만	2.8	18.7	78.5	100.0	4.00
	70세 이상	3.1	17.5	79.4	100.0	4.02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30세 미만	1.8	11.2	87.0	100.0	4.21
	30세 이상~40세 미만	1.3	18.5	80.2	100.0	4.07
	40세 이상~50세 미만	1.7	18.6	79.7	100.0	4.02
	50세 이상~60세 미만	2.5	20.2	77.3	100.0	3.95
	60세 이상~70세 미만	2.7	19.8	77.5	100.0	3.98
	70세 이상	1.3	17.2	81.5	100.0	4.08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30세 미만	72.4	7.9	19.6	100.0	2.03
	30세 이상~40세 미만	69.1	13.9	17.0	100.0	2.12
	40세 이상~50세 미만	68.8	14.8	16.4	100.0	2.16
	50세 이상~60세 미만	65.8	16.2	18.0	100.0	2.22
	60세 이상~70세 미만	65.4	17.4	17.2	100.0	2.21
	70세 이상	68.0	17.0	14.9	100.0	2.1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교육수준별로 구분해보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초대졸 이상 83.3%, 고등학교 75.0%, 중졸 이하 74.7%로 나타났다.

〈표 Ⅵ-19〉 배우자에 대한 인식(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중졸 이하	3.4	21.8	74.7	100.0	3.82
	고등학교	2.2	22.8	75.0	100.0	3.84
	초대졸 이상	1.2	15.5	83.3	100.0	3.97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중졸 이하	2.6	16.9	80.5	100.0	4.05
	고등학교	2.0	21.7	76.3	100.0	3.98
	초대졸 이상	1.1	19.8	79.1	100.0	4.06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중졸 이하	2.9	17.1	80.0	100.0	4.03
	고등학교	3.0	19.4	77.6	100.0	3.98
	초대졸 이상	1.7	17.1	81.2	100.0	4.08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중졸 이하	2.3	16.3	81.4	100.0	4.07
	고등학교	2.0	19.8	78.2	100.0	3.98
	초대졸 이상	1.9	19.0	79.1	100.0	4.02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중졸 이하	69.7	15.2	15.1	100.0	2.10
	고등학교	65.6	17.4	16.9	100.0	2.20
	초대졸 이상	68.0	14.6	17.5	100.0	2.17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맞벌이 여부별로 구분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20〉 배우자에 대한 인식(맞벌이여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맞벌이	1.7	18.4	79.8	100.0	3.91
	비맞벌이	2.0	19.8	78.2	100.0	3.90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맞벌이	1.4	20.4	78.2	100.0	4.04
	비맞벌이	1.8	19.8	78.3	100.0	4.02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맞벌이	2.7	17.7	79.6	100.0	4.04
	비맞벌이	2.0	18.2	79.8	100.0	4.04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맞벌이	2.1	19.2	78.7	100.0	3.99
	비맞벌이	1.9	18.7	79.4	100.0	4.03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맞벌이	65.9	16.0	18.1	100.0	2.21
	비맞벌이	68.7	15.5	15.8	100.0	2.14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가족소득별로 구분해보면 일부 항목(예: 정서적 지지자, 자녀 양육 동반자)에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찾기는 어려웠다.

〈표 Ⅵ-21〉 배우자에 대한 인식(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100만원 미만	10.9	17.4	71.7	100.0	3.72
	100~200만원 미만	6.9	20.1	72.9	100.0	3.79
	200~300만원 미만	4.0	20.7	75.3	100.0	3.85
	300~400만원 미만	3.0	22.9	74.1	100.0	3.82
	400~500만원 미만	1.2	20.1	78.7	100.0	3.89
	500만원 이상	1.5	19.5	78.9	100.0	3.91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100만원 미만	7.2	16.2	76.6	100.0	3.87
	100~200만원 미만	3.4	17.4	79.2	100.0	4.01
	200~300만원 미만	3.4	21.6	75.0	100.0	3.98
	300~400만원 미만	2.3	20.4	77.3	100.0	4.0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400~500만원 미만	1.4	21.8	76.7	100.0	3.99
	500만원 이상	1.0	18.7	80.2	100.0	4.07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100만원 미만	5.4	19.1	75.5	100.0	3.85
	100~200만원 미만	3.5	19.8	76.8	100.0	3.98
	200~300만원 미만	3.1	20.1	76.8	100.0	4.01
	300~400만원 미만	3.7	17.7	78.6	100.0	3.99
	400~500만원 미만	1.9	18.4	79.7	100.0	4.04
	500만원 이상	2.0	18.7	79.3	100.0	4.04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100만원 미만	7.2	12.1	80.7	100.0	3.92
	100~200만원 미만	3.6	16.3	80.1	100.0	4.02
	200~300만원 미만	2.3	19.0	78.6	100.0	4.06
	300~400만원 미만	2.6	20.7	76.6	100.0	3.97
	400~500만원 미만	2.1	19.6	78.3	100.0	3.98
	500만원 이상	1.7	18.7	79.6	100.0	4.02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100만원 미만	65.3	23.6	11.1	100.0	2.16
	100~200만원 미만	66.0	15.5	18.5	100.0	2.22
	200~300만원 미만	61.9	19.5	18.7	100.0	2.26
	300~400만원 미만	67.1	15.4	17.5	100.0	2.19
	400~500만원 미만	67.5	16.6	15.9	100.0	2.17
	500만원 이상	67.5	15.6	16.9	100.0	2.18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혼인기간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자라는 응답은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양육 동반자, 노년기 돌봄 동반자 등 돌봄을 함께 하는 존재라는 응답은 혼인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응답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22〉 배우자에 대한 인식(혼인기간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5년 미만	0.5	13.2	86.3	100.0	4.03
	5년 이상~10년 미만	1.0	13.7	85.3	100.0	4.02
	10년 이상~15년 미만	0.8	16.3	82.8	100.0	3.98
	15년 이상~20년 미만	0.9	16.3	82.8	100.0	3.93
	20년 이상	2.5	21.8	75.7	100.0	3.85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5년 미만	0.7	20.1	79.1	100.0	4.05
	5년 이상~10년 미만	1.5	16.4	82.2	100.0	4.14
	10년 이상~15년 미만	1.7	19.9	78.5	100.0	4.05
	15년 이상~20년 미만	1.0	21.1	77.9	100.0	4.02
	20년 이상	1.9	20.6	77.5	100.0	4.00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5년 미만	3.1	17.6	79.3	100.0	4.03
	5년 이상~10년 미만	1.9	15.7	82.5	100.0	4.14
	10년 이상~15년 미만	2.3	15.5	82.2	100.0	4.10
	15년 이상~20년 미만	1.8	16.7	81.5	100.0	4.06
	20년 이상	2.4	18.9	78.7	100.0	4.01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5년 미만	1.5	19.6	78.8	100.0	4.04
	5년 이상~10년 미만	1.8	15.6	82.5	100.0	4.11
	10년 이상~15년 미만	1.8	18.0	80.2	100.0	4.05
	15년 이상~20년 미만	1.5	18.0	80.6	100.0	3.99
	20년 이상	2.2	19.6	78.2	100.0	3.99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5년 미만	67.9	13.8	18.3	100.0	2.16
	5년 이상~10년 미만	72.0	11.2	16.8	100.0	2.06
	10년 이상~15년 미만	69.4	15.5	15.2	100.0	2.12
	15년 이상~20년 미만	68.7	14.3	16.9	100.0	2.19
	20년 이상	66.0	17.0	17.0	100.0	2.2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자라는 응답은 무자녀 응답자가, 자녀양육 동반자, 노년기 돌봄 돌봄자 등 돌봄을 함께 하는 존재라는 응답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23〉 배우자에 대한 인식(자녀수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자녀 없음	0.7	14.6	84.7	100.0	4.01
	1명	1.9	18.8	79.3	100.0	3.90
	2명	1.8	19.6	78.6	100.0	3.89
	3명 이상	2.5	21.0	76.5	100.0	3.88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자녀 없음	1.1	20.8	78.1	100.0	4.03
	1명	1.7	22.0	76.3	100.0	3.99
	2명	1.7	20.5	77.8	100.0	4.02
	3명 이상	1.6	15.1	83.3	100.0	4.12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자녀 없음	4.7	23.5	71.7	100.0	3.86
	1명	2.3	20.2	77.5	100.0	4.01
	2명	1.9	16.7	81.3	100.0	4.07
	3명 이상	2.4	14.6	83.0	100.0	4.10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자녀 없음	2.4	20.5	77.1	100.0	4.00
	1명	2.3	21.2	76.5	100.0	3.95
	2명	1.9	18.9	79.2	100.0	4.01
	3명 이상	1.4	14.2	84.4	100.0	4.12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자녀 없음	65.2	14.9	19.9	100.0	2.22
	1명	67.4	16.1	16.5	100.0	2.20
	2명	66.8	15.7	17.5	100.0	2.18
	3명 이상	70.0	16.1	14.0	100.0	2.07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한편, 가구대표와 가구대표의 배우자가 동시에 응답한 경우를 추출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주요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는 항목에 대해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남편 응답자의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아내 응답자에 비해 소폭 높았고, 다른 항목들은 남편과 아내 응답이 거의 유사했다. 한편,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Ⅵ-24〉 배우자의 의미(부부 간 비교)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남편	1.0	18.1	80.8	100.0	3.93
	아내	2.2	19.3	78.5	100.0	3.89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1.5	20.0	78.6	100.0	4.04
	아내	1.5	19.8	78.8	100.0	4.04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2.3	16.5	81.2	100.0	4.06
	아내	2.1	18.7	79.1	100.0	4.04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남편	1.7	18.3	79.9	100.0	4.03
	아내	1.9	19.2	78.9	100.0	4.01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남편	68.1	15.1	16.8	100.0	2.15
	아내	66.4	16.1	17.5	100.0	2.2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한편,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30세 미만 응답자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Ⅵ-25〉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

(단위: 점)

구분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연령별	남편	30세 미만	4.12	4.09	4.08	4.21	2.02
		30세 이상~40세 미만	4.04	4.08	4.16	4.08	2.10
		40세 이상~50세 미만	3.98	4.07	4.09	4.05	2.13
		50세 이상~60세 미만	3.89	3.99	4.00	3.94	2.19
		60세 이상~70세 미만	3.89	4.01	4.03	4.00	2.18
		70세 이상	3.86	4.08	4.06	4.12	2.11
		연령평균 F 검증	12.922(5)***	6.605(5)***	6.44(5)***	16.241(5)***	4.402(5)***
	아내	30세 미만	4.11	4.17	4.32	4.20	2.06
		30세 이상~40세 미만	4.02	4.12	4.08	4.06	2.17
		40세 이상~50세 미만	3.92	4.05	4.08	3.99	2.20
		50세 이상~60세 미만	3.85	3.99	3.99	3.96	2.24
		60세 이상~70세 미만	3.84	4.00	3.98	3.99	2.26
		70세 이상	3.79	4.05	3.99	4.08	2.11
		연령평균 F 검증	20.789(5)***	9.769(5)***	10.432(5)***	9.059(5)***	5.998(5)***
교육 수준별	남편	중졸이하	3.88	4.10	4.06	4.14	2.08
		고졸	3.86	3.99	4.01	3.99	2.16
		초대졸이상	3.99	4.06	4.09	4.03	2.15
		학력평균 F 검증	83688.406(2)***	18949.685(2)***	20911.322(2)***	20714.958(2)***	2597.14(2)*
	아내	중졸이하	3.82	4.06	4.05	4.08	2.10
		고졸	3.84	3.98	3.98	3.98	2.24
		초대졸이상	3.97	4.09	4.09	4.02	2.20
		학력평균 F 검증	73488.597(2)***	29252.267(2)***	28617.279(2)***	9182.378(2)***	11368.466(2)***
소득 수준별	남편	100만원 미만	3.84	3.83	4.02	4.06	2.13
		100~200만원 미만	3.94	4.11	4.10	4.02	2.24
		200~300만원 미만	4.08	4.24	4.32	4.27	1.90
		300~400만원 미만	3.83	4.18	4.10	4.16	1.99
		400~500만원 미만	3.84	4.27	4.23	4.46	1.55
		500만원 이상	3.83	4.23	3.99	4.04	2.26
		소득수준 F 검증	2.358(5)*	4.015(5)**	2.919(5)*	3.001(5)*	2.237(5)*

구분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아내	100만원 미만	4.09	4.15	3.94	4.06	2.14
		100~200만원 미만	3.71	3.86	3.88	4.02	2.31
		200~300만원 미만	3.87	3.99	3.99	4.04	2.29
		300~400만원 미만	3.87	4.02	4.02	3.96	2.19
		400~500만원 미만	3.95	4.07	4.16	4.10	2.07
		500만원 이상	3.98	4.06	4.09	4.09	2.14
		소득수준 F 검증	4.429(5)***	1.647(5)	5.286(5)***	1.641(5)	1.786(5)

주: 1)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2) * p<.05, ** p<.01, *** p<.001

배우자의 의미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는 항목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남편의 경우 70대 이상 응답자 가운데, 아내의 경우 3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남편과 아내 응답자 모두 4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 주는 동반자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남편, 아내 응답자 모두 30대 미만, 70대 이상 응답자 가운데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대 미만 아내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26〉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남편	30세 미만	-	9.8	90.2	100.0	4.12
		30세 이상~40세 미만	0.4	12.8	86.8	100.0	4.04
		40세 이상~50세 미만	0.7	15.1	84.2	100.0	3.98
		50세 이상~60세 미만	1.3	18.9	79.7	100.0	3.89
		60세 이상~70세 미만	1.3	21.3	77.4	100.0	3.89
		70세 이상	1.4	22.9	75.7	100.0	3.86
	아내	30세 미만	0.7	6.5	92.8	100.0	4.11
		30세 이상~40세 미만	0.8	14.4	84.8	100.0	4.02
		40세 이상~50세 미만	1.5	18.9	79.6	100.0	3.92
		50세 이상~60세 미만	2.6	20.1	77.3	100.0	3.85
		60세 이상~70세 미만	2.2	23.4	74.4	100.0	3.84
		70세 이상	5.2	22.0	72.8	100.0	3.79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30세 미만	0.9	20.0	79.1	100.0	4.09
		30세 이상~40세 미만	1.2	19.1	79.7	100.0	4.08
		40세 이상~50세 미만	1.0	19.4	79.7	100.0	4.07
		50세 이상~60세 미만	1.7	21.8	76.4	100.0	3.99
		60세 이상~70세 미만	1.9	21.2	76.9	100.0	4.01
		70세 이상	1.4	16.8	81.8	100.0	4.08
	아내	30세 미만	0.7	13.4	85.9	100.0	4.17
		30세 이상~40세 미만	0.6	17.2	82.2	100.0	4.12
		40세 이상~50세 미만	1.4	19.5	79.1	100.0	4.05
		50세 이상~60세 미만	1.7	21.8	76.5	100.0	3.99
		60세 이상~70세 미만	1.7	21.6	76.7	100.0	4.00
		70세 이상	2.1	17.7	80.1	100.0	4.05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30세 미만	7.8	9.1	83.1	100.0	4.08
		30세 이상~40세 미만	1.1	14.7	84.1	100.0	4.16
		40세 이상~50세 미만	2.4	14.8	82.8	100.0	4.09
		50세 이상~60세 미만	2.0	19.8	78.3	100.0	4.00
		60세 이상~70세 미만	2.6	17.1	80.4	100.0	4.03
		70세 이상	3.0	14.8	82.2	100.0	4.0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아내	30세 미만	0.9	8.9	90.2	100.0	4.32
		30세 이상~40세 미만	2.0	17.2	80.8	100.0	4.08
		40세 이상~50세 미만	1.4	18.4	80.2	100.0	4.08
		50세 이상~60세 미만	2.4	19.8	77.8	100.0	3.99
		60세 이상~70세 미만	2.7	20.1	77.2	100.0	3.98
		70세 이상	2.7	19.2	78.0	100.0	3.99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남편	30세 미만	2.5	9.3	88.2	100.0	4.21
		30세 이상~40세 미만	1.4	17.0	81.6	100.0	4.08
		40세 이상~50세 미만	1.4	17.6	81.0	100.0	4.05
		50세 이상~60세 미만	2.2	20.2	77.7	100.0	3.94
		60세 이상~70세 미만	2.2	19.4	78.3	100.0	4.00
		70세 이상	1.1	16.7	82.2	100.0	4.12
	아내	30세 미만	1.8	12.4	85.8	100.0	4.20
		30세 이상~40세 미만	1.1	19.4	79.5	100.0	4.06
		40세 이상~50세 미만	2.0	19.8	78.2	100.0	3.99
		50세 이상~60세 미만	2.3	19.7	77.9	100.0	3.96
		60세 이상~70세 미만	2.5	19.6	78.0	100.0	3.99
		70세 이상	1.4	16.7	82.0	100.0	4.08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남편	30세 미만	70.9	10.5	18.7	100.0	2.02
		30세 이상~40세 미만	69.9	13.3	16.8	100.0	2.10
		40세 이상~50세 미만	69.2	14.3	16.5	100.0	2.13
		50세 이상~60세 미만	67.3	14.9	17.9	100.0	2.19
		60세 이상~70세 미만	66.2	17.5	16.3	100.0	2.18
		70세 이상	68.6	15.4	15.9	100.0	2.11
	아내	30세 미만	73.5	4.8	21.7	100.0	2.06
		30세 이상~40세 미만	66.8	14.7	18.5	100.0	2.17
		40세 이상~50세 미만	68.0	15.4	16.6	100.0	2.20
		50세 이상~60세 미만	64.8	17.1	18.1	100.0	2.24
		60세 이상~70세 미만	63.9	17.3	18.8	100.0	2.26
		70세 이상	68.7	18.5	12.8	100.0	2.1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의 의미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응답 결과는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Ⅵ-27〉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남편	중졸이하	1.6	21.0	77.4	100.0	3.88
		고졸	1.3	22.1	76.6	100.0	3.86
		초대졸 이상	0.7	15.1	84.2	100.0	3.99
	아내	중졸이하	4.3	21.0	74.6	100.0	3.82
		고졸	2.2	22.6	75.2	100.0	3.84
		초대졸 이상	1.5	15.7	82.8	100.0	3.97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중졸이하	1.4	16.3	82.2	100.0	4.10
		고졸	2.1	20.9	77.1	100.0	3.99
		초대졸 이상	1.1	20.2	78.7	100.0	4.06
	아내	중졸이하	2.5	17.3	80.3	100.0	4.06
		고졸	1.6	22.2	76.2	100.0	3.98
		초대졸 이상	1.0	18.3	80.7	100.0	4.09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중졸이하	2.7	15.0	82.3	100.0	4.06
		고졸	3.1	17.6	79.3	100.0	4.01
		초대졸 이상	1.7	16.1	82.2	100.0	4.09
	아내	중졸이하	2.2	17.3	80.5	100.0	4.05
		고졸	2.7	20.6	76.7	100.0	3.98
		초대졸 이상	1.6	17.4	81.0	100.0	4.09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남편	중졸이하	1.8	13.4	84.7	100.0	4.14
		고졸	1.8	20.2	78.0	100.0	3.99
		초대졸 이상	1.7	18.2	80.1	100.0	4.03
	아내	중졸이하	1.8	17.1	81.0	100.0	4.08
		고졸	2.0	19.3	78.7	100.0	3.98
		초대졸 이상	1.9	19.7	78.4	100.0	4.02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남편	중졸이하	69.8	14.4	15.8	100.0	2.08
		고졸	67.0	16.9	16.1	100.0	2.16
		초대졸 이상	68.4	14.2	17.5	100.0	2.15
	아내	중졸이하	70.2	14.9	14.9	100.0	2.10
		고졸	64.5	17.9	17.6	100.0	2.24
		초대졸 이상	66.9	14.9	18.1	100.0	2.2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의 의미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응답자의 가족소득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남편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아내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100~200만원 미만' 남편과 아내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28〉 부부특성별 배우자의 의미(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남편	100만원 미만	2.0	17.4	80.6	100.0	3.84
		100~200만원 미만	1.7	17.3	81.0	100.0	3.94
		200~300만원 미만	-	12.0	88.0	100.0	4.08
		300~400만원 미만	3.6	22.1	74.3	100.0	3.83
		400~500만원 미만	-	30.9	69.1	100.0	3.84
		500만원 이상	2.2	20.4	77.3	100.0	3.83
	아내	100만원 미만	4.9	5.8	89.2	100.0	4.09
		100~200만원 미만	11.0	17.6	71.4	100.0	3.71
		200~300만원 미만	3.7	20.0	76.3	100.0	3.87
		300~400만원 미만	3.0	20.2	76.8	100.0	3.87
		400~500만원 미만	0.5	19.7	79.7	100.0	3.95
		500만원 이상	1.1	16.2	82.7	100.0	3.98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100만원 미만	-	25.9	74.1	100.0	3.83
		100~200만원 미만	1.0	15.6	83.4	100.0	4.11
		200~300만원 미만	-	11.6	88.4	100.0	4.24
		300~400만원 미만	-	13.2	86.8	100.0	4.18
		400~500만원 미만	-	6.0	94.0	100.0	4.27
		500만원 이상	-	9.6	90.4	100.0	4.2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아내	100만원 미만	1.3	11.8	86.9	100.0	4.15
		100~200만원 미만	4.9	25.3	69.8	100.0	3.86
		200~300만원 미만	2.8	18.5	78.7	100.0	3.99
		300~400만원 미만	1.6	20.3	78.0	100.0	4.02
		400~500만원 미만	1.0	18.6	80.4	100.0	4.07
		500만원 이상	1.0	19.4	79.6	100.0	4.06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남편	100만원 미만	-	15.0	85.0	100.0	4.02
		100~200만원 미만	1.2	14.2	84.6	100.0	4.10
		200~300만원 미만	-	8.3	91.7	100.0	4.32
		300~400만원 미만	2.4	13.5	84.2	100.0	4.10
		400~500만원 미만	0.8	4.3	94.9	100.0	4.23
		500만원 이상	1.1	14.3	84.6	100.0	3.99
	아내	100만원 미만	2.1	19.6	78.3	100.0	3.94
		100~200만원 미만	5.4	21.3	73.3	100.0	3.88
		200~300만원 미만	1.7	22.8	75.5	100.0	3.99
		300~400만원 미만	2.3	18.0	79.7	100.0	4.02
		400~500만원 미만	0.3	15.9	83.8	100.0	4.16
		500만원 이상	0.8	16.5	82.7	100.0	4.09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남편	100만원 미만	-	7.8	92.2	100.0	4.06
		100~200만원 미만	1.1	17.9	81.0	100.0	4.02
		200~300만원 미만	-	13.3	86.7	100.0	4.27
		300~400만원 미만	4.0	13.1	82.9	100.0	4.16
		400~500만원 미만	-	9.0	91.0	100.0	4.46
		500만원 이상	1.5	16.7	81.9	100.0	4.04
	아내	100만원 미만	4.9	14.1	80.9	100.0	4.06
		100~200만원 미만	3.8	14.8	81.5	100.0	4.02
		200~300만원 미만	3.8	16.5	79.7	100.0	4.04
		300~400만원 미만	2.4	21.2	76.4	100.0	3.96
		400~500만원 미만	1.2	14.6	84.1	100.0	4.10
		500만원 이상	0.8	17.4	81.9	100.0	4.0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남편	100만원 미만	68.2	18.4	13.4	100.0	2.13
		100~200만원 미만	68.8	10.4	20.8	100.0	2.24
		200~300만원 미만	76.6	11.4	11.9	100.0	1.90
		300~400만원 미만	73.9	11.1	15.1	100.0	1.99
		400~500만원 미만	86.8	10.2	3.0	100.0	1.55
		500만원 이상	66.1	16.7	17.2	100.0	2.26
	아내	100만원 미만	67.3	22.8	9.9	100.0	2.14
		100~200만원 미만	61.1	20.9	18.0	100.0	2.31
		200~300만원 미만	62.2	20.5	17.3	100.0	2.29
		300~400만원 미만	68.2	14.2	17.5	100.0	2.19
		400~500만원 미만	73.5	10.9	15.6	100.0	2.07
		500만원 이상	68.5	14.9	16.6	100.0	2.14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제2절. 배우자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역할·돌봄 분담

1.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35.4%로 가장 많고, '1시간~2시간 미만' 31.4%, '30분 미만' 16.6%, '2시간 이상' 16.1%, '전혀 없음' 0.5%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여 부부간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2020년 기준 '1시간 미만' 58.5%, '1시간 이상' 41.5%; 2023년 기준 '1시간 미만' 52.5%, '1시간 이상' 47.5%).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인 경우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가 10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긴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비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다.

〈표 Ⅵ-29〉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단위: 천명,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체(2020년)		485	6,650	8,315	6,107	4,820	26,378
		1.8	25.2	31.5	23.2	18.3	100.0
전체(2023년)		139	4,540	9,676	8,593	4,398	27,346
		0.5	16.6	35.4	31.4	16.1	100.0
성별	남성	0.5	16.1	35.5	32.0	15.8	100.0
	여성	0.5	17.1	35.2	30.8	16.4	100.0
연령	20세 이상~30세 미만	-	-	-	-	100.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	4.8	22.2	40.7	32.3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0.1	6.8	29.5	36.8	26.8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0.2	14.2	35.6	35.3	14.7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0.6	18.8	39.1	30.3	11.1	100.0
	70세 이상	1.0	20.0	35.9	29.0	14.1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	25.7	34.3	23.0	15.8	100.0
	고등학교	0.4	18.9	37.3	29.5	13.9	100.0
	초대졸 이상	0.4	12.4	34.2	35.1	17.9	100.0

구분		전혀 하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맞벌이 여부	맞벌이	0.4	12.4	34.2	35.2	17.8	100.0
	비맞벌이	8.9	20.5	33.4	20.3	16.9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2.7	29.7	28.3	19.8	19.4	100.0
	100~200만원 미만	1.4	21.9	32.4	27.2	17.1	100.0
	200~300만원 미만	1.1	17.1	34.9	30.2	16.7	100.0
	300~400만원 미만	0.3	15.1	36.8	32.8	14.9	100.0
	400~500만원 미만	0.5	15.6	35.5	32.1	16.4	100.0
	500만원 이상	0.4	15.5	36.9	32.5	14.6	100.0
혼인 기간	5년 미만	0.6	17.6	34.0	30.3	17.5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0.1	5.5	26.5	38.4	29.5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0.0	8.5	28.8	38.6	24.1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0.3	11.4	34.5	35.9	17.9	100.0
	20년 이상	0.2	15.0	37.0	35.2	12.6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0.7	20.7	37.7	28.0	12.9	100.0
	1명	0.1	6.3	25.5	40.2	28.0	100.0
	2명	0.6	14.7	33.2	34.9	16.7	100.0
	3명 이상	0.5	18.2	38.2	29.4	13.7	100.0

2.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5.2%, '보통' 30.2%,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4.7%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20년 조사와 비교하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2020년에는 46.9%이었고, 2023년에는 65.2%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2023년에 약 18.3%p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0〉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단위: 천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2020년)		3,336	10,664	12,378	26,378	3.38
		12.6	40.4	46.9	100.0	
전체(2023년)		1,277	8,248	17,821	27,346	3.66
		4.7	30.2	65.2	100.0	
성별	남성	3.6	28.8	67.6	100.0	3.70
	여성	5.8	31.6	62.5	100.0	3.61
연령	20세 이상~30세 미만	-	-	100.0	100.0	4.00
	30세 이상~40세 미만	2.2	11.6	86.2	100.0	4.00
	40세 이상~50세 미만	2.6	16.6	80.8	100.0	3.90
	50세 이상~60세 미만	4.0	27.0	69.0	100.0	3.70
	60세 이상~70세 미만	5.6	34.1	60.4	100.0	3.58
	70세 이상	5.7	34.8	59.5	100.0	3.5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4	37.9	55.7	100.0	3.52
	고등학교	5.2	35.1	59.6	100.0	3.58
	초대졸 이상	3.8	24.2	72.0	100.0	3.76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	28.3	67.3	100.0	3.68
	비맞벌이	4.9	32.0	63.1	100.0	3.63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17.3	34.1	48.6	100.0	3.27
	100~200만원 미만	8.9	33.8	57.3	100.0	3.50
	200~300만원 미만	6.4	35.6	58.1	100.0	3.57
	300~400만원 미만	7.2	33.9	58.9	100.0	3.57
	400~500만원 미만	4.7	31.8	63.5	100.0	3.64
	500만원 이상	4.7	28.6	66.8	100.0	3.68
혼인 기간	5년 미만	2.2	10.9	86.9	100.0	3.99
	5년 이상~10년 미만	3.5	20.5	76.0	100.0	3.83
	10년 이상~15년 미만	3.6	24.9	71.4	100.0	3.73
	15년 이상~20년 미만	4.2	28.7	67.1	100.0	3.66
	20년 이상	5.5	35.8	58.8	100.0	3.57
자녀 수	자녀 없음	2.3	12.2	85.5	100.0	3.99
	1명	4.7	28.6	66.7	100.0	3.66
	2명	4.9	32.7	62.4	100.0	3.61
	3명 이상	5.3	35.4	59.3	100.0	3.5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3.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자녀 교육, 투자와 자산 관리, 생활비 지출, 취업, 직장이동, 가사 등 집안일, 내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 가족 여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9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202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자녀교육의 경우 2020년 35.3%, 2023년 41.5%, 투자와 자산관리의 경우 2020년 36.7%, 2023년 53.9%, 취업, 직장 이동의 경우 2020년 49.7%, 2023년 63.6%, 내 부모 돌봄 2020년 47.2%, 2023년 60.7%, 배우자 부모 돌봄 2020년 47.7%, 2023년 64.3%로 2023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표 Ⅵ-31〉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자녀 교육	6.5	35.3	58.2	1.8	41.5	56.7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32.0	36.7	31.3	22.5	53.9	23.6
생활비 지출	14.8	31.0	54.2	8.1	31.1	60.8
취업, 직장 이동	38.7	49.7	11.6	25.4	63.6	11.0
가사 등 집안일	2.8	25.1	72.2	2.2	24.5	73.3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8.9	47.2	43.9	6.3	60.7	33.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9.2	47.7	43.1	5.5	64.3	30.3
가족 여가	11.9	63.8	24.3	5.7	66.1	28.2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	-	-	5.0	50.6	44.4

주: 1) 해당없음 제외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률은 자녀 교육 41.5%, 투자와 자산 관리 53.9%, 생활비 지출 31.1%, 취업, 직장 이동 63.6%, 가사 등 집안일 24.5%,

내 부모 돌봄 60.7%, 배우자 부모 돌봄 64.3%, 가족 여가 66.1%,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50.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에 대한 결정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취업, 직장 이동에 대한 결정에서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Ⅵ-32〉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

(단위: 천명,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빈도	278	6,367	8,711	27,346
	구성비	1.8	41.5	56.7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빈도	6,158	14,739	6,449	27,346
	구성비	22.5	53.9	23.6	100.0
생활비 지출	빈도	2,222	8,506	16,618	27,346
	구성비	8.1	31.1	60.8	100.0
취업, 직장 이동	빈도	6,150	15,404	2,666	27,346
	구성비	25.4	63.6	11.0	100.0
가사 등 집안일	빈도	590	6,701	20,056	27,346
	구성비	2.2	24.5	73.3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빈도	1,069	10,245	5,561	27,346
	구성비	6.3	60.7	33.0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빈도	950	11,196	5,278	27,346
	구성비	5.5	64.3	30.3	100.0
가족 여가	빈도	1,559	18,073	7,714	27,346
	구성비	5.7	66.1	28.2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빈도	815	8,248	7,237	27,346
	구성비	5.0	50.6	44.4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차이가 없으나 내 부모 돌봄과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내 부모 돌봄은 '부부가 똑같이(63.8%)', '아내(25.6%)', 배우자 부모 돌봄은 '부부가 똑같이(63.1%)', '아내(34.7%)'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내 부모

돌봄은 '부부가 똑같이(57.5%)', '아내가(40.7%), 배우자 부모 돌봄은 '부부가 똑같이(65.6%)', '아내가(25.2%)'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은 내 부모 돌봄과 배우자 부모 돌봄 모두 부부가 함께 결정하거나 여성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남성은 내 부모 돌봄과 배우자 부모 돌봄을 부부가 함께 결정하거나 아내가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33〉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성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남성	2.1	40.6	57.4	100.0
	여성	1.5	42.4	56.0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남성	22.1	54.6	23.3	100.0
	여성	23.0	53.1	23.9	100.0
생활비 지출	남성	8.4	31.3	60.3	100.0
	여성	7.9	30.9	61.3	100.0
취업, 직장 이동	남성	25.6	63.8	10.6	100.0
	여성	25.2	63.4	11.4	100.0
가사 등 집안일	남성	2.4	24.9	72.7	100.0
	여성	1.9	24.1	74.0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남성	10.7	63.8	25.6	100.0
	여성	1.8	57.5	40.7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남성	2.3	63.1	34.7	100.0
	여성	9.2	65.6	25.2	100.0
가족 여가	남성	5.6	66.7	27.7	100.0
	여성	5.8	65.4	28.8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남성	5.5	52.6	41.9	100.0
	여성	4.5	48.6	46.9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부의 의사결정방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투자와 자산관리, 취업, 직장이동, 내 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 가족여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가 똑같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가사 등 집안일, 자녀 교육, 생활비 지출 등은 아내가 결정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이 함께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 남편이 결정한다(주로 남편이+대체로 남편이)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34〉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연령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30세 미만	0.0	47.3	52.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2	43.0	55.7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6	39.5	59.0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5	45.7	52.8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3.1	39.4	57.5	100.0
	70세 이상	5.2	30.1	64.7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30세 미만	13.9	70.2	15.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0.0	62.1	17.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4.9	54.6	20.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22.1	51.7	26.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2.5	50.4	27.1	100.0
	70세 이상	23.1	50.8	26.1	100.0
생활비 지출	30세 미만	7.2	54.7	38.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5	41.0	51.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8.3	27.4	64.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8.4	28.2	63.4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7.2	29.1	63.7	100.0
	70세 이상	9.7	32.1	58.2	100.0
취업, 직장 이동	30세 미만	14.3	80.5	5.2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5.1	66.8	8.2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6.3	63.4	10.3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24.3	63.3	12.4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7.0	61.1	11.9	100.0
	70세 이상	26.0	58.8	15.2	100.0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가사 등 집안일	30세 미만	1.6	51.0	47.4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8	39.6	58.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8	25.3	72.9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2.2	19.8	78.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2	19.6	78.2	100.0
	70세 이상	3.0	18.7	78.2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30세 미만	10.3	64.4	25.3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6	68.9	24.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2	59.7	34.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6.3	56.8	36.9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5	56.8	37.7	100.0
	70세 이상	5.1	56.9	38.0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30세 미만	12.8	71.2	15.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6	71.7	21.7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1	63.4	30.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2	61.5	34.3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9	57.2	39.9	100.0
	70세 이상	3.3	60.4	36.3	100.0
가족 여가	30세 미만	6.0	81.2	12.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3	73.9	19.8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7	64.2	30.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5.4	64.2	30.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4	64.9	29.7	100.0
	70세 이상	6.2	63.9	29.9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30세 미만	6.5	65.6	27.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5.2	65.7	29.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9	66.5	27.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1.9	64.7	23.4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8.3	63.2	28.5	100.0
	70세 이상	5.5	69.2	25.3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교육, 생활비 지출, 가사 등 집안일 항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 Ⅵ-35〉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중졸 이하	4.7	32.0	63.3	100.0
	고등학교	2.2	41.9	55.9	100.0
	초대졸 이상	1.4	42.0	56.6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중졸 이하	24.8	49.2	26.0	100.0
	고등학교	20.9	52.7	26.4	100.0
	초대졸 이상	23.2	56.1	20.8	100.0
생활비 지출	중졸 이하	9.3	31.9	58.8	100.0
	고등학교	7.3	28.2	64.5	100.0
	초대졸 이상	8.5	33.1	58.4	100.0
취업, 직장 이동	중졸 이하	27.8	59.6	12.6	100.0
	고등학교	26.0	62.7	11.3	100.0
	초대졸 이상	24.6	64.8	10.6	100.0
가사 등 집안일	중졸 이하	3.1	17.5	79.4	100.0
	고등학교	2.0	20.3	77.7	100.0
	초대졸 이상	2.0	29.6	68.4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중졸 이하	7.3	52.0	40.7	100.0
	고등학교	4.7	58.4	36.9	100.0
	초대졸 이상	7.1	62.3	30.6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중졸 이하	3.7	58.0	38.3	100.0
	고등학교	4.7	63.0	32.4	100.0
	초대졸 이상	5.9	65.2	28.9	100.0
가족 여가	중졸 이하	6.5	65.6	27.9	100.0
	고등학교	5.2	65.8	29.0	100.0
	초대졸 이상	5.9	66.5	27.7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중졸 이하	5.5	46.9	47.6	100.0
	고등학교	4.7	49.6	45.7	100.0
	초대졸 이상	5.1	54.9	40.0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맞벌이 여부별로 구분하면 살펴보면 자녀교육, 생활비 지출, 가사 등 집안일은 아내가 결정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맞벌이 응답자가 맞벌이 응답자보다 아내가 결정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를 제외한 항목은 전반적으로 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맞벌이 응답자의 경우 비맞벌이 응답자보다 부부 간 공동의사 결정을 보다 활발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Ⅵ-36〉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맞벌이여부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맞벌이	1.7	46.0	52.3	100.0
	비맞벌이	1.9	36.4	61.7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맞벌이	17.4	60.4	22.2	100.0
	비맞벌이	27.5	47.6	24.9	100.0
생활비 지출	맞벌이	6.1	36.4	57.5	100.0
	비맞벌이	10.1	26.0	63.9	100.0
취업, 직장 이동	맞벌이	13.0	76.0	10.9	100.0
	비맞벌이	40.0	48.9	11.1	100.0
가사 등 집안일	맞벌이	2.2	31.4	66.3	100.0
	비맞벌이	2.1	17.8	80.2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맞벌이	6.8	62.3	30.9	100.0
	비맞벌이	5.7	58.7	35.6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맞벌이	6.1	65.7	28.2	100.0
	비맞벌이	4.6	62.4	33.0	100.0
가족 여가	맞벌이	5.2	68.1	26.7	100.0
	비맞벌이	6.2	64.1	29.7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맞벌이	4.7	56.4	38.9	100.0
	비맞벌이	5.2	46.0	48.8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가족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이 높은 응답자 가운데 취업·직장 이동,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결정 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Ⅵ-37〉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100만원 미만	4.4	43.1	52.5	100.0
	100~200만원 미만	5.0	30.7	64.3	100.0
	200~300만원 미만	5.7	33.7	60.6	100.0
	300~400만원 미만	1.4	37.0	61.6	100.0
	400~500만원 미만	2.3	41.2	56.4	100.0
	500만원 이상	1.6	45.2	53.2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100만원 미만	22.5	55.7	21.8	100.0
	100~200만원 미만	28.8	41.3	29.9	100.0
	200~300만원 미만	25.3	49.2	25.6	100.0
	300~400만원 미만	24.4	51.1	24.6	100.0
	400~500만원 미만	23.1	55.4	21.5	100.0
	500만원 이상	22.0	54.9	23.1	100.0
생활비 지출	100만원 미만	16.8	32.0	51.2	100.0
	100~200만원 미만	11.7	31.0	57.3	100.0
	200~300만원 미만	9.2	30.8	60.0	100.0
	300~400만원 미만	8.1	29.2	62.7	100.0
	400~500만원 미만	7.3	31.8	60.9	100.0
	500만원 이상	8.2	32.9	58.9	100.0
취업, 직장 이동	100만원 미만	40.1	52.1	7.8	100.0
	100~200만원 미만	31.7	51.9	16.4	100.0
	200~300만원 미만	30.4	55.0	14.6	100.0
	300~400만원 미만	33.9	55.9	10.2	100.0
	400~500만원 미만	28.1	60.8	11.1	100.0
	500만원 이상	21.8	67.8	10.3	100.0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가사 등 집안일	100만원 미만	9.2	21.6	69.2	100.0
	100~200만원 미만	4.4	17.8	77.9	100.0
	200~300만원 미만	2.1	21.9	76.1	100.0
	300~400만원 미만	2.1	21.2	76.7	100.0
	400~500만원 미만	2.0	23.5	74.5	100.0
	500만원 이상	2.2	28.0	69.8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100만원 미만	0.0	82.3	17.7	100.0
	100~200만원 미만	11.1	56.7	32.2	100.0
	200~300만원 미만	7.4	60.8	31.8	100.0
	300~400만원 미만	4.7	62.1	33.2	100.0
	400~500만원 미만	4.1	62.7	33.2	100.0
	500만원 이상	4.6	62.1	33.3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100만원 미만	0.0	56.9	43.1	100.0
	100~200만원 미만	6.2	52.6	41.2	100.0
	200~300만원 미만	5.5	70.8	23.7	100.0
	300~400만원 미만	8.7	65.1	26.2	100.0
	400~500만원 미만	6.4	66.9	26.7	100.0
	500만원 이상	6.9	65.0	28.0	100.0
가족 여가	100만원 미만	11.9	64.7	23.4	100.0
	100~200만원 미만	8.3	63.2	28.5	100.0
	200~300만원 미만	5.5	69.2	25.3	100.0
	300~400만원 미만	6.9	65.2	27.9	100.0
	400~500만원 미만	4.9	66.4	28.7	100.0
	500만원 이상	6.7	65.3	28.0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100만원 미만	2.7	36.1	61.1	100.0
	100~200만원 미만	2.2	38.8	58.9	100.0
	200~300만원 미만	1.9	38.0	60.1	100.0
	300~400만원 미만	2.7	45.1	52.1	100.0
	400~500만원 미만	5.1	50.1	44.8	100.0
	500만원 이상	3.5	52.5	44.0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혼인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 가운데 투자와 자산관리, 내 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 가족여가에 대한 의사결정 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Ⅵ-38〉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혼인기간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5년 미만	1.0	49.3	49.6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2	42.4	56.3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1.9	38.8	59.3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1.8	34.0	64.2	100.0
	20년 이상	2.0	43.4	54.6	100.0
투자와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5년 미만	11.7	70.7	17.7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24.9	57.4	17.8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29.5	51.2	19.3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24.9	52.7	22.4	100.0
	20년 이상	22.4	51.3	26.3	100.0
생활비 지출	5년 미만	6.2	50.5	43.4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7.8	34.8	57.4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9.5	27.4	63.1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8.0	25.2	66.8	100.0
	20년 이상	8.3	28.9	62.9	100.0
취업, 직장 이동	5년 미만	17.4	74.8	7.8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28.6	63.2	8.3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28.1	61.3	10.7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27.3	62.2	10.5	100.0
	20년 이상	25.5	62.2	12.3	100.0
가사 등 집안일	5년 미만	2.7	49.8	47.5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9	31.3	66.8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1.8	26.1	72.1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1.2	20.8	78.0	100.0
	20년 이상	2.3	19.7	78.0	100.0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5년 미만	9.5	67.5	23.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7.5	68.5	24.0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6.0	60.3	33.7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5.5	57.0	37.5	100.0
	20년 이상	5.3	57.3	37.5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5년 미만	8.2	71.4	20.4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5.7	70.8	23.4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6.3	63.3	30.4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6.1	60.8	33.2	100.0
	20년 이상	4.0	61.1	34.9	100.0
가족 여가	5년 미만	5.0	76.9	18.1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7.1	72.4	20.5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6.3	65.8	27.9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6.2	61.9	31.9	100.0
	20년 이상	5.4	64.0	30.5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5년 미만	1.7	54.9	43.5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5.7	73.2	21.1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3.8	65.4	30.8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1.5	65.7	32.8	100.0
	20년 이상	5.2	49.0	45.8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투자와 자산관리, 취업, 직장이동, 내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 시 대체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의사결정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39〉 항목별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자녀수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자녀 교육	자녀 없음	-	-	-	100.0
	1명	1.8	45.0	53.2	100.0
	2명	1.8	40.8	57.4	100.0
	3명 이상	2.0	32.6	65.4	100.0
투자 및 자산 관리 (금융, 부동산 등)	자녀 없음	11.8	69.2	19.0	100.0
	1명	23.3	53.2	23.5	100.0
	2명	23.0	52.5	24.5	100.0
	3명 이상	26.0	50.7	23.3	100.0
생활비 지출	자녀 없음	6.4	51.1	42.5	100.0
	1명	7.8	29.7	62.5	100.0
	2명	8.0	28.5	63.5	100.0
	3명 이상	10.0	30.1	59.9	100.0
취업, 직장 이동	자녀 없음	13.0	78.9	8.1	100.0
	1명	27.6	61.5	10.9	100.0
	2명	25.9	62.6	11.5	100.0
	3명 이상	28.6	59.9	11.6	100.0
가사 등 집안일	자녀 없음	2.9	54.7	42.4	100.0
	1명	2.0	23.3	74.7	100.0
	2명	2.1	21.4	76.5	100.0
	3명 이상	2.2	18.7	79.1	100.0
내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자녀 없음	10.0	68.0	22.1	100.0
	1명	6.0	62.4	31.6	100.0
	2명	5.9	58.2	35.8	100.0
	3명 이상	4.6	58.1	37.3	100.0
배우자 부모 돌봄 (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자녀 없음	8.3	71.9	19.8	100.0
	1명	4.8	65.2	30.0	100.0
	2명	5.3	62.0	32.7	100.0
	3명 이상	5.0	62.2	32.8	100.0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계
가족 여가	자녀 없음	5.0	76.5	18.5	100.0
	1명	5.8	65.0	29.3	100.0
	2명	5.5	64.5	30.0	100.0
	3명 이상	6.8	67.0	26.2	100.0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자녀 없음	-	-	-	100.0
	1명	5.1	53.5	41.4	100.0
	2명	4.8	50.5	44.6	100.0
	3명 이상	5.4	47.9	46.7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4. 부부의 가사수행 분담 및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부부의 가사수행은 가사노동(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자녀 양육과 교육,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4개 항목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주로 하는지, 배우자가 공평하게 일을 분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2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한다는 응답은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의 경우 2020년 60.2%, 2023년 63.9%,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의 경우 2020년 60.4%, 2023년 64.7%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우 2020년 39.2%, 2023년 45.9%, 가사노동의 경우 2020년 26.6%, 2023년 25.3%로 가사노동을 제외한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수행했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Ⅵ-40〉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가사수행자):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2.8	70.5	26.6	1.4	73.3	25.3
자녀 양육과 교육	2.9	57.9	39.2	0.9	53.2	45.9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9.5	30.3	60.2	5.5	30.6	63.9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8.9	30.7	60.4	5.0	30.3	64.7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202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하다는 응답은 가사노동의 경우 2020년 37.4%, 2023년 31.2%,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우 2020년 31.1%, 2023년 26.7%로 나타났으며,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의 경우 2020년 20.0%, 2023년 14.8%,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의 경우 2020년 19.7%, 2023년 14.0%로 2023년 조사에서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표 Ⅵ-41〉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점)

구분	2020년			2023년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평균*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37.4	62.6	2.72	31.2	68.8	2.75
자녀 양육과 교육	31.1	68.9	2.82	26.7	73.3	2.8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20.0	80.0	2.99	14.8	85.2	2.99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19.7	80.3	3.00	14.0	86.0	2.99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부의 가사수행 중 아내가 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은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73.3%), 자녀양육과 교육(53.2%)이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은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63.9%),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64.7%)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가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8.8%, 자녀 양육과 교육은 73.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85.2%,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86.0%로 나타났다.

〈표 Ⅵ-42〉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

(단위: 천명,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빈도	378	20,054	6,914	27,346	8,541	18,805	27,346	2.75
	구성비	1.4	73.3	25.3	100.0	31.2	68.8	100.0	
자녀 양육과 교육	빈도	147	8,318	7,169	27,346	4,160	11,437	27,346	2.83
	구성비	0.9	53.2	45.9	100.0	26.7	73.3	100.0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빈도	1,314	7,344	15,308	27,346	3,548	20,388	27,346	2.99
	구성비	5.5	30.6	63.9	100.0	14.8	85.2	100.0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빈도	1,199	7,272	15,501	27,346	3,354	20,580	27,346	2.99
	구성비	5.0	30.3	64.7	100.0	14.0	86.0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남성은 72.6%, 여성은 74.1%였다. 한편, 본인의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남성의 경우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3.8%이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의 경우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 37.1%, 남성 25.9%,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우 여성 32.1%, 남성 21.7%였다.

〈표 Ⅵ-43〉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성별)

(단위: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 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남성	1.7	72.6	25.7	100.0	25.9	74.1	100.0	2.82
	여성	1.0	74.1	24.8	100.0	37.1	62.9	100.0	2.67
자녀 양육과 교육	남성	1.0	52.4	46.6	100.0	21.7	78.3	100.0	2.90
	여성	0.8	54.1	45.1	100.0	32.1	67.9	100.0	2.76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남성	9.3	23.8	66.9	100.0	11.7	88.3	100.0	3.03
	여성	1.3	38.1	60.6	100.0	18.2	81.8	100.0	2.95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남성	1.5	34.4	64.1	100.0	10.7	89.3	100.0	3.03
	여성	8.8	25.9	65.3	100.0	17.7	82.3	100.0	2.95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는 응답률은 30세 미만 56.4%, 30대 44.1%인데 반해 60대 18.8%, 70대 이상 18.6%로 나타났다.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가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0세 미만 74.8%, 30대 75.1%인데 반해 40대 65.2%, 50대 66.5%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교육은 40대와 70대에서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27.7%, 28.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30대 이하 응답자들 가운데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의 분담정도가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Ⅵ-44〉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연령별)

(단위: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30세 미만	1.2	42.3	56.4	100.0	25.2	74.8	100.0	2.95
	30세 이상~40세 미만	1.0	54.9	44.1	100.0	24.9	75.1	100.0	2.87
	40세 이상~50세 미만	0.7	73.5	25.7	100.0	34.8	65.2	100.0	2.70
	50세 이상~60세 미만	1.7	78.1	20.2	100.0	33.5	66.5	100.0	2.71
	60세 이상~70세 미만	1.6	79.6	18.8	100.0	30.6	69.4	100.0	2.75
	70세 이상	2.1	79.3	18.6	100.0	29.3	70.7	100.0	2.75
자녀 양육과 교육	30세 미만	-	55.4	44.6	100.0	27.6	72.4	100.0	2.81
	30세 이상~40세 미만	1.1	45.8	53.1	100.0	24.1	75.9	100.0	2.88
	40세 이상~50세 미만	1.0	53.4	45.5	100.0	27.7	72.3	100.0	2.82
	50세 이상~60세 미만	0.8	51.2	48.1	100.0	26.6	73.4	100.0	2.83
	60세 이상~70세 미만	1.2	60.3	38.5	100.0	26.8	73.2	100.0	2.82
	70세 이상	0.2	73.5	26.3	100.0	28.4	71.6	100.0	2.78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30세 미만	9.4	21.2	69.4	100.0	6.8	93.2	100.0	3.22
	30세 이상~40세 미만	6.2	19.3	74.5	100.0	9.8	90.2	100.0	3.10
	40세 이상~50세 미만	5.1	31.0	64.0	100.0	16.4	83.6	100.0	2.97
	50세 이상~60세 미만	5.7	34.8	59.5	100.0	17.2	82.8	100.0	2.95
	60세 이상~70세 미만	4.9	33.9	61.2	100.0	15.3	84.7	100.0	2.97
	70세 이상	4.9	33.6	61.5	100.0	13.4	86.6	100.0	2.99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30세 미만	10.1	21.2	68.8	100.0	7.1	92.9	100.0	3.19
	30세 이상~40세 미만	5.6	20.4	74.0	100.0	9.1	90.9	100.0	3.10
	40세 이상~50세 미만	5.3	29.1	65.7	100.0	15.9	84.1	100.0	2.95
	50세 이상~60세 미만	5.1	33.4	61.6	100.0	16.0	84.0	100.0	2.96
	60세 이상~70세 미만	4.0	34.9	61.1	100.0	14.7	85.3	100.0	2.97
	70세 이상	3.8	35.9	60.4	100.0	12.3	87.7	100.0	3.0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대졸 이상에서 31.2%로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 비해 높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대졸 이상에서 48.1%로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의 경우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중졸 이하 70.9%, 고등학교 67.7%, 초대졸 이상 69.0%로 교육수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었다.

〈표 Ⅵ-45〉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 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중졸 이하	2.7	78.7	18.6	100.0	29.1	70.9	100.0	2.75
	고등학교	1.1	79.0	20.0	100.0	32.3	67.7	100.0	2.72
	초대졸 이상	1.3	67.5	31.2	100.0	31.0	69.0	100.0	2.77
자녀 양육과 교육	중졸 이하	1.5	65.2	33.3	100.0	27.3	72.7	100.0	2.79
	고등학교	1.0	55.4	43.6	100.0	26.6	73.4	100.0	2.82
	초대졸 이상	0.9	51.0	48.1	100.0	26.6	73.4	100.0	2.84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중졸 이하	5.9	36.1	58.0	100.0	14.0	86.0	100.0	2.99
	고등학교	4.0	34.5	61.6	100.0	17.0	83.0	100.0	2.94
	초대졸 이상	6.5	27.0	66.6	100.0	13.5	86.5	100.0	3.03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중졸 이하	5.7	35.6	58.8	100.0	14.6	85.4	100.0	3.00
	고등학교	4.9	32.0	63.0	100.0	15.7	84.3	100.0	2.94
	초대졸 이상	4.9	28.2	66.9	100.0	12.7	87.3	100.0	3.02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 및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맞벌이 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맞벌이에 비해 높았다.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사수행 항목에 대해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맞벌이와 비맞벌이 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공평하다(매우 공평+약간 공평)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높은 편이었다.

〈표 Ⅵ-46〉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맞벌이여부별)

(단위: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맞벌이	1.2	67.7	31.1	100.0	30.8	69.2	100.0	2.77
	비맞벌이	1.6	78.8	19.6	100.0	31.7	68.3	100.0	2.73
자녀 양육과 교육	맞벌이	1.0	48.3	50.7	100.0	25.9	74.1	100.0	2.84
	비맞벌이	0.9	58.6	40.6	100.0	27.5	72.5	100.0	2.82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맞벌이	5.7	27.8	66.6	100.0	14.2	85.8	100.0	3.01
	비맞벌이	5.3	33.7	61.0	100.0	15.5	84.5	100.0	2.98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맞벌이	5.1	27.3	67.6	100.0	13.0	87.0	100.0	3.00
	비맞벌이	4.9	33.6	61.5	100.0	15.1	84.9	100.0	2.98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 및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가족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자녀양육과 교육,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항목에서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 가운데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Ⅵ-47〉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100만원 미만	10.3	75.0	14.6	100.0	30.7	69.3	100.0	2.68
	100~200만원 미만	3.8	76.9	19.4	100.0	32.8	67.2	100.0	2.71
	200~300만원 미만	3.0	74.1	22.9	100.0	31.9	68.1	100.0	2.72
	300~400만원 미만	1.7	75.3	22.9	100.0	32.4	67.6	100.0	2.73
	400~500만원 미만	0.8	73.0	26.2	100.0	33.8	66.2	100.0	2.72
	500만원 이상	1.5	70.1	28.4	100.0	33.9	66.1	100.0	2.73
자녀 양육과 교육	100만원 미만	-	56.6	43.4	100.0	32.2	67.8	100.0	2.70
	100~200만원 미만	0.8	73.9	25.3	100.0	36.8	63.2	100.0	2.70
	200~300만원 미만	3.5	53.4	43.1	100.0	31.8	68.2	100.0	2.70
	300~400만원 미만	0.8	57.2	42.1	100.0	27.2	72.8	100.0	2.82
	400~500만원 미만	1.0	53.7	45.3	100.0	31.0	69.0	100.0	2.77
	500만원 이상	0.8	50.3	48.9	100.0	28.1	71.9	100.0	2.82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100만원 미만	6.5	26.2	67.4	100.0	19.5	80.5	100.0	2.94
	100~200만원 미만	9.1	35.5	55.4	100.0	16.2	83.8	100.0	2.96
	200~300만원 미만	5.5	33.3	61.2	100.0	18.5	81.5	100.0	2.91
	300~400만원 미만	4.6	32.2	63.1	100.0	15.8	84.2	100.0	2.98
	400~500만원 미만	3.9	30.6	65.6	100.0	15.4	84.6	100.0	2.98
	500만원 이상	4.8	32.6	62.5	100.0	15.8	84.2	100.0	2.98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100만원 미만	9.2	27.0	63.8	100.0	17.7	82.3	100.0	2.97
	100~200만원 미만	7.2	37.6	55.2	100.0	14.9	85.1	100.0	2.98
	200~300만원 미만	6.2	30.3	63.6	100.0	16.6	83.4	100.0	2.92
	300~400만원 미만	7.2	27.6	65.2	100.0	15.4	84.6	100.0	2.99
	400~500만원 미만	6.9	26.8	66.3	100.0	13.8	86.2	100.0	2.98
	500만원 이상	6.5	28.2	65.3	100.0	15.6	84.4	100.0	2.97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 및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혼인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사수행 항목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혼인기간 5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공평'(매우 공평+약간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가사노동의 경우, 혼인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과 '1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우, 혼인기간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자 가운데,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의 경우 혼인기간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자 가운데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Ⅵ-48〉 항목별 부부의 가사수행(혼인기간별)

(단위: %, 점)

구분		가사수행자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계	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매우 공평	계	평균*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5년 미만	0.8	42.7	56.5	100.0	16.8	83.2	100.0	3.00
	5년 이상~10년 미만	1.2	65.8	33.0	100.0	31.2	68.8	100.0	2.79
	10년 이상~15년 미만	1.0	71.6	27.4	100.0	35.8	64.2	100.0	2.69
	15년 이상~20년 미만	0.5	77.4	22.1	100.0	34.2	65.8	100.0	2.70
	20년 이상	1.7	79.1	19.2	100.0	32.4	67.6	100.0	2.72
자녀 양육과 교육	5년 미만	0.7	43.2	56.1	100.0	17.0	83.0	100.0	2.97
	5년 이상~10년 미만	1.0	49.9	49.2	100.0	27.0	73.0	100.0	2.85
	10년 이상~15년 미만	1.2	49.7	49.0	100.0	26.7	73.3	100.0	2.84
	15년 이상~20년 미만	1.3	57.0	41.7	100.0	29.0	71.0	100.0	2.79
	20년 이상	0.7	55.6	43.7	100.0	27.1	72.9	100.0	2.82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5년 미만	9.0	17.6	73.4	100.0	6.1	93.9	100.0	3.19
	5년 이상~10년 미만	7.1	22.1	70.8	100.0	12.5	87.5	100.0	3.05
	10년 이상~15년 미만	4.3	28.3	67.4	100.0	14.8	85.2	100.0	2.98
	15년 이상~20년 미만	4.5	32.9	62.6	100.0	18.4	81.6	100.0	2.96
	20년 이상	4.9	34.8	60.3	100.0	16.3	83.7	100.0	2.95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5년 미만	7.0	19.1	73.9	100.0	5.8	94.2	100.0	3.16
	5년 이상~10년 미만	4.4	24.3	71.3	100.0	11.8	88.2	100.0	3.06
	10년 이상~15년 미만	5.5	28.3	66.3	100.0	14.1	85.9	100.0	2.97
	15년 이상~20년 미만	5.3	31.4	63.3	100.0	17.1	82.9	100.0	2.94
	20년 이상	4.6	33.8	61.6	100.0	15.4	84.6	100.0	2.96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5.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및 만족도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은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9개 돌봄 활동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 중 주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2023년 조사에서는 9개 돌봄 활동 중 함께 놀아주기나 책 읽어 주기, 생활습관 등 훈육를 제외한 항목 모두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를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18.2%, 2023년에는 29.1%로, 함께 놀아주거나 책 읽어주기의 경우 2020년 33.2%, 2023년에는 45.5%, 생활 습관 등 훈육의 경우 2020년 41.3%, 2023년 59.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자녀 등하원/등하교,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등은 2020년, 2023년 모두 아내가 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49〉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1.7	20.1	78.2	0.9	20.6	78.5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3.4	27.5	69.0	5.1	29.0	65.9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2.8	18.2	79.0	4.5	29.1	66.4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7.5	33.2	59.3	10.6	45.5	43.8
자녀 등하원/등하교	4.8	18.6	76.6	5.7	21.8	72.5
교육(보육)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8.0	15.8	76.1	4.8	22.2	73.1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1.0	10.5	88.4	1.4	14.9	83.7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2.0	17.8	80.3	1.0	23.0	76.0
생활 습관 등 훈육	5.6	41.3	53.1	6.1	59.7	34.2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과 관련하여 '아내가' (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률은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83.7%. 식사 취침 등 일상생활 돌봄 78.5%, 교육(보육)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73.1%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응답률이 높은 돌봄 활동은 생활습관 등 훈육 59.7%,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주기 45.5%로 나타났다.

〈표 Ⅵ-50〉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

(단위: 천명,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빈도	55	1,332	5,066	6,470
	구성비	0.9	20.6	78.5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빈도	328	1,872	4,248	6,470
	구성비	5.1	29.0	65.9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빈도	271	1,738	3,968	6,470
	구성비	4.5	29.1	66.4	100.0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빈도	676	2,896	2,788	6,470
	구성비	10.6	45.5	43.8	100.0
자녀 등하원/등하교	빈도	332	1,260	4,196	6,470
	구성비	5.7	21.8	72.5	100.0
교육(보육)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빈도	294	1,368	4,513	6,470
	구성비	4.8	22.2	73.1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빈도	83	904	5,077	6,470
	구성비	1.4	14.9	83.7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빈도	60	1,392	4,598	6,470
	구성비	1.0	23.0	76.0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빈도	391	3,807	2,178	6,470
	구성비	6.1	59.7	34.2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여성 76.9%, 남성 79.9%로 나타났으며,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관리는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여성 64.6%, 남성 68.0%로 나타났다.

〈표 Ⅵ-51〉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성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남성	0.9	19.2	79.9	100.0
	여성	0.8	22.3	76.9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남성	5.2	28.3	66.6	100.0
	여성	5.0	29.9	65.1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남성	4.5	27.5	68.0	100.0
	여성	4.6	30.8	64.6	100.0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남성	10.0	47.4	42.6	100.0
	여성	11.3	43.5	45.2	100.0
자녀 등하원/등하교	남성	5.9	20.6	73.5	100.0
	여성	5.6	23.0	71.4	100.0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남성	4.8	20.8	74.4	100.0
	여성	4.7	23.6	71.7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남성	1.6	14.0	84.4	100.0
	여성	-	15.9	83.0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남성	1.2	23.3	75.5	100.0
	여성	-	22.7	76.5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남성	6.3	60.1	33.6	100.0
	여성	5.9	59.3	34.8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습관 등 훈육을 제외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아내가'(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대와 관계없이 매우 높았다. 또한 40대 응답자 가운데 '아내가'(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 일상생활 돌봄,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등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30대 미만 응답자 가운데 '아내가'(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 자녀 등하원/등하교,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임금 등 관리, 학교, 보육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활동 등을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Ⅵ-52〉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연령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30세 미만	-	23.7	76.3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1	22.8	76.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0.7	18.8	80.6	100.0
	50세 이상	-	19.1	79.8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30세 미만	2.3	31.7	66.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5.2	32.2	62.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1	26.2	68.7	100.0
	50세 이상	5.5	28.1	66.5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30세 미만	9.8	20.2	70.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4	31.9	63.7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4	27.4	68.2	100.0
	50세 이상	-	28.1	66.9	100.0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30세 미만	-	39.5	51.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1.6	48.9	39.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0.1	43.1	46.7	100.0
	50세 이상	6.6	44.5	48.9	100.0
자녀 등하원/등하교	30세 미만	-	18.5	79.6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0	24.1	69.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5	20.2	74.3	100.0
	50세 이상	-	19.9	71.6	100.0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30세 미만	5.7	16.8	77.5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4	25.1	70.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4	20.5	75.1	100.0
	50세 이상	-	17.3	70.5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30세 미만	-	16.6	82.3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0	14.9	84.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3	15.1	83.6	100.0
	50세 이상	-	11.3	82.6	100.0

구분		주로 남편이+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30세 미만	-	15.5	80.3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0	25.5	73.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0.7	21.9	77.5	100.0
	50세 이상	-	17.1	79.1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30세 미만	-	69.0	29.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1	61.0	32.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3	58.5	35.2	100.0
	50세 이상	6.9	54.6	38.4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대체로 아내가+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교 84.2%, 초대졸 이상 77.6%, 중졸 이하 68.9%,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관리는 고등학교 69.5%, 초대졸 이상 66.1%, 중졸이하 32.2%로 나타나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Ⅵ-53〉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중졸 이하	5.8	25.3	68.9	100.0
	고등학교	0.3	15.5	84.2	100.0
	초대졸 이상	0.9	21.5	77.6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중졸 이하	10.7	27.7	61.6	100.0
	고등학교	3.9	29.2	67.0	100.0
	초대졸 이상	5.3	29.0	65.7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중졸 이하	22.6	45.2	32.2	100.0
	고등학교	3.9	26.7	69.5	100.0
	초대졸 이상	4.5	29.4	66.1	100.0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중졸 이하	6.6	42.1	51.3	100.0
	고등학교	7.5	49.2	43.3	100.0
	초대졸 이상	11.2	44.9	43.9	100.0
자녀 등하원/등하교	중졸 이하	10.6	41.9	47.5	100.0
	고등학교	2.4	22.6	75.1	100.0
	초대졸 이상	6.3	21.5	72.2	100.0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중졸 이하	28.2	26.8	45.0	100.0
	고등학교	5.5	17.5	76.9	100.0
	초대졸 이상	4.5	23.0	72.6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중졸 이하	19.4	17.4	63.2	100.0
	고등학교	1.4	13.3	85.3	100.0
	초대졸 이상	1.2	15.2	83.6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중졸 이하	13.6	39.6	46.8	100.0
	고등학교	0.9	20.2	78.9	100.0
	초대졸 이상	0.9	23.4	75.7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중졸 이하	24.6	57.1	18.3	100.0
	고등학교	7.1	60.9	32.0	100.0
	초대졸 이상	5.8	59.5	34.7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맞벌이 여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돌봄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비맞벌이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 돌봄을 '아내가'(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 등하원/등교, 일상생활 돌봄,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의 경우 '아내가'(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맞벌이 60.8%, 69.8%, 58.4%, 비맞벌이 82.6%, 85.9%, 72.2%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Ⅵ-54〉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맞벌이여부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맞벌이	1.3	28.9	69.8	100.0
	비맞벌이	0.5	13.6	85.9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맞벌이	6.0	35.6	58.4	100.0
	비맞벌이	4.3	23.5	72.2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맞벌이	5.8	35.0	59.2	100.0
	비맞벌이	3.4	23.8	72.9	100.0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맞벌이	13.1	49.3	37.6	100.0
	비맞벌이	8.6	42.3	49.1	100.0
자녀 등하원/등교	맞벌이	8.8	30.4	60.8	100.0
	비맞벌이	3.0	14.3	82.6	100.0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맞벌이	4.3	26.6	69.1	100.0
	비맞벌이	5.2	18.2	76.6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맞벌이	2.1	20.9	77.0	100.0
	비맞벌이	0.7	9.5	89.8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맞벌이	1.5	27.8	70.6	100.0
	비맞벌이	0.5	18.7	80.8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맞벌이	6.8	61.6	31.6	100.0
	비맞벌이	5.6	58.1	36.4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가족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상생활 돌봄(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관리 등),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자녀 등하원/등하교 등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소득 100~200만원 미만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55〉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100만원 미만	-	-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	81.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2.4	25.3	72.4	100.0
	300~400만원 미만	0.5	15.9	83.7	100.0
	400~500만원 미만	0.6	19.8	79.5	100.0
	500만원 이상	1.4	26.1	72.6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100만원 미만	-	100.0	-	100.0
	100~200만원 미만	26.9	54.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9.0	24.3	66.6	100.0
	300~400만원 미만	3.7	26.2	70.2	100.0
	400~500만원 미만	3.2	30.9	65.9	100.0
	500만원 이상	7.2	32.2	60.6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100만원 미만	-	100.0	-	100.0
	100~200만원 미만	36.6	38.0	25.3	100.0
	200~300만원 미만	10.6	36.4	53.0	100.0
	300~400만원 미만	3.0	25.9	71.1	100.0
	400~500만원 미만	3.4	29.9	66.7	100.0
	500만원 이상	6.3	30.9	62.8	100.0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100만원 미만	-	100.0	-	100.0
	100~200만원 미만	-	100.0	-	100.0
	200~300만원 미만	10.8	42.0	47.3	100.0
	300~400만원 미만	7.7	41.8	50.6	100.0
	400~500만원 미만	10.4	47.1	42.6	100.0
	500만원 이상	13.7	46.3	40.0	100.0
자녀 등하원/등하교	100만원 미만	-	-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26.9	54.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10.7	11.4	77.8	100.0
	300~400만원 미만	2.6	15.8	81.5	100.0
	400~500만원 미만	2.1	19.1	78.7	100.0
	500만원 이상	8.8	25.3	65.9	100.0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100만원 미만	-	100.0	-	100.0
	100~200만원 미만	26.9	54.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11.1	27.1	61.8	100.0
	300~400만원 미만	5.3	22.3	72.4	100.0
	400~500만원 미만	3.7	23.6	72.7	100.0
	500만원 이상	5.0	23.0	72.0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100만원 미만	-	-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26.9	54.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5.3	32.5	62.2	100.0
	300~400만원 미만	0.7	9.6	89.7	100.0
	400~500만원 미만	0.3	17.0	82.7	100.0
	500만원 이상	2.1	16.8	81.1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100만원 미만	-	100.0	-	100.0
	100~200만원 미만	-	81.4	18.6	100.0
	200~300만원 미만	2.9	23.6	73.5	100.0
	300~400만원 미만	0.5	17.8	81.7	100.0
	400~500만원 미만	0.1	23.1	76.8	100.0
	500만원 이상	1.7	24.9	73.5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100만원 미만	-	100.0	-	100.0
	100~200만원 미만	-	100.0	-	100.0
	200~300만원 미만	6.1	50.4	43.5	100.0
	300~400만원 미만	6.3	56.5	37.2	100.0
	400~500만원 미만	5.5	62.9	31.6	100.0
	500만원 이상	5.6	60.3	34.1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한 응답결과를 미취학 자녀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상생활 돌봄,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관리, 함께 놀아주거나 책 읽어주기,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에서는 전반적으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 가운데 아내가 담당(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자녀 등하원/등하교,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참여, 방문, 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아내가 담당(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56〉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분담(자녀특성별)

(단위: %)

구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식사, 취침, 외출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미취학 자녀 있음	1.1	25.2	73.7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1.1	20.6	78.4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 가기	미취학 자녀 있음	6.2	31.3	62.5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5.3	30.2	64.5	100.0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미취학 자녀 있음	4.6	31.6	63.7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5.8	28.7	65.5	100.0
함께 놀아 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미취학 자녀 있음	12.0	47.2	40.8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11.6	44.1	44.4	100.0
자녀 등하원/등하교	미취학 자녀 있음	5.7	21.1	73.2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7.0	23.1	70.0	100.0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미취학 자녀 있음	4.6	24.9	70.6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5.3	21.7	73.0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미취학 자녀 있음	0.9	16.3	82.8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2.2	15.9	81.8	100.0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 활동 등	미취학 자녀 있음	1.1	22.1	76.8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	24.6	74.2	100.0
생활 습관 등 훈육	미취학 자녀 있음	4.7	59.8	35.5	100.0
	미취학 자녀 없음	6.7	60.5	32.8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3.7%, '보통' 28.6%,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7.8%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는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42.6%, '보통' 32.6%,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24.7%로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 만족도는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자녀돌봄 분담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자녀돌봄 분담에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71.2%로 여성의 55.4%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해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하다는 응답률이 13.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에서 '만족'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64.6%로 중졸 이하 54.2%, 고등학교 58.9%보다 높은 편이었다. 가족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응답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6%, 1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57〉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

(단위: 천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2020년)		1,695	2,238	2,921	6,853	3.16
		24.7	32.6	42.6	100.0	
전체(2023년)		504	1,848	4,118	6,470	3.58
		7.8	28.6	63.7	100.0	
성별	남성	3.0	25.9	71.2	100.0	3.71
	여성	13.1	31.5	55.4	100.0	3.43
연령	30세 미만	13.2	21.4	65.5	100.0	3.55
	30세 이상~40세 미만	7.2	28.6	64.1	100.0	3.60
	40세 이상~50세 미만	7.8	28.7	63.5	100.0	3.57
	50세 이상	9.3	31.5	59.3	100.0	3.5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7	18.2	54.2	100.0	3.25
	고등학교	8.0	33.2	58.9	100.0	3.52
	초대졸 이상	7.6	27.8	64.6	100.0	3.5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1	27.8	65.1	100.0	4.00
	비맞벌이	8.4	29.2	62.5	100.0	3.56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	-	100.0	100.0	4.00
	100~200만원 미만	45.6	26.5	27.9	100.0	3.10
	200~300만원 미만	6.7	21.5	71.8	100.0	3.63
	300~400만원 미만	11.3	31.4	57.3	100.0	3.48
	400~500만원 미만	11.2	31.6	57.2	100.0	3.46
	500만원 이상	9.6	27.4	63.0	100.0	3.55
자녀특성	미취학 자녀 있음	11.4	28.0	60.6	100.0	3.52
	미취학 자녀 없음	9.0	29.8	61.2	100.0	3.5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제3절.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1.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조사시점에서 최근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7%였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갈등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8%로, 2023년 조사에서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들었다.

남성의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률이 37.5%, 여성은 41.2%로 남성의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률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률이 40대에서 46.9%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28.4%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률이 중졸 이하 30.9%, 고등학교 38.6%인 반면 초대졸 이상 42.0%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있었다는 맞벌이 응답자는 32.1%, 비맞벌이 응답자는 30.2%였다. 가족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혼인기간별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Ⅵ-58〉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 유무

(단위: 천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2020년)		12,611	13,767	26,378
		47.8	52.2	100.0
전체(2023년)		10,742	16,604	27,346
		39.3	60.7	100.0
성별	남성	37.5	62.5	100.0
	여성	41.2	58.8	100.0
연령	30세 미만	41.1	58.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2.1	57.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6.9	53.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39.8	60.2	100.0

구분		있음	없음	계
	60세 이상~70세 미만	34.3	65.7	100.0
	70세 이상	28.4	71.6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9	69.1	100.0
	고등학교	38.6	61.4	100.0
	초대졸 이상	42.0	58.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1	67.9	100.0
	비맞벌이	30.2	69.8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34.9	65.1	100.0
	100~200만원 미만	43.0	57.0	100.0
	200~300만원 미만	43.5	56.5	100.0
	300~400만원 미만	41.5	58.5	100.0
	400~500만원 미만	39.1	60.9	100.0
	500만원 이상	39.4	60.6	100.0
혼인 기간	5년 미만	37.2	62.8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48.2	51.8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47.3	52.7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45.0	55.0	100.0
	20년 이상	36.1	63.9	100.0
자녀 수	자녀 없음	36.0	64.0	100.0
	1명	40.7	59.3	100.0
	2명	40.1	59.9	100.0
	3명 이상	36.0	64.0	100.0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1순위)는 배우자의 생활습관 24.3%,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21.9%, 경제적 문제 18.8%, 자녀교육 문제 14.0%, 가사와 육아 분담 6.7%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실태조사(1순위)에서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23.2%), 경제적 문제(22.6%), 배우자의 생활습관(20.2%), 내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9.8%), 자녀교육문제(9.6%) 순으로 나타나 일부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

〈표 Ⅵ-59〉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1순위) :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2023년	2020년 대비 변화량
내 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	9.8	6.4	-3.4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관련한 문제	6.0	6.3	0.3
배우자의 생활습관	20.2	24.3	4.1
자녀 교육 문제	9.6	14.0	4.4
경제적 문제	22.6	18.8	-3.8
가사와 육아 분담	5.6	6.7	1.1
내 부모 간병	0.4	0.3	-0.1
배우자의 부모 간병	0.4	0.3	-0.1
배우자와의 성생활	1.6	0.8	-0.8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23.2	21.9	-1.3
기타	0.6	0.3	-0.3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1순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은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22.9%), 배우자의 생활습관(21.8%), 경제적 문제(19.8%)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배우자의 생활습관(26.7%),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20.9%), 경제적 문제(17.8%)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는 배우자와의 의견충돌 이유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배우자의 생활습관,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30대와 40대는 배우자와의 의견충돌 이유로 자녀교육 문제를 꼽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의견충돌 이유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혼인기간별로는 혼인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응답자들 가운데 자녀교육문제를 배우자와의 의견충돌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60〉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1순위)

(단위: 천명, %)

구분		내 부모/형제 자매와 관련한 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와 관련한 문제	배우자의 생활습관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분담	내 부모 간병	배우자의 부모 간병	배우자와의 성생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기타	계
전체		687	676	2,606	1,504	2,020	723	28	28	87	2,354	28	10,742
		6.4	6.3	24.3	14.0	18.8	6.7	0.3	0.3	0.8	21.9	0.3	100.0
성별	남성	7.5	4.5	21.8	14.7	19.8	7.1	0.4	0.1	0.8	22.9	0.3	100.0
	여성	5.3	8.0	26.7	13.3	17.8	6.4	0.1	0.4	0.8	20.9	0.2	100.0
연령	30세 미만	6.3	5.8	17.6	7.0	9.8	13.4	-	0.6	1.1	38.0	0.5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0	6.7	21.3	20.2	12.4	17.4	-	-	0.7	15.1	0.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2	6.5	20.1	26.7	13.6	10.3	0.1	0.2	0.7	15.5	0.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8.9	7.8	23.5	10.2	22.9	1.7	0.6	0.6	1.3	22.1	0.4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2	4.5	32.7	1.8	24.2	1.4	0.4	0.2	0.7	28.5	0.4	100.0
	70세 이상	2.8	4.5	29.2	0.6	25.5	0.4	-	-	0.2	36.4	0.4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2	3.5	25.1	1.7	30.1	1.4	0.1	0.0	0.1	34.0	0.8	100.0
	고등학교	6.6	6.5	28.1	10.1	22.5	2.5	0.3	0.5	0.4	22.3	0.2	100.0
	초대졸 이상	6.9	6.7	21.4	19.2	14.0	10.8	0.3	0.1	1.2	19.2	0.2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18.8	0.8	22.8	-	-	-	-	57.7	-	100.0
	비맞벌이	1.9	1.6	27.3	0.2	29.9	0.8	-	-	-	37.2	1.0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5.1	3.9	24.1	7.1	27.5	2.6	-	0.8	-	27.3	1.7	100.0
	100~200만원 미만	4.9	5.4	27.7	10.6	19.8	8.3	-	-	0.2	22.8	0.3	100.0
	200~300만원 미만	7.3	6.5	27.2	15.0	19.6	7.5	0.2	0.4	0.8	15.5	-	100.0
	300~400만원 미만	6.5	8.1	23.5	17.6	15.6	6.5	0.3	0.3	0.8	20.6	0.3	100.0
	400~500만원 미만	7.5	7.8	23.3	16.4	16.4	5.9	0.1	0.2	0.6	21.7	0.2	100.0
	500만원 이상	5.3	4.9	25.2	11.7	21.2	7.5	0.4	0.3	1.0	22.1	0.3	100.0
혼인기간	5년 미만	6.9	6.5	28.2	3.9	11.6	13.9	-	0.1	0.2	28.1	0.4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5.3	6.3	17.8	26.4	11.2	18.6	-	-	0.4	14.0	-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5.8	3.8	17.6	32.1	14.5	14.0	-	0.2	0.6	11.1	0.2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6.1	7.4	17.5	30.8	14.0	5.6	-	-	1.3	17.3	-	100.0
	20년 이상	6.7	6.6	27.5	6.3	23.3	1.7	0.5	0.4	0.9	25.7	0.4	100.0
자녀수	자녀 없음	8.5	7.0	30.4	-	16.8	3.4	0.3	0.1	0.3	32.9	0.4	100.0
	1명	7.1	7.2	22.4	16.5	17.6	9.1	0.2	0.2	1.1	18.5	0.2	100.0
	2명	6.5	6.2	24.4	15.3	18.6	6.8	0.3	0.3	0.9	20.5	0.2	100.0
	3명 이상	3.4	4.3	23.8	12.7	23.3	3.7	0.3	0.2	0.1	27.6	0.6	100.0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2순위)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30.3%, 배우자의 생활습관 18.4%, 경제적 문제 16.8%, 자녀교육문제 11.1%, 가사와 육아분담 1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61〉 항목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이유(2순위)

(단위: 천명, %)

구분		내 부모/형제 자매와 관련한 문제	배우자의 부모/형제 자매와 관련한 문제	배우자의 생활습관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가사와 육아 분담	내 부모 간병	배우자의 부모 간병	배우자와의 성생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 방식·가치관	기타	계
전체		297	530	1,631	981	1,487	961	59	51	166	2,683	15	8,861
		3.3	6.0	18.4	11.1	16.8	10.8	0.7	0.6	1.9	30.3	0.2	100.0
성별	남성	4.3	5.5	16.6	11.7	17.4	10.5	0.8	0.4	2.2	30.4	0.2	100.0
	여성	2.4	6.4	20.2	10.5	16.2	11.2	0.5	0.8	1.6	30.1	0.1	100.0
연령	30세 미만	0.4	8.9	20.1	4.1	16.4	16.8	0.9	-	1.4	30.9	-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9	6.2	18.4	12.2	14.2	20.5	0.0	0.4	1.4	23.4	0.2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6	4.8	15.6	18.1	15.2	15.3	0.8	0.2	1.4	25.9	0.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4	7.5	18.4	10.7	19.3	5.2	0.6	1.1	2.6	30.1	0.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4.2	5.5	20.8	2.8	18.0	5.3	1.2	0.8	2.2	39.0	0.2	100.0
	70세 이상	2.8	5.1	23.4	3.3	17.3	2.8	0.6	0.2	1.4	42.7	0.6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3	5.2	24.5	2.6	13.8	4.0	0.4	0.3	2.0	44.4	0.5	100.0
	고등학교	3.3	6.5	18.3	8.5	20.0	7.4	0.8	0.5	2.3	32.0	0.2	100.0
	초대졸 이상	3.5	5.8	17.5	14.2	15.1	14.3	0.6	0.6	1.5	26.7	0.1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51.3	-	11.0	-	-	-	1.4	31.7	4.6	100.0
	비맞벌이	6.9	1.3	23.0	0.2	14.0	3.7	-	-	1.3	49.0	0.7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2.0	7.0	22.4	5.4	17.0	7.8	0.6	0.6	3.2	34.0	-	100.0
	100~200만원 미만	1.6	7.2	19.5	8.2	17.5	13.1	0.6	-	2.3	30.1	-	100.0
	200~300만원 미만	2.5	5.5	14.7	12.9	18.8	14.9	0.9	0.8	1.4	27.0	0.6	100.0
	300~400만원 미만	3.2	6.3	19.9	12.3	16.4	9.7	0.4	0.8	1.1	29.7	-	100.0
	400~500만원 미만	3.5	6.4	19.2	11.8	16.5	10.9	0.8	0.7	1.8	28.3	0.1	100.0
	500만원 이상	3.2	5.6	17.6	10.4	17.0	10.8	0.5	0.5	1.9	32.2	0.2	100.0
혼인기간	5년 미만	3.6	6.7	23.7	3.3	13.8	15.6	0.2	0.6	2.8	29.6	0.2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4	6.5	13.5	14.3	19.1	21.8	0.0	0.2	1.3	21.7	0.1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1.5	4.0	16.2	23.0	12.0	19.7	0.6	-	0.5	22.5	0.1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2.5	4.3	14.9	18.5	16.6	13.5	0.5	0.3	1.8	27.0	0.1	100.0
	20년 이상	4.3	6.5	19.8	7.4	18.0	4.9	0.9	0.8	2.2	34.8	0.2	100.0
자녀수	자녀 없음	4.6	7.9	26.9	-	13.7	7.4	1.0	1.8	4.0	32.4	0.3	100.0
	1명	2.6	5.6	17.0	13.6	16.8	14.1	0.4	0.4	1.5	27.7	-	100.0
	2명	3.4	5.8	17.5	12.3	18.0	9.8	0.7	0.4	1.7	30.0	0.2	100.0
	3명 이상	3.8	6.2	19.5	7.3	13.7	10.0	1.0	0.8	1.7	35.7	0.2	100.0

2.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 고민 여부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간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4.0%,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96.0%였다.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3%로, 2023년의 4.0%보다 6.3%p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4.9%로 남성의 3.1%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고민을 해 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5.1%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로 비맞벌이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6.1%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혼인기간별로는 '1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6.3%로 다른 혼인기간 구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Ⅵ-62〉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 고민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2020년)		2,720	23,658	26,378
		10.3	89.7	100.0
전체(2023년)		1,095	26,251	27,346
		4.0	96.0	100.0
성별	남성	3.1	96.9	100.0
	여성	4.9	95.1	100.0
연령	30세 미만	4.6	95.4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3.9	96.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1	94.9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9	95.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3.5	96.5	100.0
	70세 이상	1.0	99.0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	97.3	100.0
	고등학교	4.5	95.5	100.0
	초대졸 이상	4.0	96.0	100.0

구분		있음	없음	계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	95.3	100.0
	비맞벌이	2.6	97.4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3.8	96.2	100.0
	100~200만원 미만	6.1	93.9	100.0
	200~300만원 미만	5.3	94.7	100.0
	300~400만원 미만	4.3	95.7	100.0
	400~500만원 미만	4.3	95.7	100.0
	500만원 이상	3.7	96.3	100.0
혼인 기간	5년 미만	3.7	96.3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4.3	95.7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4.8	95.2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6.3	93.7	100.0
	20년 이상	3.6	96.4	100.0

3.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행동유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 42.6%, '그냥 참는다' 25.8%,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 18.1%,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 7.7%로 나타났으며, 202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주위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응답 경향은 유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그냥 참는다'는 응답률이 60대 32.4%, 70세 이상 47.1%로 높았고, 30세 미만은 9.1%, 30대 1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 이상에서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이 53.2%로 중졸 이하, 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고, 중졸 이하에서 '그냥 참는다' 48.5%로 고등학교, 초대졸 이상보다 훨씬 높은 편이었다. 또한, 비맞벌이,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혼인기간 20년 이상, 자녀수 3명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63〉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취하는 행동

(단위: 천명, %)

구분		그냥 참는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	주위 사람의 도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	기타	계
전체(2020년)		7,648	4,877	1,506	11,191	994	60	103	26,378
		29.0	18.5	5.7	42.4	3.8	0.2	0.4	100.0
전체(2023년)		7,049	4,942	2,100	11,640	1,586	15	13	27,346
		25.8	18.1	7.7	42.6	5.8	0.1	0.0	100.0
성별	남성	24.2	18.2	10.0	43.1	4.4	0.1	0.0	100.0
	여성	27.5	18.0	5.1	42.0	7.3	0.1	0.1	100.0
연령	30세 미만	9.1	10.9	6.7	67.3	6.0	-	-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3.3	10.7	5.8	64.2	5.9	0.1	-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8.3	16.6	7.4	51.3	6.3	0.0	0.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25.3	21.2	8.9	37.5	7.1	0.1	0.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32.4	20.9	9.3	32.1	5.2	0.0	0.1	100.0
	70세 이상	47.1	19.7	5.6	24.5	3.0	0.0	0.1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8.5	19.9	5.9	21.6	4.0	0.0	0.0	100.0
	고등학교	28.9	20.5	8.3	36.1	6.1	0.1	0.0	100.0
	초대졸 이상	17.3	15.7	7.7	53.2	6.0	0.1	0.1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1	23.3	3.7	21.6	1.2	-	-	100.0
	비맞벌이	56.0	15.1	5.4	20.0	3.5	-	-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39.6	19.2	5.5	31.1	4.7	-	-	100.0
	100~200만원 미만	28.0	19.1	4.9	39.4	8.3	0.1	0.1	100.0
	200~300만원 미만	23.7	19.8	7.0	42.1	7.4	0.1	-	100.0
	300~400만원 미만	20.6	16.8	7.5	48.2	6.9	0.1	0.0	100.0
	400~500만원 미만	21.5	17.5	8.3	46.0	6.6	0.0	0.0	100.0
	500만원 이상	30.0	18.6	7.1	39.2	5.0	0.1	0.1	100.0
혼인기간	5년 미만	11.7	9.7	7.0	65.4	6.1	0.1	0.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2.9	11.8	5.1	64.7	5.4	0.1	-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18.7	15.4	7.9	52.6	5.3	-	-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19.9	18.7	7.3	46.5	7.4	0.1	0.1	100.0
	20년 이상	32.0	20.7	8.2	33.3	5.7	0.1	0.0	100.0
자녀수	자녀 없음	11.7	10.2	8.4	63.7	5.8	-	0.1	100.0
	1명	20.6	18.4	7.8	46.5	6.6	0.1	-	100.0
	2명	27.1	19.0	7.9	40.0	5.9	0.1	0.1	100.0
	3명 이상	39.0	19.3	6.4	31.3	3.9	-	0.1	100.0

4. 배우자와의 전반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6.2%, '보통' 29.8%,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4.0%로 나타나 2020년 조사와 비교할 때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2020년: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57.0%, '보통' 32.5%,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10.6%).

남성은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70.1%로 여성의 61.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에서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91.7%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57.5%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 이상 응답자 가운데 '만족'한다는 응답이 74.2%로 중졸 이하(57.2%)와 고등학교(58.9%) 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맞벌이 응답자에 비해 비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만족한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Ⅵ-64〉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천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2020년)		2,786	8,563	15,029	26,378	3.56
		10.6	32.5	57.0	100.0	
전체(2023년)		1,102	8,146	18,098	27,346	3.66
		4.0	29.8	66.2	100.0	
성별	남성	2.5	27.4	70.1	100.0	3.73
	여성	5.7	32.4	61.9	100.0	3.59
연령	30세 미만	1.3	7.0	91.7	100.0	4.08
	30세 이상~40세 미만	2.2	16.1	81.7	100.0	3.88
	40세 이상~50세 미만	3.1	25.9	71.0	100.0	3.72
	50세 이상~60세 미만	5.2	33.8	61.0	100.0	3.59
	60세 이상~70세 미만	4.8	36.2	59.0	100.0	3.57
	70세 이상	4.8	37.7	57.5	100.0	3.55
교육수준	중졸 이하	5.8	37.1	57.2	100.0	3.54
	고등학교	5.1	36.0	58.9	100.0	3.56
	초대졸 이상	2.7	23.0	74.2	100.0	3.77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6	41.3	46.1	100.0	3.35
	비맞벌이	7.6	32.2	60.3	100.0	3.54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7.3	35.2	57.6	100.0	3.52
	100~200만원 미만	6.9	34.0	59.1	100.0	3.56
	200~300만원 미만	4.8	32.2	63.0	100.0	3.61
	300~400만원 미만	4.1	27.9	68.0	100.0	3.69
	400~500만원 미만	3.5	27.9	68.6	100.0	3.70
	500만원 이상	4.6	31.6	63.8	100.0	3.63
혼인 기간	5년 미만	2.0	10.9	87.1	100.0	3.96
	5년 이상~10년 미만	2.2	19.3	78.5	100.0	3.85
	10년 이상~15년 미만	2.4	23.0	74.6	100.0	3.76
	15년 이상~20년 미만	4.1	26.9	69.0	100.0	3.67
	20년 이상	4.9	35.9	59.2	100.0	3.57
자녀 수	자녀 없음	2.0	12.7	85.3	100.0	3.95
	1명	4.2	28.2	67.6	100.0	3.67
	2명	4.0	32.1	63.9	100.0	3.63
	3명 이상	5.1	35.3	59.6	100.0	3.5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Ⅶ 가족 관계(2) -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제1절. 부모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53
제2절.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271

제 7장에서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와 청소년 자녀 쌍방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 관점에서 응답 기준 청소년 자녀 특성,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의사결정 시 자녀 의사 존중,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중 청소년 자녀 특성 및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 문항은 2023년 조사에서 처음 조사된 신규 문항이다.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가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신규 문항인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을 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총 여섯 개의 항목을 파악하였다. 먼저, 청소년 자녀 특성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을 조사하였으며 연령은 '만12~15세', '만16~18세', '만19~25'세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는 경제적 부담, 학업성적, 대화 단절,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 진로문제, 친구 관계, 생활습관(음주, 흡연 등), 게임이나 SNS 중독, 기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선택항목은 2020년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순위문항으로 변경하였다.

부모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8개 세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 자녀를 믿는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자녀와 자주 다툰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이다.

부모의 의사결정 시 청소년 자녀 의사 존중 정도는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자녀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자녀가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로 질문하였다.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각각에 대해 하루 평균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부 항목은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에게는 부모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문항을 질문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8개 세부 항목으로 질문하였으며,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이다.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님이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부 항목은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다.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평일과 주말 각각에 대해 하루 평균을 질문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부모-자녀와의 관계, 의사결정 시 자녀 의사 존중 정도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부모-자녀와의 관계의 전반적 만족도는 ‘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Ⅷ-1〉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관련 2020년과 2023년 조사 문항 비교

영역	문항	비고
부모 관점에서 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9. 응답 기준 청소년 자녀 특성	비교 불가(신규 문항)
	30.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비교 가능(1순위 응답) 순위문항으로 변경
	31.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비교 가능
	32. 부모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시 자녀 의사 존중	비교 가능
	33.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	비교 불가(신규 문항)
	34.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가능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41.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	비교 가능
	42.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의사결정 시 의사 존중	비교 가능
	43.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	비교 불가(신규 문항)
	44.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가능

제1절. 부모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1. 응답 기준 청소년 자녀 특성

만 12세~25세 미만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거' 응답 비율은 82.9%, '비동거' 응답 비율은 17.1%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와 동거 중인 비율은 여성이 85.4%로 남성의 80.4%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에서 동거 응답률이 98.3%로 나머지 연령대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동거 비율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에서 85.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80.3%, 중졸 이하 66.8%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그룹에서 동거 응답률이 84.2%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표 Ⅶ-2〉 청소년 자녀 동거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동거	비동거	계
전체		6,365	1,314	7,679
		82.9	17.1	100.0
성별	남성	80.4	19.6	100.0
	여성	85.4	14.6	100.0
연령	40세 미만	98.3	1.7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89.8	10.2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75.0	25.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68.8	31.2	100.0
	70세 이상	78.0	22.0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66.8	33.2	100.0
	고등학교	80.3	19.7	100.0
	초대졸 이상	85.0	15.0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16.2	83.8	100.0
	100~200만원 미만	54.4	45.6	100.0
	200~300만원 미만	59.3	40.7	100.0
	300~400만원 미만	73.1	26.9	100.0
	400~500만원 미만	81.9	18.1	100.0
	500만원 이상	84.2	15.8	100.0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성 청소년 비율은 52.4%, 여성 청소년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남성 청소년 비율이 70세 이상 그룹에서 70.9%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 청소년 비율은 40세 미만 그룹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의 연령에 따른 청소년 자녀 성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남성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 그룹에서 52.7%, 여성 청소년 비율은 중졸 이하 그룹에서 49.2%로 가장 높았다. 가족소득별 남성 청소년 비율은 100~2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이 60.4%, 여성 청소년 비율은 1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86.7%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Ⅷ-3〉 청소년 자녀 성별

(단위: 천명, %)

구분		남	여	계
전체		4,021	3,659	7,679
		52.4	47.6	100.0
연령	40세 미만	47.4	52.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3.0	47.0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51.9	48.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1.5	48.5	100.0
	70세 이상	70.9	29.1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0.8	49.2	100.0
	고등학교	51.9	48.1	100.0
	초대졸 이상	52.7	47.3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13.3	86.7	100.0
	100~200만원 미만	60.4	39.6	100.0
	200~300만원 미만	45.2	54.8	100.0
	300~400만원 미만	57.6	42.4	100.0
	400~500만원 미만	51.2	48.8	100.0
	500만원 이상	52.0	48.0	100.0

응답자의 청소년 자녀 연령을 조사한 결과, 만19~25세 연령대가 51.4%로 가장 높았으며, 만12세~15세 30.6%, 만16세~18세 17.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만 19~25세 연령대가 각각 52.9%, 5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부모의 연령대별 청소년 자녀 연령의 경우 청소년 자녀가 만 12~15세 연령층에선 부모가 40세 미만인 경우가 90.4%로 대다수인 반면, 만19~25세 연령층에선 부모가 60대인 경우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그룹에서 만19~25세의 청소년 자녀를 둔 비중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소득구간 중에서 청소년 자녀가 만19~25세 연령층인 비율이 8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구간이 낮은 경우 만19~25세 청소년 자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Ⅶ-4〉 청소년 자녀 연령

(단위: 천명, %)

구분		만12~15세	만16~18세	만19~25세	계	평균
전체		2,351	1,378	3,950	7,679	47,219
		30.6	17.9	51.4	100.0	18.39
성별	남성	29.7	17.4	52.9	100.0	18.50
	여성	31.6	18.5	50.0	100.0	18.27
연령	40세 미만	90.4	5.0	4.6	100.0	13.51
	40세 이상~50세 미만	49.1	25.0	25.9	100.0	16.29
	50세 이상~60세 미만	7.7	11.5	80.8	100.0	20.84
	60세 이상~70세 미만	5.2	7.9	87.0	100.0	21.69
	70세 이상	7.8	18.2	73.9	100.0	20.25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2	8.6	74.2	100.0	20.05
	고등학교	21.0	16.5	62.5	100.0	19.40
	초대졸 이상	36.8	19.2	44.0	100.0	17.73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12.2	5.5	82.3	100.0	20.65
	100~200만원 미만	17.1	20.6	62.2	100.0	19.20
	200~300만원 미만	23.1	13.8	63.1	100.0	19.13
	300~400만원 미만	30.3	15.2	54.5	100.0	18.48
	400~500만원 미만	32.1	20.3	47.6	100.0	18.06
	500만원 이상	30.2	18.0	51.8	100.0	18.45

2.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1순위를 조사한 결과, 학업성적(24.5%)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문제(18.5%), 경제적 부담(16.8%) 순으로 많았다.

부모 성별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학업성적(24.0%, 25.1%)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과 40대에서 학업성적(32.8%, 30.4%), 50대에서 진로문제(21.0%),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경제적 부담(21.8%, 46.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부모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배우 응답자는 학업성적(25.4%)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데 비해,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는 22.9%, 사별 응답자는 24.5%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비중이 컸다. 교육수준별로 중졸 이하의 27.4%가 경제적 부담을, 고등학교의 23.1%, 초대졸 이상의 25.8%가 학업성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가족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300~400만원 미만 소득구간부터 학업성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낀다는 응답률이 경제적 부담 응답률을 넘어섰으며,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는 학업성적(26.0%) 다음으로 진로문제(20.3%)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자녀 성별의 경우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을 둔 부모 모두 학업성적(24.5%, 24.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녀 연령의 경우 19세 이하는 학업성적(34.5%)이 가장 큰 어려움인 반면, 20~24세 이하 연령층은 진로문제(21.4%)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Ⅶ-5〉 청소년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1순위)

(단위: 천명, %)

구분		경제적 부담	학업 성적	대화 단절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	진로 문제	친구 관계	생활 습관 (음주, 흡연 등)	게임이나 SNS 중독	기타	없음	계
전체		1,288	1,885	258	260	1,421	219	244	300	10	1,795	7,679
		16.8	24.5	3.4	3.4	18.5	2.8	3.2	3.9	0.1	23.4	100.0
성별	남성	16.4	24.0	4.5	3.3	18.5	2.4	3.4	3.6	0.1	23.7	100.0
	여성	17.1	25.1	2.2	3.5	18.5	3.3	3.0	4.2	0.2	23.0	100.0
연령	40세 미만	12.3	32.8	4.7	0.3	12.0	3.3	2.3	8.6	-	23.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4.1	30.4	3.3	3.4	16.7	3.7	2.9	5.7	0.2	19.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9.6	18.3	3.4	3.5	21.0	1.9	3.4	1.6	0.1	27.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1.8	10.1	3.1	4.9	18.2	1.4	5.8	3.9	-	30.9	100.0
	70세 이상	46.8	16.1	-	-	14.0	-	-	-	-	23.2	100.0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6.3	25.4	3.1	3.4	18.5	2.9	3.1	4.0	0.1	23.1	100.0
	이혼 또는 별거	22.9	11.9	8.2	2.6	20.1	1.7	4.0	2.2	0.9	25.5	100.0
	사별	24.5	15.3	2.3	4.1	10.9	1.5	2.7	3.6	-	35.0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7.4	13.4	11.5	4.8	12.1	3.3	7.7	0.9	-	18.9	100.0
	고등학교	17.4	23.1	2.9	2.8	20.8	2.1	3.5	2.4	0.0	24.9	100.0
	초대졸 이상	16.0	25.8	3.3	3.7	17.4	3.3	2.8	4.9	0.2	22.6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	-	65.4	4.0	-	-	-	-	-	30.6	100.0
	100~200만원 미만	47.9	8.7	-	-	7.5	-	2.0	3.7	-	30.3	100.0
	200~300만원 미만	32.9	10.9	3.1	2.3	11.4	0.7	6.2	1.5	0.7	30.4	100.0
	300~400만원 미만	22.8	23.8	5.0	3.7	18.4	2.5	1.7	6.8	-	15.3	100.0
	400~500만원 미만	19.6	20.6	4.5	4.5	15.5	3.8	2.1	3.8	-	25.6	100.0
	500만원 이상	15.1	26.0	2.1	3.4	20.3	2.6	4.0	3.6	0.2	22.6	100.0
자녀 성별	남성	17.0	24.5	3.5	2.5	19.4	2.6	3.7	5.9	0.1	20.7	100.0
	여성	16.5	24.6	3.1	4.3	17.5	3.1	2.6	1.8	0.2	26.3	100.0
자녀 연령	19세 이하	13.7	34.5	3.0	2.4	16.1	3.9	2.0	6.0	0.2	18.2	100.0
	20~24세 이하	20.3	12.8	3.8	4.6	21.4	1.6	4.6	1.4	0.1	29.5	100.0

3.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부모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8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을 보면,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 자녀를 믿는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자녀와 자주 다툰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이다.

2020년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조사와 비교하면 8개 항목 모두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 28.1%에서 2023년 48.3%로 나타나, 2020년 대비 변화량이 가장 큰 폭(20.2%p)으로 증가하였다.

〈표 Ⅶ-6〉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0년 대비 변화량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65.1	79.3	14.2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8.1	48.3	20.2
내 자녀를 믿는다	80.5	85.1	4.6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47.3	54.2	6.9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27.2	29.2	2.0
자녀와 자주 다툰다	5.6	12.6	7.0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8.9	13.8	4.9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11.1	15.4	4.3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항목은 동의율이 높고 부정적인 항목은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내 자녀를 믿는다'(85.1%)에 대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두 번째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로 79.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자녀와 자주 다툰다'에 동의한 비율이 12.6%,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3.8%,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15.4% 등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와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Ⅶ-7〉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빈도	210	1,378	6,092	7,679	3.88
	구성비	2.7	17.9	79.3	100.0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빈도	1,119	2,853	3,707	7,679	3.41
	구성비	14.6	37.1	48.3	100.0	
내 자녀를 믿는다	빈도	163	981	6,536	7,679	4.05
	구성비	2.1	12.8	85.1	100.0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빈도	830	2,689	4,161	7,679	3.50
	구성비	10.8	35.0	54.2	100.0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빈도	2,705	2,730	2,245	7,679	2.91
	구성비	35.2	35.6	29.2	100.0	
자녀와 자주 다툰다	빈도	4,727	1,985	968	7,679	2.38
	구성비	61.6	25.8	12.6	100.0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빈도	4,746	1,871	1,063	7,679	2.39
	구성비	61.8	24.4	13.8	100.0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빈도	4,151	2,346	1,182	7,679	2.51
	구성비	54.1	30.6	15.4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 성별로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한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더 느끼고 있었으며 대화 정도도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동의율은 여성 83.7%, 남성 75.0%이며,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여성 55.5%, 남성 41.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에 그렇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61.3%인 데 반해, 남성은 47.2%로 성별 격차가 큰 편이었다. 한편 부정적인 내용의 자녀관계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율이 낮지만,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친밀감과 동시에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간섭하는 등 개입 정도도 어머니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8〉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성	4.1	20.9	75.0	100.0	3.79
	여성	1.4	15.0	83.7	100.0	3.96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남성	20.7	38.2	41.1	100.0	3.26
	여성	8.4	36.1	55.5	100.0	3.57
내 자녀를 믿는다	남성	2.8	13.4	83.8	100.0	4.01
	여성	1.4	12.2	86.4	100.0	4.09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남성	14.1	38.8	47.2	100.0	3.38
	여성	7.5	31.2	61.3	100.0	3.63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남성	40.3	35.4	24.4	100.0	2.80
	여성	30.1	35.8	34.1	100.0	3.02
자녀와 자주 다툰다	남성	65.3	23.7	11.0	100.0	2.31
	여성	57.8	28.0	14.2	100.0	2.46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남성	64.1	24.7	11.2	100.0	2.33
	여성	59.5	24.0	16.5	100.0	2.46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남성	53.8	32.0	14.2	100.0	2.50
	여성	54.3	29.1	16.6	100.0	2.5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의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문항 대부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내 자녀를 믿는다(86.7%)'.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81.4%)',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66.8%)'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많았다. 항목별로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긍정적인 관계 항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 항목에 대해서도 젊은 연령대의 부모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Ⅶ-9〉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40세 미만	1.9	16.7	81.4	100.0	3.88
	40세 이상~50세 미만	2.7	17.0	80.3	100.0	3.90
	50세 이상~60세 미만	2.8	18.6	78.6	100.0	3.85
	60세 이상~70세 미만	3.8	26.1	70.2	100.0	3.79
	70세 이상	-	18.7	81.3	100.0	4.13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0세 미만	14.4	18.8	66.8	100.0	3.59
	40세 이상~50세 미만	12.3	38.1	49.6	100.0	3.46
	50세 이상~60세 미만	16.5	37.0	46.5	100.0	3.37
	60세 이상~70세 미만	22.4	42.5	35.0	100.0	3.15
	70세 이상	49.6	25.5	24.9	100.0	2.57
내 자녀를 믿는다	40세 미만	1.8	11.6	86.7	100.0	4.15
	40세 이상~50세 미만	2.0	12.3	85.7	100.0	4.06
	50세 이상~60세 미만	2.3	13.4	84.3	100.0	4.03
	60세 이상~70세 미만	3.1	11.5	85.4	100.0	4.00
	70세 이상	-	12.0	88.0	100.0	4.27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40세 미만	9.4	32.1	58.4	100.0	3.58
	40세 이상~50세 미만	10.1	33.6	56.2	100.0	3.53
	50세 이상~60세 미만	11.1	36.6	52.3	100.0	3.47
	60세 이상~70세 미만	19.2	35.7	45.1	100.0	3.35
	70세 이상	24.1	49.1	26.8	100.0	3.07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40세 미만	34.8	28.2	37.0	100.0	3.02
	40세 이상~50세 미만	30.3	36.1	33.6	100.0	3.01
	50세 이상~60세 미만	40.3	35.6	24.1	100.0	2.80
	60세 이상~70세 미만	37.5	35.6	26.9	100.0	2.88
	70세 이상	75.2	18.7	6.0	100.0	2.16
자녀와 자주 다툰다	40세 미만	66.7	23.0	10.3	100.0	2.32
	40세 이상~50세 미만	58.9	28.0	13.1	100.0	2.44
	50세 이상~60세 미만	63.9	23.9	12.2	100.0	2.33
	60세 이상~70세 미만	64.9	22.5	12.6	100.0	2.35
	70세 이상	90.0	4.0	6.0	100.0	1.6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40세 미만	63.5	20.4	16.1	100.0	2.41
	40세 이상~50세 미만	59.3	26.7	14.0	100.0	2.45
	50세 이상~60세 미만	64.0	22.2	13.8	100.0	2.34
	60세 이상~70세 미만	67.9	22.8	9.3	100.0	2.27
	70세 이상	86.7	7.3	6.0	100.0	1.76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40세 미만	60.6	27.9	11.6	100.0	2.37
	40세 이상~50세 미만	53.4	30.1	16.4	100.0	2.54
	50세 이상~60세 미만	54.1	31.2	14.6	100.0	2.49
	60세 이상~70세 미만	56.4	29.6	14.0	100.0	2.48
	70세 이상	59.8	34.2	6.0	100.0	1.98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사별 응답자가 이혼 또는 별거 응답자보다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에 대한 동의 비율을 보면 사별이 89.0%로 가장 높았으며 유배우 80.3%, 이혼 또는 별거 60.6% 순으로 나타났다. '내 자녀를 믿는다'에 대한 응답률 역시 사별(86.8%), 유배우(86.0%)가 이혼 또는 별거(68.4%)에 비해 높았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항목은 유배우 응답자의 동의율이 55.0%로 가장 높고, 사별(48.4%), 이혼 또는 별거(4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10〉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0	17.7	80.3	100.0	3.89
	이혼 또는 별거	15.9	23.5	60.6	100.0	3.58
	사별	3.3	7.7	89.0	100.0	3.95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4.2	37.1	48.7	100.0	3.42
	이혼 또는 별거	21.7	37.8	40.5	100.0	3.24
	사별	14.1	39.5	46.5	100.0	3.47
내 자녀를 믿는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5	12.4	86.0	100.0	4.07
	이혼 또는 별거	12.1	19.5	68.4	100.0	3.77
	사별	5.1	8.2	86.8	100.0	4.05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8	35.2	55.0	100.0	3.53
	이혼 또는 별거	28.7	30.2	41.2	100.0	3.11
	사별	9.7	42.0	48.4	100.0	3.46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4.5	36.0	29.4	100.0	2.92
	이혼 또는 별거	46.1	29.3	24.6	100.0	2.68
	사별	41.6	24.6	33.8	100.0	2.91
자녀와 자주 다툰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61.2	26.1	12.7	100.0	2.39
	이혼 또는 별거	67.6	21.6	10.8	100.0	2.20
	사별	61.3	22.7	16.0	100.0	2.47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61.6	24.4	14.0	100.0	2.40
	이혼 또는 별거	66.4	22.5	11.2	100.0	2.22
	사별	55.9	27.1	17.0	100.0	2.54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54.0	30.5	15.5	100.0	2.51
	이혼 또는 별거	55.9	29.7	14.4	100.0	2.45
	사별	51.4	36.5	12.2	100.0	2.5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항목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내 자녀를 믿는다'에 대한 초대졸 이상 집단의 동의 비율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85.0%, 중졸 이하

7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졸 이하 교육수준에서는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항목에서 24.8%로 다른 집단보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Ⅶ-11〉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중졸 이하	21.5	20.1	58.3	100.0	3.48
	고등학교	3.5	18.2	78.3	100.0	3.85
	초대졸 이상	1.6	17.7	80.7	100.0	3.90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중졸 이하	39.0	30.9	30.1	100.0	2.90
	고등학교	14.3	40.3	45.4	100.0	3.36
	초대졸 이상	13.8	35.5	50.7	100.0	3.46
내 자녀를 믿는다	중졸 이하	15.1	14.8	70.1	100.0	3.72
	고등학교	2.3	12.7	85.0	100.0	4.04
	초대졸 이상	1.6	12.7	85.7	100.0	4.07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중졸 이하	30.3	37.7	32.0	100.0	2.96
	고등학교	12.5	35.8	51.7	100.0	3.45
	초대졸 이상	9.1	34.4	56.5	100.0	3.55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중졸 이하	52.2	29.3	18.5	100.0	2.53
	고등학교	37.4	36.2	26.4	100.0	2.85
	초대졸 이상	33.3	35.4	31.3	100.0	2.96
자녀와 자주 다툰다	중졸 이하	56.6	29.1	14.3	100.0	2.38
	고등학교	63.0	25.9	11.1	100.0	2.35
	초대졸 이상	60.9	25.7	13.4	100.0	2.40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중졸 이하	68.5	18.5	13.0	100.0	2.23
	고등학교	63.2	25.8	11.0	100.0	2.33
	초대졸 이상	60.7	23.7	15.5	100.0	2.44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중졸 이하	47.5	27.7	24.8	100.0	2.68
	고등학교	53.7	31.9	14.3	100.0	2.49
	초대졸 이상	54.5	29.8	15.7	100.0	2.5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4.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평일 하루에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분~1시간(31.4%), 1~2시간 미만(19.4%), 2시간 이상(9.5%), 전혀 안함(5.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평일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길며, 아버지 경우 30분 미만이 37.0%, 어머니 경우 30분~1시간 미만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평일 청소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인 경우 자녀와 하루 2시간 이상 보내는 응답 비율이 18.4%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반면, 70세 이상은 30분 미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이혼 또는 별거 집단이 평일 하루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고, 사별 집단의 경우 1시간 이상 보내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혼 또는 별거 집단의 경우 30분 미만 30.6%, 전혀 없음 28.0%로 자녀와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평일에 보내는 시간이 긴 경향성을 나타냈다. 특히 중졸 이하인 집단의 경우 30분 미만 47.6%, 전혀 안함 20.4%로 대다수가 청소년 자녀와 평일에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일 청소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인 경우 30분~1시간 미만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시간 이상이 10.7%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일 하루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관계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30분 미만이 54.4%, 전혀 안함 23.0%로 응답자 대부분이 청소년 자녀와 평일에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2〉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평일)

(단위: 천명, %)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체		418	2,630	2,413	1,489	729	7,679
		5.4	34.3	31.4	19.4	9.5	100.0
성별	남성	7.2	37.0	31.0	17.9	7.0	100.0
	여성	3.7	31.5	31.8	20.9	12.0	100.0
연령	40세 미만	2.2	28.1	25.4	25.8	18.4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3.3	31.0	33.0	20.9	11.7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7.6	37.5	30.8	17.4	6.6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3.2	44.4	17.6	19.0	5.9	100.0
	70세 이상	5.9	59.9	21.1	7.1	6.0	100.0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2	34.4	32.2	19.7	9.5	100.0
	이혼 또는 별거	28.0	30.6	19.7	13.7	8.0	100.0
	사별	6.0	40.9	17.6	21.1	14.5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4	47.6	16.3	9.5	6.2	100.0
	고등학교	6.3	37.0	29.2	19.1	8.4	100.0
	초대졸 이상	4.4	32.1	33.3	19.9	10.3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74.5	-	13.3	9.0	3.2	100.0
	100~200만원 미만	34.2	31.5	8.2	16.9	9.2	100.0
	200~300만원 미만	21.9	32.6	18.3	17.7	9.5	100.0
	300~400만원 미만	12.4	34.1	28.6	16.2	8.7	100.0
	400~500만원 미만	6.3	33.6	29.1	21.0	10.1	100.0
	500만원 이상	3.9	32.6	34.2	18.6	10.7	100.0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함	3.6	27.4	33.3	23.7	12.2	100.0
	보통	7.8	50.2	28.5	10.0	3.5	100.0
	불만족	23.0	54.2	17.6	4.4	0.7	100.0

주말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2시간 미만(29.6%), 30분~1시간 미만(21.5%), 30분 미만(11.8%), 전혀 안함(2.2%)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평일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주말 하루 청소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경우 2시간 이상 응답률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역시 2시간 이상 응답률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말 하루 청소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 40대 경우 자녀와 하루 2시간 이상 보내는 응답 비율이 각각 48.9%, 41.2%로 상당수가 2시간 이상 주말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사별 집단이 이혼 또는 별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다. 주말 하루 2시간 이상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별(36.8%), 유배우(35.1%), 이혼 또는 별거(28.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주말에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 30분 미만 47.6%, 전혀 안함 20.4%로 평일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말 청소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하루 2시간 이상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만원 이상(36.3%), 300~400만원 미만(35.6%), 400~500만원 미만(3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말 하루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관계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30분 미만이 39.3%, 전혀 안함 15.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 자녀와 주말에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3〉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주말)

(단위: 천명, %)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체		171	909	1,651	2,276	2,673	7,679
		2.2	11.8	21.5	29.6	34.8	100.0
성별	남성	3.1	13.4	22.7	29.7	31.2	100.0
	여성	1.4	10.3	20.3	29.6	38.4	100.0
연령	40세 미만	0.5	4.6	24.6	21.4	48.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2	8.7	19.0	29.9	41.2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3.2	14.9	23.7	30.6	27.6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6.7	28.5	24.1	20.3	20.3	100.0
	70세 이상	-	8.9	58.1	4.0	29.1	100.0
혼인상태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4	11.6	21.8	30.0	35.1	100.0
	이혼 또는 별거	17.3	15.9	14.3	24.1	28.4	100.0
	사별	0.9	11.3	29.4	21.7	36.8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4	47.6	16.3	9.5	6.2	100.0
	고등학교	6.3	37.0	29.2	19.1	8.4	100.0
	초대졸 이상	4.4	32.1	33.3	19.9	10.3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74.5	-	9.3	-	16.2	100.0
	100~200만원 미만	30.6	23.7	11.5	10.1	24.2	100.0
	200~300만원 미만	16.3	18.9	19.2	21.0	24.7	100.0
	300~400만원 미만	6.2	16.8	20.8	20.5	35.6	100.0
	400~500만원 미만	1.9	14.6	20.8	30.3	32.4	100.0
	500만원 이상	1.0	10.3	22.2	30.2	36.3	100.0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함	0.8	7.8	18.8	29.9	42.6	100.0
	보통	3.9	18.5	29.1	31.1	17.3	100.0
	불만족	15.8	39.3	20.5	15.5	8.9	100.0

5.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 67.4%에서 2023년 70.5%로 2020년 대비 3.1%p 만족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Ⅶ-14〉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평균*
2020년	5.7	26.8	67.4	3.72
2023년	4.2	25.3	70.5	3.71

부모에게 현재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전체 70.5%로 확인되었다. 아버지가 만족하는 비율(65.5%)보다 어머니의 만족 비율(75.6%)이 더 높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인 경우 82.9%로 가장 만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젊은 연령의 부모일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만족 비율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73.3%), 고등학교(66.9%), 중졸 이하(54.9%)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가족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은 없었으나 300~400만원 미만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16.4%로 가장 낮았고, 200~300만원 미만(73.2%)에서 가장 높았다.

〈표 Ⅶ-15〉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		320	1,943	5,417	7,679	47,219
		4.2	25.3	70.5	100.0	3.71
성별	남성	5.1	29.4	65.5	100.0	3.64
	여성	3.2	21.2	75.6	100.0	3.79
연령	40세 미만	1.9	19.3	78.8	100.0	3.85
	40세 이상~50세 미만	3.7	23.3	73.0	100.0	3.75
	50세 이상~60세 미만	4.7	27.6	67.7	100.0	3.67
	60세 이상~70세 미만	6.6	31.7	61.7	100.0	3.62
	70세 이상	-	17.1	82.9	100.0	3.83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5	18.6	54.9	100.0	3.23
	고등학교	4.4	28.7	66.9	100.0	3.67
	초대졸 이상	3.2	23.5	73.3	100.0	3.76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27.3	17.7	55.0	100.0	3.22
	100~200만원 미만	4.4	28.7	66.9	100.0	3.67
	200~300만원 미만	3.2	23.6	73.2	100.0	3.76
	300~400만원 미만	83.8	-	16.2	100.0	1.67
	400~500만원 미만	25.4	15.7	59.0	100.0	3.28
	500만원 이상	12.8	33.4	53.8	100.0	3.4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제2절.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1.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문항을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8개 세부 항목은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이다.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8개 문항에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의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Ⅶ-16〉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47.2	71.9	52.0	80.6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61.6	79.6	67.5	84.9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5.2	49.2	38.7	64.7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28.4	40.9	27.4	41.7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9.9	14.4	11.9	18.5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10.8	13.5	11.4	17.1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14.8	13.6	20.7	22.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64.7	71.5	67.1	74.0

각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아버지에 대해 52.0%, 어머니에 대해 80.6%)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아버지에 대해 67.5%, 어머니에 대해 84.9%),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아버지에 대해 38.7%, 어머니에 대해 64.7%),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아버지에 대해 27.4%, 어머니에 대해 41.7%),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아버지에 대해 11.9%, 어머니에 대해 18.5%),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아버지에 대해 11.4%, 어머니에 대해 17.1%),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아버지에 대해 20.7%, 어머니에 대해 22.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아버지에 대해 67.1%, 어머니에 대해 74.0%) 등 8개 문항 모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청소년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대화 및 친밀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다툼 등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7〉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

(단위: 천명, %,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빈도	675	2,255	3,174	6,502	3.49	155	1,083	5,158	6,502	3.94
	구성비	11.1	36.9	52.0	100.0		2.4	16.9	80.6	100.0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빈도	350	1,634	4,121	6,502	3.76	103	861	5,432	6,502	4.09
	구성비	5.7	26.8	67.5	100.0		1.6	13.5	84.9	100.0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빈도	1,509	2,235	2,360	6,502	3.17	514	1,740	4,141	6,502	3.68
	구성비	24.7	36.6	38.7	100.0		8.0	27.2	64.7	100.0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빈도	2,356	2,074	1,674	6,502	2.85	1,817	1,912	2,668	6,502	3.14
	구성비	38.6	34.0	27.4	100.0		28.4	29.9	41.7	100.0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빈도	4,049	1,330	725	6,502	2.30	3,616	1,598	1,182	6,502	2.50
	구성비	66.3	21.8	11.9	100.0		56.5	25.0	18.5	100.0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빈도	4,093	1,316	695	6,502	2.27	3,875	1,428	1,093	6,502	2.43
	구성비	67.1	21.6	11.4	100.0		60.6	22.3	17.1	100.0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빈도	2,993	1,845	1,266	6,502	2.63	3,254	1,707	1,435	6,502	2.63
	구성비	49.0	30.2	20.7	100.0		50.9	26.7	22.4	100.0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빈도	561	1,444	4,099	6,502	3.66	519	1,143	4,734	6,502	3.78
	구성비	9.2	23.7	67.1	100.0		8.1	17.9	74.0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청소년 자녀 성별로 부모님과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모두 부모님 중 어머니에 대해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선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Ⅶ-18〉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성별)

(단위: %,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빈도	11.9	37.0	51.1	100.0	3.48	3.0	19.7	77.3	100.0	3.87
	구성비	10.2	36.9	52.9	100.0		3.51	1.8	14.0	84.2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빈도	6.1	28.5	65.5	100.0	3.75	1.5	16.5	82.0	100.0	4.05
	구성비	5.4	24.9	69.7	100.0		3.78	1.7	10.2	88.1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빈도	25.3	35.2	39.4	100.0	3.16	9.6	28.4	62.0	100.0	3.62
	구성비	24.1	38.1	37.8	100.0		3.17	6.4	26.0	67.7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빈도	38.1	31.6	30.3	100.0	2.86	28.6	28.3	43.1	100.0	3.15
	구성비	39.1	36.6	24.3	100.0		2.83	28.2	31.6	40.2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빈도	64.9	22.7	12.4	100.0	2.31	55.8	25.4	18.8	100.0	2.51
	구성비	67.9	20.8	11.3	100.0		2.29	57.3	24.5	18.2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빈도	63.2	25.3	11.4	100.0	2.31	59.4	23.5	17.1	100.0	2.44
	구성비	71.2	17.5	11.4	100.0		2.22	61.8	21.1	17.1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빈도	46.3	31.2	22.5	100.0	2.67	46.7	28.6	24.6	100.0	2.71
	구성비	52.0	29.2	18.9	100.0		2.58	55.4	24.6	20.1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빈도	9.2	27.8	63.0	100.0	3.60	8.8	20.8	70.3	100.0	3.72
	구성비	9.2	19.2	71.6	100.0		3.72	7.4	14.7	78.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청소년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친밀감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19세 이하 자녀와 20세~24세 이하 자녀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모님은

나에게 자주 간섭한다' 항목은 20세~24세 이하보다 19세 미만 자녀에서 더 높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자주 간섭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률이 19세 이하 30.7%, 20세~24세 이하 23.2%이며, 어머니에 대해 같은 항목의 동의 비율은 19세 이하 46.8%, 20~24세 이하 35.3%로 나타났다.

〈표 Ⅶ-19〉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19세 이하	11.4	37.2	51.4	100.0	3.49	1.9	16.9	81.2	100.0	3.97
	20~24세 이하	10.7	36.6	52.8	100.0	3.49	3.1	16.9	80.0	100.0	3.92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19세 이하	4.3	26.7	69.0	100.0	3.80	1.3	13.3	85.4	100.0	4.11
	20~24세 이하	7.6	26.9	65.6	100.0	3.71	2.0	13.7	84.4	100.0	4.06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9세 이하	25.3	36.7	38.0	100.0	3.16	5.7	27.0	67.3	100.0	3.74
	20~24세 이하	23.9	36.5	39.5	100.0	3.18	10.9	27.5	61.6	100.0	3.60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19세 이하	33.8	35.5	30.7	100.0	2.94	23.9	29.3	46.8	100.0	3.25
	20~24세 이하	44.7	32.1	23.2	100.0	2.72	34.1	30.6	35.3	100.0	3.01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19세 이하	63.7	25.4	10.9	100.0	2.31	53.1	28.4	18.5	100.0	2.54
	20~24세 이하	69.7	17.2	13.1	100.0	2.28	60.8	20.7	18.5	100.0	2.46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19세 이하	66.4	21.6	12.0	100.0	2.30	57.4	25.7	16.8	100.0	2.46
	20~24세 이하	67.9	21.5	10.6	100.0	2.23	64.5	18.0	17.4	100.0	2.38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19세 이하	46.8	32.0	21.2	100.0	2.66	49.4	29.1	21.6	100.0	2.63
	20~24세 이하	51.9	28.0	20.1	100.0	2.58	52.8	23.7	23.5	100.0	2.6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19세 이하	7.8	24.9	67.3	100.0	3.67	7.4	19.2	73.4	100.0	3.78
	20~24세 이하	11.0	22.1	66.9	100.0	3.64	9.0	16.2	74.8	100.0	3.7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2.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의사 존중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가 가족의 일 전반, 나의 진학할 학교, 나의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나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3가지 항목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아버지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나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20년 49.4%에서 2023년 68.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Ⅶ-20〉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2023년 (대체로+매우 그렇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49.4	61.6	68.4	79.1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66.5	73.2	71.3	81.2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68.3	75.3	73.4	82.3

'부모님이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한 결정 시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지'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아버지 68.4%, 어머니 79.1%이다. '진학 학교 결정 시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동의 비율은 아버지 71.3%, 어머니 81.2%로 나타났다.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항목에는 아버지에 대해 73.4%, 어머니에 대해 8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3개 항목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신의 의사를 더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1〉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

(단위: 천명, %,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빈도	449	1,479	4,176	6,502	3.71	234	1,103	5,059	6,502	3.87
	구성비	7.4	24.2	68.4	100.0		3.7	17.2	79.1	100.0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빈도	299	1,451	4,354	6,502	3.82	147	1,059	5,191	6,502	3.99
	구성비	4.9	23.8	71.3	100.0		2.3	16.6	81.2	100.0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빈도	197	1,428	4,479	6,502	3.85	85	1,045	5,266	6,502	3.97
	구성비	3.2	23.4	73.4	100.0		1.3	16.3	82.3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청소년 자녀 성별로 살펴보면,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해 결정 시 자신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아들보다 딸인 경우 더 많았다(아버지에 대해 아들 67.9%, 딸 69.0%, 어머니에 대해 아들 77.4%, 딸 80.9%).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준다'는 응답률 역시 딸인 경우(아버지에 대해 75.2%, 어머니에 대해 84.6%)가 아들(아버지에 대해 71.7%, 어머니에 대해 80.2%)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진학 학교 결정 시 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준다'는 응답률은 어머니에 대해 딸이 아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아들 79.2%, 딸 83.3%), 아버지에 대해선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아들 71.5%, 딸 71.1%).

〈표 Ⅶ-22〉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성별)

(단위: %,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남성	7.5	24.6	67.9	100.0	3.70	3.6	19.0	77.4	100.0	3.84
	여성	7.2	23.9	69.0	100.0		3.71	3.8	15.3	80.9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남성	5.5	22.9	71.5	100.0	3.82	2.6	18.2	79.2	100.0	3.95
	여성	4.2	24.7	71.1	100.0		3.82	1.9	14.8	83.3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남성	2.8	25.5	71.7	100.0	3.83	1.2	18.6	80.2	100.0	3.95
	여성	3.7	21.1	75.2	100.0		3.86	1.4	13.9	84.6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별로 보면 항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해 결정 시'와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항목에는 그렇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24세 이하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학 학교 결정 시' 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동의 비율은 19세 이하가 20~24세 이하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아버지에 대해 19세 이하 72.0%, 20~24세 이하 70.4%, 어머니에 대해 19세 이하 81.6%, 20~24세 이하 80.6%).

〈표 Ⅶ-23〉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나의 의사 존중(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19세 이하	8.7	23.9	67.4	100.0	3.67	5.3	17.1	77.6	100.0	3.84
	20~24세 이하	5.6	24.7	69.7	100.0		3.75	1.6	17.4	81.0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19세 이하	4.9	23.1	72.0	100.0	3.83	2.3	16.1	81.6	100.0	3.99
	20~24세 이하	4.9	24.7	70.4	100.0		3.81	2.3	17.2	80.6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19세 이하	3.0	23.9	73.1	100.0	3.85	1.3	17.7	81.0	100.0	3.96
	20~24세 이하	3.6	22.7	73.7	100.0		3.84	1.4	14.7	84.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3.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님과 평일 하루에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미만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분~1시간(33.2%), 1~2시간 미만(18.4%), 2시간 이상(9.8%), 전혀 안함(4.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부모님과 평일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청소년은 30분 미만이 36.2%, 여성 청소년은 30분~1시간 미만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인 청소년이 20~24세 이하인 청소년에 비해 평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는 300~4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인 경우 2시간 이상이 18.5%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일 하루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부모님의 관계만족도가 불만족일 때 부모님과 평일에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비율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에 대해 30분 미만 52.5%, 전혀 안함 14.3%, 어머니에 대해 30분 미만 59.3%, 전혀 안함 7.6%).

〈표 Ⅶ-24〉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평일)

(단위: 천명, %)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체		300	2,211	2,156	1,196	639	6,502
		4.6	34.0	33.2	18.4	9.8	100.0
성별	남성	4.5	36.2	34.3	16.6	8.4	100.0
	여성	4.7	31.6	31.9	20.4	11.4	100.0
연령	19세 이하	2.0	29.3	34.7	22.2	11.9	100.0
	20~24세 이하	7.9	39.9	31.3	13.7	7.2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24.4	37.4	21.2	8.0	9.1	100.0
	100~200만원 미만	44.0	44.2	-	9.6	2.2	100.0
	200~300만원 미만	37.9	47.2	9.7	3.0	2.2	100.0
	300~400만원 미만	9.2	60.5	5.5	6.3	18.5	100.0
	400~500만원 미만	57.1	42.9	-	-	-	100.0
	500만원 이상	15.4	37.1	17.1	27.1	3.3	100.0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함	2.8	28.7	35.4	21.3	11.7	100.0
	보통	7.7	50.8	30.3	7.6	3.6	100.0
	불만족	14.3	52.5	14.9	11.0	7.3	100.0
	해당 없음	9.4	28.0	27.2	24.8	10.5	100.0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함	3.5	31.2	34.4	20.1	10.8	100.0
	보통	13.8	54.6	24.2	4.7	2.7	100.0
	불만족	7.6	59.3	23.2	5.6	4.4	100.0
	해당 없음	14.8	53.0	20.9	11.4	-	100.0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님과 주말에 보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2시간 이상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시간 미만(28.8%), 30분~1시간(21.8%), 30분 미만(9.1%), 전혀 안함(1.4%)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일보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부모님과 주말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모두 2시간 이상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남성 청소년 35.2%, 여성 청소년 42.9%).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인 청소년이 20~24세 이하인 청소년에 비해 주말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인 경우 2시간 이상이 40.7%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말 하루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부모님의 관계만족도가 만족일 때 부모님과 주말에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응답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아버지에 대해 44.4%, 어머니에 대해 42.2%).

〈표 Ⅶ-25〉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하루에 보내는 시간(주말)

(단위: 천명, %)

구분		전혀 안함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체		89	594	1,419	1,871	2,529	6,502
		1.4	9.1	21.8	28.8	38.9	100.0
성별	남성	2.2	9.6	25.3	27.7	35.2	100.0
	여성	0.5	8.6	18.0	30.0	42.9	100.0
연령	19세 이하	0.5	6.4	17.4	29.8	45.9	100.0
	20~24세 이하	2.4	12.6	27.3	27.5	30.2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	5.0	39.8	35.9	19.3	100.0
	100~200만원 미만	11.2	13.7	28.1	6.2	40.7	100.0
	200~300만원 미만	9.0	38.4	23.6	10.4	18.6	100.0
	300~400만원 미만	12.1	14.9	29.8	8.4	34.8	100.0
	400~500만원 미만	-	35.1	32.3	32.5	-	100.0
	500만원 이상	9.2	16.7	15.5	27.6	31.0	100.0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함	0.6	6.0	18.2	30.9	44.4	100.0
	보통	3.0	18.7	31.7	22.7	23.8	100.0
	불만족	6.0	19.0	26.8	24.3	23.9	100.0
	해당 없음	1.9	8.0	27.3	27.9	34.9	100.0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만족함	0.5	6.4	20.2	30.7	42.2	100.0
	보통	7.5	30.2	34.1	15.6	12.6	100.0
	불만족	10.1	25.9	45.1	5.9	13.1	100.0
	해당 없음	6.1	31.2	25.2	14.1	23.4	100.0

4.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 전반적 만족도

청소년 자녀에게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하는 비율은 아버지에 대해 74.6%, 어머니에 대해 89.8%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만족도 긍정 응답률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6〉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천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빈도	213	1,338	4,542	6,502	3.83
	구성비	3.5	22.0	74.6	100.0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빈도	87	564	5,740	6,502	4.14
	구성비	1.4	8.8	89.8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표 Ⅶ-27〉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5년, '20년과 '23년 비교

(단위: %, 점)

구분	2015년				2020년				2023년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평균*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평균*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평균*
아버지	13.6	26.9	57.2	3.69	9.1	21.6	69.4	3.90	3.5	22.0	74.6	3.83
어머니	3.6	19.7	74.2	4.05	3.7	14.1	82.3	4.20	1.4	8.8	89.8	4.14

주: 1) 제3차 조사의 전체 합은 '해당없음'을 포함하여 100.0%이며, 제4차 조사는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100.0%임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청소년 자녀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딸(77.4%)이 아들(71.9%)보다 더 높았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 역시 딸(92.7%), 아들(8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28〉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성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남성	4.1	24.0	71.9	100.0	3.79
	여성	2.9	19.7	77.4	100.0	3.86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남성	1.7	11.1	87.2	100.0	4.09
	여성	1.0	6.3	92.7	100.0	4.2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청소년 자녀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가 20~24세 이하인 경우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19세 이하는 아버지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76.3%, 어머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91.0%이며, 20~24세 이하는 아버지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72.3%, 어머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88.4%로 나타났다.

〈표 Ⅶ-29〉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19세 이하	3.5	20.1	76.3	100.0	3.86
	20~24세 이하	3.4	24.3	72.3	100.0	3.78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19세 이하	1.4	7.6	91.0	100.0	4.18
	20~24세 이하	1.3	10.3	88.4	100.0	4.1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Ⅷ

가족 관계(3) -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제1절. 부모의 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 287
제2절.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334

제 8장에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중 조사기준일 당시 만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 자녀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부모⇔성인 자녀 간' 상호도움 여부, 연락빈도, 관계 정도, 관계 만족도를 살피고자 한 문항에 대한 응답값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중 우선 부모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상호도움 여부, 성인 자녀와의 관계 정도,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빈도, 전반적 관계 만족도 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가지 측면 중에서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과 관계정도는 성인 자녀 중 1명(=만 25세 이상 자녀 중 '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12]')을 특정하고, 자녀의 성별, 혼인상태, 동거여부를 파악하였다.

상호도움 여부는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4가지 세부사항에 대해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 정도는 기존의 조사와 동일한 네 개의 문항(=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과 함께 2023년 조사부터는 1가지 문항(=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이 추가된 총 5가지 문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문항은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빈도의 경우 만나는 정도와 연락하는 정도(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SNS 등)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항목 또한 5첨척도(거의 매일~거의 하지 않음)를 통해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성인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현재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항목 또한 '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의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만 25세 이상 성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부모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같은 구조로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과의

---

12) 이는 '생년이 가장 빠른(=나이가 가장 많은)'이라는 기준과는 다른 것이며, 이러한 조건은 만 25세 이상의 자녀가 둘 이상이면 특정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을 하되, 해당 자녀 선택에 무작위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연락 빈도, 관계 정도, 상호도움 여부, 전반적 관계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하되 응답자의 부모님(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응답항목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 다루는 분석 결과는 「가족실태조사」 조사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Ⅳ-3. 성인 자녀(만 25세 이상)와의 관계" 및 "Ⅳ-5. 성인(만 25세 이상) 대상 부모와의 관계"에 담겨있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에서 응답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같게 질문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Ⅷ-1〉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관련: '15년, '20년과 '23년 조사문항 비교

영역	문항	비고
부모의 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	36. 자녀와 상호도움 여부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37. 성인 자녀와의 관계	문항 추가,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38.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39.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46.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47. 부모님과의 관계	문항 추가, 응답자용 설명 보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48. 부모님과의 상호도움 여부	응답자용 설명 보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49.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식	응답자용 설명 보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50.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응답자용 설명 보완 2015, 2020년과 비교 가능

제1절. 부모의 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

1. 성인 자녀와의 상호지원 정도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정서적 지원'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자녀와의 상호지원 정도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 자녀를 1인을 특정하고, 해당 자녀를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및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과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이나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의 경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네 가지 측면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였으며,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20.1%)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9.0%로 네 가지 측면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은 61.4%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의 경우 1/3가량(32.7%)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사 등 집안일 도움과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6.5%와 6.4%였다. 이와 함께 네 가지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경우 절반을 넘는 63.0%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Ⅷ-2〉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

(단위: 천명, %)

구분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계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계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빈도	2,749	15,767	18,516	6,058	12,458	18,516
	구성비	14.8	85.2	100.0	32.7	67.3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빈도	3,729	14,787	18,516	3,059	15,457	18,516
	구성비	20.1	79.9	100.0	16.5	83.5	100.0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빈도	1,658	16,858	18,516	1,190	17,326	18,516
	구성비	9.0	91.0	100.0	6.4	93.6	100.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빈도	11,372	7,144	18,516	11,673	6,843	18,516
	구성비	61.4	38.6	100.0	63.0	37.0	100.0

이전에 시행된 두 차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과 가사 등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고,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주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2020년에 비해 2023년 조사에서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23.9%와 24.0%로 집계되었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14.8%로 10%p 가까이 낮아졌으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 또한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모두 24.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1%로 낮아졌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2020년에는 15.2% 수준이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9.0%로 6.2%p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반대로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1.4%로 2020년 조사(59.7%)에 비해 1.7%p 더 높았다.

이어서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을 네 가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이나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고,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주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23년 조사 결과가 약간 높았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37.2%와

32.5%였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32.7%로 2020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22.0%와 20.6%로 나타났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16.5%로 낮아졌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2020년에는 10.0% 수준이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6.4%로 3.6%p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3.0%로 2020년 조사결과(56.7%)와 비교하면 6.3%p 정도 높았다.

〈표 Ⅷ-3〉 성인 자녀와의 상호지원/수혜 여부: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주고 있음			받고 있음		
	2015년	2020년	2023년	2015년	2020년	2023년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23.9	24.0	14.8	37.2	32.5	32.7
가사 등 집안일 도움	24.0	24.0	20.1	22.0	20.6	16.5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14.3	15.2	9.0	7.8	10.0	6.4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	59.7	61.4	-	56.7	63.0

응답자의 특성 가운데 성별에 따라 4가지 항목별로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에 대해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제외한 '가사 등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정서적 지원'의 세 영역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은 남성응답자는 15.7%가, 여성응답자의 14.2%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은 18.6%, 여성은 21.3%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의 경우 남녀가 각각 8.0%와 9.7%였으며,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은 57.9%와 64.2%로 집계되었다.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의 경우 남성은 26.9%가, 여성은 37.3%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그 차이가 10.4%p였으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14.3%와 18.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응답자가 4.0%p 더 높았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받고 있는 비율은 각각 5.5%와 7.1%였으며, 성인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응답자가 57.7%, 여성응답자는 67.2%로 여성이 9.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4〉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성별)

(단위: %)

구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남성	15.7	26.9
	여성	14.2	37.3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남성	18.6	14.3
	여성	21.3	18.3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남성	8.0	5.5
	여성	9.7	7.1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남성	57.9	57.7
	여성	64.2	67.2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과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대가 낮으면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의 경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60세 미만 연령대에 속하는 응답자는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각각 20.4%와 23.4%)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60대와 70대 이상 응답자들은 13.3%와 9.0%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중 또한 50세 미만이 38.7%, 50대는 33.6%로 3명 중 1명 이상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60대의 경우 18.9%가, 70세 이상은 9.1%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인 자녀에게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경우 5.0%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 또한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혼인 이전(손자녀도 없을 가능성도 높을 것임)이기 때문인 까닭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이다. 50대 응답자의 경우 11.5%가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0대와 70세 이상의 응답자는

각각 9.4%와 6.4%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낮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할수록 높음을 알 수 있는데 50세 미만의 경우 71.4%가, 50대와 60대는 각각 68.4%와 63.0%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절반을 약간 넘은 53.1%의 응답자가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낮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할 경우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이나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의 경우 50세 미만 응답자(25.7%)가 가장 높았으며, 50대와 60대의 경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지다가 70세 이상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각각의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0세 미만이 12.3%, 50대와 60대는 각각 18.3%와 27.0%였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9%가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의 경우 50세 미만은 2.3%가, 50대와 60대는 각각 4.8%와 4.9%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7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열 명 중 한 명가량(9.8%)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경우 50세 미만은 61.1%가 50대는 61.2%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60대의 경우 62.3%가, 70세 이상 연령층에 속하는 이들은 65.6%가 성인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Ⅷ-5〉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연령별)

(단위: %)

구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50세 미만	20.4	12.3
	50세 이상~60세 미만	23.4	18.3
	60세 이상~70세 미만	13.3	27.0
	70세 이상	9.0	52.9
가사 등 집안일 도움	50세 미만	38.7	25.7
	50세 이상~60세 미만	33.6	16.7
	60세 이상~70세 미만	18.9	13.5
	70세 이상	9.1	19.5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50세 미만	5.0	2.3
	50세 이상~60세 미만	11.5	4.8
	60세 이상~70세 미만	9.4	4.9
	70세 이상	6.4	9.8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50세 미만	71.4	61.1
	50세 이상~60세 미만	68.4	61.2
	60세 이상~70세 미만	63.0	62.3
	70세 이상	53.1	65.6

혼인상태별로는 네 가지 영역 모두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혼 또는 별거나 사별보다는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상태의 응답자에게서 높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의 경우 16.0%가 성인 자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는 12.8%가, 사별인 응답자들은 11.1%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22.0%, 이혼 또는 별거와 사별이 각각 15.6%와 14.6%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9.3%,

이혼 또는 별거와 사별인 응답자의 경우 각각 4.8%와 9.3%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에 대해서는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상태인 이들의 62.8%가 도움을 주고 있었고, 사별(60.3%), 이혼 또는 별거(49.9%) 순이었다.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사별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네 가지 영역 가운데 먼저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상태의 응답자는 26.8%가, 이혼 또는 별거와 사별의 경우 각각 23.5%와 59.1%가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은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14.2%, 이혼 또는 별거는 10.5%였으며, 사별 상태인 이들의 경우 27.9%가 성인 자녀로부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받고 있는 비율은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5.3%, 이혼 또는 별거와 사별이 각각 3.3%와 12.0%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상태에 있는 이들은 61.8%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51.2%가 도움을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사별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은 72.3%가 성인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었다.

〈표 Ⅷ-6〉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혼인상태별)

(단위: %)

구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6.0	26.8
	이혼 또는 별거	12.8	23.5
	사별	11.1	59.1
가사 등 집안일 도움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2.0	14.2
	이혼 또는 별거	15.6	10.5
	사별	14.6	27.9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3	5.3
	이혼 또는 별거	4.8	3.3
	사별	9.3	12.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62.8	61.8
	이혼 또는 별거	49.9	51.2
	사별	60.3	72.3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중졸 이하는 8.6%,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16.4%와 21.9로 집계되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중졸 이하가 10.7%로 가장 낮았으며, 고졸은 22.7, 초대졸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주고 있다는 비율 또한 중졸 이하가 6.6%로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10.2와 9.8%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경우 중졸 이하 응답자의 54.8%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졸의 경우 63.0%가,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는 69.0%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다는 비중은 중졸 이하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9.1%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졸 응답자의 경우 27.1%가, 초대졸 이상 졸업자의 경우 18.8%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중졸 이하가 19.5%로 가장 높았고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14.8%와 15.8%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의 8.7%가, 고졸 응답자의 5.9%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초대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4.0%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교적 높은 비율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경우에도 중졸 이하 응답자는 64.6%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초대졸 이상 응답자는 해당 비율이 63.1%와 60.3%로 나타났다.

〈표 Ⅷ-7〉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중졸 이하	8.6	49.1
	고등학교	16.4	27.1
	초대졸 이상	21.9	18.8
가사 등 집안일 도움	중졸 이하	10.7	19.5
	고등학교	22.7	14.8
	초대졸 이상	30.0	15.8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중졸 이하	6.6	8.7
	고등학교	10.2	5.9
	초대졸 이상	9.8	4.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중졸 이하	54.8	64.6
	고등학교	63.0	63.1
	초대졸 이상	69.0	60.3

가족의 소득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범주에 따라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가지 영역의 도움에 대해 본 연구에서 구분지은 6가지 가족소득 범주 중 가장 낮은 정도의 범주(=월평균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와 가장 높은 정도의 범주(=500만원 이상) 간의 응답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4.2%가,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할 경우 21.9%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해 그 차이가 17.7%p에 달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 또한 응답자의 가족소득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는 1.8%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할 경우 39.4%가 도움을 주고 있어 37.6%p의 차이를 보였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주고 있는 비율 또한 각각 1.8%와 12.7%로 10%p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주고 있는 비율 또한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는 41.2%가, 500만원 이상에 속해 있는 응답자는 71.4%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해 차이가 30.2%p에 달했다.

이어서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반면,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이나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48.7%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22.4%만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100만원 미만 응답자는 16.4%가, 100~2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19.5%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400~5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15.7%가,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21.1%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소득 범주에 따른 차이의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7.9%가,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6.8%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57.8%,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65.4%가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표 Ⅷ-8〉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100만원 미만	4.2	48.7
	100~200만원 미만	7.9	53.7
	200~300만원 미만	12.0	39.9
	300~400만원 미만	13.1	28.6
	400~500만원 미만	23.2	24.0
	500만원 이상	21.9	22.4
가사 등 집안일 도움	100만원 미만	1.8	16.4
	100~200만원 미만	4.9	19.5
	200~300만원 미만	10.7	10.1
	300~400만원 미만	13.4	13.8
	400~500만원 미만	23.6	15.7
	500만원 이상	39.4	21.1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100만원 미만	1.8	7.9
	100~200만원 미만	5.9	9.3
	200~300만원 미만	6.8	4.4
	300~400만원 미만	9.5	5.0
	400~500만원 미만	10.0	4.5
	500만원 이상	12.7	6.8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100만원 미만	41.2	57.8
	100~200만원 미만	53.6	66.0
	200~300만원 미만	62.5	67.3
	300~400만원 미만	61.0	61.2
	400~500만원 미만	65.8	61.1
	500만원 이상	71.4	65.4

다음은 성인 자녀의 특성별로 상호도움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남성 15.4%, 여성 14.1%)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성인 자녀가 기혼(9.5%)인 경우 비해 미혼(23.3%)일 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경제적 도움 제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 25.9%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해 비동거(11.0%)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율이 높았는데 성인 자녀가 비동거를 하고 있는 이들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령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 비동거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녀의 연령대별로 경제적 도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중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을 자녀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남성: 19.7%, 여성: 20.7%), 자녀가 기혼(7.3%) 상태인 응답자들에 비해 미혼(40.3%)인 경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56.6%)하고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7.6%)에 비해 성인 자녀에게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이 또한 자녀의 성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남성: 8.6%, 여성: 9.4%), 자녀가 기혼(7.8%) 상태인 응답자들에 비해 미혼(10.8%)인 경우 가족원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16.2%)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이 가족원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으며(6.5%),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족원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남성(58.7%)인 이들에 비해 여성(64.8%)인 응답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기혼(56.6%)인 응답자들에 비해 미혼(69.0%)인 경우 해당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잦은 접촉에 따른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의 높은 가능성을 반영하듯 동거(72.5%)하고 있는 이들이 비동거(57.6%) 상태의 응답자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반대로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자녀특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남성 34.0%, 여성 31.1%)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혼인상태별로는 성인 자녀가 기혼(37.4%)인 경우 비해 미혼(25.3%)일 때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성인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 32.1%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비율은 비동거(32.9%)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자녀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 자녀(18.7%)가 남성 자녀(14.8%)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자녀가 기혼(12.6%) 상태인 응답자들에 비해 미혼(22.7%)인 경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34.7%)하고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10.3%)에 비해 집안일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이 또한 자녀의 성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남성: 6.7%, 여성: 6.1%), 자녀가 기혼(6.3%) 상태인 응답자들과 미혼(6.6%)인 응답자들 간에도 가족원 돌봄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10.3%)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5.1%)이 가족원 돌봄에 도움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족원 돌봄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가 남성(59.8%)인 이들에 비해 여성(67.2%)인 응답자들에게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63.4%)과 미혼(62.6%)인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67.8%)하고 있는 이들이 비동거(61.4%) 상태의 응답자들에 비해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Ⅷ-9〉 성인 자녀와의 상호도움(자녀특성별)

(단위: 천명, %)

구분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전체	빈도		2,749	15,767	6,058	12,458
		구성비		14.8	85.2	32.7	67.3
	자녀 성별	남성	빈도	1,601	8,778	3,528	6,852
			구성비	15.4	84.6	34.0	66.0
		여성	빈도	1,148	6,988	2,530	5,606
			구성비	14.1	85.9	31.1	68.9
	자녀 혼인상태	기혼	빈도	1,072	10,243	4,233	7,082
			구성비	9.5	90.5	37.4	62.6
		미혼	빈도	1,677	5,524	1,825	5,376
			구성비	23.3	76.7	25.3	74.7
	자녀 동거여부	동거	빈도	1,228	3,510	1,520	3,219
			구성비	25.9	74.1	32.1	67.9
		비동거	빈도	1,521	12,256	4,539	9,239
			구성비	11.0	89.0	32.9	67.1
	자녀 연령대별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1,106	3,103	735	3,474
			구성비	26.3	73.7	17.5	82.5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1,014	6,236	1,857	5,393
			구성비	14.0	86.0	25.6	74.4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405	4,164	1,973	2,596
			구성비	8.9	91.1	43.2	56.8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210	1,788	1,170	828
			구성비	10.5	89.5	58.6	41.4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15	462	314	163
			구성비	3.2	96.8	65.8	34.2
		70세 이상	빈도	-	13	10	4
			구성비	-	100.0	71.5	28.5
가사 등 집안일 도움	전체	빈도		3,729	14,787	3,059	15,457
		구성비		20.1	79.9	16.5	83.5
	자녀 성별	남성	빈도	2,042	8,338	1,534	8,845
			구성비	19.7	80.3	14.8	85.2
		여성	빈도	1,688	6,449	1,524	6,612
			구성비	20.7	79.3	18.7	81.3

구분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자녀 혼인상태	기혼	빈도	824	10,491	1,421	9,894
			구성비	7.3	92.7	12.6	87.4
		미혼	빈도	2,906	4,295	1,638	5,563
			구성비	40.3	59.7	22.7	77.3
	자녀 동거여부	동거	빈도	2,682	2,056	1,642	3,096
			구성비	56.6	43.4	34.7	65.3
		비동거	빈도	1,047	12,730	1,416	12,361
			구성비	7.6	92.4	10.3	89.7
	자녀 연령대별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1,531	2,678	769	3,439
			구성비	36.4	63.6	18.3	81.7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1,523	5,726	997	6,253
			구성비	21.0	79.0	13.8	86.2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448	4,122	668	3,901
			구성비	9.8	90.2	14.6	85.4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203	1,795	449	1,549
			구성비	10.2	89.8	22.5	77.5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23	454	170	307
			구성비	4.9	95.1	35.6	64.4
		70세 이상	빈도	2	11	6	8
			구성비	14.4	85.6	41.6	58.4
가족원 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전체	빈도		1,658	16,858	1,190	17,326
		구성비		9.0	91.0	6.4	93.6
	자녀 성별	남성	빈도	890	9,490	691	9,689
			구성비	8.6	91.4	6.7	93.3
		여성	빈도	768	7,368	499	7,637
			구성비	9.4	90.6	6.1	93.9
	자녀 혼인상태	기혼	빈도	878	10,437	718	10,597
			구성비	7.8	92.2	6.3	93.7
		미혼	빈도	780	6,421	472	6,729
			구성비	10.8	89.2	6.6	93.4
	자녀 동거여부	동거	빈도	767	3,972	486	4,252
			구성비	16.2	83.8	10.3	89.7
		비동거	빈도	891	12,886	704	13,073
			구성비	6.5	93.5	5.1	94.9

구분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자녀 연령대별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484	3,725	214	3,994
			구성비	11.5	88.5	5.1	94.9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688	6,561	329	6,920
			구성비	9.5	90.5	4.5	95.5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339	4,230	314	4,256
			구성비	7.4	92.6	6.9	93.1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138	1,860	238	1,760
			구성비	6.9	93.1	11.9	88.1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9	468	92	386
			구성비	1.9	98.1	19.2	80.8
		70세 이상	빈도	-	13	3	10
			구성비	-	100.0	26.0	74.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전체	빈도		11,372	7,144	11,673	6,843
		구성비		61.4	38.6	63.0	37.0
	자녀 성별	남성	빈도	6,096	4,283	6,203	4,176
			구성비	58.7	41.3	59.8	40.2
		여성	빈도	5,276	2,860	5,470	2,666
			구성비	64.8	35.2	67.2	32.8
	자녀 혼인상태	기혼	빈도	6,407	4,908	7,169	4,146
			구성비	56.6	43.4	63.4	36.6
		미혼	빈도	4,966	2,235	4,504	2,697
			구성비	69.0	31.0	62.6	37.4
	자녀 동거여부	동거	빈도	3,436	1,303	3,212	1,527
			구성비	72.5	27.5	67.8	32.2
		비동거	빈도	7,937	5,841	8,462	5,316
			구성비	57.6	42.4	61.4	38.6
	자녀 연령대별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2,875	1,333	2,491	1,718
			구성비	68.3	31.7	59.2	40.8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4,630	2,620	4,548	2,702
			구성비	63.9	36.1	62.7	37.3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2,588	1,981	2,941	1,628
			구성비	56.6	43.4	64.4	35.6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1,077	921	1,354	644
			구성비	53.9	46.1	67.8	32.2

구분				성인 자녀에게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196	281	331	147
			구성비	41.1	58.9	69.3	30.7
		70세 이상	빈도	7	7	9	4
			구성비	49.7	50.3	67.9	32.1

2. 성인 자녀와의 관계 및 전반적 만족도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2023년 가족실태조사」부터는 하나의 문항(=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을 추가해 5개의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설계된 문항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①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②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③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④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와 함께 '⑤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을 추가해 총 다섯 가지 문항을 동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부정의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과 '긍정의 답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리고 '보통이다(보통이다)'로 재범주화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한 5점척도의 평균값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3.67점),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3.52점),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3.52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3.22점)가 가장 낮았다.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또한 동일한 순서로 집계되었는데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인 66.9%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65.4%),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55.6%),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54.4%),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46.5%)' 순으로 동의의 정도가 높았다.

〈표 Ⅷ-10〉 성인 자녀와의 관계

(단위: 천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빈도	4,590	5,314	8,613	18,516	3.22
	구성비	24.8	28.7	46.5	100.0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빈도	1,847	6,599	10,070	18,516	3.52
	구성비	10.0	35.6	54.4	100.0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빈도	1,044	5,087	12,384	18,516	3.72
	구성비	5.6	27.5	66.9	100.0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빈도	1,212	5,194	12,110	18,516	3.67
	구성비	6.5	28.1	65.4	100.0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빈도	1,886	6,342	10,287	18,516	3.52
	구성비	10.2	34.3	55.6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응답자의 특성(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별, 가족소득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후 응답대상 성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도 구분 지어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제시하였다. 그 중 먼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동의 수준이 높고, 성별간 응답의 평균값 차이도 비교적 큰 편이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남성 36.6%, 여성 54.3%, 17.7%p 차이)에서 성별간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남성 47.6%, 여성 59.7%, 12.1%p),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남성 48.8%, 여성 60.8%, 12.0%p),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남성 60.3%, 여성 72.0%, 11.7%p),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남성 59.3%, 여성 70.2%, 10.9%p)의 순으로 성별간 동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질문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대해 동의의 비율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남성 3.00점, 여성 3.39점, 0.39점 차이)에 대한 응답값의 평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남성 3.39점, 여성 3.62점, 0.23점 차이)나 '나는 자녀와 친밀

하다고 느낀다'(남성 3.59점, 여성 3.82점, 0.23점 차이)에 대해서도 성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의 경우 남녀 응답자의 평균이 각각 3.56점과 3.75점으로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0.19점 차이).

〈표 Ⅷ-11〉 성인 자녀와의 관계(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남성	33.1	30.3	36.6	100.0	3.00
	여성	18.3	27.4	54.3	100.0	3.39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남성	12.4	40.0	47.6	100.0	3.40
	여성	8.1	32.2	59.7	100.0	3.62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성	7.6	32.1	60.3	100.0	3.59
	여성	4.1	23.8	72.0	100.0	3.82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남성	8.7	31.9	59.3	100.0	3.56
	여성	4.8	25.0	70.2	100.0	3.75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남성	13.1	38.1	48.8	100.0	3.39
	여성	7.9	31.3	60.8	100.0	3.62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이어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균으로 살폈을 때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50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5%가 이에 동의(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하였으나 50대와 60대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각각 48.7%와 43.7%로 집계되었고, 70세 이상의 연령층에 속하는 이들은 47.5%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척도 응답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50세 미만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와 60대는 각각 3.29점과 3.16점이었다.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해서는 50세 미만 응답자의 59.4%가, 50대 응답자는 56.2%가 동의하였다. 60대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52.9%였고, 70세 이상의 경우 54.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평균 또한 50세 미만이 3.73점

으로 가장 높았고, 높은 연령대에 속할수록 평균이 낮았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살펴보면 50세 미만 응답자의 3/4이 넘는 77.6%가 이에 동의하였고, 50대는 69.7%, 60대는 65.4%가 이에 동의하였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65.8%였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50세 미만 응답자의 평균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와 60대는 각각 3.77점과 3.69점이었으며, 70세 이상 응답자들의 평균은 3.70점었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 또한 50세 미만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7.4%), 50대와 60대 응답자들은 각각 67.1%와 64.4%가 동의하였다. 평균으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응답자의 평균은 3.74점이었고, 50대는 3.71점, 60대와 70세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각각 3.65점 수준이었다.

끝으로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50세 미만 응답자는 60.5%가 이에 동의하였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6.0%와 54.2%가 동의하였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56.5%였다. 평균을 살펴보면 50세 미만 응답자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3.52점, 60대는 3.50점으로 집계되었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3.53점이었다.

〈표 Ⅷ-12〉 성인 자녀와의 관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50세 미만	20.0	23.5	56.5	100.0	3.40
	50세 이상~60세 미만	21.3	30.0	48.7	100.0	3.29
	60세 이상~70세 미만	27.4	28.9	43.7	100.0	3.16
	70세 이상	24.9	27.6	47.5	100.0	3.23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50세 미만	2.7	37.9	59.4	100.0	3.73
	50세 이상~60세 미만	8.6	35.2	56.2	100.0	3.56
	60세 이상~70세 미만	10.1	37.0	52.9	100.0	3.50
	70세 이상	11.3	34.4	54.3	100.0	3.50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50세 미만	1.7	20.6	77.6	100.0	3.92
	50세 이상~60세 미만	3.8	26.5	69.7	100.0	3.77
	60세 이상~70세 미만	6.2	28.4	65.4	100.0	3.69
	70세 이상	6.7	27.5	65.8	100.0	3.7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50세 미만	4.5	28.1	67.4	100.0	3.74
	50세 이상~60세 미만	4.6	28.4	67.1	100.0	3.71
	60세 이상~70세 미만	7.4	28.2	64.4	100.0	3.65
	70세 이상	7.4	27.6	65.0	100.0	3.65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50세 미만	4.9	34.6	60.5	100.0	3.63
	50세 이상~60세 미만	9.7	34.3	56.0	100.0	3.52
	60세 이상~70세 미만	10.5	35.2	54.2	100.0	3.50
	70세 이상	10.4	33.0	56.5	100.0	3.5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 다섯 가지 질문 모두 '이혼 또는 별거〈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사별' 순으로 동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5점척도의 평균으로 환산한 점수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은 사별(55.4%)〉유배우(44.9%)〉이혼 또는 별거(39.4%) 순으로 집계되었다.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 또한 사별 상태의 응답자들의 평균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3.20점), 이혼 또는 별거(2.93점)의 순이었다.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 또한 사별(61.4%) 상태의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았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상태의 응답자 가운데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6%가 이에 동의하였고,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은 44.0%가 이에 동의하였다. 평균 또한 사별(3.62점)〉유배우(3.53점)〉이혼 또는 별거(3.20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사별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71.1%가 동의하였으며, 유배우 상태인 응답자들 또한 67.6%가 이에 동의하여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8.8%만 이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사별 상태의 응답자는 3.79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평균은 3.74점이었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의 평균 또한 3.28점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크게 낮았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사별 상태와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들은 각각 69.3%와 65.4%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은 54.4%만 이에 동의해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사별과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가 각각 3.74점과 3.68점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혼 또는 별거(3.3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 또한 사별이 61.0%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55.2%), 이혼 또는 별거(44.4%)가 뒤를 이었다. 5점척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별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는 그보다 약간 낮은 3.52점이었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은 3.15점으로 두 집단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Ⅷ-13〉 성인 자녀와의 관계(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5.1	30.0	44.9	100.0	3.20
	이혼 또는 별거	37.9	22.7	39.4	100.0	2.93
	사별	18.8	25.7	55.4	100.0	3.40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8.7	37.8	53.6	100.0	3.53
	이혼 또는 별거	23.7	32.3	44.0	100.0	3.20
	사별	9.9	28.7	61.4	100.0	3.62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3	28.1	67.6	100.0	3.74
	이혼 또는 별거	21.0	30.2	48.8	100.0	3.28
	사별	5.1	23.8	71.1	100.0	3.79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5.4	29.2	65.4	100.0	3.68
	이혼 또는 별거	19.3	26.3	54.4	100.0	3.32
	사별	6.4	24.3	69.3	100.0	3.74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0	35.8	55.2	100.0	3.52
	이혼 또는 별거	26.2	29.4	44.4	100.0	3.15
	사별	8.7	30.2	61.0	100.0	3.63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폈을 때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높거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나 평균이 낮은 등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각각의 문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은 중졸 이하(47.0%)〉초대졸 이상(46.5%)〉고등학교(46.2%) 순으로 집계되었다. 5점척도의 평균값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 각각 3.23점으로 같았으며, 동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의 평균은 3.20점으로 오히려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고졸(54.8%)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았다. 중졸 이하와 초대졸 이상의 응답자들은 각각 54.0%와 53.9%가 이에 동의하였다.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집단의 평균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대졸 이상(3.52점), 중졸 이하(3.48점)가 뒤를 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은 교육수준이 높은 정도의 범주에 속할 경우 이에 대한 동의의 가능성이나 평균이 높았다. 그중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은 68.1%가 이에 동의하였고, 고졸은 67.6%가, 중졸 이하는 65.2%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을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은 3.75점이었으며, 고졸과 중졸 이하는 각각 3.73점과 3.68점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중졸 이하가 55.9%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55.8%), 초대졸 이상(54.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는 중졸 이하와 고졸이 각각 3.52점 수준이었고, 초대졸 이상은 3.50점으로 집계되었다.

〈표 Ⅷ-14〉 성인 자녀와의 관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중졸 이하	26.8	26.1	47.0	100.0	3.20
	고등학교	23.5	30.3	46.2	100.0	3.23
	초대졸 이상	24.7	28.8	46.5	100.0	3.23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중졸 이하	12.3	33.7	54.0	100.0	3.48
	고등학교	8.2	37.0	54.8	100.0	3.54
	초대졸 이상	10.6	35.5	53.9	100.0	3.52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중졸 이하	7.3	27.5	65.2	100.0	3.68
	고등학교	4.8	27.6	67.6	100.0	3.73
	초대졸 이상	4.8	27.1	68.1	100.0	3.75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중졸 이하	7.9	27.7	64.4	100.0	3.64
	고등학교	5.8	28.6	65.6	100.0	3.67
	초대졸 이상	6.1	27.3	66.6	100.0	3.70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중졸 이하	10.1	34.0	55.9	100.0	3.52
	고등학교	9.6	34.5	55.8	100.0	3.52
	초대졸 이상	11.7	34.0	54.3	100.0	3.5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가족소득에 대한 몇 가지 범주별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살핀 결과를 보면 비록 완전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이 높은 범주에 속한 경우 동의의 정도나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할 경우 37.4%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동의 비율은 44.0%에 그쳤다. 반면,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18.6%에 그쳤으며, 52.2%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2.99점이었으나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수록 평균 또한 높아져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이들의 평균은 3.36점으로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 비해 0.37점 높았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살펴보면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은 17.2%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비율은 56.7% 수준

이었다. 그보다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낮아지고, 동의의 비율은 높아졌는데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할 경우 3.2%만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71.4%는 해당 질문에 동의를 표하였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는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3.41점, 300~4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3.65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할 경우의 평균은 3.78점으로 다른 범주에 비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위와는 반대되는 방향성의 질문인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차이의 폭은 그보다는 크지 않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은 18.0%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비율은 54.4%였다. 해당 질문 또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차츰 낮아지고, 동의의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우 7.6%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비율(18.0%)에 비해 절반 이하였다. 반면 동의 비율은 59.9%로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동의 비율(54.4%)에 비해 5.5%p 높았다.

〈표 Ⅷ-15〉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100만원 미만	37.4	18.6	44.0	100.0	2.99
	100~200만원 미만	27.5	25.5	47.0	100.0	3.19
	200~300만원 미만	20.7	29.9	49.3	100.0	3.31
	300~400만원 미만	25.5	27.1	47.3	100.0	3.24
	400~500만원 미만	21.1	28.9	50.0	100.0	3.30
	500만원 이상	18.6	29.2	52.2	100.0	3.36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100만원 미만	23.0	30.9	46.2	100.0	3.25
	100~200만원 미만	14.5	31.9	53.6	100.0	3.46
	200~300만원 미만	10.7	34.0	55.3	100.0	3.52
	300~400만원 미만	8.2	35.8	55.9	100.0	3.54
	400~500만원 미만	8.7	34.9	56.4	100.0	3.56
	500만원 이상	6.0	33.2	60.8	100.0	3.6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100만원 미만	17.1	22.9	60.1	100.0	3.48
	100~200만원 미만	8.9	26.9	64.2	100.0	3.66
	200~300만원 미만	5.7	28.9	65.4	100.0	3.69
	300~400만원 미만	6.0	26.5	67.5	100.0	3.72
	400~500만원 미만	5.4	26.8	67.8	100.0	3.75
	500만원 이상	3.5	24.6	72.0	100.0	3.82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17.2	26.2	56.7	100.0	3.41
	100~200만원 미만	7.9	24.7	67.4	100.0	3.67
	200~300만원 미만	7.1	25.7	67.2	100.0	3.69
	300~400만원 미만	6.6	29.7	63.6	100.0	3.65
	400~500만원 미만	5.5	27.6	66.9	100.0	3.69
	500만원 이상	3.2	25.4	71.4	100.0	3.78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18.0	27.6	54.4	100.0	3.39
	100~200만원 미만	12.6	31.0	56.5	100.0	3.49
	200~300만원 미만	12.3	31.2	56.4	100.0	3.51
	300~400만원 미만	10.5	35.5	53.9	100.0	3.52
	400~500만원 미만	8.6	38.0	53.3	100.0	3.51
	500만원 이상	7.6	32.6	59.9	100.0	3.61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이어서 성인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또한 성인 자녀의 성별, 혼인상태, 동거여부, 연령대를 기준으로 '부정의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과 '긍정의 답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리고 '보통이다(보통이다)'로 재범주화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한 5점척도의 평균값도 제시하였다.

성인 자녀의 특성별로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값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자녀일 경우 동의의 비율이나 평균이 높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응답자들은 41.6%가 이에

동의하였고, 평균은 3.12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여성 성인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은 52.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11.2%p 더 높았으며, 평균 또한 3.35점으로 0.23점 더 높았다.

자녀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보다는 미혼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나 평균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혼 자녀에 대해 응답을 한 경우 46.2%가 이에 동의하였고, 25.8%는 동의하지 않았다. 5점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균은 3.20점이었다. 반면 미혼 성인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의 결과에서는 23.3%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 비율은 47.1%로 기혼자녀에 비해 동의의 비율이 0.9%p 더 높았다. 5점척도를 기준으로 한 응답의 평균값 또한 3.25점으로 미혼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의 응답 평균에 비해 0.05점 더 높았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이상 자녀의 경우 높은 정도의 연령범주에 속해 있을 경우 동의의 정도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자녀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45.7%가 동의하였으며, 50대와 60대는 각각 51.5%와 56.4%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 자녀가 30대에 속한 응답자의 평균은 3.20점이었고, 50대와 60대에 속한 경우에는 각각 3.28점과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70세를 넘는 경우 3.87점을 기록하는 등 자녀가 높은 정도의 연령범주에 속해 있을 경우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해당 성인 자녀가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기혼보다는 미혼인 경우, 비동거보다는 동거인 경우에 동의의 비율 또는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30~40대 자녀의 경우 각 질문들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자녀가 50대 이상인 경우 다시 동의의 비율이나 평균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중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남성 성인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은 62.5%가 이에 동의하였고, 평균은 3.6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성인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은 그보다 10.0%p 높은 72.5%가 동의하였으며, 평균 또한 3.81점으로 0.17점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인 자녀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성인 자녀가 기혼보다는 미혼일 경우 동의 비율이나 평균이 조금 더 높았다. 기혼 자녀에 대해 응답을 한 경우 66.2%는 동의를, 6.3%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5점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의 평균은 3.69점이었다. 반면 미혼 성인 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4.6%만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 비율은 67.9%로 기혼자녀에 비해 동의의 비율이 1.7%p 높았다. 5점척도를 기준으로 한 응답의 평균값 또한 3.75점으로 미혼자녀를 염두에 두고 응답한 이들의 응답 평균에 비해 0.06점 더 높았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25세 이상~30세 미만은 68.2%가 동의하였으며, 30대(65.6%), 40대(66.7%)는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0대 이후 다시 높아져 50대는 68.7%가, 60대는 69.3%가 동의하였다. 평균(5점척도)으로 살폈을 때도 자녀가 25세 이상~30세 미만은 3.76점이었고, 30대(3.70점), 40대(3.69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녀가 50대인 응답자들의 평균은 3.77점으로 다시 높아졌으며, 60대인 경우에도 3.7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녀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응답자들의 평균은 3.79점으로 집계되었다.

〈표 Ⅷ-16〉 성인 자녀와의 관계(자녀특성별)

(단위: 천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전체	빈도		4,590	5,314	8,613	18,516	3.22
		구성비		24.8	28.7	46.5	100.0	
	자녀 성별	남성	빈도	2,958	3,103	4,319	10,380	3.12
			구성비	28.5	29.9	41.6	100.0	
		여성	빈도	1,631	2,211	4,294	8,136	3.35
			구성비	20.0	27.2	52.8	100.0	
	자녀 혼인 상태	기혼	빈도	2,915	3,177	5,223	11,315	3.20
			구성비	25.8	28.1	46.2	100.0	
		미혼	빈도	1,675	2,136	3,390	7,201	3.25
			구성비	23.3	29.7	47.1	100.0	
	자녀 동거 여부	동거	빈도	888	1,401	2,450	4,738	3.36
			구성비	18.7	29.6	51.7	100.0	
		비동거	빈도	3,702	3,913	6,163	13,777	3.17
			구성비	26.9	28.4	44.7	100.0	
	자녀 연령대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969	1,286	1,954	4,209	3.24
			구성비	23.0	30.6	46.4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1,889	2,047	3,313	7,249	3.20
			구성비	26.1	28.2	45.7	10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1,178	1,355	2,036	4,569	3.20
			구성비	25.8	29.7	44.6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451	518	1,029	1,998	3.28
			구성비	22.6	26.0	51.5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102	106	269	478	3.32
			구성비	21.4	22.2	56.4	100.0	
		70세 이상	빈도	1	1	11	13	3.87
			구성비	8.1	8.4	83.5	100.0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전체	빈도		1,847	6,599	10,070	18,516	3.52
		구성비		10.0	35.6	54.4	100.0	
	자녀 성별	남성	빈도	1,244	3,893	5,243	10,380	3.45
			구성비	12.0	37.5	50.5	100.0	
		여성	빈도	603	2,707	4,827	8,136	3.61
			구성비	7.4	33.3	59.3	100.0	
	자녀 혼인 상태	기혼	빈도	1,248	4,032	6,035	11,315	3.49
			구성비	11.0	35.6	53.3	100.0	
		미혼	빈도	599	2,567	4,035	7,201	3.57
			구성비	8.3	35.7	56.0	100.0	
	자녀 동거 여부	동거	빈도	270	1,562	2,906	4,738	3.67
			구성비	5.7	33.0	61.3	100.0	
		비동거	빈도	1,576	5,037	7,164	13,777	3.47
			구성비	11.4	36.6	52.0	100.0	
	자녀 연령대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362	1,493	2,354	4,209	3.56
			구성비	8.6	35.5	55.9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702	2,764	3,783	7,249	3.50
			구성비	9.7	38.1	52.2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481	1,556	2,533	4,569	3.51
			구성비	10.5	34.0	55.4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223	615	1,160	1,998	3.58
			구성비	11.2	30.8	58.1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77	167	233	478	3.37
			구성비	16.2	35.0	48.8	10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70세 이상	빈도	1	5	7	13	3.55
			구성비	9.9	37.0	53.1	100.0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전체	빈도		1,044	5,087	12,384	18,516	3.72
		구성비		5.6	27.5	66.9	100.0	
	자녀 성별	남성	빈도	679	3,216	6,484	10,380	3.64
			구성비	6.5	31.0	62.5	100.0	
		여성	빈도	365	1,871	5,900	8,136	3.81
			구성비	4.5	23.0	72.5	100.0	
	자녀 혼인 상태	기혼	빈도	715	3,105	7,494	11,315	3.69
			구성비	6.3	27.4	66.2	100.0	
		미혼	빈도	329	1,982	4,890	7,201	3.75
			구성비	4.6	27.5	67.9	100.0	
	자녀 동거 여부	동거	빈도	162	1,214	3,363	4,738	3.81
			구성비	3.4	25.6	71.0	100.0	
		비동거	빈도	883	3,873	9,021	13,777	3.68
			구성비	6.4	28.1	65.5	100.0	
	자녀 연령대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178	1,158	2,872	4,209	3.76
			구성비	4.2	27.5	68.2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409	2,086	4,754	7,249	3.70
			구성비	5.6	28.8	65.6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319	1,205	3,046	4,569	3.69
			구성비	7.0	26.4	66.7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93	532	1,373	1,998	3.77
			구성비	4.7	26.6	68.7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45	101	331	478	3.70
			구성비	9.5	21.2	69.3	100.0	
		70세 이상	빈도	-	5	9	13	3.79
			구성비	-	34.9	65.1	100.0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빈도		1,212	5,194	12,110	18,516	3.67
		구성비		6.5	28.1	65.4	100.0	
	자녀 성별	남성	빈도	781	3,100	6,498	10,380	3.62
			구성비	7.5	29.9	62.6	10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여성	빈도	431	2,094	5,612	8,136	3.73
			구성비	5.3	25.7	69.0	100.0	
	자녀 혼인 상태	기혼	빈도	855	3,039	7,421	11,315	3.65
			구성비	7.6	26.9	65.6	100.0	
		미혼	빈도	357	2,155	4,689	7,201	3.69
			구성비	5.0	29.9	65.1	100.0	
	자녀 동거 여부	동거	빈도	199	1,354	3,185	4,738	3.72
			구성비	4.2	28.6	67.2	100.0	
		비동거	빈도	1,013	3,840	8,924	13,777	3.65
			구성비	7.4	27.9	64.8	100.0	
	자녀 연령대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199	1,213	2,796	4,209	3.70
			구성비	4.7	28.8	66.4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511	2,101	4,638	7,249	3.65
			구성비	7.0	29.0	64.0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295	1,259	3,015	4,569	3.67
			구성비	6.5	27.6	66.0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156	481	1,360	1,998	3.69
			구성비	7.8	24.1	68.1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50	138	289	478	3.54
			구성비	10.6	28.8	60.6	100.0	
		70세 이상	빈도	-	2	12	13	4.03
			구성비	-	11.7	88.3	100.0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빈도		1,886	6,342	10,287	18,516	3.52
		구성비		10.2	34.3	55.6	100.0	
	자녀 성별	남성	빈도	1,241	3,700	5,439	10,380	3.46
			구성비	12.0	35.6	52.4	100.0	
		여성	빈도	646	2,643	4,848	8,136	3.59
			구성비	7.9	32.5	59.6	100.0	
	자녀 혼인 상태	기혼	빈도	1,235	3,805	6,275	11,315	3.51
			구성비	10.9	33.6	55.5	100.0	
		미혼	빈도	652	2,537	4,012	7,201	3.53
			구성비	9.0	35.2	55.7	10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자녀 동거 여부	동거	빈도	356	1,619	2,763	4,738	3.58
			구성비	7.5	34.2	58.3	100.0	
		비동거	빈도	1,530	4,723	7,524	13,777	3.49
			구성비	11.1	34.3	54.6	100.0	
	자녀 연령대	25세 이상 ~30세 미만	빈도	381	1,453	2,375	4,209	3.53
			구성비	9.1	34.5	56.4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빈도	831	2,545	3,873	7,249	3.47
			구성비	11.5	35.1	53.4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빈도	418	1,632	2,519	4,569	3.55
			구성비	9.1	35.7	55.1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빈도	194	567	1,237	1,998	3.58
			구성비	9.7	28.4	61.9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빈도	63	142	272	478	3.49
			구성비	13.1	29.8	57.1	100.0	
		70세 이상	빈도	-	3	11	13	4.05
			구성비	-	21.5	78.5	100.0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질문한 5개 항목 가운데 이전의 두 차례 조사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동일한) 4가지 항목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2023년 조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이전의 조사에 비해 모든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5년 조사에서의 평균(2.80점)이나 2020년 조사에서의 평균(2.96점)에 비해 각각 0.42점과 0.26점 높게 나타났다.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 또한 2020년 조사에서는 3.37점이었는데 3.52점으로 0.15점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2020년 조사에서 평균 3.58점이던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 또한 2023년 조사에서는 0.14점 더 높은

3.72점으로 집계되었다.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2015년 조사 결과(3.39점)나 2020년 조사 결과(3.43점)에 비해 0.1점 안팎으로 더 높은 3.52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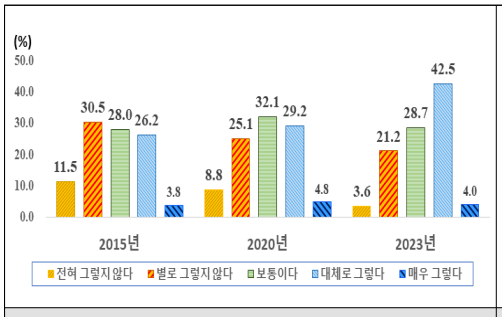
〈표 Ⅷ-17〉 성인 자녀와의 관계 정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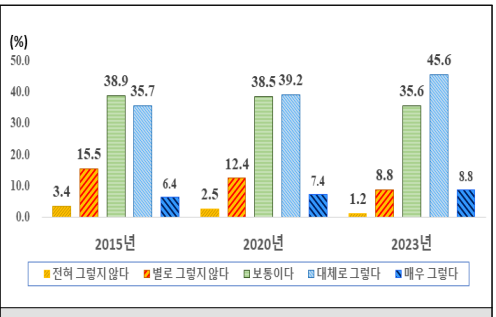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20년	2023년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2.80	2.96	3.22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26	3.37	3.52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3.46	3.58	3.72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	-	3.67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3.39	3.43	3.52

이전의 두 차례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와 함께 비교 가능한 네 가지 문항 모두 긍정적인 응답(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체로 그렇다'를 꼽은 이들의 비중 증가가 눈에 띄는데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015년 26.2%, 2020년 29.2%가 '대체로 그렇다'를 꼽았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이를 선택한 이들이 42.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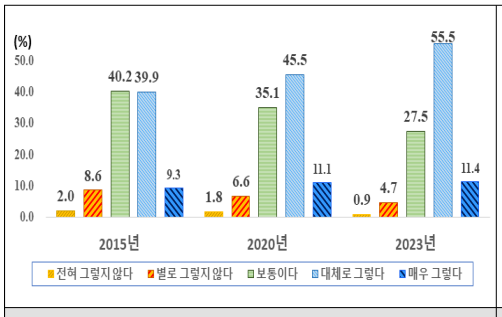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의 응답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대체로 그렇다'를 꼽은 이들의 비중은 35.7%('15년)→39.2%('20년)→45.6%('23년)으로 높아졌다. 긍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값 또한 '대체로 그렇다'를 선택한 이들만 놓고 보았을 때 2015년 39.9%에서 2020년 45.5%로 높아졌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절반을 넘어서는 55.5% 수준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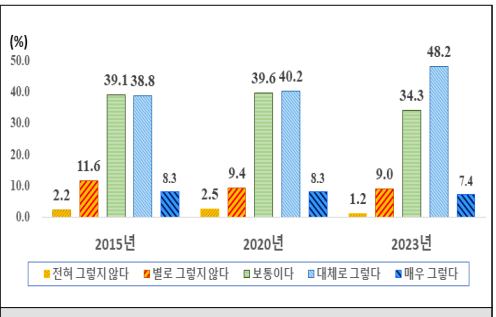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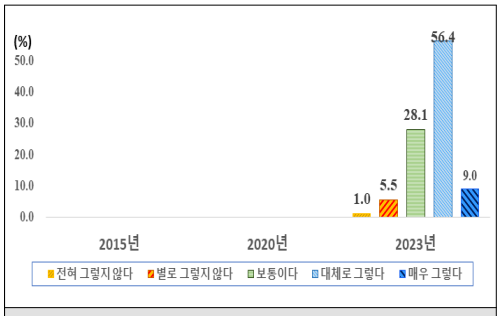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림 Ⅷ-1] 성인 자녀와의 관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3.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은 만남과 연락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만남과 연락에 대해서 각각 '①거의 매일~⑤거의 하지 않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보기 항목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응답을 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가운데 만나는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42.2%)이 가장 많았고, '일 년에 몇 번(35.0%)'이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10.3%)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10.1%)'을 꼽은 이들의 비율은 10명 중 1명 꼴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2.4%는 성인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음'을 선택하였다.

이어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47.2%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26.3%)', '거의 매일(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표 Ⅷ-18〉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단위: 천명,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만나는 정도	빈도	1,665	1,633	6,823	5,657	386	16,164
	구성비	10.3	10.1	42.2	35.0	2.4	100.0
연락 정도	빈도	3,135	7,638	4,252	945	213	16,183
	구성비	19.4	47.2	26.3	5.8	1.3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를 응답자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만나는 정도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구분 지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한 달에 한두 번'(40.6%)이 가장 많았고, '일 년에 몇 번(37.4%)', '거의 매일'(9.8%) 순으로 집계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비율은 8.9%였으며, 3.4%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 년에 몇 번(33.1%)', '일주일에 한두 번' (11.1%)이 뒤를 이었다. 10.7%는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1.6%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연락을 취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락 정도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거의 매일'이 13.8%, '일주일에 한두 번'은 46.2%로 60.0%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거의 매일'이 23.7%, '일주일에 한두 번'은 48.0%로 71.7%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다 뜸한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31.1%는 '한 달에 한두 번', 7.0%는 '일 년에 몇 번' 정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9%였다. 여성의 경우 22.5%는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을 꼽은 비율은 5.0%였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0.9%로 남성 응답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Ⅷ-19〉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성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만나는 정도	남성	9.8	8.9	40.6	37.4	3.4	100.0
	여성	10.7	11.1	43.5	33.1	1.6	100.0
연락 정도	남성	13.8	46.2	31.1	7.0	1.9	100.0
	여성	23.7	48.0	22.5	5.0	0.9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연령대별로 나누어 만나는 정도를 살폈을 때 연령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구분 지은 네 가지 연령대(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 모두에서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거의 만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의 매일' 연락을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과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당 범주를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락 정도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모든 연령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절반에 가까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50대 미만(=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의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거의 매일〉한 달에 한두 번〉일 년에 몇 번〉거의 하지 않음' 순이었고, 60대 이상(=60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한 달에 한두 번〉거의 매일〉일 년에 몇 번〉거의 하지 않음' 순으로 조금 달리 나타났다.

50세 미만 응답자의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연락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꼽은 비율이 44.3%로 가장 높았고, '거의 매일'(32.5%), '한 달에 한두 번'(15.9%), '일 년에 몇 번'(4.8%)이 뒤를 이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2.5%였다. 60세 이상~70세 미만에 속하는 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이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한두 번'(27.2%), '거의 매일'(16.6%), '일 년에 몇 번'(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따로 사는 자녀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1%를 차지하였다.

〈표 Ⅷ-20〉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연령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만나는 정도	50세 미만	28.9	9.8	30.9	30.0	0.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9.0	8.7	40.3	29.9	2.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8.7	10.0	44.2	34.9	2.2	100.0
	70세 이상	5.8	11.1	41.7	38.5	2.8	100.0
연락 정도	50세 미만	32.5	44.3	15.9	4.8	2.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28.1	45.8	20.7	3.8	1.6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6.6	48.8	27.2	6.3	1.1	100.0
	70세 이상	16.2	46.5	29.3	6.7	1.3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만나는 정도, 연락 정도)를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에 비해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나 사별 상태에 있는 이들이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빈도가 잦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만나는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고 응답한 비율이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 12.8%(=6.7%+6.1%)에 그쳤지만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상태의 응답자는 20.4%(=11.1%+9.3%), 사별

상태인 응답자들은 22.8%(=8.7%+14.1%)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일 년에 몇 번' 정도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은 39.3%로 유배우(35.1%)나 사별(33.2%) 상태에 있는 이들이 꼽은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은 14.1%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만나지 않고 있음에 비해 사별(2.2%), 유배우(1.3%)의 경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연락 정도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을 취한다고 응답한 이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 46.5% 수준(=13.4%+33.1%)으로 유배우 또는 사별 상태의 응답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유배우 상태의 응답자들은 67.4%(=18.5%+48.9%), 사별의 경우 70.9%(=24.5%+46.4%)로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또한 비교적 잦은 편이었다. 한편, 만나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락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가 7.9%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0.7%) 또는 사별(1.2%)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표 Ⅷ-21〉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혼인상태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만나는 정도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1.1	9.3	43.2	35.1	1.3	100.0
	이혼 또는 별거	6.7	6.1	33.8	39.3	14.1	100.0
	사별	8.7	14.1	41.8	33.2	2.2	100.0
연락 정도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8.5	48.9	27.2	4.7	0.7	100.0
	이혼 또는 별거	13.4	33.1	26.3	19.3	7.9	100.0
	사별	24.5	46.4	22.9	5.0	1.2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 응답자의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일 년에 몇 번 또는 거의 만나지 않음과 같이 만남의 빈도가 드물다는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락 정도 또한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초대졸 이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이 거의 매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락 정도 또한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 집단에 속해 있는 이들이 일 년에 몇 번 또는 거의 만나지 않음과 같이 연락의 빈도가 드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나는 정도에 대해 집계한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6.7%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10.6%와 17.3%가 이를 선택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고 한 비율은 중졸 이하가 11.2%,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9.4%와 9.9%였다. 모든 교육수준에 걸쳐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았는데 중졸 이하 응답자는 40.5%, 고졸은 44.2%, 초대졸 이상 응답자는 40.1%가 이를 선택하였다. 일 년에 몇 번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38.7%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33.8%와 30.5%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일 년에 몇 번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 이하가 3.0%,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2.1%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정도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또한 거의 매일 응답한다는 비중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7.4%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19.4%와 23.7%로 집계되었다. 연락 정도의 경우 모든 교육수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한다를 꼽은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중졸 이하가 47.6%,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47.2%와 46.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중졸 이하 응답자와 고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은 각각 26.7%가, 초대졸 이상 응답자는 24.0%가 이를 선택하였다. 일 년에 몇 번 정도 연락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비중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6.3%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5.7%와 5.2%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일 년에 몇 번 연락하고 있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졸 이하가 1.9%,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1.0%와 0.8%로 집계되었다.

〈표 Ⅷ-22〉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만나는 정도	중졸 이하	6.7	11.2	40.5	38.7	3.0	100.0
	고등학교	10.6	9.4	44.2	33.8	2.1	100.0
	초대졸 이상	17.3	9.9	40.1	30.5	2.1	100.0
연락 정도	중졸 이하	17.4	47.6	26.7	6.3	1.9	100.0
	고등학교	19.4	47.2	26.7	5.7	1.0	100.0
	초대졸 이상	23.7	46.3	24.0	5.2	0.8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만나는 정도를 가족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으며, 반대로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작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은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는 2.7%가,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각각 2.6%와 4.7%가 이를 선택하였다. 300~400만원과 400~500만원 집단에서는 각각 5.9%와 8.6%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수록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23.6%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 그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33.7%였으며,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각각 47.3%와 46.0%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들은 그보다 약간 낮은 38.9%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일 년에 몇 번 만나고 있음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는 41.6%가,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그보다 약간 낮은 37.1%와 33.7%로 집계되었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6.6%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일 년에 몇 번 만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소득이 낮은 정도의 집단에 속할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0만원 미만의 경우 8.7%가,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응답자는 1.3%만 이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만나는 연락 정도를 가족소득별로 구분해 살핀 결과에서도 만남의 정도에 비해 연락의 정도가 더욱 빈번함을 알 수 있는 가운데 거의 매일 연락을 취한다고 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가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낼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에게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는 18.7%가,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각각 16.3%와 17.8%로 나타났다. 300~400만원과 400~500만원 집단에서는 각각 21.0%와 21.4%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29.4%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수록 거의 매일 연락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가족소득 범주의 응답자에게서 일주일에 한두 번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0~5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우 40.5%였으며,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각각 49.9%와 48.1%로 분석되었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들은 절반 가까지(48.4%)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일 년에 몇 번 만나고 있음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는 10.4%가,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그보다 약간 낮은 8.1%와 6.6%로 집계되었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3.2%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일 년에 몇 번 정도 연락하고 있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소득이 낮은 정도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100만원 미만의 경우 5.0%가,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응답자는 0.7%만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Ⅷ-23〉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가족소득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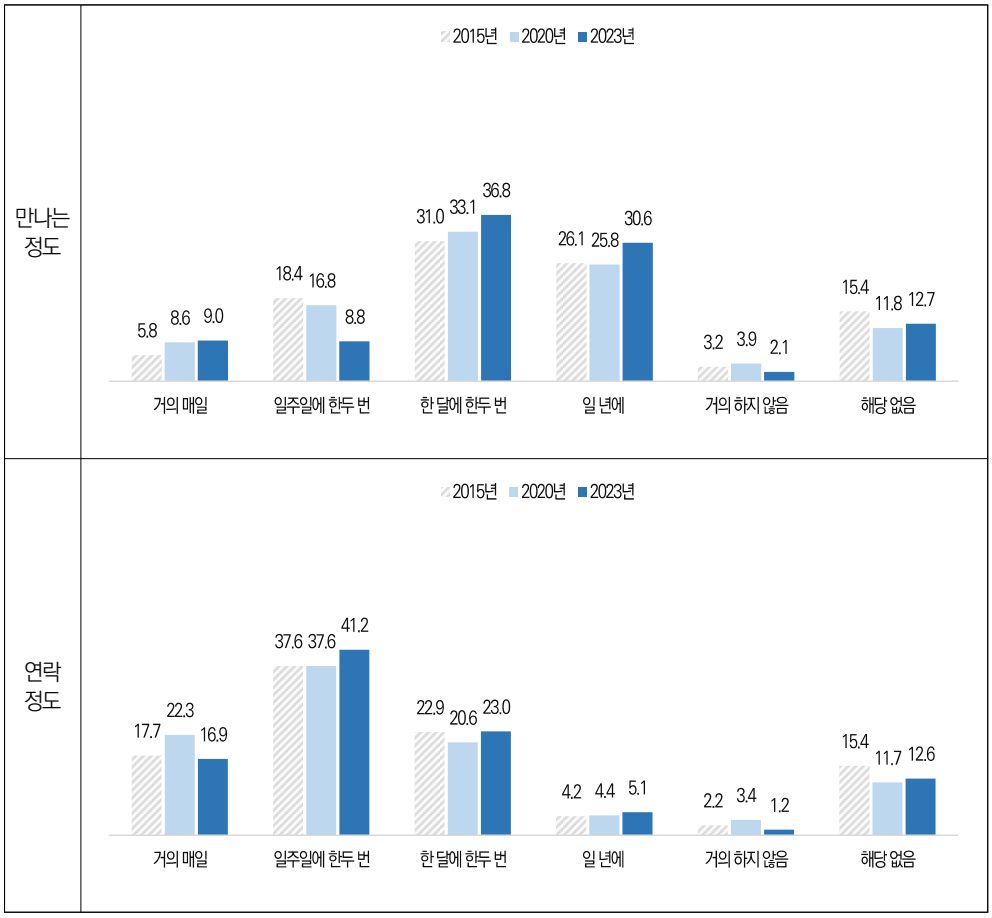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만나는 정도	100만원 미만	2.7	13.2	33.7	41.6	8.7	100.0
	100~200만원 미만	2.6	12.9	40.8	39.7	4.0	100.0
	200~300만원 미만	4.7	8.2	47.3	37.1	2.6	100.0
	300~400만원 미만	5.9	12.2	46.0	33.7	2.2	100.0
	400~500만원 미만	8.6	9.2	46.6	33.8	1.8	100.0
	500만원 이상	23.6	9.6	38.9	26.6	1.3	100.0
연락 정도	100만원 미만	18.7	40.5	25.4	10.4	5.0	100.0
	100~200만원 미만	16.3	47.1	25.8	8.1	2.7	100.0
	200~300만원 미만	17.8	49.9	24.6	6.6	1.1	100.0
	300~400만원 미만	21.0	48.1	23.7	6.1	1.1	100.0
	400~500만원 미만	21.4	45.7	26.9	4.9	1.2	100.0
	500만원 이상	29.4	48.4	18.3	3.2	0.7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한편,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만남 및 연락 정도)를 이전 두 차례의 조사 결과와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먼저 만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간 증가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꼽은 비율은 감소하였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한 비중은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31.0%와 33.1%로 집계되었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36.8% 수준으로 높아졌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일 년에 몇 번'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도 2023년 조사(30.6%)에서 이번에 비해 높아졌으며,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이들은 2015년(3.2%)과 2020년(3.9%)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2.1%).

이어 연락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 분포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매일'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5년(17.7%)과 2020년(22.3%) 조사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16.9%),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다.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하며 지낸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세 차례의 조사 모두 20%대 초반 정도를 나타내었고, 5% 안팎은 '일 년에 몇 번' 정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이들은 2015년(2.2%)과 2020년 조사(3.4%) 결과에 비해 2023년 조사(1.2%)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다.

(단위: %)



주: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해당 없음' 응답을 포함하여 분석 제시함.

[그림 Ⅷ-2]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접촉 빈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4.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점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로 살펴보았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 이상(76.8%)은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19.8%는 '보통'을 선택하였다. 응답자의 3.4%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하고 있었다. 5점척도의 평균으로 했을 때는 3.81점이었다.

이를 응답자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71.2%)에 비해서 여성(81.2%)이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불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4%와 2.6%로 남성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척도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남성은 3.71점, 여성은 3.88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이 0.17점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낮게, '불만족'의 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다. 50세 미만의 경우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 80.3%,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은 1.1%였으며, 50대(50세 이상~60세 미만)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2.2%와 78.9%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만족' 74.7%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4가지 연령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불만족'은 4.3%로 4가지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또는 사별인 이들에 비해서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게, 만족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유배우와 사별 상태의 응답자들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1.8%와 3.4%에 그쳤으나 사별인 응답자들은 19.5%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만족하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배우나 사별 상태인 응답자들은 각각 78.0%와 79.7%였으나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해당 비율이 56.3% 수준에 그쳤다. 5점척도의 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면 유배우 응답자들은 평균 3.83점, 사별은 3.88점이었으며,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이들의 평균은 3.35점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중졸 이하 응답자들은 4.9%가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하고 있음에 비해 고졸(2.7%)과 초대졸 이상(2.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들 가운데는 75.3%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각각 77.7%와 76.9%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3.79점)〈고졸(3.81점)〈초대졸 이상(3.83점) 순이었다.

가족소득 범주에 따라서는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 67.1%로 가장 낮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가족소득이 높은 점주에 속하는 이들일수록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의 경우 가족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의 경우 15.5%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할수록 해당 비율이 낮아져

500만원 이상에 속할 경우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점척도로 측정한 평균점수 또한 100만원 미만이 3.56점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평균은 3.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Ⅷ-24〉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천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전체		626	3,670	14,220	18,516	3.81
		3.4	19.8	76.8	100.0	
성별	남성	4.4	24.5	71.2	100.0	3.71
	여성	2.6	16.2	81.2	100.0	3.88
연령	50세 미만	1.1	18.5	80.3	100.0	3.91
	50세 이상~60세 미만	2.2	18.9	78.9	100.0	3.84
	60세 이상~70세 미만	3.6	19.6	76.9	100.0	3.81
	70세 이상	4.3	21.0	74.7	100.0	3.78
혼인 상태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8	20.2	78.0	100.0	3.83
	이혼 또는 별거	19.5	24.2	56.3	100.0	3.35
	사별	3.4	16.9	79.7	100.0	3.8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9	19.8	75.3	100.0	3.79
	고등학교	2.7	19.6	77.7	100.0	3.81
	초대졸 이상	2.7	20.3	76.9	100.0	3.83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15.5	17.4	67.1	100.0	3.56
	100~200만원 미만	6.5	17.1	76.4	100.0	3.78
	200~300만원 미만	2.8	22.6	74.5	100.0	3.80
	300~400만원 미만	3.4	21.0	75.6	100.0	3.79
	400~500만원 미만	1.9	19.9	78.2	100.0	3.84
	500만원 이상	1.4	17.5	81.1	100.0	3.89

주: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의 응답을 통해 살펴본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를 이전의 「가족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최근조사로 올수록 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의 평균(3.51점)에 비해 2020년 조사의 평균값(3.65점)이 0.14점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3.81점으로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0.30점, 2020년 조사에 비해서는 0.16점 높게 나타났다.

응답항목별로 각각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은 2015년 조사에서 8.5%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6.1%로 2.4%p 낮아졌고, 2023년 조사에서는 3.4%로 조금 더 낮아졌다. '보통'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 또한 37.2%(2015년 조사)→30.7%(2020년 조사)→19.8%(2023년 조사)로 최근으로 올수록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을 꼽은 이들의 비중은 54.2%→63.2%→76.8%로 2015년 조사에 비해서는 22.6%p,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13.6%p 높아지는 등 최근으로 올수록 성인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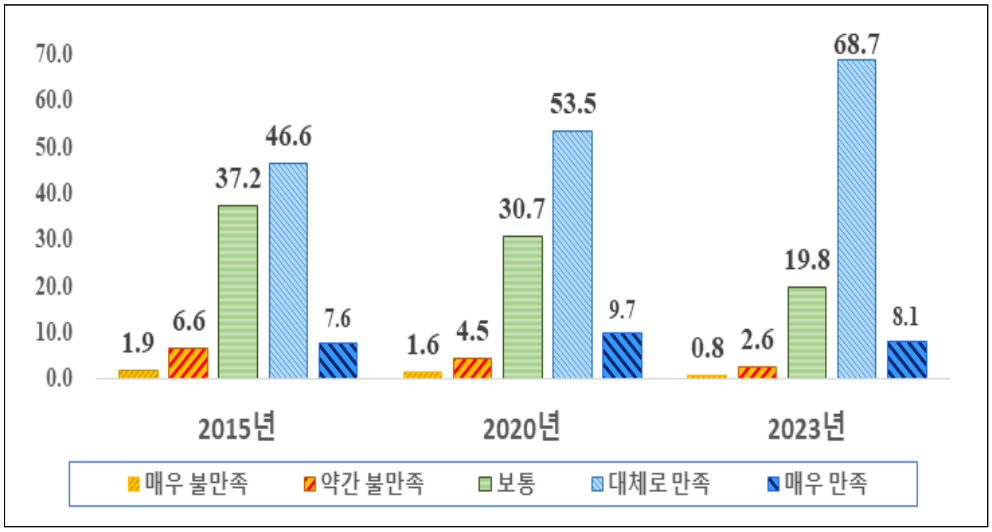
〈표 Ⅷ-25〉 성인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점, %)

구분	평균 (5점척도)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2015년	3.51	1.9	6.6	37.2	46.6	7.6	100.0
2020년	3.65	1.6	4.5	30.7	53.5	9.7	100.0
2023년	3.81	0.8	2.6	19.8	68.7	8.1	100.0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세 차례의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다는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체로 만족'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특히 높아졌다. 2015년 조사에서는 46.6%가, 2020년의 경우 절반을 약간 웃도는 53.5%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집계되었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가 넘은 68.7%가 '대체로 만족'을 꼽았다. 한편, '매우 만족'한다고 한 비율은 2015년과 2020년 각각 7.6%와 9.7%였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8.1%로 응답자 10명 중 1명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를 차지하였다.

(단위: %)



[그림 Ⅷ-3]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제2절.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제2절에는 앞선 제1절에서 살펴본 부모의 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와는 반대로 성인 자녀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 또한 크게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 상호도움 정도,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1.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연락 정도와 만나는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계신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연락 및 만남의 정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나의 부모님과 만남' 정도를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48.1%)는 '일 년에 몇 번'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명 가운데 4명가량(39.5%)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일주일에 한두 번(8.0%)', '거의 매일'(2.8%) 순으로 나타났으며, 1.7%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나의 부모님과 연락'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43.2%)이 가장 많았고, '한 달에 한두 번'(35.8%)이 뒤를 이었다. 10명 중 1명 정도(10.4%)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일 년에 몇 번' 연락하고 지내고 있었으며,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다는 비율은 그보다 약간 낮은 9.2%를 차지하였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비율은 1.5%였다.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는 만남과 연락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이상('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부모님과 만남'이나 '나의 부모님과 연락'에 비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남의 경우 절반이 넘은 57.8%가 '일 년에 몇 번'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이 32.6%로 뒤를 이었다.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율은 1.1%였으며, 3.1%는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어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이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이 각각 26.9%와 21.9%로 비교적 많은 이들이 이를 선택하였다. 응답자의 1.8%는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거의 매일 연락을 한다고 하였으며, 4.2%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다.

〈표 Ⅷ-26〉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단위: 천명,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나의 부모님과 만남	빈도	574	1,651	8,142	9,927	341	20,635
	구성비	2.8	8.0	39.5	48.1	1.7	100.0
나의 부모님과 연락	빈도	1,901	8,906	7,379	2,137	313	20,636
	구성비	9.2	43.2	35.8	10.4	1.5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빈도	187	881	5,415	9,596	509	10,369
	구성비	1.1	5.3	32.6	57.8	3.1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빈도	301	4,470	7,492	3,628	697	10,369
	구성비	1.8	26.9	45.2	21.9	4.2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연락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먼저 성별로 나누어 연락 정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과 접촉(만남이나 연락)이 빈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남보다는 연락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나의 부모님과 만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녀 모두 '일 년에 몇 번'이 절반에 가까운 49.6%와 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 달에 한두 번'이 각각 39.1%와 39.9%로 두 가지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가 남녀 모두 85%를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비율은 남성응답자는 7.0%, 여성은 9.0%였으며, '거의 매일'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2.6%와 3.0% 수준이었다. 남성응답자의 1.7%는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여성응답자의 1.6%는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과 연락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40.0%와 46.3%).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39.7%, 여성응답자 가운데는 3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 년에 몇 번'이 각각 11.7%와 9.0%로 뒤를 이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남성응답자의 6.6%와 여성의

11.8%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는 비율은 남성은 2.0%, 여성은 1.1%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중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남 빈도를 살펴보면 이 또한 남녀 모두 '일 년에 몇 번'이 59.0%와 56.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비중은 각각 31.6%와 33.8%로 뒤를 이었다.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비율은 남성이 5.0%, 여성응답자 가운데는 5.6%를 차지하였으며, '거의 매일'을 꼽은 비율은 각각 0.9%와 1.4%였다. 남성응답자 가운데 3.4%는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으며 지낸다고 하였고, 여성의 경우 해당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끝으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 각각 43.8%와 4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성은 22.9%, 여성응답자 가운데 31.5%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으며, '일 년에 몇 번'은 남녀응답자의 26.9%와 16.1%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따로 사는 남성응답자의 1.3%, 여성응답자의 2.4%는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으며,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는 비율은 각각 5.1%와 3.2%로 나타났다.

〈표 Ⅷ-27〉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성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나의 부모님과 만남	남성	2.6	7.0	39.1	49.6	1.7	100.0
	여성	3.0	9.0	39.9	46.6	1.6	100.0
나의 부모님과 연락	남성	6.6	40.0	39.7	11.7	2.0	100.0
	여성	11.8	46.3	31.8	9.0	1.1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남성	0.9	5.0	31.6	59.0	3.4	100.0
	여성	1.4	5.6	33.8	56.5	2.7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남성	1.3	22.9	43.8	26.9	5.1	100.0
	여성	2.4	31.5	46.8	16.1	3.2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 '나의 부모님과 만남'은 모든 연령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일 년에 몇 번'을 꼽은 응답자들의 합이 75%~95% 이르는 등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40대(=40세 이상~50세 미만)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0대 이후부터는 '일 년에 몇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한 비중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에서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30대 3.4%, 40대 2.1%, 50대 1.6% 등).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중 또한 25세 이상~30세 미만 계층에서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높은 정도의 연령대 범주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30대 2.0%, 40대 0.9% 등).

'나의 부모님과 연락'은 50대(=50세 이상~60세 미만)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응답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60대를 비교해보면 30대 응답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48.2%)', '한 달에 한두 번'(29.9%), '거의 매일'(13.0%), '일 년에 몇 번'(7.5%) 순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1.3%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은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60대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34.5%), '일 년에 몇 번'(17.9%), '거의 매일'(4.2%)이 뒤를 이었다. 60대 응답자 가운데 2.0%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

이어서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가운데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 및 30세 이상~40세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고(각각 47.1%와 45.6%), 40대 이상부터는 '일 년에 몇 번'이 가장 많았다. 40대의 경우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일 년에 몇 번' 만난다는 비중이 57.3%를 차지하였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68.4%와 70.7%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중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는 1.8%가,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1.3%와 0.6%로 나타나는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의 매일'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낮았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30대 응답자의 1.5%, 40대 응답자는 2.5%가 배우자의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6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5.0%와 11.1%로 나타났다.

끝으로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정도를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이 40%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30대 응답자들은 2.4%가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고, 40대와 50대 응답자들의 해당비율은 각각 3.4%와 5.2% 수준이었다. 60대와 70세 이상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 가운데 7.6%와 10.9%는 배우자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Ⅷ-28〉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연령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나의 부모님과 만남	25세 이상~30세 미만	8.1	9.7	47.5	28.7	6.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3.4	9.5	48.2	36.9	2.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1	7.8	40.6	48.6	0.9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6	7.1	30.7	59.6	0.9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8	5.4	27.7	63.6	1.5	100.0
	70세 이상	2.4	6.2	27.9	60.7	2.8	100.0
나의 부모님과 연락	25세 이상~30세 미만	22.0	41.4	24.7	5.8	6.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3.0	48.2	29.9	7.5	1.3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3	44.7	38.4	9.9	0.7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6.8	39.8	39.6	12.8	1.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4.2	34.5	41.5	17.9	2.0	100.0
	70세 이상	3.3	32.0	47.7	11.3	5.7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25세 이상~30세 미만	1.8	13.5	47.1	34.7	2.8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6	7.6	45.6	43.7	1.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3	4.7	34.2	57.3	2.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0.6	3.8	23.0	68.4	4.3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0.8	3.6	19.8	70.7	5.0	100.0
	70세 이상	0.2	5.9	19.3	63.5	11.1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25세 이상~30세 미만	2.8	35.2	44.6	12.2	5.2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8	34.6	44.9	15.3	2.4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6	27.2	47.2	20.6	3.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3	23.2	44.5	25.8	5.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6	16.9	41.5	32.4	7.6	100.0
	70세 이상	0.2	17.0	34.9	37.0	10.9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이어서 응답자의 교육수준별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를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나의 부모님과 만남'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구분 지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일 년에 몇 번'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한 달에 한두 번'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육수준 범주에서 두 범주의 응답자들의 합이 80% 안팎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 범주에 속할수록 '일 년에 몇 번'의 비중은 낮아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중졸 이하(6.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고졸 1.7%, 초대졸 이상 1.5%),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율 또한 중졸 이하(4.9%) 응답자들에게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응답결과를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4.1%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일 년에 몇 번' 만난다고 응답하였고, 42.7%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8.7%는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님을 뵙고 있었으며, 3.0%는 '거의 매일'을 꼽았다. 1.5%의 응답자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의 부모님과 연락'에 있어 중졸 이하의 경우 '거의 매일' 연락을 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비율은 32.6%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해당 비율이 각각 7.0%와 39.6%였다. 초대졸 이상의 경우 각각 10.1%와 45.0%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을 하는 비율이 중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각각 43.3%와 46.6%로 나타났으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경우 55.1%가 매주 한 번 이상 부모님과 연락을 취하며 지내고 있었다. 한편,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5.8%)이 고졸(1.8%)이나 초대졸 이상(1.3%) 집단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등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을 뵙는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 응답자는 27.7%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30.6%와 43.4%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응답자들의 60.7%는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빈도로 '일 년에 몇 번'을 꼽았으며, 고졸 응답자의 65.0%, 초대졸 이상은 54.5%가 이를 선택해 모든 교육수준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배우의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낮은 정도의 교육수준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11.5%)이 고졸(4.4%)이나 초대졸 이상(2.2%) 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거의 매일' 연락을 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고졸(1.6%)이나 초대졸 이상(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비율은 중졸 이하(17.9%)에 비해 고졸(23.8%) 또는 초대졸 이상(28.7%)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육수준별로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 졸 이하 응답자들의 36.7%, 고졸과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이들은 각각 44.1%와 45.9%가 배우자의 부모님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따로 사는 배우의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11.2%)이 고졸(5.8%)이나 초대졸 이상(3.3%) 집단에 비해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앞선 분석수치들을 종합해보면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일수록 나의 부모님 및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연락이나 만남 등의 접촉 빈도가 잦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Ⅷ-29〉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나의 부모님과 만남	중졸 이하	4.9	8.9	21.9	57.9	6.5	100.0
	고등학교	2.1	6.4	33.3	56.5	1.7	100.0
	초대졸 이상	3.0	8.7	42.7	44.1	1.5	100.0
나의 부모님과 연락	중졸 이하	10.7	32.6	34.6	16.3	5.8	100.0
	고등학교	7.0	39.6	38.4	13.2	1.8	100.0
	초대졸 이상	10.1	45.0	34.6	8.9	1.3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중졸 이하	3.3	5.7	18.7	60.7	11.5	100.0
	고등학교	0.9	4.5	25.2	65.0	4.4	100.0
	초대졸 이상	1.2	5.7	36.5	54.5	2.2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중졸 이하	5.2	17.9	36.7	29.1	11.2	100.0
	고등학교	1.6	23.8	44.1	24.7	5.8	100.0
	초대졸 이상	1.8	28.7	45.9	20.4	3.3	100.0

주: 해당없음 제외

다음은 응답자의 가족소득을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응답자가 속해 있는 범주별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 또한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이 계신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만남 및 연락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가장 먼저 '나의 부모님과 만남' 정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눈에 띄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소득범주에서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83.2%(=100만원 미만)에서 91.4%(=200~300만원 미만)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이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3.2%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과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은 각각 8.9%와 32.8%였다. 절반을 약간 웃도는 50.4%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 '일 년에 몇 번' 만나고 있었으며, 4.7%의 응답자들은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한다고 한 응답자들의 응답결과에서는 '거의 매일' 만난다는 비중이 2.7%를 차지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이들은 각각 9.2%와 39.0%였다. 이들 가운데 48.4%는 '일 년에 몇 번' 따로 사는 부모님을 뵙고 있었고,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0.7%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소득수준별로 '나의 부모님과 만남' 정도에 대한 눈에 띄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 가족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4.7%가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고 있었으며, 100~200만원과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3.3%와 1.9%가 이에 해당했다. 400~5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1.3%가, 500만원 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0.7%만 부모님과 거의 만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부모님과 연락' 빈도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의 연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의 경우 '거의 매일' 7.1%, '일주일에 한두 번' 30.6% 등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다는 비율이 37.7%였으며, 100~200만원 이상과 300~400만원 이상에 속할 경우 각각 46.9%와 55.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다고 응답하였다. 500만원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거의 매일'이 9.6%, '일주일에 한두 번'은 46.4%로 해당 비율이 56.0%에 달해 6가지 범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 또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는데 100만원 미만 범주의 응답자들은 4.3%가, 100~200만원 미만 범주에서는 3.2%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400~500만원 미만 범주 및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은 각각 0.6%와 0.7%만 따로 사는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소득범주에서 '일 년에 몇 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음'을 꼽은 이들의 비중은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작았다.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1.4%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과 '한 달에 한두 번'을 꼽은 이들의 비율은 각각 2.8%와 14.5%였다. 절반을 넘는 56.5%는 '일 년에 몇 번' 배우자의 부모님을 뵙고 있었으며, 4명 중 1명에 가까운 24.8%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400~5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 가운데는 '거의 매일' 만난다는 응답자가 1.0%를 차지하였고, 5.3%는 '일주일에 한두 번'을, 31.6%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고 하였다. 10명 중 6명(59.7%)가량은 '일 년에 몇 번' 배우자의 부모님을 뵙고 있었으며,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 수준에 그쳤다.

끝으로 '배우자 부모님과 연락' 정도를 가족소득 범주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이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의 연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거의 매일'이 5.1%, '일주일에 한두 번'은 13.0%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한다는 비율이 18.1%였으며, 200~300만원 이상과 300~4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각각 20.5%와 28.2%로 집계되었다. 500만원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거의 매일'이 1.8%, '일주일에 한두 번'은 29.5%로 해당 비율이 31.3% 수준으로 여느 범주에 비해 높았다. 이와 함께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 살펴보면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100만원 미만 범주의 응답자들은 39.7%가, 100~200만원 미만 범주에서는 25.2%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400~500만원 미만(3.0%) 및 500만원 이상(3.4%) 범주에서는 3%대에 그쳐 가족소득 범주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낼 가능성이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Ⅷ-30〉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계
나의 부모님과 만남	100만원 미만	3.2	8.9	32.8	50.4	4.7	100.0
	100~200만원 미만	3.7	7.3	40.7	45.0	3.3	100.0
	200~300만원 미만	1.6	5.1	45.8	45.6	1.9	100.0
	300~400만원 미만	1.3	7.7	46.1	43.2	1.7	100.0
	400~500만원 미만	1.8	10.9	37.3	48.7	1.3	100.0
	500만원 이상	2.7	9.2	39.0	48.4	0.7	100.0
나의 부모님과 연락	100만원 미만	7.1	30.6	36.3	21.6	4.3	100.0
	100~200만원 미만	11.6	35.3	40.8	9.0	3.2	100.0
	200~300만원 미만	13.5	40.6	32.3	10.8	2.8	100.0
	300~400만원 미만	11.1	44.4	33.6	9.8	1.2	100.0
	400~500만원 미만	9.9	44.5	35.5	9.5	0.6	100.0
	500만원 이상	9.6	46.4	34.2	9.1	0.7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만남	100만원 미만	-	-	-	81.8	18.2	100.0
	100~200만원 미만	2.9	10.0	16.6	46.3	24.1	100.0
	200~300만원 미만	1.4	2.8	14.5	56.5	24.8	100.0
	300~400만원 미만	0.4	5.8	31.7	53.8	8.4	100.0
	400~500만원 미만	1.0	5.3	31.6	59.7	2.4	100.0
	500만원 이상	1.0	5.0	34.1	58.0	1.9	100.0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	100만원 미만	-	-	17.2	43.1	39.7	100.0
	100~200만원 미만	5.1	13.0	35.6	21.1	25.2	100.0
	200~300만원 미만	1.6	18.9	31.9	26.3	21.4	100.0
	300~400만원 미만	1.7	26.5	43.4	19.6	8.8	100.0
	400~500만원 미만	2.1	29.0	45.9	20.0	3.0	100.0
	500만원 이상	1.8	29.5	45.6	19.6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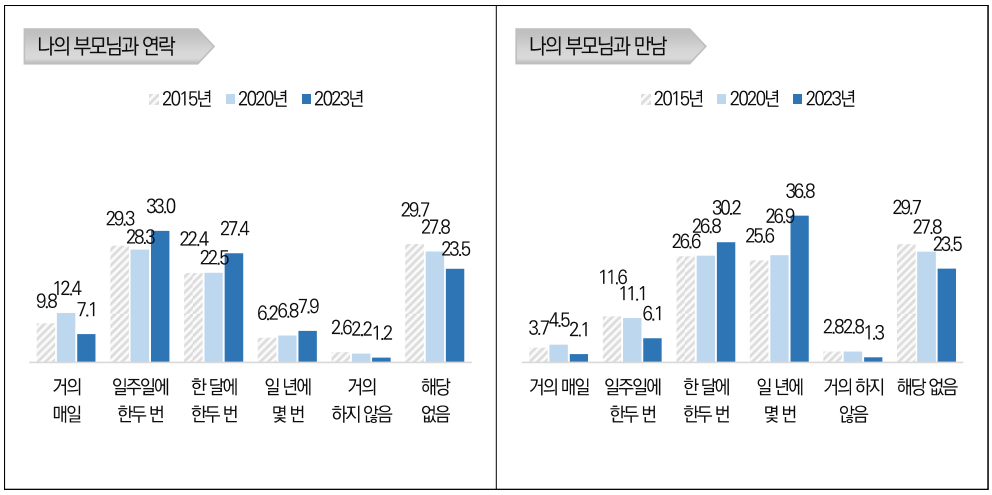
주: 해당없음 제외

한편,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을 포함해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과의 만남 및 접촉 빈도를 이전에 행해진 두 차례의 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세 차례 조사에서 눈에 띄는 양상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 차례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이 30% 안팎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 달에 한두 번'이 20%대로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은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9.8%와 12.4%로 집계되었고, 2023년 조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며 지낸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5년(2.6%)에

비해 2020년(2.2%), 2023년(1.2%) 조사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의 만남 정도 또한 세 차례 조사 간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세 차례 조사 모두 '일 년에 몇 번〉한 달에 한두 번〉일주일에 한두 번〉거의 매일〉거의 하지 않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 년에 몇 번'과 '한 달에 한두 번'을 합친 응답이 매년 절반을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응답은 10% 안팎을 차지하였고,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2.8%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1.3%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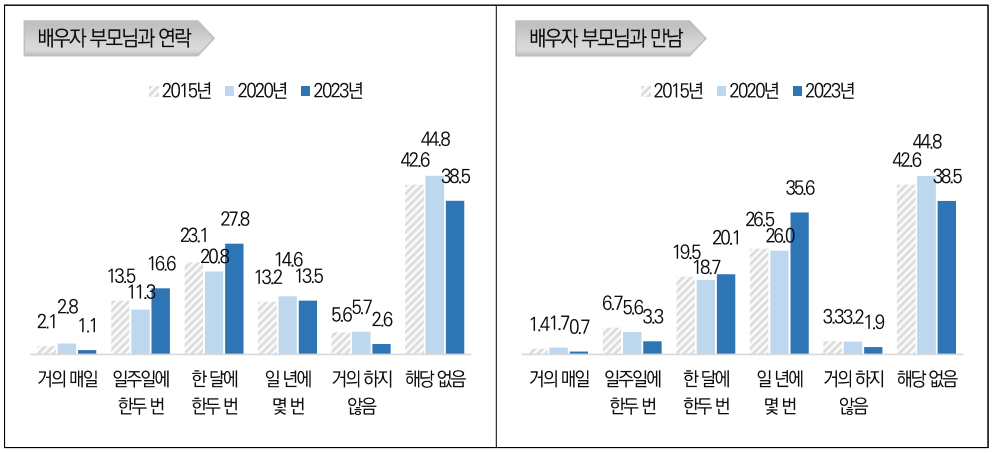
주: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해당 없음' 응답을 포함하여 분석 제시함

[그림 Ⅷ-4] 따로 사는 '나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남 및 접촉 빈도 또한 '해당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을 포함에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선 '나의 부모님'에 대한 연락이나 만남에 정도에 비해서는 연락과 만남 모두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처럼 상대적으로 잦은 빈도로 접촉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낮은 가운데 이 또한 세 차례의 조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세 차례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 20~30%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이 각각 10% 초반대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비율은 2015년(2.1%)과 2020년(2.8%) 조사에 비해 2023년(1.1%)에 낮게 나타났으며,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며 지낸다는 비율 또한 2015년(5.6%)과 2020년(5.7%)에 비해 2023년 조사에서 낮게 나타났다(2.6%).

이어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만남의 정도를 살펴보면 세 차례 모두 '일 년에 몇 번〉한 달에 한두 번〉일주일에 한두 번〉거의 하지 않음〉거의 매일'의 양상을 보였다. '일 년에 몇 번'이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26.5%와 26.0%로 집계되었고, 2023년 조사에서는 35.6%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뵙는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5년 19.5%, 2020년 18.7%, 2023년 20.1% 등으로 5명 중 1명 정도를 차지하였다. '거의 매일' 뵙는다는 응답자는 세 차례 조사 모두 2% 안쪽 수준이었고, 거의 뵙지 않으며 지낸다는 비중은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3.3%와 3.2%로 집계되었고, 2023년 조사에서는 1.9%로 나타났다.



주: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해당없음' 응답을 포함하여 분석 제시함

[그림 Ⅷ-5]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2. 부모님과의 관계 및 전반적 만족도

성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또한 5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평균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의 조사와 동일한 세 개의 문항(='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과 앞선 부모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기술로 통일하여 질문을 하고자 2023년 조사에서 문항을 변경한 하나의 문항(=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갈등이 있다)→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가족실태조사」부터 추가한 하나의 문항(=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과 같이 각각이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설계된 5가지의 문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도 '부정의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과 '보통이다' 그리고 '긍정의 답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재범주화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님께는 29.2%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를 꼽았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이 계신 이들(주로 유배우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47.0%가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고민을 이야기 한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나의 부모님께는 45.0%, 배우자의 부모님이 계신 이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25.1%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값은 나의 부모님께를 기준으로 하면 3.16점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평균(2.67점)에 비해 높았다.

이어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결과 가운데 나의 부모님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1%였고, 10명 중 7명가량(68.9%)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0%, '그렇다'는 응답은 45.0%로 본인의 부모님의 생활에 비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5점척도 응답의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각각 3.78점과 3.34점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값이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4.3%, '보통이다'는 25.3%를 차지하였으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0.4%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서는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15.4%와 44.4%를 차지하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1%로 이 또한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 비해 동의의 비율이 낮았다.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 3.81점과 3.27점으로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값의 평균이 0.54점 높았다.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는 5.0%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렇다'고 한 비율은 67.4%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에서는 15.6%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였고, 40.8%는 '그렇다'고 하였다. 5점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값은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3점,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서는 3.27점으로 나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의 결과값이 0.46점 더 높았다.

끝으로 이전 조사와 문항이 수정된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서는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가 7.9%, '보통이다'는 30.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1.5%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8.6%, '보통이다'는 44.7%로 집계되었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로 이 또한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경우의 긍정 비율에 비해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었을 때의 긍정 비율이 낮았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61점과 3.18점으로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서 평균값이 0.43점 높게 나타났다.

〈표 Ⅷ-31〉 부모님과의 관계

(단위: 천명, 점, %)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빈도	7,318	6,464	11,290	26,957	3.16	7,962	4,731	4,256	26,957	2.67
	구성비	29.2	25.8	45.0	100.0		47.0	27.9	25.1	100.0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빈도	1,283	6,507	17,282	26,957	3.78	2,549	6,771	7,628	26,957	3.34
	구성비	5.1	26.0	68.9	100.0		15.0	40.0	45.0	100.0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빈도	1,068	6,354	17,649	26,957	3.81	2,618	7,533	6,798	26,957	3.27
	구성비	4.3	25.3	70.4	100.0		15.4	44.4	40.1	100.0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빈도	1,242	6,938	16,891	26,957	3.73	2,637	7,392	6,920	26,957	3.27
	구성비	5.0	27.7	67.4	100.0		15.6	43.6	40.8	100.0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빈도	1,977	7,673	15,421	26,957	3.61	3,155	7,580	6,213	26,957	3.18
	구성비	7.9	30.6	61.5	100.0		18.6	44.7	36.7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님과의 관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나의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에게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였을 때 각각 33.0%와 49.7%였는데 여성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25.1%와 43.9%였다. 반대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각각 40.3%와 24.3%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각각 50.1%와 26.0%로 남성에 비해 각각 9.8%p와 1.7%p 높게 나타났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모두 남성의 평균(3.05점과 2.62점)에 비해서 여성의 평균(3.27점, 2.73점)이 더 높았다.

이어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여성(나의 부모님: 72.5%, 배우자의 부모님 48.0%)이 남성(나의 부모님 65.7%, 배우자의 부모님 42.4%)에 비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낮음을 알 수 있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모두 남성의 평균(각각 3.72점과 3.28점)이 여성의 평균(각각 3.83점과 3.40점)에 비해 더 낮았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 또한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 응답의 가능성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1%,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66.1%였으며, 여성의 경우 각각 3.3%와 75.0%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계신 이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에서는 남녀가 상당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가 각각 15.5%와 15.4%였으며, '보통이다'를 꼽은 비율은 각각 44.4%와 44.5%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가 모두 40.1%로 동일하였다. 이처럼 유사한 결과를 반영하듯 5점 척도의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남녀가 모두 3.27점으로 같게 나타났다.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 결과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나의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에게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높고,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구체적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응답하였을 때 각각 5.8%와 16.0%였고, 여성은 해당 비율이 각각 4.1%와 15.0%로 남성에 비해 약간 낮았다. 반대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남녀가 각각 65.1%와 69.9%로 여성이 4.8%p 높았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서도 각각

40.5%와 41.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0.8%p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모두 남성의 평균(3.69점과 3.26점)에 비해서 여성의 평균(각각 3.79점과 3.28점)이 더 높았다.

끝으로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남성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가 8.6%, '보통이다'는 31.9%,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59.5%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7.1%, 29.2%, 63.7%로 집계되었다. 여성의 긍정 비율이 더 높았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남성은 3.56점, 여성은 3.65점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0.09점 더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남성의 1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응답자의 경우에는 18.5%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는 비율은 또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36.7%와 36.6%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에서는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남녀가 모두 3.18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Ⅷ-32〉 부모님과의 관계(성별)

(단위: %, 점)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남성	33.0	26.7	40.3	100.0	3.05	49.7	25.9	24.3	100.0	2.62
	여성	25.1	24.8	50.1	100.0	3.27	43.9	30.2	26.0	100.0	2.73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남성	5.9	28.4	65.7	100.0	3.72	16.7	40.9	42.4	100.0	3.28
	여성	4.2	23.3	72.5	100.0	3.83	13.2	38.9	48.0	100.0	3.40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남성	5.1	28.8	66.1	100.0	3.73	15.5	44.4	40.1	100.0	3.27
	여성	3.3	21.6	75.0	100.0	3.89	15.4	44.5	40.1	100.0	3.27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남성	5.8	29.2	65.1	100.0	3.69	16.0	43.5	40.5	100.0	3.26
	여성	4.1	26.1	69.9	100.0	3.79	15.0	43.7	41.3	100.0	3.28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남성	8.6	31.9	59.5	100.0	3.56	18.7	44.6	36.7	100.0	3.18
	여성	7.1	29.2	63.7	100.0	3.65	18.5	44.9	36.6	100.0	3.18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자(성인 자녀)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세부문항에 대한 '부정의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과 '보통이다' 그리고 '긍정의 답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세 가지로 재범주화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령대는 '25세 이상~30세 미만'에서 '7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결과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높은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일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를 꼽은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점수가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25세 이상~30세 미만 집단의 경우 평균 3.52점이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3.35점과 3.11점이었다. 이보다 높은 연령대의 평균값은 더욱 낮아 50대는 2.89점, 60대의 경우 2.79점이었으며, 70세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2.73점으로 여섯 가지 연령집단의 평균 중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결과에서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결과에 비해서 그 경향이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높은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일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도 높은 정도에 속할수록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 집단의 평균은 2.76점이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2.79점과 2.67점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보다 높은 연령대의 평균값은 조금 더 낮아 50대는 2.61점, 60대 응답자의 평균은 2.56점으로 집계되었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모두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높은 반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결과 모두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한 이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연령대에 속하는 응답자들 4명 가운데 3명가량(74.8%)이 이에 동의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각각 71.3%와 67.5%로 그 비중이 조금 더 낮았으며, 50대와 60대는 각각 65.4%와

66.8%로 집계되었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55.8%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5점척도의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25세 이상~30세 미만(3.88점)〉30세 이상~40세 미만(3.84점)〉40세 이상~50세 미만(3.76점)〉50세 이상~60세 미만(3.70점)' 등과 같이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한 이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결과의 경우에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이 작았으며, 동의정도에 대한 평균 또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균값을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3.4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의 평균은 각각 3.34점과 3.36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60대의 평균은 3.32점이었으며, 7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3.15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어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 또한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및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모두 높은 정도의 연령에 속할수록 동의의 정도가 낮았으며, 평균으로 살핀 결과에서도 높은 정도의 연령 집단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에서 77.8%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4.1%, 40대는 70.3%가 이에 동의하였다. 50대와 60대 응답자 가운데는 각각 65.6%와 60.3%가 이에 동의하였으며, 70세 이상 응답자들은 가장 낮은 비율은 42.7%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들의 평균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또한 낮아져 60대와 70세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각각 3.62점과 3.41점으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또한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에 비해 '그렇다'의 비율도 낮고 평균 또한 낮은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다'의 비율이 낮아지고 평균 또한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들은 "배우자의 부모님과 친밀한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5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40대는 40.0%, 60대는 39.1%만 이에 동의하였다. 평균 또한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가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3.34점), 40대(3.28점)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60대 응답자의 평균은 3.24점이었고, 70세 이상 응답자들의 평균은 3.02점으로 여타의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았다.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응답한 결과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았으며, 평균으로 살폈을 때도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일한 연령대 간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나 평균값이 '나의 부모님'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들은 73.0%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30대는 69.5%로 3.5%p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7.8%와 63.5%가 이에 동의하였고, 70세 이상 응답자들은 42.3%만 이에 대해 '그렇다'고 하였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의 평균이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한 이들의 평균은 차츰 낮아져, 60대와 70대 이상 응답자의 평균은 각각 3.61점과 3.46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한 결과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5세 이상~30세 미만이 46.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응답자들(41.5%)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평균 또한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의 평균(3.34점)이 가장 높았고, 50대(3.23점), 60대(3.24점) 등 높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및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모두 높은 정도의 연령에 속할수록 동의의 정도가 낮았다. 평균으로 살핀 결과에서도 높은 정도의 연령 집단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연령대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69.6%가 이에 동의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해당비율이 각각 65.8%와 60.8%로 그 비중이 낮아졌으며, 50대(55.8%)와 60대(52.4%)는 더 낮은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42.1%로 여타의 연령대에 비해 더욱 낮았다. 5점척도의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25세 이상~30세 미만(3.73점)〉30세 이상~40세 미만(3.68점)〉40세 이상~50세 미만(3.60점)〉50세 이상~60세 미만(3.51점)〉60세 이상~70세 미만(3.44점)〉70세 이상(3.23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또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한 응답결과에서도 25세 이상~30세 미만 연령대 응답자의 '그렇다' 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고, 평균 또한 3.34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70세 이상 응답자들이 '그렇다'를 꼽은 비율은 28.5%였으며, 평균은 3.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Ⅷ-33〉 부모님과의 관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12.7	27.7	59.5	100.0	3.52	42.5	31.7	25.8	100.0	2.76
	30세 이상 ~40세 미만	22.4	24.1	53.5	100.0	3.35	41.7	31.8	26.5	100.0	2.79
	40세 이상 ~50세 미만	30.4	28.0	41.6	100.0	3.11	47.4	27.6	25.0	100.0	2.67
	50세 이상 ~60세 미만	40.6	24.4	35.0	100.0	2.89	49.4	26.9	23.7	100.0	2.61
	60세 이상 ~70세 미만	44.6	23.9	31.6	100.0	2.79	53.2	21.7	25.1	100.0	2.56
	70세 이상	44.7	21.4	33.9	100.0	2.73	42.2	25.9	31.9	100.0	2.75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3.5	21.7	74.8	100.0	3.88	11.7	37.3	51.0	100.0	3.44
	30세 이상 ~40세 미만	4.1	24.6	71.3	100.0	3.84	14.8	39.9	45.3	100.0	3.34
	40세 이상 ~50세 미만	5.0	27.5	67.5	100.0	3.76	14.3	40.0	45.8	100.0	3.36
	50세 이상 ~60세 미만	6.8	27.8	65.4	100.0	3.70	16.2	40.3	43.5	100.0	3.31
	60세 이상 ~70세 미만	6.2	27.0	66.8	100.0	3.72	15.5	39.6	44.9	100.0	3.32
	70세 이상	16.2	28.0	55.8	100.0	3.43	20.5	41.5	38.0	100.0	3.15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3.3	19.0	77.8	100.0	3.94	16.2	30.8	53.1	100.0	3.43
	30세 이상 ~40세 미만	2.7	23.2	74.1	100.0	3.89	12.8	44.9	42.2	100.0	3.34
	40세 이상 ~50세 미만	4.2	25.5	70.3	100.0	3.79	15.3	44.7	40.0	100.0	3.28
	50세 이상 ~60세 미만	6.0	28.4	65.6	100.0	3.71	17.7	44.2	38.1	100.0	3.21
	60세 이상 ~70세 미만	6.6	33.1	60.3	100.0	3.62	15.3	45.6	39.1	100.0	3.24
	70세 이상	6.4	50.9	42.7	100.0	3.41	18.3	56.3	25.3	100.0	3.02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3.1	23.9	73.0	100.0	3.84	12.8	40.6	46.7	100.0	3.34
	30세 이상 ~40세 미만	3.7	26.8	69.5	100.0	3.79	13.7	45.8	40.4	100.0	3.30
	40세 이상 ~50세 미만	5.2	26.9	67.8	100.0	3.73	15.0	42.8	42.2	100.0	3.29
	50세 이상 ~60세 미만	6.6	29.9	63.5	100.0	3.66	18.1	42.6	39.3	100.0	3.23
	60세 이상 ~70세 미만	6.8	32.2	61.0	100.0	3.61	15.9	44.6	39.5	100.0	3.24
	70세 이상	6.0	46.6	47.3	100.0	3.46	12.7	45.8	41.5	100.0	3.26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25세 이상 ~30세 미만	5.4	25.1	69.6	100.0	3.73	12.4	42.1	45.4	100.0	3.34
	30세 이상 ~40세 미만	6.2	27.9	65.8	100.0	3.68	15.2	47.0	37.9	100.0	3.23
	40세 이상 ~50세 미만	7.7	31.5	60.8	100.0	3.60	18.5	44.0	37.6	100.0	3.20
	50세 이상 ~60세 미만	10.1	34.1	55.8	100.0	3.51	21.7	44.2	34.1	100.0	3.11
	60세 이상 ~70세 미만	11.3	36.3	52.4	100.0	3.44	20.0	43.8	36.2	100.0	3.15
	70세 이상	19.9	38.0	42.1	100.0	3.23	23.2	48.3	28.5	100.0	3.02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혼자(유배우, 이혼 또는 별거, 사별)에 비해서 미혼인 응답자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점척도의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기혼 응답자의 평균에 비해 미혼 응답자의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미혼인 응답자들 가운데 52.9%가 나의 부모님에게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그렇다’)고 하였으며,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응답자 가운데는 42.6%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해당 비율은 34.7%에 그쳤으며, 사별상태의 응답자들은 31.9%가 이에 동의하였다.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미혼인 응답자의 평균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3.09점), 이혼 또는 별거(2.95점), 사별(2.86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상태의 응답자 가운데 25.3%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사별 상태의 응답자들은 해당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는 12.8%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고 하였다. 5점척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유배우와 사별 상태인 응답자의 평균은 각각 2.68점과 2.34점이었으며,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인 응답자들의 평균은 2.0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과 또한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눈에 띄게 크지는 않으나 기혼자(유배우, 이혼 또는 별거, 사별)에 비해 미혼자에게서 동의('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한 비율이 높았다. 평균 또한 미혼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3.76점), 이혼 또는 별거(3.75점), 사별(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대해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배우와 사별의 경우 각각 45.3%와 38.4%로 나타났으며, 이혼 또는 별거 상대의 응답자들 가운데는 22.8%가 이에 동의하였다. 평균을 살펴보면 유배우와 사별 상태인 응답자는 각각 3.35점과 3.13점이었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이들의 평균은 2.40점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혼자(유배우, 이혼 또는 별거, 사별)에 비해 미혼인 이들의 '그렇다'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미혼집단에서는 71.8%가 '그렇다'고 하였으며, 이는 유배우(70.5%), 이혼 또는 별거(62.5%), 사별(58.3%) 상태의 응답자들에 비해 약간 높았다. 평균 또한 '미혼(3.84점)〉유배우(3.80점)〉이혼 또는 별거(3.69점)〉사별(3.6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결과에서 '그렇다'고 한 비율은 유배우(40.6%)가 사별(28.4%)이나 이혼 또는 별거(9.7%) 상태의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 또한 유배우(3.29점), 사별(2.97점), 이혼 또는 별거(2.19점) 중인 이들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및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 또한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혼자(유배우, 이혼 또는 별거, 사별)에 비해서 미혼인 응답자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점척도의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기혼 응답자의 평균에 비해 미혼 응답자의 평균이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결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유배우>사별>이혼 또는 별거’ 상태의 응답자 순으로 동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Ⅷ-34〉 부모님과의 관계(혼인상태별)

(단위: %, 점)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미혼	19.7	27.4	52.9	100.0	3.37	-	-	-	-	-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32.5	24.9	42.6	100.0	3.09	46.6	28.2	25.3	100.0	2.68
	이혼 또는 별거	36.5	28.7	34.7	100.0	2.95	73.1	14.1	12.8	100.0	2.05
	사별	42.6	25.5	31.9	100.0	2.86	58.2	17.1	24.8	100.0	2.34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미혼	4.7	23.3	71.9	100.0	3.82	-	-	-	-	-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5.1	26.9	67.9	100.0	3.76	14.5	40.2	45.3	100.0	3.35
	이혼 또는 별거	6.2	28.8	65.1	100.0	3.75	54.5	22.7	22.8	100.0	2.40
	사별	8.6	22.8	68.7	100.0	3.66	21.8	39.8	38.4	100.0	3.13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미혼	4.4	23.8	71.8	100.0	3.84	-	-	-	-	-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4.1	25.4	70.5	100.0	3.80	14.8	44.6	40.6	100.0	3.29
	이혼 또는 별거	6.7	30.9	62.5	100.0	3.69	61.5	28.8	9.7	100.0	2.19
	사별	4.4	37.3	58.3	100.0	3.62	22.0	49.6	28.4	100.0	2.97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미혼	4.7	25.9	69.4	100.0	3.77	-	-	-	-	-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5.0	28.0	67.0	100.0	3.73	14.9	43.8	41.3	100.0	3.29
	이혼 또는 별거	6.2	30.9	62.9	100.0	3.66	62.4	23.6	14.0	100.0	2.25
	사별	3.9	37.6	58.5	100.0	3.58	25.6	47.0	27.4	100.0	2.96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미혼	7.5	28.9	63.5	100.0	3.64	-	-	-	-	-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7.6	30.9	61.4	100.0	3.61	17.9	45.0	37.0	100.0	3.19
	이혼 또는 별거	12.3	34.0	53.7	100.0	3.47	63.3	24.9	11.9	100.0	2.21
	사별	13.6	38.8	47.5	100.0	3.34	35.6	37.1	27.2	100.0	2.84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계한 5가지 문항에 대해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갈등은 적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조사 결과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 뿐만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5점척도로 살펴본 평균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동의한 이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응답자는 31.4%만 이에 대해 '그렇다'고 하였으나 고졸과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는 해당 비율이 각각 38.2%와 48.2%로 나타났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2.75점, 고졸인 응답자들은 2.97점으로 분석되었고, 초대졸 이상 응답자들의 평균은 3.24점으로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는 21.8%였으며,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25.2%와 25.2%를 기록하였다. 평균 또한 중졸 이하 집단이 2.48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2.62점과 2.71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님'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9.4%,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67.7%였으며, 고졸의 경우 각각 5.7%와 67.7%였다. 초대졸 이상은 해당 비율이 4.7%와 69.5%로 집계되었다. 평균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집단이 3.72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졸(3.74점)과 초대졸 이상(3.79점) 순으로 이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그렇다' 비율에서는 완전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에서는 세 가지 교육수준 집단 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나 평균이 일정한 경향성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 결과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은 작고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초대졸 이상이 3.9%로 가장 낮았으며, 중졸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초대졸 이상이 72.0%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과 중졸 이하의 경우 각각 67.4%와 59.2%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 응답은 초대졸 이상(40.7%)이 고졸(39.8%)이나 중졸 이하(28.1%)에 비해 높았으며, 평균점수를 통해 살폈을 때도 '초대졸 이상(3.29점)〉고졸(3.26점)〉중졸 이하(3.07점)'의 양상을 보였다.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와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 또한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응답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으며(중졸 이하〈고졸〈초대졸 이상), 평균점수를 통해 살폈을 때도 그러한 양상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성인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간 상호이해의 정도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Ⅷ-35〉 부모님과의 관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중졸 이하	45.6	23.0	31.4	100.0	2.75	52.3	25.9	21.8	100.0	2.48
	고등학교	37.4	24.4	38.2	100.0	2.97	50.1	24.7	25.2	100.0	2.62
	초대졸 이상	25.4	26.4	48.2	100.0	3.24	45.4	29.5	25.2	100.0	2.71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중졸 이하	9.4	22.9	67.7	100.0	3.72	17.2	39.1	43.7	100.0	3.31
	고등학교	5.7	26.5	67.7	100.0	3.74	15.0	38.5	46.5	100.0	3.34
	초대졸 이상	4.7	25.8	69.5	100.0	3.79	15.0	40.6	44.3	100.0	3.34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중졸 이하	7.7	33.1	59.2	100.0	3.58	19.8	52.1	28.1	100.0	3.07
	고등학교	4.9	27.8	67.4	100.0	3.75	14.9	45.3	39.8	100.0	3.26
	초대졸 이상	3.9	24.1	72.0	100.0	3.84	15.6	43.8	40.7	100.0	3.29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중졸 이하	6.5	29.8	63.7	100.0	3.66	19.3	47.7	33.0	100.0	3.13
	고등학교	5.6	29.2	65.2	100.0	3.69	16.0	43.1	40.9	100.0	3.26
	초대졸 이상	4.6	27.0	68.4	100.0	3.76	15.2	43.7	41.1	100.0	3.28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중졸 이하	12.7	36.5	50.8	100.0	3.42	27.5	45.4	27.1	100.0	2.97
	고등학교	8.7	33.9	57.4	100.0	3.54	18.8	45.4	35.8	100.0	3.16
	초대졸 이상	7.4	29.1	63.5	100.0	3.64	18.2	44.4	37.4	100.0	3.2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응답자의 가족소득별로 나누어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폈을 때도 높은 정도의 소득수준 범주에 속해 있을수록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고,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는 이들일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양호하며, 갈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족소득에 따라 완전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한

비중이 높았다.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이들은 3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00~300만원 미만 집단과 400~5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 가운데는 각각 40.8%와 48.5%가 '그렇다'고 하였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살폈을 때도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한 이들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평균 2.91점이었고, 100~2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이들은 2.66점, 300~4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3.05점이었다.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경우 각각 3.24과 3.12점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에 속하는 이들의 평균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가족소득이 높은 경우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하고 지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과 관련해서도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살펴본 응답 결과 모두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그렇다'는 응답비율이나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에는 평균 3.46점이었으며,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이들은 평균점수는 각각 3.65점과 3.73점이었다. 4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경우 각각 3.80점과 3.81점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에 속할 경우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응답결과 또한 1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평균은 2.56점, 300~4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평균은 각각 3.20점과 3.32점 등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았을 때도 문항 간 약간이 비율차이나 평균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일수록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이 높았으며, 5점척도 응답의 평균값을 통해 살폈을 때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의 부모님'을 염두에 둔 응답에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종합하면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길 가능성도 높으며, 부모님께서도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응답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Ⅷ-36〉 부모님과의 관계(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100만원 미만	43.2	22.3	34.5	100.0	2.91	60.3	39.7	-	100.0	2.40
	100~200만원 미만	49.2	20.5	30.4	100.0	2.66	64.7	17.7	17.6	100.0	2.35
	200~300만원 미만	29.4	29.7	40.8	100.0	3.08	58.4	21.7	19.9	100.0	2.39
	300~400만원 미만	35.6	24.2	40.2	100.0	3.05	50.5	27.9	21.5	100.0	2.57
	400~500만원 미만	25.9	25.7	48.5	100.0	3.24	42.4	32.1	25.6	100.0	2.74
	500만원 이상	30.8	26.7	42.5	100.0	3.12	47.5	27.6	24.9	100.0	2.68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100만원 미만	30.8	13.1	56.1	100.0	3.46	43.1	39.7	17.2	100.0	2.56
	100~200만원 미만	9.8	21.4	68.7	100.0	3.69	26.7	24.7	48.6	100.0	3.17
	200~300만원 미만	7.5	30.7	61.8	100.0	3.65	24.8	30.8	44.4	100.0	3.17
	300~400만원 미만	6.6	25.6	67.8	100.0	3.73	20.2	39.7	40.1	100.0	3.20
	400~500만원 미만	4.0	26.8	69.1	100.0	3.80	13.8	44.2	42.0	100.0	3.32
	500만원 이상	4.2	24.9	70.9	100.0	3.81	12.8	40.2	47.0	100.0	3.39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100만원 미만	6.7	52.6	40.7	100.0	3.45	43.1	39.7	17.2	100.0	2.74
	100~200만원 미만	10.3	21.4	68.2	100.0	3.69	37.3	27.8	34.9	100.0	2.92
	200~300만원 미만	6.7	33.6	59.7	100.0	3.65	28.0	35.7	36.4	100.0	3.00
	300~400만원 미만	6.6	25.0	68.4	100.0	3.77	23.4	44.0	32.6	100.0	3.09
	400~500만원 미만	3.6	27.6	68.8	100.0	3.79	13.7	47.1	39.2	100.0	3.28
	500만원 이상	3.2	23.2	73.6	100.0	3.86	14.0	44.3	41.8	100.0	3.31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7.8	42.2	50.0	100.0	3.51	24.9	39.7	35.4	100.0	3.10
	100~200만원 미만	6.3	25.0	68.8	100.0	3.71	32.1	37.3	30.6	100.0	2.96
	200~300만원 미만	6.2	35.7	58.1	100.0	3.59	33.5	33.8	32.7	100.0	2.92
	300~400만원 미만	6.6	27.8	65.6	100.0	3.69	23.1	44.0	33.0	100.0	3.09
	400~500만원 미만	5.4	29.4	65.3	100.0	3.71	14.9	48.1	36.9	100.0	3.24
	500만원 이상	4.1	26.1	69.8	100.0	3.78	13.5	42.8	43.7	100.0	3.33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	28.2	31.4	40.5	100.0	3.19	43.1	39.7	17.2	100.0	2.74
	100~200만원 미만	18.8	28.6	52.6	100.0	3.38	32.0	43.3	24.7	100.0	2.89
	200~300만원 미만	11.2	34.2	54.6	100.0	3.47	39.2	28.0	32.8	100.0	2.84
	300~400만원 미만	10.2	34.0	55.8	100.0	3.53	26.5	41.5	32.0	100.0	3.04
	400~500만원 미만	6.3	32.8	60.9	100.0	3.62	17.5	50.7	31.8	100.0	3.14
	500만원 이상	6.8	28.7	64.5	100.0	3.66	17.3	43.7	39.0	100.0	3.23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항목에 대한 세 차례 조사(2015년, 2020년, 2023년)에서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교 가능한 문항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조사 결과가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문항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으로 올수록 비교가능한 세 문항의 평균 모두 최근의 조사에서 평균값이 조금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2015년 조사와 2020년 조사에서는 평균이 각각 2.63점과 2.78점이었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3.16점으로 평균이 조금씩 높아졌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15년(2.01점)과 2020년(2.07점) 조사에 비해 2023년 조사(2.67점)의 평균값이 더 높았다.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2015년 조사와 2020년 조사의 평균이 각각 3.52점과 3.57점이었고 2023년에는 3.78점으로 2015년에 비해서는 0.26점, 2020년 조사에 비해서는 0.21점 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15년(2.97점)과 2020년(2.98점) 조사 결과에 비해 2023년(3.34점)이 높게 나타났다.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각 3.54점과 3.64점, 3.81점으로 2023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균값 또한 각각 2.95점, 3.00점, 3.27점으로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Ⅷ-37〉 부모와의 관계 정도: '15년 및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점)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2015년	2020년	2023년	2015년	2020년	2023년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2.63	2.78	3.16	2.01	2.07	2.67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3.52	3.57	3.78	2.97	2.98	3.34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3.54	3.64	3.81	2.95	3.00	3.27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	-	3.73	-	-	3.2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	-	3.61	-	-	3.18

3. 부모님과 상호도움 정도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님과의 상호지원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 또한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 '가사 등 집안일 도움',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정서적 지원'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응답 및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4가지 영역 모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배우자의 부모님'보다는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에 대해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은 32.8%였으며,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29.6%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12.3%였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는 7.1%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님'께는 13.6%가,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6.4%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으며,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각각 17.1%와 5.3%였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 및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은 5.8%였으며,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3.9%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원 돌봄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은 7.6%였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는 5.5%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정서적 지원'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 모두 다른 종류의 도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께는 52.9%가,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35.5%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으며,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각각 48.6%와 30.7%였다.

〈표 Ⅷ-38〉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

(단위: 천명, %)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경제적 도움 (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빈도	8,219	16,853	3,087	21,985	26,957	5,021	11,928	1,203	15,746	26,957
	구성비	32.8	67.2	12.3	87.7	100.0	29.6	70.4	7.1	92.9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빈도	3,421	21,651	4,294	20,778	26,957	1,081	15,868	895	16,053	26,957
	구성비	13.6	86.4	17.1	82.9	100.0	6.4	93.6	5.3	94.7	100.0
가족원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빈도	1,461	23,611	1,912	23,159	26,957	666	16,283	937	16,011	26,957
	구성비	5.8	94.2	7.6	92.4	100.0	3.9	96.1	5.5	94.5	100.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빈도	13,255	11,817	12,190	12,882	26,957	6,017	10,932	5,207	11,741	26,957
	구성비	52.9	47.1	48.6	51.4	100.0	35.5	64.5	30.7	69.3	100.0

이어서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에 대해 응답자의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성의 34.7%, 여성의 30.6%가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해 여성에 비해 남성이 4.1%p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남성의 27.9%, 여성의 31.6%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해 여성이 3.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13.3%, 여성 응답자는 11.2%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남성이 2.1%p 더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5%와 7.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3%p 더 높았다.

성별로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12.6%, 여성의 14.8%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남성의 4.3%, 여성의 8.7%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으로부터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의 18.5%, 여성의 15.7%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는 남성의 6.0%, 여성의 4.5%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의 상호도움 여부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1%와 5.5%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남녀가 각각 3.2%와 4.8%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7.6%)과 여성(7.7%)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 응답자가 각각 6.2%와 4.8%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서적 지원' 측면에 대해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50.1%, 여성의 55.9%가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5.8%p 높았으며,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남성의 34.3%, 여성의 36.9%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의 46.9%, 여성의 50.5%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해당 응답비율이 3.6%p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1.7%와 29.7%로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에게서 2.0%p 높게 나타났다.

〈표 Ⅷ-39〉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성별)

(단위: %)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남성	34.7	65.3	13.3	86.7	100.0	27.9	72.1	6.5	93.5	100.0
	여성	30.6	69.4	11.2	88.8	100.0	31.6	68.4	7.8	92.2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남성	12.6	87.4	18.5	81.5	100.0	4.3	95.7	6.0	94.0	100.0
	여성	14.8	85.2	15.7	84.3	100.0	8.7	91.3	4.5	95.5	100.0
가족원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남성	6.1	93.9	7.6	92.4	100.0	3.2	96.8	6.2	93.8	100.0
	여성	5.5	94.5	7.7	92.3	100.0	4.8	95.2	4.8	95.2	100.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남성	50.1	49.9	46.9	53.1	100.0	34.3	65.7	31.7	68.3	100.0
	여성	55.9	44.1	50.5	49.5	100.0	36.9	63.1	29.7	70.3	100.0

부모님과의 상호도움에 대해서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60대(60세 이상~7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나의 부모님'께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0.7%가,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43.7%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낮은 정도의 연령대에 속할수록 해당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가운데 25세 이상~30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나의 부모님'께는 20.9%가,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13.3%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낮은 연령대에 속할 경우 전반적으로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세 이상~30세 미만의 경우 27.3%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30대와 40대의 경우 14.8%와 8.3%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의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6%와 7.1%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의 15.7%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0대와 40대의 경우 7.6%와 6.5%가 도움을 받고 있었다. 6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 비율이 5.7%와 12.0%로 집계되었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의 상호도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연령별대로

살펴보면, 이 또한 완전한 경향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연령 또한 높을 것이므로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구체적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가 5.0%, 40대와 50대는 각각 4.8%와 6.9%였다. 60대의 경우 10.4%에 달했고, 70세 이상의 응답자는 8.2%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 또한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3.2%였고, 60대와 70세 이상의 해당 비율이 4.8%와 4.6%로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에게 있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11.9%와 7.5%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50대와 60대의 경우 해당 비율이 2.6%와 1.7%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대와 40대의 경우 각각 10.9%와 6.5%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50대와 60대의 경우 1%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30~40대 성인 자녀의 경우 그들의 자녀에 대한 돌봄을 (외)조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적 지원' 측면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들에게서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이 42.7%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정서적 지원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60대가 38.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33.3%로 가장 낮았으나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정한 경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연령대에 속할수록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경우 64.1%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30대와 40대의 경우 52.9%와 47.7%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의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39.4%와 37.0%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의 36.6%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0대와 40대의 경우 33.0%와 32.8%가 도움을 받고 있었다. 6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 비율이 26.5%와 24.5%에 그쳤다.

〈표 Ⅷ-40〉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연령별)

(단위: %)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경제적 도움 (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25세 이상~30세 미만	20.9	79.1	27.3	72.7	100.0	13.3	86.7	15.7	84.3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2.8	77.2	14.8	85.2	100.0	15.8	84.2	7.6	92.4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30.9	69.1	8.3	91.7	100.0	26.8	73.2	6.5	93.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8.6	51.4	6.6	93.4	100.0	42.0	58.0	6.9	93.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0.7	49.3	7.1	92.9	100.0	43.7	56.3	5.7	94.3	100.0
	70세 이상	43.3	56.7	17.0	83.0	100.0	22.7	77.3	12.0	88.0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25세 이상~30세 미만	22.7	77.3	43.8	56.2	100.0	3.2	96.8	7.6	92.4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3.1	86.9	23.1	76.9	100.0	4.6	95.4	9.3	90.7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8.7	91.3	10.8	89.2	100.0	4.8	95.2	5.4	94.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4.3	85.7	6.2	93.8	100.0	9.3	90.7	2.5	97.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6.3	83.7	3.7	96.3	100.0	9.1	90.9	2.8	97.2	100.0
	70세 이상	10.1	89.9	5.6	94.4	100.0	6.5	93.5	-	100.0	100.0
가족원 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25세 이상~30세 미만	5.2	94.8	11.3	88.7	100.0	3.9	96.1	9.9	90.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5.0	95.0	11.9	88.1	100.0	3.2	96.8	10.9	89.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8	95.2	7.5	92.5	100.0	3.2	96.8	6.5	93.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6.9	93.1	2.6	97.4	100.0	5.2	94.8	1.1	98.9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0.4	89.6	1.7	98.3	100.0	4.8	95.2	1.0	99.0	100.0
	70세 이상	8.2	91.8	2.6	97.4	100.0	4.6	95.4	-	100.0	100.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25세 이상~30세 미만	57.5	42.5	64.1	35.9	100.0	35.9	64.1	36.6	63.4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51.5	48.5	52.9	47.1	100.0	33.3	66.7	33.0	67.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2.6	47.4	47.7	52.3	100.0	36.0	64.0	32.8	67.2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52.1	47.9	39.4	60.6	100.0	35.8	64.2	27.3	72.7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3.3	46.7	37.0	63.0	100.0	38.0	62.0	26.5	73.5	100.0
	70세 이상	42.7	57.3	24.3	75.7	100.0	34.2	65.8	24.5	75.5	100.0

교육수준별로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의 경우 43.4%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39.5%와 29.7%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에 속하는 이들의 36.5%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에 속하는 이들 가운데는 각각 35.0%와 26.9%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중졸 이하의 경우 8.5%,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 각각 11.3%와 12.8%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도 이어져 중졸 이하(4.4%), 고졸(6.4%), 초대졸 이상(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나타난 것은 연령 등 다른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수준의 측면으로만 나누어 살핀 결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연령대로 오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지 않은 응답자들이 초대졸 이상과 같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들의 경우 아직 학업 등의 이유로 미취업 상태로 따로 살고 있거나 경제활동 참여 기간도 길지 않은 등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받으며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에 대해서도 교육수준별로 상호도움 여부를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대졸 이상(13.0%)〈고졸(14.6%)〈중졸 이하(23.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부모님'께 중졸 이하 응답자의 14.7%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졸과 초대졸 이상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7.5%와 5.6%였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응답한 결과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가 10.0%,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 각각 11.7%와 19.5%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도 중졸 이하와 고졸이 각각 3.2%와 2.9%로 나타났고, 초대졸 이상 응답자들은 6.5%로 그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의 상호지원과 수혜여부는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집단의 12.0%,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6.8%와 5.3% 수준이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 또한 중졸 이하가 7.2%로 가장 높았고, 고졸(4.3%), 초대졸 이상(3.6%) 순으로 집계되었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4.0%,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 각각 4.9%와 8.8% 수준이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 또한 중졸 이하가 1.5%로 가장 낮았고, 고졸(2.4%), 초대졸 이상(7.1%)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원’ 측면에 대해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결과 정서적 지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정서적 지원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의 경우 52.8%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각각 50.6%와 53.8%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중졸 이하에 속하는 이들의 31.1%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에 속하는 이들 중 34.5%와 36.1%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중졸 이하의 경우 34.4%, 고졸과 초대졸 이상이 각각 42.2%와 51.7%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또한 중졸 이하(20.9%)<고졸(25.7%)<초대졸 이상(3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Ⅷ-41〉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중졸 이하	43.4	56.6	8.5	91.5	100.0	36.5	63.5	4.4	95.6	100.0
	고등학교	39.5	60.5	11.3	88.7	100.0	35.0	65.0	6.4	93.6	100.0
	초대졸 이상	29.7	70.3	12.8	87.2	100.0	26.9	73.1	7.5	92.5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중졸 이하	23.9	76.1	10.0	90.0	100.0	14.7	85.3	3.2	96.8	100.0
	고등학교	14.6	85.4	11.7	88.3	100.0	7.5	92.5	2.9	97.1	100.0
	초대졸 이상	13.0	87.0	19.5	80.5	100.0	5.6	94.4	6.5	93.5	100.0
가족원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중졸 이하	12.0	88.0	4.0	96.0	100.0	7.2	92.8	1.5	98.5	100.0
	고등학교	6.8	93.2	4.9	95.1	100.0	4.3	95.7	2.4	97.6	100.0
	초대졸 이상	5.3	94.7	8.8	91.2	100.0	3.6	96.4	7.1	92.9	100.0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중졸 이하	52.8	47.2	34.4	65.6	100.0	31.1	68.9	20.9	79.1	100.0
	고등학교	50.6	49.4	42.2	57.8	100.0	34.5	65.5	25.7	74.3	100.0
	초대졸 이상	53.8	46.2	51.7	48.3	100.0	36.1	63.9	33.4	66.6	100.0

가족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부모님과 상호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서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 경우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가족소득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12.0%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0~300만원 미만 및 300~4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26.0%와 28.4%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일 경우 36.3%에 달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도 100~200만원 미만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9.6%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00~500만원 미만 구간 및 500만원 이상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26.5%와 33.2%에 달했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 또한 가족소득 범주별에 따라 낮은 정도의 소득 수준에 속해 있을 경우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25.3%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00~2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과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의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16.9%와 14.4%였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8.4%였다.

부모님으로부터의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가족소득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낮았으며, 반대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께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한 비율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및 100~2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18.0%와 18.4%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200~300만원 미만 범주의 응답자 가운데는 10.6%가, 300~4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 중 9.5%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소득이 400~500만원 미만 범주 및 500만원이 넘는 이들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10.8%와 11.2%로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께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9.4%가, 200~300만원 미만 범주 및 300~4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13.9%와 10.4%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00~500만원 이상에 속한 이들은 11.0%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응답에서는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 가운데 1.9%가, 300~400만원 미만 범주 및 400~5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3.3%와 4.9%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응답한 이들은 5.0%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에 대해서도 가족소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모두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을 경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높았으며, 반대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이들 중 '나의 부모님'께는 12.9%가, '배우자의 부모님'께는 18.2%가 도움을 드리고 있었으며, 가족소득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6.3%와 4.7%로 집계되었다. 한편,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하는 이들 중 '나의 부모님'으로부터는 4.2%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는 2.2%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가족소득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비율은 각각 7.5%와 4.9%로

집계되었다.

'정서적 지원' 측면에 대해서 가족소득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비록 완전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정도의 소득수준에 속할 경우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가족소득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37.2%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0~300만원 미만 구간 및 300~4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46.9%와 49.6%로 높아졌으며, 500만원 이상일 경우 54.0%에 달했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100~200만원 미만의 가족소득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18.6%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0~500만원 미만 구간 및 500만원 이상 구간에 속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37.1%와 35.9%에 달했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 또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을수록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가족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 36.4%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0~300만원 범주에 속하는 이들과 300~400만원 범주에 속할 경우 해당 비율은 각각 46.0%와 44.2%였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12.1%로 가장 낮았고, 500만원 이상은 30.1%로 집계되는 등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 또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Ⅷ-42〉 성인 자녀의 부모님과 상호도움(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드리고 있다		받고 있다		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경제적 도움 (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100만원 미만	12.0	88.0	25.3	74.7	100.0	-	100.0	18.2	81.8	100.0
	100~200만원 미만	27.7	72.3	16.9	83.1	100.0	9.6	90.4	3.0	97.0	100.0
	200~300만원 미만	26.0	74.0	14.4	85.6	100.0	24.7	75.3	4.4	95.6	100.0
	300~400만원 미만	28.4	71.6	9.3	90.7	100.0	23.3	76.7	5.9	94.1	100.0
	400~500만원 미만	32.2	67.8	9.5	90.5	100.0	26.5	73.5	7.8	92.2	100.0
	500만원 이상	36.3	63.7	8.4	91.6	100.0	33.2	66.8	7.7	92.3	100.0
가사 등 집안일 도움	100만원 미만	18.0	82.0	9.4	90.6	100.0	18.2	81.8	-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8.4	81.6	8.6	91.4	100.0	7.9	92.1	-	100.0	100.0
	200~300만원 미만	10.6	89.4	13.9	86.1	100.0	6.5	93.5	1.9	98.1	100.0
	300~400만원 미만	9.5	90.5	10.4	89.6	100.0	6.1	93.9	3.3	96.7	100.0
	400~500만원 미만	10.8	89.2	11.0	89.0	100.0	7.4	92.6	4.9	95.1	100.0
	500만원 이상	11.2	88.8	10.4	89.6	100.0	7.2	92.8	5.0	95.0	100.0
가족원 돌봄 (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100만원 미만	12.9	87.1	2.7	97.3	100.0	18.2	81.8	-	100.0	100.0
	100~200만원 미만	10.9	89.1	5.6	94.4	100.0	6.3	93.7	-	100.0	100.0
	200~300만원 미만	5.8	94.2	4.2	95.8	100.0	3.3	96.7	2.2	97.8	100.0
	300~400만원 미만	5.0	95.0	5.7	94.3	100.0	3.1	96.9	3.6	96.4	100.0
	400~500만원 미만	6.0	94.0	8.0	92.0	100.0	2.6	97.4	5.2	94.8	100.0
	500만원 이상	6.3	93.7	7.5	92.5	100.0	4.7	95.3	4.9	95.1	100.0
정서적 지원 (말벗, 고민상담 등)	100만원 미만	37.2	62.8	25.4	74.6	100.0	60.3	39.7	60.3	39.7	100.0
	100~200만원 미만	54.6	45.4	36.4	63.6	100.0	18.6	81.4	12.1	87.9	100.0
	200~300만원 미만	46.9	53.1	46.0	54.0	100.0	26.5	73.5	17.9	82.1	100.0
	300~400만원 미만	49.6	50.4	44.2	55.8	100.0	32.9	67.1	26.1	73.9	100.0
	400~500만원 미만	54.4	45.6	50.0	50.0	100.0	37.1	62.9	32.4	67.6	100.0
	500만원 이상	54.0	46.0	46.7	53.3	100.0	35.9	64.1	30.1	69.9	100.0

부모님과의 상호지원/수혜 여부에 대해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는 2015년 조사에서는 44.4%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56.9%로

12.5%p 높아졌으며, 2023년에는 67.2%로 2015년 조사에 비해서는 22.8%p, 2020년 조사보다는 10.3%p 높아졌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응답 또한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44.4%와 60.6%로 조사된데 이어 2023년 조사에서는 그보다 높은 70.4%로 집계되었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과 관련해서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81.2%와 80.3%가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23년 조사에서는 86.4%가 도움을 드리지 않는다고 응답해 이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15년(81.2%)과 2020년 조사(91.5%)에 비해 금번 조사에서 도움을 드리지 않는다는 비율(93.6%)이 다소 높았다.

'가족원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또한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모두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90.4%와 90.3%의 응답자가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023년 조사에서는 그보다 4%p가량 높은 94.2%가 도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또한 2015년(90.4%), 2020년(93.0%)에 비해 2023년 조사(96.1%)에서 도움을 드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이 또한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85.6%, 2020년 84.1%였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87.7%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 또한 2015년(85.6%)과 2020년(92.8%)에 비해 2023년 조사(92.9%)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사 등 집안일 도움' 또한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77.0%와 78.1%였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82.9%로 이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 또한 2015년(77.0%)이나 2020년(93.7%)에 비해 2023년 조사(94.7%)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족원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또한 '나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각각 86.3%와 88.7%였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92.4%로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님'께

'가사 등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 또한 2015년(86.3%)이나 2020년(91.6%)에 비해 2023년 조사(94.5%)에서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Ⅷ-43〉 부모님과의 상호지원/수혜 여부 및 제공자 :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드리고 있지 않음			받고 있지 않음		
		2015년	2020년	2023년	2015년	2020년	2023년
나의 부모님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44.4	56.9	67.2	85.6	84.1	87.7
	가사 등 집안일 도움	81.2	80.3	86.4	77.0	78.1	82.9
	가족원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90.4	90.3	94.2	86.3	88.7	92.4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	-	47.1	-	-	51.4
배우자의 부모님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44.4	60.6	70.4	85.6	92.8	92.9
	가사 등 집안일 도움	81.2	91.5	93.6	77.0	93.7	94.7
	가족원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90.4	93.0	96.1	86.3	91.6	94.5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	-	64.5	-	-	69.3

이어서 부모님(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기(자녀들 전적 부담,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모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나의 부모님'은 70.6%, '배우자의 부모님'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이 각각 17.9%, 12.8%,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담'이 각각 4.5%,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44〉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천명, %)

구분		자녀들 전적 부담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살아 계시지 않는다	계
나의 부모님	빈도	1,216	4,824	19,022	6	1,889	26,957
	구성비	4.5	17.9	70.6	0.0	7.0	100.0
배우자의 부모님	빈도	680	3,438	12,799	18	10,023	26,957
	구성비	2.5	12.8	47.5	0.1	37.2	100.0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 해결'의 비율이 '나의 부모님'의 경우 69.0%,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에는 48.4%로 집계되었으며, 여성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고 꼽은 비율이 '나의 부모님'은 72.3%, '배우자의 부모님'은 46.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님 스스로 해결'의 비율이 높았는데 응답자인 성인 자녀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의 경우 36.8%가,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57.2%와 77.9%가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꼽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비율이 중졸 이하 27.7%, 고졸과 초대졸 이상은 각각 43.1%와 50.2%였다.

가족소득 범주별로 나누어 살폈을 때는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완전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을 경우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응답자는 5.0%가,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 번주에 속하는 이들은 각각 15.2%와 34.4%가 부모님께서 스스로 해결하고 계신다고 응답하였다.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 56.7%가,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 범주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는 60.2%가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꼽았다.

〈표 Ⅷ-45〉 응답자 특성별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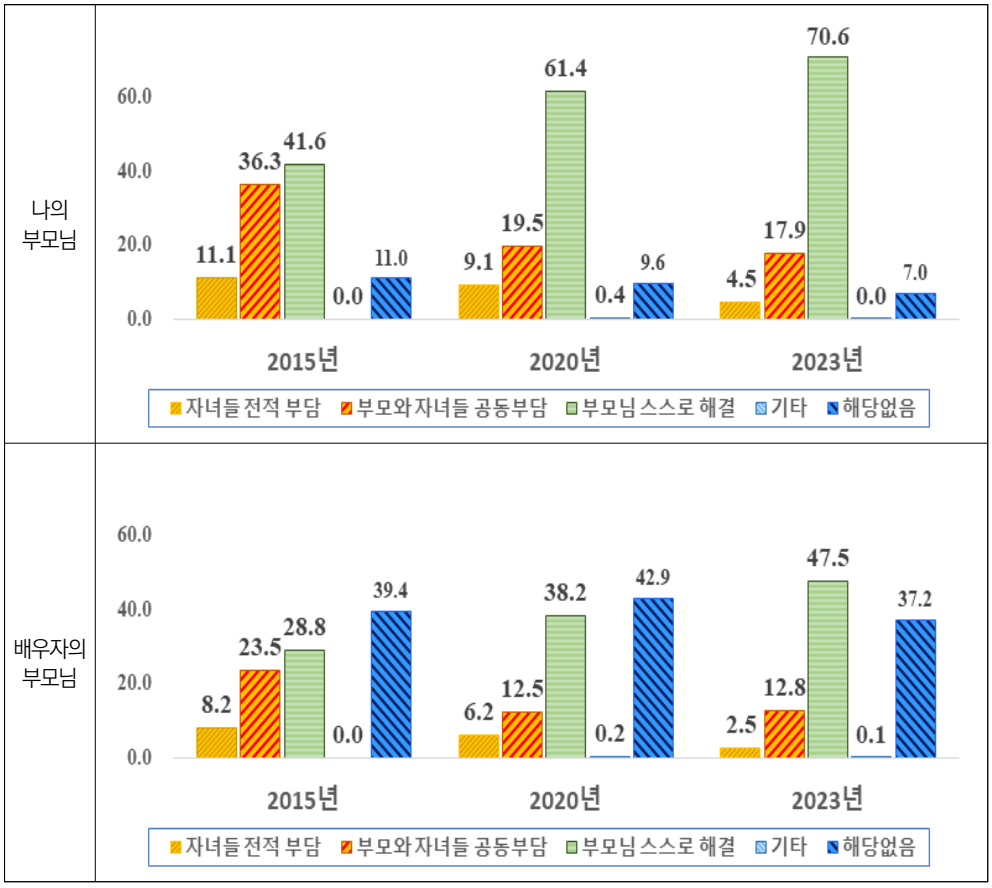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자녀들 전적 부담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살아 계시지 않는다	계
성별	나의 부모님	남성	4.7	18.0	69.0	0.0	8.2	100.0
		여성	4.3	17.7	72.3	0.0	5.6	100.0
	배우자의 부모님	남성	2.2	12.4	48.4	0.1	36.9	100.0
		여성	2.9	13.2	46.4	0.0	37.5	100.0
연령별	나의 부모님	25세 이상~30세 미만	1.0	7.4	91.5	-	0.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0	10.6	87.6	-	0.8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3.4	17.9	75.4	-	3.3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8.0	28.1	50.8	0.0	13.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2.0	25.2	36.5	0.2	26.1	100.0
		70세 이상	16.8	27.2	19.7	-	36.3	100.0

구분			자녀들 전적 부담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살아 계시지 않는다	계
	배우자의 부모님	25세 이상~30세 미만	0.2	0.5	12.3	-	86.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0.2	5.3	54.1	-	40.4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8	13.3	63.7	-	21.2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2	22.9	46.3	0.1	26.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9.5	21.1	35.8	0.2	33.4	100.0
		70세 이상	6.1	27.6	27.8	1.6	36.9	100.0
혼인 상태별	나의 부모님	미혼	3.7	14.4	81.9	0.0	-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1	18.5	67.5	0.0	9.8	100.0
		이혼 또는 별거	12.1	26.7	58.4	-	2.7	100.0
		사별	16.2	26.2	43.6	-	14.0	100.0
	배우자의 부모님	미혼	-	-	-	-	100.0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6	18.2	67.8	0.1	10.3	100.0
		이혼 또는 별거	0.1	3.2	15.7	-	81.1	100.0
		사별	4.9	10.2	21.8	0.6	62.6	100.0
교육 수준별	나의 부모님	중졸 이하	12.6	23.8	36.8	0.1	26.6	100.0
		고등학교	7.8	22.6	57.2	0.0	12.4	100.0
		초대졸 이상	2.7	15.6	77.9	0.0	3.8	100.0
	배우자의 부모님	중졸 이하	7.3	20.6	27.7	0.5	43.8	100.0
		고등학교	4.2	16.7	43.1	0.1	35.9	100.0
		초대졸 이상	1.6	10.7	50.2	0.0	37.5	100.0
가족 소득별	나의 부모님	100만원 미만	21.9	11.9	61.0	1.7	3.4	100.0
		100~200만원 미만	12.9	19.3	58.5	-	9.3	100.0
		200~300만원 미만	5.8	18.9	70.4	0.1	4.9	100.0
		300~400만원 미만	5.5	15.0	73.4	-	6.1	100.0
		400~500만원 미만	4.6	17.8	69.6	0.1	7.9	100.0
		500만원 이상	5.0	20.6	67.4	0.0	7.0	100.0
	배우자의 부모님	100만원 미만	-	2.7	5.0	-	92.3	100.0
		100~200만원 미만	2.4	5.1	14.7	1.2	76.5	100.0
		200~300만원 미만	0.8	5.0	15.2	-	79.0	100.0
		300~400만원 미만	1.6	7.1	34.4	-	56.9	100.0
		400~500만원 미만	1.9	12.7	56.7	-	28.7	100.0
		500만원 이상	3.3	18.5	60.2	-	18.0	100.0

한편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앞선 2015년 및 2020년 조사 결과를 함께 두고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번의 조사 모두에서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꼽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해당 비율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조사로 올수록 자녀들이 부담한다('자녀들 전적 부담'이나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는 항목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녀들 전적 부담'의 경우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11.1%와 9.1%가 이를 선택하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4.5%만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을 꼽은 비율 또한 2015년 36.3%→2020년 19.5%→2023년 17.9%로 최근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 '해당 없음' 응답을 포함하여 제시함

[그림 Ⅷ-6]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4.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여기서는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로 나누어 해당 하는 분들이 계신 경우 각각에 대해 모두 5점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의 응답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한 후 이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과 '보통',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평균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 76.7%, '보통'은 20.3%, '불만족'은 3.0% 순으로 나타났다.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이 8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통'과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이 각각 12.9%와 1.2%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9.3%p 높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p 낮았다.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만족'이 59.7%, '보통'은 37.2%, '불만족'은 3.0%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만족'이 62.1%로 나타났고,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34.3%와 3.6%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만족, 불만족 등의 비율은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를 5점척도(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살펴보면 '나의 어머니'(4.04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나의 아버지'(3.82점)였고, '배우자의 아버지'와 '배우자의 어미니'와의 관계만족도 평균은 각각 3.61점과 3.63점이었다.

〈표 Ⅷ-46〉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천명, 점,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	빈도	609	4,088	15,467	26,957	3.82
	구성비	3.0	20.3	76.7	100.0	
나의 어머니	빈도	285	3,152	21,058	26,957	4.04
	구성비	1.2	12.9	86.0	100.0	
배우자의 아버지	빈도	407	5,013	8,040	26,957	3.61
	구성비	3.0	37.2	59.7	100.0	
배우자의 어머니	빈도	597	5,675	10,260	26,957	3.63
	구성비	3.6	34.3	62.1	100.0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의 평균점수임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5.3%, '불만족'하고 있다는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각각 78.3%와 3.0%로 남성에 비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남성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은 84.3%,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1.2%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해당 비율이 각각 87.8%와 1.2%로 나타나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금 더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5점척도로 집계된 관계만족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남성(3.80점)보다는 여성(3.85점)이 약간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어머니에 대한 응답 또한 여성(4.09점)이 남성(4.00점) 평균에 비해 약간 높았다.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남성이 3.65점, 여성은 3.56점으로 남성이 약간 높았으며,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관계만족도 또한 남성(3.68점)이 여성(3.56점)에 비해 약간 높았다.

〈표 Ⅷ-47〉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성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	남성	3.1	21.7	75.3	100.0	3.80
	여성	3.0	18.7	78.3	100.0	3.85
나의 어머니	남성	1.2	14.6	84.3	100.0	4.00
	여성	1.2	11.0	87.8	100.0	4.09
배우자의 아버지	남성	2.3	35.0	62.7	100.0	3.65
	여성	3.9	39.8	56.3	100.0	3.56
배우자의 어머니	남성	2.0	32.0	65.9	100.0	3.69
	여성	5.4	36.9	57.7	100.0	3.56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의 평균점수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에서는 연령에 따라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등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을 꼽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대는

78.4%, 40대와 50대가 각각 77.7%, 74.8%였으며, 60대의 경우 70.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25세 이상~30세 미만의 응답자들에게서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가 75.7%, 70세 이상의 경우 68.2%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평균을 통해 살폈을 때도 '나의 아버지'에 대해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3.80점), 30대(3.85점), 40대(3.84점)의 평균이 60대(3.71점)나 70세 이상(3.75점)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응답에서도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4.15점), 30대(4.13점), 40대(4.04점)의 평균이 60대(3.84점)나 70세 이상(3.7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등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균을 통해 살펴보면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3.74점), 30대(3.66점), 40대(3.62점)의 평균이 50대(3.53점)나 60대(3.50점)에 비해 높았다.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응답에서도 25세 이상~30세 미만 응답자(3.72점), 30대(3.72점), 40대(3.65점)의 평균이 60대(3.50점)나 70세 이상(3.52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Ⅷ-48〉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	25세 이상~30세 미만	6.5	17.6	75.9	100.0	3.80
	30세 이상~40세 미만	3.1	18.5	78.4	100.0	3.85
	40세 이상~50세 미만	2.0	20.3	77.7	100.0	3.84
	50세 이상~60세 미만	2.0	23.2	74.8	100.0	3.79
	60세 이상~70세 미만	1.3	28.8	70.0	100.0	3.71
	70세 이상	1.9	23.3	74.8	100.0	3.75
나의 어머니	25세 이상~30세 미만	1.8	6.2	91.9	100.0	4.15
	30세 이상~40세 미만	1.0	9.2	89.8	100.0	4.13
	40세 이상~50세 미만	1.1	12.9	86.0	100.0	4.04
	50세 이상~60세 미만	1.1	17.7	81.3	100.0	3.93
	60세 이상~70세 미만	1.3	22.9	75.7	100.0	3.84
	70세 이상	-	31.8	68.2	100.0	3.76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배우자의 아버지	25세 이상~30세 미만	5.0	25.4	69.6	100.0	3.74
	30세 이상~40세 미만	2.6	33.8	63.6	100.0	3.66
	40세 이상~50세 미만	2.8	35.8	61.3	100.0	3.62
	50세 이상~60세 미만	3.4	42.9	53.7	100.0	3.53
	60세 이상~70세 미만	3.4	45.2	51.3	100.0	3.50
	70세 이상	-	30.6	69.4	100.0	3.73
배우자의 어머니	25세 이상~30세 미만	4.9	25.9	69.2	100.0	3.72
	30세 이상~40세 미만	2.9	28.8	68.2	100.0	3.72
	40세 이상~50세 미만	3.6	32.1	64.3	100.0	3.65
	50세 이상~60세 미만	4.0	39.0	56.9	100.0	3.55
	60세 이상~70세 미만	3.9	43.7	52.4	100.0	3.50
	70세 이상	0.8	48.2	50.9	100.0	3.52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높고,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이라는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만족이 59.6%, 보통과 불만족의 비율은 각각 36.3%와 4.2%였으며, 고졸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2.8%로 중졸 이하에 비해 13.2%p 높았으며, 보통과 불만족의 비율은 각각 23.3%와 3.8%였다. 초대졸 이상의 경우 만족의 비율이 78.2%로 여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19.0%, 불만족은 2.7%로 나타났다.

5점척도로 측정된 관계만족도의 평균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모두에 대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계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평균 3.79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졸(3.96점), 초대졸 이상(4.08점) 순으로 높았다.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중졸 이하(3.42점), 고졸(3.53점), 초대졸 이상(3.6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평균값 또한 중졸 이하(3.38점), 고졸(3.55점), 초대졸 이상(3.67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Ⅷ-49〉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	중졸 이하	4.2	36.3	59.6	100.0	3.56
	고등학교	3.8	23.3	72.8	100.0	3.75
	초대졸 이상	2.7	19.0	78.2	100.0	3.85
나의 어머니	중졸 이하	1.9	26.0	72.1	100.0	3.79
	고등학교	1.9	16.3	81.8	100.0	3.96
	초대졸 이상	0.9	11.1	88.0	100.0	4.08
배우자의 아버지	중졸 이하	5.6	48.7	45.7	100.0	3.42
	고등학교	4.3	41.4	54.3	100.0	3.53
	초대졸 이상	2.5	35.5	62.0	100.0	3.64
배우자의 어머니	중졸 이하	4.9	53.4	41.7	100.0	3.38
	고등학교	4.5	38.0	57.5	100.0	3.55
	초대졸 이상	3.2	32.0	64.8	100.0	3.67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의 평균점수임

가족소득별로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 모두에 대해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을 경우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하는 비율은 낮고,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을 꼽은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관계 만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미만의 경우 '불만족'과 '만족'을 응답한 이들이 비율이 각각 3.2%와 63.7%인 반면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수록 '불만족'의 비중은 낮아지고, '만족'의 비중은 높아져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응답자들의 경우 '불만족'이 0.9%를 차지하였고, 87.6%는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아버지'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해 있을수록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배우자의 아버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족소득이 100만원~200만원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불만족'과 '만족'을 응답한 이들이 비율이 각각 11.6%와 56.0%인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가족소득 범주에 속할 경우 '불만족'의 비중은 낮고, '만족'의 비중은 높아져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경우 '불만족'이 2.7%, '만족'은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척도로 측정된 관계만족도의 평균을 가족소득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모두에 대해서 높은

정도의 소득범주에 속할수록 관계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나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미만에 속할 경우의 평균이 3.12점으로 가장 낮았고, 100~200만원 미만 및 200~300만원 미만의 가족소득에 속한 이들의 평균은 각각 3.59점과 3.68점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은 이어져 나타나는데 300~400만원 미만 범주의 평균은 3.77점이었고 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이들의 평균은 가장 높은 3.87점을 나타내었다.

〈표 Ⅷ-50〉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가족소득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나의 아버지	100만원 미만	26.3	22.9	50.8	100.0	3.12
	100~200만원 미만	5.3	33.8	60.9	100.0	3.59
	200~300만원 미만	4.2	30.8	65.0	100.0	3.68
	300~400만원 미만	4.1	23.7	72.3	100.0	3.77
	400~500만원 미만	2.3	24.0	73.7	100.0	3.80
	500만원 이상	2.3	17.5	80.2	100.0	3.87
나의 어머니	100만원 미만	3.2	33.1	63.7	100.0	3.69
	100~200만원 미만	2.0	21.9	76.1	100.0	3.87
	200~300만원 미만	3.3	18.5	78.2	100.0	3.90
	300~400만원 미만	2.1	15.4	82.5	100.0	4.00
	400~500만원 미만	0.9	13.0	86.1	100.0	4.05
	500만원 이상	0.9	11.4	87.6	100.0	4.08
배우자의 아버지	100만원 미만	-	31.1	68.9	100.0	3.69
	100~200만원 미만	11.6	32.3	56.0	100.0	3.44
	200~300만원 미만	16.2	45.0	38.8	100.0	3.22
	300~400만원 미만	5.9	46.8	47.3	100.0	3.45
	400~500만원 미만	3.9	39.7	56.4	100.0	3.57
	500만원 이상	2.7	36.1	61.1	100.0	3.62
배우자의 어머니	100만원 미만	-	24.9	75.1	100.0	3.75
	100~200만원 미만	11.7	44.8	43.6	100.0	3.30
	200~300만원 미만	15.4	40.4	44.2	100.0	3.28
	300~400만원 미만	8.2	41.4	50.4	100.0	3.44
	400~500만원 미만	4.2	36.2	59.6	100.0	3.60
	500만원 이상	3.2	34.4	62.4	100.0	3.65

주: 1) 해당없음 제외
2) *5점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의 평균점수임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를 2015년 및 2020년「가족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최근 조사 결과에서의 평균이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 만족도의 평균은 2015년 조사에서는 3.52점이었으며, 2020년 조사에서는 3.63점으로 집계되었고, 2023년 조사에서는 3.82점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서는 0.30점, 2020년 조사보다는 0.19점 더 높았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 관계 만족도는 2015년(3.76점)에 비해서는 2020년(3.90점)이 더 높았으며, 2023년에는 그보다 더 높은 4.04점으로 집계되었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전반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평균은 2015년이 3.42점, 2020년은 3.55점이었고, 2023년 조사에서는 3.61점으로 2015년에 비해 0.19점, 2020년보다는 0.06점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또한 2015년(3.41점) 및 2020년(3.55점) 조사에 비해 2023년 조사의 평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3.63점).

〈표 Ⅷ-51〉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2015년	3.52	3.76	3.42	3.41
2020년	3.63	3.90	3.55	3.55
2023년	3.82	4.04	3.61	3.63

주: 5점척도(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의 평균점수임

Ⅸ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 설계

제1절. 일과 일·생활 균형 391
제2절.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400
제3절. 노후 생애 설계 419

제 9장은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설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일과 관련해서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고용 형태, 최근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았다. 다만, 2023년 조사에서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파트타임 기준을 적용한 시간으로 보기 항목을 변경하였다.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일과 가족생활 균형(5문항), 일과 개인생활 균형(1문항), 전반적인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1문항),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히, 2023년 조사에서는 일과 가족생활 균형뿐 아니라 일-개인생활 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6)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7) 현재 내 삶에서 일과 가족(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의 2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원의 가사 참여와 여가 실태를 파악하였다. 가사 참여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하게 가사노동 수행 여부, 가사노동 세부 항목별 주당 평균 수행 횟수와 회당 평균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가사노동의 세부 항목은 음식 준비, 의류 손질 및 세탁, 청소 및 정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총 5개였다.

가족 여가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하게 최근 6개월 동안 가족과 가장 자주 함께한 여가활동에 대해 평일과 휴일로 나눠서 조사하였고, 최근 6개월간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러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의 경우 2015년과 2020년 응답 빈도를 검토해 빈도가 낮은 항목 일부를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최근 여가 활동 경향을 반영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한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원이 느끼는 가족여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을 신규 개발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세부 문항은 1)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2)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 3)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부모, 형제자매)들과 더 친밀해졌다, 4)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 5)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6)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다.

노후 생애설계는 대부분의 문항을 2020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했는데, 생애설계에 대한 준비 정도와 노후에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고 싶은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와 그 내용이 해당한다. 2023년 조사에서는 2가지 질문을 추가하였다. 먼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의 하위 문항으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노후 생애설계와 관련해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일상생활의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고 싶은지에 대한 의향을 묻는 문항을 개발해 포함하였다.

〈표 Ⅸ-1〉 일, 가사와 여가, 노후 생애 설계 관련 2020년과 2023년 조사문항 비교

영역	2023년 조사 문항	2020년과 비교
일과 일·생활 균형	51. 근로 여부	2020년과 비교 가능
	52. 고용 형태(종사상 지위)	2020년과 비교 가능
	53. 주당 평균 근무시간	2020년과 비교 불가 응답 항목 변경: 주휴수당, 파트타임 기준 적용
	54.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2020년과 부분 비교 가능 문항 추가(2개)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55. 가사노동 수행 여부, 주당 평균 횟수, 회당 평균 소요시간	2020년과 비교 가능 응답자용 설명 보완 및 추가
	56-1. 가족 여가 활동의 종류	2020년과 비교 가능 부분 변경: 응답 항목 일부 통합, 삭제
	57. 평균 가족 여가 시간	2020년과 비교 가능
	58. 가족 여가 시간의 충분성 여부 및 사유	2020년과 비교 가능
	59.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	신규 문항 2020년과 비교 불가
노후 생애 설계	60. 생애 설계에 대한 준비도	2020년과 비교 가능
	61. 노후 희망 거주 공간 및 동거인	2020년과 비교 가능
	62. 노후의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내용	2020년과 부분 비교 가능 62-2. 문항(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 응답 항목 추가
	63.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	신규 문항 2020년과 비교 불가

제1절. 일과 일·생활 균형

1. 일: 고용 형태와 노동 시간

취업 여부는 만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47,219 천 명 중 61.3%가 일했다고 응답했고, 37.7%가 일하지 않았다, 1.0%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2020년과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사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71.9%가 취업상태였고, 27.4%는 일하지 않았고, 0.7%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50.7%가 취업상태였고, 48.0%는 일하지 않았고, 1.4%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취업 비율이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고,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0세 이상 70.6%, 20대 43.8%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인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비취업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취업 비율은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은 80.4%로 나타났다.

〈표 Ⅸ-2〉 응답자 특성별 취업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일했다(취업)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음	일하지 않았다	계
전체(2020)		26,816	1,951	18,117	46,883
		57.2	4.2	38.6	100.0
전체(2023)		28,924	483	17,813	47,219
		61.3	1.0	37.7	100.0
성별	남성	71.9	0.7	27.4	100.0
	여성	50.7	1.4	48.0	100.0
연령	20세 미만	1.2	-	98.8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55.5	0.7	43.8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80.1	1.6	18.3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80.1	1.2	18.7	100.0

구분		일했다(취업)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음	일하지 않았다	계
	50세 이상~60세 미만	80.0	0.7	19.3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64.5	1.0	34.5	100.0
	70세 이상	27.8	1.6	70.6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3.8	1.0	75.2	100.0
	고등학교	58.6	0.8	40.6	100.0
	초대졸 이상	80.4	1.2	18.4	100.0

취업상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근로자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0.3%)와 임시근로자(11.8%)였다. 그 밖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0% 미만이었다. 2020년에 비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6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4%로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임시근로자가 17.8%, 무급가족종사자가 6.1%로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청장년층인 20대부터 40대까지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상대적 고령층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임시근로자,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용형태가 일정한 패턴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높은 반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Ⅸ-3〉 고용 형태(종사상 지위)

(단위: 천명,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전체(2020년)		15,739	4,059	2,150	1,710	4,221	888	28,767
		54.7	14.1	7.5	5.9	14.7	3.1	100.0
전체(2023년)		17,109	3,474	715	1,258	5,975	875	29,407
		58.2	11.8	2.4	4.3	20.3	3.0	100.0
성별	남성	62.0	7.5	2.7	5.4	21.7	0.7	100.0
	여성	52.9	17.8	2.1	2.8	18.4	6.1	100.0
연령	20세 미만	44.7	28.2	27.1	-	-	-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77.7	15.2	2.0	0.6	3.7	0.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83.9	5.1	1.0	2.4	6.7	1.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71.0	6.9	1.1	4.4	14.5	2.0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52.0	11.2	2.1	6.5	24.7	3.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5.2	18.6	5.2	6.4	39.1	5.5	100.0
	70세 이상	7.7	26.4	5.8	3.0	49.3	7.8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4	25.3	7.8	2.4	42.3	10.9	100.0
	고등학교	40.0	17.6	4.2	4.7	29.5	4.0	100.0
	초대졸 이상	75.4	6.5	0.7	4.3	11.8	1.3	100.0

최근 6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5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35~40시간 미만이 22.9%, 장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52시간 이상이 8.3% 순이었다.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는 15~35시간 미만과 15시간 미만은 각각 6.2%, 1.8%로 응답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52시간 미만(64.8%), 52시간 이상(10.2%)이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35~40시간 미만(26.1%), 15~35시간 미만(10.0%), 15시간 미만(3.0%)의 비율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았다. 이는 앞서 본 성별 고용 형태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의 분포 비율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은 편인 데 반해, 20대부터 50대

사이의 연령 구간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40~52시간 미만 분포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또한 50, 60대에서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이 각 11.6%, 11.3%로, 전체 평균 비율 분포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법정근로시간인 40~52시간 미만의 비율은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시간근로인 52시간 이상의 경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일 때 12.0%, 중졸 이하일 때 9.5%로 초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Ⅸ-4〉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천명, %)

구분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	35~40시간 미만	40~52시간 미만	52시간 이상	계
전체		520	1,826	6,740	17,872	2,448	29,407
		1.8	6.2	22.9	60.8	8.3	100.0
성별	남성	0.9	3.5	20.6	64.8	10.2	100.0
	여성	3.0	10.0	26.1	55.2	5.7	100.0
연령	20세 미만	2.9	44.7	10.6	41.8	-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1.1	6.1	24.0	65.0	3.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0.9	2.9	24.3	66.2	5.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0.7	3.5	22.1	66.3	7.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0.6	4.7	21.5	61.6	11.6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6	9.3	24.1	53.7	11.3	100.0
	70세 이상	14.4	22.8	21.5	32.2	9.1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7	22.9	23.1	33.8	9.5	100.0
	고등학교	1.4	7.1	23.2	56.3	12.0	100.0
	초대졸 이상	0.8	3.4	22.7	67.1	6.0	100.0

2.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2023년 조사에서는 취업상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조사와 동일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관련 5개 문항 외에 일과 개인생활 균형(1개)과 전반적인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1개)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가 3점('보통이다') 미만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분석 결과를 보면,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68점으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57점,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응답이 2.52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46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2.18점이었고,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다는 응답은 2.02점,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가족생활이 직장 일에 주는 지장보다는 직장일로 인한 개인,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Ⅸ-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단위: 천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빈도	16,328	6,834	6,245	29,407	2.52
	구성비	55.5	23.2	21.2	100.0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빈도	16,117	8,091	5,199	29,407	2.46
	구성비	54.8	27.5	17.7	100.0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빈도	19,227	5,940	4,240	29,407	2.18
	구성비	65.4	20.2	14.4	100.0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빈도	21,081	5,185	3,141	29,407	2.02
	구성비	71.7	17.6	10.7	100.0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일터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빈도	21,920	4,659	2,828	29,407	1.93
	구성비	74.5	15.8	9.6	100.0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빈도	12,863	9,337	7,207	29,407	2.68
	구성비	43.7	31.8	24.5	100.0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빈도	14,095	10,224	5,088	29,407	2.57
	구성비	47.9	34.8	17.3	100.0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일과 생활 균형의 어려움 중 2015년, 2020년과 동일한 일과 가족생활 균형 관련 5개 문항을 비교한 결과 모두 2015년, 2020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문항은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낮은 항목은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로, 이는 2015, 2020, 2023년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20년과 유사하게 대체로 맞벌이 가족이 비맞벌이에 비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조금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Ⅸ-6〉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점)

항목	2015년			2020년			2023년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2.48	2.45	2.55	2.26	2.26	2.26	2.52	2.55	2.53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41	2.38	2.46	2.21	2.21	2.22	2.46	2.48	2.47
직장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1.94	1.94	1.93	1.90	1.93	1.83	2.18	2.21	2.13
가사나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1.73	1.74	1.70	1.73	1.77	1.62	2.02	2.09	1.99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 있다	1.57	1.58	1.54	1.51	1.53	1.48	1.93	1.98	1.87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문항별 성별 응답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과 관련된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의 응답 평균 점수는 남성 2.57점, 여성 2.56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상황별로 살펴본 세부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였다.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등 2개 문항 응답의 평균 점수는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다,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등 3개 문항에서는 여성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에서는 남성(2.68점)과 여성(2.69점)의 평균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Ⅸ-7〉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남성	55.0	22.8	22.1	100.0	2.54
	여성	56.2	23.8	20.0	100.0	2.49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남성	54.5	27.4	18.1	100.0	2.47
	여성	55.3	27.6	17.1	100.0	2.44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남성	66.2	19.7	14.1	100.0	2.17
	여성	64.2	20.9	14.9	100.0	2.20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남성	73.3	16.5	10.1	100.0	1.99
	여성	69.4	19.2	11.4	100.0	2.07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일터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남성	75.6	15.0	9.4	100.0	1.91
	여성	73.0	17.0	10.0	100.0	1.96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남성	44.1	32.0	24.0	100.0	2.68
	여성	43.3	31.5	25.2	100.0	2.69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 (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성	48.0	34.5	17.6	100.0	2.57
	여성	47.9	35.2	17.0	100.0	2.56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응답자를 기혼 유배우자로 한정하여 맞벌이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의 평균 점수는 맞벌이(2.61점)가 비맞벌이(2.58점)보다 조금 높았지만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 외 세부 문항별로 보면, 맞벌이가 비맞벌이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아서 대체로 맞벌이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도, 전체 문항 모두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점수가 비맞벌이 남성과 여성보다 각각 더 높았으며, 여성들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Ⅸ-8〉 기혼 유배우자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맞벌이 여부, 성별)

(단위: 점)

항목	전체	맞벌이 여부					
		비맞벌이			맞벌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2.52	2.53	2.55	2.35	2.55	2.60	2.51
직장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2.46	2.47	2.48	2.31	2.48	2.50	2.45
직장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2.18	2.13	2.14	1.95	2.21	2.21	2.20
가사나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2.02	1.99	2.01	1.85	2.09	2.04	2.13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일터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 있다	1.93	1.87	1.88	1.75	1.98	1.98	1.99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2.68	2.68	2.70	2.50	2.75	2.73	2.77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57	2.58	2.60	2.38	2.61	2.61	2.62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응답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 4개 문항은 근로시간이 긴 집단일수록 평균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다,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등 3개 문항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집단이 40시간 미만 집단보다 평균 점수 높지만 40시간 이상~52시간 미만과 52시간 이상 집단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52시간 이상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Ⅸ-9〉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근로 시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40시간 미만	64.2	19.9	15.9	100.0	2.30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53.4	24.4	22.2	100.0	2.58
	52시간 이상	39.0	27.2	33.8	100.0	2.90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40시간 미만	63.4	23.7	12.9	100.0	2.23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52.8	28.6	18.6	100.0	2.52
	52시간 이상	37.2	34.2	28.6	100.0	2.86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40시간 미만	71.2	17.2	11.6	100.0	2.01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62.6	21.8	15.6	100.0	2.26
	52시간 이상	64.2	19.8	16.0	100.0	2.25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40시간 미만	77.0	14.7	8.4	100.0	1.86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69.1	19.3	11.6	100.0	2.10
	52시간 이상	70.9	16.1	13.0	100.0	2.06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일터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40시간 미만	79.1	13.4	7.5	100.0	1.78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72.0	17.3	10.7	100.0	2.01
	52시간 이상	76.2	14.0	9.8	100.0	1.90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40시간 미만	55.0	28.4	16.6	100.0	2.41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40.4	33.7	25.9	100.0	2.76
	52시간 이상	26.5	29.9	43.6	100.0	3.15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0시간 미만	58.4	29.5	12.0	100.0	2.34
	40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44.9	36.8	18.3	100.0	2.63
	52시간 이상	31.4	39.0	29.6	100.0	2.94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제2절.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1. 가족원의 가사 노동 참여

만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 참여 여부와 참여 시간을 조사하였다. 가사 노동에 대한 참여 여부는 음식 준비, 의류 손질 및 세탁, 청소 및 정리,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총 5개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든 항목에서 2020년에 비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Ⅸ-10〉 가사노동 참여 여부: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가사 노동에 참여한다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가사 노동에 참여한다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63.2	36.8	70.7	29.3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62.7	37.3	67.3	32.7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74.4	25.6	80.6	19.4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61.6	38.4	76.5	23.5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46.4	53.6	58.8	41.2

5개 항목별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80.6%), 상품 및 서비스 구입(76.5%), 음식 준비(70.7%)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표 Ⅸ-11〉 가사 노동 참여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가사 노동에 참여한다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계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빈도	33,398	13,822	47,219
	구성비	70.7	29.3	100.0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빈도	31,774	15,446	47,219
	구성비	67.3	32.7	100.0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빈도	38,043	9,176	47,219
	구성비	80.6	19.4	100.0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빈도	36,121	11,099	47,219
	구성비	76.5	23.5	100.0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빈도	27,754	19,465	47,219
	구성비	58.8	41.2	100.0

가사 항목별 참여 여부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5개 항목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청소 및 정리 참여율은 70.7%로 비교적 높았고,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66.9%였으나 그 외 3개 항목은 가사 노동 참여와 비참여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참여율이 63.4%로 상대적으로 낮을 뿐 나머지 4개 항목의 가사노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율이 85%가 넘었으며, 남성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청소 및 정리의 경우 90.3%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표 Ⅸ-12〉 가사 노동 참여 여부(성별)

(단위: %)

구분		가사 노동에 참여한다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계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남성	54.0	46.0	100.0
	여성	87.4	12.6	100.0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남성	48.2	51.8	100.0
	여성	86.3	13.7	100.0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남성	70.7	29.3	100.0
	여성	90.3	9.7	100.0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남성	66.9	33.1	100.0
	여성	86.1	13.9	100.0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남성	54.1	45.9	100.0
	여성	63.4	36.6	100.0

응답자를 기혼 유배우자로 한정하여 맞벌이 여부에 따른 가사 노동 참여 여부를 비교한 결과 5개 항목에서 응답자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가 비맞벌이보다 가사노동 참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과 가사노동 병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의 경우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항목 외에 음식 준비, 청소 및 정리, 의류 손질 및 세탁,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 4개 항목 가사노동 참여율이 98% 이상이었다. 또한 의류 손질 및 세탁의 경우 남성과의 참여율 차이가 45.4%, 음식 준비 38.1% 등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에서 불평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Ⅸ-13〉 기혼 유배우자의 가사 노동 참여 여부(맞벌이 여부,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54.0	87.4	60.4	98.5	48.5	98.4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48.2	86.3	52.9	98.3	40.6	97.7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70.7	90.3	78.6	98.2	71.5	98.1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66.9	86.1	77.6	98.0	67.9	97.3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54.1	63.4	66.5	78.6	59.8	74.9

만 12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 평균 가사 노동 참여 횟수도 살펴보았다. 2020년과 비교한 결과, 5개 항목 모두에서 주 평균 참여 횟수와 1회 평균 소요시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분석 결과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표 Ⅸ-14〉 가사 노동 참여 횟수 및 소요시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주 평균 횟수	1회 평균 소요시간(분)	주 평균 횟수	1회 평균 소요시간(분)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남성	4.7	35.1	4.44	30.15
	여성	9.1	45.1	9.36	41.45
	전체	7.6	41.7	7.49	37.15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남성	2.4	36.1	1.96	33.27
	여성	3.7	42.9	2.92	40.35
	전체	3.3	40.6	2.58	37.82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남성	2.5	32.7	2.27	26.63
	여성	4.2	38.5	3.67	31.33
	전체	3.5	36.1	3.06	29.27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남성	1.9	40.2	1.75	37.98
	여성	2.4	44.9	2.25	39.04
	전체	2.2	43.1	2.03	38.58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남성	1.5	31.0	1.40	27.63
	여성	1.8	31.7	1.52	26.09
	전체	1.7	31.4	1.47	26.80

활동별 가사 노동 참여 횟수와 소요 시간을 보면, 음식준비 7.49회, 의류손질·세탁 2.58회, 청소·정리 3.06회, 상품·서비스 구입 2.03회, 주거·기타가정관리 1.47회로 음식준비가 가장 많이 하는 가사활동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소요 시간은 참여 횟수가 가장 많은 음식준비의 경우 37.15분이며, 대체로 25분 이상~40분 미만으로 나타났다. 5개 가사 활동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횟수가 더 많고, 소요 시간도 더 길었다. 주 평균 참여 횟수가 가장 많은 ‘음식 준비’ 활동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주 평균 4.44회, 1회 평균 30.15분을 하는데 반해, 여성은 주 평균 9.36회, 1회 평균 41.45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Ⅸ-15〉 가사 노동 참여 횟수 및 소요시간(성별)

(단위: 회, 분)

구분		참여횟수 및 소요시간	
		주 평균 횟수	1회 평균 소요시간(분)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남성	4.44	30.15
	여성	9.36	41.45
	전체	7.49	37.15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남성	1.96	33.27
	여성	2.92	40.35
	전체	2.58	37.82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남성	2.27	26.63
	여성	3.67	31.33
	전체	3.06	29.2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남성	1.75	37.98
	여성	2.25	39.04
	전체	2.03	38.58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남성	1.40	27.63
	여성	1.52	26.09
	전체	1.47	26.80

기혼 유배우 가족에 한정하여 맞벌이 여부와 성별에 따른 가사 노동 참여 횟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5개 활동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 횟수가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음식 준비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맞벌이와 비맞벌이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남성은 비맞벌이인 남성보다는 더 자주 가사 노동에 참여하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비맞벌이인 여성보다는 가사 노동을 하는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와 비맞벌이 남성 간의 차이는 두 집단의 여성 간의 차이보다는 크지 않았다.

〈표 Ⅸ-16〉 기혼 유배우자의 가사 노동 참여 횟수(맞벌이 여부, 성별)

(단위: 회)

구분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4.44	9.36	3.67	9.85	3.56	11.23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1.96	2.92	1.94	3.12	1.82	3.39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2.27	3.67	2.26	3.79	2.19	4.33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1.75	2.25	1.67	2.31	1.63	2.50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1.40	1.52	1.43	1.59	1.43	1.60

1회 평균 가사 노동 소요 시간을 보면,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활동을 제외한 4개 가사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 시간이 남성보다 길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맞벌이와 비맞벌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경우 음식 준비를 제외하고 4개 활동에서 비맞벌이의 가사 노동 시간이 조금 더 길었지만 차이가 미미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제외한 활동에서 맞벌이의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나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표 Ⅸ-17〉 기혼 유배우자의 가사 노동 소요시간(맞벌이 여부, 성별)

(단위: 분)

구분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음식 준비 (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30.15	41.45	32.09	46.26	30.01	45.35
의류 손질 및 세탁 (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33.27	40.35	31.83	41.91	30.82	42.42
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26.63	31.33	27.71	33.57	27.00	33.65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37.98	39.04	41.30	41.72	41.97	42.12
주거 및 기타 가정관리 (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27.63	26.09	29.15	26.31	28.43	26.45

2. 가족 여가 행동과 인식

만 12세 이상 응답자 중 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동안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가족과 함께 한 여가활동을 조사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20년 분석 결과 응답 빈도가 낮은 항목을 통합(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하였고, 최근 가족 여가 경향 등을 반영해 항목을 추가(함께 독서하기, 하지 않음)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의 경우 TV 또는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이 59.9%로 가장 높았고, 2023년 신규 조사한 항목인 가족 여가활동을 하지 않음이 24.5%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산책(6.0%), 외식(3.7%) 순으로 가족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신규 문항을 제외하면 평일 가족 여가활동 유형은 2020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휴일 가족 여가활동 역시 TV 또는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이 38.5%로 가장 높았지만, 외식(15.2%), 산책(7.9%), 여행/야외활동(7.5%), 쇼핑(6.5%) 등 평일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도 평일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TV 또는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 외식, 산책 순으로 가족 여가활동 비중이 높은 것은 동일하였지만,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감소한 2023년에는 외식, 산책, 여행/야외활동, 쇼핑과 같이 집 밖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Ⅸ-18〉 가족 여가활동: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2023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TV 또는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	77.1	49.8	59.9	38.5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	-	0.6	2.2
게임	3.4	3.6	1.0	1.2
쇼핑	1.2	4.4	1.4	6.5
외식	4.8	14.6	3.7	15.2
산책	5.8	8.2	6.0	7.9
스포츠 활동	1.5	3.5	1.1	2.4
여행, 야외활동	0.2	3.5	0.5	7.5
종교 생활	0.7	5.3	0.2	3.6
목욕, 사우나, 찜질방 가기	0.3	1.2	0.3	0.7
함께 독서하기	-	-	0.7	0.1
기타	3.5	1.8	0.1	0.1
하지 않음	-	-	24.5	14.1

〈표 Ⅸ-19〉 가족 여가활동

(단위: 천명, %)

구분		TV 또는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게임	쇼핑	외식	산책	스포츠 활동 (등산 포함)	여행, 야외 활동 (놀이 공원, 캠핑 등)	종교 생활	목욕, 사우나, 찜질방 가기	함께 독서 하기	기타	하지 않음	계
평일	빈도	11,629	121	200	274	723	1,163	220	91	40	55	136	14	4,761	19,428
	구성비	59.9	0.6	1.0	1.4	3.7	6.0	1.1	0.5	0.2	0.3	0.7	0.1	24.5	100.0
휴일	빈도	7,479	427	233	1,257	2,947	1,526	474	1,460	709	144	18	15	2,738	19,428
	구성비	38.5	2.2	1.2	6.5	15.2	7.9	2.4	7.5	3.6	0.7	0.1	0.1	14.1	100.0

가족소득별 가족 여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가족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휴일의 결과를 보면, 외식, 여행/야외활동, 쇼핑,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주로 경제적 비용 지불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가족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보다 낮은 집단에 비해 각각의 활동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평일과 휴일 모두 가족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해 보면, 가족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가족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평일 44.8%, 휴일 35.3%로 나타난 반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중이 낮아져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평일 15.1%, 휴일 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Ⅸ-20〉 가족 여가활동(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TV 또는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게임	쇼핑	외식	산책	스포츠 활동 (등산 포함)	여행, 야외 활동 (놀이 공원, 캠핑 등)	종교 생활	목욕, 사우나, 찜질방 가기	함께 독서 하기	기타	하지 않음	계
평일	100만원 미만	47.5	-	1.6	1.0	1.2	2.1	1.0	-	0.2	-	0.4	0.3	44.8	100.0
	100~200 만원 미만	66.0	0.7	0.6	0.6	0.6	3.5	0.5	-	0.6	0.1	-	0.1	26.8	100.0
	200~300 만원 미만	48.1	0.4	1.5	0.2	3.2	3.3	0.7	0.2	0.1	0.1	0.2	0.3	41.6	100.0
	300~400 만원 미만	52.5	0.5	0.7	0.9	2.6	5.4	1.3	0.2	0.1	0.2	0.6	-	35.0	100.0
	400~500 만원 미만	64.3	0.9	0.8	1.6	4.7	7.2	0.6	0.6	0.2	0.3	1.2	0.0	17.6	100.0
	500만원 이상	65.2	0.7	1.1	2.1	4.7	7.3	1.5	0.7	0.2	0.4	0.8	0.0	15.1	100.0
휴일	100만원 미만	44.0	-	1.6	3.2	5.8	4.2	1.8	1.6	1.9	0.4	-	0.3	35.3	100.0
	100~200 만원 미만	57.5	0.4	1.2	2.3	6.9	5.8	0.5	1.2	4.8	0.5	-	-	19.1	100.0
	200~300 만원 미만	37.3	1.3	2.2	4.3	11.2	6.4	1.0	2.8	3.2	0.4	-	0.2	29.8	100.0
	300~400 만원 미만	34.7	1.7	1.7	5.5	15.3	7.1	2.4	6.5	2.6	0.6	0.1	0.0	21.9	100.0
	400~500 만원 미만	40.2	2.5	0.5	6.1	15.0	9.2	2.0	10.3	3.1	1.5	0.1	0.0	9.5	100.0
	500만원 이상	36.7	3.0	0.9	8.6	18.3	8.7	3.5	9.8	4.4	0.7	0.2	0.1	5.1	100.0

최근 6개월 동안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가족과 함께 한 여가시간은 만 12세 이상 응답자 중 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일에는 30분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1~2시간 미만이 25.7%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2020년 1~2시간 미만(26.2%), 30분~1시간 미만(20.5%) 순으로 높았던 결과와 비교할 때 가족여가의 경향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평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020년에 비해 2023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휴일에는 2020년과 동일하게 3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Ⅸ-21〉 가족 여가시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2020년	평일	19.3	20.5	26.2	13.1	20.8	100.0
	휴일	9.6	10.3	19.8	18.4	41.9	100.0
2023년	평일	30.9	19.6	25.7	14.1	9.7	100.0
	휴일	17.1	5.5	15.9	22.5	39.0	100.0

〈표 Ⅸ-22〉 가족 여가시간

(단위: 천명, %)

구분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평일	빈도	6,002	3,799	5,002	2,733	1,892	19,428
	구성비	30.9	19.6	25.7	14.1	9.7	100.0
휴일	빈도	3,321	1,064	3,085	4,373	7,586	19,428
	구성비	17.1	5.5	15.9	22.5	39.0	100.0

가족소득별 가족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가족소득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가족 여가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집단의 경우 가족소득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장 응답율이 높았던 30분 미만의 경우 가족소득 1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분 미만의 비율은 61.9%이며, 3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응답 비중이 낮아져 500만 원 이상의 경우 19.4%로 나타났다.

휴일도 가족소득과 가족 여가시간의 일관된 경향성은 보기 어려웠으나 소득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3시간 이상 가족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도 증가했다. 반면, 가족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30분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Ⅸ-23〉 가족 여가시간(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평일	100만원 미만	61.9	9.6	10.8	3.7	14.0	100.0
	100~200만원 미만	37.5	17.5	15.5	10.5	19.0	100.0
	200~300만원 미만	52.1	13.9	15.9	9.3	8.9	100.0
	300~400만원 미만	42.2	16.7	19.8	12.7	8.6	100.0
	400~500만원 미만	21.8	23.7	28.8	16.9	8.8	100.0
	500만원 이상	19.4	22.1	33.0	16.3	9.2	100.0
휴일	100만원 미만	48.7	7.3	13.6	10.5	19.9	100.0
	100~200만원 미만	25.4	11.0	17.0	15.0	31.5	100.0
	200~300만원 미만	37.4	6.9	15.5	18.2	22.0	100.0
	300~400만원 미만	25.3	5.2	16.5	18.9	34.1	100.0
	400~500만원 미만	10.9	4.7	17.8	24.2	42.4	100.0
	500만원 이상	5.9	4.5	15.0	26.8	47.9	100.0

최근 6개월 간 가족과 함께 보낸 여가시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가 64.4%, '충분하지 않다'가 35.6%로 2020년과 유사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연령대별로 '충분하지 않다'의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평균적인 비율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20대의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43.7%로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이혼·별거, 미혼, 사별인 경우가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높은 반면, 유배우인 경우는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더 높아서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감소했다.

가족소득별로 비교해보면, 가족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표 Ⅸ-24〉 가족 여가시간 충분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계
전체(2020년)		27,907	17,206	45,113
		61.9	38.1	100.0
전체(2023년)		27,885	15,437	43,322
		64.4	35.6	100.0
성별	남성	63.0	37.0	100.0
	여성	65.8	34.2	100.0
연령	20세 미만	64.9	35.1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56.3	43.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0.7	39.3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0.9	39.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62.0	38.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72.9	27.1	100.0
	70세 이상	80.2	19.8	100.0
혼인상태	미혼	54.5	45.5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70.2	29.8	100.0
	이혼 또는 별거	49.4	50.6	100.0
	사별	56.3	43.7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7	28.3	100.0
	고등학교	64.3	35.7	100.0
	초대졸 이상	61.6	38.4	100.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51.9	48.1	100.0
	100~200만원 미만	68.9	31.1	100.0
	200~300만원 미만	49.5	50.5	100.0
	300~400만원 미만	58.1	41.9	100.0
	400~500만원 미만	63.2	36.8	100.0
	500만원 이상	65.0	35.0	100.0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간 부족'이 7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재'(17.0%), '비용 부담'(7.2%) 순으로 높았다. 그밖에 '가족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가족원 돌봄 책임'이 각각 3.6%와 1.3%를 차지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동일한 반면, 2020년에는 2순위가 '비용 부담'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재'로 2순위와 3순위는 뒤바뀌었다.

성별 경향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부터 40대에서 '시간 부족'의 응답률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높았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소득별로는 1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 '가족원 돌봄 책임'의 비중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시간 부족' 비중은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낮았다. 100~2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도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시간 부족' 비중은 낮았으며,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의 부재', '가족이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가족원 돌봄 책임'의 비중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높았다. 가족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시간 부족'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표 Ⅸ-25〉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단위: 천명, %)

구분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	가족이 함께할 만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돌봐야 하는 환자, 노인, 장애인, 어린자녀 등이 있어서	기타	계
전체(2020년)		11,388	1,974	1,812	606	429	997	17,206
		66.2	11.5	10.5	3.5	2.5	5.8	100.0
전체(2023년)		10,829	1,109	2,631	558	195	116	15,437
		70.1	7.2	17.0	3.6	1.3	0.8	100.0
성별	남성	70.1	7.2	17.0	3.8	1.1	0.7	100.0
	여성	70.2	7.2	17.1	3.4	1.4	0.8	100.0
연령	20세 미만	68.5	6.4	23.7	1.3	-	0.2	100.0
	20세 이상~30세 미만	75.3	5.0	15.1	4.1	0.5	0.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3.7	8.3	13.5	0.8	3.3	0.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75.2	7.3	13.6	2.6	0.5	0.8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70.1	6.8	17.4	4.1	0.7	0.9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8.4	9.1	22.1	7.4	1.6	1.4	100.0
	70세 이상	50.1	9.1	25.8	8.6	3.6	2.9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54.2	8.4	6.1	16.2	4.5	10.6	100.0
	100~200만원 미만	58.5	2.1	22.3	10.0	5.6	1.4	100.0
	200~300만원 미만	81.6	5.7	7.6	2.2	0.9	2.0	100.0
	300~400만원 미만	77.0	5.5	11.0	3.5	1.5	1.5	100.0
	400~500만원 미만	74.5	5.7	13.7	3.4	1.9	0.7	100.0
	500만원 이상	74.2	7.5	14.4	2.4	1.0	0.7	100.0

2023년 조사에서는 만 12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족여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6개 문항을 구성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이하 '삶의 활력이 생김')의 평균 점수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이하 '가족에 대해 더 이해'),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들과 더 친밀해졌다(이하

‘가족들과 더 친밀해짐’)가 각 평균 3.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이하 ‘비용이 많이 듦’) 평균 3.09점,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이하 ‘피로감 느낌’) 평균 2.94점,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이하 ‘가족원의 요구 부담 느낌’) 평균 2.66점 순으로 가족 여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평균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가족 여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Ⅸ-26〉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

(단위: 천명, 점,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빈도	2,770	14,970	29,479	47,219	3.61
	구성비	5.9	31.7	62.4	100.0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	빈도	3,068	16,803	27,348	47,219	3.63
	구성비	6.5	35.6	57.9	100.0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부모, 형제자매)들과 더 친밀해졌다	빈도	3,460	15,443	28,317	47,219	3.61
	구성비	7.3	32.7	60.0	100.0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	빈도	16,783	15,557	14,879	47,219	2.94
	구성비	35.5	32.9	31.5	100.0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빈도	12,918	16,783	17,517	47,219	3.09
	구성비	27.4	35.5	37.1	100.0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빈도	21,376	16,379	9,464	47,219	2.66
	구성비	45.3	34.7	20.0	100.0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성별로 보면, 세부 문항 중 가족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더 이해’, ‘삶의 활력이 생김’, ‘가족들과 더 친밀해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Ⅸ-27〉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남성	6.2	32.7	61.0	100.0	3.59
	여성	5.5	30.7	63.8	100.0	3.64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	남성	6.9	36.7	56.4	100.0	3.60
	여성	6.1	34.5	59.4	100.0	3.66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부모, 형제자매)들과 더 친밀해졌다	남성	7.6	33.3	59.1	100.0	3.59
	여성	7.1	32.1	60.8	100.0	3.63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	남성	35.5	33.0	31.4	100.0	2.94
	여성	35.6	32.9	31.6	100.0	2.94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남성	27.5	35.7	36.9	100.0	3.08
	여성	27.2	35.4	37.3	100.0	3.09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남성	44.8	34.7	20.4	100.0	2.67
	여성	45.7	34.7	19.6	100.0	2.64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별로 보면, 긍정적인 인식과 관련한 3개 항목 '가족에 대한 더 이해', '삶의 활력이 생김', '가족들과 더 친밀해짐'의 경우 대체로 60대 이상에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피로감 느낌', '비용이 많이 듦', '가족원의 요구 부담 느낌'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경우 30~50대에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0~50대의 경우 가족여가를 통해 긍정적 인식도 높았지만 동시에 피로감과 비용부담, 가족원의 요구 부담 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Ⅸ-28〉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20세 미만	4.2	31.7	64.2	100.0	3.65
	20세 이상~30세 미만	5.3	33.1	61.6	100.0	3.62
	30세 이상~40세 미만	4.2	27.5	68.3	100.0	3.71
	40세 이상~50세 미만	4.4	26.5	69.1	100.0	3.71
	50세 이상~60세 미만	5.4	33.2	61.4	100.0	3.60
	60세 이상~70세 미만	7.2	33.0	59.8	100.0	3.57
	70세 이상	10.2	37.8	51.9	100.0	3.43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	20세 미만	4.4	38.1	57.5	100.0	3.64
	20세 이상~30세 미만	5.8	36.3	57.9	100.0	3.63
	30세 이상~40세 미만	4.6	30.6	64.8	100.0	3.76
	40세 이상~50세 미만	4.5	33.3	62.3	100.0	3.73
	50세 이상~60세 미만	6.0	35.8	58.2	100.0	3.63
	60세 이상~70세 미만	8.1	37.3	54.6	100.0	3.57
	70세 이상	11.9	39.5	48.6	100.0	3.44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부모, 형제자매)들과 더 친밀해졌다	20세 미만	5.7	30.3	64.0	100.0	3.69
	20세 이상~30세 미만	6.8	32.7	60.5	100.0	3.63
	30세 이상~40세 미만	5.9	29.5	64.7	100.0	3.70
	40세 이상~50세 미만	4.8	29.6	65.6	100.0	3.70
	50세 이상~60세 미만	6.4	34.7	58.8	100.0	3.60
	60세 이상~70세 미만	8.8	35.3	55.9	100.0	3.54
	70세 이상	13.1	35.8	51.1	100.0	3.42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	20세 미만	43.9	30.0	26.1	100.0	2.76
	20세 이상~30세 미만	37.5	32.8	29.7	100.0	2.90
	30세 이상~40세 미만	32.1	31.4	36.5	100.0	3.06
	40세 이상~50세 미만	30.3	34.0	35.7	100.0	3.06
	50세 이상~60세 미만	34.6	32.7	32.7	100.0	2.96
	60세 이상~70세 미만	35.7	34.5	29.8	100.0	2.92
	70세 이상	40.2	33.7	26.1	100.0	2.79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20세 미만	38.1	36.8	25.1	100.0	2.78
	20세 이상~30세 미만	29.2	36.2	34.6	100.0	3.03
	30세 이상~40세 미만	21.3	33.0	45.8	100.0	3.29
	40세 이상~50세 미만	19.9	35.0	45.1	100.0	3.2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50세 이상~60세 미만	25.7	36.7	37.7	100.0	3.12
	60세 이상~70세 미만	28.2	37.6	34.3	100.0	3.05
	70세 이상	36.8	33.7	29.5	100.0	2.85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20세 미만	49.0	34.5	16.5	100.0	2.55
	20세 이상~30세 미만	47.4	33.3	19.3	100.0	2.62
	30세 이상~40세 미만	42.7	35.1	22.1	100.0	2.73
	40세 이상~50세 미만	42.0	36.2	21.8	100.0	2.73
	50세 이상~60세 미만	43.5	34.5	22.0	100.0	2.70
	60세 이상~70세 미만	45.3	35.9	18.8	100.0	2.64
	70세 이상	50.1	32.6	17.2	100.0	2.54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6개 문항 모두에서 유배우 집단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Ⅸ-29〉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혼인여부)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평균*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유배우	3.8	28.3	67.9	100.0	3.71
	그 외	8.8	36.4	54.9	100.0	3.49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	유배우	4.5	33.2	62.3	100.0	3.72
	그 외	9.3	38.8	51.9	100.0	3.51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부모, 형제자매)들과 더 친밀해졌다	유배우	5.3	31.0	63.7	100.0	3.68
	그 외	10.1	35.1	54.8	100.0	3.51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	유배우	32.9	32.5	34.5	100.0	3.01
	그 외	39.1	33.5	27.4	100.0	2.84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유배우	24.3	34.3	41.4	100.0	3.19
	그 외	31.5	37.3	31.2	100.0	2.95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유배우	44.4	34.3	21.3	100.0	2.68
	그 외	46.4	35.3	18.3	100.0	2.61

주: 1) 그 외: 미혼, 이혼 또는 별거, 사별
2)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제3절. 노후 생애 설계

1. 생애 설계와 노후의 경제 준비

생애 설계 준비 정도는 만 2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계획과 준비, 자녀계획, 직업 계획과 준비, 여가 설계, 재무 설계, 은퇴/노후설계 총 6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준비하고 있다(대체로+매우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2020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노후설계, 재무설계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Ⅸ-30〉 생애 설계 준비 정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p)

구분	2020년 (대체로+매우 준비하고 있다)	2023년 (대체로+매우 준비하고 있다)	2020년 대비 변화량
결혼 계획과 준비	11.2	24.2	13.0
자녀계획(출산, 교육 등)	18.0	32.3	14.3
직업 계획과 준비	18.0	27.5	9.5
여가 설계	16.3	27.5	11.2
재무 설계	16.5	32.0	15.5
은퇴/노후설계	16.6	34.1	17.5

세부 항목 중 생애주기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사항이 없는 응답자가 있는 항목인 결혼 계획과 준비, 자녀계획, 직업 계획과 준비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수가 상이했다. 생애 설계 준비 정도의 측정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준비되어 있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은퇴/노후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의 평균 점수 모두 중간 수준인 3점(보통이다)을 넘지 않았다.

〈표 Ⅸ-31〉 생애 설계 준비 정도

(단위: 천명, 점, %)

구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매우 준비하고 있다	계	평균*
결혼 계획과 준비	빈도	4,092	1,597	1,819	7,508	2.41
	구성비	54.5	21.3	24.2	100.0	
자녀계획 (출산, 교육 등)	빈도	4,767	2,627	3,536	17,839	2.68
	구성비	43.6	24.0	32.3	100.0	
직업 계획과 준비	빈도	2,134	1,275	1,294	12,071	2.67
	구성비	45.4	27.1	27.5	100.0	
여가 설계	빈도	12,956	16,504	11,190	40,650	2.91
	구성비	31.9	40.6	27.5	100.0	
재무 설계	빈도	12,142	15,482	13,026	40,650	2.98
	구성비	29.9	38.1	32.0	100.0	
은퇴/노후설계	빈도	12,115	14,663	13,872	40,650	3.00
	구성비	29.8	36.1	34.1	100.0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성별에 따른 생애 설계 준비 정도를 보면, 6개 항목 모두 남성의 점수가 여성보다 높은 일관된 패턴을 나타냈다. 다만, 자녀계획의 경우 성별 평균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Ⅸ-32〉 생애 설계 준비 정도(성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매우 준비하고 있다	계	평균*
결혼 계획과 준비	남성	53.7	21.8	24.5	100.0	2.44
	여성	55.7	20.4	23.9	100.0	2.35
자녀계획 (출산, 교육 등)	남성	43.3	25.1	31.6	100.0	2.68
	여성	44.0	22.8	33.2	100.0	2.67
직업 계획과 준비	남성	39.2	22.2	38.6	100.0	2.89
	여성	47.5	28.8	23.7	100.0	2.59
여가 설계	남성	30.9	41.3	27.9	100.0	2.92
	여성	32.9	39.9	27.2	100.0	2.89
재무 설계	남성	28.2	39.0	32.8	100.0	3.01
	여성	31.5	37.2	31.3	100.0	2.95
은퇴/노후설계	남성	28.8	36.0	35.2	100.0	3.02
	여성	30.8	36.1	33.0	100.0	2.98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교육수준에 따른 생애 설계 준비 정도를 보면, 은퇴/노후설계를 제외한 5개 항목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대체로 남성과 고학력일 때 생애 설계의 준비 정도가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Ⅸ-33〉 생애 설계 준비 정도(교육수준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매우 준비하고 있다	계	평균*
결혼 계획과 준비	중졸 이하	87.6	12.4	-	100.0	1.35
	고등학교	68.5	16.4	15.1	100.0	2.03
	초대졸 이상	50.3	22.7	27.0	100.0	2.52
자녀계획 (출산, 교육 등)	중졸 이하	52.5	19.7	27.8	100.0	2.32
	고등학교	53.3	22.0	24.7	100.0	2.37
	초대졸 이상	41.6	24.5	33.9	100.0	2.74
직업 계획과 준비	중졸 이하	69.1	17.9	13.0	100.0	2.02
	고등학교	46.9	30.2	22.9	100.0	2.61
	초대졸 이상	34.4	28.2	37.4	100.0	2.98
여가 설계	중졸 이하	57.4	31.9	10.7	100.0	2.34
	고등학교	32.5	43.6	23.8	100.0	2.87
	초대졸 이상	23.2	41.2	35.5	100.0	3.11
재무 설계	중졸 이하	57.3	29.9	12.8	100.0	2.37
	고등학교	28.1	40.9	31.1	100.0	3.00
	초대졸 이상	22.3	38.8	38.9	100.0	3.16
은퇴/노후 설계	중졸 이하	48.0	34.1	18.0	100.0	2.55
	고등학교	23.4	37.6	39.0	100.0	3.13
	초대졸 이상	28.5	35.6	35.9	100.0	3.04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연령에 따른 생애 설계 준비 정도를 보면, 결혼계획과 준비, 자녀계획의 경우 30대의 점수만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자녀계획의 경우 20대 중후반의 평균 점수는 2.35점으로 전체 평균 2.68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주로 30대에서 결혼 및 자녀계획 준비가 이루어지는 결과는 결혼과 출산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성과 연관있다 하겠다.

직업 계획과 준비의 경우 20대 중후반(3.57점)과 30대(3.06점)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가 설계에 대한 준비 정도는 2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의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값보다 높았으며, 70세 이상의 평균 점수(2.43점)가 가장 낮았다. 재무 설계와 은퇴/노후설계의 경우 30대부터 60대의 점수가 20대 중후반과

70세 이상에 비해 대체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가장 어린 청년층과 가장 많은 고령층의 금전적인 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Ⅸ-34〉 생애 설계 준비 정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매우 준비하고 있다	계	평균*
결혼 계획과 준비	25세 이상~30세 미만	55.4	22.1	22.4	100.0	2.40
	30세 이상~40세 미만	42.9	23.7	33.4	100.0	2.72
	40세 이상~50세 미만	58.7	20.7	20.5	100.0	2.26
	50세 이상~60세 미만	86.1	9.1	4.8	100.0	1.54
	60세 이상~70세 미만	91.6	4.8	3.6	100.0	1.30
	70세 이상	75.6	24.4	-	100.0	1.52
자녀계획 (출산, 교육 등)	25세 이상~30세 미만	57.9	23.4	18.7	100.0	2.35
	30세 이상~40세 미만	35.4	25.8	38.7	100.0	2.92
	40세 이상~50세 미만	44.3	22.4	33.3	100.0	2.60
	50세 이상~60세 미만	56.0	22.2	21.8	100.0	2.17
	60세 이상~70세 미만	52.6	21.9	25.5	100.0	2.39
	70세 이상	41.9	24.4	33.7	100.0	2.73
직업 계획과 준비	25세 이상~30세 미만	16.8	22.8	60.4	100.0	3.57
	30세 이상~40세 미만	29.6	32.7	37.7	100.0	3.06
	40세 이상~50세 미만	43.1	29.5	27.3	100.0	2.72
	50세 이상~60세 미만	47.6	32.5	19.8	100.0	2.56
	60세 이상~70세 미만	57.7	28.2	14.1	100.0	2.32
	70세 이상	73.4	14.1	12.6	100.0	1.92
여가 설계	25세 이상~30세 미만	31.0	39.8	29.2	100.0	2.94
	30세 이상~40세 미만	22.1	41.6	36.3	100.0	3.13
	40세 이상~50세 미만	24.1	42.2	33.6	100.0	3.08
	50세 이상~60세 미만	29.4	41.6	29.0	100.0	2.97
	60세 이상~70세 미만	35.1	41.3	23.6	100.0	2.83
	70세 이상	52.5	35.7	11.9	100.0	2.43

구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매우 준비하고 있다	계	평균*
재무 설계	25세 이상~30세 미만	37.0	36.0	27.0	100.0	2.84
	30세 이상~40세 미만	24.3	39.0	36.7	100.0	3.12
	40세 이상~50세 미만	21.3	39.9	38.8	100.0	3.17
	50세 이상~60세 미만	23.9	39.5	36.6	100.0	3.11
	60세 이상~70세 미만	29.0	39.9	31.1	100.0	2.98
	70세 이상	52.2	31.8	16.0	100.0	2.48
은퇴/ 노후 설계	25세 이상~30세 미만	54.1	30.8	15.1	100.0	2.45
	30세 이상~40세 미만	33.5	38.9	27.6	100.0	2.89
	40세 이상~50세 미만	24.6	37.4	37.9	100.0	3.12
	50세 이상~60세 미만	19.2	35.7	45.1	100.0	3.26
	60세 이상~70세 미만	21.3	36.5	42.2	100.0	3.20
	70세 이상	43.4	34.3	22.3	100.0	2.66

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의 평균점수임

노후의 경제적 준비는 다른 문항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만 2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9.2%,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40.8%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안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24,052천 명에게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수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국민연금' 77.2%, '예금·적금'이 71.7%로 대체로 국민연금과 예금·적금이 주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개인연금'(30.9%), '부동산 운용'(17.6%), '퇴직금/퇴직연금(16.8%)이었다. 나머지 '주식·채권'과 '공무원연금'은 10%에 못 미쳤다.

성별로 보면, 남성(60.9%)이 여성(57.4%)보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 남성은 국민연금(80.7%), 퇴직금/퇴직 연금(19.7%)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예금·적금(72.4%)과 개인연금(32.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노후 준비 비율이 68.0%로 가장 높고, 초대졸 이상(55.7%)과 중졸 이하(50.6%) 집단은 50%대로 나타났다.

〈표 Ⅸ-35〉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및 내용(복수응답)

(단위: 천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퇴직금/퇴직연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전체		18,570	1,171	7,429	4,045	17,236	4,233	2,279	37	24,052	16,599	40,650
		77.2	4.9	30.9	16.8	71.7	17.6	9.5	0.2	59.2	40.8	100.0
성별	남성	80.7	5.2	29.1	19.7	70.9	17.6	11.1	0.2	60.9	39.1	100.0
	여성	73.6	4.5	32.8	13.8	72.4	17.6	7.8	0.1	57.4	42.6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66.5	2.6	20.4	6.5	65.3	19.8	1.1	0.9	50.6	49.4	100.0
	고등학교	76.7	3.3	31.7	13.3	75.9	20.2	6.1	0.1	68.0	32.0	100.0
	초대졸 이상	80.7	6.9	33.3	22.9	69.8	14.7	14.9	0.0	55.7	44.3	100.0

2015년,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10% 이상 낮아졌다. 노후 준비 항목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응답 중 예금·적금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졌고, 그 외에도 국민연금, 부동산 운용, 주식·채권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개인연금의 비율은 감소했다.

〈표 Ⅸ-36〉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및 내용(복수응답): '15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조사시기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	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퇴직금/퇴직연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성별	남성	2015년	76.8	9.5	42.7	18.5	42.8	12.9	5.3	0.6	74.8	25.2	100.0
		2020년	75.9	8.9	36.2	18.6	45.6	12.9	11.2	0.8	76.2	23.8	100.0
		2023년	80.7	5.2	29.1	19.7	70.9	17.6	11.1	0.2	60.9	39.1	100.0
	여성	2015년	67.6	8.9	44.8	11.8	47.5	13.2	3.6	0.5	68.0	32.0	100.0
		2020년	68.2	8.2	36.8	12.6	49.3	12.4	7.0	0.9	70.8	29.2	100.0
		2023년	73.6	4.5	32.8	13.8	72.4	17.6	7.8	0.1	57.4	42.6	100.0
	전체	2015년	72.3	9.2	43.7	15.3	45.0	13.0	4.5	0.5	71.4	28.6	100.0
		2020년	72.2	8.6	36.5	15.7	47.4	12.6	9.2	0.9	73.5	26.5	100.0
		2023년	77.2	4.9	30.9	16.8	71.7	17.6	9.5	0.2	59.2	40.8	100.0

2023년 조사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6,599천 명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0.3%,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38.0%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40% 정도는 자원 부족으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응답자의 14.2%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4.1%였다.

성별로 보면, 준비할 능력이 없다, 자녀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항목에서 여성의 응답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준비할 능력이 없다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미혼이나 유배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 72.4%, 초대졸 이상은 20.8%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Ⅸ-37〉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

(단위: 천명, %)

구분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할 능력이 없다	자녀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타	계
전체		2,363	6,682	6,314	548	687	3	16,599
		14.2	40.3	38.0	3.3	4.1	0.0	100.0
성별	남성	15.9	44.7	34.4	1.4	3.7	-	100.0
	여성	12.8	36.3	41.4	5.0	4.5	0.0	100.0
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31.0	45.7	17.0	0.2	6.1	-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23.5	53.9	19.3	0.1	3.2	0.0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11.9	58.6	26.6	0.5	2.4	-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5.2	47.1	43.7	0.8	3.2	-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4.4	22.1	62.9	5.3	5.2	0.1	100.0
	70세 이상	2.1	3.1	74.9	14.6	5.5	-	100.0
혼인상태	미혼	27.9	45.4	21.6	0.3	4.9	-	100.0
	유배우 (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10.3	45.2	38.4	2.2	3.8	0.0	100.0
	이혼·별거	5.6	30.5	58.7	2.0	3.2	-	100.0
	사별	2.0	5.6	69.3	18.6	4.5	-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	5.7	72.4	13.5	5.4	0.1	100.0
	고등학교	9.1	37.9	47.8	1.6	3.7	-	100.0
	초대졸 이상	20.9	53.8	20.8	0.5	3.9	0.0	100.0

2.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일상에서 도움 받을 존재

만 2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후에 지내고 싶은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9%가 '집에서'로 답하였다. 노후를 집에서 보낸다면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가 7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 혼자'가 17.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자녀와 함께' 3.7%, '반려동물과 함께' 2.1%, '친구와 함께' 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나 혼자 또는 배우자 외의 관계들과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낮은 연령대와 높은 연령대 간에 상이한 특성이 보였다. 30대에서 60대까지는 '배우자와 함께'의 응답 비중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높은 반면, 20대 중후반 집단은 '나 혼자'와 '반려동물과 함께', 70세 이상은 '나 혼자', '자녀와 함께' 응답률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가 9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혼의 경우 '나 혼자'와 '반려동물과 함께', '친구와 함께'가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 '나 혼자'가 70% 내외로 전체적인 비율 분포에 비해서 매우 높고, '자녀와 함께'도 비교적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와 함께'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반면, '나 혼자'와 '자녀와 함께'라는 응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Ⅸ-38〉 노후에 지낼 곳 및 같이 지낼 사람

(단위: 천명, %)

구분		집에서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계
		나 혼자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반려 동물과 함께	기타	계		
전체		5,250	22,974	1,141	329	644	89	30,428	10,223	40,650
		17.3	75.5	3.7	1.1	2.1	0.3	74.9	25.1	100.0
성별	남성	12.6	83.8	1.1	0.8	1.4	0.3	76.4	23.6	100.0
	여성	22.0	67.0	6.5	1.4	2.8	0.2	73.3	26.7	100.0
연령	25세 이상~30세 미만	19.7	70.2	1.0	2.4	5.8	0.9	66.5	33.5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1.8	80.6	1.5	2.5	3.3	0.4	68.5	31.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2.4	83.4	2.0	0.7	1.2	0.2	77.1	22.9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3.3	82.2	2.4	0.8	1.1	0.2	74.7	25.3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8.0	76.1	3.0	0.7	2.1	0.2	76.4	23.6	100.0
	70세 이상	31.3	54.6	11.8	0.5	1.7	0.2	82.0	18.0	100.0
혼인상태	미혼	34.6	51.8	0.6	4.4	7.4	1.3	61.3	38.7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4.1	93.7	1.4	0.4	0.4	0.0	80.1	19.9	100.0
	이혼·별거	72.9	5.5	11.9	1.8	7.0	0.9	59.4	40.6	100.0
	사별	68.5	1.3	24.3	1.0	4.6	0.2	72.6	27.4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2.1	54.7	10.8	0.6	1.6	0.3	82.6	17.4	100.0
	고등학교	17.8	75.9	3.2	0.8	2.0	0.4	74.8	25.2	100.0
	초대졸 이상	11.4	82.8	1.6	1.5	2.4	0.2	72.4	27.6	100.0

2023년 조사에서는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가족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보미 18.4%,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민간돌보미/서비스 8.1% 순으로

나타났다. 도와줄(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은 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공공돌보미, 민간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이상 집단에서는 가족이라는 응답 비중이 전체 평균 비율 분포에 비해 높은 반면 20대 중후반대 집단의 응답률은 40%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30대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공돌보미가 도와줄 것이라는 응답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고연령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자 집단의 경우 가족이라는 응답이 66.4%로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이혼·별거(20.8%), 미혼(35.0%), 사별(39.7%)은 전체 평균 분포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미혼,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공공돌보미가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와줄(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이 돌봐줄 것이라는 인식이 낮은 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또한 저학력 집단일수록 도와줄(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Ⅸ-39〉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

(단위: 천명, %)

구분		가족	지인	공공 돌보미	민간 서비스	돌봄/ 일상생활 지원 로봇	기타	도와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계
전체		22,668	579	7,481	3,277	693	-	1,887	4,066	40,650
		55.8	1.4	18.4	8.1	1.7	-	4.6	10.0	100.0
성별	남성	59.2	1.3	15.5	7.1	1.5	-	4.6	10.7	100.0
	여성	52.4	1.6	21.2	9.0	1.9	-	4.7	9.3	100.0
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46.6	2.4	14.7	8.5	3.8	-	5.1	18.9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53.1	1.6	14.4	9.2	2.5	-	3.9	15.4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56.5	1.5	15.8	8.5	2.0	-	4.2	11.5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58.0	1.1	18.5	8.4	1.3	-	4.7	8.1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59.0	1.5	20.2	7.2	0.9	-	5.2	6.0	100.0
	70세 이상	56.1	0.9	26.0	6.7	0.7	-	5.1	4.6	100.0
혼인 상태	미혼	35.0	2.9	20.2	9.8	3.4	-	8.8	19.9	100.0
	유배우 (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66.4	0.8	14.5	7.0	1.3	-	2.5	7.5	100.0
	이혼·별거	20.8	4.2	32.7	11.6	1.9	-	14.6	14.2	100.0
	사별	39.7	1.6	35.1	10.6	0.8	-	6.4	5.8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4.5	1.1	26.7	5.5	0.6	-	6.1	5.3	100.0
	고등학교	57.0	1.4	18.7	7.6	1.3	-	5.5	8.6	100.0
	초대졸 이상	55.3	1.5	15.5	9.2	2.4	-	3.6	12.5	100.0

X

가족원 돌봄

제1절. 가구원의 돌봄 433
제2절. 취학 전 영유아 돌봄 435
제3절. 초등학생 돌봄 440
제4절. 함께 사는 가족 돌봄 443

제 10장에서는 가족원 돌봄을 가구원의 돌봄,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 함께 사는 가족 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가구원의 돌봄에서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비혈연 관계의 사람도 포함)을 장기적·지속적·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여부, 돌봄대상, 돌봄대상과 동거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둘째, 취학 전 영유아 돌봄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취학하지 않은 영유아가 주중 낮 시간에 기관에 다니는지 여부,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외에 영유아에게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주로 돌보아주는 사람과 평일 영유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셋째, 초등학생 돌봄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 초등학생이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평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넷째,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을 조사하였다.

제1절. 가구원의 돌봄

1.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여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비혈연 관계의 사람도 포함)을 장기적·지속적·정기적으로 돌봄 여부에 대해 2.6%의 응답자가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X-1〉 가구원 돌봄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구성비
가구원 돌봄 여부	없음	97.4
	있음	2.6
	전체	100.0

2.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대상 및 동거 여부

장기적·지속적·정기적 돌봄 대상은 '나의 부모' 46.9%, '자녀' 16.1%, '배우자' 15.9%, '배우자의 부모'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과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함께 살고 있음' 60.4%, '따로 살고 있음' 24.7%로 나타났고, 돌봄 대상이 '요양원 등 시설에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5.0%였다.

〈표 X-2〉 가구원 돌봄 대상 및 동거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구성비
주로 돌보는 사람 (돌봄 대상)	배우자	15.9
	자녀	16.1
	나의 부모	46.9
	배우자의 부모	14.3
	나의 조부모	3.3
	배우자의 조부모	-
	나의 형제자매	2.0
	배우자의 형제자매	0.4
	기타	1.1
	전체	100.0
돌봄 대상과 동거 여부	함께 살고 있음	60.4
	따로 살고 있음	24.7
	요양원 등 시설에 있음	15.0
	전체	100.0

제2절. 취학 전 영유아 돌봄

1. 기관 이용 영유아 돌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취학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는 경우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79.7%가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없음'은 20.3%였다. 202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3년에는 약 2.6%p 낮게 나타났다.

〈표 X-3〉 영유아가 주중 낮시간에 기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2023년	79.7	20.3
2020년	82.3	17.7
2015년	78.9	21.1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어린이집 63.9%, 유치원 3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X-4〉 영유아가 최다시간 보내는 기관

(단위: %)

구분	어린이집 (놀이방 포함)	유치원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스포츠단등)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기타	계
2023년	63.9	34.9	1.1	0.1	-	100.0
2020년	61.0	35.6	1.8	0.0	1.7	100.0
2015년	65.4	29.7	3.4	0.6	0.9	100.0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 80.5%, '아이의 외조부모' 7.2%, '아이의 친조부모'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어머니'가 주로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과 비교하여 약 4.3%p 증가하였고 '아이돌보미'가 주로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에 비해 약 1.5%p 증가하였다.

〈표 X-5〉 기관 이용 외 시간 영유아 주돌봄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아이의 아버지	3.7	2.3
아이의 어머니	76.2	80.5
아이의 친조부모	5.7	3.4
아이의 외조부모	9.5	7.2
친인척	0.6	0.5
이웃	0.0	-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1.2	2.7
베이비시터	0.9	0.3
가사도우미	1.1	0.0
기타	0.6	-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0.6	3.1
계	100.0	100.0

2.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봄

2023년을 기준으로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가 88.5%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의 친조부모' 4.5%, '아이의 외조부모'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은 2023년에 평일 평균 14.3시간으로 이는 2020년의 11.3시간에 비해 약 3.0시간 증가한 것이다.

〈표 X-6〉 기관 미이용 영유아 주돌봄자

(단위: %, 시간)

구분	2020년		2023년	
	구성비	돌보는 시간 (평일 일평균)	구성비	돌보는 시간 (평일 일평균)
아이의 아버지	2.2	11.3	-	14.3
아이의 어머니	87.4		88.5	
아이의 친조부모	4.9		4.5	
아이의 외조부모	4.2		3.3	
친인척	0.0		0.7	
이웃	0.0		-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0.0		1.2	
베이비시터	0.0		-	
가사도우미	0.0		-	
기타	0.0		-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1.3		1.8	
계	100.0		100.0	

3. 긴급돌봄 조력자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 49.9%, '아이의 외조부모' 21.1%, '아이의 어머니' 9.7%, '아이의 친조부모'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긴급돌봄 조력자로 '아이의 아버지'의 비율이 32.1%에서 49.9%로 약 17.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돌봄이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X-7〉 긴급돌봄 조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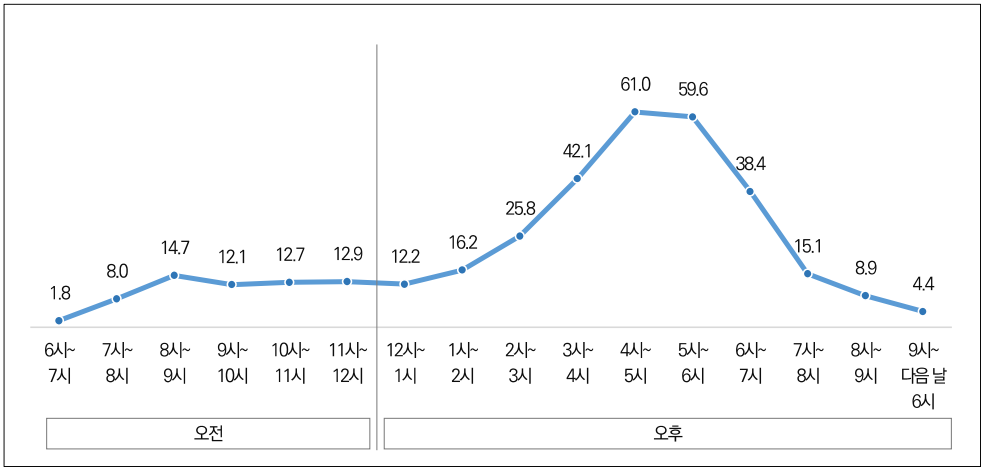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아이의 아버지	32.1	49.9
아이의 어머니	22.2	9.7
아이의 친조부모	11.7	9.6
아이의 외조부모	23.4	21.1
친인척	3.0	1.1
이웃	0.9	2.2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1.8	0.9
베이비시터	0.4	0.2
가사도우미	0.0	-
기타	0.4	-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4.2	5.3
계	100.0	100.0

4. 평일 영유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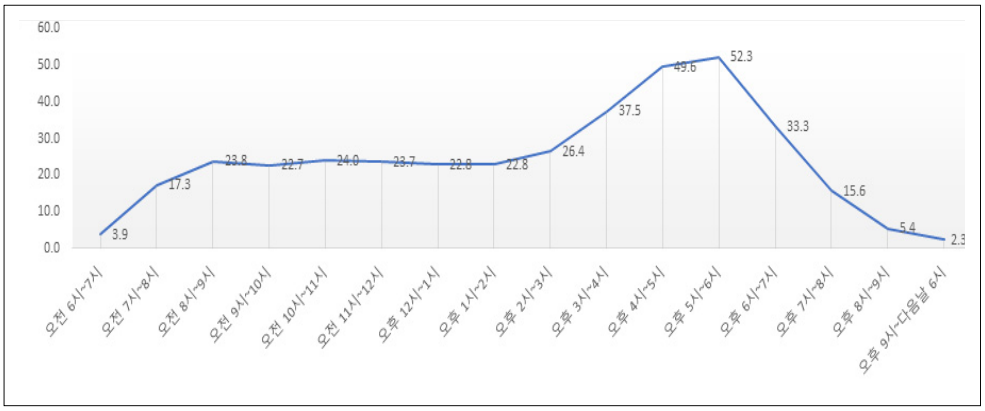
평일 중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로는 '4시~5시'가 61.0%, '5시~6시' 59.6%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저녁 7시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그림 X-1]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영유아(2023년)

(단위: %)



[그림 X-2]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영유아(2020년)

제3절. 초등학생 돌봄

1. 초등학생 방과 후 시간 보내는 곳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해당 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본 결과 '학원' 75.2%, '집에서 지냄' 11.7%, '초등 돌봄 교실'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020년의 37.7%에서 2023년에는 75.2%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약 37.5%p가 늘어난 것이다.

〈표 X-8〉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주로 시간 보내는 곳

(단위: 천명, %)

구분		학원	초등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집에서 지냄 (주로 보호자 있음)	집에서 지냄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형제자매 끼리 있음)	기타	계
2020년	빈도	838	141	62	50	935	185	10	2,220
	구성비	37.7	6.4	2.8	2.2	42.1	8.3	0.5	100.0
2023년	빈도	1,595	120	35	99	248	18	5	2,121
	구성비	75.2	5.7	1.7	4.7	11.7	0.8	0.3	100.0

2. 초등학생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하루 평균 시간은 '없음'이 47.4%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6.8%, '30분 이상~1시간' 1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3시간 이상' 혼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의 12.1%에서 2023년에는 2.3%로 약 9.8%p 감소하였다.

〈표 X-9〉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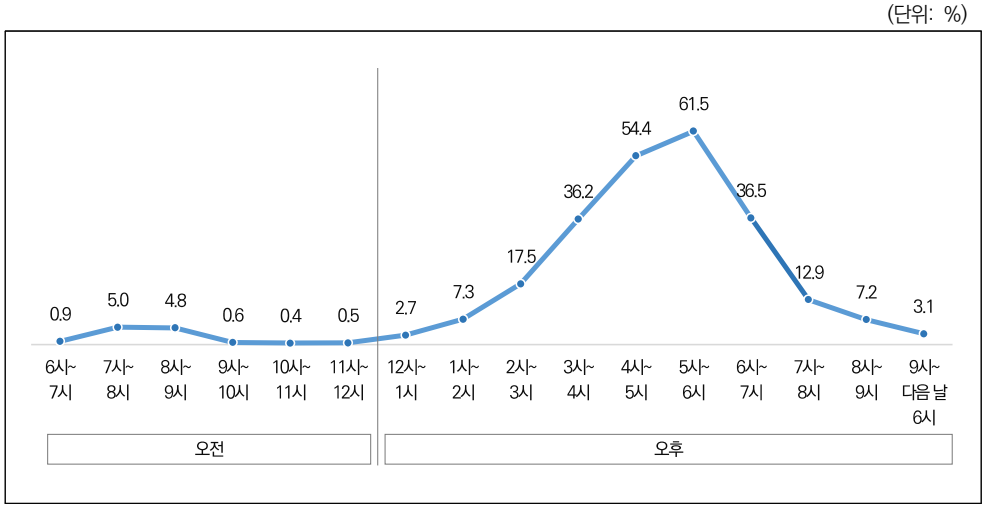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없음	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2020년	빈도	1,078	241	180	273	181	268	2,220
	구성비	48.5	10.8	8.1	12.3	8.1	12.1	100.0
2023년	빈도	1,005	209	308	357	191	50	2,121
	구성비	47.4	9.9	14.5	16.8	9.0	2.3	100.0

3. 평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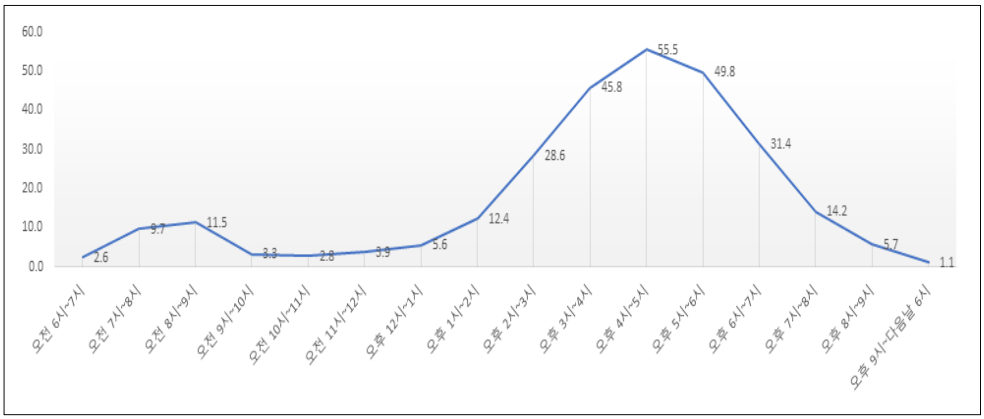
평일 중 초등학생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5시~6시' 61.5%, '4시~5시' 54.4%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5시~6시'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4시~5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저녁 7시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그림 X-3]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초등학생(2023년)

(단위: %)



[그림 X-4]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대-초등학생(2020년)

제4절. 함께 사는 가족 돌봄

1.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의 관계 및 주돌봄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가구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대표 배우자' 34.5%, '가구대표 부모' 33.4%, '가구대표의 자녀' 16.1%, '배우자의 부모' 9.6%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중 '가구대표의 배우자'가 차지한 비율이 약 7.9%p 증가하였고, '가구대표 부모'가 차지한 비율은 약 13.9%p 증가하였다.

〈표 X-10〉 돌봄 필요 가족원 유무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가구대표와의 관계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돌봄 필요 가족원 유무	없음	95.2	97.6
	있음	4.8	2.4
	전체	100.0	100.0
돌봄필요 가족원과 가구대표와의 관계	가구대표 본인	9.7	-
	가구대표의 배우자	26.6	34.5
	가구대표의 자녀	33.4	16.1
	자녀의 배우자	0.9	0.3
	가구대표 부모	19.5	33.4
	배우자의 부모	3.7	9.6
	손자녀	2.2	0.3
	손자녀의 배우자	0.0	-
	가구대표의 조부모	0.0	2.2
	가구대표의 형제자매	1.9	2.8
	배우자의 형제자매	0.0	0.5
	기타	2.1	0.5
	전체	100.0	100.0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 38.2%, '자녀' 24.1%, '부모'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배우자'가 돌보는 비율이 9.3%p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돌보는 비율은 4.3%p 증가하였다. 반면에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10.3%p 감소하였다.

〈표 X-11〉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28.9	38.2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19.8	24.1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자녀의 배우자	3.5	4.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32.3	22.0
돌봄이 필요한 사람 배우자의 부모	1.2	2.7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1.3	1.5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2.5	1.9
간병인	6.8	4.7
기타	3.7	0.5
전체	100.0	100.0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63.6%, 남성이 36.4%로 나타나 여전히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X-12〉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

(단위: 천명, %)

구분	빈도	구성비
남성	134	36.4
여성	234	63.6

2. 동거가족원 돌봄의 어려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가구대표가 남성인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27.5%, '경제적 어려움'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대표가 여성인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35.6%, '신체적 고단함' 22.8%, '경제적 어려움' 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대표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어려움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21.7%로 여성의 12.5%에 비해 약 9.2%p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고단함',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X-13〉 환자 및 장애 가족원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단위: %)

구분	가구대표(응답자)의 성별		
	여성	남성	전체
부부 간 갈등	6.6	5.8	6.2
형제자매 간 갈등	-	0.8	0.3
기타 가족 간 갈등	0.8	0.7	0.8
경제적 어려움	19.1	22.7	20.7
직장생활의 어려움	2.2	1.3	1.8
신체적 고단함	22.8	19.4	21.3
정신적 스트레스	35.6	27.5	32.1
기타	0.4	-	0.2
어려움 없음	12.5	21.7	16.5
계	100.0	100.0	100.0

XI

정책에 대한 인식

제1절.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전달기관 인지도 449
제2절. 가족지원서비스 및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455

본 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가족지원서비스, 일·생활 균형정책에 대한 수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지원서비스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와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에 대한 인지도를,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일·생활 균형정책의 우선순위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을 조사하였다.

제1절.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전달기관 인지도

1.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전달기관 인지도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전달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7%로 2020년에 비해 약 14.4%p 증가하였다.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로 2020년에 비해 약 13.5%p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로 2020년에 비해 약 23.9%p 증가하였다. 다만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4%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20년에 비해 증가한 폭도 6.5%p에 불과하였다.

〈표 Ⅺ-1〉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알고 있다(조금은+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조금은+잘 알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54.3	68.7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28.9	42.4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45.0	68.9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21.9	28.4

상기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가 71.6%로 가장 높았고,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57.6%, '아이돌봄서비스'

31.3%,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XI-2〉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단위: %)

구분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조금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31.3	68.7	55.9	12.8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57.6	42.4	34.0	8.5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31.1	68.9	52.7	16.1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71.6	28.4	24.8	3.6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70세 이상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30세 이상~50세 미만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3〉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연령별)

(단위: %)

구분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62.7	79.3	80.2	71.9	64.9	46.0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40.5	51.2	51.0	44.9	37.9	25.0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66.8	73.6	75.7	73.5	67.3	51.5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25.2	36.2	33.6	30.5	24.7	16.5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와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Ⅺ-4〉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혼인상태별)

(단위: %)

구분	미혼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이혼 또는 별거	사별
아이돌봄서비스	62.1	73.5	63.6	49.8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39.2	45.2	43.3	28.0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68.2	70.9	72.2	53.4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23.7	31.0	26.8	19.6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4.2%,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21.4%에 불과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서비스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Ⅺ-5〉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초대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44.6	69.3	76.0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21.4	42.7	49.0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51.3	71.5	72.7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14.2	28.2	33.1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가족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가족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서비스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XI-6〉 가족지원서비스 '알고 있음' 비율(가족소득별)

(단위: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31.5	47.7	62.5	71.4	75.4	78.6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13.3	25.0	37.7	42.9	44.8	52.6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39.7	53.7	65.1	72.5	74.5	76.8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8.7	14.4	24.4	29.9	30.7	35.2

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면 2023년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2020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로 2020년에 비해 약 13.8%p 증가하였고, '가족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6%로 2020년에 비해 약 17.4%p 증가하였다.

〈표 XI-7〉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알고 있다(조금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조금은+ 잘 알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28.9	42.7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44.2	61.6

상기의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57.3%, '가족센터'는 38.4%로 나타나 특히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0.0%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Ⅺ-8〉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

(단위: %)

구분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조금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57.3	42.7	35.2	7.5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8.4	61.6	52.3	9.3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0세 이상인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로 30세 이상~50세 미만인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Ⅺ-9〉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연령별)

(단위: %)

	25세 이상~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
공동육아나눔터	42.4	56.1	53.0	44.0	35.1	22.4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9.4	66.8	66.3	66.4	61.0	45.4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별'인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Ⅺ-10〉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혼인상태별)

(단위: %)

구분	미혼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이혼 또는 별거	사별
공동육아나눔터	37.7	46.5	40.2	26.7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9.0	64.4	61.6	46.7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아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접근성의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XI-11〉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교육수준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초대졸 이상
공동육아나눔터	20.3	41.6	50.7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61.6	45.4	63.1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을 가족소득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XI-1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 '알고 있음' 비율(가족소득별)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공동육아나눔터	12.2	24.2	37.1	44.2	47.0	53.0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8.1	49.0	58.2	65.5	65.0	69.3

제2절. 가족지원서비스 및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1.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수요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이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상담' 15.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3.7%, '생애주기별 부부교육' 13.6%,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는 조사내용이 달라져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에 비해 '가족관계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평등한 육아가사 지원 프로그램',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Ⅺ-13〉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순위): '20년 조사와 비교

(단위: %)

구분	2020년	2023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교육상담 지원	9.9	12.2
가족관계 상담	6.1	15.9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14.3	-
가족·세대 간 관계 개선 지원	2.4	-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	3.0	-
이웃 간 육아품앗이 공간 제공	0.5	-
생애주기별 부부교육	-	13.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4	13.7
주거지 인근에 공동육아나눔터 제공	-	6.8
평등한 육아·가사 지원프로그램	1.3	8.2
자녀 학습공간 제공	3.3	-
청소년 놀이공간 제공	2.0	-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	16.0
노인 돌봄 지원	23.3	-
노인을 위한 공간 제공	5.5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8.8	13.6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3	-
맞벌이가정 직장고충 상담	2.8	-
계	100.0	100.0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수요(1순위)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은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교육 상담 지원',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30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교육상담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40대는 '가족관계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50대는 '가족관계 상담',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60대는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70대는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혼인상태별로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수요(1순위)를 살펴보았다. '미혼'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유배우'는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 및 '사별'인 경우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및 '고등학교'인 경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초대졸 이상'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가족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400-5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 상담',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교육상담 지원',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의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가족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상담', '생애주기별 부부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표 XI-14〉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순위)

(단위: 천명, %)

구분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방법 교육 상담지원	가족 관계 상담	생애 주기별 부부교육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지 인근에 공동육아 나눔터 제공	평등한 육아가사 지원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인가구 생애 주기별 지원	계
전체		4,967	6,449	5,512	5,579	2,745	3,343	6,513	5,542	40,650
		12.2	15.9	13.6	13.7	6.8	8.2	16.0	13.6	100.0
성별	남성	12.0	16.0	14.1	13.5	7.2	8.7	16.1	12.4	100.0
	여성	12.5	15.7	13.1	13.9	6.3	7.8	16.0	14.8	100.0
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22.3	12.6	8.1	14.1	8.1	9.2	7.7	17.8	100.0
	30세 이상~ 40세 미만	20.2	11.9	10.1	22.2	7.6	11.5	6.4	10.2	100.0
	40세 이상~ 50세 미만	12.2	19.5	14.8	16.9	6.3	11.0	11.0	8.3	100.0
	50세 이상~ 60세 미만	9.5	20.8	16.8	10.1	6.9	7.5	17.7	10.8	100.0
	60세 이상~ 70세 미만	9.0	15.1	16.0	11.1	6.6	5.9	20.3	15.9	100.0
	70세 이상	5.4	11.5	11.5	8.4	5.5	4.3	30.4	23.0	100.0
혼인 상태	미혼	15.7	11.0	7.3	11.3	7.1	9.3	11.6	26.9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2.6	19.1	17.0	15.6	6.8	8.7	15.8	4.4	100.0
	이혼 또는 별거	7.2	10.4	6.0	8.6	5.6	6.4	14.8	41.1	100.0
	사별	5.5	5.4	5.0	7.7	6.1	3.9	27.5	38.8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3	11.4	9.5	10.2	5.8	3.7	28.9	24.2	100.0
	고등학교	9.9	17.6	16.0	11.6	6.5	7.3	17.6	13.5	100.0
	초대졸 이상	15.8	16.1	13.1	16.3	7.2	10.3	10.8	10.4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4.2	3.3	2.8	9.6	5.1	1.5	24.3	49.2	100.0
	100-200만원 미만	4.9	10.1	7.4	9.2	5.3	4.3	26.1	32.7	100.0
	200-300만원 미만	8.2	11.0	10.9	9.5	7.6	6.8	19.2	26.7	100.0
	300-400만원 미만	12.1	14.2	11.5	12.1	5.8	7.6	14.1	22.7	100.0
	400-500만원 미만	15.4	15.5	15.2	14.4	6.7	8.9	13.7	10.2	100.0
	500만원 이상	12.4	19.5	16.3	15.6	6.8	9.5	13.9	5.9	100.0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수요(1+2순위)도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세 이상~30세 미만과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교육상담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40대는 '가족관계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50대는 '가족관계 상담',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60대는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70대는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처럼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혼인상태별로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수요(1+2순위)를 살펴보았다. '미혼'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유배우'는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 및 '사별'인 경우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과 '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인 경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과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초대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상담'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가족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과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상담', '생애주기별 부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 XI-15〉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내용(1+2순위)

(단위: 천명, %)

구분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 방법 교육 상담지원	가족 관계 상담	생애 주기별 부부교육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지 인근에 공동육아나눔터 제공	평등한 육아가사 지원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인가구 생애 주기별 지원
전체		7,939	11,871	10,560	10,320	6,656	8,215	12,257	9,580
		19.5	29.2	26.0	25.4	16.4	20.2	30.2	23.6
성별	남성	19.6	29.7	26.8	25.4	16.5	20.4	29.9	21.8
	여성	19.5	28.8	25.2	25.3	16.2	20.0	30.4	25.3
연령	25세 이상~ 30세 미만	34.4	24.5	17.0	28.2	19.1	26.1	14.5	25.9
	30세 이상~ 40세 미만	31.8	23.3	19.5	38.7	20.5	29.5	15.3	15.5
	40세 이상~ 50세 미만	19.5	34.9	29.2	29.7	17.7	24.7	23.1	13.9
	50세 이상~ 60세 미만	15.5	36.7	33.3	19.8	14.8	17.4	33.3	20.1
	60세 이상~ 70세 미만	14.4	29.0	29.5	20.6	14.9	14.7	36.9	28.8
	70세 이상	9.3	21.0	19.7	17.2	12.5	11.4	52.0	42.0
혼인 상태	미혼	25.7	20.8	14.5	23.2	16.6	23.3	25.7	37.5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19.9	34.2	32.3	27.9	17.0	21.3	27.7	12.4
	이혼 또는 별거	10.9	22.0	12.4	18.4	14.7	11.8	38.6	54.9
	사별	9.0	13.6	10.4	15.4	12.5	10.7	52.1	59.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6	22.0	18.2	19.3	12.7	10.7	51.1	41.6
	고등학교	15.8	31.7	29.4	21.9	15.8	17.9	33.0	24.8
	초대졸 이상	25.0	29.8	26.0	29.8	18.0	24.9	21.4	16.9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8.3	8.3	7.0	17.0	9.5	7.4	54.9	67.8
	100-200만원 미만	8.6	19.6	15.7	16.4	12.2	10.6	48.1	52.1
	200-300만원 미만	15.9	20.8	19.0	18.6	17.7	15.9	35.8	42.0
	300-400만원 미만	20.2	25.2	22.8	23.8	13.9	19.0	30.3	32.2
	400-500만원 미만	22.4	29.2	28.2	27.9	17.3	22.9	26.2	17.9
	500만원 이상	19.4	35.9	31.7	27.6	17.5	23.0	25.7	12.8

2. 일·생활 균형정책 수요

일·생활 균형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25.2%,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17.1%, '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잘 모르겠음' 응답률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23년에는 '잘 모르겠음' 응답률이 6.3%로 감소하여 일·생활 균형정책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증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 있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에 대해 여성의 29.3%가 이를 우선순위로 꼽았고, 남성의 20.9%가 이를 우선순위로 꼽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생활 균형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다시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았고 '유배우',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 '사별'인 경우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을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생활 균형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8.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초대졸 이상'인 경우 '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응답한 비율이 19.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가족소득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32.9%로 매우 높았다.

〈표 XI-16〉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천명, %)

구분		초과 근로 시간 단축	재택 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 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기타	잘 모르겠음	계
전체(2020년)		4,387	6,238	3,631	6,874	2,533	4,271	3,392	262	8,118	39,706
		11.0	15.7	9.1	17.3	6.4	10.8	8.5	0.7	20.4	100.0
전체(2023년)		2,089	6,370	4,130	10,226	3,795	6,946	4,541	11	2,542	40,650
		5.1	15.7	10.2	25.2	9.3	17.1	11.2	0.0	6.3	100.0
성별	남성	6.1	17.7	11.3	20.9	10.4	18.7	8.6	0.0	6.2	100.0
	여성	4.2	13.7	9.1	29.3	8.3	15.5	13.7	0.0	6.3	100.0
연령	25세 이상~30세 미만	6.9	19.7	12.9	26.1	8.0	15.4	7.5	-	3.6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2	21.0	14.5	24.9	6.7	15.0	9.5	0.0	2.2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4	19.1	10.3	23.0	9.5	17.3	12.4	-	3.0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5.5	14.9	9.2	24.9	9.7	19.0	12.0	0.0	4.7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4.4	12.2	8.5	27.1	10.4	17.5	12.7	0.0	7.2	100.0
	70세 이상	3.1	8.2	7.0	25.7	10.8	16.9	10.7	0.1	17.4	100.0
혼인 상태	미혼	7.2	20.6	10.8	22.9	7.9	18.2	7.5	-	4.9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9	15.7	10.8	25.9	9.6	16.6	11.7	0.0	4.7	100.0
	이혼 또는 별거	4.7	13.0	7.0	21.6	9.8	17.1	14.9	0.1	11.7	100.0
	사별	2.9	7.1	5.6	26.3	10.1	18.3	12.4	0.1	17.2	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3	8.0	7.7	27.2	9.5	16.2	10.1	0.1	18.0	100.0
	고등학교	5.2	13.6	9.8	25.2	9.7	18.1	12.8	0.0	5.5	100.0
	초대졸 이상	5.7	19.6	11.2	24.5	9.0	16.6	10.4	0.0	3.0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2.9	7.8	5.0	24.6	4.7	13.4	8.6	0.1	32.9	100.0
	100-200만원 미만	2.4	8.2	7.7	25.7	10.6	18.6	12.3	0.2	14.4	100.0
	200-300만원 미만	4.6	13.5	7.9	24.4	10.2	19.8	12.3	0.1	7.2	100.0
	300-400만원 미만	5.5	15.7	10.9	23.7	7.9	20.0	12.1	-	4.1	100.0
	400-500만원 미만	6.2	15.2	11.0	24.3	9.5	16.8	12.2	0.1	4.6	100.0
	500만원 이상	5.3	18.1	10.2	26.4	9.0	15.7	12.4	0.0	2.8	100.0

3.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75.3%,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74.2%, '1인가구에 대한 지원' 63.3%,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5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이 2023년에는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와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동의수준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및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동의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0세 이상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동의수준이 74.8%로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동의수준이 다른 혼인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혼 및 별거' 및 '사별'인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동의수준이 다른 혼인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인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초대졸 이상'인 경우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XI-17〉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함' 비율

(단위: 천명, %)

구분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전체(2020)		14,152	28,082	24,353	19,501
		35.6	70.7	61.3	49.1
전체(2023)		21,119	30,616	30,151	25,741
		52.0	75.3	74.2	63.3
성별	남성	51.8	74.4	73.6	61.4
	여성	52.1	76.2	74.7	65.2
연령	25세 이상~30세 미만	62.7	77.1	77.0	64.6
	30세 이상~40세 미만	59.8	74.6	75.2	61.8
	40세 이상~50세 미만	54.5	76.0	74.6	60.3
	50세 이상~60세 미만	52.1	76.0	73.9	60.8
	60세 이상~70세 미만	46.5	74.1	73.0	64.9
	70세 이상	40.3	74.8	72.6	69.8
혼인 상태	미혼	60.2	74.9	75.5	69.9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51.0	75.3	74.1	58.8
	이혼 또는 별거	50.6	76.9	73.7	77.6
	사별	43.5	75.5	72.3	75.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1.5	75.5	73.0	70.0
	고등학교	48.6	75.4	73.4	64.3
	초대졸 이상	57.7	75.2	75.1	60.5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37.9	81.2	76.8	82.7
	100-200만원 미만	43.1	77.1	72.3	72.3
	200-300만원 미만	51.2	70.2	71.0	70.7
	300-400만원 미만	53.5	76.3	75.8	69.8
	400-500만원 미만	50.0	75.6	72.6	61.0
	500만원 이상	54.9	76.8	75.3	59.8

XII

1인 가구

제1절. 1인 가구 응답자 특성 467
제2절. 1인 가구의 경제생활 474
제3절. 경제적 부양과 돌봄 480
제4절. 생활상 어려움과 사적 지지망 485
제5절. 1인 가구 지속 의향 및 지원 요구 491

본 장은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조사로 2020년 처음 조사된 이후 2023년에 실시된 두 번째(2차) 조사이다.

본 조사는 크게 1인 가구의 특성, 경제생활, 경제적 부양과 돌봄, 생활상 어려움과 지지망, 1인 가구 지속 의향 및 지원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1인 가구의 특성은 1인 가구 생활기간과 사유, 경제생활은 생활비 마련 방법, 지출 부담, 거주지 마련 주체에 대해 조사하였다. 경제적 부양과 돌봄에 있어서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장기간 돌봄을 하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였고, 2023년 신규조사로 1인 가구가 따로사는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돌봄을 받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하였다. 생활상 어려움과 지지망에서는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어려움에 대한 정도를 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파악하였고, 사적 지원망으로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얘기할 사람이 있는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지속 의향 및 지원 요구에서는 혼자 살 의향, 필요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였고, 2023년 신규조사로 생활 만족도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제1절. 1인 가구 응답자 특성[13)]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인 가구는 남성 37.7%, 여성 62.3%로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27.1%, 60대 25.7%, 50대 13.6%, 30대 13.1% 순으로 높아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층 비율이 높았으나 30대 이하 젊은층에서도 23.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사별 37.8%, 미혼 37.2%로 비슷하게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혼·별거 20.6%, 유배우 4.4%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35.4%, 초대졸 이상 33.7%, 중졸이하 30.9% 순으로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수준이 66.3%로 절반 이상이었고, 현재 취업 중인 비율은 68.0%, 비취업은 32.0%였다. 가족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9.8%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원 미만 22.1%, 100~200만원 미만 19.8% 순이었으며, 전체 중 200만원 미만이 36.7%, 400만원이상 가구는 11.4%로 소득수준이 낮은 구간에 1인 가구 분포가 높아 소득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9%, 서울 20.6%로 거주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가장 높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시도별로 7%를 넘지 못

13) 2023년 표본 조사 응답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 노인 연령대 1인 가구 비중이 과대 표집되어 통계청 전국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비율과 상이할 수 있음

하였다. 서울·경기와 타지역의 1인 가구 거주 비율을 비교해보면 각각 42.5%, 57.7%로 수도권 집중성이 뚜렷하였다.

〈표 Ⅻ-1〉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천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7,327	100.0
성별	남성	2,760	37.7
	여성	4,568	62.3
연령	30세 미만	789	10.8
	30세 이상~40세 미만	957	13.1
	40세 이상~50세 미만	717	9.8
	50세 이상~60세 미만	995	13.6
	60세 이상~70세 미만	1,880	25.7
	70세 이상	1,989	27.1
혼인상태	미혼	2,726	37.2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26	4.4
	이혼 또는 별거	1,508	20.6
	사별	2,768	37.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62	30.9
	고등학교	2,595	35.4
	초대졸 이상	2,471	33.7
취업여부	취업	4,985	68.0
	비취업	2,342	32.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1,235	16.9
	100~200만원 미만	1,452	19.8
	200~300만원 미만	2,182	29.8
	300~400만원 미만	1,619	22.1
	400~500만원 미만	427	5.8
	500만원 이상	413	5.6
지역	서울특별시	1,507	20.6
	부산광역시	494	6.7
	대구광역시	330	4.5
	인천광역시	366	5.0
	광주광역시	217	3.0

구분		빈도	비율
	대전광역시	248	3.4
	울산광역시	133	1.8
	세종특별자치시	51	0.7
	경기도	1,602	21.9
	강원특별자치도	253	3.5
	충청북도	260	3.6
	충청남도	338	4.6
	전라북도	279	3.8
	전라남도	277	3.8
	경상북도	422	5.8
	경상남도	457	6.2
	제주도	92	1.3

2. 1인 가구 생활기간과 사유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높았고 10~20년 미만이 24.0%, 1~3년 미만 16.5%, 3~5년 미만 15.0% 순이며, 전체 평균 개월 수는 112.5개월이었다. 2020년 조사 결과 119.2개월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5~10년 미만이 남성 29.2%, 여성 2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이 남성 23.4%, 여성 24.3%로 높았고, 평균 개월 수는 남성 106.9개월, 여성 115.8개월로 여성이 혼자 생활한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36.1개월, 30세 이상~40세미만 66.5개월, 40대 이상부터 114.3개월~153.4개월로 나타나 40대 이상부터 상대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124.2개월), 사별(123.9개월), 미혼(101.6개월) 순으로 모두 100개월 이상인데 반해 유배우는 1/2수준인 51.2개월로 이혼·별거, 사별, 미혼으로 인해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었다. 가족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179.1개월, 100~200만원 미만이 124.6개월로 가족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었고, 400~500만원 미만에서도 110.6개월로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생활기간은 여성, 중장년 이상, 이혼·별거/사별, 소득이 낮은 경우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2020년 조사결과와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Ⅻ-2〉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

(단위: 천명, 개월, %)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개월)	계
전체(2020년)		543	1,119	765	1,081	1,537	747	400	119.2	6,192
		8.8	18.1	12.4	17.4	24.8	12.1	6.5		100.0
전체(2023년)		229	1,206	1,102	2,073	1,757	589	371	112.5	7,327
		3.1	16.5	15.0	28.3	24.0	8.0	5.1		112.46
성별	남성	3.3	18.1	13.8	29.2	23.4	7.6	4.6	106.9	100.0
	여성	3.0	15.5	15.8	27.7	24.3	8.3	5.3	115.8	100.0
연령	30세 미만	8.7	53.0	21.9	15.6	0.8	-	-	36.1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1	18.9	26.8	37.2	12.8	0.3	-	66.5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0.9	7.7	9.7	28.2	47.2	6.3	-	114.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3.7	11.8	9.8	30.8	24.0	12.4	7.4	130.6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1	13.9	14.8	31.5	24.8	7.6	5.2	114.3	100.0
	70세 이상	1.9	8.7	11.4	24.8	29.4	13.8	10.0	153.4	100.0
혼인 상태	미혼	3.4	22.8	16.9	24.8	20.8	6.1	5.2	101.6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16.1	28.3	26.4	17.4	9.8	0.5	1.4	51.2	100.0
	이혼 또는 별거	2.1	8.2	11.3	34.5	29.7	9.5	4.7	124.2	100.0
	사별	1.9	13.3	13.9	29.6	25.7	10.0	5.6	123.9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2.1	6.7	10.3	16.8	32.2	17.3	14.6	179.1	100.0
	100~200만원 미만	3.0	13.6	14.5	26.4	27.5	9.0	6.0	124.6	100.0
	200~300만원 미만	2.7	24.9	16.6	31.8	17.3	4.8	1.9	83.8	100.0
	300~400만원 미만	3.0	14.8	16.5	34.2	23.0	5.9	2.5	98.8	100.0
	400~500만원 미만	1.6	11.2	19.6	30.0	24.8	8.4	4.4	110.6	100.0
	500만원 이상	10.9	23.5	12.5	25.5	24.9	2.1	0.6	77.3	100.0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는 배우자 52.9%, 부모 36.0%, 자녀 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배우자(45.7%), 부모(37.6%), 자녀(2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부모(51.6%), 배우자(40.5%), 자녀(18.9%)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60.3%), 부모(26.6%), 자녀(23.6%)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혼자 생활하기 전 부모와 살았던 기간이 여성보다 25.0%p 길었고 여성은 배우자와 살았던

기간이 남성에 비해 19.8%p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까지는 93% 이상 부모와 함께 살았고 다음으로 형제자매 순이며, 40대(40세 이상~50세 미만)는 부모(66.7%)와 가장 많이 살았지만, 배우자(22.7%), 형제자매(20.1%)와 함께 생활한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50대 이상부터 배우자와 함께 가장 많이 생활하였고 다음으로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0대는 배우자(49.1%)뿐 아니라 자녀(45.1%), 부모(31.3%)와도 함께 살았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부모(92.5%), 형제자매(29.3%)와 함께 살았고, 유배우,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순으로 함께 살았다.

따라서, 1인 가구는 남성, 40대 이하, 미혼일 때 부모와 함께 살았던 비율이 높았고, 여성, 50대 이상, 유배우/이혼·별거/사별일 때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살다가 혼자 생활하거나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생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0년 조사결과와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Ⅻ-3〉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복수응답)

(단위: 천명, %)

구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계
전체(2020년)		2,828	1,744	84	2,329	57	101	7	788	11	46	224	6,192
		45.7	28.2	1.4	37.6	0.9	1.6	0.1	12.7	0.2	0.7	3.6	100.0*
전체(2023년)		3,873	1,601	29	2,637	10	30	-	810	23	15	101	7,327
		52.9	21.9	0.4	36.0	0.1	0.4	-	11.1	0.3	0.2	1.4	124.6
성별	남성	40.5	18.9	0.2	51.6	-	0.5	-	15.4	0.4	0.2	1.8	129.5
	여성	60.3	23.6	0.5	26.6	0.2	0.4	-	8.4	0.2	0.2	1.1	121.6
연령	30세 미만	0.1	-	-	95.2	-	0.9	-	38.5	0.9	0.6	1.6	137.9
	30세 이상~40세 미만	2.9	1.3	0.2	93.0	-	1.1	-	27.0	1.0	-	1.4	128.0
	40세 이상~50세 미만	22.7	12.5	-	66.7	0.3	0.3	-	20.1	0.3	-	4.8	127.8
	50세 이상~60세 미만	49.1	45.1	-	31.3	0.1	0.8	-	5.8	0.2	-	1.6	134.1
	60세 이상~70세 미만	77.3	36.7	0.7	8.4	-	0.1	-	2.1	0.1	-	1.1	126.5
	70세 이상	87.5	18.1	0.7	2.4	0.3	-	-	0.3	-	0.5	0.2	110.0

구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기타 동거인	계
혼인 상태	미혼	-	-	-	92.5	-	1.1	-	29.3	0.8	0.2	2.7	126.7
	유배우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2.2	56.2	-	4.2	0.6	-	-	0.4	-	-	1.6	155.2
	이혼 또는 별거	74.0	55.3	0.4	5.5	0.1	-	-	0.7	-	-	1.4	137.3
	사별	88.8	21.1	0.8	0.7	0.2	-	-	-	-	0.3	-	112.0

* 주: 2020년조사 전체 '계' 비율기준 100.0%로 산정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로는 배우자 사망 31.9%, 학업이나 직장(취업) 22.4% 순으로 가장 높았고, 혼자살고 싶어서 14.3%, 본인 이혼이 13.7%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배우자 사망(23.4%)과 학업이나 직장(취업)(24.4%)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혼자 살고 싶어서(16.2%), 본인 이혼(15.6%) 순으로 나타나 2020년 대비 2023년 배우자 사망 비율이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학업이나 직장취업(33.1%), 본인 이혼(17.8%), 혼자살고 싶어서(16.6%), 배우자 사망(13.6%)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 학업이나 직장(취업)(15.9%), 혼자살고 싶어서(12.8%), 본인 이혼(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인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 50대는 본인 이혼(30.0%), 6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이 가장 뚜렷하게 높아 40대 이하는 자발적 이유로, 50대 이상은 비자발적 이유로 1인 가구가 되었다.

한편,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중 혼자살고 싶어서의 비율을 보면 2020년 16.2%, 2023년 14.3%로 전체 사유의 14%이상 유지되고 있어 혼자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비중인 자발적 1인 가구 양상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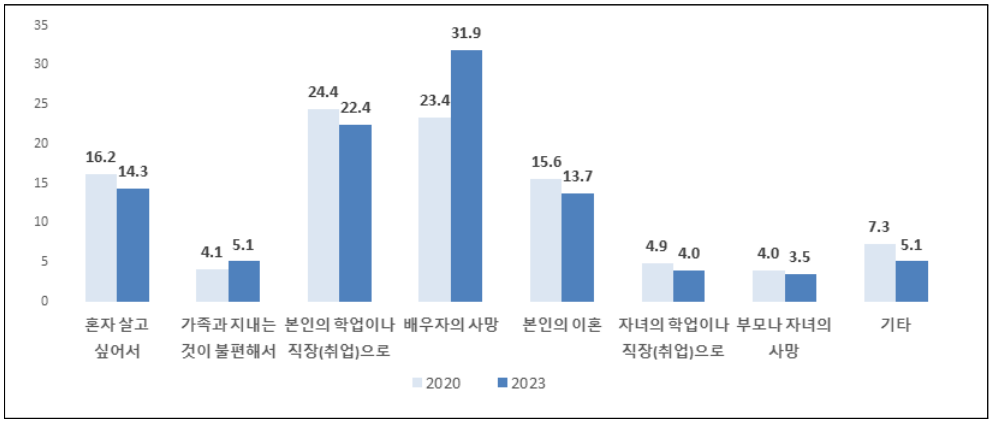
따라서, 주로 배우자 사망, 학업이나 직장(취업) 순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남성, 40대 이하에서는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여성, 6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 사망으로 1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 배우자 사망 순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었으며, 성별은 2023년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202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60대에서 본인 이혼으로 인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표 Ⅻ-4〉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단위: 천명, %)

구분		혼자 살고 싶어서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의 이혼으로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의 이혼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기타	계
전체(2020년)		1,005	256	1,510	1,449	969	110	306	246	0	19	27	295	6,192
		16.2	4.1	24.4	23.4	15.6	1.8	4.9	4.0	0	0.3	0.4	4.8	100.0
전체(2023년)		1,045	373	1,641	2,340	1,005	109	295	254	1	36	62	166	7,327
		14.3	5.1	22.4	31.9	13.7	1.5	4.0	3.5	0.0	0.5	0.8	2.3	100.0
성별	남성	16.6	6.2	33.1	13.6	17.8	1.6	2.0	5.2	0.1	0.5	1.8	1.6	100.0
	여성	12.8	4.4	15.9	43.0	11.3	1.4	5.3	2.4	-	0.5	0.3	2.7	100.0
연령	30세 미만	19.0	3.8	72.2	-	-	0.5	-	0.4	-	1.6	2.3	0.2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28.0	1.1	63.7	-	2.0	0.2	1.0	0.9	-	0.8	2.4	-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9.6	13.0	32.3	2.1	12.9	1.2	1.0	5.6	0.2	0.2	1.5	0.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8.0	8.2	12.2	5.9	30.0	3.7	7.9	8.5	-	0.6	0.8	4.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5.9	4.0	5.1	42.6	25.4	2.6	6.2	4.8	-	0.4	0.1	2.9	100.0
	70세 이상	6.3	4.2	0.7	73.7	5.9	0.5	4.1	1.4	-	-	-	3.3	100.0

(단위: %)



*주: 기타는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자녀이혼, 부모이혼, 부모직장(취업), 기타항목의 합

[그림 Ⅻ-1]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2020년, 2023년)

제2절. 1인 가구의 경제생활

1. 생활비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본인 76.7%, 공적지원 12.9%, 자녀가 지원 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본인(69.5%), 공적 지원(19.0%), 자녀(5.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공적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지원의 경우 남성 8.1%, 여성 15.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30세 미만의 경우 부모 지원이 18.3%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도 상당부분 확인되었으며 70세 이상의 경우는 본인(43.1%), 공적지원(34.7%), 자녀가 지원(22.1%) 순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경우 주로 본인 자금과 공적지원을 통해 생활하였다. 가족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은 공적지원(51.0%)과 본인(30.5%), 자녀 지원(15.6%) 으로 생활을 많이하고, 100만원이상부터는 본인스스로의 자금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본인(58.7%), 공적지원(19.6%), 자녀지원(17.1%) 순으로 나타나 공적지원과 자녀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비율도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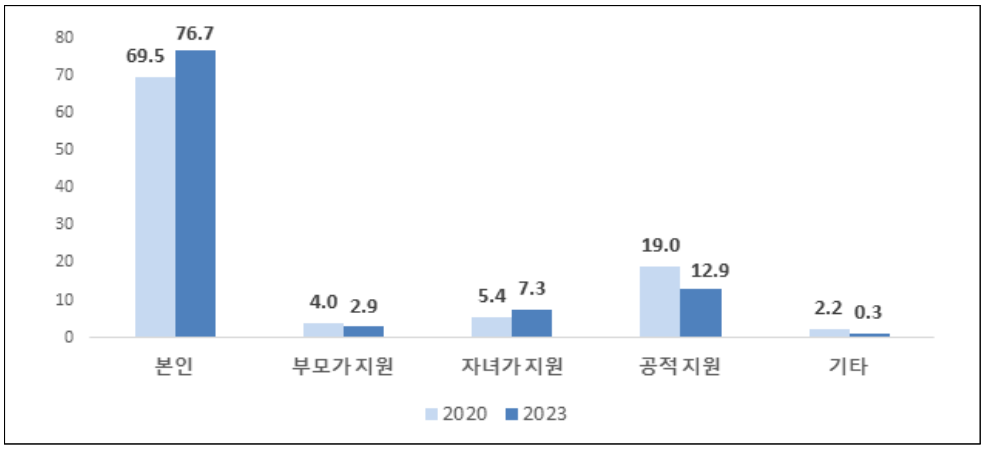
따라서 1인 가구의 생활비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의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연령이 가장낮은 집단에서는 부모 지원의 비율이 상당부분 확인되었고, 연령이 높은 고령층과 가족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공적지원과 자녀지원으로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결과와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Ⅻ-5〉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

(단위: 천명, %)

구분		본인	부모가 지원	자녀가 지원	공적 지원	기타	계
전체(2020년)		4,302	245	332	1,178	135	6,192
		69.5	4.0	5.4	19.0	2.2	100.0
전체(2023년)		5,617	211	534	942	24	7,327
		76.7	2.9	7.3	12.9	0.3	100.0
성별	남성	85.5	4.2	1.8	8.1	0.4	100.0
	여성	71.3	2.0	10.6	15.7	0.3	100.0
연령	30세 미만	81.3	18.3	-	0.3	-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92.8	6.2	-	1.0	-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96.0	0.6	-	2.8	0.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94.8	0.3	0.4	3.4	1.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84.9	-	4.9	9.9	0.3	100.0
	70세 이상	43.1	-	22.1	34.7	0.1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30.5	2.3	15.6	51.0	0.6	100.0
	100~200만원 미만	58.7	4.3	17.1	19.6	0.3	100.0
	200~300만원 미만	92.7	2.7	3.5	1.1	-	100.0
	300~400만원 미만	97.2	1.7	0.5	0.3	0.2	100.0
	400~500만원 미만	98.9	0.4	0.2	-	0.4	100.0
	500만원 이상	89.1	7.4	1.8	-	1.7	100.0

(단위: %)



[그림 Ⅻ-2] 생활비 마련하는 주된 방법(2020년, 2023년)

2. 지출 항목

1인 가구의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식비 42.9%, 주거비 31.6%, 의료비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주거비(35.7%), 식비(30.7%), 의료비(22.7%) 순으로 나타났고, 2020년 대비 2023년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비슷하나 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식비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식비지출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식비, 주거비, 의료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식비 부담이 여성보다 14.9%p 높았고, 여성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남성보다 15.3%p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에서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하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 이상 연령에서는(특히 70대 이상)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식비, 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부터는 식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식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지만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높았고, 2020년 조사결과에서도 식비(30.7%), 주거비(35.7%)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았다. 또한 2023년, 2020년 모두 여성, 고령층,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해 상당부분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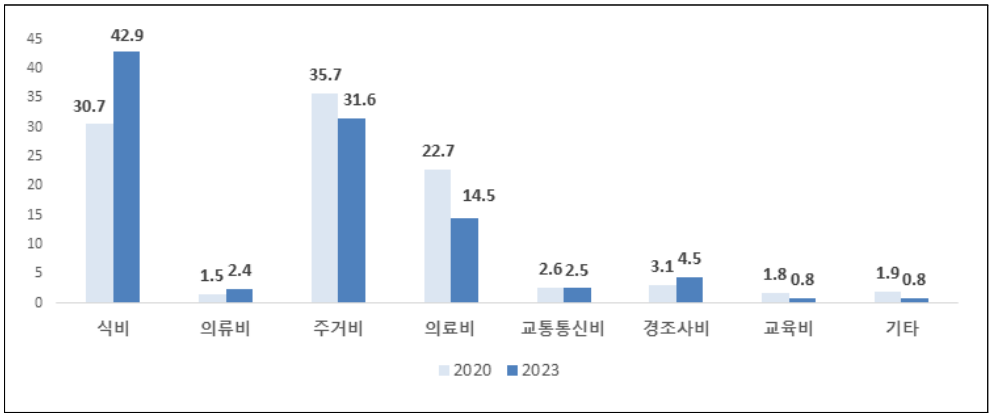
14) - 시장경제 보도자료(2023.11.05.), “김밥도 라면도 올랐다... ‘먹거리 물가’ 3년 연속 고공행진”,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89(검색일: 2023.11.21.)
- jtbs뉴스 보도자료(2023.11.05.), ““버는 것 절반이 식비로, 힘들 수 밖에”.. 먹거리 지출 부담, 소득 따라 천차만별“,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5121?feed=na(검색일: 2023.11.21.)

〈표 Ⅻ-6〉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천명, %)

구분		식비	의류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 통신비	경조사 비	교육비	기타	계
전체(2020년)		1,902	90	2,207	1,403	163	195	113	119	6,192
		30.7	1.5	35.7	22.7	2.6	3.1	1.8	1.9	100.0
전체(2023년)		3,143	175	2,314	1,063	182	332	61	57	7,327
		42.9	2.4	31.6	14.5	2.5	4.5	0.8	0.8	100.0
성별	남성	52.2	1.6	29.3	5.0	4.8	4.9	1.4	0.8	100.0
	여성	37.3	2.9	32.9	20.3	1.1	4.3	0.5	0.8	100.0
연령	30세 미만	44.7	2.8	47.4	-	2.3	0.5	2.0	0.2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7.0	4.9	42.7	-	3.0	1.0	-	1.4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7.2	4.0	38.1	1.7	4.1	3.0	1.3	0.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3.2	4.0	30.3	5.0	3.2	10.9	3.3	0.1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46.1	1.1	25.9	17.3	2.4	6.3	0.1	0.9	100.0
	70세 이상	35.5	0.9	23.6	33.9	1.4	3.6	0.1	1.0	100.0
가족 소득	100만원 미만	41.1	1.3	25.5	29.7	0.6	1.5	0.1	0.2	100.0
	100~200만원 미만	41.8	0.5	23.6	28.1	1.6	3.2	0.2	0.9	100.0
	200~300만원 미만	45.1	1.6	36.5	9.3	2.0	4.7	0.4	0.6	100.0
	300~400만원 미만	43.3	4.3	39.8	4.0	3.7	3.6	0.4	0.9	100.0
	400~500만원 미만	46.6	5.8	30.9	2.8	4.7	7.0	1.1	1.2	100.0
	500만원 이상	34.9	5.4	20.3	2.5	7.1	18.5	8.9	2.4	100.0

(단위: %)



[그림 Ⅻ-3]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2020년, 2023년)

3. 거주지 비용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비용 마련은 본인 85.1%, 부모가 지원 10.1%로 주로 본인이 직접 마련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본인(76.7%), 부모가 지원(13.4%)순으로 나타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83.7%, 85.9%로 본인이 마련하였고 남성의 경우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비율이 여성에 비해 5.9%p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은 본인 51.2%, 부모 지원 48.6%, 30대 본인 76.5%, 부모 지원 22.8%로 30대 이하의 경우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비율도 함께 나타나 부모 지원에 대한 비율이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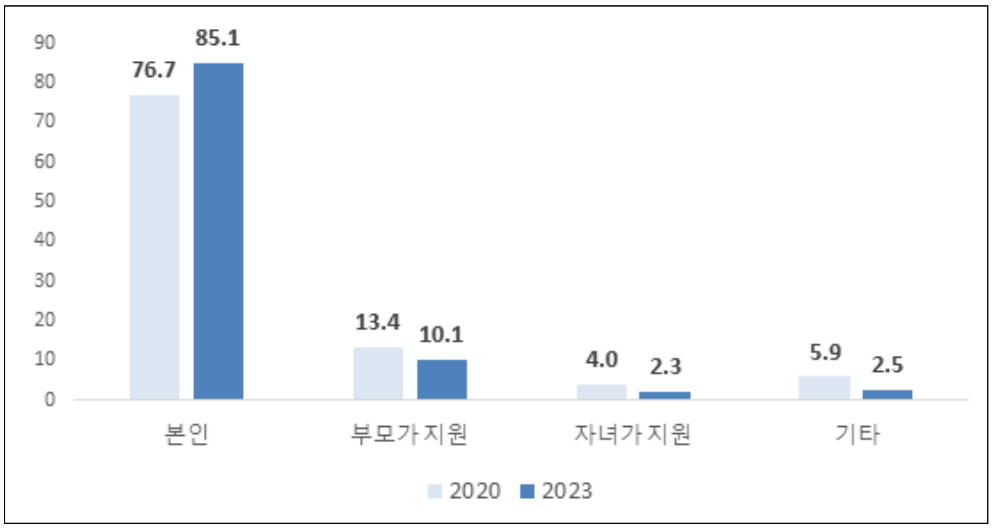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주로 본인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였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 지원으로 거주지를 마련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Ⅻ-7〉 현 거주지 비용마련 주체

(단위: 천명, %)

구분		본인	부모가 지원	자녀가 지원	기타	계
전체(2020년)		4,752	830	248	362	6,192
		76.7	13.4	4.0	5.9	100.0
전체(2023년)		6,235	744	166	182	7,327
		85.1	10.1	2.3	2.5	100.0
성별	남성	83.7	13.8	0.2	2.2	100.0
	여성	85.9	7.9	3.5	2.7	100.0
연령	30세 미만	51.2	48.6	-	0.2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6.5	22.8	-	0.7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94.9	4.5	-	0.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91.9	5.1	-	3.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91.8	2.1	2.2	3.9	100.0
	70세 이상	89.4	1.0	6.3	3.4	100.0

(단위: %)



[그림 Ⅻ-4] 현 거주지 비용마련 주체(2020년, 2023년)

제3절. 경제적 부양과 돌봄

1. 경제적 부양

1인 가구가 따로 사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양하지 않는다 93.5%, 부양 한다 6.5%로 나타났고 부양하는 가족은 부모(58.7%), 자녀(34.0%), 배우자(16.4%) 순이다. 이는 2020년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남성 90.0%, 여성 95.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남성이 부양하는 가족으로 부모의 비율(67.2%)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전체 평균값(93.5%) 이상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에서 50대 이하의 경우는 경제적 부양을 한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양하는 가족은 주로 부모이며 다음으로 자녀, 배우자 순이었다.

따라서, 1인 가구에서는 대부분 가족에 대해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더 부양하고, 40대~50대에서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중장년층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표 Ⅻ-8〉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복수응답)

(단위: 천명, %)

구분		예											아니요	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전체(2020)*		804	224	350	2	415	12	7	0	23	0	0	5,388	6,192
		13.0	3.6	5.7	0.0	6.7	0.2	0.1	0.0	0.4	0.0	0.0	87.0	100.0
전체(2023)*		479	78	163	5	281	12	8	-	11	-	-	6,849	7,327
		6.5	16.4	34.0	1.0	58.7	2.6	1.7	-	2.2	-	-	93.5	100.0
성별	남성	10.0	24.1	29.5	-	67.2	2.2	-	-	0.8	-	-	90.0	100.0
	여성	4.4	5.8	40.0	2.4	47.1	3.1	4.1	-	4.1	-	-	95.6	100.0
연령	30세 미만	1.2	-	-	-	100.0	-	-	-	-	-	-	98.8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4.9	9.8	20.6	-	73.6	-	-	-	-	-	-	95.1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21.2	9.9	21.0	-	79.6	1.0	-	-	5.5	-	-	78.8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4.4	16.2	41.6	-	58.7	6.0	5.8	-	-	-	-	85.6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3.8	35.5	28.6	-	42.1	3.3	-	-	-	-	-	96.2	100.0
	70세 이상	2.8	18.5	73.8	8.8	3.2	-	-	-	3.9	-	-	97.2	100.0

*주: 2020년, 2023년 전체값의 '예' 응답 비율 산정 방식 다름. 2023년 '예' 응답은 복수응답을 base로 비율 제시

2. 가족 돌봄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정기적 장기간 돌봄 여부는 하지않는다 98.1%, 한다 1.9%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다는 응답의 가족 돌봄 대상자는 부모(57.1%), 배우자(17.3%), 자녀(11.6%) 순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돌봄을 한다는 비율이 7.9%로 2023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돌봄의 대상자는 자녀(3.6%), 부모(3.4%), 배우자(2.6%)로 2023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가족의 장기간 돌봄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남성 97.8%, 여성 98.3%로 나타났고, 돌보는 가족으로는 부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가족에 대한 장기간 돌봄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전체 평균값(98.1%)에 가깝거나 그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에서 50대 이하의 경우는 돌봄을 한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돌봄의 대상은 주로 부모로 나타났다.

1인 가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에 대한 정기적 장기간 돌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50대에서는 가족에 대한 장기간 돌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중장년층에서 가족에 대한 장기간 돌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1인 가구가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정기적 장기간 돌봄을 하는 경우는 성별, 연령별로 동일한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Ⅻ-8〉과 〈표 Ⅻ-9〉 참조).

〈표 Ⅻ-9〉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정기적 장기간 돌봄(복수응답)

(단위: 천명, %)

구분		예											아니요	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전체(2020년)		490	163	221	8	212	9	10	0	25	10	2	5,702	6,192
		7.9	2.6	3.6	0.1	3.4	0.1	0.2	0.0	0.4	0.2	0.0	92.1	100.0
전체(2023년)		139	24	16	-	79	2	8	-	8	-	3	7,189	7,327
		1.9	17.3	11.6	-	57.1	1.7	6.0	-	6.0	-	1.9	98.1	100.0
성별	남성	2.2	19.6	3.8	-	76.6	-	-	-	-	-	-	97.8	100.0
	여성	1.7	15.6	17.8	-	41.8	3.0	10.7	-	10.7	-	3.4	98.3	100.0
연령	30세 미만	0.2	-	-	-	100.0	-	-	-	-	-	-	99.8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	-	-	-	-	-		-	-	-	-	100.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9	-	-	-	76.2	-	-	-	23.8	-	-	95.1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3.7	-	11.1	-	66.1	-	22.8	-	-	-	-	96.3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6	24.9	20.0	-	49.9	4.6	-	-	-	-	5.2	97.4	100.0
	70세 이상	0.8	75.0	13.8	-	11.3	-	-	-	-	-	-	99.2	100.0

*주: 2020년, 2023년 전체값의 '예' 응답 비율 산정 방식 다름. 2023년 '예' 응답은 복수응답을 base로 비율 제시

1인 가구가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 장기간 돌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받고 있지 않다 96.9%, 받고 있다 3.1%로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받고 있다는 응답에 있어 주로 자녀(99.2%)가 1인 가구를 돌봐주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자녀의 배우자(19.4%) 순이었다.

성별로는 돌봄의 수혜를 받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남성 98.7%, 여성 9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9%p 돌봄의 수혜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를 주는 가족으로는 남성, 여성 모두 자녀의 비중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돌봄의 수혜를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100.0%였으며, 60대의 경우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2.2%, 70대 이상은 9.5%로 대부분 70대 이상에서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의 경우는 자녀

(95.3%), 배우자(23.9%), 자녀의 배우자(4.3%) 순으로 돌봄의 수혜를 받고 있고, 70대이상은 자녀(100.0%)와 자녀의 배우자(22.7%)로부터 돌봄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는 대부분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 장기간 돌봄을 받고 있지 않지만, 여성, 60대 이상에서 주로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Ⅻ-10〉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 장기간 돌봄(복수응답)

(단위: 천명, %)

구분		예											아니요	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기타 친인척		
전체		229	10	227	44	-	-	-	-	2	-	-	7,099	7,327
		3.1	4.2	99.2	19.4	-	-	-	-	0.8	-	-	96.9	100.0
성별	남성	1.3	6.4	94.7	27.7	-	-	-	-	5.3	-	-	98.7	100.0
	여성	4.2	3.8	100.0	17.9	-	-	-	-	-	-	-	95.8	100.0
연령	30세 미만	-	-	-	-	-	-	-	-	-	-	-	100.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	-	-	-	-	-	-	-	-	-	-	100.0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	-	-	-	-	-	-	-	-	-	-	100.0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	-	-	-	-	-	-	-	-	-	-	100.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2.2	23.9	95.3	4.3	-	-	-	-	4.7	-	-	97.8	100.0
	70세 이상	9.5	-	100.0	22.7	-	-	-	-	-	-	-	90.5	100.0

제4절. 생활상 어려움과 사적 지지망

1. 생활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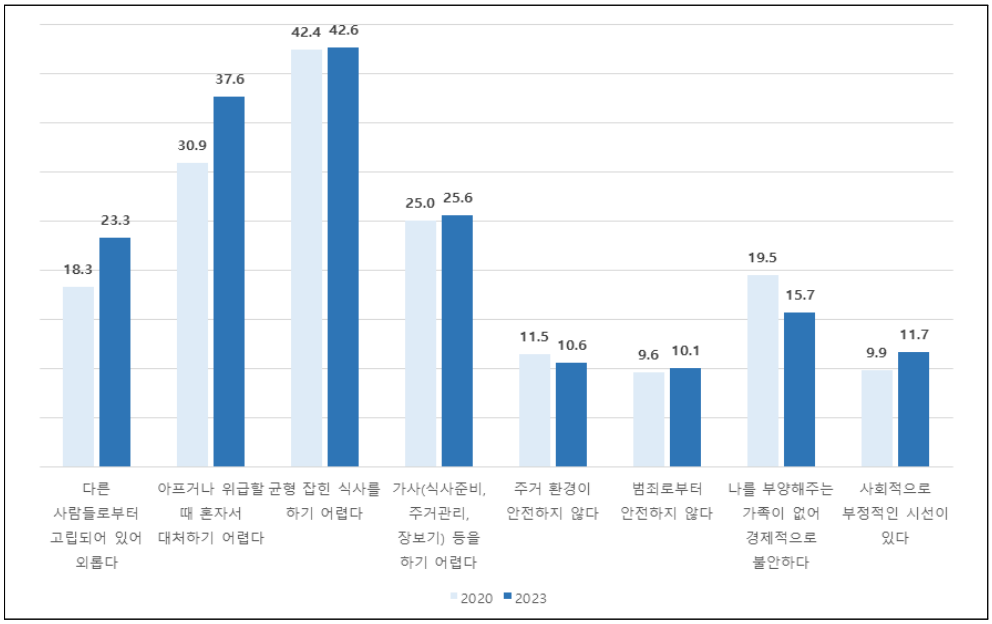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가 42.6%(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높았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가 37.6%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을 하기 어렵다'(25.6%),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23.3%) 순으로 높았다.

〈표 Ⅻ-11〉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의 정도

(단위: 천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3,840	1,781	1,706	7,327
	52.4	24.3	23.3	100.0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2,504	2,071	2,752	7,327
	34.2	28.3	37.6	100.0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2,002	2,205	3,120	7,327
	27.3	30.1	42.6	100.0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을 하기 어렵다	3,082	2,372	1,874	7,327
	42.1	32.4	25.6	100.0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4,731	1,818	778	7,327
	64.6	24.8	10.6	100.0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4,821	1,769	737	7,327
	65.8	24.1	10.1	100.0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3,872	2,302	1,154	7,327
	52.8	31.4	15.7	100.0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4,395	2,073	860	7,327
	60.0	28.3	11.7	100.0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응답 경향은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으로 응답률이 높은 편인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가 3년 사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 동의 비율은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임

[그림 Ⅻ-5]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1인 가구의 성별에 따른 생활상 어려움을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식사'와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에 대한 남성의 응답률이 각각 53.0%, 32.8%로 여성(36.3%, 21.2%)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응답률이 11.5%로 남성(7.7%)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표 Ⅻ-12〉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21.9	24.1	23.3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36.0	38.5	37.6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53.0	36.3	42.6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을 하기 어렵다	32.8	21.2	25.6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9.8	11.2	10.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7.7	11.5	10.1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15.7	15.8	15.7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12.6	11.2	11.7

*주: 동의 비율은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임

1인 가구의 연령대에 따른 생활상 어려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전체 중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중고령층은 '병환 및 위급 상황 대처', '고립 및 고독', '경제적 불안'에 대한 응답률이 뚜렷하게 높았다. '균형 잡힌 식사'와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의 경우 고령층뿐만 아니라 40대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Ⅻ-13〉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연령별)

(단위: %)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전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6.3	9.2	14.8	24.5	30.2	32.7	23.3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14.4	23.9	36.6	38.8	43.7	47.3	37.6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37.3	39.3	45.2	38.3	47.4	42.9	42.6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등을 하기 어렵다	18.5	26.9	30.6	21.7	23.9	29.4	25.6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8.1	7.8	13.4	12.9	11.4	10.1	10.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6.7	9.7	11.0	8.7	13.7	8.5	10.1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5.0	6.1	13.8	16.3	20.1	20.9	15.7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3.2	4.0	13.4	21.1	15.8	9.7	11.7

*주: 동의 비율은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생활상 어려움을 살펴보면, 미혼, 유배우인 경우보다는 이혼·별거, 사별인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더 많은 생활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별거 상태인 경우 '균형 잡힌 식사', '경제적 불안',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응답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표 Ⅻ-14〉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혼인상태별)

(단위: %)

구분	미혼	유배우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이혼 또는 별거	사별	전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11.8	13.3	32.5	30.8	23.3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25.7	19.5	46.5	46.5	37.6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40.3	37.4	51.4	40.7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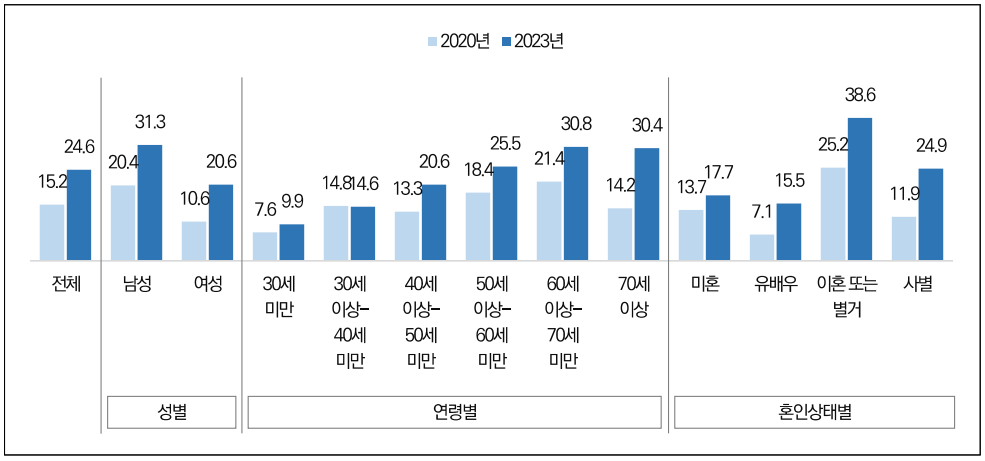
구분	미혼	유배우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이혼 또는 별거	사별	전체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등을 하기 어렵다	23.9	24.2	28.7	25.7	25.6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8.9	3.2	13.8	11.5	10.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9.6	4.3	13.4	9.4	10.1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9.4	5.7	25.3	17.9	15.7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6.9	6.2	23.3	10.9	11.7

*주: 동의 비율은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임

2. 사적 지지망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인 가구의 4명 중 1명인 24.6%는 '없다'고 답했다. 2020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15.2%가 사적 지지망이 없다고 답한 것보다 10% 정도 증가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1.3%)일 때, 연령대가 높을수록(60대 30.8%, 70세 이상 30.4%), 이혼 또는 별거(38.6%) 상태일 때 사적 지지망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단위: %)



[그림 Ⅻ-6]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없음' 비율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75.4% 중에서 그 대상은 ‘친구’가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15.3%), ‘형제자매’(7.4%)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친구’가 36.8%로 독보적으로 높은데 반해, 여성은 ‘친구’(30.5%)와 함께 ‘자녀’도 2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친구’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 외에 30대 이하 청년층은 ‘부모’, 40~50대 중장년층은 ‘형제자매’, 60대 이상 고령층은 ‘자녀’에게 의지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표 Ⅻ-15〉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

(단위: 천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부모	배우자	자녀	연인	형제자매	친구	동료	이웃	전문상담사/사회복지사	성직자	기타	소계		
전체(2020년)		728	278	1,447	323	564	1,367	182	193	57	82	25	5,247	943	6,190
		11.8	4.5	23.4	5.2	9.1	22.1	2.9	3.1	0.9	1.3	0.4	84.8	15.2	100.0
전체(2023년)		325	116	1,122	252	542	2,410	166	462	47	70	14	5,525	1,802	7,327
		4.4	1.6	15.3	3.4	7.4	32.9	2.3	6.3	0.6	0.9	0.2	75.4	24.6	100.0
성별	남성	6.2	2.7	3.8	4.0	8.6	36.8	3.6	2.0	0.3	0.4	0.2	68.7	31.3	100.0
	여성	3.4	0.9	22.2	3.1	6.7	30.5	1.4	8.9	0.8	1.3	0.2	79.4	20.6	100.0
연령	30세 미만	15.2	0.5	-	9.6	5.3	56.8	2.5	0.2	-	-	-	90.1	9.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4.7	1.3	-	7.7	6.1	51.2	4.4	-	-	-	-	85.4	14.6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0	2.0	0.5	8.7	12.5	43.8	4.0	0.4	1.2	0.2	0.3	79.4	20.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7	3.0	6.4	2.9	12.8	39.3	3.8	2.5	0.8	0.8	0.4	74.5	25.5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0.2	2.2	18.0	0.6	7.8	28.6	1.9	8.3	0.4	1.2	-	69.2	30.8	100.0
	70세 이상	-	0.7	36.1	-	3.9	11.4	0.1	13.9	1.2	1.9	0.4	69.6	30.4	100.0

제5절. 1인 가구 지속 의향 및 지원 요구

1. 생활 만족도 및 1인 가구 지속 의향

1인 가구로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9%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일 때 1인 가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연령이나 혼인상태만큼 크지 않았지만 여성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가 53.5%로 남성(49.6%)보다 좀 더 높았다.

〈표 Ⅻ-16〉 1인 가구 생활 만족도

(단위: 천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전체		839	2,683	3,805	7,327
		11.5	36.6	51.9	100.0
성별	남성	13.6	36.8	49.6	100.0
	여성	10.2	36.5	53.3	100.0
연령	30세 미만	0.2	22.1	77.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6	18.2	80.2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7.9	30.5	61.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2.2	35.8	52.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3.1	43.9	43.0	100.0
	70세 이상	20.0	47.0	33.1	100.0
혼인 상태	미혼	3.6	23.3	73.1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9.0	49.7	41.4	100.0
	이혼 또는 별거	17.0	41.6	41.4	100.0
	사별	16.5	45.4	38.0	100.0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80.9%가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72.1%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9% 정도 증가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86.2%)일 때, 연령대가 높을수록(60대 90.8%, 70세 이상 91.5%), 사별(92.8%), 이혼 또는 별거(85.5%) 상태일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것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Ⅻ-17〉 향후 혼자 살 계획 유무

(단위: 천명, %)

연도	구분		예	아니오	전체
2020년	전체		4,464	1,726	6,190
			72.1	27.9	100.0
2023년	전체		5,926	1,401	7,327
			80.9	19.1	100.0
	성별	남성	72.1	27.9	100.0
		여성	86.2	13.8	100.0
	연령	30세 미만	63.1	36.9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58.7	41.3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76.4	23.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79.6	20.4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90.8	9.2	100.0
		70세 이상	91.5	8.5	100.0
	혼인 상태	미혼	69.7	30.3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51.9	48.1	100.0
		이혼 또는 별거	85.5	14.5	100.0
		사별	92.8	7.2	100.0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80.9%를 대상으로 1인 가구로 계속 살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16.2%), '심리적 외로움'(15.7%) 순이었다. 한편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15.1%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어려움 없음'이나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여성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이나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어려움 없음'이나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50대 이상 중노년층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표 Ⅻ-18〉 향후 혼자 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천명, %)

구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사회적 편견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어려움 없음	전체
전체		961	932	195	486	2,403	52	897	5,926
		16.2	15.7	3.3	8.2	40.6	0.9	15.1	100.0
성별	남성	14.0	16.5	5.2	12.7	31.4	0.2	20.0	100.0
	여성	17.3	15.3	2.3	6.0	45.2	1.2	12.7	100.0
연령	30세 미만	13.6	14.0	3.3	16.3	17.2	-	35.7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0.5	14.6	6.8	12.4	18.1	-	37.8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12.8	22.8	8.3	7.9	27.0	2.8	18.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8.5	16.1	2.4	6.2	39.3	-	17.4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17.1	17.7	3.1	5.8	45.9	1.2	9.2	100.0
	70세 이상	18.0	12.4	1.3	7.8	53.5	0.9	6.1	100.0

향후 혼자 살 의향이 없다고 답한 19.1%를 대상으로 혼자 살지 않는다면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결혼'이 4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계획 없음'(17.5%), '가족과 합가'(14.6%)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결혼'이 58.0%로 유독 높은데 반해, 여성은 '시설 입소'나 '가족과 합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결혼'이 70%대로 뚜렷하게 높았다면, 50~60대 중년층은 '계획 없음', '가족과 합가', '동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70세 이상 노년층은 '시설 입소'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Ⅻ-19〉 향후 혼자 살지 않을 경우 계획

(단위: 천명, %)

구분		결혼	동거	공동 생활	가족과 합가	시설 입소	계획 없음	전체
전체		643	137	76	205	95	246	1,401
		45.9	9.8	5.4	14.6	6.8	17.5	100.0
성별	남성	58.0	9.3	3.2	11.8	1.9	15.9	100.0
	여성	31.1	10.4	8.1	18.1	12.8	19.6	100.0
연령	30세 미만	72.1	4.3	0.8	9.6	-	13.2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5.8	6.7	5.5	3.9	-	8.2	100.0

구분		결혼	동거	공동 생활	가족과 합가	시설 입소	계획 없음	전체
	40세 이상~50세 미만	54.9	7.2	12.1	12.1	3.8	9.9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14.1	21.9	8.9	25.2	1.5	28.3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6.8	16.0	3.8	26.8	9.2	37.4	100.0
	70세 이상	-	8.3	4.1	25.6	41.1	20.9	100.0

2. 지원 정책 욕구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물어본 결과,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이 13.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이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주택 안정 지원'이나 '가사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해, 여성은 '돌봄 서비스 지원'이나 '건강 증진 지원'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주택 안정 지원'이 60~70%로 뚜렷하게 높았다면, 40~50대 장년층은 '가사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 중노년층은 '돌봄 서비스 지원'이나 '건강 증진 지원'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혼의 경우 '주택 안정 지원'이 60% 정도로 뚜렷하게 높았다면, 유배우와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가사 서비스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별인 경우 '돌봄 서비스 지원'이나 '심리 정서적 지원'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순위로 응답률이 높았던 '주택 안정'과 '돌봄 서비스' 지원 정책 다음으로 2순위로 응답한 정책 욕구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17.3%로 가장 높아서,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서 보면 '주택 안정 지원'이 45.9%로 여전히 가장 높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2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건강 증진', '가사 서비스', '심리 정서적' 지원은 약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Ⅻ-20〉 1인 가구 지원 정책(1순위)

(단위: 천명, %)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 지원	계
전체		2,777	650	1,019	739	754	180	267	744	198	7,327
		37.9	8.9	13.9	10.1	10.3	2.5	3.6	10.1	2.7	100.0
성별	남성	46.1	8.1	9.4	12.3	8.6	2.1	4.1	7.7	1.7	100.0
	여성	32.9	9.3	16.7	8.8	11.3	2.7	3.4	11.6	3.3	100.0
연령	30세 미만	70.5	13.3	1.6	4.5	3.3	1.3	3.1	1.8	0.5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61.9	15.8	3.3	5.8	2.6	3.0	3.8	2.5	1.3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49.4	8.7	7.0	12.4	9.1	2.8	3.6	5.6	1.4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42.1	8.4	7.9	11.7	12.5	2.3	3.0	10.1	2.0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30.0	7.2	14.4	8.4	13.9	3.0	5.0	14.1	4.0	100.0
	70세 이상	14.6	5.6	28.9	14.3	12.7	2.1	2.8	15.1	3.9	100.0
혼인 상태	미혼	58.3	12.7	5.7	6.4	5.7	2.2	3.1	4.5	1.4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5.2	4.9	9.1	15.1	10.1	1.8	5.0	17.7	1.2	100.0
	이혼 또는 별거	41.5	6.2	8.5	12.2	10.4	2.4	5.9	10.7	2.4	100.0
	사별	16.2	7.1	25.5	12.0	14.8	2.8	2.8	14.5	4.3	100.0

〈표 Ⅻ-21〉 1인 가구 지원 정책(2순위)

(단위: 천명, %)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 지원	계
전체		586	1,208	735	957	924	408	693	1,006	472	6,995
		8.4	17.3	10.5	13.7	13.2	5.8	9.9	14.4	6.8	100.0
성별	남성	8.2	18.5	9.4	15.5	12.3	5.7	10.4	13.2	6.7	100.0
	여성	8.5	16.6	11.2	12.6	13.8	5.9	9.6	15.1	6.8	100.0
연령	30세 미만	13.6	33.6	3.0	8.3	6.5	11.1	12.8	10.5	0.6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16.3	29.7	4.2	9.6	8.7	5.2	13.3	8.1	4.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6.9	16.7	9.5	11.3	13.4	9.2	13.8	11.7	7.5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8.6	21.5	6.6	12.8	12.3	5.9	9.0	14.1	9.2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6.9	11.5	11.4	13.2	16.8	5.1	9.3	17.3	8.5	100.0
	70세 이상	4.4	8.4	18.0	19.5	15.0	3.6	6.8	17.3	6.9	100.0
혼인 상태	미혼	13.1	27.3	5.8	10.1	9.2	8.3	12.1	10.2	4.0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7.2	17.7	10.2	11.2	14.3	6.2	13.2	13.4	6.6	100.0
	이혼 또는 별거	6.2	16.4	13.1	11.9	14.1	4.3	7.4	15.6	11.0	100.0
	사별	5.1	7.8	13.8	18.6	16.6	4.3	8.8	18.0	7.1	100.0

〈표 Ⅻ-22〉 1인 가구 지원 정책(1+2순위)

구분		주택 안정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돌봄 서비스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여가문화 활동 지원	건강 증진 지원	고독사 및 장례 지원	계
전체		3,363	1,858	1,754	1,696	1,679	588	960	1,750	670	7,327
		45.9	25.4	23.9	23.2	22.9	8.0	13.1	23.9	9.2	100.0
성별	남성	54.0	25.8	18.3	27.1	20.4	7.6	14.0	20.4	8.1	100.0
	여성	41.0	25.1	27.3	20.8	24.4	8.3	12.5	26.0	9.8	100.0
연령	30세 미만	83.6	45.7	4.5	12.6	9.5	12.0	15.5	12.0	1.0	100.0
	30세 이상~40세 미만	77.1	43.6	7.3	14.8	10.8	7.8	16.2	10.1	5.9	100.0
	40세 이상~50세 미만	56.0	24.7	16.1	23.3	21.9	11.6	16.8	16.9	8.6	100.0
	50세 이상~60세 미만	50.4	29.0	14.2	24.0	24.2	7.9	11.6	23.6	10.9	100.0
	60세 이상~70세 미만	36.7	18.3	25.4	21.1	30.1	7.9	14.0	30.7	12.1	100.0
	70세 이상	18.8	13.6	46.0	32.8	27.0	5.5	9.2	31.5	10.5	100.0
혼인 상태	미혼	70.7	38.7	11.2	16.0	14.4	10.1	14.6	14.2	5.2	100.0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42.1	21.7	18.8	25.7	23.7	7.7	17.5	30.4	7.4	100.0
	이혼 또는 별거	47.6	22.2	21.2	23.8	24.2	6.6	13.0	25.9	13.1	100.0
	사별	21.0	14.4	38.6	29.5	30.5	6.8	11.2	31.6	11.0	100.0

XIII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요약 501
제2절. 2015년 이후 시계열 변화 52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30

제1절.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 요약

1. 응답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세대 구성은 2세대 가구 39.6%, 1인 가구 33.6%, 1세대 가구 25.1%이다. 가구 구성은 1인 가구가 33.6%로 가장 많고 부부+자녀 가구가 33.2%, 부부가구 24.3%이다. 2020년 제4차 조사와 비교하면 1세대 가구('20년 22.8% → '23년 25.1%, 2.3%p)와 1인 가구('20년 30.4% → '23년 33.6%, 3.2%p)는 늘어났고, 2세대 가구('20년 43.2% → '23년 39.6%, 3.6%p)는 감소하였다. 조사 가구의 가구원 수 평균은 2.2명이다.

가구원 특성에서 동거 가구원의 가구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본인 44.5%, 배우자 26.0%, 자녀 25.4%이며, 기타 동거인 중 비혼 동거로 응답한 경우는 0.1%이다. 전체 조사 가구 중에서 비동거 가족원이 있는 경우는 23.3%이며, 비동거 사유는 직장(취업) 54.5%,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10.8% 등으로 나타났다.

2.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주관적 '우리 가족'의 범위는 자녀(91.3%),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 90.6%), 부모(86.6%), 형제자매(71.9%) 순이다. 2020년 제 4차 조사 대비 자녀(5.9%p)와 배우자(7.1%p) 응답 비율은 증가하고 부모(-0.8%p) 응답 비율은 소폭 줄어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자녀와 배우자 등 좁은 범위의 가족 중심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가족은 혈연관계'(87.4%),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83.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동거여부 관계없음)'(79.0%),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72.8%),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67.8%),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를 보면 '혈연 관계'(20세 ~30세 미만 85.4%, 70세 이상 89.0%),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20세 ~30세 미만 77.6%, 70세 이상 81.2%),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20세 ~30세 미만 79.9%, 70세 이상 85.0%) 등 20대나 30대와 70세 이상의 응답 차이가 3.6%p에서 5.1%p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 구성의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여 주어지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동거 여부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방식과 가족 다양성에 대해 동의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을 보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47.4%),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34.6%),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31.9%),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29.7%),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28.1%),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22.1%),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입양하는 것'(20.0%)의 순이다. 비혼 독신, 이혼이나 재혼, 무자녀, 비혼 동거 등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혼 출산이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의 입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보인다. 삶의 방식과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인식 차이가 뚜렷한데 주로 20대와 30대의 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 격차를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20세 - 30세 미만 56.6%, 70세 이상 13.2%),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20세 미만 40.8%, 70세 이상 14.4%),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20-30세 미만 66.9%, 70세 이상 19.4%),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20-30세 미만 57.7%, 70세 이상 16.5%) 등이다. 2020년 제4차 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동의 비율이 높아져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20년과 대비하여 증가 비율이 큰 항목은 비혼 독신('20년 34.0% → '23년 47.4%, 13.4%p 증가)과 비혼 동거('20년 26.0% → '23년 39.1%, 13.1%p 증가)이다.

다양한 가족 의례 및 문화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루는 것'(58.9%),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루는 것'(58.5%),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55.2%), '가부장적 가족호칭의 개선'(45.2%),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35.1%)의 순이다. 대체로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다. 성별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남성 51.3%, 여성 59.1%, 7.8%p)과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남성 31.8%, 여성 38.3%, 6.5%p)에서 다른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다. 연령별 격차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20세-30세 미만 70.2%, 70세 이상 31.2%, 39.0%p),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20세-30세 미만 49.1%, 70세 이상 16.6%, 32.5%p), '가부장적 가족호칭 개선'(20세-30세 미만 57.1%, 70세 이상 25.6%, 31.5%p),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20세-30세 미만 67.7%, 70세 이상 42.7%, 25.0%p) 등이다. 2020년 조사 대비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을 제외한 항목에서 동의 비율 높아졌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20년 45.6%에서 2023년 55.2%로 9.6%p 증가하였다.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 4개 항목은 모두 동의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낮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33.6%), '가사는 주로 여성'(26.4%),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21.6%).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18.8%) 등 약 20%에서 34% 사이의 동의율을 보인다. 성별 응답 격차는 크지 않은 반면 연령별 응답 격차가 뚜렷하여 '가사는 주로 여성'의 경우 20세~30세 미만은 14.7%, 70세 이상은 45.0%가 동의하여 30.3%p 격차를 보인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4개 항목 모두 동의 비율이 높아졌다. '가사는 주로 여성'('20년 12.7%)은 동의 비율이 13.7%p 증가하였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20년 22.4%) 항목도 11.2%p 증가하여 가족내 역할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 인식이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관한 문항(5개)에 대한 동의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25.4%, '나이 든 부모 경제적 부양' 40.8%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책임 관련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은 '자녀 취업까지 책임'이 4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자녀 결혼 준비 비용 책임'(26.1%)이며, '자녀 결혼 이후에도 책임'(16.3%)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부모 부양과 부모의 자녀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있으나, 자녀 부양 책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든 부모와 동거'는 남성 28.5%, 여성 22.2%이며, '나이 든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은 남성 42.8%, 여성 38.9%로 남성의 동의 비율이 더 높다. 반면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을 보면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 책임'은 남성 26.4%, 여성 25.8%, '자녀 취업 시까지 책임'은 남성 45.0%, 여성 44.2%, '자녀 결혼 이후에도 돌볼 책임'은 남 16.2%, 여성 16.4%로 성별 동의 비율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별로는 어릴수록 부모 부양 책임과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면 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20년 조사('20년 '모시고 살아야 25.8%; '경제적 부양' 39.4%) 대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은 증가하여 '자녀 취업까지 책임'은 '20년 37.6%에서 '23년 44.6%로, '자녀 결혼 준비 비용 책임'은 '20년 16.8%에서 '23년 26.1%로, '자녀 결혼 이후에도 책임'은 '20년 9.8%에서 '23년 16.3%로 증가하였다.

자녀 및 자녀 양육 관련 6개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69.2%),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65.4%),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61.4%),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58.9%),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54.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45.3%)의 순이다. 이를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즐거움 등 긍정적 인식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 돌봄 부담 등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이나 부정적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은 20세에서 40세 미만인 경우 더 두드러진다. ‘자녀 양육은 경제적으로 부담’은 남성 64.3%, 여성 66.4%로 여성이 더 높고, 30세~40세 미만은 67.5%가 동의하여 전체(65.4%)보다 높았다. ‘자녀 돌봄은 힘든 일’의 경우도 남성 59.7%, 여성 63.2%이며, 연령별로는 20세 미만(66.7%), 30-40세 미만(66.4%), 20세 ~ 30세 미만(64.1%)로 40세 이상보다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다. 2020년 제4차 조사와 비교하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였고, 특히 긍정적 인식 동의 비율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인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은 12.0%p,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성’은 10.7%p가 증가하였고, 부정적 인식인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은 3.8%p, ‘자녀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음’은 4.8%p 증가하였다.

3. 가족 형성 및 변화

가구원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57.9%, 미혼 29.7%, 사별 7.9%, 별거·이혼 4.5%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 있음(남성 60.7%, 여성 55.1%)의 비율이 높고, 여성(26.2%)보다 남성(33.2%)의 미혼 비율이 높았고, 사별은 여성(13.4%)이 남성(2.3%)보다 11.1%p 높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부터 배우자 있음 비율 높아지며, 사별은 60세 이상부터 높아진다.

유배우자 중 혼인신고 하지 않음 비율은 1.2%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 계획 있음 57.7%, 없음 42.3%으로 나타나 2020년 조사(있음 70.3%, 없음 29.7%)와 비교하면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62.0%)이 여성(52.8%)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유는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가 28.0%로 가장 많고, ‘경제적인 이유’(25.7%),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2.6%)' 순이다.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는 남성(19.4%)과 여성(26.2%)의 차이가 뚜렷하여 여성이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적 이유' 비중('20년 31.0% → '23년 25.7%)은 낮아지고,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20년 18.6% → '23년 28.0%)와 '결혼제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20년 18.9% → '23년 22.6%)의 비중은 높아졌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이 더 높은데 경험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동거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29.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24.8%)이다.

4. 배우자와의 관계

1)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미, 의사소통

배우자와의 관계를 측정한 항목 중 2020년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2023년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79.0%, 83.1%로 2020년의 긍정 응답 비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2023년 조사 결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믿는다' 83.1%,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79.0%,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78.0%,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한다' 69.3%,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68.6%,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44.7% 였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23년 신규항목으로 측정한 배우자의 의미를 묻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79.0%,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78.2%,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79.7%,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79.1%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매우 낮았다.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맞벌이 여부별, 가족소득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혼인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응답자들 가운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자녀양육 동반자, 노년기 돌봄 동반자 등 돌봄을 함께 하는 존재라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배우자와의 의사결정 구조 및 역할·돌봄 분담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35.4%로 가장 많고, '1시간~2시간 미만' 31.4%, '30분 미만' 16.6%, '2시간 이상' 16.1%, '전혀 없음'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과 비교하여 부부간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이 긴 경향이 확인되었다.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5.2%, '보통' 30.2%, '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4.7%로 나타나 2020년과 비교할 때 '매우 만족+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3년에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자녀교육 41.5%, 투자와 자산관리 53.9%, 취업, 직장 이동 63.6%, 내부모 돌봄 60.7%, 배우자 부모 돌봄 64.3%로 2023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에 대한 결정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취업, 직장 이동에 대한 결정에서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부가 똑같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부의 가사수행 분담 및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한다는 응답은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63.9%,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64.7%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 45.9%, 가사노동 25.3%로 가사노동을 제외한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수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3년 소폭 증가하였다.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 하다는 응답은 가사노동 31.2%, 자녀

양육과 교육 26.7%로 나타났으며,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14.8%,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관계 14.0%로 2023년 조사에서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을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여성 응답자 가운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응답자 가운데,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의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가사노동,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4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불공평'(매우 불공평+약간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은 2023년 조사에서는 9개 돌봄 활동 중 함께 놀아주기나 책 읽어 주기, 생활습관 등 훈육을 제외한 항목 모두 아내가 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함께 놀아주거나 책 읽어주기, 생활 습관 등 훈육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일상생활 돌봄, 자녀 등하원/등하교,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등은 2020년, 2023년 모두 아내가 한다(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3.7%, '보통' 28.6%,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7.8%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2023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30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돌봄 분담에 대해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가족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응답자, 미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 가운데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6%, 11.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및 전반적 만족도

조사시점에서 최근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0.7%였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갈등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8%로, 2023년 조사에서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 충돌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들었다.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률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가장 낮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응답자가 비맞벌이 응답자에 비해, 가족소득별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응답자 가운데, 혼인기간별로는 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1순위)는 배우자의 생활습관 24.3%,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21.9%, 경제적 문제 18.8%, 자녀교육 문제 14.0%, 가사와 육아분담 6.7% 순으로 나타나 2020년 실태조사(1순위)와 일부 순위에 변동은 있었으나 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일부 순위에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배우자의 생활습관, 경제적 문제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60-70대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배우자의 생활습관, 경제적 문제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30-40대는 자녀교육 문제 꼽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기간별로는 혼인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응답자들 가운데 자녀교육 문제를 배우자와의 의견충돌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조사 시점에서 최근 1년간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4.0%,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96.0%로,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졌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0대 응답자, 맞벌이 응답자, 가족소득 '100~200만원 미만' 집단, 혼인기간 '1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행동유형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 42.6%, '그냥 참는다' 25.8%,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 18.1%,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 7.7%로 나타났으며, 202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주위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인 응답 경향은 유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그냥 참는다'는 응답률이 60-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집단에서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비맞벌이,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혼인기간 20년 이상, 자녀수 3명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66.2%, '보통' 29.8%, '불만족'(매우 불만족+대체로 불만족) 4.0%로 나타나 2020년 조사와 비교할 때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 이상 응답자 가운데, 맞벌이 응답자에 비해 비맞벌이 응답자 가운데 만족한다(매우 만족+대체로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1) 청소년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 1순위는 학업성적(24.5%)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문제(18.5%), 경제적 부담(16.8%), 게임이나 SNS 중독(3.9%), 대화 단절(3.4%),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3.4%), 생활습관(3.2%), 친구 관계(2.8%) 순으로 나타났다.

2)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부모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은 2020년 28.1%에서 2023년 48.3%로 20.2%p 상승하였다.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항에 대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은 2020년 아버지에 대해 25.2%, 어머니에 대해 49.2%에서 2023년 아버지에 대해 38.7%, 어머니에 대해 64.7%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동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의사결정

부모-자녀 간 민주적 의사결정 관련 가족의 일 전반, 자녀의 진학, 희망 진로에 대하여 결정할 시 평균적으로 부모 10명 중 7명은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였다.

2020년 조사와 비교 시, 부모 관점에서 자녀 의견을 존중한다는 비율이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해 결정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지'에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2020년 대비 12.5%p 상승했지만, '자녀의 진학 학교', '희망 진로(직업) 결정할 때' '그렇다'는 응답 비율 변화량이 각각 -3.4%p, -3.8%p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자녀의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응답 비율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부모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동의 비율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버지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동의 비율이 2020년 49.4%에서 2023년 68.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청소년 자녀 관점에서 '희망 진로(직업) 결정 시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응답 비율이 아버지에 대해 73.4%, 어머니에 대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4)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평일보다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간 평일 및 주말 하루에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응답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 평일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은 30분 미만(34.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주말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이상(34.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평일보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 평일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은 30분 미만(34.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주말 하루 함께 보내는 시간은 2시간 이상(38.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대체로 평일보다 주말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5)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전체 70.5%로 나타나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아버지에 대해 74.6%, 어머니에 대해 89.8%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6.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본 장에서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중 만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관점에서 본 성인 자녀와의 관계, 자녀관점에서 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상호도움 여부, 연락빈도, 관계 정도, 관계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성인 자녀의 상호 지원과 수혜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및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의 두 차례(2015년, 2020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적 도움과 가사, 가족원 돌봄 등 도구적인 부분에서의 상호지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성인 자녀에게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측면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율은 9.0%였으며,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이나 '가사 등 집안일 도움'에 대해서는 각각 14.8%와 20.1%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정서적 지원'의 경우 61.4%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이 6.4%로 가장 낮았으며, '가사 등 집안일 도움'(16.5%),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이 뒤를 이었다(32.7%).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절반을 넘는 63.0%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 및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응답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는 모두 5가지(기존의 4가지 문항+'23년 조사에서 추가된 1문항)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기준으로 집계한 응답결과에 대해서 부모의 응답을 살펴보면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3.67점),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3.52점),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3.22점)는 문항의 응답 결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및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되었으며, 4가지 문항에 대한 각각의 평균값이 2015년 조사 및

2020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조사에서 새롭게 살펴본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값은 3.52점이었다.

자녀를 대상으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폈을 때도 유사한 특성을 살필 수 있었는데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3.78점),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3.61점),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만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문항들의 응답결과 또한 2015년 및 2020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였다. 한편, 2023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73점이었다.

셋째, 비동거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접촉 빈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모의 응답과 자녀의 응답 간 어느 정도 유사성이 나타났다. 먼저, 부모에게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만나는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한 달에 한두 번(42.2%)’ 및 ‘일 년에 몇 번(35.0%)’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거의 매일(10.3%)’, ‘일주일에 한두 번(10.1%)’이 뒤를 이었다. 2.4%의 응답자는 따로 사는 성인 자녀를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전반적인 응답 양상이 2015년 및 2020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의 연락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모두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가운데(각각 41.1%와 43.6%) ’23년 조사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꼽은 비중이 절반 가까이(47.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한 달에 한두 번(26.3%)’, ‘거의 매일(19.4%)’ 순이었고, 1.3%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며 지낸다고 하였다.

만 25세 이상의 따로 살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 부모와의 접촉 빈도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배우자의 부모님’에 비해 ‘나의 부모님’과 만남이나 연락이 잦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으며,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만남보다는 연락이 잦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나는 정도는 ‘일 년에 몇 번’(48.1%)과 ‘한 달에 한두 번’(39.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8.0%), ‘거의 매일’(2.8%), ‘거의 하지 않음’(1.7%)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연락 정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및 2020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43.2%)과 ‘한 달에 한두 번’(35.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거의 매일’(9.2%)과 ‘일 년에 몇 번’(10.4)을 꼽은 이들도 10명 가운데 1명 꼴로 나타났다. 한편, 따로 사는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5%였다.

넷째,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5점척도)를 2015년 및 2020년「가족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2015년 조사의 평균(3.51점)에 비해 2020년 조사의 평균값(3.65점)이 0.14점 높았으며, 2023년 조사의 평균은 3.81점으로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0.30점, 2020년 조사에 비해서는 0.16점 높게 나타났다. 각각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은 2015년 조사에서 8.5%, 2020년 조사에서는 6.1%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3.4%로 낮아진 반면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의 구성비는 76.8%로 2015년(54.2%)이나 2020년 조사(63.2%)에 비해 높았다.

부모님과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를 2015년 및 2020년「가족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2015년 조사에 비해서는 2020년 조사가, 2020년 조사에 비해서는 2023년 조사에서의 평균점수가 조금씩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 만족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3.52점과 3.63점을 기록하였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3.82점으로 나타났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 관계 만족도 또한 각각 2015년(3.76점)과 2020년(3.90점)에 비해 2023년의 평균(4.04점)이 더 높았다.

'배우자의 아버지' 및 '배우자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결과 또한 2015년 및 2020년 조사에서의 평균에 비해 2023년 조사 결과(각각 3.61점과 3.63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족(=대체로 만족+매우 만족)'을 꼽은 비중 또한 이전의 조사에 비해 2023년 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전의 조사(2015년 및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부모님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부모님'에 비해 '나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70.6%와 47.5%), 이전에 조사 결과에 비해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 반면 '부모와 자녀들 공동부담'이나 '자녀들 전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만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2015년 및 202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관계 특성, 접촉 빈도, 관계 만족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유사한 양상을 띄는 가운데 이전의 조사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긍정 응답의 정도나 관계 만족도의 변화들을 종합했을 때 최근 조사 결과로 올수록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약간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7.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 설계

만 12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취업 여부는 취업이 61.3%, 미취업이 37.7%를 차지했으며, 2020년 조사 결과와 경향성이 유사하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부터 50대까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인 비율이 높았다. 취업자의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0.3%), 임시근로자(11.8%) 순이었다. 남성, 20대부터 40대까지,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같은 안정적인 고용 형태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 50대 이상,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 평균 근무시간은 40~52시간 미만이 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35~40시간 미만(22.9%), 52시간 이상(8.3%) 순이었다. 남성, 20대부터 50대까지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인 집단의 경우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이상 고학력 집단의 경우 40~52시간 미만의 전일제 법정 근로시간을 일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중졸이하 집단의 경우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경우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3년 조사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족생활뿐 아니라 개인생활까지 생활의 영역을 확대해 일과 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일과 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지만 2015년과 2020년에 비해 일과 가족생활 균형의 어려움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가족생활이 직장 일에 주는 지장보다는 직장일로 인한 개인,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3년 신규 조사한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의 평균점수가 2.68점으로 전체 7개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57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족생활뿐 아니라 개인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혼 배우자로 한정해 보면, 대체로 맞벌이의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 여성이 비맞벌이 여성에 비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만 12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가사 노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의 54.0%, 여성의 87.4%가 가사 노동을 한다고 답했고, 주당 참여 횟수와 회당 소요 시간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더 오래 가사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기혼 유배우자로 한정하면 남녀의 가사 노동의 불균형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 노동은 비맞벌이 여성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고 비맞벌이의 경우 부부의 가사 노동의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로 2020년 조사와 유사하였다.

가족 여가의 경우 2020년 조사와 동일하게 대체로 TV 또는 모바일콘텐츠/동영상/VOD 시청을 가장 많이 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추가했는데, 이에 대한 응답률이 평일에는 2순위, 휴일 3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특징도 발견되었다.

가족소득별 가족 여가활동 분포를 살펴보면, 평일에 비해 휴일의 가족 여가에서 소득수준별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졌는데, 외식, 여행/야외활동, 쇼핑,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주로 경제적 비용 지불이 필요한 활동의 경우 가족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보다 낮은 집단에 비해 활동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활동의 참여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30분 미만, 휴일에는 3시간 이상을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2020년 1~2시간 미만, 30~1시간 미만 순으로 높았던 결과와 비교할 때 가족여가의 경향성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020년과 코로나 19 이후 2023년의 차이로 보인다.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은 35.6%로, 20대부터 50대까지, 이혼·별거 혹은 미혼, 사별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0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 부족이 7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부재(17.0%)와 비용 부담(7.2%) 순으로 나타나 가족이 함께 할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 여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인 인식인 3개 문항의 동의 비율이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62.4%),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57.9%),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들과 더 친밀해졌다'(60.0%)로 60%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31.5%),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37.1%),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20.0%)와 같은 부정적 인식의 동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생애 설계 준비 정도는 2020년도 비교할 때 전체 항목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진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은퇴/노후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이 중간 수준인 3점(보통이다)을 넘지 못해서 대체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학력일수록 준비 정도가 비교적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가족형성과 관련한 20대 청년층의 준비 정도가 유독 낮았고,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여가뿐만 아니라 재무, 은퇴/노후설계 준비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9.2%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5년,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10% 이상 낮아졌다. 2023년 조사에서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0.3%,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38.0%로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40% 정도는 자원 부족으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 고연령층, 이혼·별거/사별, 중졸 이하 집단에서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노년기 빈곤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후에 지내고 싶은 곳으로,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이 아닌 '집에서'(74.9%)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75.5%)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30대에서 60대까지, 유배우, 고학력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반면, 20대 중후반과 70세 이상, 미혼/이혼·별거/사별, 학력이 낮을수록'나 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신규 조사한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면, 가족이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보미 18.4%,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민간돌보미/서비스 8.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 40대 이상 집단, 유배우자 집단에서 가족이 돌봐줄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고연령층, 미혼/이혼·별거/사별, 중졸이하 집단에서 공공서비스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8. 가족원 돌봄

본 장에서는 가족원 돌봄을 가구원의 돌봄, 취학 전 영유아 돌봄, 초등학생 돌봄, 함께

사는 가족 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가구원의 돌봄에서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비혈연 관계의 사람도 포함)을 장기적·지속적·정기적으로 돌보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2.6%가 '돌보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돌봄 대상은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었으며 돌봄 대상과 동거하는 비율이 60.4%였다.

둘째, 취학 전 영유아 돌봄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취학하지 않은 영유아가 주중 낮시간에 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79.7%로 나타났다.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63.9%로 가장 많았고,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 80.5%로 나타났다.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가 88.5%로 가장 많았고,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없는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14.4시간이었다. 영유아에게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가 49.9%를 차지하였고, 이는 2020년의 32.1%에 비해 17.8%p 증가한 수치이다. 평일 영유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4시~5시' 61.0%, '5시~6시' 59.6%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았다.

셋째, 초등학생 돌봄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초등학생이 방과 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이 75.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0년의 37.7%에 비해 37.5%p 증가한 수치이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은 '없음'이 47.4%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16.8%였다. 평일 초등학생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5시~6시' 61.5%, '4시~5시' 54.4%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았다.

넷째,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가구대표와의 관계로는 '가구대표 배우자'(34.5%), '가구대표 부모'(33.4%), '가구대표의 자녀'(16.1%), '배우자의 부모'(9.6%)가 포함되어 있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 39.2%, '자녀' 24.1%, '부모' 22.0%의 순이었고,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63.6%로 여전히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정책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가족지원서비스, 일·생활 균형정책에 대한 수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지원서비스 중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68.0%를 상회하여 높은 편이었고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와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28.4%, 42.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70세 이상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그리고 가족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알고 있는 비율이 42.7%, '가족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이 61.6%였다. 주로 연령이 30세 이상~50세 미만인 경우,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경우,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 가족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원서비스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높은 편이었다.

셋째,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이 16.0%로 가장 많았고, '가족관계 상담'(15.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13.7%), '생애주기별 부부교육'(13.6%),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13.6%),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교육상담 지원'(12.2%)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었다. 한편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 따라 희망하는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족관계 상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또한 혼인상태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미혼' 26.9%, '이혼 또는 별거' 41.1%, '사별' 38.8%로 '유배우'의 4.4%에 비하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생활 균형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25.2%,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17.1%, '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비율이 17.3%에서 25.2%로 약 7.9%p 증가하였다. 모든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다섯째,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75.3%,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74.2%, '1인가구에 대한 지원' 63.3%,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5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특히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동의수준이 2020년의 35.6%에서 2023의 52.0%로 약 16.4%나 증가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은 감소하였으며,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족소득에 따라 다양한 가족 정책에 대한 동의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한 동의수준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서는 41.5%인 반면 '초대졸 이상'에서는 57.7%로 큰 차이가 있었다.

10. 1인 가구

1인 가구 특성은 여성(62.3%)이 남성(37.7%)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52.8%, 30대 이하 2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이하 졸업이 66.3%이며, 가족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6.7%로 학력수준과 가족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 집중성이 뚜렷하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 112.5개월이며, 상대적으로 여성, 4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소득이 낮은 경우 혼자 생활한 기간이 길었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31.9%), 학업이나 직장(취업)(22.4%), 혼자살고 싶어서(14.3%), 본인 이혼(1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학업이나 직장취업(33.1%), 여성은 배우자 사망(43.0%)으로, 40대 이하에서는 학업이나 직장(취업), 50대는 본인 이혼(30.0%), 6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높아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은 배우자 52.9%, 부모 36.0%, 자녀 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부모(51.6%), 여성은 배우자(60.3%)와 가장 많이 살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까지는 93% 이상 부모와 함께 살았고, 40대는 부모(66.7%), 50대 이상부터 배우자와 함께 가장 많이 생활하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부모(92.5%)와 유배우, 이혼·별거, 사별의 경우는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살았다.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76.7%, 공적지원 12.9%, 자녀가 지원 7.3% 순으로 높았다.

30세 미만은 부모의 지원(18.3%) 비율도 확인되었고 70세 이상은 본인(43.1%), 공적지원(34.7%), 자녀가 지원(22.1%)을 통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공적지원과 자녀지원으로도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고, 고령층과 가족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공적지원과 자녀지원으로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식비 42.9%, 주거비 31.6%, 의료비 14.5% 순이었으며, 식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높았다. 성별, 연령별 모두 식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남성에 비해 15%p 더 높았고, 고령층,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비용 마련 주체는 본인 85.1%, 부모가 지원 10.1%로 주로 본인이 직접 마련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부모가 지원한 비율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9%p 더 높았고, 상대적으로 30대 이하의 부모 지원에 대한 비율이 40대 이상보다 월등히 높아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 지원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및 장기간 돌봄지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돌봄을 하지 않는다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중장년층에서 경제적 부양 및 돌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제적 부양 비율은 부양하지 않는다 93.5%, 부양 한다 6.5%로 나타났고, 부양 가족은 부모(58.7%), 자녀(34.0%), 배우자(16.4%) 순이다. 남성(10.0%)이 여성(4.4%)보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더 부양하고, 40대~50대에서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35.6%)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간 돌봄지원 비율은 하지 않는다 98.1%, 한다 1.9%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대상자는 부모(57.1%), 배우자(17.3%), 자녀(11.6%) 순이다. 40대~50대에서 가족에 대한 장기간 돌봄(8.6%)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인 가구가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 장기간 돌봄의 수혜비율은 받고 있지 않다 96.9%, 받고 있다 3.1%로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2.9%p 돌봄의 수혜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하에서는 돌봄의 수혜를 받지 않지만, 60대의 경우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이 2.2%, 70대 이상은 9.5%로 주로 자녀부터 돌봄 수혜를 받고 있었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42.6%)이 가장 컸고,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37.6%)이 두 번째로 컸다.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와 '고립 및 고독'의 문제는 3년 사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은 남성, 장년층과 고령층, 이혼·별거인 경우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24.6%가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답해 2020년(15.2%)보다 10% 정도 증가했고,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혼·별거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75.4% 중에서는 ‘친구’가 3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15.3%), ‘형제자매’(7.4%)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로서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9%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일 때 생활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좀 더 높았다.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80.9%가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2020년(72.1%)보다 9% 정도 증가했고,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별 및 이혼·별거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1인 가구로 계속 살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40.6%), ‘경제적 어려움’(16.2%) 순으로 높았고, 여성, 중노년층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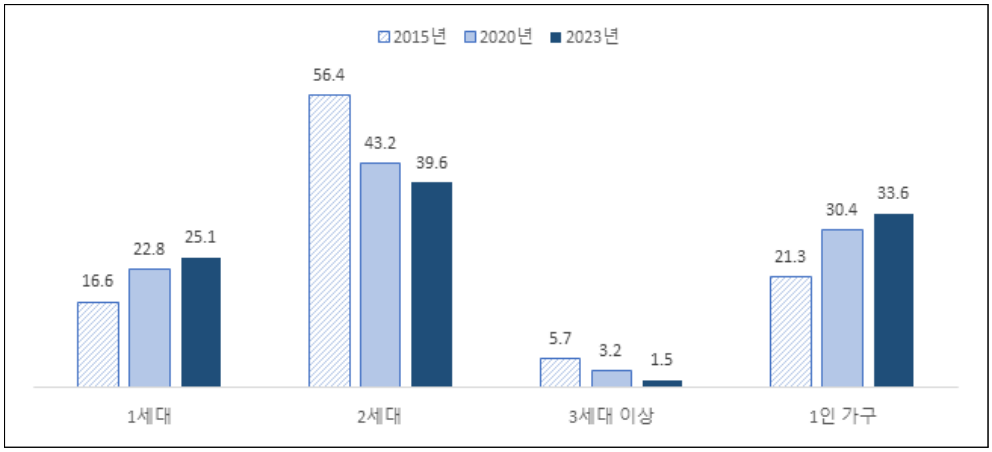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물어본 결과, ‘주택 안정 지원’(37.9%), ‘돌봄 서비스 지원’(13.9%) 순으로 높았고, ‘심리정서적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도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 미혼인 경우 ‘주택 안정 지원’이 뚜렷하게 높았다면, 남성, 장년층, 이혼·별거인 경우 ‘가사 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 중노년층, 사별인 경우 ‘돌봄 서비스 지원’과 ‘건강 증진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2절. 2015년 이후 시계열 변화[15)]

2015년 이후 시계열 변화는 세대 구성 변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첫째, 세대 구성 변화이다. 1세대 가구는 2015년 16.6%에서 2020년 22.8%, 2023년 25.1%로 증가하였다. 2세대 가구는 2015년 56.4%에서 2020년 43.2%, 2023년 39.6%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는 2015년 21.3%에서 2020년 30.4%, 2023년 33.6%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단위: %)



[그림 Ⅷ-1] 세대 구성(2015년, 2020년, 2023년)

둘째,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리 가족의 범위,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가족 의례와 문화, 성역할태도,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등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관적인 우리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부모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 2023년에는 자녀- 배우자(사실혼/비혼동거 포함)-부모 순으로 부모가 3순위로 변경되었다. 성별로는 2015년과 2020년에 남성은 부모-자녀-배우자 순이고, 여성은 자녀가 근소하게 많아 자녀-부모-배우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임을 시사한다.

---

15) 2015년과 2020년 수치는 통계청 KOSIS 집계표를 기준으로 제시함

〈표 Ⅻ-1〉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중복 응답)(2015년, 2020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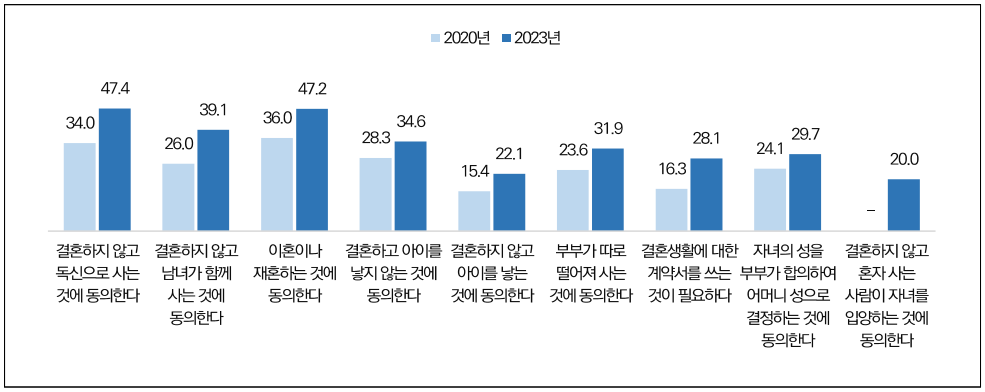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5년			2020년			2023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배우자	83.5	83.1	84.0	83.5	83.1	84.0	90.6	91.2	90.1
자녀	85.4	83.8	86.9	85.4	83.8	86.9	91.3	91.0	91.6
부모	87.4	88.8	86.0	87.4	88.8	86.0	86.6	87.5	85.6

주: 가족의 범위 보기 응답 배우자, 자녀, 부모만 비교함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변화는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였다[16]. 2020년 조사 대비 모든 항목에서 동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비혼 독신,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2020년 34.0%에서 2023년 47.4%로 거의 절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즉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20년 26.0% → '23년 39.1%)은 13.1%p 증가하였다.

(단위: %)



[그림 Ⅻ-2]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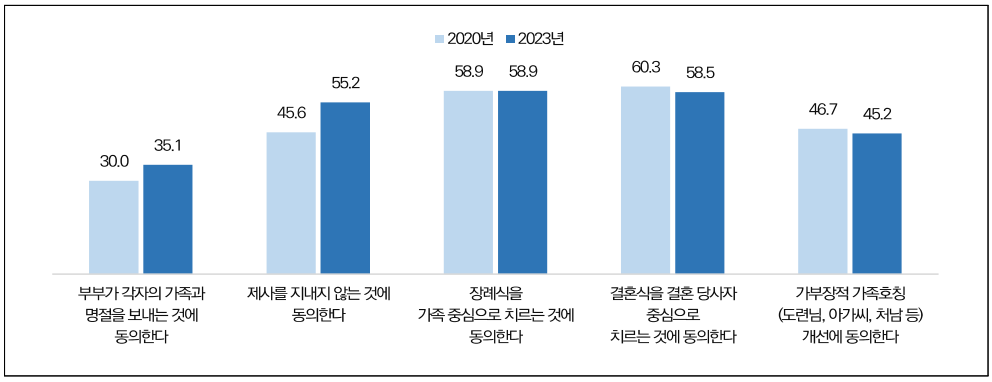
다양한 가족 의례 및 문화 관련 문항[17]에 대한 동의 비율은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16) 2015년에는 ~해도 괜찮다 또는 ~한다면 ~해도 괜찮다(예: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등) 등의 문항으로 조사함. 2020년에 조사문항을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되 유사한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함. 이에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함

17) 2020년 신규 개발한 문항임

중심으로 치르는 것'과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외 다른 항목에서 높아졌다. 동의 비율 증가 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20년 45.6% → '23년 55.2%, 9.6%p 증가)이다.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은 2020년 46.7%가 동의하였는데 2023년에는 45.2%로 1.5%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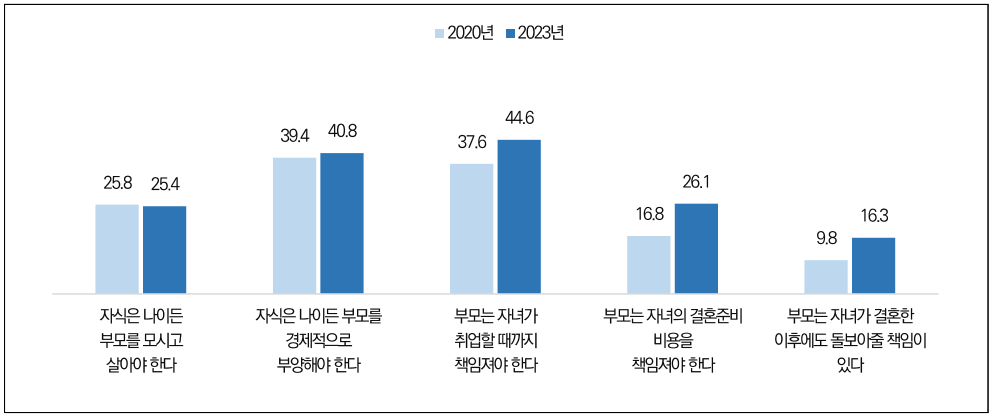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Ⅷ-3] 다양한 가족의례와 문화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에 관한 문항에서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나이든 부모 경제적 부양' 등 부모 부양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년 제4차 조사 대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반면 부모의 자녀 책임 관련 인식은 증가하여 '자녀 결혼 준비 책임'의 경우 9.3%p 증가하는 등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 인식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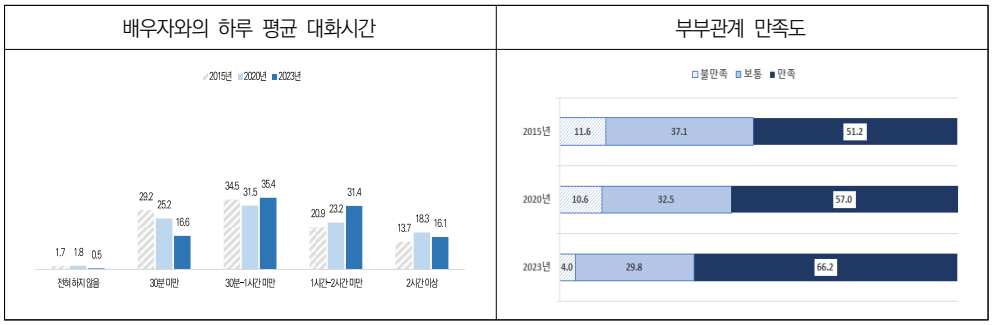


[그림 Ⅷ-4]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생각 -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셋째, 가족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 청소년자녀와의 관계, 성인 자녀와의 관계 주요 변화이다.

먼저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2020년 제4차 조사와 비교하여 '전혀 없음'과 '30분 미만'은 감소하고, '30분에서 2시간 미만'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대화시간이 늘어났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2020년 제 4차 조사 대비 '만족'(대체로만족+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이 9.2%p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Ⅻ-5] 배우자와의 대화시간과 부부관계 만족도(2015년, 2020년, 2023년)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대체로 만족+매우 만족)는 응답은 2015년 61.6%, 2020년 67.4%, 2023년 70.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3개년도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 입장에서 본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 만족도 역시 2015년, 2020년, 2023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전체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2015년 57.2%에서 2020년 65.6%, 2023년에는 69.9%로 상승하였다. 어머니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 역시 2015년 74.2%에서 2020년 79.6%로, 2023년에는 88.3%로 높아졌다.

〈표 Ⅻ-2〉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만족함' 비율-부모 관점(2015년, 2020년, 2023년)

(단위: %)

연도	전체	아버지(남성)	어머니(여성)
2015년	61.6	58.2	65.0
2020년	67.4	63.4	71.4
2023년	70.5	65.5	75.6

〈표 Ⅷ-3〉 부모와의 관계 '만족함' 비율 - 청소년 자녀 관점(2015년, 2020년, 2023년)

	아버지			어머니		
	전체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전체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2015년	57.2	59.1	55.2	74.2	73.4	75.2
2020년	65.6	66.5	64.6	79.6	79.0	80.3
2023년	69.9	67.4	72.6	88.3	85.5	91.3

부모 입장에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54.2%) 대비 2023년(76.8%)에는 22.6%p 증가하였다.

〈표 Ⅷ-4〉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불만족(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만족(대체로만족 +매우만족)
2015년	8.5	37.2	54.2
2020년	6.1	30.7	63.2
2023년	3.4	19.8	76.8

넷째, 가족 여가 시간은 2015년에서 2020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3시간 이상인 비율이 크게 늘어났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평일의 경우 3시간 이상이 9.1%로 2020년(20.8%)보다 11.7%p 감소하여,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평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일은 2시간-3시간 미만이 2020년 18.4%에서 2023년 24.9%로 늘어났고, 3시간 이상은 거의 비슷하여 휴일에는 가족과 보내는 여가 시간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Ⅻ-5〉 6개월 간 가족여가 시간(2015년, 2020년, 2023년)

(단위: %)

구분	연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일	2023년	20.5	26.0	29.6	14.7	9.1
	2020년	19.3	20.5	26.2	13.1	20.8
	2015년	18.8	27.8	27.6	11.3	14.4
휴일	2023년	9.8	6.8	19.4	24.9	39.2
	2020년	9.6	10.3	19.8	18.4	41.9
	2015년	8.1	13.1	21.5	18.2	39.1

다섯째, 1인 가구는 2020년 신규 개발된 문항으로 2023년과 2개년을 비교하였다.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2020년에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이 24.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순이었다. 2023년에는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많고 다음이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은 2020년과 2023년 모두 동일하게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이고 다음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롭다'는 2020년에 18.3%에서 2023년에 23.3%로 5.0%p 증가하였다. 또한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없음' 24.6%로 2020년 조사에서 '없음' 비율이 15.2%였던 것과 비교하여 9.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제4차 조사 대비 '없음'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늘어났는데 증가 폭이 높은 집단은 70세 이상('20년 14.2%, '23년 30.4%, 16.2%p증가), 이혼 또는 별거('20년 25.2%, '23년 38.6%, 13.4%p증가), 남성('20년 20.4%, '23년 31.3%, 10.9%p증가)이다.

〈표 Ⅷ-6〉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2020년, 2023년)

(단위: %)

항목	2020년	2023년
혼자 살고 싶어서	16.2	14.3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4.1	5.1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24.4	22.4
배우자의 사망	23.4	31.9
본인의 이혼	15.6	13.7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1.8	1.5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	4.9	4.0
부모자 자녀의 사망	4.0	3.5
자녀의 이혼	0.0	0.0
부모의 이혼	0.3	0.5
부모의 직장(취업)	0.4	0.8
기타	4.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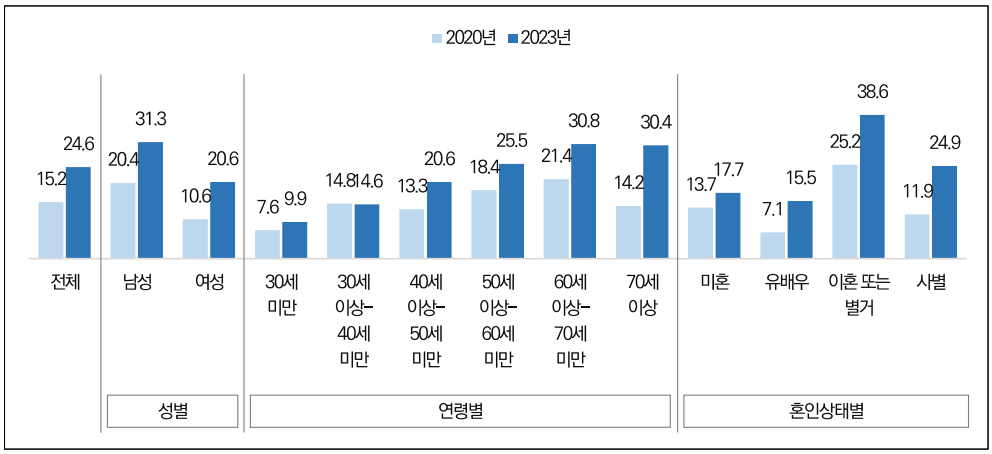
〈표 Ⅷ-7〉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 비율(2020년, 2023년)

(단위: %)

항목	2020년	2023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18.3	23.3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30.9	37.6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42.4	42.6
가사(식사준비, 주거관리, 장보기)등을 하기 어렵다	25.0	25.6
주거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11.5	10.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9.6	10.1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19.5	15.7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9.9	11.7

주: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의 합임

(단위: %)



[그림 Ⅻ-6]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 없음 비율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증가 대응 정책 필요

- 비혼 독신,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연령대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향후 가족 형성에서의 다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 확산 등 정책 추진 필요

-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후 대비나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아졌음. 한편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부정적 인식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20년 대비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어지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자녀 돌봄 분담 만족도,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가 상승함. 또한, 이혼이나 헤어짐을 고민한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은 주로 아내가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12세 미만 자녀 돌봄 역시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 성평등한 부부관계와 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 일·생활·돌봄 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확인됨.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짧고,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낮으며, 부부 간 가사수행을 공평하게 분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또한, '혼인기간 1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이혼 및 헤어짐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60-70대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 문제 발생 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중장년기, 노년기 배우자의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원하는 사업(예: 가족상담·교육 등) 확대 및 상호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임.
-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경험이 40대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았고, 30-40대, 혼인기간 5년 이상~20년 미만 응답자 가운데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의견충돌 이유(1순위)로 자녀교육 문제를 꼽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에서 영유아와 초등 자녀 돌봄은 여전히 부모가 주로 책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일·생활 균형 어려움 관련 개인생활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함

□ 2020년에 이어 2023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전반적인 구성은 사별에 의한 노년 1인 가구와 미혼의 청년 1인 가구가 비슷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혼·별거에 의한 중장년 1인 가구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이것은 1인 가구가 생애과정의 특정 단계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가구 형태가 아님을 보여줌. 즉 개인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다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보다 1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이 더 긴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이 같은 추세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는 기존 정책의 방향성을 개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주목되는 1인 가구의 변화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감,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임. 특히 남성, 중장년, 이혼·별거인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1인 가구 중 노인,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문제는 중앙부처를 통한 지원보다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지역별 1인 가구의 특성이 이질적임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1인 가구의 구성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중심의 대응으로 중앙부처를 통한 지원의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가 증가

- 20년 조사 대비 '알고 있음(조금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늘어나 그동안의 정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함

  ※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 '20년 45.0% → '23년 68.8%(23.8%p)
  아이돌봄서비스 : '20년 54.3% → '23년 68.7%(14.4%p)
  가족센터 : '20년 44.2% → '23년 61.6%(17.4%p)

□ 법에 명시된 1인 가구 생활 실태 분석이 가능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가족실태조사 표본 규모 확대가 필요함

- 1인 가구 가족실태조사는 2020년 제4차 조사에서 표본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고, 1인 가구 조사 영역이 신설 되어 17개 시도별 분석이 가능해졌고, 1인 가구 생활 실태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1인 가구에 대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석을 하기에는 표본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1인 가구의 경우 모집단 정보가 없어 표본 설계에 반영할 수 없고 표본 규모가 확대되어야만 하기 때문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김영란·최인희·주재선·김소영·배호중·박미진·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장은혜·유준오·이계오·장덕현·윤지은·신영미·허지원(2022). 『2023년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이진숙(2019). 『2020년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김혜영·홍승아·은기수·이명진·김영란·주재선·송치선(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영란·김소영(2014). 『제3차 가족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영란·주재선·김소영(2015). 『제3차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희금·송혜림·박정윤·권태희·김경화·김주현·김혜영·윤소영·윤진숙·이진숙·정민자(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통계청(2018).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pp.59~60. 인용.

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8.3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 (인출일자: 2019.8.2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12.20.).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792(검색일: 2019.2.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7.5.).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58(검색일: 2019.2.15.).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1.3.20.).

통계청(2019).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1.3.20.).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1.3.30.).

부 록

〈부록 1〉 조사표 537

〈 가구·가족원 명부 〉

H1 **현재 귀댁에 귀하를 포함하여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가구원은 혈연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이 거처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취학, 직장(취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귀하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의 경우는 일시적인 분거가 아니므로 '비동거(분거) 가족 수'에서 제외하고 응답

H1-1 동거 가구원 수			+	H1-2 비동거(분거) 가족 수			=	H1-3 합계		
		명				명				명

H2 **위에서 답변하신 현재 같이 살고 계신 모든 '가구 구성원'과 취학, 직장(취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H2-1(가구대표와의 관계), H2-6-2(비동거 사유), H2-7-2(조사 미완료 사유) 문항은 아래 **보기** 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H2-1	H2-2		H2-3		H2-4	H2-5	H2-6			H2-7				
	가구대표와의 관계	성별		취업 여부		장애인 복지 카드 (있을 경우 체크)	생년 / 생월 (주민등록 기준)	H2-6-1 동거 유무		H2-6-2 비동거 사유	조사 대상 여부 (해당되는 경우 체크)	H2-7-1 조사 여부			H2-7-2 조사 미완료 사유
	보기	남	여	취업	미취업			동거	비동거	보기		응답	불응	불능	보기
가구대표 (응답자 본인)	*1*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				
가구원2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3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4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5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6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7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8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9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가구원10		①	②	①	②	□	년 월	①	②		□	①	②	③	

보기

H2-1 가구대표와의 관계		H2-6-2 비동거 사유	H2-7-2 조사 미완료 사유	
			② 불응	③ 불능
1. 가구대표 본인	2. 배우자(사실혼 포함)	1.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21. 사생활 노출 기피	31. 장기 출타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2. 직장(취업)	22. 가정 사정(실업, 이혼 등)	32. 외국인, 장애, 고령 등
5. 부모	6. 배우자의 부모	3. 군입대	23. 바쁘거나 귀찮음	33. 사고, 질병 등
7. 손자녀	8. 손자녀의 배우자	4. 가족 간 불화(별거 등)	24. 조사기관·정부 불신	34. 코로나19(입원, 격리가구 등)
9. 조부모	10. 배우자의 조부모	5. 건강상 이유(요양 등)	25. 이유 여하 막론 거절	35. 기타( )
11. 형제자매	12. 배우자의 형제자매	6. 자녀교육 지원	26. 코로나19로 대면 기피	
13. 기타 친인척		7. 기타( )	27. 기타( )	
14. 기타 동거인 - 비혼 동거				
15. 기타 동거인 - 직장 동료 및 친구				
16. 기타 동거인 - 기타( )				

※ 기타 동거인 중 15, 16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에는 포함하여 작성하고, 조사대상자가 아니므로 가구원 조사표는 미작성

승 인 번 호
제154001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본 가구번호 | | | | | | |

실사 관리 NO. | | | | | |

2023년 가족실태조사 (가구대표용)[18]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에 따라 **전국**의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려면 응답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간(2023. 6. 1. ~ 2023. 7. 31.) 중에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전화문의(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30~17:30)
02-739-9489

홈페이지
http://www.23fam.gallup.co.kr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작성합니다.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0 1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건물명	동	호수
	0 0	0 0 0	0 0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응답 날짜	2023년 ( )월 ( )일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 )부 중 (1)부
조사표 작성방법	1 조사원 면접식 2 자기 기입식
에디팅 확인	1 완료 2 미완료
검증 확인	1 완료 2 미완료

구 분	(명)
전체 가구원 수	
조사 대상 가구원 수	
조사 완료 가구원 수	
조사 불응·불능 가구원 수	
조사 비대상 가구원 수	
만 12세 미만 가족 수	
기타 조사 제외 가구원 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

조사표 작성 요령

※ 조사대상은 만 12세 이상인 자로, 양력 2011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① 남자 ● 여자)
▣ 문자는 □칸 안에 정자체로 기입하고, 숫자는 오른쪽 칸에 맞추어 기입해 주십시오. (예: 1 회)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표시한 경우 (적을 것 : ____)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 넣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화살표를 따라 지정된 문항으로 가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연령별로 응답 문항이 다르므로 연령에 맞는 문항으로 가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주된 응답은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Ⅰ. 개인 관련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주민등록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년 □□ 월

3 귀하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정규 교육**: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력을 정규 교육으로 봄
☞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에도 '① 졸업'에 해당함

⓪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석사 과정
⑦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

18) 가구원용 조사표는 가구대표용 조사표에서 [Ⅰ. 개인관련사항 ~ Ⅶ. 정책에 대한 인식(문항번호 1~67번)]까지 동일하므로 가구대표용만 제시함

II.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4 **다음 중 귀하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포함되는 대상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귀하의 가족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 자녀
3 부모
4 배우자의 부모
5 형제자매
6 배우자의 형제자매
7 형제자매의 배우자
8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9 (아버지쪽) 할아버지, 할머니
10 (어머니쪽) 할아버지, 할머니
11 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 (큰아버지, 큰어머니, 고모, 고모부 등)
12 어머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 (이모, 이모부, 외삼촌, 외숙모 등)
13 조카(본인 조카, 배우자의 조카)
14 사위
15 며느리
16 (아들의) 자녀
17 (딸의) 자녀
18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19 기타(적을 것: _____)

5 **귀하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가족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됨)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④ 딸 ⑤ 아들 ⑥ 연인
⑦ 형제자매 ⑧ 친구 ⑨ 동료
⑩ 이웃 ⑪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⑫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⑬ 기타(적을 것: ____) ⑭ 의지할 사람 없음

7 **귀하는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가족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다양한 가족의례 및 문화'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가족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식을 결혼 당사자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부장적 가족 호칭(도련님, 아가씨, 처남 등 남성의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만 존칭하는 호칭) 개선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진술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의사 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돌봄(자녀, 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부모 부양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가족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 생각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자녀와 자녀 양육'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전반적으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득, 자산 직업 교육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응답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Ⅲ. 가족형성과 변화

13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미성년인 경우에도 현재 혼인 상태를 응답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13-1 귀하는 현재의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와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까?

☞ 결혼식, 혼인 신고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연월로 응답

□□□□ 년 □□ 월

13-2 귀하는 혼인 신고를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2-1 귀하는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2-2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이른 나이여서)
②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③ 경제적인 이유로
④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⑤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⑥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⑦ 가족이 반대해서
⑧ 기타(적을 것: _____)

13-2-3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	있다	없다	해당없음
1)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2)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4)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5) 재산 상속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1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따로 사는 미혼, 기혼자녀까지 포함하여 응답
☞ 현재 임신 중인 자녀와 사망한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

① 있음 → 14-1로

② 없음

14-1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와 사망한 자녀는 제외하고 응답

아들 [ ] 명 딸 [ ] 명

15 귀하는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 현재 미혼이거나 미성년인 경우 향후 계획을 가정하여 응답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응답

① 있음 → 15-1로

② 없음

③ 생각해 본 적 없음

15-1 몇 명을 (더) 가질 계획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응답

[ ] 명

16 귀하는 귀하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가족관계

Ⅳ-1. 배우자 관계

☞ 현재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고 그 외는 12페이지 29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17 귀하와 현재 배우자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구분	응답
1) 동거 여부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따로 살고 있음
2)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② 남편 외벌이
	③ 아내 외벌이
	④ 모두 일하지 않음

18 귀하와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배우자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부는 함께 하는 관심사나 취미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부는 각자가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부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배우자에 대한 다음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는 정서적 친밀감,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지지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상호부양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동반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배우자는 아프거나 노년기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보아주는 동반자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일 뿐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직접대화, 전화, 문자, SNS 등 포함)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21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하는 의사소통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2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 1)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자녀 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
☞ 4) 이미 은퇴하여 취업이나 직장 이동이 없는 경우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
☞ 6) 내 부모 또는 7)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는 경우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
☞ 9)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성인자녀가 없는 경우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

항 목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1) 자녀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투자와 자산 관리(금융, 부동산 등)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4) 취업, 직장 이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가사 등 집안일	①	②	③	④	⑤	
6) 내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7) 배우자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족 여가	①	②	③	④	⑤	
9)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생활비 지원, 손자녀 돌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3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 2)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자녀 교육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각각 '④ 해당 없음', '⑤ 해당 없음'으로 응답
☞ 3), 4)는 집안과 관련된 일들(부모와의 소통이나 가족모임, 제사, 혼례, 장례 등)을 생각하여 응답

항 목	23-1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23-2 배우자가 공평하게 일을 분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해당 없음	매우 불공평	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해당 없음
1)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자녀 양육과 교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4)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24 귀하는 만 12세 미만(양력 2011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음 → **24-1**

② 없음

24-1 귀댁에서는 다음의 자녀 돌봄 활동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 자녀 스스로 하거나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

항 목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1) 식사, 취침, 외출 준비,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플 때 돌봐 주기, 병원 데려가기	①	②	③	④	⑤	⑥
3) 숙제나 공부 봐주기 등 자녀 학습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4) 함께 놀아주기나, 책 읽어 주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녀 등하원/등하교	①	②	③	④	⑤	⑥
6) 교육(보육) 시설 관련 정보 습득, 비용 입금 등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7) 학교, 보육 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①	②	③	④	⑤	⑥
8) 학교, 보육 시설 등의 행사 참여, 방문, 봉사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⑥
9) 생활 습관 등 훈육	①	②	③	④	⑤	⑥

24-2 귀하는 현재 귀댁의 자녀 돌봄 활동 분담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25 귀하는 최근 1년간 배우자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① 있음

② 없음

25-1 갈등을 경험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가장 큰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내 부모/형제자매 관련한 문제
②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 관련한 문제
③ 배우자의 생활습관(음주/늦은 귀가/잔소리 등)
④ 자녀 교육 문제(학업 성적, 생활 방식 등)
⑤ 경제적 문제
⑥ 가사와 육아 분담
⑦ 내 부모 간병
⑧ 배우자의 부모 간병
⑨ 배우자의 성생활
⑩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가치관
⑪ 기타(적을 것: _____)

26 귀하는 최근 1년간 이혼이나 헤어짐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 하루, 이틀 정도의 갈등이 아닌 장기간 고민한 경우를 의미함

① 있음 ② 없음

27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① 그냥 참는다
②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③ 취미·놀이·술 등에 의존하여 잊어버리려고 한다
④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⑤ 주위 사람(다른 가족, 지인, 친구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⑥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⑦ 기타(적을 것: ____)

28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Ⅳ-2. 청소년 자녀(만 12세~25세 미만)와의 관계

☞ 자녀의 나이가 만12세~25세 미만(양력 1998. 6. 1. ~ 2011. 5. 31. 출생자)인 경우 작성하고,
그 외는 **14페이지** **35**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 만 12세~25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1월 1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29 1월 1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만 12세~25세 미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응답
1)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와 동거 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2)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의 생년월일	□□□□ 년 □□ 월

30 귀하가 평소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응답한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에 대해 주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경제적 부담 ② 학업 성적
③ 대화 단절 ④ 자녀의 이성 관계나 성 문제
⑤ 진로 문제 ⑥ 친구 관계
⑦ 생활 습관(음주, 흡연 등) ⑧ 게임이나 SNS 중독
⑨ 기타(적을 것: _____) ⑩ 없음

31 귀하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응답한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자녀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와 자주 다툰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응답한 생일이 가장 빠른 청소년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자녀에게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귀하는 평소 청소년 자녀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여가활동, 대화시간(비대면 포함), 인터넷(SNS 등)을 통한 교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단, 수면 시간 제외).

항 목	전혀 안 함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1) 평일	①	②	③	④	⑤
2) 주말	①	②	③	④	⑤

34 귀하는 현재 귀하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Ⅳ-3. 성인 자녀(만 25세 이상)와의 관계

☞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양력 1998. 5.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작성하고 그 외는 **15페이지** **40**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 25세 이상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1월 1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35 1월 1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응답
1)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와 동거 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2)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의 생년월일	□□□□ 년 □□ 월
4)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의 혼인 여부	① 기혼(이혼, 사별 포함) ② 미혼

36 귀하가 성인 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내용을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앞에서 응답한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36-1 성인 자녀에게		36-2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주고 있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도움을 받고 있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1)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①	②	①	②
2) 가사 등 집안일 도움	①	②	①	②
3)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①	②	①	②
4)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①	②	①	②

37 귀하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응답한 생일이 가장 빠른 성인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는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귀하가 따로 사는 성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없는 경우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

항 목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1) 만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2) 연락하는 정도(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SNS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9 귀하는 현재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Ⅳ-4. 청소년(만12세~25세 미만) 대상 부모와의 관계

☞ 본인의 나이가 만12세~25세 미만(양력 1998. 6. 1. ~ 2011. 5. 31. 출생자)인 경우 작성하고,
그 외는 16페이지 45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40 귀하의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① 예'로 응답
☞ 생물학적 친부모 이외 양부모도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① 예 ② 아니요 →18페이지 51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41 귀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항 목	41-1 아버지						41-2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과 자주 다툰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에게 화를 잘 내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2 귀하의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항 목	42-1 아버지						42-2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부모님은 가족의 일 전반에 대하여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고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희망 진로(직업)를 결정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3 귀하는 평소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식사, 여가활동, 대화시간(비대면 포함), 인터넷(SNS 등)을 통한 교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단, 수면시간 제외).

항 목	전혀 안 함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1) 평일	①	②	③	④	⑤
2) 주말	①	②	③	④	⑤

4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항 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 응답 후 18페이지 51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Ⅳ-5. 성인(만 25세 이상) 대상 부모와의 관계

☞ 본인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양력 1998. 5.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작성하고, 그 외는 **18페이지** **51**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45 귀하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은 살아 계십니까?

☞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네 분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① 예'로 응답
☞ 생물학적 친부모 이외 양부모도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① 예 →

45-1 귀하와 배우자의 부모님은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항 목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나와 따로 살고 계신다	살아 계시지 않는다 (해당 없음)
1) 나의 아버지	①	②	③
2) 나의 어머니	①	②	③
3) 배우자의 아버지	①	②	③
4) 배우자의 어머니	①	②	③

② 아니요 → 18페이지 **51**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46 귀하가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지 않으면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해당 없음
1) 나의 부모님과 만남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의 부모님과 연락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의 부모님과 만남의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4) 배우자의 부모님과 연락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47 귀하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과의 관계에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지 않으면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47-1 나의 부모님						47-2 배우자의 부모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나는 부모님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8 귀하가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는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지 않으면 '③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48-1 나의 부모님					48-2 배우자의 부모님				
	48-1-1 주고 있음		48-1-2 받고 있음		해당 없음	48-2-1 주고 있음		48-2-2 받고 있음		해당 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경제적 도움(생활비, 정기적 용돈 등)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2) 가사 등 집안일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3) 가족원 돌봄(손자녀 돌봄, 병간호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4) 정서적 지원(말벗, 고민상담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49 귀댁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은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지 않으면 '⑤ 살아 계시지 않는다(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자녀(들)가 전적으로 부담	부모님과 자녀(들)가 공동으로 부담	부모님 스스로 해결	기타	살아 계시지 않는다 (해당 없음)
1) 나의 부모님	①	②	③	④ (____)	⑤
2) 배우자의 부모님	①	②	③	④ (____)	⑤

50 귀하는 현재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과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나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지 않으면 '⑥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되, 양부모를 부모님으로 생각하면 포함하여 응답
☞ 배우자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를 모두 포함함

항 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나의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의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3) 배우자의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4) 배우자의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V. 일

51 귀하는 지난 일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다면 '① 일했다'로 응답

① 일했다
②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음
③ 일하지 않았다 →19페이지 55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52 귀하의 고용 형태(종사상 지위)는 어떠하십니까?

① 상용 근로자
② 임시 근로자
③ 일용 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 고용 계약기간(근속기간이 아님)에 따라 구분합니다.

① 상용 근로자: 1년 이상
② 임시 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53 귀하는 최근 6개월(2022. 12. 1. ~ 2023. 5. 31.)동안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① 15시간 미만 ②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 ③ 3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④ 49시간 이상~52시간 미만 ④ 49시간 이상~52시간 미만

54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다음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일터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장 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내 삶에서 일과 생활(가족/개인생활)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Ⅵ. 가족생활과 노후 생애설계

55 귀하는 댁에서 다음의 집안일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주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소요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가사 노동에 참여한다	주 평균 횟수			1회 평균 소요 시간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1) 음식 준비(음식 만들기, 상차리기, 설거지, 식후정리 등)	①			회				분	②
2) 의류 손질 및 세탁(손빨래,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꺼내기, 빨래 널고 걷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①			회				분	②
3) 청소 및 정리(청소 및 정리, 쓰레기 버리기, 분리수거 등)	①			회				분	②
4) 상품 및 서비스 구입(슈퍼마켓/대형마트/전통시장 쇼핑 및 온라인 쇼핑 등)	①			회				분	②
5) 주거 및 기타 가정 관리(가전제품 및 주택/주거 관리,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차량관리 등)	①			회				분	②

56 귀하는 최근 6개월(2022. 12. 1. ~ 2023. 5. 31.)동안 함께 사는 가족 또는 따로 사는 가족이 있습니까?

☞ 함께 사는 가족 또는 따로 사는 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 '② 아니요'에 응답

① 예 →

56-1 귀하가 가족과 함께 한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가장 자주 한 여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평일		
휴일		

보기

① TV 또는 모바일 콘텐츠/동영상/VOD 시청
② 문화 예술(영화, 미술관 등)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③ 게임
④ 쇼핑
⑤ 외식
⑥ 산책
⑦ 스포츠 활동(등산 포함)
⑧ 여행, 야외활동(놀이공원 가기, 캠핑 등)
⑨ 종교 생활
⑩ 목욕/사우나/찜질방 가기
⑪ 함께 독서하기
⑫ 기타(적을 것: _____)
⑬ 하지 않음

② 아니요 → 다음 페이지 59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57 최근 6개월(2022. 12. 1. ~ 2023. 5. 31.)동안 귀하가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얼마입니까?

항 목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평일	①	②	③	④	⑤
주말	①	②	③	④	⑤

58 최근 6개월(2022. 12. 1. ~ 2023. 5. 31.)동안 귀댁에서 가족이 함께한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하다

② 충분하지 않다

58-1 가족과 함께 보낸 여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일이 바빠서, 자녀의 학업 등으로)
②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
③ 가족이 함께할 만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④ 가족이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⑤ 돌봐야 하는 환자, 노인, 장애인,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⑥ 기타(적을 것: _____)

59 귀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과 여가를 함께 한 후 가족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과의 여가활동으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과 여가활동으로 가족(부모, 형제자매)들과 더 친밀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과의 여가활동 후 피로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원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본인**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양력 1998. 5.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만 작성**하고,
만 25세 미만(양력 1998. 6. 1. 이후 출생자)인 경우 24페이지 **68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6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각 내용에 대해 '생애 설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생애 설계'란 앞으로의 생애 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함

항 목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준비하고 있다	매우 준비하고 있다	해당 없음
1) 결혼 계획과 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녀계획(출산,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직업 계획과 준비	①	②	③	④	⑤	⑥
4) 여가 설계	①	②	③	④	⑤	
5) 재무 설계	①	②	③	④	⑤	
6) 은퇴/노후 설계	①	②	③	④	⑤	

61 귀하는 노후에 어디서 지내고 싶습니까?

① 집 →

61-1 누구와 지내고 싶습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나 혼자
②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와 함께
③ 자녀와 함께
④ 친구와 함께
⑤ 반려동물과 함께
⑥ 기타(적을 것: _____)

②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62 귀하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62-1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교직원, 군인 포함)
3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4 퇴직금/퇴직연금
5 예금, 적금	6 부동산 운용
7 주식, 채권	8 기타(적을 것: ____)

② 아니오 →

62-2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③ 준비할 능력이 없다
④ 자녀에게 의지할 것이다
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⑥ 기타(적을 것: _____)

63 귀하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 때 일상생활을 누구에게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가족(배우자, 자녀 등)
② 지인(이웃, 친구 등)
③ 공공돌보미(요양보호사 등)
④ 민간서비스(배달서비스,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⑤ 돌봄/일상생활지원 로봇
⑥ 기타(적을 것: _____)
⑦ 도와줄(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⑧ 생각해본 적 없다

Ⅶ. 정책에 대한 인식

64 귀하는 다음의 가족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전달 기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모른다	조금은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③
2) 공동육아 나눔터	①	②	③
3)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①	②	③
4)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①	②	③
5)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①	②	③
6)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②	③

1)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보육, 놀이 등)
2)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별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구성·확산 및 자녀 양육 경험과 정보 교류 지원
3) 양육비이행 지원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4)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5)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경제적, 심리 정서적,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가족 및 사고·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위기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6)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사회에서 모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65 다음은 지역 사회 가족지원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입니다.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
② 가족 관계 상담(부부, 부모-자녀 등)
③ 생애주기별 부부교육
④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⑤ 주거지 인근에 공동육아나눔터 제공
⑥ 평등한 육아·가사 지원 프로그램(남성 육아지원)
⑦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⑧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6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초과 근로 시간의 단축
②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③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④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⑤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확산
⑥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⑦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⑧ 기타(적을 것: _____)
⑨ 잘 모르겠음

67 귀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법률혼 이외의 혼인(사실혼, 비혼 동거)에 대한 차별 폐지	①	②	③	④	⑤
2)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미혼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Ⅷ. 가족 돌봄

Ⅷ-1. 가구원의 돌봄

68 귀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 단기간에 종료될 수 있거나, 1회성 및 돌봄 소요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의 돌봄은 해당되지 않음
☞ 장애가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비혈연(친구, 애인, 직장동료 등) 관계의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

① 있음 →

② 없음

68-1 귀하가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나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나의 조부모 ⑥ 배우자의 조부모
⑦ 나의 형제자매 ⑧배우자의 형제자매
⑨ 기타(적을 것: _____)

68-2 귀하는 돌보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습니까?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따로 살고 있음
③ 요양원 등 시설에 있음

69 귀댁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2인 이상입니까?

① 예 →

69-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취학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6페이지 73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② 아니요(혼자 살고 있음) → 27페이지 78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Ⅷ-2. 취학 전 영유아 돌봄

☞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1월 1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영유아만**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70 귀댁의 영유아가 주중 낮 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습니까?

① 있음

70-1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② 유치원
③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 학교, 유아 스포츠단 등)
④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⑤ 기타(적을 것: _____)

70-2 위의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이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이의 아버지
② 아이의 어머니
③ 아이의 친조부모
④ 아이의 외조부모
⑤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서비스)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기타 (적을 것: ____)
⑪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② 없음

70-3 이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이의 아버지
② 아이의 어머니
③ 아이의 친조부모
④ 아이의 외조부모
⑤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 (정부지원서비스)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기타 (적을 것: ____)
⑪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70-4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평일 일평균 [ ] 시간

71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주로 돌봐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이의 아버지
② 아이의 어머니
③ 아이의 친조부모
④ 아이의 외조부모
⑤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기타(적을 것: _____)
⑪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72 평일 중 영유아 재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오전 6시~7시	2 오전 7시~8시	3 오전 8시~9시	4 오전 9시~10시
5 오전 10시~11시	6 오전 11시~12시	7 오후 12시~1시	8 오후 1시~2시
9 오후 2시~3시	10 오후 3시~4시	11 오후 4시~5시	12 오후 5시~6시
13 오후 6시~7시	14 오후 7시~8시	15 오후 8시~9시	16 오후 9시~다음 날 6시

Ⅷ-3. 초등학생 돌봄

☞ 초등학생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초등학생만**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7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다음 페이지 77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74 이 어린이는 방과 후에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① 학원
② 초등돌봄교실
③ 지역아동센터
④ 방과 후 아카데미
⑤ 집에서 지냄(주로 보호자 있음)
⑥ 집에서 지냄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미성년 형제자매끼리 있음)
⑦ 기타(적을 것: _____)

75 이 어린이가 방과 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

76 평일 중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오전 6시~7시	2 오전 7시~8시	3 오전 8시~9시	4 오전 9시~10시
5 오전 10시~11시	6 오전 11시~12시	7 오후 12시~1시	8 오후 1시~2시
9 오후 2시~3시	10 오후 3시~4시	11 오후 4시~5시	12 오후 5시~6시
13 오후 6시~7시	14 오후 7시~8시	15 오후 8시~9시	16 오후 9시~다음 날 6시

Ⅷ-4. 함께 사는 가족 돌봄

77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음

77-1 돌봄이 필요한 사람(돌봄 대상자)은 누구이며 누가 주로 그 사람을 돌봅니까?

가구원 번호 (H2 응답기준 조사원이 작성)	77-1-1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H2-1 응답 기준)	77-1-2 주로 돌보는 사람 (보기 에서 선택)	77-1-3 주로 돌보는 사람의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① 남성 ② 여성
			① 남성 ② 여성

보기

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②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녀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자녀의 배우자
④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⑤ 돌봄이 필요한 사람 배우자의 부모
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손자녀(배우자 포함)
⑦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⑧ 간병인
⑨ 기타(적을 것: _____)

77-2 귀하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부부 간 갈등 ② 형제자매 간 갈등 ③ 기타 가족 간 갈등
④ 경제적 어려움 ⑤ 직장 생활의 어려움 ⑥ 신체적 고단함
⑦ 정신적 스트레스 ⑧ 기타 ⑨ 어려움 없음

→ 응답 후 30페이지 92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② 없음 → 30페이지 92 번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Ⅸ. 1인 가구

78 1인 가구로 생활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79 현재 1인 가구가 되기 직전에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1 배우자 2 자녀 3 자녀의 배우자
4 부모 5 배우자의 부모 6 조부모
7 배우자의 조부모 8 형제자매 9 형제자매의 배우자
10 기타 친인척 11 기타 동거인

80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혼자 살고 싶어서 ②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③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④ 배우자의 사망으로
⑤ 본인의 이혼으로 ⑥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⑦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⑧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⑨ 자녀의 이혼으로 ⑩ 부모의 이혼으로
⑪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⑫ 기타(적을 것: _____)

81 귀하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부모가 지원
③ 자녀가 지원 ④ 공적 지원(기초생계급여 등)
⑤ 기타(적을 것: _____)

82 다음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식비 ② 의류비 ③ 주거비
④ 의료비 ⑤ 교통·통신비 ⑥ 경조사비
⑦ 교육비 ⑧ 기타(적을 것: _____)

83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부모가 지원
③ 자녀가 지원 ④ 기타(적을 것: _____)

84 귀하는 따로 사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까?

① 예 → **84-1**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그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② 아니요

1 배우자	2 자녀	3 자녀의 배우자
4 부모	5 배우자의 부모	6 조부모
7 배우자의 조부모	8 형제자매	9 형제자매의 배우자
10 기타 친인척		

85 귀하는 따로 사는 가족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돌보고 있습니까?

☞ 장애가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간병 및 요양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① 예 → **85-1** 돌보고 있는 그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② 아니요

1 배우자	2 자녀	3 자녀의 배우자
4 부모	5 배우자의 부모	6 조부모
7 배우자의 조부모	8 형제자매	9 형제자매의 배우자
10 기타 친인척		

86 귀하는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장기간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 **86-1** 귀하를 돌봐주고 있는 그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② 아니요

1 배우자	2 자녀	3 자녀의 배우자
4 부모	5 배우자의 부모	6 조부모
7 배우자의 조부모	8 형제자매	9 형제자매의 배우자
10 기타 친인척		

87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현재 귀하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사(식사 준비, 주거 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8 귀하는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 **88-1**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요

① 부모 ②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③ 자녀 ④ 연인
⑤ 형제자매 ⑥ 친구
⑦ 동료 ⑧ 이웃
⑨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⑩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⑪ 기타(적을 것: _____)

89 귀하는 현재 1인 가구로서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90 귀하는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90-1 1인 가구로 계속 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심리적 외로움
③ 사회적 편견
④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⑤ 질병, 건강 악화 시 돌봄
⑥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⑦ 기타(적을 것:_____)
⑧ 어려움 없음

② 아니오 →

90-2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① 결혼
② 동거
③ 친구, 지인, 동료 등과의 공동생활
④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합가
⑤ 시설 입소(요양병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양로원 등)
⑥ 기타(적을 것: _____)
⑦ 계획 없음

91 다음은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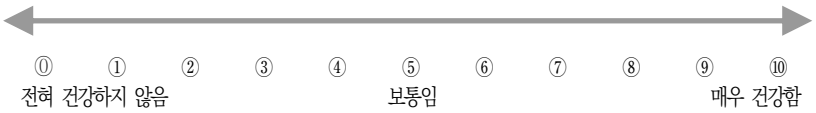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주택 안정 지원(1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②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③ 돌봄 서비스 지원
④ 가사 서비스 지원
⑤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⑥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공유 부엌, 동아리 활동, 지역커뮤니티 등 1인 가구 연대 활동 지원)
⑦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⑧ 건강 증진 지원
⑨ 고독사 및 장례에 대한 지원

X. 가구 특성

92 귀하 가정의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의 건강성: 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의 가구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상태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건강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건강함

93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적을 것:_____)

94 점유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자기 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⑤ 무상(사택, 관사 등)

95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동안 가족 전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1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2 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3 자녀의 근로 및 사업 소득
4 부모의 근로 및 사업 소득
5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지원 소득
6 부동산 임대소득
7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8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9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10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공공부조)
11 퇴직금
12 전배우자의 지원 소득(양육비 등)
13 기초연금
14 기타(적을 것 : _____)

95-1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동안 자고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함께 사는 가족 월평균 소득: 세금 공제 전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 등의 합계)을 의미하며,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
☞ 따로 사는 배우자(주말 부부)가 있을 경우 포함하여 응답

월평균 [ ][ ][ ][ ] 만원

96 최근 1년(2022. 6. 1. ~ 2023. 5. 31.)동안 가족 전체의 월평균 지출은 얼마입니까?

☞ 함께 사는 가족 월평균 지출: 식비, 의류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전체 생활비와 부모 부양비, 사회보험료, 세금 등 가계지출 모두 포함

월평균 [ ][ ][ ][ ] 만원

97 현재 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나쁜 편이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성 명		(답례품 인수 서명)
	전화번호	① 집 ② 핸드폰 □□□ - □□□□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 답 날 짜		2023년 □ 월 □□ 일	
응 답 시 간		① 오전 ② 오후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총 □□ 분간 응답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23년 12월 18일 인쇄
2023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1211-14